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710-01

2018년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용역보고서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2018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710-01

2018년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용역보고서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2018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2018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201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8. 11. 28.

수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01	2018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총괄보고	
	1. 사업개요	9
	2. 세부사업추진내용	14
<hr/>		
02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실태 모니터링	17
	참조1. 놀권리 설문지	63
	참조2. 아동인권 인지도 사전·사후 설문지	67
<hr/>		
03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권역별 코디네이터 결과 보고내용(취합)	81
	강원지역	92
	경기지역	100
	경남지역	110
	경북지역	124
	서울지역	132
	전남지역	140
	전북지역	152
	제주지역	158
	충남지역	164
	충북지역	170
<hr/>		
04	제언	175
<hr/>		
05	부록	
	1. 모니터링단 월별 활동보고서	183
	2. 모니터링단 소감문	347

01

2018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총괄보고

1. 사업개요
2. 세부사업추진내용

I.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필요성

가. 아동 참여권 보장의 필요성

아동¹⁾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 ‘참여권’은, UN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4대 권리에 포함되는 영역으로서 나날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하나의 권리로 천명하면서 아동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세계 발전을 위한 초석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여권의 보장은 아동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영역 모두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사회 내에서 아동 참여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다. 대한민국이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지 2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사결정과정에는 기성세대들에게 있어 아동이란 훈육과 통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여겨질 뿐이다. 실제로 2010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아동·청소년 정책을 수립할 때에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설문에서는 각각 31.7%와 16.1%의 설문 참여자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²⁾ 국제조약과 법조문의 형식으로 그럴듯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생각되었던 아동의 참여권이, 정작 권리 주체에게는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러한 실태의 심각성을 증명하듯 한국 아동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60.3점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UNICEF 행복지수 모델에 따른 아동의 주관적 행복도 역시 타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상황이다.³⁾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들의 행복감이 저조한 실정은, 아동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렇다면 한국사회 내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할까. 무엇보다도 강력한 방법은 권리 주체가 스스로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아동권리 실태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동권리의 보장이 ‘아동 참여권의 보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끌어지는 과정이야말로 실질적인 아동권리의 신장을 도모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현실에 대해 쉽게 진단하기 어려운 현행 사회체계를 극복하여, 아동 스스로 자신의 눈높이에서 유의미한 의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이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실제로 적용되어 아동의 삶의 질 개선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이 기본권과 주권을 지닌 헌법상의 국민임을 상기할 때에, 아동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교육하고 그 권리를 발현할 수 있

1) 본 결과보고서에서 지칭하는 ‘아동’이란 「아동복지법」과 「UN아동권리협약」에서의 규정과 동일하게, 만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김영지 외 1인,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 V 2010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자료집: 발달권·참여권」,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p.158

3) 보건복지부,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p.4

는 장을 제공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사업이 추진했던 “모니터링”의 방식은 그러한 과제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다.

나. 전반적 아동권리 증진의 필요성

UN아동권리협약이 1989년 UN총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후, 대한민국 역시 1991년 11월 20일에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를 비준했다. 하지만 상기했듯 아동학대, 아동 성범죄, 학교폭력, 교육의 불평등, 빈부격차 등의 요인들로 인해 아동 삶의 만족도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작금의 시대에,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아동권리 영역에 사회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은 컸다.

다. 아동권리실태 개선을 향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우리나라 아동의 의견이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유의미한 정도로 투입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물론 ‘대한민국 아동총회’와 ‘청소년 참여위원회’등의 사업은 각각 아동과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들에서 드러나는 아동의 욕구가 실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는 극히 적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 주도적 차원을 넘어, 권리 주체가 “스스로” 자기 주위의 권리 실태를 점검·개선하는 형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했다. 아동을 단순히 보호와 훈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여겼던 그간의 정책 관점에서 벗어나, 아동 역시 그들이 처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로서 인정해야 한다. 본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은 그러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사업목적

- 가. 아동권리 관련 주제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당사자의 권리주체성을 강화한다.
- 나. UN아동권리협약 12조에 입각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권리주체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다. 아동들이 자신 주변의 문제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권의식을 함양한 민주적 세계시민을 양성한다.
- 라. 지역 사회적·국가적 아동권리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한국의 아동권리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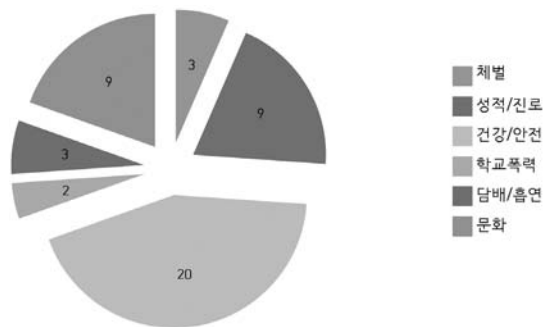
3. 모니터링 주제

아동인권과 관련하여 당사자 모니터링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 본 협의회가 가진 강점은 명확히 드러났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아동의 권리 옹호와 참여권 실현을 위하여 매년 ‘대

한민국 아동총회’를 개최해 왔다. 지역대회를 거친 전국의 아동들이 모여 아동권리를 공부하고, 나아가 한국사회에 필요한 아동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아동총회야말로 권리주체의 의견을 모아내는 선도적인 사업이다.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의 주제는 아동이 가장 필요성을 느끼는 분야에 대하여 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협의회는 그간 ‘대한민국 아동총회’의 결의문⁴⁾들을 분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아동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아동권리 개선의 영역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주제에 반영하고자 했다.

역대 아동총회 결의문에서 유의미하게 등장한 키워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역대 채택 결의문 상에서 체벌 관련 키워드는 총 3회, 성적과 진로 관련 키워드는 9회, 건강과 안전 관련 키워드는 20회, 학교폭력 관련 키워드는 2회, 흡연 및 담배 관련 키워드는 3회, 문화 관련 키워드는 9회 등장했다. 해마다 주제에 따라 결의문의 방향이 일정 부분 좌우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분야와 관련된 결의문이 많이 도출됐는지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건강, 안전, 학대 등과 관련된 결의문이었다. 물론 세월호 참사 이후 개최된 제11회 총회의 주제가 ‘대한민국의 아동안전은 녹색불입니까?’였던 만큼, 해당 연도에 안전 관련 결의문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채택되기는 했지만, 아동총회 초기부터 가장 최근에 개최된 제13회 대회에서까지 건강과 안전에 대한 키워드는 지속적으로 제시됐다.

성적, 진로, 문화와 관련된 키워드 역시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 나아가 특히 2010년대부터 이러한 키워드의 출현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아동총회의 개최가 계속되면서, 이전의 결의문을 파악한 아동들이 자연스럽게 보다 고차원적인 권리를 추구하고 나가고 있는 것이라 평가해 볼 수 있다. 2000년대의 결의문이 단순히 학대·체벌 금지, 아동인권 보장 등의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면, 이후로 갈수록 보다 구체적인 안전·건강권을 강조함과 동시에 포괄적인 권리 전반에 대

4)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매년 참여아동들이 10개 내외의 ‘결의문’을 도출하여 정부에 전달하고, 이것의 이행을 요구한다.

해서도 인식하고 있는 양태가 드러났다.

결의문을 바탕으로 한 아동 관점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협의회는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전 아래의 세 가지 주제를 가안(假案)으로 선정했다.

- 우리 주위의 아동안전: 지역사회 아동안전 실태 모니터링
-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실태 모니터링
- 마음껏 꿈꿔도 되나요?: 아동의 진로 선택권에 대한 모니터링

상기의 세 가지 주제 중 본 사업이 공통주제로 선정한 최종 안은 두 번째의 ‘놀 권리’이다. 물론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역대 결의문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측정되기는 하였다. 하지만 전문가 검토회의에서는 그간 여러 NGO나 학계 등에서 안전과 관련된 연구·분석을 많이 실행한 바가 있기에, 본 사업에서는 보다 새로운 아동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최근 정부 및 각종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실현 단계에는 오지 못한 ‘놀 권리’를 아동의 시각에서 깊이 있게 분석하는 과정은 의미 있을 것으로 보였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의 최종 공통주제는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다.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본 사업에서는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에 포커스를 맞추으로써 보다 주제의 구체성을 강화하였다. ‘놀 권리’라는 범주 하에 많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겠으나 본 사업에서는 아동들이 직접 느끼는 놀 권리의 방해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아동과 전문가가 합심하여 검토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

특히 지금까지 본 협의회와 자문단의 기존 사업 수행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해 볼 때에, 기성세대들이 주도했던 현재까지의 ‘놀 권리’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사교육에 의한 시간 부족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부족 정도의 문제점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아동들에게 ‘놀 권리’의 방해요인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본질적인 사회구조적 분석을 필요로 하는 대상들이 그 원인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예컨대 더 이상 ‘학원’이라는 존재 자체를 스트레스로 여기기보다는, 이미 고착화되어버린 우리의 교육 현실 속에서 아동들이 어느덧 사교육 수장을 당연한 상수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⁵⁾. 그렇기에 앞으로 ‘놀 권리’에 대한 보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정책적 기반으로 당연하게 상정하던 명제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5)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참여위원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출신 아동들이 UN아동권리위원회에 보내는 아동보고서」, 2018, p.15

4. 아동권리모니터링 'Lens(Lens of children) 프로젝트'

1) 권리주체인 아동의 관점(Lens)으로부터 출발하는 아동권리 증진

본 사업에서는 프로그램 전반에서의 모니터링 과정이 '아동 주도적'으로 수행되었다. 아동과 관련된 그간의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 속에서 정작 권리 주체인 그들이 배제되어 왔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이러한 사업의 특징은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사업의 별칭에도 권리 주체인 아동 자신의 관점에서 모니터링이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업의 특질을 알림과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의욕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2) 능동적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아동 친화적 환경

대한민국 아동이 느끼는 삶 전반의 만족도는 선진국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직접적인 방법은 본 사업과 같은 아동 주도의 권리증진 프로그램이며, 이를 통해 아동들이 실제로 그리는 행복한 세상의 도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이에, 본 사업의 Branding이 의미하는 'Lens'는 권리주체가 직접 아동권리 관련된 장소를 탐색·모니터링하며 그곳을 뉴미디어 매체로 담아내는 과정 전반을 비유한다.

II. 세부 사업추진 내용

구분	사업계획	추진경과																																				
<p>모니터링단 모집 및 선발</p>	<p>□ 전국 10개 권역별 모니터링단 선발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강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권역당 15명 배정 • 학교 밖 청소년, 이주아동, 탈북아동 등 다양한 당사자 참여가능토록 진행 <p>□ 모니터링단 모집/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중순부터 홍보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cebook 광고 타겟 대상 총 10만 건 이상 도달. Post Engagement 6000건 상회 • 7월 초까지 제출된 지원서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발 	<p>□ 권역별 LENS 현황</p> <table border="1"> <thead> <tr> <th>권역</th> <th>아동 수</th> <th>활동아동 수</th> </tr> </thead> <tbody> <tr><td>서울</td><td>15</td><td>9</td></tr> <tr><td>강원</td><td>11</td><td>8</td></tr> <tr><td>경기</td><td>15</td><td>15</td></tr> <tr><td>경북</td><td>14</td><td>8</td></tr> <tr><td>경남</td><td>15</td><td>15</td></tr> <tr><td>충북</td><td>11</td><td>9</td></tr> <tr><td>충남</td><td>11</td><td>10</td></tr> <tr><td>전북</td><td>17</td><td>17</td></tr> <tr><td>전남</td><td>17</td><td>17</td></tr> <tr><td>제주</td><td>15</td><td>15</td></tr> <tr><td>합계</td><td>141</td><td>123</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아동(1), 다문화 및 미등록 이주아동(5) 	권역	아동 수	활동아동 수	서울	15	9	강원	11	8	경기	15	15	경북	14	8	경남	15	15	충북	11	9	충남	11	10	전북	17	17	전남	17	17	제주	15	15	합계	141	123
권역	아동 수	활동아동 수																																				
서울	15	9																																				
강원	11	8																																				
경기	15	15																																				
경북	14	8																																				
경남	15	15																																				
충북	11	9																																				
충남	11	10																																				
전북	17	17																																				
전남	17	17																																				
제주	15	15																																				
합계	141	123																																				
<p>모니터링단 모집 및 선발</p>	<p>□ 전국 10개 권역을 담당할 코디네이터 배정 및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디네이터가 개별 권역 모니터링 활동에 있어 멘토 역할 수행 	<p>□ 본 협의회 아동참여위원(4인), 회원단체 지역 실무자(6인) 권역별 코디네이터 배정</p> <p>□ 코디네이터 오리엔테이션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8. 7. 27(금) • 장소 : 서울NPO지원센터 • 내용 : 아동인권 교육진행 및 활동 지도 매뉴얼 배부 																																				
<p>모니터링 주제 선정 및 체크리스트 개발</p>	<p>□ 모니터링 주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제 -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 권역별 자유주제 : 모니터링단 선발 완료 후 권역별로 협의 후 결정 	<p>□ 권역별 모니터링 주제 선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권역</th> <th>주제</th> </tr> </thead> <tbody> <tr><td>서울</td><td>아동에게 있어 대학의 의미: 아동의 진로와 대학</td></tr> <tr><td>강원</td><td>학교 주변 유해 환경</td></tr> <tr><td>경기</td><td>보호권</td></tr> <tr><td>경북</td><td>깨끗한 공기에서 살/ 공부할 권리</td></tr> <tr><td>경남</td><td>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td></tr> <tr><td>충북</td><td>청소년의 일할 권리 "아르바이트"</td></tr> <tr><td>충남</td><td>아동의 안전한 놀이공간 - 아동유해환경(흡연)</td></tr> <tr><td>전북</td><td>보호권</td></tr> <tr><td>전남</td><td>놀이터 간접흡연 문제 개선활동</td></tr> <tr><td>제주</td><td>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td></tr> </tbody> </table>	권역	주제	서울	아동에게 있어 대학의 의미: 아동의 진로와 대학	강원	학교 주변 유해 환경	경기	보호권	경북	깨끗한 공기에서 살/ 공부할 권리	경남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충북	청소년의 일할 권리 "아르바이트"	충남	아동의 안전한 놀이공간 - 아동유해환경(흡연)	전북	보호권	전남	놀이터 간접흡연 문제 개선활동	제주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권역	주제																																					
서울	아동에게 있어 대학의 의미: 아동의 진로와 대학																																					
강원	학교 주변 유해 환경																																					
경기	보호권																																					
경북	깨끗한 공기에서 살/ 공부할 권리																																					
경남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충북	청소년의 일할 권리 "아르바이트"																																					
충남	아동의 안전한 놀이공간 - 아동유해환경(흡연)																																					
전북	보호권																																					
전남	놀이터 간접흡연 문제 개선활동																																					
제주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02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 모니터링

I. 놀권리 설문조사

연구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의 공통 주제인 놀 권리에 대하여 전국 10개 지역(강원, 경기, 서울,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진행되었다.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2,000부를 배포하여 1,956부가 수거되었으나 불성실 응답 10부를 제거하여 총 1,946부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설문조사는 총 2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대상은 각 권역별 모니터링 당사자인 아동(LENS)들과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설문지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조사되었고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하는 8월부터 10월초까지 실시하였다. 조사는 전국 아동권리 발표대회 참여아동들과 아동총회 의장단 및 권역별 모니터링 활동 아동들이 학교 친구들에게 설문지를 배부, 회수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개요〉

조사 대상	조사 인원	조사 방법	조사 기간
전국의 아동·청소년	총 1,946명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	2018년 8월 ~ 10월 초

1. 조사 대상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2,000부를 배포하여 1,956부가 수거되었으나 불성실 응답 10부를 제거하여 총 1,946부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고, 지역별 응답 현황은 <표 1>과 같다. 분석결과 제주특별자치도가 299명(15.4%), 전라남도가 286명(14.7%), 경상북도가 238명(12.2%), 경상남도가 226명(11.6%), 기타가 175명(9.0%), 충청북도가 155명(8.0%), 경기도가 154명(7.9%), 전라북도가 147명(7.6%), 서울특별시가 139명(7.1%), 강원도가 96명(4.9%), 충청남도가 31명(1.6%) 순으로 나타났다.

〈표1〉 지역별 응답현황

항목	응답수(n)	백분율(%)
서울특별시	139	7.1
경기도	154	7.9
강원도	96	4.9
충청남도	31	1.6
충청북도	155	8.0
경상남도	226	11.6
경상북도	238	12.2
전라남도	286	14.7
전라북도	147	7.6
제주특별자치도	299	15.4
기타	175	9.0
합계	1,946	100.0

2. 조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여성이 1,211명(62.2%), 남성이 695명(35.7%)이고, 17세 이상이 1,011명(52.0%), 14세-16세가 585명(30.1%), 13세 이하가 302명(15.5%)이며, 고등학교가 1,022명(52.5%)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가 577명(29.7%), 초등학교가 310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중소도시가 1045명(53.7%), 대도시가 671명(34.5%), 농산어촌이 181명(9.3%) 순이고, 양부모님과 동거하는 비율이 높으며, 모의 취업률도 69.4%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 모니터링



〈표2〉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응답수 (n)	백분율 (%)
성별	여성	1,211	62.2
	남성	695	35.7
	무응답	40	2.1
연령대	13세 이하	302	15.5
	14세-16세	585	30.1
	17세 이상	1,011	52.0
	무응답	48	2.5
학교급	초등학교	310	15.9
	중학교	577	29.7
	고등학교	1,022	52.5
	대안학교	4	.2
	학교 다니지 않음	3	.2
	무응답	30	1.5
거주지역	농산어촌	181	9.3
	중소도시	1,045	53.7
	대도시	671	34.5
	무응답	49	2.5
동거인 복수응답	어머니	1,825	32.5
	아버지	1,784	31.8
	남자형제	903	16.1
	여자형제	851	15.1
	할아버지 할머니	188	3.3
	새어머니	4	0.1
	새아버지	3	0.1
	아동양육시설에 살고 있음	4	0.1
	이외 다른 사람	32	0.6
무응답	24	0.4	
모 취업여부	예	1,350	69.4
	아니오	567	29.1
	무응답	29	1.5
부 취업여부	예	1,827	93.9
	아니오	86	4.4
	무응답	33	1.7
합 계		1,946	100.0

연구결과

1. 아동의 놀 권리

1.1. 아동의 놀 권리 인지도

〈표 3〉은 ‘여러분은 놀이를 즐기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아동)의 권리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예”가 1283명(65.9%), “아니오”가 655명(33.7%) 순으로 나타났다.

〈표3〉 아동의 놀 권리 인지도

항목	응답수(n)	백분율(%)
예, 알고 있습니다	1,283	65.9
아니오, 모릅니다	655	33.7
무응답	8	.4
합계	1,946	100.0

〈표 4〉는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역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가 남아보다 놀 권리를 더 인정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인지도

항목		예	아니오
성별	여성	834(69.1)	373(30.9)
	남성	423(61.0)	270(39.0)
학교급	초등학교	218(70.8)	90(29.2)
	중학교	378(65.5)	199(34.5)
	고등학교	659(64.8)	358(35.2)
거주지역	농산어촌	126(69.6)	55(30.4)
	중소도시	677(65.0)	365(35.0)
	대도시	450(67.5)	217(32.5)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 모니터링

1.2. 놀이 및 여가의 권리에 대한 보호자 인정수준

〈표 5〉는 ‘보호자는 여러분의 놀이 및 여가의 권리를 인정해주나요?’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적극 인정해준다”가 847명(43.5%), “약간 인정해준다”가 828명(42.5%),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가 236명(12.1%),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다”가 32명(1.6%) 순으로 나타났다. 인정해준다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지만 여전히 13.7%의 아동은 보호자로부터 놀이 및 여가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놀이 및 여가의 권리에 대한 보호자 인정수준

항목	응답수(n)	백분율(%)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다	32	1.6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236	12.1
약간 인정해준다	828	42.5
적극 인정해준다	847	43.5
무응답	3	.2
합 계	1,946	100.0

〈표 6〉은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역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놀이 및 여가의 권리에 대한 보호자 인정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가 남아보다 보호자 인정수준이 더 높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보호자의 적극적으로 인정해준다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다와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비율을 합쳐서 분석해보면 중학생이 보호자의 인정비율이 16.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 모니터링

〈표6〉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놀이 및 여가의 권리에 대한 보호자 인정수준

항목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다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약간 인정해준다	적극 인정해준다	
성별	여성	14(1.2)	129(10.7)	528(43.6)	539(44.5)
	남성	17(2.4)	100(14.4)	285(41.0)	293(42.2)
학교급	초등학교	4(1.3)	30(9.7)	122(39.4)	154(49.7)
	중학교	9(1.6)	88(15.3)	230(39.9)	250(43.3)
	고등학교	16(1.6)	113(11.1)	462(45.3)	429(42.1)
거주 지역	농산어촌	2(1.1)	25(13.8)	75(41.4)	79(43.6)
	중소도시	16(1.5)	130(12.5)	460(44.1)	437(41.9)
	대도시	12(1.8)	76(11.3)	273(40.7)	310(46.2)

1.3. 놀이나 여가가 미치는 영향

〈표 7〉은 ‘놀이나 여가가 나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매우 그렇다”가 954명(49.0%), “약간 그렇다”가 791명(40.6%), “별로 그렇지 않다”가 146명(7.5%), “전혀 그렇지 않다”가 38명(2.0%)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들 스스로 놀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비율이 9.5%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유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7〉 놀이나 여가가 미치는 바람직한 영향

항목	응답수(n)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38	2.0
별로 그렇지 않다	146	7.5
약간 그렇다	791	40.6
매우 그렇다	954	49.0
무응답	17	.9
합 계	1,946	100.0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 모니터링

〈표 8〉은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역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놀이나 여가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가 남아보다 놀이나 여가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고, 초등학생보다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더 바람직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초등학생은 14.9%나 놀이나 여가가 바람직한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표8〉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놀이나 여가가 미치는 바람직한 영향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여성	22(1.8)	76(6.3)	489(40.7)	615(51.2)
	남성	16(2.3)	68(9.9)	284(41.2)	322(46.7)
학교급	초등학교	13(4.2)	33(10.7)	135(43.8)	127(41.2)
	중학교	11(1.9)	43(7.5)	217(37.9)	302(52.7)
	고등학교	14(1.4)	69(6.8)	421(41.6)	509(50.2)
거주 지역	농산어촌	1(0.6)	16(8.9)	68(38.0)	94(52.5)
	중소도시	23(2.2)	72(6.9)	440(42.3)	504(48.5)
	대도시	13(2.0)	57(8.6)	261(39.2)	335(50.3)

1.4. 일 평균 놀이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자유시간

〈표 9〉는 ‘하루 평균 놀이를 즐기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은 얼마나 됩니까?’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1-2시간 이하가 524명(26.9%), 2-3시간 이하가 452명(23.2%), 1시간 이하가 359명(18.4%), 4시간 초과가 312명(16.0%), 3-4시간 이하가 251명(12.9%), 없다가 41명(2.1%) 순으로 나타났다.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 모니터링

〈표9〉 일 평균 놀이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자유시간

항목	응답수(n)	백분율(%)
없다	41	2.1
1시간 이하	359	18.4
1-2시간 이하	524	26.9
2-3시간 이하	452	23.2
3-4시간 이하	251	12.9
4시간 초과	312	16.0
무응답	7	.4
합 계	1,946	100.0

〈표 10〉은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역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일 평균 놀이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자유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 학교급,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가 남아보다 1시간 이하가 많고, 4시간 초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와 농산어촌이 4시간 초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시간 이하의 비율은 고등학교와 대도시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일 평균 놀이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자유시간

항목		없다	1시간 이하	1-2시간 이하	2-3시간 이하	3-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성별	여성	21(1.7)	246(20.4)	306(25.4)	288(23.9)	162(13.4)	184(15.2)
	남성	19(2.7)	105(15.1)	206(29.7)	155(22.3)	86(12.4)	123(17.7)
학교급	초등학교	4(1.3)	41(13.2)	83(26.8)	79(25.5)	47(15.2)	56(18.1)
	중학교	10(1.7)	75(13.0)	144(25.0)	131(22.7)	93(16.1)	123(21.4)
	고등학교	27(2.7)	239(23.5)	287(28.2)	232(22.8)	108(10.6)	124(12.2)
거주 지역	농산어촌	2(1.1)	36(20.0)	39(21.7)	37(20.6)	24(13.3)	42(23.3)
	중소도시	17(1.6)	189(18.1)	272(26.1)	259(24.9)	137(13.1)	168(16.1)
	대도시	22(3.3)	126(18.8)	197(29.4)	149(22.2)	81(12.1)	95(14.2)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 모니터링

1.5. 자유시간의 만족도

〈표 11〉은 ‘하루에 자유 시간이 충분한가요’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대체로 그렇다”가 821명(42.2%),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542명(27.9%), “매우 그렇다”가 404명(20.8%), “전혀 그렇지 않다”가 156명(8.0%) 순으로 나타났다. 자유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아동의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35.9%로 나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11〉 자유시간의 만족도

항목	응답수(n)	백분율(%)
매우 그렇다	404	20.8
대체로 그렇다	821	42.2
대체로 그렇지 않다	542	27.9
전혀 그렇지 않다	156	8.0
무응답	23	1.2
합 계	1,946	100.0

〈표 12〉는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역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유시간의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보다 남아가 자유시간의 만족도가 높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자유시간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유시간의 만족도

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성별	여성	222(18.5)	512(42.6)	360(29.9)	109(9.1)
	남성	176(25.7)	293(42.8)	171(25.0)	44(6.4)
학교급	초등학교	103(33.9)	140(46.1)	47(15.5)	14(4.6)
	중학교	134(23.3)	268(46.7)	140(24.4)	32(5.6)
	고등학교	158(15.6)	399(39.5)	346(34.2)	108(10.7)
거주 지역	농산어촌	42(23.6)	70(39.3)	53(29.8)	13(7.3)
	중소도시	212(20.5)	451(43.7)	286(27.7)	84(8.1)
	대도시	142(21.3)	281(42.1)	188(28.2)	56(8.4)

1.6. 놀이 방법의 변화 필요성

〈표 13〉은 ‘나의 놀이 방법 중 바뀌어야 하는 점’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 한다”가 1,163명(59.8%), “신체 활동을 늘려야 한다”가 912명(46.9%), “바깥놀이를 더 많이 해야 한다”가 526명(27.0%), “놀이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가 390명(20.0%), “놀이와 여가 비용을 줄인다”가 331명(17.0%), “나의 놀이방법이 바뀌지 않아도 좋다”가 281명(14.4%), 기타가 40명(2.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거의 대부분이 놀이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특히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신체활동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하는 하는 아동이 반수 이상이 되었다.

〈표13〉 놀이 방법의 변화 필요성(복수응답)

항목	응답수(n)	백분율(%)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 한다	1,163	59.8
신체 활동을 늘려야 한다	912	46.9
놀이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	390	20.0
바깥놀이를 더 많이 해야 한다	526	27.0
놀이와 여가 비용을 줄인다	331	17.0
기타	40	2.1
나의 놀이방법이 바뀌지 않아도 좋다	281	14.4
무응답	15	0.8

전체 응답자(n=1,946), 복수응답

2. 놀이 및 여가 현황

2.1. 주중 놀이 시간

〈표 14〉는 ‘주중 하루(월~금요일) 중 얼마나 놀 수 있나요’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1-2시간 이하가 489명(25.1%), 4시간 초과가 405명(20.8%), 2-3시간 이하가 368명(18.9%), 1시간 이하가 324명(16.6%), 3-4시간 이하가 257명(13.2%), 없다가 89명(4.6%) 순으로 나타났다.

〈표14〉 주중 놀이 시간

항목	응답수(n)	백분율(%)
없다	89	4.6
1시간 이하	324	16.6
1-2시간 이하	489	25.1
2-3시간 이하	368	18.9
3-4시간 이하	257	13.2
4시간 초과	405	20.8
무응답	14	.7
합 계	1,946	100.0

〈표 15〉는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역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중 놀이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가 남아보다 1시간 이하의 놀이 시간이 많고,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고등학교는 1시간 이하의 주중 놀이 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4시간 초과 경우 중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5〉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중 놀이 시간

항목		없다	1시간 이하	1-2시간 이하	2-3시간 이하	3-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성별	여성	47(3.9)	221(18.3)	281(23.3)	241(20.0)	158(13.1)	257(21.3)
	남성	42(6.1)	97(14.1)	193(28.0)	121(17.5)	94(13.6)	143(20.7)
학교급	초등학교	13(4.2)	34(11.1)	73(23.9)	70(22.9)	40(13.1)	76(24.8)
	중학교	26(4.5)	81(14.1)	127(22.1)	102(17.8)	84(14.6)	154(26.8)
	고등학교	50(4.9)	205(20.2)	279(27.4)	188(18.5)	128(12.6)	167(16.4)
거주 지역	농산어촌	10(5.6)	28(15.6)	45(25.0)	32(17.8)	23(12.8)	42(23.3)
	중소도시	48(4.6)	166(16.0)	259(25.0)	209(20.1)	145(14.0)	211(20.3)
	대도시	29(4.3)	121(18.1)	170(25.5)	122(18.3)	80(12.0)	145(21.7)

2.2. 주말 놀이 시간

〈표 16〉는 ‘주말 하루(토~일요일) 중 얼마나 놀 수 있나요’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4시간 초과가 1,029명(52.9%), 3-4시간 이하가 370명(19.0%), 2-3시간 이하가 278명(14.3%), 1-2시간 이하가 164명(8.4%), 1시간 이하가 64명(3.3%), 없다가 25명(1.3%) 순으로 나타났다. 주중보다는 주말이 놀이시간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16〉 주말 놀이 시간

항목	응답수(n)	백분율(%)
없다	25	1.3
1시간 이하	64	3.3
1-2시간 이하	164	8.4
2-3시간 이하	278	14.3
3-4시간 이하	370	19.0
4시간 초과	1,029	52.9
무응답	16	.8
합 계	1,946	100.0

〈표 17〉은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역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말 놀이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학교급과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와 대도시의 주말 놀이 시간은 4시간 초과와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생과 농산어촌의 주말 놀이 시간은 4시간 초과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7〉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말 놀이 시간

항목		없다	1시간 이하	1-2시간 이하	2-3시간 이하	3-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성별	여성	13(1.1)	38(3.2)	108(9.0)	181(15.0)	229(19.0)	634(52.7)
	남성	11(1.6)	25(3.6)	52(7.5)	93(13.5)	132(19.2)	376(54.6)
학교급	초등학교	4(1.3)	6(2.0)	24(7.8)	34(11.1)	56(18.2)	183(59.6)
	중학교	6(1.0)	15(2.6)	39(6.8)	70(12.2)	85(14.9)	357(62.4)
	고등학교	14(1.4)	42(4.1)	98(9.6)	170(16.7)	221(21.8)	471(46.4)
거주 지역	농산어촌	2(1.1)	4(2.2)	6(3.4)	30(16.9)	27(15.2)	109(61.2)
	중소도시	11(1.1)	26(2.5)	86(8.3)	150(14.5)	209(20.1)	556(53.6)
	대도시	9(1.3)	31(4.6)	69(10.3)	94(14.1)	123(18.4)	341(51.1)

2.3. 학교 외 공부시간

〈표 18〉은 ‘하루에 학교 수업을 제외하고 공부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2-3시간 이하가 540명(27.7%), 1-2시간 이하가 440명(22.6%), 3-4시간 이하가 317명(16.3%), 4시간 초과가 282명(14.5%), 1시간 이하가 245명(12.6%), 없다가 103명(5.3%) 순으로 나타났다.

〈표18〉 학교 외 공부시간

항목	응답수(n)	백분율(%)
없다	103	5.3
1시간 이하	245	12.6
1-2시간 이하	440	22.6
2-3시간 이하	540	27.7
3-4시간 이하	317	16.3
4시간 초과	282	14.5
무응답	19	1.0
합 계	1,946	100.0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 모니터링

〈표 19〉는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역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 외 공부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과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와 대도시 거주자들이 남아와 농산어촌 거주자에 비해 3시간 이상의 공부시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 외 공부시간

항목		없다	1시간 이하	1-2시간 이하	2-3시간 이하	3-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성별	여성	57(4.7)	146(12.1)	259(21.5)	346(28.8)	225(18.7)	170(14.1)
	남성	43(6.3)	98(14.3)	167(24.3)	186(27.1)	87(12.7)	106(15.4)
학교급	초등학교	11(3.6)	43(14.1)	63(20.7)	94(30.9)	51(16.8)	42(13.8)
	중학교	36(6.3)	84(14.7)	120(21.1)	151(26.5)	94(16.5)	85(14.9)
	고등학교	55(5.4)	114(11.2)	249(24.5)	287(28.2)	167(16.4)	146(14.3)
거주지역	농산어촌	16(8.9)	30(16.8)	44(24.6)	47(26.3)	23(12.8)	19(10.6)
	중소도시	61(5.9)	148(14.2)	249(23.9)	300(28.8)	154(14.8)	128(12.3)
	대도시	21(3.2)	64(9.7)	130(19.7)	182(27.5)	134(20.3)	130(19.7)

2.4. 놀이 친구

〈표 20〉은 ‘주로 몇 명과 노나요’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3-4명 함께 논다”가 791명(40.6%), “친구랑 둘이 논다”가 398명(20.5%), “5명 이상 함께 논다”가 374명(19.2%), “나혼자 논다”가 368명(18.9%) 순으로 나타났다.

〈표20〉 놀이 친구

항목	응답수(n)	백분율(%)
나혼자 논다	368	18.9
친구랑 둘이 논다	398	20.5
3-4명 함께 논다	791	40.6
5명 이상 함께 논다	374	19.2
무응답	15	.8
합 계	1,946	100.0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 모니터링

〈표 21〉은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역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놀이 친구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는 혼자놀거나 친구랑 둘이 논다의 응답이 높고, 남아는 3명 이상과 논다는 응답이 높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3명 이상의 친구와 어울림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생이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에 비해 혼자 놀거나 친구랑 둘이 노는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놀이 친구

항목		나혼자 논다	친구랑 둘이 논다	3-4명 함께 논다	5명 이상 함께 논다
성별	여성	249(20.7)	293(24.4)	448(37.3)	212(17.6)
	남성	112(16.2)	101(14.6)	322(46.6)	156(22.6)
학교급	초등학교	45(14.8)	51(16.7)	132(43.3)	77(25.2)
	중학교	99(17.3)	102(17.8)	223(38.9)	149(26.0)
	고등학교	215(21.1)	242(23.7)	419(41.1)	143(14.0)
거주 지역	농산어촌	35(19.4)	33(18.3)	78(43.3)	34(18.9)
	중소도시	178(17.1)	228(21.9)	428(41.2)	206(19.8)
	대도시	148(22.3)	134(20.2)	258(38.9)	124(18.7)

2.5. 놀이 및 여가 활동을 못하는 이유

〈표 22〉는 ‘충분히 놀거나 여가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1+2순위의 경우 “학교 학습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 845명(25.4%), “너무 많은 학원 교습”이 739명(22.2%), “용돈·비용이 부족해서”가 568명(17.1%), “놀이 시설·공간이 부족해서”가 317명(9.5%), “보호자 반대”가 266명(8.0%), “놀이 친구가 없어서”가 120명(3.6%), “집안일 또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서”가 52명(1.6%), 기타가 216명(6.5%) 순으로 나타났다.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 모니터링

〈표22〉 놀이 및 여가 활동을 못하는 이유(복수응답)

항목	1순위		2순위		1+2순위	
	응답수 (n)	백분율 (%)	응답수 (n)	백분율 (%)	응답수 (n)	백분율 (%)
너무 많은 학원 교습	559	28.7	180	13.1	739	22.2
학교 학습으로 인한 시간 부족	524	26.9	321	23.3	845	25.4
놀이 친구가 없어서	49	2.5	71	5.2	120	3.6
보호자 반대	131	6.7	135	9.8	266	8.0
놀이 시설·공간이 부족해서	128	6.6	189	13.7	317	9.5
용돈·비용이 부족해서	181	9.3	387	28.1	568	17.1
집안일 또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서	28	1.4	24	1.7	52	1.6
기타	147	7.6	69	5.0	216	6.5
무응답	199	10.2	-	-	199	6.0
합 계	1,946	100.0	1,376	100.0	3,322	100.0

전체 응답자(n=1,946, %), 복수응답

〈표 23〉은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역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놀이 및 여가 활동을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학교급과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는 너무 많은 학원 교습이 주된 이유이고, 고등학교는 학교 학습으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나타났고,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순으로 너무 많은 학원 교습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농산어촌은 대도시에 비해 “놀이 시설·공간이 부족해서”, “놀이 친구가 없어서”, “집안일 또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서” 등의 이유로 놀이 및 여가 활동을 못하는 비율이 높았다.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 모니터링

〈표2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놀이 및 여가 활동을 못하는 이유

항목		1	2	3	4	5	6	7	8
성별	여성	358(32.5)	347(31.5)	22(2.0)	72(6.5)	81(7.4)	117(10.6)	16(1.5)	89(8.1)
	남성	195(31.9)	164(26.8)	26(4.3)	53(8.7)	45(7.4)	60(9.8)	12(2.0)	56(9.2)
학교급	초등학교	88(32.4)	32(11.8)	12(4.4)	30(11.0)	29(10.7)	15(5.5)	1(0.4)	65(23.9)
	중학교	212(42.5)	87(17.4)	15(3.0)	47(9.4)	47(9.4)	55(11.0)	5(1.0)	31(6.2)
	고등학교	253(26.8)	394(41.7)	21(2.2)	51(5.4)	49(5.2)	105(11.1)	22(2.3)	49(5.2)
거주 지역	농산어촌	31(19.7)	46(29.3)	8(5.1)	15(9.6)	23(14.6)	18(11.5)	6(3.8)	10(6.4)
	중소도시	282(29.9)	298(31.6)	24(2.5)	73(7.7)	70(7.4)	105(11.1)	20(2.1)	72(7.6)
	대도시	234(38.7)	169(27.9)	17(2.8)	40(6.6)	32(5.3)	51(8.4)	2(0.3)	60(9.9)

1) 너무 많은 학원 교습, 2) 학교 학습으로 인한 시간 부족, 3) 놀이 친구가 없어서, 4) 보호자 반대, 5) 놀이 시설·공간이 부족해서, 6) 용돈·비용이 부족해서, 7) 집안일 또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서, 8) 기타

2.6. 친구들과의 놀이 및 여가 생활의 만족도

〈표 24〉는 ‘친구들과 충분히 놀이 및 여가 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비교적 충분하다”가 913명(46.9%), “그리 충분하지 않다”가 525명(27.0%), “매우 충분하다”가 387명(19.9%), “전혀 충분하지 않다”가 98명(5.0%) 순으로 나타났다.

〈표24〉 친구들과의 놀이 및 여가 생활의 만족도

항목	응답수(n)	백분율(%)
전혀 충분하지 않다	98	5.0
그리 충분하지 않다	525	27.0
비교적 충분하다	913	46.9
매우 충분하다	387	19.9
무응답	23	1.2
합 계	1,946	100.0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 모니터링

〈표 25〉는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역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친구들과의 놀이 및 여가 생활의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과 초등학생이 “매우 충분하다”의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5〉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친구들과의 놀이 및 여가 생활의 만족도

항목	전혀 충분하지 않다	그리 충분하지 않다	비교적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성별	여성	60(5.0)	362(29.9)	576(47.6)	211(17.5)
	남성	36(5.2)	157(22.7)	330(47.8)	168(24.3)
학교급	초등학교	14(4.5)	53(17.2)	144(46.8)	97(31.5)
	중학교	30(5.2)	133(23.2)	282(49.1)	129(22.5)
	고등학교	52(5.1)	337(33.0)	476(46.7)	155(15.2)
거주 지역	농산어촌	13(7.2)	43(23.9)	88(48.9)	36(20.0)
	중소도시	53(5.1)	283(27.2)	496(47.6)	209(20.1)
	대도시	29(4.3)	195(29.1)	311(46.5)	134(20.0)

2.7. 친구들과의 놀지 못해서 미치는 영향

〈표 26〉은 ‘친구와 충분히 놀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1+2순위의 경우 “스트레스를 풀기 어렵다”가 386명(37.1%),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가 202명(19.4%), “아무런 영향이 없다”가 182명(17.5%), “도전과 경험의 기회가 없어진다”가 149명(14.3%), “협동심을 배울 기회가 없어진다”가 54명(5.2%), 기타가 26명(2.5%) 순으로 나타났다.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 모니터링

〈표26〉 친구들과의 놀지 못해서 미치는 영향(복수 응답)

항목	1순위		2순위		1+2순위	
	응답수 (n)	백분율 (%)	응답수 (n)	백분율 (%)	응답수 (n)	백분율 (%)
아무런 영향이 없다	125	20.1	57	13.7	182	17.5
스트레스를 풀기 어렵다	315	50.6	71	17.0	386	37.1
도전과 경험의 기회가 없어진다	53	8.5	96	23.0	149	14.3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66	10.6	136	32.6	202	19.4
협동심을 배울 기회가 없어진다	15	2.4	39	9.4	54	5.2
기타	8	1.3	18	4.3	26	2.5
무응답	41	6.6	-	-	41	3.9
합 계	623	100.0	417	100.0	1,040	100.0

친구들과의 놀이 및 여가 생활에 대한 불만족(1+2) 응답자(n=623, %), 복수응답

〈표 27〉은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역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친구들과의 놀지 못해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 중학생, 고등학생은 “스트레스를 풀기 어렵다”가 과반수 정도로 나타났다. 반면 초등학생은 중고생에 비해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진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7〉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친구들과의 놀지 못해서 미치는 영향

항목		1	2	3	4	5	6
성별	여성	124(22.9)	290(53.6)	49(9.1)	60(11.1)	8(1.5)	10(1.8)
	남성	81(29.9)	115(42.4)	25(9.2)	33(12.2)	12(4.4)	5(1.8)
학교급	초등학교	26(25.0)	40(38.5)	9(8.7)	20(19.2)	3(2.9)	6(5.8)
	중학교	54(24.1)	113(50.4)	22(9.8)	29(12.9)	3(1.3)	3(1.3)
	고등학교	126(26.1)	254(52.6)	43(8.9)	42(8.7)	13(2.7)	5(1.0)
거주 지역	농산어촌	18(24.3)	37(50.0)	8(10.8)	10(13.5)	1(1.4)	0(0.0)
	중소도시	114(25.8)	210(47.5)	42(9.5)	52(11.8)	15(3.4)	9(2.0)
	대도시	70(23.9)	159(54.3)	23(7.8)	32(10.9)	4(1.4)	5(1.7)

1)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스트레스를 풀기 어렵다, 3) 도전과 경험의 기회가 없어진다, 4)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5) 협동심을 배울 기회가 없어진다, 6) 기타

2.8. 보호자와의 놀이 및 여가 생활 만족도

〈표 28〉은 ‘보호자와 충분히 놀이 및 여가 생활을 하고 있나요’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비교적 충분하다”가 801명(41.2%), “그리 충분하지 않다”가 551명(28.3%), “매우 충분하다”가 313명(16.1%), “전혀 충분하지 않다”가 228명(11.7%) 순으로 나타났다. 친구보다 보호자와의 놀이 및 여가 생활만족도가 낮은 비율이 높았다.

〈표28〉 보호자와의 놀이 및 여가 생활 만족도

항목	응답수(n)	백분율(%)
전혀 충분하지 않다	228	11.7
그리 충분하지 않다	551	28.3
비교적 충분하다	801	41.2
매우 충분하다	313	16.1
무응답	53	2.7
합 계	1,946	100.0

〈표 29〉는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역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보호자와의 놀이 및 여가 생활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호자와의 놀이 및 여가 생활 만족도는 초등학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9〉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보호자와의 놀이 및 여가 생활 만족도

항목		전혀	그리	비교적	매우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성별	여성	141(11.8)	371(31.0)	489(40.8)	197(16.4)
	남성	84(12.4)	176(26.0)	304(45.0)	112(16.6)
학교급	초등학교	23(7.8)	61(20.6)	131(44.3)	81(27.4)
	중학교	59(10.4)	136(23.9)	255(44.8)	119(20.9)
	고등학교	145(14.4)	346(34.3)	411(40.7)	108(10.7)
거주 지역	농산어촌	25(14.1)	56(31.6)	68(38.4)	28(15.8)
	중소도시	125(12.1)	307(29.7)	445(43.1)	156(15.1)
	대도시	75(11.5)	182(27.9)	276(42.3)	120(18.4)

2.9. 보호자와의 놀지 못해서 미치는 영향

〈표 30〉은 ‘보호자와 충분히 놀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1+2순위의 경우 “보호자가 나를 이해하기 어려워진다”가 328명(27.7%), “아무런 영향이 없다”가 325명(27.4%), “가족 간 협동심을 배울 기회가 없어진다”가 206명(17.4%), “내가 보호자를 이해하기 어려워진다”가 199명(16.8%), 기타가 59명(5.0%) 순으로 나타났다.

〈표30〉 보호자와의 놀지 못해서 미치는 영향(복수 응답)

항목	1순위		2순위		1+2순위	
	응답수 (n)	백분율 (%)	응답수 (n)	백분율 (%)	응답수 (n)	백분율 (%)
아무런 영향이 없다	277	35.6	48	11.8	325	27.4
보호자가 나를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214	27.5	114	28.0	328	27.7
내가 보호자를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60	7.7	139	34.2	199	16.8
가족 간 협동심을 배울 기회가 없어진다	118	15.1	88	21.6	206	17.4
기타	41	5.3	18	4.4	59	5.0
무응답	69	8.9	-	-	69	5.8
합 계	779	100.0	417	100.0	1,186	100.0

보호자와의 놀이 및 여가 생활에 대한 불만족(1+2) 응답자(n=779, %), 복수응답

〈표 31〉은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역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보호자와의 놀지 못해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보다 남아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가 가장 높은 반면 중학생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와 “보호자가 나를 이해하기 어려워진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와 놀지 못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학습된 무기력, 포기, 혼자 노는 것에 대한 선호 등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심층면담이 필요하리라 판단이 된다.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 모니터링

〈표3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보호자와의 놀지 못해서 미치는 영향

항목	1	2	3	4	5	
성별	여성	223(39.1)	164(28.7)	51(8.9)	96(16.8)	37(6.5)
	남성	150(48.5)	82(26.5)	21(6.8)	46(14.9)	10(3.2)
학교급	초등학교	59(48.8)	25(20.7)	12(9.9)	14(11.6)	11(9.1)
	중학교	88(38.6)	75(32.9)	22(9.6)	31(13.6)	12(5.3)
	고등학교	227(42.8)	146(27.5)	37(7.0)	96(18.1)	24(4.5)
거주 지역	농산어촌	35(38.5)	28(30.8)	5(5.5)	19(20.9)	4(4.4)
	중소도시	217(43.8)	132(26.6)	40(8.1)	81(16.3)	26(5.2)
	대도시	118(41.0)	85(29.5)	26(9.0)	43(14.9)	16(5.6)

1)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보호자가 나를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3) 내가 보호자를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4) 가족 간 협동심을 배울 기회가 없어진다, 5) 기타

2.10. 학교의 놀 권리 보장 만족도

〈표 32〉는 ‘학교는 여러분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나요’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920명(47.3%), “대체로 그렇다”가 494명(25.4%), “전혀 그렇지 않다”가 333명(17.1%), “매우 그렇다”가 145명(7.5%) 순으로 나타났다.

〈표32〉 학교의 놀 권리 보장 만족도

항목	응답수(n)	백분율(%)
매우 그렇다	145	7.5
대체로 그렇다	494	25.4
대체로 그렇지 않다	920	47.3
전혀 그렇지 않다	333	17.1
무응답	54	2.8
합 계	1,946	100.0

〈표 33〉은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역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의 놀 권리 보장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남아와 초등학교가 학교의 놀 권리 보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 모니터링

〈표3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의 놀 권리 보장 만족도

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성별	여성	64(5.4)	311(26.1)	614(51.6)	202(17.0)
	남성	79(11.6)	177(26.0)	299(43.8)	127(18.6)
학교급	초등학교	61(20.1)	144(47.4)	87(28.6)	12(3.9)
	중학교	53(9.3)	175(30.8)	273(48.0)	68(12.0)
	고등학교	30(3.0)	170(17.0)	552(55.1)	250(25.0)
거주 지역	농산어촌	16(9.1)	37(21.1)	81(46.3)	41(23.4)
	중소도시	76(7.4)	268(26.0)	502(48.6)	186(18.0)
	대도시	51(7.8)	182(27.7)	325(49.5)	98(14.9)

2.1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학교의 노력

〈표 34〉는 ‘학교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친구와 놀 기회를 많이 만들어준다”가 229명(34.4%), “놀이에 대한 부모교육(가정통신문)을 제공한다”가 71명(10.7%), “쉬는 시간을 늘려준다”가 62명(9.3%), “선생님이 같이 놀아준다”가 54명(8.1%), “놀이 시설을 늘린다”가 45명(6.8%), 기타가 64명(9.6%) 순으로 나타났다.

〈표34〉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학교의 노력(복수 응답)

항목	응답수(n)	백분율(%)
쉬는 시간을 늘려준다	62	9.3
놀이 시설을 늘린다	45	6.8
친구와 놀 기회를 많이 만들어준다	229	34.4
선생님이 같이 놀아준다	54	8.1
놀이에 대한 부모교육(가정통신문)을 제공한다	71	10.7
기타	64	9.6
무응답	141	21.2
합 계	666	100.0

학교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만족(1+2) 응답자(n=639, %), 복수응답

3. 과거에 나의 놀이 및 여가 활동

3.1. 초등학교 입학 전 친구들과의 놀이 및 여가 생활 만족도

〈표 35〉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친구들과 충분히 놀이 및 여가 생활을 했나요?’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매우 충분하였다”가 956명(49.1%), “비교적 충분하였다”가 738명(37.9%), “그리 충분하지 않았다”가 179명(9.2%),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가 41명(2.1%) 순으로 나타났다.

〈표35〉 초등학교 입학 전 친구들과의 놀이 및 여가 생활 만족도

항목	응답수(n)	(%)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41	2.1
그리 충분하지 않았다	179	9.2
비교적 충분하였다	738	37.9
매우 충분하였다	956	49.1
무응답	32	1.6
합 계	1,946	100.0

〈표 36〉은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역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초등학교 입학 전 친구들과의 놀이 및 여가 생활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가 “매우 충분하였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6〉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초등학교 입학 전 친구들과의 놀이 및 여가 생활 만족도

항목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그리 충분하지 않았다	비교적 충분하였다	매우 충분하였다	
성별	여성	27(2.2)	117(9.7)	458(38.0)	603(50.0)
	남성	14(2.0)	61(8.8)	274(39.7)	341(49.4)
학교급	초등학교	9(3.0)	29(9.5)	129(42.3)	138(45.2)
	중학교	12(2.1)	71(12.4)	220(38.5)	268(46.9)
	고등학교	19(1.9)	76(7.5)	383(37.5)	542(53.1)
거주 지역	농산어촌	4(2.2)	20(11.2)	66(36.9)	89(49.7)
	중소도시	27(2.6)	95(9.2)	424(40.9)	490(47.3)
	대도시	9(1.3)	63(9.4)	237(35.5)	359(53.7)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 모니터링

3.2. 초등학교 입학 전 부모님과 놀이 및 여가 생활 만족도

〈표 37〉은 ‘초등학교 입학 전(유아기)에 부모님과 충분히 놀이 및 여가 생활을 했나요’를 살펴 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매우 충분하였다”가 990명(50.9%), “비교적 충분하였다”가 705명(36.2%), “그리 충분하지 않았다”가 165명(8.5%),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가 33명(1.7%) 순으로 나타났다.

〈표37〉 초등학교 입학 전 부모님과 놀이 및 여가 생활 만족도

항목	응답수 (n)	백분율 (%)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33	1.7
그리 충분하지 않았다	165	8.5
비교적 충분하였다	705	36.2
매우 충분하였다	990	50.9
무응답	53	2.7
합 계	1,946	100.0

〈표 38〉은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역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초등학교 입학 전 부모님과 놀이 및 여가 생활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8〉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초등학교 입학 전 부모님과 놀이 및 여가 생활 만족도

항목		전혀	그리	비교적	매우
		충분하지 않았다	충분하지 않았다	충분하였다	충분하였다
성별	여성	23(1.9)	108(9.0)	433(36.1)	636(53.0)
	남성	10(1.5)	55(8.2)	263(39.1)	345(51.3)
학교급	초등학교	3(1.0)	21(7.1)	112(38.1)	158(53.7)
	중학교	7(1.2)	49(8.7)	205(36.3)	304(53.8)
	고등학교	21(2.1)	94(9.3)	378(37.2)	523(51.5)
거주 지역	농산어촌	4(2.2)	22(12.4)	69(38.8)	83(46.6)
	중소도시	18(1.8)	96(9.4)	380(37.0)	532(51.9)
	대도시	10(1.5)	47(7.1)	247(37.5)	355(53.9)

4. 놀이 욕구

4.1. 일상생활에서 놀이 및 여가 생활 만족도

〈표 39〉는 ‘여러분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놀이와 여가 생활에 만족하나요’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약간 만족이 768명(39.5%), 만족이 637명(32.7%), 약간 불만족이 411명(21.1%), 불만족이 97명(5.0%) 순으로 나타났다.

〈표39〉 일상생활에서 놀이 및 여가 생활 만족도

항목	응답수(n)	백분율(%)
불만족	97	5.0
약간 불만족	411	21.1
약간 만족	768	39.5
만족	637	32.7
무응답	33	1.7
합 계	1,946	100.0

〈표 40〉은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역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놀이 및 여가 생활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상생활에서 놀이 및 여가 생활 만족도는 남아와 초등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0〉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놀이 및 여가 생활 만족도

항목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만족	
성별	여성	62(5.1)	294(24.4)	501(41.5)	349(28.9)
	남성	33(4.8)	112(16.3)	262(38.1)	280(40.8)
학교급	초등학교	7(2.3)	43(14.2)	91(30.0)	162(53.5)
	중학교	23(4.0)	101(17.7)	229(40.0)	219(38.3)
	고등학교	65(6.4)	264(25.9)	441(43.3)	249(24.4)
거주 지역	농산어촌	13(7.3)	33(18.4)	65(36.3)	68(38.0)
	중소도시	52(5.0)	224(21.6)	434(41.9)	326(31.5)
	대도시	31(4.6)	147(22.0)	259(38.8)	230(34.5)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 모니터링

4.2. 놀이와 여가 생활의 불만족 이유

〈표 41〉은 ‘놀이와 여가 생활이 불만족스럽다면 그 이유를 두 가지 고르세요’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1+2순위의 경우 “놀 시간이 부족해서”가 336명(35.6%), “보호자가 간섭해서”가 136명(14.4%), “비용이 부족해서”가 132명(14.0%), “성적이 떨어져서”가 96명(10.2%), “놀이 시설이 부족해서”가 79명(8.4%), “매일 똑같은 놀이를 반복해서”가 75명(7.9%), “친구가 없어서”가 26명(2.8%), “건강이 안 좋아서”가 12명(1.3%), 기타가 35명(3.7%) 순으로 나타났다.

〈표41〉 놀이와 여가 생활의 불만족 이유(복수 응답)

항목	1순위		2순위		1+2순위	
	응답수 (n)	백분율 (%)	응답수 (n)	백분율 (%)	응답수 (n)	백분율 (%)
건강이 안 좋아서	9	1.8	3	.7	12	1.3
성적이 떨어져서	54	10.6	42	9.6	96	10.2
친구가 없어서	11	2.2	15	3.4	26	2.8
보호자가 간섭해서	89	17.5	47	10.8	136	14.4
매일 똑같은 놀이를 반복해서	35	6.9	40	9.2	75	7.9
비용이 부족해서	54	10.6	78	17.9	132	14.0
놀 시간이 부족해서	207	40.7	129	29.6	336	35.6
놀이 시설이 부족해서	14	2.8	65	14.9	79	8.4
기타	18	3.5	17	3.9	35	3.7
무응답	17	3.3	-	-	17	1.8
합 계	508	100.0	436	100.0	944	100.0

놀이와 여가 생활에 대한 불만족(1+2) 응답자(n=508, %), 복수응답

〈표 42〉는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역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놀이와 여가 생활의 불만족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놀 시간이 부족해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생은 “보호자가 간섭해서”와 “매일 똑같은 놀이를 반복해서”이고, 중학생은 “보호자가 간섭해서”이며, 고등학생은 “성적이 떨어져서”로 나타났다.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 모니터링

〈표4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놀이와 여가 생활의 불만족 이유

항목		1	2	3	4	5	6	7	8	9
성별	여성	10(2.5)	45(11.3)	9(2.3)	68(17.1)	33(8.3)	45(11.3)	162(40.7)	11(2.8)	15(3.8)
	남성	3(1.6)	30(15.5)	11(5.7)	33(17.1)	19(9.8)	20(10.4)	60(31.1)	6(3.1)	11(5.7)
학교급	초등학교	4(5.4)	3(4.1)	5(6.8)	13(17.6)	13(17.6)	6(8.1)	23(31.1)	2(2.7)	5(6.8)
	중학교	3(1.9)	14(9.0)	1(0.6)	35(22.4)	17(10.9)	18(11.5)	53(34.0)	5(3.2)	10(6.4)
	고등학교	7(1.9)	58(16.0)	13(3.6)	52(14.4)	22(6.1)	41(11.3)	147(40.6)	11(3.0)	11(3.0)
거주 지역	농산어촌	2(3.1)	8(12.5)	6(9.4)	13(20.3)	5(7.8)	7(10.9)	19(29.7)	2(3.1)	2(3.1)
	중소도시	7(2.2)	38(11.9)	10(3.1)	46(14.4)	35(10.9)	36(11.3)	122(38.1)	9(2.8)	17(5.3)
	대도시	4(1.9)	28(13.6)	4(1.9)	42(20.4)	12(5.8)	22(10.7)	82(39.8)	5(2.4)	7(3.4)

1) 건강이 안 좋아서, 2) 성적이 떨어져서, 3) 친구가 없어서, 4) 보호자가 간섭해서, 5) 매일 똑같은 놀이를 반복해서, 6) 비용이 부족해서, 7) 놀 시간이 부족해서, 8) 놀이 시설이 부족해서, 9) 기타

4.3. 놀이와 여가 생활의 만족 이유

〈표 43〉는 ‘놀이와 여가 생활에 만족한다면 그 이유를 두 가지 고르세요’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서”가 658명(25.9%), “기분이 좋아져서”가 641명(25.2%), “친구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어서”가 487명(19.2%),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가 158명(6.2%), “몸이 건강해 지는 것 같아서”가 126명(5.0%), “가족 간에 화목해져서”가 108명(4.3%),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어서”가 98명(3.9%), “보호자에게 간섭을 받지 않아서”가 72명(2.8%), 기타가 26명(1.0%) 순으로 나타났다.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 모니터링

〈표43〉 놀이와 여가 생활의 만족 이유(복수 응답)

항목	1순위		2순위		1+2순위	
	응답수 (n)	백분율 (%)	응답수 (n)	백분율 (%)	응답수 (n)	백분율 (%)
몸이 건강해 지는 것 같아서	101	7.2	25	2.2	126	5.0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58	4.1	40	3.5	98	3.9
친구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어서	314	22.3	173	15.2	487	19.2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서	392	27.9	266	23.4	658	25.9
기분이 좋아져서	258	18.4	383	33.7	641	25.2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48	3.4	110	9.7	158	6.2
가족 간에 화목해져서	39	2.8	69	6.1	108	4.3
보호자에게 간섭을 받지 않아서	13	.9	59	5.2	72	2.8
기타	15	1.1	11	1.0	26	1.0
무응답	167	11.9	-	-	167	6.6
합 계	1,405	100.0	1,136	100.0	2,541	100.0

놀이와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3+4) 응답자(n=1,405, %), 복수응답

〈표 44〉는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역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놀이와 여가 생활의 만족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는 남아보다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친구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져서”가 높고, 남아는 여아보다 “몸이 건강해 지는 것 같아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은 “친구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어서”가 가장 높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 모니터링

〈표4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놀이와 여가 생활의 만족 이유

항목		1	2	3	4	5	6	7	8	9
성별	여성	29(3.7)	27(3.4)	209(26.4)	276(34.8)	177(22.3)	27(3.4)	29(3.7)	9(1.1)	10(1.3)
	남성	82(16.8)	33(6.8)	114(23.4)	128(26.3)	86(17.7)	21(4.3)	10(2.1)	6(1.2)	7(1.4)
학교급	초등학교	25(10.9)	10(4.3)	92(40.0)	42(18.3)	35(15.2)	9(3.9)	14(6.1)	0(0.0)	3(1.3)
	중학교	32(8.0)	16(4.0)	95(23.8)	140(35.0)	77(19.3)	18(4.5)	7(1.8)	7(1.8)	8(2.0)
	고등학교	55(8.4)	35(5.4)	135(20.7)	228(35.0)	146(22.4)	23(3.5)	18(2.8)	6(0.9)	6(0.9)
거주 지역	농산어촌	14(11.5)	5(4.1)	24(19.7)	47(38.5)	17(13.9)	6(4.9)	7(5.7)	2(1.6)	0(0.0)
	중소도시	62(8.9)	34(4.9)	172(24.7)	219(31.4)	143(20.5)	27(3.9)	19(2.7)	9(1.3)	12(1.7)
	대도시	35(7.7)	23(5.0)	124(27.2)	135(29.6)	101(22.1)	16(3.5)	13(2.9)	4(0.9)	5(1.1)

1) 몸이 건강해 지는 것 같아서, 2)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3) 친구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어서, 4)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서, 5) 기분이 좋아져서, 6)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7) 가족 간에 화목해져서, 8) 보호자에게 간섭을 받지 않아서, 9) 기타

5. 놀이의 장애 요인

5.1. 놀이 및 여가 활동 시 부모님과과의 갈등 이유

〈표 45〉는 ‘놀이 및 여가 활동을 할 때 무엇 때문에 보호자와 갈등이 있나요’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갈등이 없음”이 702명(36.1%), “오랜 시간 놀아서”가 408명(21.0%), “늦게 귀가해서”가 298명(15.3%), “성적이 떨어져서”가 197명(10.1%), “용돈을 많이 써서”가 142명(7.3%), 기타가 102명(5.2%), “건전하지 못해서”가 39명(2.0%), “보호자가 놀이 친구를 싫어해서”가 23명(1.2%) 순으로 나타났다.

〈표45〉 놀이 및 여가 활동 시 부모님과과의 갈등 이유

항목	응답수(n)	백분율(%)
갈등이 없음	702	36.1
오랜 시간 놀아서	408	21.0
건전하지 못해서	39	2.0
성적이 떨어져서	197	10.1
늦게 귀가해서	298	15.3
보호자가 놀이 친구를 싫어해서	23	1.2
용돈을 많이 써서	142	7.3
기타	102	5.2
무응답	35	1.8
합 계	1,946	100.0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 모니터링

〈표 46〉은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역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놀이 및 여가 활동 시 부모님과과의 갈등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 학교급,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는 “늦게 귀가해서”와 “용돈을 많이 써서”가 남아보다 높고, 초등학생은 과반수가 “갈등이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중소도시와 대도시 는 오랜 시간 놀거나 건전하지 못해서의 이유가 농산어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6〉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놀이 및 여가 활동 시 부모님과과의 갈등 이유

항목		1	2	3	4	5	6	7	8
성별	여성	421(35.0)	245(20.3)	15(1.2)	115(9.6)	217(18.0)	15(1.2)	104(8.6)	72(6.0)
	남성	273(39.7)	158(23.0)	24(3.5)	77(11.2)	79(11.5)	8(1.2)	38(5.5)	30(4.4)
학교급	초등학교	163(53.4)	56(18.4)	3(1.0)	11(3.6)	30(9.8)	4(1.3)	20(6.6)	18(5.9)
	중학교	203(35.6)	124(21.8)	15(2.6)	59(10.4)	83(14.6)	9(1.6)	43(7.5)	34(6.0)
	고등학교	331(32.5)	226(22.2)	20(2.0)	126(12.4)	181(17.8)	9(0.9)	78(7.7)	48(4.7)
거주 지역	농산어촌	58(32.8)	29(16.4)	6(3.4)	21(11.9)	35(19.8)	4(2.3)	17(9.6)	7(4.0)
	중소도시	376(36.1)	238(22.9)	19(1.8)	113(10.9)	149(14.3)	13(1.2)	86(8.3)	47(4.5)
	대도시	255(38.3)	137(20.6)	14(2.1)	60(9.0)	110(16.5)	6(0.9)	37(5.6)	47(7.1)

1) 갈등이 없음, 2) 오랜 시간 놀아서, 3) 건전하지 못해서, 4) 성적이 떨어져서, 5) 늦게 귀가해서, 6) 보호자가 놀이 친구를 싫어해서, 7) 용돈을 많이 써서, 8) 기타

5.2. 향후 놀이 및 여가 활동을 위한 필요 요인

〈표 47〉은 ‘앞으로 더 많은 놀이 및 여가 활동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무료 또는 저렴한 이용료”가 728명(20.2%), “보호자의 이해”가 559명(15.5%), “학습 부담의 감소”가 553명(15.3%), “놀이 시간의 확보”가 502명(13.9%), “놀이 시설·공간 확보”가 305명(8.5%), “학원 학습시간 감소”가 300명(8.3%),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 개선(야자폐지 등)”이 283명(7.8%), “친밀한 교우관계”가 184명(5.1%),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이 114명(3.2%), “일 또는 아르바이트 부담 감소”가 12명(0.3%) 순으로 나타났다.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 모니터링

〈표47〉 향후 놀이 및 여가 활동을 위한 필요 요인

항목	1순위		2순위		1+2순위	
	응답수 (n)	백분율 (%)	응답수 (n)	백분율 (%)	응답수 (n)	백분율 (%)
보호자의 이해	437	22.5	122	7.3	559	15.5
무료 또는 저렴한 이용료	419	21.5	309	18.6	728	20.2
놀이 시간의 확보	249	12.8	253	15.2	502	13.9
학원 학습시간 감소	159	8.2	141	8.5	300	8.3
학습 부담의 감소	269	13.8	284	17.1	553	15.3
친밀한 교우관계	79	4.1	105	6.3	184	5.1
입시위주의 교육 정책 개선(야자폐지 등)	124	6.4	159	9.6	283	7.8
놀이 시설 · 공간 확보	110	5.7	195	11.7	305	8.5
일 또는 아르바이트 부담 감소	1	.1	11	.7	12	0.3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	32	1.6	82	4.9	114	3.2
무응답	67	3.4	-	-	67	1.9
합 계	1,946	100.0	1,661	100.0	3,607	100.0

전체 응답자(n=1,946, %), 복수응답

〈표 48〉은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역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향후 놀이 및 여가 활동을 위한 필요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 학교급,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보다 남아가 “보호자의 이해”와 “놀이 시간의 확보”가 높고, 여아는 남아보다 “무료 또는 저렴한 이용료”와 “학습 부담의 감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보호자의 이해”가 가장 높으나 고등학생은 “무료 또는 저렴한 이용료”나 “학습 부담의 감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8〉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향후 놀이 및 여가 활동을 위한 필요 요인

항목		1	2	3	4	5	6	7	8	9	10
성별	여성	252(21.2)	271(22.8)	149(12.5)	99(8.3)	196(16.5)	50(4.2)	87(7.3)	69(5.8)	0(0.0)	16(1.3)
	남성	177(26.4)	144(21.5)	100(14.9)	59(8.8)	69(10.3)	29(4.3)	35(5.2)	41(6.1)	1(0.1)	15(2.2)
학교급	초등학교	91(30.5)	58(19.5)	39(13.1)	36(12.1)	13(4.4)	13(4.4)	5(1.7)	28(9.4)	0(0.0)	15(5.0)
	중학교	158(28.5)	144(25.9)	58(10.5)	70(12.6)	49(8.8)	24(4.3)	12(2.2)	32(5.8)	0(0.0)	8(1.4)
	고등학교	184(18.3)	211(20.9)	151(15.0)	52(5.2)	207(20.5)	40(4.0)	105(10.4)	49(4.9)	0(0.0)	9(0.9)
거주 지역	농산어촌	44(25.3)	48(27.6)	13(7.5)	4(2.3)	19(10.9)	15(8.6)	11(6.3)	16(9.2)	1(0.6)	3(1.7)
	중소도시	233(22.8)	249(24.4)	131(12.8)	79(7.7)	140(13.7)	44(4.3)	76(7.4)	56(5.5)	0(0.0)	13(1.3)
	대도시	154(23.5)	114(17.4)	104(15.9)	74(11.3)	105(16.0)	19(2.9)	33(5.0)	37(5.6)	0(0.0)	16(2.4)

1) 보호자의 이해, 2) 무료 또는 저렴한 이용료, 3) 놀이 시간의 확보, 4) 학원 학습시간 감소, 5) 학습 부담의 감소, 6) 친밀한 교우관계, 7) 입시위주의 교육 정책 개선(아자폐지 등), 8) 놀이 시설·공간 확보, 9) 일 또는 아르바이트 부담 감소, 10)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

5.3. 놀이 및 여가를 위한 집 주변의 공간·시설의 만족도

〈표 49〉는 ‘집 근처에 놀이 및 여가를 위한 공간과 시설이 충분한가요’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그리 충분하지 않다”가 748명(38.4%), “비교적 충분하다”가 683명(35.1%), “전혀 충분하지 않다”가 239명(12.3%), “매우 충분하다”가 203명(10.4%) 순으로 나타났다.

〈표49〉 놀이 및 여가를 위한 집 주변의 공간 시설의 만족도

항목	응답수(n)	백분율(%)
전혀 충분하지 않다	239	12.3
그리 충분하지 않다	748	38.4
비교적 충분하다	683	35.1
매우 충분하다	203	10.4
무응답	73	3.8
합 계	1,946	100.0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 모니터링

〈표 50〉은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역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놀이 및 여가를 위한 집 주변의 공간·시설의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 학교급,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보다 남아가 집 주변 공간 및 시설의 만족도가 높고, 초등학생이 만족도가 높으며, 대도시 거주자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0〉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놀이 및 여가를 위한 집 주변의 공간·시설의 만족도

항목		전혀 충분하지 않다	그리 충분하지 않다	비교적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성별	여성	156(13.2)	513(43.5)	401(34.0)	110(9.3)
	남성	79(11.7)	229(34.0)	276(41.0)	89(13.2)
학교급	초등학교	27(9.3)	97(33.4)	107(36.9)	59(20.3)
	중학교	67(12.0)	224(40.0)	204(36.4)	65(11.6)
	고등학교	143(14.2)	416(41.4)	368(36.6)	79(7.9)
거주 지역	농산어촌	55(32.2)	75(43.9)	30(17.5)	11(6.4)
	중소도시	120(11.8)	402(39.4)	400(39.2)	98(9.6)
	대도시	62(9.5)	265(40.5)	239(36.5)	89(13.6)

5.4. 현재 이용하는 놀이 및 여가 시설의 불편한 점

〈표 51〉은 ‘현재 이용하는 놀이 및 여가 시설의 불편한 점’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다양한 놀이 및 여가 시설이 없다”가 978명(28.7%), “이용료가 비싸다”가 838명(24.6%), “이동거리가 멀다”가 654명(19.2%), “재미없다(오래된 프로그램 등)”가 338명(9.9%), “어른들이 함께 사용해서 불편하다”가 192명(5.6%), “안전시설이 없어 위험하다”가 75명(2.2%), “놀이 전문가가 부족하다”가 72명(2.1%), 기타가 146명(4.3%) 순으로 나타났다.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 모니터링

〈표51〉 현재 이용하는 놀이 및 여가 시설의 불편한 점

항목	1순위		2순위		1+2순위	
	응답수 (n)	백분율 (%)	응답수 (n)	백분율 (%)	응답수 (n)	백분율 (%)
어른들이 함께 사용해서 불편하다	126	6.5	66	4.5	192	5.6
이용료가 비싸다	559	28.7	279	19.1	838	24.6
이동거리가 멀다	368	18.9	286	19.6	654	19.2
다양한 놀이 및 여가 시설이 없다	518	26.6	460	31.5	978	28.7
놀이 전문가가 부족하다	24	1.2	48	3.3	72	2.1
안전시설이 없어 위험하다	26	1.3	49	3.4	75	2.2
재미없다(오래된 프로그램 등)	103	5.3	235	16.1	338	9.9
기타	107	5.5	39	2.7	146	4.3
무응답	115	5.9	-	-	115	3.4
합 계	1,946	100.0	1,462	100.0	3,408	100.0

전체 응답자(n=1,946, %), 복수응답

〈표 52〉는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역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현재 이용하는 놀이 및 여가 시설의 불편한 점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 학교급,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는 “다양한 놀이 및 여가 시설이 없다”가 가장 높고, 남아는 “이용료가 비싸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은 “다양한 놀이 및 여가 시설이 없다”가 가장 높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이용료가 비싸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어촌 거주자는 “다양한 놀이 및 여가 시설이 없다”나 “이동거리가 멀다”가 상대적으로 높고, 중소도시와 대도시 거주자는 “이용료가 비싸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 모니터링

〈표5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현재 이용하는 놀이 및 여가 시설의 불편한 점

항목		1	2	3	4	5	6	7	8
성별	여성	60(5.1)	362(30.9)	235(20.1)	379(32.3)	11(0.9)	9(0.8)	64(5.5)	52(4.4)
	남성	62(9.7)	191(29.8)	132(20.6)	136(21.2)	12(1.9)	17(2.6)	38(5.9)	54(8.4)
학교급	초등학교	33(11.8)	59(21.1)	51(18.2)	72(25.7)	3(1.1)	10(3.6)	22(7.9)	30(10.7)
	중학교	46(8.5)	176(32.4)	106(19.5)	128(23.5)	7(1.3)	11(2.0)	38(7.0)	32(5.9)
	고등학교	47(4.7)	316(31.9)	208(21.0)	314(31.7)	13(1.3)	4(0.4)	43(4.3)	45(4.5)
거주 지역	농산어촌	9(5.1)	35(20.0)	54(30.9)	55(31.4)	4(2.3)	4(2.3)	5(2.9)	9(5.1)
	중소도시	67(6.7)	306(30.5)	203(20.3)	288(28.7)	13(1.3)	13(1.3)	55(5.5)	57(5.7)
	대도시	47(7.5)	206(32.8)	108(17.2)	169(26.9)	7(1.1)	9(1.4)	42(6.7)	40(6.4)

1) 어른들이 함께 사용해서 불편하다, 2) 이용료가 비싸다, 3) 이동거리가 멀다, 4) 다양한 놀이 및 여가 시설이 없다, 5) 놀이 전문가가 부족하다, 6) 안전시설이 없어 위험하다, 7) 재미없다(오래된 프로그램 등), 8) 기타

5.5. 삶의 만족도

〈표 53〉은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요’를 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약간 행복하다”가 916명(47.1%), “매우 행복하다”가 636명(32.7%), “별로 행복하지 않다”가 304명(15.6%), “전혀 행복하지 않다”가 53명(2.7%) 순으로 나타났다.

〈표53〉 삶의 만족도

항목	응답수 (n)	백분율 (%)
전혀 행복하지 않다	53	2.7
별로 행복하지 않다	304	15.6
약간 행복하다	916	47.1
매우 행복하다	636	32.7
무응답	37	1.9
합 계	1,946	100.0

〈표 54〉는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역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보다 남아가 “매우 행복하다”가 높고, 초등학생이 “매우 행복하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항목	전혀 행복하지 않다	별로 행복하지 않다	약간 행복하다	매우 행복하다	
성별	여성	24(2.0)	199(16.6)	621(51.7)	357(29.7)
	남성	25(3.6)	104(15.1)	283(41.1)	276(40.1)
학교급	초등학교	8(2.6)	20(6.6)	116(38.0)	161(52.8)
	중학교	12(2.1)	88(15.4)	255(44.6)	217(37.9)
	고등학교	32(3.2)	193(19.0)	535(52.7)	255(25.1)
거주 지역	농산어촌	9(5.0)	30(16.8)	82(45.8)	58(32.4)
	중소도시	27(2.6)	167(16.1)	514(49.6)	329(31.7)
	대도시	16(2.4)	102(15.4)	308(46.5)	237(35.7)

결론

1. 놀 권리 확보 방안

1) 놀이의 중요성과 놀 권리의 의의

놀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유용한 상상력, 창의적인 지적 능력, 정서적 유연성은 놀이를 통해서만 개발될 수 있고 향상될 수 있다. 사람은 놀이를 통해 발달하고 변화에 적응한다. 놀이를 통해 인간관계에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즐거움을 맘껏 표현하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가장 좋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놀이의 반대말은 일이나 학습이 아니다. 놀이의 반대말은 우울함이라고 한다. 잘 노는 것은 행복과 성공, 상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일과 학습이 놀이와 대립하지 않고 융합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한다. 잘 노는 아이가 감성과 지능이 높다고 한다. 이런 아이일수록 점차 창의력을 키우며 나중에 행복한 어른이 된다. 기업들도 역시 잘 노는 인재를 좋아한다.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하고 성공할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논다고 하면 뒤쳐진다고 생각해 불안해한다. 나이가 들어 어느 시점이 되면 노는데 죄책감을 느낀다. 노는 것이 비생산적이고 시간 낭비이며 심지어 잘못이라는 생각

까지 하게 된다. 어렸을 때 제대로 놀아본 기억이 없거나 노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 나쁜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머리에 박혀있어 대다수 성인들은 잘 놀 줄 모른다. 덩달아 그 자녀들도 놀지 못하게 된다. 실제 놀이가 없는 아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울 기회를 잃어가고 있다. 아이에게 놀이를 뺏는 것은 세상을 배우는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다. 놀이의 힘은 연령이 어릴수록 바람직한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놀이라는 명분 속에 새로운 공부와 개념을 넣어 주려고 할 때, 재미난 놀이 계획을 성인이 세운 후에 아이에게 따라오도록 할 때, 매력적인 놀잇감과 환경을 주며 성인이 생각하는 목표에 집중시키려 할 때, 이미 그 성인은 놀이에서 ‘갑’의 위치를 차지한다. 어른들이 갑이 되어 시간을 쪼개 아이와 놀아줬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나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놀이는 현실과 상상이 마구 오가기도 하고, 실패와 성공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 언제라도 현실세계로 돌아오고 평가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 놀이의 계획과 시작, 선택과 진행, 끝남과 재시작의 모든 과정에 대한 결정을 아이가 할 때 진짜 놀이이다. 놀이에서 아이가 ‘갑’이어야 한다.

2) 설문 결과 및 함의

이번에 설문조사 된 아이들이 놀이와 여가의 권리에 대한 보호자의 인정수준이 86%나 될 정도로 매우 건강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놀 권리를 모르고 있는 아동의 비율이 33.7%나 되고 일평균 자유시간이 없거나 1시간 이하의 아동의 비율이 20.5%, 고등학생의 경우 26.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학습으로 인한 시간부족, 너무 많은 학원 교습을 놀 권리가 보장 안되는 이유로 들고 있을 정도로 조기교육 과열과 지나친 사교육 등으로 아동의 놀이시간과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수업, 사교육, 시험 준비 등으로 짝 짜여진 스케줄에 시달리고 있다. 아동들의 놀이 장소는 산업화 과정에서 개발로 잠식되어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가 가능한 공간을 주변에서 쉽게 찾기 어렵다. 놀이는 아이에게 필수품인데 사치재가 되었다. 돈이 있어야 놀이를 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아이들의 시간표를 대신 짜주고 온갖 활동을 시키면서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빼앗고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내적인 동기를 말살시키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시험성적을 올리기 위한 장소로 변했고 아이들은 그곳에서 대학을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는다. 놀자고 하면 어색해한다. 보호자도 변해야 하고 학교도 변해야 한다. 아동에게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일상에서 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놀 시간이 부족한 중고등학생의 경우 적어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충분한 놀이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 모니터링

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학교에서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64.4%로 나타나 놀 권리 측면에서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는 수업 중간 쉬는 시간을 늘려주면서 친구들과 놀 기회를 만들어주고 놀이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잘하면 무슨 소용 있는가? 균형 맞지 않는 삶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나친 일과 학습으로 우리의 삶이 황폐해졌다면 놀이를 통해 활기를 되살릴 수 있다. 삶도 노는 만큼 에너지가 채워진다고 한다. 논다는 건 재충전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에서 놀이가 차지할 자리를 되찾아주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3) 추가적 논점 : 향후 모니터링 및 연구의 방향성

마지막으로 놀 권리가 없는 아이들, 그리고 놀 시간이 없는 아이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놀 시간이 너무 많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안이 있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일 평균 놀이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자유시간이 4시간 초과한다는 아동의 비율이 16%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에게서는 21.4%로 나타나 이 아이들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놀 권리를 논의할 때 큰 울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아이들이 주도권을 갖고 맘껏 노는 것이 건강한 놀이의 핵심이고 어른들의 개입이 커지면서 아이들의 자유는 축소된다. 하지만 강한 자극에 노출된 아이들은 더욱 강한 자극만 요구하게 된다. 아주 단맛에 길들여진 아이가 다른 맛을 느끼지 못하듯이,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등 강한 자극을 통한 즐거움을 느낀 아이들은 상대방과 서서히 즐거움을 키워가는 놀이에는 흥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혼자 노는 것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여가활동이 활발한 아이일수록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될 염려도 줄어든다. 아이들 스스로도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59.8%) 신체활동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46.9%) 있었다. 큰 울타리를 어떻게 어디까지 쳐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도 혼자 논다는 비율이 18.9%로 나타나 놀 권리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그리고 얼마까지 놀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이후 당사자 모니터링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개입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돈 들이지 않고 놀 수 있어야 그게 놀이인데 용돈 비용이 부족해서 놀지 못한다는 비율이 17.1% 정도로 나타나 아동들이 어떤 놀이로 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반드시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적어도 안전한

환경에서 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너무 위험만을 생각해서 너무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놀이터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위험이다. 아이들 안전을 너무 염려하여 다칠까봐 못 내보내겠다는 보호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이들이 작게 다쳐야 크게 안 다친다는 것이다. 큰 울타리 내에서 아이들이 그런 작은 위험과 만날 수 있게 하는 게 보호자나 사회이다. 얼마만큼 노는 것이 충분히 노는 것인가, 어디서 어떻게 노는 것이 안전한 것인가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고민도 필요하고, 보호자나 사회가 큰 울타리를 어떻게 쳐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II. 모니터링 참여아동(LENS)의 사전·사후비교

연구방법

모니터링 참여아동(LENS)들에 대해서 사전-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아동권리 인식에 유의미한 증진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참여아동들을 대상으로 총 141부를 배포하여 101부가 수거되었다. 이를 위한 설문조사는 총 24개 문항의 아동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외에 아동인권 교육이나 행사 참여 경험, 거주지와 학년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아동으로 구성된 10개 권역별 모니터링 참여아동(LENS)을 대상으로 2018년 7월 모니터링 발대식과 활동 시작 전에 사전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3개월 모니터링 활동이 끝나는 시점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각 권역별로 코디네이터들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개요〉

조사 대상	조사 인원	조사 방법	조사 기간
권역별 모니터링 참여 아동(LENS)	총 101명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	모니터링 활동 시작 전(사전조사) 및 후(사후조사)

1. 조사 대상

모니터링 참여아동(LENS)들을 대상으로 총 105부를 배포하여 101부가 수거되었고, 모두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지역별 응답 현황은 <표 55>과 같다. 분석결과 전라북도가 15명(14.9%), 제주특별자치도가 15명(14.9%), 부산광역시가 12명(11.9%), 광주광역시가 8명(7.9%), 충청북도가 8명(7.9%), 강원도가 8명(7.9%), 대구광역시가 7명(6.9%) 순으로 나타났다.

<표55> 지역별 응답현황

항목	응답수(n)	백분율(%)	항목	응답수(n)	백분율(%)
서울특별시	6	5.9	충청남도	1	1.0
경기도	3	3.0	전라북도	15	14.9
인천광역시	6	5.9	전라남도	6	5.9
부산광역시	12	11.9	경상북도	1	1.0
대구광역시	7	6.9	경상남도	2	2.0
대전광역시	1	1.0	강원도	8	7.9
울산광역시	1	1.0	제주특별자치도	15	14.9
광주광역시	8	7.9	세종특별자치시	1	1.0
충청북도	8	7.9	합 계	101	100.0

2. 조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표 56>과 같다. 분석결과 여아가 71명(70.3%), 남아가 30명(29.7%)이고, 고등학교 2학년이 35명(34.7%), 고등학교 1학년이 26명(25.7%), 중학교 1학년이 12명(11.9%), 중학교 3학년이 7명(6.9%)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인권과 관련된 교육이나 행사에 참여한 경험은 “있다”가 59명(58.4%), “없다”가 42명(41.6%)으로 나타났다.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 모니터링

〈표56〉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응답수(n)	백분율(%)
성별	남자	30	29.7
	여자	71	70.3
학년	초등학교 5학년	5	5.0
	초등학교 6학년	5	5.0
	중학교 1학년	12	11.9
	중학교 2학년	4	4.0
	중학교 3학년	7	6.9
	고등학교 1학년	26	25.7
	고등학교 2학년	35	34.7
	고등학교 3학년	6	5.9
	기타	1	1.0
아동인권 관련 교육 여부	있다	59	58.4
	없다	42	41.6
꿈 여부	꿈이 없다	6	5.9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	40	39.6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	55	54.5
꿈에 따른 삶	전혀 아니다	1	1.0
	아니다	28	27.7
	그렇다	58	57.4
	매우 그렇다	14	13.9
합 계		101	100.0

꿈 여부 설문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가 55명(54.5%),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가 40명(39.6%), “꿈이 없다”가 6명(5.9%) 순으로 나타났고, 꿈에 따른 삶 설문은 “그렇다”가 58명(57.4%), “아니다”가 28명(27.7%), “매우 그렇다”가 14명(13.9%), “전혀 아니다”가 1명(1.0%)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1. 아동권리 사전·사후 비교

〈표 57〉은 아동권리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를 비교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 사이를 부여하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결과 ‘모든 아동의 의식주를 부모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있어서는 사전검사(평균=4.19)에서 사후검사(평균=4.45)로 0.26점 증가하였다.

‘아동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부모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있어서는 사전검사(평균=4.62)에서 사후검사(평균=4.71)로 0.09점 증가하였다.

‘아동이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을 경우 자신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에 있어서는 사전검사(평균=4.33)에서 사후검사(평균=4.30)로 -0.03점 감소하였다.

‘모든 아동이 차별 받지 않고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에 있어서는 사전검사(평균=4.79)에서 사후검사(평균=4.76)로 -0.03점 감소하였다.

‘아동이 피부색이 다르거나 부모가 가난하거나, 종교가 다르면 차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있어서는 사전검사(평균=4.82)에서 사후검사(평균=4.67)로 -0.15점 감소하였다.

‘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있어서는 사전검사(평균=4.61)에서 사후검사(평균=4.69)로 0.08점 증가하였다.

‘아동의 놀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있어서는 사전검사(평균=4.52)에서 사후검사(평균=4.65)로 0.13점 증가하였다.

‘국가·지역사회 등에서 아동에 관한 지원 및 활동을 할 때 아동의 입장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있어서는 사전검사(평균=4.32)에서 사후검사(평균=4.39)로 0.07점 증가하였다.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은 절대로 신체적, 정신적 폭력,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있어서는 사전검사(평균=4.58)에서 사후검사(평균=4.78)로 0.20점 증가하였다.

‘장애아동이 차별 받지 않고 성장하도록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있어서는 사전검사(평균=4.81)에서 사후검사(평균=4.87)로 0.06점 증가하였다.

‘아동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대하거나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있어서는 사전검사(평균=2.44)에서 사후검사(평균=2.40)로 -0.04점 감소하였다.

‘아동이 자신의 종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있어서는 사전검사(평균=4.68)에서 사후검사(평균=4.71)로 0.03점 증가하였다.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 모니터링

‘아동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있어서는 사전검사(평균=4.15)에서 사후검사(평균=4.30)로 0.15점 증가하였다.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험한 노동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에 있어서는 사전검사(평균=4.26)에서 사후검사(평균=4.17)로 -0.09점 감소하였다.

‘아동이라도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있어서는 사전검사(평균=4.62)에서 사후검사(평균=4.67)로 0.05점 증가하였다.

‘아동의 입양 보내질 때 그 과정에서 아동의 연령 및 성숙단계를 고려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있어서는 사전검사(평균=4.60)에서 사후검사(평균=4.53)로 -0.07점 감소하였다.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있어서는 사전검사(평균=4.74)에서 사후검사(평균=4.70)로 -0.04점 감소하였다.

‘아동이 의견형성과 결정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있어서는 사전검사(평균=4.68)에서 사후검사(평균=4.62)로 -0.06점 감소하였다.

‘아동의 견해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있어서는 사전검사(평균=4.65)에서 사후검사(평균=4.65)로 0.00점 감소하였다.

‘아동은 능력발달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있어서는 사전검사(평균=4.78)에서 사후검사(평균=4.77)로 -0.01점 감소하였다.

‘우리 사회는 어린이와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어린이의 의견을 듣고 어린이가 참여할 권리를 보호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에 있어서는 사전검사(평균=3.71)에서 사후검사(평균=3.91)로 0.20점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나의 권리는 가정에서 얼마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에 있어서는 사전검사(평균=4.16)에서 사후검사(평균=4.19)로 0.03점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나의 권리는 학교에서 얼마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에 있어서는 사전검사(평균=3.62)에서 사후검사(평균=3.79)로 0.17점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나의 권리는 우리 동네에서 얼마나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에 있어서는 사전검사(평균=3.71)에서 사후검사(평균=3.72)로 0.01점 증가하였다.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 모니터링

〈표57〉 아동권리의 문항별 사전 사후검사 결과

검사항목	사전검사		사후검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의식주에 대한 부모와 국가의 책임	4.19	0.97	4.45	0.64
심신 건강에 대한 부모와 국가의 책임	4.62	0.51	4.71	0.50
친부모에 대한 알 권리	4.33	0.80	4.30	0.87
차별 받지 않고 교육 받을 권리	4.79	0.64	4.76	0.68
인종·경제수준·종교의 차별 금지	4.82	0.67	4.67	1.03
표현의 자유	4.61	0.85	4.69	0.70
놀 권리 보장	4.52	0.66	4.65	0.56
지원 및 활동 시 아동권리 최우선	4.32	0.75	4.39	0.75
신체적·정신적 폭력 및 학대 금지	4.58	0.68	4.78	0.54
장애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4.81	0.42	4.87	0.34
소년범죄와 성인범죄에 대한 차별 처우	2.44	1.07	2.40	1.20
종교 선택의 권리	4.68	0.71	4.71	0.50
정보 접근의 자유	4.15	0.86	4.30	0.84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보호	4.26	0.81	4.17	0.94
사생활 보호 권리	4.62	0.60	4.67	0.51
입양 시 아동 의견 수렴	4.60	0.53	4.53	0.63
의사결정과정 아동의 참여 기회	4.74	0.44	4.70	0.50
의견형성과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제공	4.68	0.49	4.62	0.55
아동견해의 존중	4.65	0.57	4.65	0.57
아동의 능력발달 기회 보장	4.78	0.78	4.77	0.44
아동의 문제해결 과정의 참여 권리	3.71	1.24	3.91	1.15
가정에서의 아동권리 보장	4.16	0.80	4.19	0.81
학교에서의 아동권리 보장	3.62	0.97	3.79	0.97
지역사회에서의 아동권리 보장	3.71	0.86	3.72	1.11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 모니터링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니터링 참여아동(LENS)들에 대해서 사전-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아동권리 인식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많이 발견하지 못했다. 참여아동의 사전-사후는 물론 성별, 인권관련 교육 여부, 꿈 여부에 따른 차이도 많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이들의 참여가 단지 3개월에 불과해 큰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던 점이다. 적어도 봄학기 시작할 때 출발하여 가을까지 지속할 수 있었다면 변화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지만 추석연휴까지 포함된 3개월은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었다. 둘째, 아동권리에 관심이 높은 아이들이 주로 참여하여 아이들의 초기 아동권리 인식수준이 매우 높아 그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 인식수준이 낮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했다면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초기 141명이 출발했으나 28.4%가 감소하여 최종에는 101명만 남았다. 활동보고서 작성 등 여러 과업이 아동친화적이지 않아 탈락한 아이들이 계속 함께 할 수 있었다면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후 좀 더 장기간, 비교집단도 추가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엄밀성을 보완한다면 더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1 : 놀 권리 설문지]

2018년 아동의 놀 권리 설문조사



사단
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

LIST ID :

--	--	--	--	--	--	--	--	--	--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아동들이 놀이와 여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놀이 및 여가 시간을 주로 어떻게 보내는지 등을 알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설문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건강한 놀이 및 여가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설문에는 여러분에 관한 많은 질문들이 있고, 다른 아동들도 같은 설문지에 답할 것입니다. 질문에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응답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지를 주의 깊게 읽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해 주세요.

2018년 9월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이번 조사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관련 문의: 한국아동단체협의회 02-831-1930

동 의 서

아래 사항을 확인한 후, 설문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이름을 써주세요.

1. 나는 안내문을 읽었습니다.
2. 나는 이 설문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나는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참여자 이름

서 명

날 짜 (년/월/일)

2018년 아동의 놀 권리 설문조사입니다.

※ 다음의 질문들을 잘 읽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해 주세요.

1. 여러분은 놀이를 즐기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아동)의 권리'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① 예, 알고 있습니다 ② 아니오, 모릅니다
2. 보호자는 여러분의 '놀이 및 여가의 권리'를 인정해주나요?
 ①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다 ②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③ 약간 인정해준다 ④ 적극 인정해준다
3. 놀이나 여가가 나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4. 하루 평균 놀이를 즐기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없다 ② 1시간 이하 ③ 2시간 이하 ④ 3시간 이하 ⑤ 4시간 이하 ⑥ 4시간 초과
5. 하루에 자유 시간이 충분한가요?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6. 나의 놀이 방법 중 바꿔야 하는 점에 모두 체크(✓)하세요.
 ①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 한다
 ② 신체 활동을 늘려야 한다
 ③ 놀이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
 ④ 바깥놀이를 더 많이 해야 한다
 ⑤ 놀이와 여가 비용을 줄인다
 ⑥ 기타()
 ⑦ 나의 놀이방법이 바뀌지 않아도 좋다.

여러분의 '놀이 및 여가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7. 주중 하루(월~금요일) 중 얼마나 놀 수 있나요?
 ① 없다 ② 1시간 이하 ③ 2시간 이하 ④ 3시간 이하 ⑤ 4시간 이하 ⑥ 4시간 초과
8. 주말 하루(토~일요일) 중 얼마나 놀 수 있나요?
 ① 없다 ② 1시간 이하 ③ 2시간 이하 ④ 3시간 이하 ⑤ 4시간 이하 ⑥ 4시간 초과
9. 하루에 학교 수업을 제외하고 공부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① 없다 ② 1시간 이하 ③ 2시간 이하 ④ 3시간 이하 ⑤ 4시간 이하 ⑥ 4시간 초과
10. 주로 몇 명과 노나요?
 ① 나 혼자 논다 ② 친구랑 둘이 논다 ③ 3-4명 함께 논다 ④ 5명 이상 함께 논다
11. 충분히 놀거나 여가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순위:____, 2순위:____)
 ① 너무 많은 학원 교습 ② 학교 학습으로 인한 시간 부족 ③ 놀이 친구가 없어서 ④ 보호자 반대
 ⑤ 놀이 시설·공간이 부족해서 ⑥ 용돈·비용이 부족해서 ⑦ 집안일 또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서
 ⑧ 기타()

* 현재 나의 놀이 및 여가 활동에 관한 설명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하세요.

12. 친구들과 충분히 놀이 및 여가 생활을 하고 있나요?

-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② 그리 충분하지 않다 ③ 비교적 충분하다 ④ 매우 충분하다

12-1. (문 13번의 ①~② 응답자만) 친구와 충분히 놀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1순위: ____, 2순위: ____)

- ①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② 스트레스를 풀기 어렵다 ③ 도전과 경험의 기회가 없어진다
④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⑤ 협동심을 배울 기회가 없어진다 ⑥ 기타()

13. 보호자와 충분히 놀이 및 여가 생활을 하고 있나요?

-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② 그리 충분하지 않다 ③ 비교적 충분하다 ④ 매우 충분하다

13-1. (문 14번의 ①~② 응답자만) 보호자와 충분히 놀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1순위: ____, 2순위: ____)

- ①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② 보호자가 나를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③ 내가 보호자를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④ 가족 간 협동심을 배울 기회가 없어진다 ⑤ 기타()

14. 학교는 여러분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나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4-1. (문 15번의 ①~② 응답자만) 학교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① 쉬는 시간을 늘려준다 ② 놀이 시설을 늘린다 ③ 친구와 놀 기회를 많이 만들어준다
④ 선생님이 같이 놀아준다 ⑤ 놀이에 대한 부모교육(가정통신문)을 제공한다 ⑥ 기타()

과거에 나의 놀이 및 여가 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15. 초등학교 입학 전에 친구들과 충분히 놀이 및 여가 생활을 했나요?

-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② 그리 충분하지 않았다 ③ 비교적 충분하였다 ④ 매우 충분하였다

16. 초등학교 입학 전(유아기)에 부모님과 충분히 놀이 및 여가 생활을 했나요?

-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② 그리 충분하지 않았다 ③ 비교적 충분하였다 ④ 매우 충분하였다

여러분의 '놀이 욕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17. 여러분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놀이와 여가 생활에 만족하나요?

- ①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약간 만족 ④ 만족

▶ 17번 문항에 “①②에 응답한 경우 17-1번 문항으로, ③④에 응답한 경우 17-2번 문항으로 가세요”

17-1. (문 17번의 ①② 응답자만), 놀이와 여가 생활이 불만족스럽다면 그 이유를 두 가지 고르세요.

(1순위: ____, 2순위: ____)

- ① 건강이 안 좋아서 ② 성적이 떨어져서 ③ 친구가 없어서 ④ 보호자가 간섭해서
⑤ 매일 똑같은 놀이를 반복해서 ⑥ 비용이 부족해서 ⑦ 놀 시간이 부족해서
⑧ 놀이 시설이 부족해서 ⑨ 기타()

17-2. (문 17번의 ③④ 응답자만), 놀이와 여가 생활에 만족한다면 그 이유를 두 가지 고르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몸이 건강해 지는 것 같아서 ②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③ 친구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어서
- ④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서 ⑤ 기분이 좋아져서 ⑥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 ⑦ 가족 간에 화목해져서 ⑧ 보호자에게 간섭을 받지 않아서 ⑨ 기타()

여러분의 '놀이의 장애 요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18. 놀이 및 여가 활동을 할 때 무엇 때문에 보호자와 갈등이 있나요?

- ① 갈등이 없음 ② 오랜 시간 놀아서 ③ 건전하지 못해서 ④ 성적이 떨어져서
- ⑤ 늦게 귀가해서 ⑥ 보호자가 놀이 친구를 싫어해서 ⑦ 용돈을 많이 써서 ⑧ 기타()

19. 앞으로 더 많은 놀이 및 여가 활동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르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보호자의 이해 ② 무료 또는 저렴한 이용료 ③ 놀이 시간의 확보 ④ 학원 학습시간 감소
- ⑤ 학습 부담의 감소 ⑥ 친밀한 교우관계 ⑦ 입시위주의 교육 정책 개선(야자폐지 등)
- ⑧ 놀이 시설·공간 확보 ⑨ 일 또는 아르바이트 부담 감소 ⑩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

20. 집 근처에 놀이 및 여가를 위한 공간과 시설이 충분한가요?

-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② 그리 충분하지 않다 ③ 비교적 충분하다 ④ 매우 충분하다

21. 현재 이용하는 놀이 및 여가 시설의 불편한 점을 고르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어른들이 함께 사용해서 불편하다 ② 이용료가 비싸다 ③ 이동거리가 멀다 ④ 다양한 놀이 및 여가 시설이 없다
- ⑤ 놀이 전문가가 부족하다 ⑥ 안전시설이 없어 위험하다 ⑦ 재미없다(오래된 프로그램 등) ⑧ 기타()

22.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요?

-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별로 행복하지 않다 ③ 약간 행복하다 ④ 매우 행복하다

23. 여러분의 나이는? ()

24.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는?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안학교 ⑤ 학교 다니지 않음

25. 여러분의 성별은?

- ① 여성 ② 남성 ③ 기타

26. 여러분이 사는 지역은?

- ① 농산어촌 ② 중소도시 ③ 대도시

27.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나요? (관련된 모든 것에 V로 표시해 주세요)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남자형제() ④ 여자형제() ⑤ 할아버지·할머니() ⑥ 새어머니()
- ⑦ 새아버지() ⑧ 아동양육시설에 살고 있음() ⑨ 이외 다른 사람()

28. 어머니가 취업해서 일을 하시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9. 아버지가 취업해서 일을 하시나요? ① 예 ② 아니오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지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참조2 : 아동인권 인지도 사전·사후 설문지]

2018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LENS 아동권리 인식도 설문(사전)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

LIST ID :

--	--	--	--	--	--	--	--	--	--

안 내 문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2018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LENS'에 참여한 아동청소년들의 권리 인식에 대한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의 데이터는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내어 평소에 생각하시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응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답안에 동그라미(O) 하거나 상자에 체크(V)해주세요.

본 설문에서 응답해주시는 정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파기)에 의거하여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7월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이번 조사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관련 문의: 한국아동단체협의회 02-831-1930

동 의 서

아래 사항을 확인한 후, 연구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이름을 써주십시오.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2. 나는 이 활동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나는 이 활동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관하고,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참여자 이름

서 명

날 짜 (년/월/일)

PART 1. 아동권리에 대한 설문

※ 다음의 질문들을 잘 읽고 해당되는 내용에 ‘○’ 표시를 해 주세요.

No.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모든 아동의 의식주를 부모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아동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부모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아동이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을 경우 자신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4	모든 아동이 차별 받지 않고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5	아동이 피부색이 다르거나 부모가 가난하거나, 종교가 다르면 차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6	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	아동의 놀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	국가·지역사회 등에서 아동에 관한 지원 및 활동을 할 때 아동의 입장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은 절대로 신체적, 정신적 폭력,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장애아동이 차별 받지 않고 성장하도록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	아동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대하거나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2	아동이 자신의 종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3	아동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No.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4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험한 노동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					
15	아동이라도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6	아동의 입양 보내질 때 그 과정에서 아동의 연령 및 성숙단계를 고려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7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8	아동이 의견형성과 결정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9	아동의 견해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	아동은 능력발달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1	우리 사회는 어린이와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어린이의 의견을 듣고 어린이가 참여할 권리를 보호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22	전반적으로 나의 권리는 가정에서 얼마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23	전반적으로 나의 권리는 학교에서 얼마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24	전반적으로 나의 권리는 우리 동네에서 얼마나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PART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질문

※ 다음의 질문들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해 주세요.

1. 아동인권과 관련된 교육이나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2. 본인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남자 2) 여자

3. 본인의 학년을 체크해주세요.

- 1) 초등학교 5학년 2) 초등학교 6학년 3) 중학교 1학년
4) 중학교 2학년 5) 중학교 3학년 6) 고등학교 1학년
7) 고등학교 2학년 8) 고등학교 3학년 9) 기타

4.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1) 서울 2) 경기 3) 인천 4) 부산 5) 대구
6) 대전 7) 울산 8) 광주 9) 충북 10) 충남
11) 전북 12) 전남 13) 경북 14) 경남 15) 강원
16) 제주 17) 세종

1. 여러분은 꿈이 있나요?

- ① 꿈이 없다 ②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 ③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

2. 여러분은 꿈을 따라 살고 있나요?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3. 평소 하루 동안 다음의 시간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주관적인 느낌에 'V'표 해주세요.

	너무 부족하다	부족하다	많다	너무 많다
1) 나의 하루 수면 시간	①	②	③	④
2) 나의 하루 공부 시간	①	②	③	④
3) 나의 하루 놀이 시간	①	②	③	④
4) 나의 하루 휴식 시간	①	②	③	④

4. 다음에 활동에 대해 하루에 몇 시간을 하면 적절(적정)하다고 느낄까요?

내가 생각하는 ...	하루 평균
1) 적절(적정)한 수면 시간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2) 적절(적정)한 공부 시간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3) 적절(적정)한 노는 시간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4) 적절(적정)한 휴식 시간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5. 다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V'표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휴식이 필요할 때 충분히 쉬고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쉬는 시간과 방법에 대해 부모님과 의견이 같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어떻게 쉬는 게 충분히 쉬는 건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6. 다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V'표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놀고 싶을 때 충분히 놀고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학원에 가야해서 놀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놀 수 있는 장소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용돈이 부족해서 놀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5) 나는 함께 놀 친구가 많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시간이 있을 때 무엇을 하고 놀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7) 우리 부모님은 내가 노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7. 여러분의 학업성적을 1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7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했을 때, 본인의 현재 학업성적은 어떻습니까?

	매우 못함 <----- 보통 -----> 매우 잘함						
전체 성적	1	2	3	4	5	6	7
주요과목 (국어,영어,수학)	1	2	3	4	5	6	7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18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LENS 아동권리 인식도 설문(사후)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

LIST ID : -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2018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LENS'에 참여한 아동청소년들의 권리 인식에 대한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의 데이터는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내어 평소에 생각하시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응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답안에 동그라미(○) 하거나 상자에 체크(✓)해주세요.

본 설문에서 응답해주시는 정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파기)에 의거하여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이번 조사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관련 문의: 한국아동단체협의회 02-831-1930

동 의 서

아래 사항을 확인한 후, 연구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이름을 써주십시오.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2. 나는 이 활동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나는 이 활동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관하고,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참여자 이름

서 명

날 짜 (년/월/일)

PART 1. 아동권리에 대한 설문

※ 다음의 질문들을 잘 읽고 해당되는 내용에 '○' 표시를 해 주세요.

No.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모든 아동의 의식주를 부모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아동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부모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아동이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을 경우 자신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4	모든 아동이 차별 받지 않고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5	아동이 피부색이 다르거나 부모가 가난하거나, 종교가 다르면 차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6	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	아동의 놀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	국가·지역사회 등에서 아동에 관한 지원 및 활동을 할 때 아동의 입장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은 절대로 신체적, 정신적 폭력,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장애아동이 차별 받지 않고 성장하도록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	아동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대하거나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2	아동이 자신의 종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3	아동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No.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4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험한 노동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					
15	아동이라도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6	아동의 입양 보내질 때 그 과정에서 아동의 연령 및 성숙단계를 고려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7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8	아동이 의견형성과 결정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9	아동의 견해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	아동은 능력발달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1	우리 사회는 어린이와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어린이의 의견을 듣고 어린이가 참여할 권리를 보호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22	전반적으로 나의 권리는 가정에서 얼마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23	전반적으로 나의 권리는 학교에서 얼마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24	전반적으로 나의 권리는 우리 동네에서 얼마나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PART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질문

※ 다음의 질문들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해 주세요.

1. 아동인권과 관련된 교육이나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2. 본인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남자 2) 여자

3. 본인의 학년을 체크해주세요.

- 1) 초등학교 5학년 2) 초등학교 6학년 3) 중학교 1학년
4) 중학교 2학년 5) 중학교 3학년 6) 고등학교 1학년
7) 고등학교 2학년 8) 고등학교 3학년 9) 기타

4.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1) 서울 2) 경기 3) 인천 4) 부산 5) 대구
6) 대전 7) 울산 8) 광주 9) 충북 10) 충남
11) 전북 12) 전남 13) 경북 14) 경남 15) 강원
16) 제주 17) 세종

1. 여러분은 꿈이 있나요?

- ① 꿈이 없다 ②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 ③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

2. 여러분은 꿈을 따라 살고 있나요?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3. 평소 하루 동안 다음의 시간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주관적인 느낌에 'V'표 해주세요.

	너무 부족하다	부족하다	많다	너무 많다
1) 나의 하루 수면 시간	①	②	③	④
2) 나의 하루 공부 시간	①	②	③	④
3) 나의 하루 놀이 시간	①	②	③	④
4) 나의 하루 휴식 시간	①	②	③	④

4. 다음에 활동에 대해 하루에 몇 시간을 하면 적절(적정)하다고 느낄까요?

내가 생각하는 ...	하루 평균
1) 적절(적정)한 수면 시간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2) 적절(적정)한 공부 시간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3) 적절(적정)한 노는 시간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4) 적절(적정)한 휴식 시간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5. 다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V'표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휴식이 필요할 때 충분히 쉬고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쉬는 시간과 방법에 대해 부모님과 의견이 같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어떻게 쉬는 게 충분히 쉬는 건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6. 다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V'표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놀고 싶을 때 충분히 놀고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학원에 가야해서 놀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놀 수 있는 장소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용돈이 부족해서 놀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5) 나는 함께 놀 친구가 많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시간이 있을 때 무엇을 하고 놀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7) 우리 부모님은 내가 노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7. 여러분의 학업성적을 1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7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했을 때, 본인의 현재 학업성적은 어떻습니까?

	매우 못함 <----- 보통 -----> 매우 잘함						
전체 성적	1	2	3	4	5	6	7
주요과목 (국어,영어,수학)	1	2	3	4	5	6	7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03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권역별 코디네이터
결과 보고내용 (취합)

강원지역

경기지역

경남지역

경북지역

서울지역

전남지역

전북지역

제주지역

충남지역

충북지역

권역별 코디네이터 결과 보고내용(취합)

- 목차 : 1. 공통주제(놀 권리)에 대한 활동내용
 2. 권역별 개별 주제에 대한 활동내용
 3. 캠페인 활동내용

1. 공통주제(놀 권리)에 대한 활동내용

사업 진행 초반 진행된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전체를 포괄하는 공통 주제는 “놀 권리: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각 권역에서는 공통주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고, 이에 더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개별주제를 한 가지 더 선택하여 활동을 진행했다.

권역별로 세부 활동 내용은 달랐으나, 대부분 8~10월간의 활동 기간 중 8월에는 공통주제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론을 확정하고 개별 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9월에는 공통주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는 결과를 공유하면서 개별 주제의 모니터링 방법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했다. 마지막 달에는 최종 평가와 함께 아동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캠페인 활동 등이 함께 이뤄졌다.

공통주제에 대해 각 권역에서 제시된 아동의 의견은 아래 표와 같다.

아동의 의견 및 제시안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 권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개선이 우선적이다. • 학업을 이유로 놀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의 방향 및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 지속적으로 청소년 여가시설(스포츠 시설 등)을 늘려 나가야 한다.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놀이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놀 권리를 알려주는 연극을 ‘학교로 찾아가는 연극’의 형태로 전교생에게 시연했으면 좋겠다. • 지방정부에서 ‘놀 권리 사진전’ 등 아동의 놀 권리를 알리기 위한 사업과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했으면 좋겠다. • 놀 권리의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의무가 명시되면 좋겠다. • ‘놀이 학습’ 분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아동들이 놀이를 통해 학습하고 협동하는 모습이 당연시되면 좋겠다. • 교육청에서 ‘사교육의 자율성’을 주제로 한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아동에게 사교육을 받을 때에는 자기 결정권이 꼭 필요함을 알렸으면 좋겠다. • 학원의 심야영업조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확실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북	〈권역 개별 주제에 대해서만 제시안 도출〉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들이 맹목적인 학습에서 벗어나 ‘제대로 노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의 취미생활을 갖고, 이를 누릴 수 있는 시간-공간적인 여건이 필요하다. • 쉬는 시간을 갖고, 논다는 것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논다는 것이 단순히 시간 낭비가 아니라, 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퍼뜨릴 필요가 있다.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 권리의 중요성과 가치를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캠페인이 국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 아동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놀 권리를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대중매체와 광고 등을 통해 알린다.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를 위한 놀이 공간과 복합 문화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 • 자유학기제를 개편하고, 과도한 사교육 예방과 공교육 안에서의 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학교에서의 (놀) 권리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 아동들이 학교가 아닌 단체 등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처럼, ‘놀 권리’ 문제에 대해 제시된 아동들의 의견은 아래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을 범국민적으로 증진하고, 놀이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아동권리에 있어 당연한 과제라 하겠다.

▲ 아동을 포함한 전 국민의 놀 권리 인식 부족

아동들이 제시한 의견 전반을 관통하는 것으로서, 놀 권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실질적인 권리 실현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많은 지역에서 관련 교육 및 활동의 확대 및 시민 대상 의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강원, 경남, 전남, 전북, 제주, 충남 등). 권리 실현 이전에 해당 권리의 존부조차 명확히 인지되지 않고 있는 현 문제상황을 아동들이 제대로 파악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 놀이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의 부족

인식의 문제와 함께 제시된 다른 내용으로서 가장 주요했던 부분이 바로 시간과 공간의 부족이다. 놀이 시간을 침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아동들이 지목한 대상은 다름 아닌 학교, 학원 등의 교육기관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경남지역에서는 놀 권리문제를 지역의 학원 심야영업 금지 조례와 연계하여 바라보기도 했다. 충남지역에서 역시 현행 자유학기(학년)제도의 개편을 통해, 공교육 안에서의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시간과 더불어 공간의 문제 역시 놀 권리 저해요인의 하나로 꼽혔다. 놀 권리를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여러 지역에서 도출되며(강원, 서울, 충남), 시간적 요건이 충족되어도 건강하게 그들의 놀 권리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2. 권역별 개별주제에 대한 활동내용

1) 권역별 주제에 대한 검토

본 항에서는 권역별 활동 주제 및 제안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특징적으로 수행한 권역만의 모니터링의 방법 역시 소개한다. 먼저, 권역별 개별 주제 및 아동의 제안은 아래 표와 같다.

권역별 개별 주제 및 이에 대한 아동의 의견 및 제시안	
강원	<p><주제: 학교 주변 유해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역을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나 소셜미디어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 • 유해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강의를 신설한다. • 유해환경에 대한 법률 및 단속을 강화한다.
경기	<p><주제: 아동의 보호권(아동학대, 방임, 노동권을 중심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성인과 동등한 대우가 필요하다. • 청소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경남	<p>〈주제: 학생인권조례(“아동의 안전벨트, 학생인권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의 내용이 전국의 교육청에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역별 조항간 통일성이 갖춰져야 한다.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법적 규범력을 강화해야 한다. •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홍보하고,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면 좋겠다. • 중앙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학생인권조례 관련 분쟁에 대한 중재를 해주면 좋겠다. • 성 소수자, 학교 밖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 좋겠다. •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시에는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언제든지 수정 및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경북	<p>〈주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내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세먼지 수치에 따라 야외 체육활동 등을 실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 교문 앞, 중앙현관 등 잘 보이는 곳에 아동들이 미세먼지 수치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판을 설치해야 한다. • TV 공익광고 및 학교, 대중교통 광고문 부착 등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매체를 통해 미세먼지에 대해 알고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모든 학교에서 아동들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 궁극적으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환경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정책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서울	<p>〈주제: 아동의 진로인식과 대학에 대한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 가정에서 아동들에게 학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없애야 한다. •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상담 및 진로적성검사 등을 통해 공부 외에 다른 분야에 재능이 있는 아동들이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사회적 통념을 바꿔야 한다.
전남	<p>〈주제: 놀이터 안팎 간접흡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터 안팎 간접흡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동·시민들 사이에서 수렴되고, 그 결과가 지자체에 전달됨으로써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전북	<p>〈주제: 아동의 보호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보호권에 대해 아동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

제주	<p>〈주제: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에서 돌봄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을 모두가 함께 보호하고, 정부와 지자체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충남	<p>〈주제: 금연구역 보장 및 학교 내에서의 흡연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흡연을 감소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반복되는 강의식 금연교육을 넘어, VR, 홀로그램 등의 첨단 교육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사업 시행 전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권역별 개별주제의 선정 및 활동 방법에 대해서는 아동들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특정한 주제와 방법이 Top-down의 형태로 하달되는 것 자체로서 아동 자율성의 침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각 권역에서는 8, 9월 회의를 거치며 주제와 방법을 확정하며 모니터링에 임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지침 이외에는 개별 주제에 대한 예시 등이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권역에서 도출된 주제가 달랐다는 사실은 인상적인 부분이다. 충남지역과 전남지역의 주제만이 유사성을 보였는데(흡연), 이것은 그만큼 해당 문제가 아동들에게 있어 주요한 문제점으로 인식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금연구역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해당 규칙을 위반할 시에 따르는 벌칙규정 역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이에 대한 실효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강구된다.

각 권역별 주제가 UN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아동의 4대 권리에 따른 구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주목할 만한 점이다. 물론 인위적으로 분류한다면 모든 주제가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중 하나에 속할 수는 있겠으나, 아동들은 그러한 분류체계 대신에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의 ‘대상’에 집중했다. 아동들이 현 시점에서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무엇을 지목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대학에 대한 인식’(서울)이나 ‘학생인권조례’(경남) 등의 통상적으로는 아동권리 영역에서 잘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2) 권역별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검토

※ 개별주제에 대한 양케이트

권역별로 주목할 만한 모니터링 방법을 창안하여 수행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 하다. 특히,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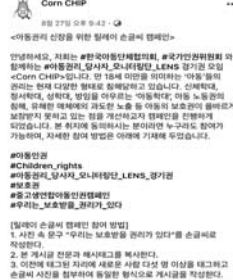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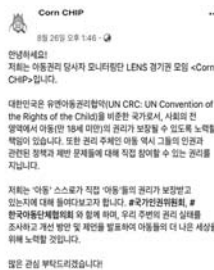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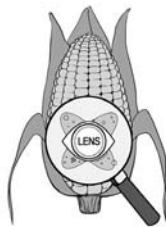
통주제에 대한 설문 이외에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개별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만들어 앙케이트를 진행하는 방법은 많은 권역에서 사용되었다. 설문지가 사회조사만큼의 구조화과정을 거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앙케이트 진행 이전에 자문단의 검수를 거침으로써 조금이나마 그 한계를 극복하였다.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대하여 논리적 근거를 얻고자 했던 아동들의 의지가 돋보인다. 아래 표는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이다.

권역별 개별 주제에 대한 앙케이트 진행 결과 주요내용	
강원	<p>〈학교 근처의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참여자 89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근처에 어떤 유해환경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업소 30.6% ▲ 술집 30.6% 등
경기	<p>〈학업의 목적성에 대한 조사 (참여자 36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을 위한 공부가 본인의 자기계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 (참여자: 3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55.6% ▲ 아니오 41.7% 등 • 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복수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학을 위해 63.9% ▲ 꿈을 위해 61.1% ▲ 부모님, 선생님의 기대 19.4% 등
경북	<p>〈미세먼지 인식조사 (참여자 13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감하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질문(느끼지 못한다: 1 ~ 매우 심각하게 느낀다: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 25% ▲ 7: 19% ▲ 6: 11% 등 • 미세먼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69% ▲ 아니오 8% 등 <p>(전체 앙케이트 결과 열람 URL: http://naver.me/GIvsrUak)</p>
서울	<p>〈아동의 진로인식과 대학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 (참여자 78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지에 대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78.2% ▲ 아니오 21.8% 등 •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갖는지에 대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93.3% ▲ 학교에서 마련해주는 시간을 갖는다 2.7% • 진로를 추구하는 데에 학교가 뒷받침을 해주는지에 대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33.3% ▲ 아니오 66.7% 등 <p>(전체 앙케이트 결과 열람 URL: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FAOHpO7mmb8cl7b0pWv9LLUxdfTfjHPN_pvzwzpbjJo/edit)</p>

전남	<p>〈놀이터 안팎 간접흡연에 대한 조사 (참여자 120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 안과 밖에서 흡연자를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 예 99명 ▲ 아니오 17명 등 •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에서 금연 안내판을 본 적 있는지에 대한 질문 ▲ 예 93명 ▲ 아니오 23명 등 • 놀이터 밖에도 흡연제한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 ▲ 예 104명 ▲ 아니오 11명 등
충남	<p>〈주제: 금연구역 보장 및 학교 내에서의 흡연 금지에 대한 조사 (참여자 12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으로 인해 주로 받은 피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 간접흡연 94.6% ▲ 위협이 된다 77.9% 등

※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을 통한 온라인 캠페인 진행

경기지역에서는 권역 모니터링단의 이름을 “Corn CHIP(CHildren is ImPortant)”로 정한 뒤, 해당 이름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였다. 이후, “우리는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내용으로 하는 손글씨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학대와 관련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했다. 아동권리 당사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접근 방식과 플랫폼을 통해 권리옹호활동을 전개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 개설된 페이스북 페이지 및 진행한 손글씨 캠페인 내용

※ 놀 권리 홍보 UCC 제작 및 배포

경남지역에서는 오프라인 캠페인 이외에도, 온라인 캠페인의 방식으로 UCC를 제작하여 Youtube에 게시하는 열의를 보여주었다.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패러디한 영상으로서, 재치있게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 해석한 모습이 돋보인다.



[LENS]아동의 놀 권리를 지켜주세요

▲ UCC 영상 캡처(영상 URL: https://youtu.be/hEFRqmA_fhQ)

3. 캠페인 활동내용

대부분의 권역에서 공통주제와 개별주제를 통한 오프라인 캠페인 활동이 진행됐다. 단순한 모니터링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이 직접 아동권리에 대한 공동체의 의식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단순한 피켓 형태의 홍보에서부터, 대면하는 시민들에 대한 인터뷰 수행까지 방법도 다양했다. 시민들의 의견이 자신들의 모니터링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격한 모니터링 단원들은 보다 자신감을 갖고 최종 제언을 피력할 수 있었다.

권역별 캠페인 활동사진 예시



강원



경기



경남



전북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강원지역

권역 : 강원

활동주제 및 주제 도출경과

1) 학교 주변 유해환경 (권역별 주제)

- 학교주변 유해환경에 대한 법제도 조사
- 지역 내 초중고교 주변의 유해환경 모니터링
- 캠페인 활동을 통한 아동들의 인식조사

2) 놀권리 (전국 주제)

- 놀권리에 대한 다양한 토론 진행
-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진행

권역 활동내용

1) 총참여 인원 : 8명

2) 첫 오프라인 모임 (9월 9일 / 강릉 / 8인 참여)

- 첫 모임인 관계로 간단한 자기소개 후 간단한 활동안내를 진행함. 이후 아동권리에 대한 질의 응답을 통해 활동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 권역별 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짐. 각자가 생각하는 문제들을 공유하고 ‘통금시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여러 활동들에 있어 보호자의 동의 의무’, ‘예체능 활동 기회의 부족’, ‘학교주변 유해환경’ 등이 후보로 올라왔고, 투표를 통해 ‘학교주변 유해환경’이 주제로 선정 됨.
- 자료조사, 학교주변 모니터링 활동 진행 등의 역할 분담을 진행 후, 22일 모임계획을 세움
- 놀권리의 경우 참여 아동들 모두 어렵게 느껴, 주변 사람들에게 놀권리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각자 생각을 정리해오는 것으로 방향을 정함.

3) 9월 두 번째 모임 _ 계획 구체화 (9월 22일 / 동해 / 5인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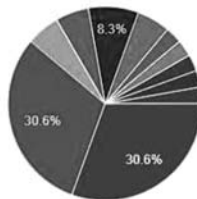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강원지역



- 각자 지난 모임에서 역할분담한 내용들에 대해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눔. 특히, 법제도와 관련된 자료를 해석하고 현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모니터링 당시 찍었던 사진들과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유함.

학교근처에 어떤 유해환경이 있나요?

응답 36개



- 술집
- 여인숙
- 성인용품점
- 마사지방
- 업소
- 모텔
- 법준이
- 시장 속 장년촌

▲ 1/2 ▼

해결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응답 39개

- 유해환경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 국가가 나서서 해결
-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주변에 신경써서 유해환경이 나타나지않게 조치해야한다
- 학생들이 힘을 모아 그 쪽에 강력히 말을 하거나, 학교장의 도움을 받거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통고시간이나 학교시간을 되도록 피해서 운영을 하게한다.
- 심할시 신고를 해본다
- 시설을 다른곳으로 옮긴다
- 단속 강화
- 학교 학생들 끼리 의견을 모아 얘기를 해 보거나, 학교장의 도움을 받거나, 경찰의 도움을 받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 규제
- 법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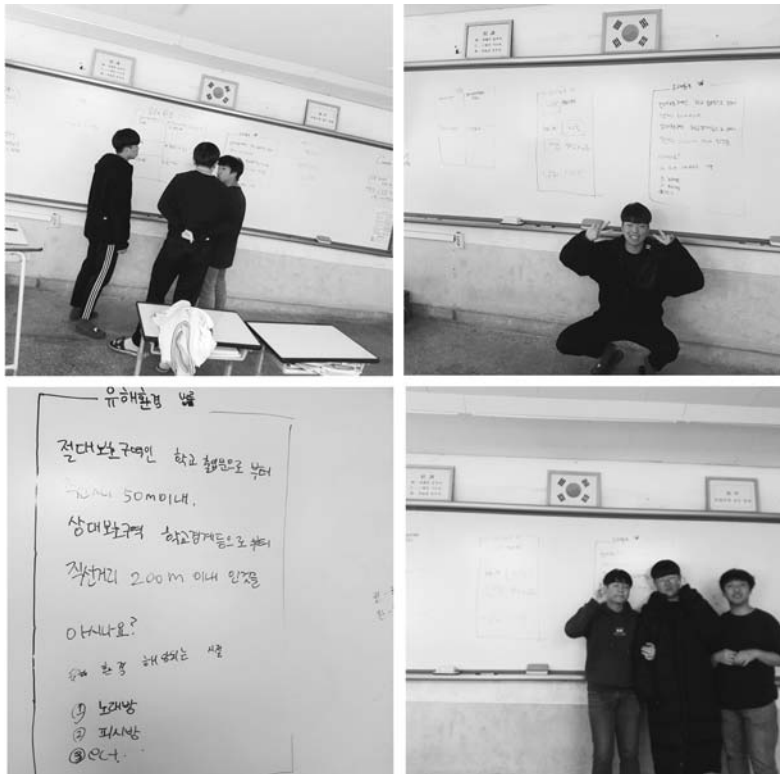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강원지역

4) 10월 온라인 회의 진행 (10월16일 / 카카오톡 / 8인 참여)

- 놀권리 관련 인터뷰 질문지 작성에 대한 간단한 논의와 추후 진행될 활동으로 캠페인에 대한 논의가 오감

5) 10월 캠페인 사전 기획 회의 (10월 27일 / 강릉 명륜고 / 3인 참여)

- 사실상 28일 예정되어 있는 정기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모여 캠페인 판넬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강원지역

6) 10월 캠페인 준비모임 (10월 28일 / 강릉 / 5인 참여)

- 캠페인에 필요한 재료 및 참여시 증정 상품(핫팩 및 캔디류)을 구매한 뒤, 판넬 제작에 들어감.
- 갑작스런 우천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캠페인이 연기됨.



7) 캠페인 실시 (10월 31일 / 강릉 명륜고 / 6인 참여)

- 학교주변 유해환경 및 놀권리에 대한 인식조사 및 홍보활동을 캠페인으로 진행하였다.
- 동시에 그 자리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또한 진행하였다.
- 대부분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놀권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이라는 상황이 놀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정당화 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맹목적이면서도 과도한 교육열 및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으로는 관련 법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와 별개로 이러한 유해환경이 아동들의 비행 및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질문에 있어서는 찬반의견이 반반씩 갈렸다고 한다.

놀 권리 인터뷰 질문 목록

1. 여가시간이 충분히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2. 본인이 생각하는 충분한 여가시간은 몇 시간 정도인가요?
3. 무엇이 놀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나요?
4.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이 무엇이 있나요?

유해환경 인터뷰 질문 목록

1. 유해환경에 대한 법률을 알고 계신가요?
1-2 알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2. 유해환경이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나요?
3. 현재 유해환경에 관련된 법률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동 제시안

1) 학교주변 유해환경

-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는 구역들을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나 SNS 홍보를 실시한다.
- 유해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강의들을 신설한다.
- 유해환경에 대한 법률 및 단속을 강화한다.

2) 놀권리

- 학부모들의 놀권리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적이다.
- 학업을 이유로 놀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이 정당화 되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의 방향 및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 지속적으로 청소년 여가시설(스포츠 시설 등)을 늘려나가야 한다.

활동 소감

3개월간 아동들과 함께 어떠한 큰 틀을 정해놓고 이를 착실하게 실현시켜나가는 과정이 매우 보람있었다. 특히, 이러한 활동이 아동 당사자들의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었다고 생각된다. 활동을 하는 내내 과연 아동이 아닌 코디네이터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개입이 가능할지 또는 필요할지 고민을 멈출 수 없었던 것 같다. 활동을 마치고 하고 싶은 피드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오프라인으로 모이기 힘든 만큼, 온라인 활동 및 회의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아동들의 입장에서 활동의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더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경기지역

권역 : 경기

활동주제 및 주제 도출경과

1. 활동주제

- 1) 공통주제 : 놀 권리
- 2) 권역별주제 : 보호권 (아동학대 / 방임 / 노동권)

2. 주제 도출 경과

- 1) LENS 모니터링단 경기권 페이스북 페이지 Corn Chip 개설
: 모니터링 산출물 도출을 위한 자료 조사 및 산출물 업로드 등 아동권리 홍보를 위한 SNS페이지 관리
- 2) '우리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SNS손글씨 캠페인
- 3) 놀 권리(놀이시간조사), 아동학대 판넬 제작 후 거리 캠페인 진행
- 4) 뉴스 기사를 통한 아동권리 현황 파악 후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5) 친구들을 대상으로 아동 노동권 아르바이트 현황 인터뷰 진행
- 6) 보호권, 놀 권리 카드뉴스 제작
- 7) 놀 권리 설문조사 진행 후 그래프 제작

권역 활동내용

1. 경기지역 모니터링단 명단

: 김○○, 차○○, 손○○, 김○○, 김○○, 맹○○, 이○○, 이○○,
최○○, 브○○○, 방○○ (11명)

2. 활동 시기 및 온라인 및 오프라인 횟수

- 오프라인 : 발대식(8월), 8월 회의, 9월 회의, 10월 회의
- 온라인(카카오톡) : 매주 / 활동 점검 및 공지사항 전달 위해 아동들과 코디가 소통함 (소통 원활하게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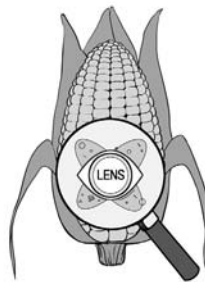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경기지역

3. 월별 활동

1) 8월 모니터링 활동

: 8월 발대식 후 8월 25일 (토) 토즈 선릉점에서 15:10~17:10까지 첫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모니터링 활동에 앞서 경기권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줄 차장과 부차장을 선출했습니다. 경기권은 오프라인 회의 2주전 까지 월간 활동계획서를 받아 모니터링을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아동들에게 받은 8월 모니터링 계획서를 배부한 후, 8월 활동방향을 논의했습니다. 8월 모니터링 활동으로 페이스북 손글씨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아동들이 스스로 경기지역 LENS 모니터링단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corn CHIP입니다. CHIP은 Children is important의 줄인 말이고 CHIP을 더욱 친근감 있게 말하기 위해 corn 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또한 아동들이 corn CHIP의 로고를 제작했습니다. 이후, 아동들이 직접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였고, '우리는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문구로 릴레이 손글씨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인권 #Children's right #LENS경기권 #손글씨캠페인 #보호권



Corn CHIP
8월 26일 오후 1:46 · 🌐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동권리 당사자 모니터링단 LENS 경기권 모임 <Corn CHIP>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 CRC: UN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을 비준한 국가로서, 사회의 진영역에서 아동(만 18세 미만)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권리 주체인 아동 역시 그들의 인권과 관련된 정책과 제반 문제들에 대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닙니다.

저희는 '아동' 스스로가 직접 '아동'들의 권리가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 하며, 우리 주변의 권리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 및 제언을 발표하여 아동들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Corn CHIP
8월 27일 오후 9:42 · 🌐

<아동권리 선장을 위한 릴레이 손글씨 캠페인>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아동단체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하는 #아동권리_당사자_모니터링단_LENS 경기권 모임 <Corn CHIP>입니다. 만 18세 미만을 의미하는 '아동'들의 권리는 현재 다양한 형태로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을 아우르는 '아동학대', 아동 노동권의 침해, 유해한 매체의 과도한 노출 등 아동의 보호권이 올바르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 해자에 유의하시는 분야라면 누구나도 참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참여 방법은 아래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아동인권
#Children_rights
#아동권리_당사자_모니터링단_LENS_경기권
#보호권
#중고생연한아동안과캠페인
#우리는_보호받을_권리가_있다

[릴레이 손글씨 캠페인 참여 방법]
1. 사진 속 문구 "우리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를 손글씨로 작성한다.
2. 본 게시물 전문과 해시태그를 복사한다.
3. 이전에 태그된 자리에 새로운 사람 다섯 명 이상을 태그하고 손글씨 사진을 첨부하여 동일한 형식으로 게시글을 작성한다.

2) 9월 모니터링 활동

① 다문화 모니터링단원 브○○○, ○○와의 만남

: 경기지역은 다문화 아동과 모니터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9월 9일 (일) 안산역 롯데리아에서 다문화 아동인 브○○○, 방○○ 아동과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아동들에게 모니터링의 목적과 활동방향을 설명해주었습니다. 다문화 아동들이 직접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지는 못했지만 아동들과 이야기함으로써 코디네이터 본인은 다문화 아동들의 권리 실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예로, 브○○○은 콩고 부모님으로부터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부모님이 난민으로 규정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브○○○이 자신의 국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학교생활을 할 때 국적이 없어서 불편한 점들과 자신은 한국 사람인데 왜 난민이라는 지위 때문에 국적이 없어야 하는 것이냐며 속상해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LENS 모니터링 활동이 이와 같은 아동들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브○○○과 방○○ 아동과 연락하고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아 이번 활동에 있어 아쉬움이 남았지만, 내년에는 기회가 된다면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함께 모니터링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② 9월 활동

: 9월 8일 (토) 11:00~15:30 홍대입구에서 9월 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8월과 동일하게 사전에 코디네이터 이메일을 통해 받은 활동 계획서를 바탕으로 9월 모니터링활동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지역 주제인 '보호권'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의 유형을 제시 후 사람들이 가장 사태가 심각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경기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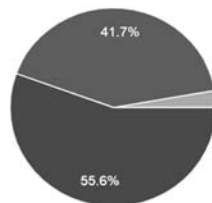
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8월 SNS손글씨 캠페인의 연장선으로 '우리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의 문구로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놀권리와 관련해서는 아동의 놀이시간을 스티커 보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간단한 상품을 준비하여 거리에 나가 조를 나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총 3가지 캠페인 활동 (보호권 서명운동, 놀이시간 스티커 조사, 보호권 스티커 조사)을 진행했습니다. 아동들은 처음에는 거리의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상처받기도 했지만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캠페인 결과, 총 50명의 사람들에게서 서명을 받았고, 공부시간 통계 결과와 아동학대 수위의 정도 통계 결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10월 활동

: 10월 20일 (토) 15:00~17:00 토즈 홍대점에서 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주제는 8월과 9월 모니터링 상호피드백, 10월 모니터링 활동방향 논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어떻게 관리 할 것인지와 결과보고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활동내역으로는 첫 번째로 공통주제 '놀권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경기지역 페이스북 페이지 'corn chip'을 통해 공통설문지 이외에도 경기지역 아동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결과를 그래프로 만들고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하였습니다.

'학업을 위한 공부'가 본인의 자기계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응답 3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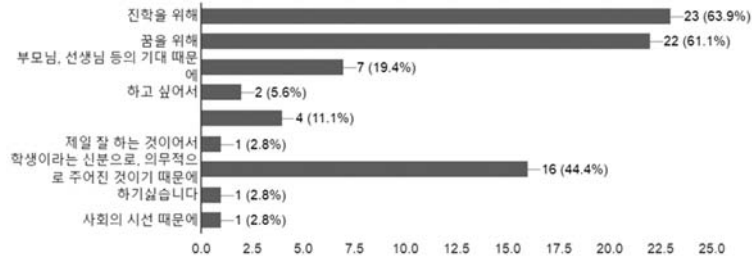


- 20 ● 예
- 15 ● 아니오
- 1 ● 자신의 전공에 따라 다른것같다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경기지역

왜 공부를 하나요? (복수응답 가능)

응답 36개



나에게 공부는 _____ 이다

경쟁

나 자신이 만족하는 공부야 아닌 경쟁을 위해 누군가를 이겨야 하기에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닌 해야만 하는 공부를 하고 있다

포켓몬

원하는 목표를 잡고 싶은데 잘 안 잡힌다.

안정

공부를 하기는 싫은데 조금이라도 해야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마음의 안정이 온다

두 번째 활동으로 보호권 중 ‘아동의 노동권’과 관련하여 친구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질문은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 동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부당한 대우 경험, 아르바이트 장소, 다시 하고 싶은지 등입니다. 인터뷰 결과를 함께 공유한 후, 청소년 노동권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활동으로 보호권 관련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인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에 대한 개념, 아동학대 근절 메시지, 도움 필요시 비상연락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Corn CHIP
게시자:
10월 22일 오전 1:17 · 📍
이것도 학대입니다 🙄

이것도 학대입니다

경기지역 모니터링단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의 폭력
- 정서의 학대
- 성적 학대
- 방임

3개 이상

아동 제시안

1. 놀 권리

- 1) 현황 : 경쟁사회 속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 때문에 아동의 놀 권리가 지켜지고 있지 않음
- 2) 제언 : 충분한 놀이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함

2. 보호권 : 아동학대

- 1) 현황 :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방임 등 여러 유형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
- 2) 제언 : 사람들에게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깨우쳐주고, 아동학대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시켜야 함

3. 보호권 : 청소년 노동권

- 1) 현황 : 대부분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 그 세부사항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음
- 2) 제언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성인과 동등한 대우가 필요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킬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활동 소감

1. 코디네이터 소감

: 저는 아동시절, 한국아동단체협의회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모니터링을 해왔었습니다. 그 때마다 제가 들었던 생각은 ‘내가 하는 모니터링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였습니다. 열심히 자료조사하고, 캠페인에 나가 사람들에게 외쳐보아도 아동인권이 신장되는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었기에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모니터링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모니터링을 하는 본인의 성장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동이 아닌 성인이 되어 이번 모니터링 코디네이터를 맡았을 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리더십을 가르쳐줄 것 둘째, 협동하는 것의 즐거움을 가르쳐줄 것, 셋

째 본인의 역량 강화를 시켜줄 것 이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회의에서 매 달마다 진행자를 달리 선출하여 아동이 직접 회의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달의 중요한 회의 안건만을 제시 해준 후 최대한 개입을 삼가고자 했습니다. 아동들이 회의를 진행하며 모니터링을 주도하는 것이 일종의 리더십 향상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대이상으로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하고 함께 약속한 기한까지 모니터링 활동을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아동들에게 스스로 책임감을 갖게 하니 코디네이터와 아동들 간의 소통도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유대감도 생겨 즐거운 회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아동들이 모니터링 결과를 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자료를 조사하고 결과물을 만드는지 스스로 고민하게 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본인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게 돕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니터링으로 인한 어떠한 사회적 개선이 없을 때 아동들이 회의감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의 때마다 아동들에게 모니터링의 목적은 세상에 알리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아동권리를 인식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아동권리를 위해 힘써왔던 아동으로서 코디네이터라는 자리를 맡게 되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아동들에게 지시하기보다는 함께 고민하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저 또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아동들에게 당사자 아동인권 모니터링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아동권리를 몰랐고 관심 없었던 아동들이 더욱 더 아동권리를 일상에서 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제언

1) 모집기간을 연 초로 하고, 일 년 단위의 사업이면 좋겠습니다.

-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단원 모집과 홍보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많은 아동들이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서 이 기회를 접하므로 충분한 모집기간과 코디네이터들의 준비기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3개월의 시간이 모니터링을 완성하기에 부족했기에 일 년 단위로 아동들과 함께 모니터링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2) 다문화 아동들의 모니터링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권역을 달리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경기지역

- 이번엔 중도입국 자녀들 또한 경기권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들에게 전화해서 모니터링에 대한 부담감을 안 가져도 좋으니 함께 하자고 설득해봤으나 아동들이 모니터링을 어렵게 느끼고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아동의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코디네이터를 배정하여 다문화 아동들이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경남지역

권역 : 경남

활동주제 및 주제 도출경과

I. 주제1(공통) : 놀 권리의 적, 사교육

1. 사교육 관련 법률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6절 제16조에 따르면, 어린이 청소년은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지나친 경쟁에 내몰리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학원에 다닐 것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한 제17조에 따르면, 어린이 청소년은 놀이 여가 및 휴식을 즐기며 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고, 지나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으며, 쉼 권리 보장을 위해 학원의 휴일 및 심야 교습시간이 제한되어야 한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놀 권리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사교육을 지목하고, 이에 대해 대학 진학 불평등 등의 원인 제거를 위한 공교육 개선 노력을 권고하였다.
- 아동권리협약 제31조의 민간보고서에서 역시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및 사교육으로 인한 아동들의 시간부족 실태를 중심으로 다룬 바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 국가통계포털 KOSIS 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청소년 사교육 참여율은 70.5%이며, 2017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7만 1천원이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에 수요가 크다는 점에서 빈부격차 문제가 제기된다.
- 현재 학원의 심야영업 시간은 지역별로 22시부터 24까지 자율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에 대한 감시 및 제재가 미비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규제에 관한 아동들의 인식도 역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오른쪽은 학원 운영시간 조례를 정리한 표이다.

전국 시·도 교육청별 학원 운영시간 조례

시작 시간: 새벽 5시는 전국 공통

해당 시도	유·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특별시		밤 10시	
부산광역시	밤 10시		밤 11시
대구광역시		밤 10시	
인천광역시	밤 9시	밤 10시	밤 11시
광주광역시		밤 10시	
대전광역시	밤 10시	밤 11시	밤 12시
울산광역시		밤 12시	
세종특별자치시	밤 9시		밤 10시
경기도		밤 10시	
강원도	밤 10시	밤 11시	밤 12시
충청북도		밤 11시	밤 12시
충청남도	밤 9시	밤 11시	밤 12시
전라북도	밤 9시	밤 10시	밤 11시
전라남도	밤 10시		밤 11시50분
경상북도	밤 9시	밤 11시	밤 12시
경상남도	밤 9시	밤 11시	밤 12시
제주특별자치도	밤 9시	밤 11시	밤 12시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교육청 조례 합과)
1105.23 / 뉴스시스 그래픽: 천진우 기사 018blue@news1.com

- 2014년 통계청 '사교육비·의식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의 결정 주체가 부모님이며 사교육 참여는 본인의 의사보다 부모님의 의지를 더욱 반영함이 드러났다.

II. 주제2(권역) : 아동의 안전벨트, 학생인권조례

1. 학생인권조례의 정의

-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이다.
- 조례의 내용으로는 종교·임신·가족상황·빈부·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물리적 폭력과 욕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생리로 인해 결석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이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 학생인권조례는 아직 전국에서 네 곳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교육청별로 조례 내용이 상이하다.
- 조례를 어겼을 때의 처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조례가 존재하는 지역조차도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 및 선생님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다.
- 조례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다. 우선, 교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또, 학생들이 자유와 방종을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부 여론은 조례의 동성애·임신·미혼모 존중 조항이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는 주장을 한다.
- 정치적 측면에서, 조례를 두고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 간의 대립이 심각하다.
- 9월 19일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경남 도내 진보성향 시민과 교육단체들이 모여 경남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 촛불 시민 연대를 출범하였다.
- 경남교육청은 10월 11일 경남의회에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은 4장 5절 5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는 '학생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교복 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10월 18-19일경 경남 양산 지역의 3개 초등학교 앞에서 '우리 아이 망치는 경남학생인권조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경남지역

레가 통과되면'이라는 제목의 전단이 배부되었다. 이에 학부모들은 교육청과 경찰이 나서서 전단지 배부를 단속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권역 활동내용

I. 경남 권역 모니터링단 소개(총 15명)

김○○(고1), 류○○(고1), 박○○(중3), 박○○(중3), 심○○(고1), 이○○(고1), 이○○(고2), 최○○(고1), 최○○(고2), 김○○(중2), 김○○(초6), 안○○(초6), 류○○(초6), 한○○(중2), 한○○(초6)

II. 오프라인 모임 보고

1. 제 1차 오프라인 회의

1) 회의 일시 : 2018년 8월 25일 12:00-14:00

2) 회의 장소 : 부산광역시 TOZ 서면점

3) 회의 참석자 : 김○○, 류○○, 박○○, 박○○, 심○○, 이○○, 이○○, 이○○, 최○○, 최○○, 김○○, 김○○, 안○○, 류○○, 한○○, 한○○ (15명)

4) 회의 내용 :

① 개인별 8월 활동보고서 진행 상황 발표

② 사전에 제출했던 9월, 10월 계획서에 대한 피드백

③ 2차 오프라인 회의 계획 논의

④ 오프라인 캠페인 조 설정 (3개조)

: 인터뷰팀(박○○, 박○○, 심○○), UCC팀(김○○, 이○○, 한○○, 김○○, 류○○, 안○○), 길거리 캠페인팀(최○○, 류○○, 최○○, 한○○, 김○○, 이○○)



[사진2] 1차 오프라인 회의 사진

2. 제 2차 오프라인 회의

- 1) 회의 일시 : 2018년 9월 8일 12:00-14:00
- 2) 회의 장소 : 부산광역시 TOZ 서면점
- 3) 회의 참석자 : 김○○, 류○○, 박○○, 박○○, 심○○, 이○○, 이○○, 최○○, 최○○, 김○○, 김○○, 안○○, 류○○, 한○○, 한○○ (14명)
- 4) 회의 내용 :
 - ① 조별로 모여 본인이 작성했던 8월 활동보고서 내용 공유
 - ② 9월 활동보고서의 초안이 계획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피드백
 - ③ 길거리 캠페인 일정 논의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경남지역



[사진3] 2차 오프라인 회의 사진

3. 오프라인 캠페인 준비 - 놀 권리 UCC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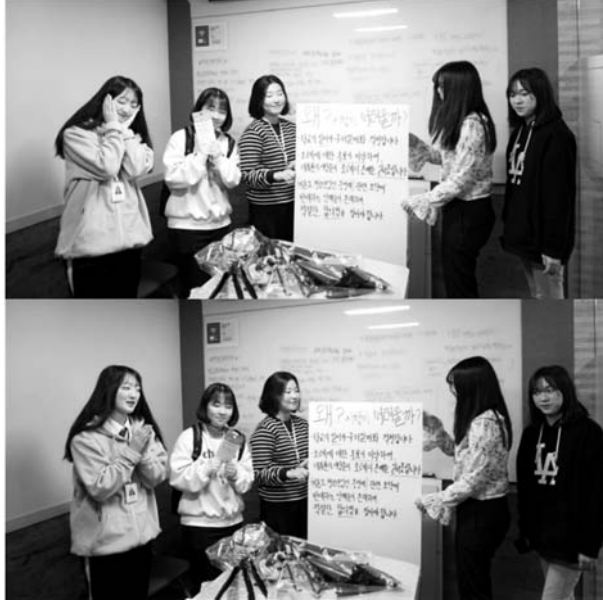
- 1) 활동 일시 : 2018년 9월 8일 14:00-17:00
- 2) 활동 장소 : 부산광역시 TOZ 서면점
- 3) 활동 참석자 : 김○○, 이○○, 최○○, 김○○, 안○○, 류○○, 한○○ (7명)
- 4) 활동 내용 :
 - ① UCC 역할 분배 및 대본 연습 (대본 : 김○○)
 - ② PPT로 영상 배경 제작
 - ③ 영상 촬영 (편집 : 김○○)



[사진4] UCC 제작 사진

4. 오프라인 캠페인 준비 - 학생인권조례 길거리 캠페인

- 1) 활동 일시 : 2018년 10월 20일 13:00-15:00
- 2) 활동 장소 : 부산광역시 TOZ 서면점
- 3) 활동 참석자 : 최○○, 최○○, 김○○, 이○○, 김○○ (5명)
- 4) 활동 내용 :
 - ① 캠페인 물품 구비
 - ② 캠페인 문구 구상 및 우드락에 문구 작성
 - ③ 캠페인 역할 분배
- 5) 우드락 문구
 - ㉠ 저희들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하는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LENS입니다. 아동인권 실현을 위해 이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모두 아동입니다.
 - ㉡ 학생인권조례란? :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제정, 공포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나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곳은 오직 네 곳뿐입니다.(경기, 광주, 서울, 전북)
 - ㉢ 학생인권조례 조항 :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학생 소지품 검사 최소화, 부모님 제외 제3자에게 성적공개 금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 두발·복장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성 정체성·성적 지향·신체 조건·임신 또는 출산·경제적 지위·학업 성적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칙 제정 시 관련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낼 권리, 학생자치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권리, 강제로 야간자율학습·방과후 등의 보충학습을 하지 않을 권리, 학생의 건의 활동에 익명성을 보장 받고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이 교내에서 핸드폰을 소지할 권리
 - ㉣ 왜 시행이 어려울까? : 학교의 질서가 무너질까봐 걱정합니다, 조례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례의 존재를 알지 못 합니다, 미혼모·청소년 임신·동성애 관련 조항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존재하여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 ㉤ 정부에 건의합니다
 - ㉥ 학생인권조례 찬반 스티커 보드판



[사진5] 길거리 캠페인 준비 사진

5. 오프라인 캠페인 - 학생인권조례 길거리 캠페인

- 1) 활동 일시 : 2018년 10월 20일 15:00-17:00
- 2) 활동 장소 : 부산광역시 서면 젊음의 거리
- 3) 활동 참석자 : 최○○, 최○○, 김○○, 이○○, 김○○, 김○○, 류○○, 박○○, 한○○, 안○○ (10명)
- 4) 활동 내용
 - ① 학생인권조례 소개 및 현황 홍보
 - ②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찬반 스티커 부착
 - ③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 포스트잇 의견 수합
 - ④ 캠페인 굿즈 배부 (디자인 : 류○○)
- 5) 활동 결과 : 상당수의 서면 시민 분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학생인권조례 찬반 스티커 부착 비율은 찬성측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경남지역



[사진6] 길거리 캠페인 사진

6. 제 3차 오프라인 회의

- 1) 활동 일시 : 2018년 10월 20일 17:00-18:00
- 2) 활동 장소 : 부산광역시 고반식당
- 3) 활동 참석자 : 최○○, 최○○, 김○○, 이○○, 김○○, 김○○, 류○○, 박○○, 한○○, 안○○, 박○○, 심○○, 류○○ (13명)
- 4) 활동 내용 :
 - ① LENS 활동 후기 나눔
 - ② 10월 활동보고서 진행 상황 공유
 - ③ LENS 사후 설문지 작성 및 결과보고회 안내

Ⅲ. 온라인 모임

1. 서면 인터뷰

- 1) 인터뷰 대상자 : 김태훈 부산광역시의회 교육부위원장, 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 김재석 부산인권사무소장,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2) 인터뷰 진행자 : 박○○, 박○○, 심○○ (3명)
- 3) 인터뷰 질문 내용
 - ① 현재 존재하는 소지품 검사, 복장 및 두발 규제 등의 학교규정들이 학생에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② 최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지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③ UN 아동권리 협약에 따르면, 아동 권리는 누구의 권리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현 교육계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 ④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위, 권익위로의 진정 행동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나요?
 - ⑤ 교육계에서는 인권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 ⑥ 아동의 놀이가 학업 성취도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⑦ UN 아동권리선언 제 31조에 따르면, 아동은 놀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동들이 놀 권리를 보장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⑧ 현재 아동들이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⑨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를 십 년 간 기록하고 있으며,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그 원인으로 꼽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기 위해 교육계에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4) 인터뷰 요청 결과 : 면담형식의 인터뷰는 어렵다고 하여 서면형식(이메일) 인터뷰로 진행함. 그러나 활동을 마감하는 시점에 이메일을 보내 답변을 기다리는중에 사업이 종료됨.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경남지역

2. 길거리 캠페인 굿즈 제작

- 1) 회의 매체 : FACEBOOK Message
- 2) 회의 참여자 : 류○○, 최○○, 최○○, 이○○, 김○○, 한○○ (6명)
- 3) 굿즈 종류 : 원형 거울 버튼 70개, 원형스티커 150장
- 4) 도안 제작자 : 류○○



[사진7] 길거리 캠페인 굿즈 도안

3. UCC 제작

- 1) 영상 소개 :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패러디물 (8분 39초)
- 2) 영상 주제 : 아동의 놀 권리를 지켜주세요
- 3) 출연자 : 김○○, 김○○, 류○○, 안○○, 이○○, 한○○ (6명)
- 4) 편집자 : 김○○



[사진8] 놀 권리 UCC 캡처 화면

아동 제시안

I. 주제1(공통) : 놀 권리의 적, 사교육

1. 아동의 놀 권리를 알려주는 연극을 ‘학교로 찾아가는 연극’의 형태로 전교생에게 시연했으면 좋겠다.
2. 지방자치제 측에서 ‘놀 권리 사진전’ 등 아동의 놀 권리를 알리기 위한 사업과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했으면 좋겠다.
3. 놀 권리에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의무가 명확히 명시되면 좋겠다.
4. ‘놀이 학습’ 분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아동들이 놀이를 통해 학습하고 협동하는 모습이 당연시되면 좋겠다.
5. 교육청에서 ‘사교육의 자율성’을 주제로 한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아동에게 사교육을 받을 때에는 자기 결정권이 꼭 필요함을 알렸으면 좋겠다.
6. 학원의 심야영업조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확실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II. 주제2(권역) : 아동의 안전벨트, 학생인권조례

1. 조례의 내용이 전국의 교육청에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항목들이 통일성을 갖추어야 한다.
2.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3.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홍보하고,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면 좋겠다.
4. 학교 측에서 학생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안내 및 교육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5. 중앙 정부와 인권위가 함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중재를 해주면 좋겠다.
6. 성 소수자, 학교 밖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 좋겠다.
7.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시에는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언제든지 수정 및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활동 소감 및 제언

1. 소감

- 작년, LENS와는 다른 형식의 아동인권 모니터링 활동 멘토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대한민국아동총회 후속 모니터링 활동) 그 활동은 9달에 걸쳐 진행되었고, 제가 담당하게 된 아동들의 거주지가 전국구였으며 OT날을 제외하고는 오프라인 모임을 따로 가지지 않은 채 오직 온라인상으로만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9달에 비해 3개월이라는 시간은 참 짧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3달의 기간 중 저희는 무려 네 번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같은 소통이라도, 얼굴을 마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록 저를 포함한 16명의 친구들이 모두 같은 ‘시’에 거주했던 것은 아니어서 한 번의 만남이 있기까지 몇몇은 아주 먼 길을 달려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인권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각자가 흥미 있어 하는 소주제를 정해 세 번에 걸쳐 모니터링 보고서를 적는다는 것은 아동들에게 참 색다른 경험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인권 보장’이라는 비슷한 목표를 가진 여러 친구들을 만나 함께 생각을 나누며 활동하는 것 역시 흔치 않은 좋은 경험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러 지원들 덕분에 저희들끼리 서면 길거리에 나가서 길거리 캠페인도 해보고, UCC 영상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아동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습니다.

2. 제언

- 코디네이터 및 단원 모집 기간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 단원들이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월별 계획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 오프라인 회의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의 회의 중 한 번 이상은 꼭 해야 하는 것들)
-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병행하기 보다는 한 가지 주제를 깊이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경북지역

권역 : 경북

모니터링 활동 주제 및 내용

<공통주제: 아동의 놀권리>

- ▶ 활동내용: 8월-설문조사(서면), 9월-심층인터뷰, 10월-캠페인
- ▶ 탑다운 된 전국 공통양식의 설문지를 단원별 20부씩 각 학교, 학급에 배부 및 회수한 후 한 아협에 발송, 분석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함
- ▶ 9월에는 단원들이 설문을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권역 내 아동들의 놀권리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음
- ▶ 마지막 활동으로는 지역 아동, 청소년 및 지역 주민들에게 놀권리에 대해 알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음

<권역주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공부할 권리)>

- ▶ 활동내용: 8월-설문조사(인터넷), 9월-심층인터뷰, 10월-캠페인
- ▶ 발대식에서 아동들의 논의로 정해진 미세먼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8월에 권역 아동 130여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함
(네이버 폼 설문양식을 사용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 ▶ 9월에는 미세먼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본 주제에 대한 아동들의 의견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았음
- ▶ 미세먼지의 유해성과 예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먼지 차단이 잘 되는 KF94 마스크를 배부함. 그리고 아동들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함

<월별 모임관련 내용 정리>

- ▶ 월별 오프라인 모임(총 3회) 및 월별 주제에 따른 개별 활동 진행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경북지역

	날짜 및 시간	참석/목표인원(참여율)	모임장소
1차	8/11(토) 16:00~18:00	5명/8명(62.5%)	범물종합 사회복지관
2차	9/15(토) 16:00~18:00	5명/8명(62.5%)	
3차	10/27(토) 16:00~19:00	6명/8명(75%)	

권역별 주제 설문결과

〈LENS 경북권 미세먼지 인식조사 관련 자료〉

- ▶ 네이버 폼 설문조사 결과(전체열람 가능): <http://naver.me/GIvsrUAK>
- ▶ 2018년 8월 진행-133명 참여, 세부 문항 및 결과 아래 참고

본 설문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하는 '2018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LENS' 경북지역 단원들이 아동/청소년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총 문항수는 13개이며 소요시간은 약 2분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해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인권 모니터링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는 필수항목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가나다순 정렬)

- 남자 11명(8%) 여자 122명(91%)

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 8~13세(초등학생) 2명(1%)
 14~16세(중학생) 8명(6%)
 17~19세(고등학생) 120명(90%)
 기타 3명(2%)

3.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가나다순 정렬)

- 강원도 0명(0%) 경상도 125명(93%) 서울/경기도 3명(2%)
 세종시 1명(0.7%) 전라도 0명(0%) 제주도 0명(0%)
 충청도 1명(0.7%) 기타 3명(2%)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경북지역

3-1. 경상도를 선택하신 경우, 해당되는 지역을 선택(입력)해 주세요. (가나다순 정렬)

대구 120명(90%) 영주 2명(1%) 기타 4명(3%) 응답없음 7명(5%)

4. 귀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듣거나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130명(97%) 아니오 3명(2%)

5. 귀하께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어디입니까?* (최대 2개까지 선택)

해당사항 없음 1명(0.7%)

TV/라디오 88명(66%)

포털 사이트/인터넷 뉴스 94명(70%)

기상청 홈페이지/문자 서비스 22명(16%)

가족/지인을 통해 44명(33%)

기타 5명(3%)

6. 귀하는 5번에서 답변하신 경로를 통해 얼마나 자주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까?*

하루 3회 이상 4명(3%)

하루 1회 31명(23%)

2~3일에 1회 30명(22%)

일주일에 1회 21명(15%)

8~15일에 1회 9명(6%)

거의 확인하지 않음(16일~30일에 1회) 32명(24%)

전혀 확인하지 않음 5명(3%)

7. 귀하가 느끼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어느정도 입니까?*

(1점: 전혀 느끼지 못한다, 10점: 매우 심각하게 느낀다)

1	2	3	4	5	6	7	8	9	10
3명	6명	9명	6명	19명	15명	26명	34명	6명	9명
2%	4%	6%	4%	14%	11%	19%	25%	4%	6%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경북지역



8. 귀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네 93명(69%) 아니오 11명(8%) 잘 모르겠음 29명(21%)

8-1. 귀하께서 미세먼지로 인해 경험하신 어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8번 문항에서 '네'를 선택한 경우에만 답변해 주세요. 최대 2개 선택)

- 기침/가래 75명(56%)
 콧물/비염증상 악화 67명(50%)
 피부발진/가려움 22명(16%)
 계속되는 두통 12명(9%)
 기타 19명(14%)

9. 아래 항목 중 귀하께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선택하여 주십시오.* (최대 2개까지 선택)

- 외출 자제 24명(18%)
 마스크 착용 79명(59%)
 충분한 수분 섭취 33명(24%)
 외출 후 깨끗하게 씻기 77명(57%)
 해당사항 없음 11명(8%)
 기타 1명(0.7%)

9-1. 9번 문항에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사항 없음’ 선택하신 분만 답변)

-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5명(3%)
 마스크를 끼는 등의 행동이 유난스러워 보일까봐 1명(0.7%)
 미세먼지는 심각하지만 조심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5명(3%)
 기타 5명(3%)

10. 귀하의 학교에서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최대 2개까지 선택)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경북지역

- 미세먼지 관련 정보 수시 공지 24명(18%)
- 야외 체육활동 자제 권고 74명(55%)
- 공기청정기 설치 7명(5%)
- 별다른 대응 없음 53명(39%)
- 기타 8명(6%)

11. 아동/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깨끗한 공기) 속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권리가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네 46명(34%)
- 아니오 46명(34%)
- 잘 모르겠음 41명(30%)

12. 아동/청소년이 쾌적한 환경(깨끗한 공기) 속에서 공부하고 생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최대 2개까지 선택)

- 정부 차원에서 교실별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101명(75%)
- 미세먼지 농도 측정에 따른 실외활동 규제 84명(63%)
- 학교 내 미세먼지 측정하여 홈페이지, 교내 게시판 등 수시 게시 19명(14%)
- 교사/학생대상 미세먼지 피해 예방교육 시행 19명(14%)
- 기타 5명(3%)

13. 아동/청소년들이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 먼지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바닥재 사용 및 학교 학년별 복도 또는 교실마다 공기청정기 설치 희망
- 교육청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들을 꾸준히 학교에 제공하며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알게 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미세먼지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해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계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이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학교를 통해 아동들에게 수시로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미세먼지 농도 일정수치 이상 시 체육활동 제한
- 올해부터 야구도 미세먼지가 매우 나뵤이면 경기를 취소합니다. 이처럼 학교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면 외부 활동 자제/금지 또는 학교 내에서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경북지역

을 수 있게 마스크 착용이라도 허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세먼지 자체가 어느 한 국가에서만 노력해서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할 심각하고도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외출 후 깨끗하게 씻기, 외부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 미세먼지는 말하자면, 중국에서 공장 이전을 하며 공기의 흐름을 타고 한국으로 날아왔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한 번에 이것저것 처리할 수 없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매장에서 다회용품을 사용하라고 권고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미세먼지रो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예방책, 해결법 등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앞으로 성장해야하는 어린 아이들이 벌써부터 미세먼지라는 큰 위협에 노출되어야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공장지대는 도시보다도 더욱 심각할 텐데, 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아동 제시안

미세먼지 관련 인터넷 서베이 결과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경북 권역 아동, 청소년 및 LENS 단원들의 목소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 아동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내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가능하다면 각 교실별 설치 희망) 미세먼지 수치에 따라 야외 체육활동 등을 실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권고
- ▶ 교문 앞, 중앙현관 등 잘 보이는 곳에 아동들이 미세먼지 수치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판 설치 요청
- ▶ TV 공익광고 및 학교, 대중교통 광고문 부착 등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매체를 통해 미세먼지에 대해 알고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원인, 예방법, 손씻기 및 마스크 고르는/착용하는 법 안내 등)
- ▶ 학교에 따라서는 일회용 마스크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기도 하는데 모든 학교에서 아동들이 미세먼지 차단이 잘 되는 마스크를 지급받고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요청
- ▶ 궁극적으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환경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 정책적으로 문제 해결책 강구

활동관련 제언

LENS 사업이 전국에서 진행되어 공통 주제인 놀 권리, 권역별 주제에 대해 참여 주체인 아동들이 스스로 능동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한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향후 동일한 사업이 진행된다면 권역별 주제 선정부터 인권관련 특강 강사 섭외, 설문지 설계, 월별 활동보고 및 진행 사항에 대한 수퍼비전을 얻을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음. 그리고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연초에 확정된다면 홍보 및 모집 기간을 조금 더 길게 두었으면 좋겠고, 권역별 교육청 및 각 학교를 통하여 더욱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코디네이터 활동 소감

경북의 경우 거점기관 추천이 아닌 100% 자발적 신청 아동들로만 구성되어 8명이 3개월 동안 활동을 하였음. 참여 아동들 중 평소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구 인권위 및 학교 모의UN 동아리 등에 참여하여 활동한 경험이 있어 관련 활동에 열정이 많은 친구들도 있었고, LENS 모니터링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본 사업에 대해 알리고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여 단원들이 추가모집 되기도 하였음.

고등학교 1, 2학년은 학업만으로도 한창 바쁠 시기이지만 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주어서 코디로 함께하는 담당자 역시 아동의 권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음. 경북 참여단원 및 설문, 인터뷰로 의견을 전해주었던 아동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고 이로 인해 아이들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함.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서울지역

권역 : 서울

활동주제 및 주제 도출경과

1. 놀 권리 (전체주제)

- 서울 권역에서는 ‘논다’, ‘신다’라는 말과 이를 행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음.

2. 아동에게 있어 대학의 의미 : 아동의 진로인식과 대학에 대한 인식 (권역별 주제)

- 어느 초등학교에서 한 아동이 자신의 장래희망란에 ‘카이스트’라고 써 놓는 일이 있었음.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동들의 진로인식과 대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아동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 없이 맹목적으로 대학 입학을 위해 공부하는 현상에 대해 비판하고자 함.

권역 활동내용

1. 서울 권역 관련 정보

모니터링 단원 : 김○○, 김○○, 안○○, 최○○, 전○○, 전○○, 김○○, 박○○, 정○○ (9명)

오프라인 모임 : 3번. 기타 의견교환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활용해 수시로 진행

활용한 온라인 미디어 :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 주제 및 권역별 주제 설문지 배포용)

I. 8월 활동내용

1. 오프라인 모임 : 8월 25일 진행

- 참석 아동 : 김○○, 김○○, 안○○, 최○○, 전○○, 전○○, 김○○ (7명)
- 활동 내용

i) 사전 조사 내용 공유 및 피드백

1) 놀 권리 관련

- 한국 어린이의 야외 놀이 시간은 미국 어린이의 40%밖에 되지 않음.
- 초중고생의 70%가 사교육을 받고 있음.
- 김○○아동 : 학업 상위권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원이 사교육을 받고 있었고, 놀러 나간다는 말에 대해 눈치가 보인다는/부정적인 인식을 보임
- 놀이 시설이 부족함.
- 게임에 대한 인식이 과도하게 부정적임.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것에 비해 게임중독 고위험군인 초등학교생들은 1.5%에 지나지 않음. 오히려 부모의 태도가 게임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음.
- 중학생의 학습시간이 성인들의 노동시간보다 많음.
- 수면, 공부, 운동, 미디어의 4가지 권장기준에 부합하는 아동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음.
- 학교일과 후 친구들과 놀기를 원하는 아동들에 비해 실제로 노는 아동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음.
- 현재 아동들이 느끼는 여가시간의 부족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되어있는 '휴식과 예술활동 등에 참가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음.

2) 진로인식 및 대학 인식 관련

- 중고등학생의 81%가 학업 스트레스 받는다고 응답, 사유는 성적이 1위.
- 청소년 사망 1위가 9년째 자살인 것으로 나타남
- 자유학기제에서는 개인이 원하는 활동이 아닌 학교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며, 학원에서는 이 기간을 활용해 고등학교 선형을 진행하고 있음.
- 명문대 선호 현상이 너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음. 강남구/서초구에서 재수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서울권 명문대를 가지 못하면 다른 진로를 택하지 않고 명문대에 가기 위해 시간과 돈을 다시 투자하는 현상을 보여줌.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서울지역

ii) 권역별 주제 관련 설문조사 문항 제작 및 범주화

-4개 카테고리로 질문 범주화 : ‘아동의 진로의식 실태’, ‘진로 관련 정책에 대한 만족도’, ‘대학 관련 인식’, ‘대학 관련 사회적 인식’

iii) 놀 권리 설문지 배포

II. 9월 활동내용

1. 오프라인 모임 : 9월 9일 진행

- 참석 아동 : 김○○, 김○○, 안○○, 최○○, 전○○, 김○○ (6명)
- 활동 내용

i) 설문조사 최종점검

- 모호한 질문 있는지 여부 확인 최종 질문과 보기 추가

ii) 놀 권리 설문지 수합

2. 온라인 설문지 제작

- 제작 완료 : 9월 29일

III. 10월 활동내용

1. 온라인 설문지 배포

- 10월 11일 검토 완료, 10월 12일부터 10월 27일까지 배포.
- 총 78명의 아동들(고등학생 51명, 중학생 27명)에게 응답 받음.
- 설문지 자체는 파일로 첨부.
- 설문지 총 결과 스프레드시트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jWB7JBuO5RQmXr2FkhBVpdF5crT_h728jQiwckKS9cIA/edit?usp=sharing
- 설문지 총 결과 그래프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FAOHpO7mmb8cI7b0pWv9LLUxdfTfjHPN_pvzwzpbJo/edit?usp=sharing

2. 오프라인 모임 : 10월 27일 진행

- 참석 아동 : 안○○, 최○○, 전○○, 김○○, 전○○ (5명)
- 활동 내용

i) 온라인 설문지 내용 공개 및 결과 도출

- 자신의 진로를 이루려는 장기화된 계획/로드맵이 있는 아동들이 전체의 33%밖에 되지 않음.
- 본인의 진로를 추구하는데 있어 학교가 뒷받침을 해준다고 인식하는 아동들이 전체의 33%밖에 되지 않음.
- 대학에 가고 싶은 이유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니까'라고 응답한 아동들이 58%, '중졸/고졸의 학력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아동들이 50%,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권유하셔서'라고 응답한 아동들이 25%에 달했다.
- 대학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로 '대학에 갈 자신이 없어서'를 선택한 아동들이 57.1%에 달했다.
- 설문 조사를 한 아동들의 94.8%는 학력에 따른 차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ii) 인터뷰 결과 공유

1) 놀 권리 관련

- 취미활동이 있다고 한 학생들의 수가 적었음. 취미가 있는 경우도 이 활동이 예체능 입시와 관련되어 있었음.
- 아동들이 여가 시간에 하는 것은 주로 SNS나 게임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 비교적 낮은 연령의 아동들은 본인들이 갖는 여가 시간의 양과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음. 그러나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줄어들었고, 본인 나이대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여가 시간의 길이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음.

2) 진로인식 및 대학 인식 관련

- 인터뷰에 응한 아동들은 대학을 나온 사람과 나오지 않은 사람 사이의 갭이 너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위의 원인으로 인해서 뚜렷한 진로가 없더라도, 혹은 본인의 진로가 대학과 상관이 없더라도 대학에 가기 위해 맹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었음.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서울지역

- 자유학기제가 아동들의 진로 설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음. 공부를 강조하진 않았지만, 진로 관련 활동이 아닌 영화감상이나 자습 등이 주가 되었기 때문.
-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관련 프로그램이 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음.

iii) LENS 모니터링단 활동 소감 공유

아동 제시안

전체 주제 :

- 아동들이 맹목적인 학습에서 벗어나 ‘제대로 노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각자의 취미생활을 갖고, 이를 누릴 수 있도록 시간, 공간적인 배경이 필요하다.
- 쉬는 시간을 갖고, 논다는 것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논다는 것이 단순히 시간 낭비가 아닌 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퍼뜨릴 필요가 있다.

권역별 주제 :

- 교내/가정에서 아동들에게 학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없애야 한다.
-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 상담 및 진로적성검사 등을 통해 공부 외에 다른 분야에 재능이 있는 아동들이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사회적 통념을 바꿔야 한다.

활동 소감

서울 지역 코디네이터 본인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국아동단체협의 회와 함께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사업은 코디네이터가 처음으로 모니터링단이 아닌 지도자로서 참여한 활동이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활용해 아동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고, 이에 대해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맹목적인 학습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의 모니터링 활동에서도 계속 대두되던 문제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고 오히려 더 심해진 것을 느꼈으며 아동들과 더불어 제 자신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방법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안 사항

우선적으로, 모니터링 기한이 너무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달은 아동들이 충분한 자료조사를 거쳐 산출물과 제안 사항을 내기에는 너무 짧은 기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기한이 아동들의 시험기간과 겹쳐서 사실상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2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도 아쉬웠습니다. 또한, 놀 권리 설문지의 결과가 모니터링 사업이 끝나기 전에 각 권역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놀 권리 설문지 배포 이후, 서울 권역은 주로 권역별 주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놀 권리 설문지의 결과가 아동들에게 더 빨리 전달되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전국의 아동들의 놀이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모니터링단 아동들이 파악해 이에 더 비중을 둔 풍부한 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전남지역

권역 : 광주전남

권역별 활동내용

〈공통주제: 아동의 놀 권리〉

○ 월별 활동내용

- 8월: 발대식 및 회의진행
- 9월: 아동청소년이 직접 경험하는 놀이문화 워크숍, 놀 권리 설문조사 활동교육
- 10월: 놀 권리 캠페인 진행

○ 월별 활동결과

- 8월: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활동에 대한 이해의 시간 마련 및 아동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여 주제를 도출하기로 논의 함
- 9월: 아동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초등, 중등, 고등별 그룹을 나누어 아동청소년 놀이 문화를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건강한 놀이 문화와 공간이 충분치 않으며,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인터넷, pc방을 통해 문화적 욕구 및 학습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는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아동청소년들의 문화생활 욕구 해소를 위한 할인제도 마련, 교내 체육시간 확대, 아동청소년들의 놀이 축제 마련, 부모 및 어른들의 인식개선 필요를 제안하였다.
- 10월: 10월13일(토), 아동청소년들이 제안한 놀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아동인권 모니터링단과 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고민해 보았고, 아동의 역할로는 놀 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진행, 기관의 역할로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놀 권리 축제를 본 기관에서 계획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10월20일(토)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운천 저수지에서 놀 권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 11월: 11월3일(토) 아동청소년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월드비전 놀데이 페스티벌’을 진행했고 이날 아동인권 모니터링단은 놀 권리 부스 운영과 다양한 놀이 부스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다.

〈권역별주제: 놀이터 안팎 간접흡연 개선 활동〉

- 8월~9월: 두 차례 회의를 통해 권역별 활동 주제를 도출 했고, 전남권은 2018년 아동총회를 통해 도출 된 정책제안 4가지 중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 때문에 간접흡연을 하게 되니 금연구역을 넓히고 감시시스템을 마련해주세요.’로 선정하여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놀이터 안팎의 간접흡연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아동인권 모니터링단 아동들이 거주한 놀이터를 모니터링 활동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 9월~10월: 두 차례 논의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설문지를 제작 했고, 최종 검토는 광주대학교 이○○ 교수가 맡아 주었다.
- 10월~11월: 두 차례에 걸쳐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주제 도출 경과 : 설문지역: 광주광역시 서구 일원 / 응답자 120명

질문1. 여러분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 안과 밖에서 흡연자를 본 적 있나요 질문에 ‘(본적)있다’ 99명, ‘(본적)없다’ 17명으로 놀이터 안팎에 흡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질문2. 여러분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 안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것을 알고 있나요 질문에 ‘알고 있다’ 98명 ‘몰랐다’ 15명으로 대체적으로 놀이터, 공원, 학교가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질문3. 여러분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 안에서 금연안내판을 본 적 있나요 질문에 ‘(본적)있다’ 93명 ‘(본적)없다’ 23명으로 응답하였고 금연안내판이 설치되었고 이를 확인한 사람이 대체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질문4. 여러분은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놀이시설 근처 편의점과 마트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곳을 본 적 있나요? ‘(본적)있다’ 80명 ‘(본적)없다’ 30명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인근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가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질문5. 여러분은 놀이터 밖에도 흡연제한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나요 질문에 ‘필요하다’ 104명 ‘필요하지 않다’ 11명으로 놀이터 밖에도 흡연제한구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월등히 많았다.

질문5-1. 그렇다면 흡연제한구역을 정한다면 거리는 어느 정도가 좋다고 생각 하나요 질문에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전남지역

200미터 이상 43명, 50~100미터 35명, 100~200미터 3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질문6. 여러분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 안과 밖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 하나요 질문에 1위 ‘금연구역을 넓히고 놀이시설 인근에도 흡연제한구역을 만든다.’ 2위 ‘놀이시설 인근에서 담배판매를 금지한다.’ 3위 ‘모든 놀이시설 마다 금연감시 CCTV를 설치하고 적발 시 많은 과태료를 낸다.’ 순으로 응답했다.

결과적으로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동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놀이시설 인 놀이터, 학교, 공원 안팎에서 흡연자가 많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놀이터 안팎 흡연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아동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담배 판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월별 세부 활동 내용>

- 1차: 8월18일(토) 14시~16시 / 총 30명 참여(모니터링당사자 19명, 학부모 8명, 직원 3명) / 무진복지관 2층 회의실 / 발대식 및 주제 도출

<활동목적>

아동인권 당사자 첫 모임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권역별 활동 주제를 도출하는 시간을 갖는다.

<활동내용>

1. 기관소개(월드비전, 무진복지관 기관 소개)
2. 2018 아동권리위원회 수료식(수료자 5명: 박○○, 김○○, 윤○○, 채○○, 김○○)
3. 국가인권위원회 연합사업 아동인권 당사자 ‘렌즈’ 오리엔테이션
 - 사업취지 및 소개
 - 활동일지 작성 및 카페 가입 안내 등
4. 아동권리위원회 정기모임(2018 정책결의문 모니터링 활동, 지역 내 아동권리 침해사례 도출을 위한 토론활동 진행)

<토론을 통해 나온 주요 내용>

- 청소년 참정권 : 투표권 여부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없고,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
- 학교폭력예방 : 학교폭력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관자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 놀이터 안팎 흡연 단속강화 : 놀이터 안팎 금연구역 확장과 감시시스템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5. 마무리 및 과제안내

○토론결과 및 주제 도출

- 청소년 참정권(선거권) :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치 교육 진행,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춘다. 청소년기부터 투표 중요성 및 권장교육 실시한다.
- 학교폭력예방 : 방관자도 법정에서 처벌을 받는다. 방관자도 약한 처벌이라도 받아야 한다. 방관자들의 관심을 키울 수 있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방관자들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
- 놀이터 안팎의 흡연단속강화 : 어린이 놀이 공간 안팎에 금연구역을 확장하고 감시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어길 시 법적인 대처(벌금)를 한다.

○과제

- 학교폭력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관자도 처벌하자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주변 친구 3명 이상을 만나 인터뷰하기.
-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 근처 놀이터 둘러보기, 놀이터 안팎에서 금연한 사람을 목격한 적 있는지, 주로 어떤 사람들인지, 목격 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적어보고, 친구 3명 이상을 만나 인터뷰하기.

6. 다음 모임일정 안내 및 다과/식사 : 9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활동평가>

- 신규 의장단과 학부모들을 위한 활동으로 월드비전과 무진복지관 기관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자녀들이 활동할 기관을 이해하고 신뢰감을 갖는 시간이 되었다.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전남지역

- 그동안 의장단 및 아동권리위원회로 성실히 활동한 5명의 학생들의 수료식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아동권리위원회로서 활동 수고에 대한 격의 시간이 되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 진행한 아동인권 당사자 권역별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권역별 주제도출 활동을 진행했고, 광주전남권역은 2018 대한민국 아동총회 광주전남지역대회를 통해 도출된 정책제안문을 모니터링했고, 구체적인 활동을 위해 토론을 진행했다. 참여한 아동권리위원회 90%(1명 제외) 2018 지역대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토론이 수월하게 진행됐고, 아동들 모두가 주제 도출에 관심을 갖고 집중했다.
- 2차: 9월15일(토) 14시~16시, 14명 참여, 무진복지관 2층 회의실 / 주제 도출 및 설문지 제작
9월16일(일) 15시~17시30분, 3명 참여, 광천동 유스퀘어 엔제리너스 / 주제 도출 및 설문지 제작



<활동목적>

1. 아동권리위원회가 도출한 아동권리 침해사례 ‘놀이터 안팎 간접흡연’ 문제를 인식하기 위한 워크숍 실시
2. ‘놀이터 안팎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

<주요 활동내용>

1. 놀이터 안팎 간접흡연 문제를 주제로 조별 워크숍 실시 및 조별 발표 진행
(간접흡연 인식하기 → 간접흡연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순서로 논의 함)
2. 간접흡연 인식 및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설문지 문항을 만들어 봄
3. 해결 방안 중 우리가 할 수 있는 점을 찾아보기로 함
 - 설문지를 제작하여 현황을 파악한다.
 - 해결 방안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캠페인 하고 이를 제안한다.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전남지역

- 아동권리위원회가 도출한 아동권리 침해사례 내용 :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 때문에 간접흡연을 하게 되니 금연구역을 넓히고 감시시스템을 마련해 주세요.
- 현황 및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워크숍을 진행함

<어른들은 주로 어디서 담배를 많이 피우나요?>

- 공원, 놀이터 주변에서 많이 보았다.
-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 등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흡연을 한다.
-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상가 및 학원가 등 길거리에서 흡연을 한다.
- 대체로 집 주변, 놀이시설 주변, 학교 인근, 화장실
-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많이 피우고 특히 오래된 아파트 놀이터의 경우 흡연구역 표시가 없고, 담배연기가 집안까지 그대로 넘어 온다.
- 아동 청소년들이 누구한테 방해 받지 않고 자유롭게 놀아야 하는 놀이터나 놀이터 주변에서 어른들이 담배를 피운다.
- 술집, 횡집, 고기집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어린아이나 초등학교까지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멀리 가서 피우거나, 피우지 않고 가는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있으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피는 경우가 많다.
- 길거리를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데 흡연자 뒤에서 걸어가는 경우 심각한 간접흡연을 하게 된다.
- 아동청소년들을 배려하지 않고 아동청소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을 종종 봤다. 흡연경고판이 붙여 있는 곳, CCTV가 있는 곳에서도 당당하게 흡연하는 모습을 보고 이대로 가면 안된다는 생각을 했다.

<어른들이 놀이터 안팎에서 흡연을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 아동청소년들이 간접흡연을 하게 되고 놀이터나 주변에 담배냄새가 난다.
- 간접흡연 때문에 결국 아동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친다.
-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몸이 약한 아동들이 흡연자와 달리 필터를 거치지 않은 담배연기를 마시는 것은 흡연자 보다 더한 증상을 발생한다.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전남지역

- 아동청소년들이 담배를 쉽게 접할 것 같고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담배 피는 것을 멋지다고 생각 할 것 같다.
- 간접흡연으로 인해 성장기인 아동청소년들에게 피해를 끼친다.

<결론>

- 모니터링에 참여한 아동 청소년 전체가 놀이터 안팎에서 흡연을 하는 어른들을 목격했고, 아동청소년들이 있음에도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의 모습이 아동청소년들 시선에는 배려하지 않음과 어른들로부터 무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 모니터링에 참여한 아동 청소년 전체가 아동청소년들이 간접흡연으로 건강을 해치며, 담배 피우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호기심을 자극하여 나중에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해결 방안

- 감시시스템 마련(cctv 설치) 이를 어길시 법적 조치 마련
- 학교 및 놀이터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문제이므로 이를 제한해야 한다.
- 아동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는 담배피우는 것을 자제하면 좋겠고 금연 구역을 넓히면 좋겠다.
- 설문조사를 통한 예방 방법 연구, 비흡연 구역을 제정한다.
- 금연구역을 넓히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많은 벌금을 낸다.
- 아파트 전체 금연구역 확대
- 흡연자를 위해 흡연실을 만든다.
-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 놀이터 주변에서 피우지 못하도록 제한한다.(흡연구역 설정)
- 다른 나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인데, 새로운 흡연자 발생(호기심)을 막기 위해 담배를 살 때 담배를 넣어 두는 공간을 보이지 않게 막아 놓는다.
- 담배 가격을 인상한다.
- 놀이터 안팎 금연금지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흡연할 수 있으므로 놀이터 인근에 흡연부스를 설치한다. 이 또한 아이들은 어른들이 흡연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러나 보호자는 자녀들을 볼 수 있는 높이를 조정한다.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전남지역

- 놀이터로부터 80m 내에서 담배 피우지 않기, 놀이터로부터 80m 내에 있는 마트나 상점에서 담배 판매 금지, 놀이터에 아동이 아닌 사람들 출입을 금지 한다.

○ 다음 활동 계획

- 설문지 완성
- 캠페인 주제 도출 및 캠페인 준비



- 3차: 10월13일(토) 14시~17시, 총 13명 참여 / 무진복지관 2층 회의실 / 설문지 제작 및 캠페인 준비

<활동목적>

1. 놀이터 간접흡연 개선활동을 위한 실태조사 설문지를 완성한다.
2. 놀이터 간접흡연 개선을 위한 아동권리 캠페인을 준비한다.

<활동내용>

1. 놀이터 간접흡연 실태조사 설문지 제작
 - 아동권리위원회와 논의 후 최종본 완성
 - 10월 16일 이○○ 교수(아동권리위원회 자문위원장)에게 검토 완료
2. 아동권리 캠페인 준비
 - 놀이터 간접흡연 개선을 위한 피켓 제작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전남지역



• 4차: 캠페인 진행

1. 사업명 : 2018 아동권리 캠페인
2. 주제 : 놀이터를 간접흡연으로부터 지켜주세요.
3. 일시 : 2018년 10월 20일 토요일 9시~16시
4. 장소 : 운천저수지(서구 쌍촌동 위치)
5. 참여인원 : - 놀 권리 서명운동 참여인원: 101명
- 간접흡연 설문조사 참여인원: 120명
6. 내용 : 놀 권리캠페인, 놀이터 간접흡연 실태조사, 체험부스 운영



- 5차: 11월3일(토) 9시~15시, 총 15명 참여 / 효광초등학교 운동장 / 캠페인 진행 및 놀 권리 축제 진행 / 아동청소년 300여명 참여 / 아동청소년 놀이 부스 20여개 이상 운영 등



아동 제시안

<공동주제: 놀 권리>

- 놀 권리의 중요성과 가치를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캠페인이 국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권역별주제: 놀이터 안팎 간접흡연>

- 권역별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놀이터 안팎 간접흡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전달함으로써 아동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활동 소감

- 기존 무진복지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동권리위원회와 한아협을 통해서 신청한 아동인권 모니터링단 간의 연령 격차가 있어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아동권리위원회와 모니터링단 간의 권역별로 활동하고 싶은 주제가 달라서 두 팀으로 나뉘어서 활동함으로써 활동에 흥미를 갖게 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 인권교육 및 모니터링 교육 등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활동에 투입되다 보니, 형식적인 진행이 될 수 밖에 없었고 마치 인권당사자들을 위한 활동이 아닌, 과업 수행을 위한 활동 중심으로 진행 되어 참여한 아동청소년들에게 부담감을 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전남지역

-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고, 아동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는 시간이 되었고, 광주지역 내 놀이터 안팎 간접흡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다.

<제언>

- 아동청소년들의 인권감수성 시간 필요
- 활동에 대한 선택과 집중 필요, 공통주제, 권역별 주제 두 가지 활동이 너무 많음 (예를 들어, 공통주제를 없애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요구한 설문조사만 진행하고, 매월 만남은 권역별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면 좋겠음)
- 아동청소년들이 제안한 활동들이 현재 실행 될 수 있도록 주최 측의 활동과 관심 요구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전북지역

권역 : 전북

활동주제 및 주제 도출경과

- 아동의 ‘놀이 권리’- 놀 권리보다도 진학과 취업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했으며, 성인이 되어 시간이 많이 날 때 놀면 된다는 의식이 강했음. 그러나 아동의 경우 학교와 학원, 각종 스케줄에 치여 정작 놀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놀 사람도, 놀 거리도 없이 자거나 티비를 보는 등의 쉼다는 느낌이 강하다고 대답함.

설문지를 통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이해, 아동의 현 실태에 대해 알 수 있었음. 하루에 몇 시간을 놀고 있으며, 몇 시간을 놀아야 하는지, 놀지 못하는 이유와 놀게 된다면 어떻게 놀고 싶은지, 놀기 위한 어떤 시설이 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들어봄.

- 아동의 ‘보호권’- 아동인권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고, 아동의 놀 권리와 보호권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도 현 사회의 분위기가 안 받쳐주는 것에 대해 아동의 인권이 지켜지기란 힘들 것이라는 반응이 많았음.

권역 활동내용

• 월별 활동내용

전북권역은 18명의 모니터링단원으로 시작하였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아동2명의 활동불가로 16명의 모니터링단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음.

모니터링단원들 모두 카카오톡을 활용한 단톡방에서 상시 정보를 주고받고, 대략적인 월별 활동일정과 내용을 정하고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오프라인 만남에서 정하였음. 온라인 상으로는 상시 만남을 이어왔으며 오프라인으로는 8월 1회, 9월 1회, 10월 2회로 총 4회 만남.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부안, 정읍, 완주, 고산 등 다양한 시군에서 활동하다보니 한데 모두 모이기는 힘들었으나 참여아동들이 바쁜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음.

오프라인 만남 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단원들이 참가하였음.

8월 15일 활동- 14시~20시(6시간) 아동인권캠페인자료 제작 및 활동내용 정리회의,

월별 활동내용 정리

박○○, 최○○, 유○○, 김○○, 임○○, 김○○, 황○○, 강○○, 김○○, 이○○, 한○○,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전북지역

왕○○, 문○○, 김○○(총14명 참가)

9월 15일 활동- 15시~20시(5시간) 아동인권 애용정리 및 10월 활동내용 기획회의, 아동인권 캠페인 활동

박○○, 최○○, 유○○, 김○○, 김○○, 임○○, 김○○, 황○○, 강○○, 양○○, 임○○, 김○○, 왕○○, 문○○, 김○○(총15명 참가)

10월 21일 활동- 13시~15시(2시간) 10월 27일 활동 임시회의

유○○, 김○○, 김○○, 양○○, 최○○, 문○○, 임○○, 김○○(총8명 참가)

10월 26일 활동- 9시~14시(5시간) 아동인권 부스운영 및 캠페인활동

유○○, 김○○, 김○○, 양○○(총4명 참가)

• **공통주제: 아동의 놀 권리**

공통설문지 작성 조사,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이해 및 정보제공, 현 아동의 놀 권리의 실태조사를 위한 인터뷰 진행.

- ①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 ② 하루에 몇 시간 노는지, 몇 시간을 놀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
- ③ 놀 때 뭐하고 노는지 조사
- ④ 놀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따라 어떤 시설이나 기관, 정책 등이 필요한지 조사

• **권역별 주제: 아동의 보호권**

아동의 인권이 침해된 사례와 각종 통계, 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현 아동인권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인권 중 ‘보호권’에 대해 정보습득 및 시민의식 고취에 목적을 갖고 활동하기로 함.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아동인권에 관련된 활동자료를 조사하고 길거리 캠페인을 준비함.

- ① 아동권리협약의 정의와 내용 알리기
- ② 아동인권관련 퀴즈를 내어 아동 및 시민들이 재미있게 참여하고, 자연스럽게 아동인권에 관한 정보습득하게 돕기
- ③ 아동 및 시민들의 아동에 대한 생각받기,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하고 싶은말 하기



아동 제시안

- 교육적 측면- 아동의 권리에 대해 아동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숙지하고 교육시킬 필요성이 있음. 관심을 갖고 보지 않는 이상 당사자들이 인권에 대해 알 수도 없고, 기성세대가 아동을 대하고 생각하는 의식 자체가 아동은 미흡하고 부족하여 결정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동 스스로 권리를 지켜내기는 쉽지 않음. 아동 당사자의 권리의식이나 자각을 위해, 또 시민들의 아동을 대하는 태도와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
- 정책적 측면- 교육과정의 개편과 교칙, 법의 제정 등 아동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책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놀 권리가 지켜지기 위해 놀이시간을 규정하거나 아동이 충분히 놀 수 있도록 저렴하고 즐겁고 안전한 놀이공간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전북지역

- 법적 측면- 아동에 대한 정의와 연령을 통일화 시킬 필요가 있음.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여러 법에 따라 적용되는 연령과 법적규제가 달라 헛갈림. 시민들과 아동 대상자들 역시 아동이라는 말에 유치원생에서 초등학교생이 아동이라는 생각을 하며 의아해했음. 청소년과 아동의 구분이 모호하며 법적으로는 겹치는 연령으로 뚜렷한 법적 정의가 필요함.

활동 소감

아동인권모니터링단 LENS활동을 하며 단원들을 만나고 단원들이 대상자로서, 모니터링단으로써 아동인권에 대해 조사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음.

식상할 수 있는 많은 법적 근거와, 아동권리협약, 조례,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 등 골고루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활동내용을 정해가는 것을 지켜보며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기를 잘했다는 생각과 함께 이 아이들로 인해 앞으로 많은 것이 바뀔 수 있겠다는 기대와 희망을 품을 수 있었음. 나 역시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아동과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책임감이 없으며 무언가를 결정하기는 힘들거란 생각과 미덥지 못하다고 평가했었음. 주체성을 갖고 성인 못지않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타인의 생각을 배척하지 않고 경청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서로의 의견이 대립될 때 접점을 찾아 최대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주체성을 가진 이 아이들과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아동청소년의 수준이 이렇게 높은지 결코 몰랐을 것임.

수없이 쏟아지는 사회문제에 아동과 가정폭력, 비행청소년 등 각종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많은 사건사고들을 접할 때마다 느꼈던 감정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던 이번 아동인권 모니터링활동은 아동의 인권에 대해 알고, 참혹한 현 실태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주었음.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캠페인 활동을 하며 더 와 닿았던 아동인권과 인권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이유들을 아동들에게 직접 듣고 보니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그러나 아쉬웠던 것은 권역별 아동의 모집과 코디네이터의 선발과정은 매끄럽지 못했고, 코디네이터 교육내용이 모니터링단 LENS활동에서 아동들을 이끌기에는 너무 미흡했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중간중간 생겨나는 서류와 일정들, 예산사용, 체크하고 챙겨야 하는 것들이 많아져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정성과 시간이 투자되었고 여러 업무를 맡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관리하며 그때그때 요구하는 일정들을 소화하기가 부담스럽고 힘이 들었음. 모니터링단의 인원을 권역별로 통일하고, 코디네이터의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활동 시 필요한 서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전북지역

류 및 아동관리, 모니터링 활동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일정을 처음부터 계획하여 아동과 코디네이터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가 잡히면 더 좋을 것 같음.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지속적인 교육과 의식개선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사회를 지켜주고 싶음.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꾸준한 홍보와, 아동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자극과 함께 직접 체험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매개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음. 아동인권에 필요한 상징적인 물품을 만들어 전국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알 수 있는 캐릭터나 활동적인 심볼이 제작되어 시민들의 의식에 자리 잡기를 바램.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제주지역

권역 : 제주

활동주제 및 주제 도출경과

1.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1) 놀권리란 무엇인가? 놀권리에 대한 인식도 설문조사 및 캠페인 활동 진행

- 대부분의 아동들은 놀권리를 알면서도 놀 시간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들며, 여가 시간 부족, 놀 공간이 사라짐, 사교육의 문제, 학업과 성적올리기 등의 학부모 강요로 놀권리를 보장받지 못함.
- 놀이터와 체육시설 등이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 안전하게 놀 곳이 없음. 그나마 놀 수 있는 문화의집이나 수련관 같은 시설에서 놀수 있도록 정부의 많은 지원이 필요함.
- 아동 여가 활동비 및 문화 활동 무료 정부 지원 필요.
- 학교 인권 수업 및 교육과목 늘림, 학원 수업시간 단축 및 사교육 금지 제도마련

2.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학교폭력 이제 그만)

- 학교폭력 이제그만! 학교폭력 아동 실태조사 스티커 설문조사를 서귀포시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함.

스티커 설문조사로 학교폭력으로 피해당한 아동은 거의 없다고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로 대부분 공개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이 꺼림직하거나 피해당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고, 밝혀지는 사례가 많음.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으로 인권교육이 꼭 필요함. 피해당하기 전과 후 서로 친구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 권리를 지켜줌. 만약 학교폭력 목격시 신고 등으로 도움을 줌. 아동의 보호는 의무이고 당연시 되어야 함.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학교에서든 언제 어디서든 아동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권리 존중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함.

1)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YES : 20.5명, NO : 2.5명, 한명이 중간을 선택

2) 학교폭력을 당한 친구를 목격한다면? 고발자 : 20명 방관자 : 2명

3) 만약 본인을 학교를 피해를 당한다면? 신고 : 16명,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림 : 9명 중복 답변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제주지역

4)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서 안다? YES : 21명, 모른다 : 1명

대부분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호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고 답변함.

5)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친구들끼리의 일상에서 먼저 서로의 관심을 갖도록 하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를 알리고 아동인권 교육 필요, 학교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다면 방관자가 아니라 고발자가 되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함.

권역 활동내용

1. 1차 오프라인 모임

- 일시 : 2018년 8월 13일(월) 2시
- 장소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 참석(단원 15명, 코디 1명) : 강○○, 고○○, 한○○, 박○○, 전○○, 김○○, 현○○, 윤○○, 조○○, 김○○, 오○○, 김○○, 임○○, 오○○, 장○○, 이○○(코디)
- 활동내용

- 1) 모임 전 아동인권 모니터링 사전 조사 내용 전달(카톡 의견 공유)
 - 아동의 놀 권리, 아동이 안전하려면? 보호권 관련하여 항목별 조사
 - 개인 주제 선정, 사전조사방법 알림
- 2) 아동의 기본 권리 이해 및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단 소개
- 3) 사전 조사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에 따라 보고서 작성
 - 전체 주제와 권역별 주제 보고서 작성

(아동이 안전한 지역에서 놀 수 있는 공간 마련, 교육의 압박,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비만예방, 아동의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술과 흡연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안 등의 주제로 나온 의견이 많았다. 아동의 권리를 찾고 모든 활동을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다양한 방법의 캠페인 활동 준비)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제주지역

- 4) 다음 모임날짜 정하기(9월 22일 예정)
- 5) 권역별 주제를 다음 모임 전에 하나의 주제로 선정하기, 설문문항 만들기
- 6) 다음 활동 안내 공유 및 캠페인 활동 준비 역할 분담
- 7) 저녁 식사 및 마무리

2. 2차 오프라인 모임

- 일시 : 2018년 9월 22일(토) 2시
- 장소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 참석(단원 15명, 코디 1명) : 강○○, 고○○, 한○○, 박○○, 전○○, 김○○, 현○○, 윤○○, 조○○, 김○○, 오○○, 김○○, 임○○, 오○○, 장○○, 이○○(코디)
- 활동내용
 - 1) 아동 인권 교육진행 (자체진행)
 - 2) 권역별 주제를 구체적인 주제로 재 논의
- '학교폭력으로 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를 주제로 학교폭력 실태 등 조사활동
 - 3) 학교폭력과 아동인권 스티커 설문조사 문항 작성, 설문조사 방법 논의
- 아동의 놀권리를 알리는 캠페인 활동팀, 학교폭력과 인권 스티커 설문조사팀 구성, 홍보 판넬 제작
 - 4) 놀권리 설문조사지 배부(설문조사시 설문조사 내용과 인터뷰 내용 보고서 정리)
 - 5) 10월 모임 일정 논의(10월 28일 예정)
 - 6) 저녁 식사 및 마무리

3. 3차 오프라인 모임

- 일시 : 2018년 10월 28일(일) 2시
- 장소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일호광장 일대
- 참석(단원 15명, 코디 1명) : 강○○, 고○○, 한○○, 박○○, 전○○, 김○○, 현○○, 윤○○, 조○○, 김○○, 오○○, 김○○, 임○○, 오○○, 장○○, 이○○(코디)
- 활동내용
 - 1) 아동의 '놀권리', 아동의 보호권 '학교폭력 이제 그만!' 두가지 주제의 내용으로 캠페인 준비 (조별 역할 담당 및 활동 내용, 안내사항 전달)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제주지역

- 2) 아동의 '놀 권리', 아동의 보호권 '학교폭력 이제 그만!' 캠페인 진행
 - 지난 2차 모임때 정한 조별로 활동 진행 (서귀포일호광장 일대)
 - 놀 권리 홍보캠페인 : 강○○, 전○○, 한○○, 고○○, 박○○, 오○○, 임○○, 장○○
 - 학교폭력 실태 스티커 설문조사 및 홍보캠페인 : 조○○, 김○○, 현○○, 윤○○, 김○○, 김○○, 오○○
 - '학교폭력으로 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를 주제로 학교폭력 실태 등 조사활동 실시 (스티커 설문조사, 포스트잇에 답변을 받음, 캠페인시 춤파춤스 증명)
- 3) 조별로 캠페인 활동내용 정리 및 보고서 작성
- 4) 놀 권리 사후 설문지 작성
- 5) 저녁 식사 및 마무리

아동 제시안

- 아동의 권리를 먼저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대중매체와 광고 등을 통해 홍보해서 알린다. 권리의 의무와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캠페인 활동을 한다.
- 아동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 침해 등 피해 사례를 홍보한다.
- 아동들이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영향을 주는 일과 그 뿐만 아니라 아동 권리 존중에 관한 실천 방법 등을 알리는 활동을 한다.
- 지역사회에서 돌봄과 보호를 받아야 아동들을 모두가 함께 보호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학교와 가정에서 아동이 행복을 누리면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다양한 교육과 문화체험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 소감

아동인권에 대해서 나부터도 잘 알지 못했던 터라, 이번 활동을 통해 나도 아동인권에 대해 공부하며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고, 활동 주제 내용 논의와 매달 모임을 할때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할수 있을까? 하며 고민도 많이 했다. 자료 조사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SNS카톡을 통해 공유하고, 정리하고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 질문들을 같이 공유하며 준비를 했다. 매달 모임때마다 단원들은 시간을 꼭 내어서 모이기를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제주지역

힘썼다. 그러나 자료조사, 설문조사 모니터링을 하고 마지막 캠페인 할 때 실태조사를 하면서 많은 아동들의 답변을 듣지 못한게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매달 2가지의 주제를 통해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않았다.

모니터링단 15명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조금 힘이 들었다. 모니터링단 활동 시작전 더 구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료와 방법 제출해야하는 사항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로 임하며 권리의 의무와 존중하도록 노력하고, 인권인식의 중요성과 아동권리존중을 홍보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꼈다.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충남지역

권역 : 충남

활동주제 및 주제 도출경과

I. 공통주제: 아동의 놀권리

- 아동의 놀권리에 대한 학교 및 지역사회의 인프라 조사 및 관련 현황에 대한 자료를 통한 실태조사 후 제안사항 도출
-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진행을 통한 의견조사 등

II. 권역주제: 유해물질(담배)의 실태조사

- 첫째, 학생흡연, 교사흡연, 아동흡연의 세가지 소주제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활용하여 현황을 파악함.
- 위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입하고 아동의 건전한 주위환경을 위한 방법을 모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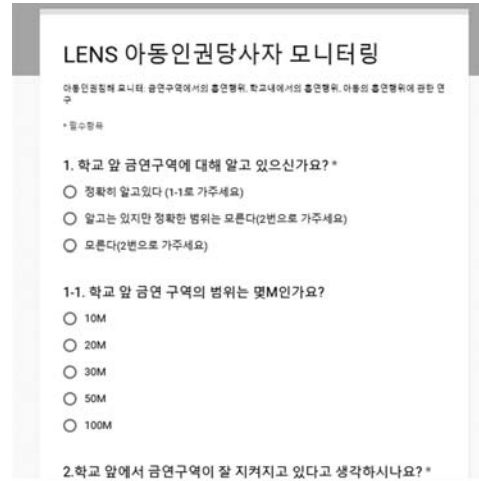
권역 활동내용

1. 8월 1차 모임

- 일시: 2018년 8월 19일(토)
- 장소: 아름누리청소년문화의집
- 참석: 신○○, 김○○, 음○○, 이○○, 정○○(총5명)
- 내용
 - 아동인권 모니터링 교육 및 활동안내
 - 공통주제 놀권리 인네
 - 권역주제 결정하기 : 유해환경, 유해물질, 매체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음.
 - 설문방법 및 설문지 작성 : 설문구성 및 설문내용, 수량 및 대상 등 의견나눔

2. 설문지 작성 모임

- 일시: 2018년 9월 20일(월)~10월 10일
- 장소: 카톡온라인
- 참석: 10명구성원
- 내용: 설문지 작성
 서론: 아동권리 연관지어서 유해시설-문헌조사(유해시설 정의, 아동권리, 사례, 문헌조사 기사, 논문) -음○○,이○○
 본문: 금연구역(신○○,음○○,국○○) 교사흡연(이○○,김○○,박○○) 학생흡연(정○○,선○○)



3. 9월 2차 모임

- 일시: 2018년 9월 16일(일)
- 장소: 대전YMCA
- 참석: 신○○, 김○○, 음○○, 이○○, 정○○, 국○○, 박○○, 선○○(총8명)
- 내용
 - 권역주제 ‘유해환경에 대한 토론 : 각자 조사한 자료 취합 및 의견나눔
아동이 보호받을 공간은 없는가.
 - 설문조사 장소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세종, 대전, 공주, 기타지역의 중고등학생
 - 설문지 회수 및 스마트폰 설문지 배포

4. 금연구역과 학교내에서의 흡연 실태 설문조사 실시(on-off라인 조사)

- 일시: 2018년 9월 20일~10월 10일
- 장소: 세종, 대전, 공주, 기타지역의 중고등학생
- 내용: 금연구역과 학교내에서의 설문조사 실시(총122명)

주요결과

:본인은 흡연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아동은 6.6%, ‘과거에는 하였으나 현재는 끊음’ 11.5%, ‘아니요’는 82%가 나왔다. 그러나 주변에 흡연을 하는 아동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70%, ‘과거에는 하였으나 현재는 끊은 친구가 있다’ 4.9%, ‘아니요’ 24.6%로 상반된 결과가 보였다. 아동이 흡연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89.3%가 ‘예’라고 응답하였으며 아동의 흡연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54%의 응답자가 ‘예’라고 답했다. 주로 받은 피해는 간접흡연이 가장 많았으며(94.6%) ‘위험이 된다’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아동의 흡연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77.9%가 ‘예’라고 응답하였으며 기타에 ‘담배를 구입하는 아동에게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강한처벌 필요’, ‘학교에서 단속을 해주었으면’ 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반면 ‘아무리 규제를 강화해도 필 사람은 핀다’라는 회의적인 답변도 있었다.

5. 10월 3차 모임

- 일시: 2018년 10월 21일(일)
- 장소: 유성구청소년수련관
- 참석: 신○○, 김○○, 음○○, 정○○, 박○○, 선○○, 국○○(총7명)
- 내용
 - 모니터링 설문조사활동 결과 및 제안사항 공유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충남지역

아동 제시안

<놀 권리>

- 아동들이 야외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 아동들이 협업하며 놀 수 있는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 입시위주의 교육보다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진로체험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현판을 부착)

<금연구역과 학교내 흡연실태조사>

- 흡연을 감소와 금연 환경조성을 해주세요
-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을 하고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몰랐다는 말이 있으니 큰사인물 설치 필요)
- 반복되는 금연교육보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세요
(VR 가상현실, 홀로그램등)

활동 소감

어리다고 생각했던 인권당사자인 아동들의 사회문제와 지역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대견하게 느끼게 되었다.

아동들의 열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활동기간이 짧는데 할 것이 많아 학생들에 대한 부담이 있는 듯 한데 무한 책임감으로 마지막까지 결실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회장과 단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충북지역

권역 : 충북

활동주제 및 주제 도출경과

I. 공통주제: 아동의 놀권리

- 아동의 놀권리에 대한 학교 및 지역사회의 인프라 조사 및 관련 현황에 대한 자료를 통한 실태조사 후 제안사항 도출
-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진행을 통한 의견조사 등

II. 권역주제: 아동의 노동권(아르바이트)

- 현재 우리지역 아동들의 아르바이트 실태 및 의식 설문조사 실시 및 관련 자료 조사활동
- 지역 아동 아르바이트 및 인권 관련 기관 탐방 등

권역 활동내용

1. 8월 1차 모임

- 일시: 2018년 8월 26일(토)
- 장소: 충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참석: 김○○, 방○○, 강○○, 송○○, 서○○, 민○○, 김○○, 이○○, 류○○(총9명)
- 내용
 - 아동인권 모니터링 교육 및 활동안내
 - 놀권리 설문조사 실시 방법 안내
 - 아동의 놀권리에 대한 인식 토론 : 아동의 놀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특히 학교와 어른들과 아동들과의 인식의 차가 크게 느껴짐.
 - 아동의 놀권리는 왜 보장되지 못하는가? 및 놀권리에 대한 인식 등에 관련하여 자료조사,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기로 함.
 - 권역주제 의견 취합: 아동의 참정권, 노동권, 소년법 등의 의견중 온라인 토론을 통한 주제 결정하기로 함.

2. 설문지 작성 모임

- 일시: 2018년 9월 17일(월)
- 장소: 청주외국어고등학교
- 참석: 김○○, 강○○, 서○○(총3명)
- 내용
 - 아동 노동권(아르바이트) 설문지 문항 작성
 - 설문조사방법 결정: 네이버폼 또는 현장 설문조사

3. 9월 2차 모임

- 일시: 2018년 9월 22일(토)
- 장소: 충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참석: 김○○, 강○○, 서○○, 송○○, 민○○(총5명)
- 내용
 - 권역주제 ‘아동의 노동권(아르바이트)’에 대한 토론
: 아동의 노동권은 충분히 보장받고 있는가?
부당한 대우나 차별은 없는가? 아동의 노동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설문조사 장소 선정 및 조사활동 역할 분장
 - 놀권리 설문지 회수
 - 놀권리에 관한 아동과 직접 인터뷰 등을 진행하고 제안사항을 도출

4. 아동의 노동권(아르바이트) 실태 설문조사 실시(on-off라인 조사)

- 일시: 2018년 9월 29일(토)
- 장소: 보은군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주시 일원
- 내용: 아동의 노동권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총60명)

주요결과

;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경험이 있다(65%), 없다(35%), 아르바이트를 한번이라도 한적이 있다(35%) 없다(65%), 아르바이트를 하지않는 이유는 필요없어서(41.7%) 부모님의 반대로(25%) 공부에 방해될까봐(13.3%)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57.7%이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자중 25%가 친구나 지인의 소개로 하는경우가 많았음.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경우로 정해진 일 이외의 다른일까지 억지로 한적이 있다가 7%,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못받은 경우와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못받은 경우가 2%였으며, 고객이나 고용주로부터 성희롱 경험이 있는경우도 2%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모든 아동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라고 응답했으며, 일하는 아동들에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로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신고 및 강력한 처벌 40%, 고용주에 대한 아동 노동권에 대한 교육확대 30%,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23.3%로 나타났다.

5. 10월 3차 모임

- 일시: 2018년 10월 28일(일)
- 장소: 충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참석: 김○○, 강○○, 송○○, 서○○, 민○○, 김○○, 이○○, 류○○(총8명)
- 내용
 - 모니터링 설문조사활동 결과 및 제안사항 공유

아동 제시안

<놀권리>

- 여가를 위한 놀이 공간과 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해 주세요
- 자유학기제를 개편하고, 과도한 사교육 예방과 공교육 안에서의 놀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 학교에서의 권리교육을 강화해 주세요
- 아동들이 학교가 아닌 단체 등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충북지역

〈아동의 노동권〉

- 학교에서의 노동권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주세요
- 아동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련법을 제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알려주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앱 개발 등)
- 부당한 대우에 대한 신고체계를 강화해 주세요
- 고용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주세요
- 권리교육과 아동의 노동권을 지원해줄 전문기관을 만들어 주세요

활동 소감

활동기간이 너무 짧아 아이들과 충분한 토론과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동안 함께 열심히 활동해준 아이들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아이들에게 소중한 경험과 추억으로 남길 기대해 봅니다.

04 | 제언

제언

아동들과의 만남에서 아동들은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이 자신들에게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사전사후 비교를 통한 양적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많이 발견하지 못했다. 참여아동의 사전-사후는 물론 성별, 인권관련 교육 여부, 꿈 여부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동들의 참여가 단지 3개월에 불과해 큰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던 점이다. 둘째, 아동권리에 관심이 높은 아동들이 주로 참여하여 아동들의 초기 아동권리 인식수준이 매우 높아 그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 인식수준이 낮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했다면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초기 141명이 출발했으나 28.4%가 감소하여 최종에는 101명만 남았다. 활동보고서 작성 등의 어려움으로 탈락한 아동들이 이후 계속 함께 할 수 있었다면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속성이 있는 장기 사업의 계획

좀 더 일찍 그리고 좀 더 장기간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그 효과를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적어도 3월 개학할 때 출발하여 가을까지 지속할 수 있었다면 변화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지만 이번 사업처럼 추석연휴까지 포함된 3개월은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었다. 이번에 참여한 학생들이 나중에 선배가 되고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 코디네이터가 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면 훨씬 더 당사자 모니터링이 풍성해지고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은 몇 개월간의 단위사업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장기간에 걸친 다년간 연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양한 아동 참여자 확보를 위한 홍보 강화

아동권리에 관심이 있는 아동들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단원의 모집기간을 좀 더 늘리고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번에 참여한 아동들은 평균 점수가 5점 만점에 4.5점 이상이 될 만큼 아동권리에 대해 관심도 많고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이런 아이들에게서 천장효과(ceiling effect)가 있어 새롭고 추가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독립변수인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이 아무리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그 종속변인에서의 결합 때문에 자주 통계적으로 효과가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가장 흔한 원인이 이번처럼 종속 변수가 제한된 또는 한정된 범위에 있는 경우인데, 종속변수가 척도의 맨 위나 맨 아래에 있다면 움짱달짝 못한다. 이번 사례처럼 아동권리와 관련된 척도의 상한에 있을 때 천장효과(ceiling effect)가 있다고 말한다. 아이들이 너무 준비도가 높아 모든 참여자들이 매우 높은 점수를 얻어 더 이상 추가상승이 어려웠던 것이다.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 아동권리에 관심도 없고 아동권리에 무지한 학생들이 참여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선별, 추천, 공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다양한 아이들이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모집기간도 길어야 하고 홍보방안도 아동친화적으로 진행되어야 더 많은 아동들이 관심도 갖고 참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아동친화적 방식으로 사업 운영

이번 사업에서는 아동들의 적극적 참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모니터링 보고서로만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하지만 모니터링 보고서를 문서화해야 한다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서류작업은 성인의 관점이므로 이에서 벗어나 사진, 유튜브 등 동영상, 회의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정리하고 평가할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동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을 믿어주는 성인들의 신뢰가 필요하고, 아동친화적 방식으로 그 결과물을 만드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코디네이터가 담당하는 지역이 너무 범위가 넓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진 아동들이 한 번 모이기가 쉽지 않았다. 아동들의 집단 활동이 중요한 것이라면 이번처럼 코디네이터가 너무 넓은 지역을 포괄하도록 만들기보다 코디네이터의 숫자를 늘려 활동지역을 생활권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아동 주체화 강조와 이를 위한 코디네이터 교육 강화

마지막으로 자발적 참여는 물론 주제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선정하고 본인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관점에서 직접 주변의 권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제언이 발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이 철저히 모니터링 사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너무 어려운 주제보다는 본인의 일상이 그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처음에 그 시각과 관점을 알려줄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아무리 그 수준이 낮고 실수를 하더라도 이 과정 자체가 참여권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코디네이터가 모두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최소한 역할을 하면서 아동들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철저히 준비되고 계획되어야 한다. 따라서 코디네이터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침은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되고 이것들이 충분히 교육되어야 한다. 코디네이터들도 이전에 이 사업을 직접 해본 당사자이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생태계를 키워야 할 것이다.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은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모니터링 단원이라는 타이틀과 상관없이 아동들이 삶에서 주체가 되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인들에게 문제 제기하고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한 바이다. 이것이 아동의 삶에서 실제 이루어지는지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나 사회에서는 아동들의 생생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먼저 쏟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의 상황을 친구들이나 어른들과 나눌 수 있도록 충분히 북돋아 주어야 한다. 그 후 스스로가 느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아동들의 목소리를 끄집어내고 성인 등 정책입안자들에게 생각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극해주어야 한다. 또한 시야를 넓혀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자극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아동 참여권의 바람직한 모습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권리가 실현되고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05

부록

1. 모니터링단 월별 활동보고서
2. 모니터링단 소감문



8월 활동보고서

모니터링단 월별 활동보고서

경기 - 모니터링단 8 활동보고서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기권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 보호권		
현황 및 실태	<p>보호권이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학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p> <p>보호권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도 까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p> <p>그 사례로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 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아동권리로는 유해한 것(방임, 학대, 폭력, 마약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24.4%), 차별 받지 않을 권리(14.5%),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11.6%)가 선정되었습니다.</p>		
문제점	<p>보호권에서도 아동학대에 초점을 맞추어 보지만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가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29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년 상반기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 피해자는 9471명이었고 이 중 5432명이 실제 아동학대 피해자로 판정되었다고 합니다.</p> <p>더욱 놀라운 것은 가해자의 약 87%가 여아의 친부모라는 것입니다.</p> <p>자신들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자각하지도 후회하지도 반성하지도 않고 다시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p>		
제안 내용	<p>아동권리 신장을 위한 릴레이 온 글씨 캠페인을 실시하여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아동학대, 아동 노동권의 침해, 유해한 매체와의 과도한 노출 등 아동의 보호권이 올바르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p> <p>참여방법으로는 종이에 '우리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라는 글을 손글씨로 작성하고 5명을 태그하여 퍼져나가게 하면 성별, 나이, 국적이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동권리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주었으면 하고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p>		
제출일	2018년 8 월 31 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기권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 보호권		
현황 및 실태	<p>현재 아동의 보호권이 잘 안 지켜지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p> <p>몇 일전에 일어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폭행하여 아동 폭력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들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나 단체에서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아동 보호권에 대해 알리어 하고 방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이러한 것들이 지속된다면 아이들의 성장기에 안좋은 영향이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p>		
문제점	<p>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의 종류에 대해서나 인식 이러한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동학대사건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 번쯤은 눈길을 가지면 그것이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것이 학대인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거 같아서 그러한 점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p>		
제안 내용	<p>저희는 SNS 손글씨 캠페인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할수있도록 sns를 통해 알릴 것입니다. 손 글씨의 문구인 '우리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p> <p>이러한 작은 캠페인 하나가 큰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활동과 홍보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p>		
제출일	년 월 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기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 보호권		
현황 및 실태	<p>현재 아동 인권(보호권)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p> <p>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상담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4790건부터 약 3배 이상 증가함), 이 중 신체학대는 7.7%, 정서학대 15%, 성학대 3.7%인 반면, 방임은 29.4%라는 높은 수치를 보이며, 아동학대는 아동의 보호권과 관련이 깊고 자녀 양육기술이 부족한 부모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방임형 학대가 가장 많음을 의미한다. 대다수 아동이 보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을 버리는 유기 또한 방임에 해당됨)</p> <p>대부분의 학대 행위자는 부모이고, 저소득층 가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물리적 방임이 가장 높다. 아동을 위한 방과후 교육, 상담시설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아동 보호권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뚜렷하게 단정 지을 수 없다.</p>		
문제점	<p>아동 보호권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되어있지 않다. 아동학대 사례만 봐도 '법'에 의해 가해자는 송방방이 처벌을 받고 '법'에 의해 피해 아동은 더 큰 피해를 입는다. 성폭행범 조두순의 사건을 보더라도 더 뚜렷해진다. 생각이 온전하지 않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동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결국, 이 '법'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즉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p>		
제안 내용	<p>SNS 손글씨 캠페인 : 또 하나의 작은 사회라고 볼 수 있는 네트워크인 sns(페이스북)를 통해 아동의 보호권과 그 실태에 대해 알리고 손글씨를 직접 작성해 올리는 캠페인은 전달력이 높고, 잘 접할 기회가 없던 이들도 쉽게 참여 가능한 방안이다.</p>		
제출일	2018년	8월	26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기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보호권		
현황 및 실태	<p>아동에 대한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신체적,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처해 있는 아동의 삶의 질과 그 사회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한다. 그런데 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아동학대보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에 지나치게 치우친 교육을 하고 있어 제1의 학교라 불리는 가정에서의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도움을 받는 법을 모르기도 하여 도움을 받기 힘든 실태라고 추정된다. 또한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지식인'에서는 아동학대 해당 여부를 묻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고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뉴스나 신문기사 등의 매체에 조명되어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p>		
문제점	<p>아동학대 경험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여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이 다루어져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아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부족이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p>		
제안 내용	<p>아동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인식 부족이 문제라고 판단되어 경기지역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원단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관리하는 등 SNS를 이용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아동의 인권에 대해 알리고 그 심각성을 알게 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손글씨 캠페인을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동의 보호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관심을 가지게 하고자 한다. 손글씨 캠페인은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 내기 위해 "우리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간단한 문구로 진행하며 5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아동학대, 아동 보호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늘어나길 바란다.</p>		
제출일	2018년	8월	26일

경기 - 모니터링단 8 활동보고서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기	아동 성명	별○○
활동 주제	아동 보호권		
현황 및 실태	아동의 보호권은 지금까지 여러 정책이 세워짐에 따라 확장되어 왔지만, 실제로 사회에서 보호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아직까지도 아동폭력(또는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가 빈번히 올라오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힘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아동이 성인에 의해 폭력을 당하게 된다. 현재 제도적으로 이런 처벌이 강력하지 않아 실제로 이런 일이 더욱 빈번해 지는 것 같다.		
문제점	아동도 인간으로서 보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데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 혼자서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제안 내용	아동의 접속률이 높은 sns를 통해 손 글씨 캠페인을 진행 태그 기능을 이용하여 sns친구 5명을 태그로 다음 캠페인 대상자를 지목 손 글씨 내용은 '우리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로 통일		
제출일	2018년	8월	31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기	아동 성명	손○○
활동 주제	아동의 보호권		
현황 및 실태	최근에 아동 1인 가구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초등학생 3명 중 1명(37%) 이상이 방과 후 최소 1시간 이상 집에 혼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시간을 혼자 있는 아이가 16.8%, 2시간과 3시간 이상이 각각 10.3%, 5.6%였다. 4시간 이상 혼자 있는 경우도 4.3%였다. 방과 후 혼자 숙제하고, 놀고, 밥도 챙겨 먹어 사실상 '아동 1인 가구'가 되는 셈이다. 이는 아동의 '보호권'에 대한 침해이며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양상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등의 아동이 보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건도 매년마다 꾸준히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여태까지 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발생률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아동학대에 관한 법이 약한 것을 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들도 보호권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아 자신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 또한 문제점이다.		
제안 내용	아동의 보호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자 SNS 손글씨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SNS 성별, 나이, 국가에 불구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동 보호권에 관한 내용을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출일	2018년	8월	30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기(인천)	아동 성명	이○○
활동 주제	'보호권' (아동의 놀 권리와 보호권을 위한 캠페인 진행 및 계획 수립)		
현황 및 실태	아동이 스스로 놀 권리와 보호권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동의 책가방에 지나친 무게를 부여하는 등 학업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아동에게 부과되는 짐이 상당히 많고 그것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또한 아동학대 및 보호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낮다.		
문제점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아동 노동자에 관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대두되어 오고 있으며, 학업 부담이나 아동의 미디어 노출에 의한 정서학대가 상당하다.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피해를 받고 있다.		
제안 내용	우선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LENS 경기권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함으로써 많은 10대와 20대에게 SNS를 통한 아동권리 홍보를 하기로 하였다. 페이스북 페이지의 이름은 com CHIP인데, CHIP은 Children is Important라는 뜻이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아동권리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는 8월 활동인 손글씨 캠페인을 선정하였다. '우리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문구를 선정해 1. 사진 속 문구 '우리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를 손글씨로 작성한다. 2. 본 게시글 전문과 해시태그를 복사한다. 3. 이전에 태그된 자리에 새로운 사람 다섯 명 이상을 태그하고 손글씨 사진을 첨부하여 동일한 형식으로 게시글을 작성한다.'라는 릴레이 손글씨 캠페인 방법을 게시글에 첨부해 손글씨 캠페인을 통한 아동권리 인식의 확산을 시도하였다.		
제출일	2018년	8월	30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기	아동 성명	이○○
활동 주제	아동 보호권		
현황 및 실태	아동의 보호권은 아동학대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아동학대라는 것은 아동의 보호권(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지금까지 아동학대 상담신고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종류 중에서도 방관이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아동학대라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수많은 아동들의 인권, 보호권이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문제점	아동학대라는 사건이 이슈는 되고 있으나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 인식하게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더욱 더 아동학대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아동의 보호권을 침해하는 정당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안 내용	1. 손글씨 캠페인 #우리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손글씨 캠페인 진행 2. 페이스북 페이지와 네이버 밴드 아동의 놀 권리와 카드뉴스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해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내용을 알릴 예정		
제출일	2018년	8월	31일

경기 - 모니터링단 8 활동보고서

8월 활동보고서

구역	경기권	아동 성명	차○○
활동 주제	보호권		
현황 및 실태	<p>현재 아동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동의 보호권이 잘 지켜지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른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매년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p> <p>네이버 지식인이나 다음 톺 그리고 그 외에 소셜 미디어에서는 아동들이 자신의 부모나 선생님 그 외에도 많은 사람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받은 사례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p> <p>최근 아이들의 피해사례가 뉴스나 신문등에 나와 대중들에게 공론화되고 있어서 아동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관심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p>		
문제점	<p>아동학대에는 성학대, 신체학대, 방임, 정서적학대가 있다.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정서적 학대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p> <p>뉴스나 신문에서도 성학대, 신체학대, 방임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하곤 하지만,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이슈가 된 적이 없는 것 같다.</p> <p>사람들이 학대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p> <p>다음으로는, 최근들어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피해의 원인을 학대를 당한 아동에게 찾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라고 생각한다.</p>		
제안 내용	<p>SNS 손글씨 캠페인- "우리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p> <p>sns는 아동들이 추가 되어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다.</p> <p>요즘에는 아동들의 학부모들 사용하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가는 중이어서 sns로 캠페인을 시작한다면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짧은 시간안에도 참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p>		
제출일	2018년	08 월	30 일

8월 활동보고서

구역	경기	아동 성명	최○○
활동 주제	아동 보호권		
현황 및 실태	<p>우리 아동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아동이기에 받는 차별과 편견,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과 수난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 불과 얼마 전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네이버에 가정 폭력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가정 폭력을 당해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아동들의 고민들은 현재 한국의 아동 인권의 실태를 보여준다. 또 청소년이 접하는 대부분의 인권 관련 책에는 특별히 찾아보지 않는 이상 아동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p>		
문제점	<p>아동 학대와 폭력 그리고 어리다는 이유로 인한 차별과 편견의 원인은 관심의 차이에 있다. 인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장애인에 인권, 여성의 인권, 또는 성 소수자의 인권에 관해 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작 신체적 또는 사회적 조건이 되지 않아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동의 인권은 크게 생각해보지 않는다.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부족은 결국 편견과 차별로 이어진다.</p>		
제안 내용	<p>경기권 모니터링단은 SNS 손글씨 캠페인을 통해 아동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하는 대체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는 특정 연령대가 아닌 모두에게 아동 인권의 심각성을 인식시켜주고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p> <p>과거 노예제도가 존재하던 당시 노예들은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라는 간단하면서도 당연한 문구를 외치며 사람들에게 노예제도의 폐지를 외쳤고 이는 실제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경기권 모니터링단 또한 아동이 보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우리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간단하며 당연한 문구로 손글씨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해시태그를 통해 단순히 경기도 지역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과 영어권 지역도 캠페인에 동참하게 하여 아동 인권에 대한 시야를 전 세계적 차원으로 넓힐 것이다.</p>		
제출일	2018년	8월	25일

경남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놀 권리)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최○○																																																																		
활동 주제	놀 권리의 침해, 사교육																																																																				
현황 및 실태	<p>많은 학생들이 무한경쟁체제로 인한 사교육에 놀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놀 시간에 대한 실태조사(아래 설문조사 결과 참조)에 따르면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평일에는 놀 시간이 아예 없거나 많아 1-2시간정도이다. 주말에도 학원을 가기에 놀 시간은 적고, 학교 수행평가 준비 등으로 인해 놀기보다는 집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p> <p>심지어는 학원 운영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법률로써 제한되어 있으나, 이 시간을 지키는 학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학원 운영 시간 설문조사(아래 설문조사 결과 참조)에 따르면 많은 학생들이 학원 시간이 10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를뿐더러 대부분이 10시 이후까지 운영한다. 이는 늦게 마치는 고등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의 특성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p> <p>OECD 주요국 청소년 공부시간</p> <table border="1"> <tr> <th>국가</th> <th>시간</th> </tr> <tr> <td>한국</td> <td>7시간 50분</td> </tr> <tr> <td>핀란드</td> <td>6시간 40분</td> </tr> <tr> <td>스웨덴</td> <td>5시간 50분</td> </tr> <tr> <td>일본</td> <td>5시간 20분</td> </tr> <tr> <td>미국</td> <td>5시간 40분</td> </tr> <tr> <td>독일</td> <td>5시간 20분</td> </tr> <tr> <td>영국</td> <td>3시간 49분</td> </tr> </table> <p>자료: 보건복지부</p> <p>세계 아이들 학업 스트레스 느끼는 비율 단위: %</p> <table border="1"> <tr> <th>국가</th> <th>비율</th> </tr> <tr> <td>한국</td> <td>50.5%</td> </tr> <tr> <td>핀란드</td> <td>41.6%</td> </tr> <tr> <td>영국</td> <td>42.1%</td> </tr> <tr> <td>미국</td> <td>40.6%</td> </tr> <tr> <td>체코</td> <td>32.6%</td> </tr> <tr> <td>벨기에</td> <td>25.7%</td> </tr> <tr> <td>독일</td> <td>23.9%</td> </tr> <tr> <td>프랑스</td> <td>20.8%</td> </tr> <tr> <td>네덜란드</td> <td>16.8%</td> </tr> </table> <p>한국 학생의 행복지수</p> <table border="1"> <tr> <th>연도</th> <th>한국</th> <th>OECD 평균</th> </tr> <tr> <td>04</td> <td>80.1</td> <td>76.5</td> </tr> <tr> <td>05</td> <td>77.7</td> <td>72.1</td> </tr> <tr> <td>06</td> <td>72.1</td> <td>69.0</td> </tr> <tr> <td>07</td> <td>67.0</td> <td>67.2</td> </tr> <tr> <td>08</td> <td>62.2</td> <td>61.9</td> </tr> <tr> <td>09</td> <td>62.2</td> <td>61.9</td> </tr> <tr> <td>10</td> <td>62.2</td> <td>61.9</td> </tr> <tr> <td>11</td> <td>62.2</td> <td>61.9</td> </tr> <tr> <td>12</td> <td>62.2</td> <td>61.9</td> </tr> </table> <p>위의 자료들에 의하면 한국 학생은 다른 국가보다 더 부과되는 학업부담에 의해 행복지수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			국가	시간	한국	7시간 50분	핀란드	6시간 40분	스웨덴	5시간 50분	일본	5시간 20분	미국	5시간 40분	독일	5시간 20분	영국	3시간 49분	국가	비율	한국	50.5%	핀란드	41.6%	영국	42.1%	미국	40.6%	체코	32.6%	벨기에	25.7%	독일	23.9%	프랑스	20.8%	네덜란드	16.8%	연도	한국	OECD 평균	04	80.1	76.5	05	77.7	72.1	06	72.1	69.0	07	67.0	67.2	08	62.2	61.9	09	62.2	61.9	10	62.2	61.9	11	62.2	61.9	12	62.2	61.9
국가	시간																																																																				
한국	7시간 50분																																																																				
핀란드	6시간 40분																																																																				
스웨덴	5시간 50분																																																																				
일본	5시간 20분																																																																				
미국	5시간 40분																																																																				
독일	5시간 20분																																																																				
영국	3시간 49분																																																																				
국가	비율																																																																				
한국	50.5%																																																																				
핀란드	41.6%																																																																				
영국	42.1%																																																																				
미국	40.6%																																																																				
체코	32.6%																																																																				
벨기에	25.7%																																																																				
독일	23.9%																																																																				
프랑스	20.8%																																																																				
네덜란드	16.8%																																																																				
연도	한국	OECD 평균																																																																			
04	80.1	76.5																																																																			
05	77.7	72.1																																																																			
06	72.1	69.0																																																																			
07	67.0	67.2																																																																			
08	62.2	61.9																																																																			
09	62.2	61.9																																																																			
10	62.2	61.9																																																																			
11	62.2	61.9																																																																			
12	62.2	61.9																																																																			

현황 및 실태	<p>청소년 우울증의 원인</p> <table border="1"> <tr> <th>원인</th> <th>비율</th> </tr> <tr> <td>학업</td> <td>55.3%</td> </tr> <tr> <td>부모</td> <td>16.6%</td> </tr> <tr> <td>친로</td> <td>10.2%</td> </tr> <tr> <td>기타</td> <td>6.8%</td> </tr> <tr> <td>외우</td> <td>11.9%</td> </tr> </table> <p>또한 한국 학생의 자살률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살하는 가장 큰 원인이 학업스트레스로 조사됐다. 이처럼 사교육은 아동의 놀 권리뿐만 아니라 생존권도 위협하고 있다.</p>	원인	비율	학업	55.3%	부모	16.6%	친로	10.2%	기타	6.8%	외우	11.9%
원인	비율												
학업	55.3%												
부모	16.6%												
친로	10.2%												
기타	6.8%												
외우	11.9%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많은 학생들이 놀 시간 없음(세부내용 아래 설문조사 결과 참조) 2. 대다수가 학원 운영 시간이 10시까지로 제한되지 모름 3. 대부분의 학원은 10시 이후까지 함 4. 아동들은 학업 부담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경우도 있음. <p><설문조사 결과></p> <p>놀 시간(평일): 없다(68%) 1시간미만(23%) 1시간이상 2시간미만(9%) 그 이상(0%) 놀 시간(주말): 없다(33%) 1시간미만(28%) 1시간이상 2시간미만(27%) 그 이상(12%) 학원 운영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아는지? 안다(27%) 모른다(63%) 학원 운영 시간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그렇다(12%) 아니다(88%)</p>												
제안 내용	아동의 학업 부담을 줄여야 함. 학원 운영시간이 10시까지 인 것을 알리고 실현되도록 해야 함.												
제출일	2018년 08월 25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놀 권리의 침해, 사교육		
현황 및 실태	<p>일단 처음으로 놀권리와 사교육의 정의를 찾아보았는데 놀권리는 어학사전에서 나와있지 않았고, 사교육은 공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 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일컫는다고 위키백과에 명시되어져있었다.</p> <p>먼저 사교육의 장단점에 대하여 조사하여보았다. 사교육의 장점은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거나, 숙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더 복습을 할 수 있다 등이 있었고 단점은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피로등이 많이 쌓이거나, 학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 등이 있었다.</p>		
문제점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많은 학원들로 인한 경제적인 면도 감당하기에 학부모님들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제안 내용	사교육에 대한 법을 강화하고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시에 엄격히 처벌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교육정책을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제출일	2018년 08월 26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박○○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놀 권리의 침해, 사교육>		
현황 및 실태	<p>내가 재학 중인 상당중학교의 하교시간에 무작위로 아동(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31명)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참혹 하다. 먼저 아동의 놀 권리가 원치 않는다는 질문에는 오직 19%(6명)아동만이 알고 있다고 진술했고, 그 19%(6명)의 약 5%의 나머지 아동들(80%, 25명)은 알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했다. 그리고 놀 권리를 행사 하고 있으나, 침해당하고 있으나 에 대한 질문에는 오직 19%(6명)아동만이 행사하고 있다고 하고 나머지(80%, 25명)아동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침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아동들의 경우 그 침해요소는 과외, 학교 시험, 학업 등 학업에 관한 요소가 약 66퍼센트였고 놀 시간이 없다는 아동은 약 14퍼센트였고 주위에 놀게 없다는 사실(인프라) 부족도 약 14퍼센트였는데, 주위 친구들이 학업에 전념해 같이 놀 기회가 없어 놀지 못했다는 아동도 1명이 있었다.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충격적인 결과를 도출한 조사는 이 뿐만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독서 실태조사(2011, 2013, 2015)를 보면 아동의 전체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193.3분으로 하루 전체시간 24시간에 비교하면 약 1/8이나 차이가 난다. 특히 2011년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된 5일 수업제 이후 아동의 평균 여가시간은 크게 변함 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아동의 청소년단체, 사이버 단체, 동아리 등을 조사한 여성 가족부 청소년실태조사(2011, 2014)를 보면 어느 항목에서도 50%이상의 가입률을 볼 수 없고, 최고로 높은 가입률은 2011년도의 37%의 사이버단체/동아리 가입률인데 이 또한 2014년 재조사에서 21.4%로 급락했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입률이 조금씩 감소된다(청소년 단체/시설의 가입률 약 10.6%감소, 기타 1.7%감소).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 활동조사(2012, 2014)는 15세부터 19세까지 조사가 되었는데, 2012년 여가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54.4%이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45.6%이다. 그런데 2014년 재조사 결과를 보면 여가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이는 44.7%로 하락했고,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는 55.3%로 이 또한 하락했다.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은 이유로 여가활동에 참가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조사가 되었다. 아동의 여가 생활 이라하면 사람들은 쉽게 독서나 공연, 여행 같은 문화 여가생활을 생각할텐데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도 평균 독서량과 공연 관람률, 여행 경험률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평균 독서량은 연령이 낮은 초등학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던 중학생은 2013년 7.6편 증가하다가 2015년 2.6편 감소하였다. 고등학생 또한 독서량이 감소하고 있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꾸준히 증가해는 초등학생 경우, 학교에서 독서관련 프로그램 때문이다. 그리고 점점 감소하는</p>		

경남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놀 권리)

문제점	높은 연령의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임시위주의 학업이 독서를 어렵게 한다고 한다. 이 모든 것 또한 독서 실태조사에 반영된 사실이다. 평균 여행률은 매우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모와 함께하는 여가생활이라 정확하지 않다고 한다. 이것은 점점 하락 하고 있는 공영 관람을 또한 적용된다.
현황 및 실태	문제점은 정말 하나밖에 설명을 못한다. 아동 대다수가 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 민주주의 인권국가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아동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지 정말 안타깝다. 공장의 생산 기계들, 데이터센터에 있는 서버,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등의 사할도 아닌 것들도 쉬지 않고 일하면 결국엔 나중에 화를 크게 불러온다. 대한민국의 여가를 누리지 못하는 아동의 미래도 나중에 화를 크게 불러올 것 같다.
제안 내용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관한 민간보고서에서는 임시위주의 교육제도와 사교육으로 인한 아동들의 시간부족과 원인을 크게 다루는데, 한국정부는 사교육을 도마 위에 올려야 한다. 그리고 위의 현재 실태에서도 많이 언급한 것들도 대부분 임시위주의 교육 등의 교육에 관한 문제들로 보여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정부는 아동들이 놀이와 휴식, 여가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가시간을 확보해주고 임시위주의 학업중심과 경쟁상황에 적혀 있는 아동들 구출해줘야 한다. 또한 아동이 하루에 가장 많이 채유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임시위주의 교육이 아닌 자기역량 중심교육, 즉 혁신 교육과정 운영으로 아동의 놀이와 휴식, 여가와 문화생활 권리를 보장받게 해주어야 한다.
제출일	2018년 08 월 26 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류○○
활동 주제	1. 놀 권리의 적폐, 사교육		
현황 및 실태	1. 놀 권리의 적폐, 사교육 필자는 현재 기숙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학교에서 차로 20분 가량 걸리는 변화가에는 기숙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외출해 밤늦게까지 수업듣고 기숙사로 귀사하게 하는 학원들이 즐비하다. 같은 학교 친구 1명을 인터뷰한 결과, '학원이 늦게 끝나 귀사 시간인 11시 30분을 맞추지 못해 혼난 적도 있다'고 했다. 이것은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는 사교육이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중학생 1명, 고등학교 2학년생 1명 추가 인터뷰 예정) 또한 자료조사 결과, 시트지나 커튼 등을 이용해 학원 내부를 가려놓고 12시가 넘도록 고습하는 학원들이 비일비재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143356)		
문제점	1. 놀 권리의 적폐, 사교육 과도한 학원 고습 시간 : 아동이 여가와 휴식을 취할 시간의 고갈 학원 고습 시간 제한 조래 : 형식적으로 시행됨. 적발되지 않는 경우 다수		
제안 내용	밤늦은 시간의 학원 고습 시간 제한을 확실해 단속할 방안 마련 아동의 여가 시간 증축을 위해 과도한 사교육을 제한하는 정책 마련		
제출일	2018년 8월 26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놀 권리의 적폐, 사교육		
현황 및 실태	<p>1. 현재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 아동 청소년의 놀 권리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6조에 연결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 제 6절 제 16조에 따르면, 어린이 청소년은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지나친 경쟁에 내몰리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학원에 다닐 것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한 제 17조에는 어린이 청소년은 놀이 여가 및 휴식을 즐기며 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고, 지나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의 권 리별 보장을 위해 학원의 휴일 및 심야 고습시간은 제한되어야 하고 이에 관해서는 별도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p> <p>2.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놀 권리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사교육을 지목하고 이에 대한 근본 원인과 대책 진척 불명등 원인 제거를 위한 공공육 개선 노력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놀이 프로그램 확대 등에만 집중하여 UN 권고를 제대로 개선하지 않았다. [출처-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통계 http://data.nowory.kr/175]</p>		

문제점	<p>1.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친 교육열이 아동 청소년의 행복을 빼앗간다는 점이다. 좌측 자료를 보면 42.7%의 아동 청소년이 좋아하는 일을 실패 할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답했고, 27.1%의 아동 청소년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때 가장 행복하다고 답했다. 반면 우측 자료를 보면, 44.1%의 아동 청소년이 성적 압박이 심할 때, 학습 부담이 너무 클 때를 가장 행복하지 않은 때로 꼽았다.</p>
-----	--

현황 및 실태	<p>2. 영유아 조기 영어 교육의 문제점도 있다.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고등학생 학부모는 자녀가 초등 3학년일 때에 영어 교육을 시작했다는 답이 가장 많았고, 중학생 학부모는 초등 1학년, 초등학생 학부모는 만 5세, 그리고 유치원생 학부모는 만 3세에 영어 교육을 시작했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즉, 학년이 내려갈수록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도 점차 빨라지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며, 조기교육의 신화로 인한 교과 선행, 과도한 외국어 교육이 영유아의 자유놀이시간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p>
---------	--

문제점	<p>3. 사교육의 결정 주체는 아동 청소년이 아니라 '부모'임이 드러나는 통계자료이다. 아동 청소년에게는 놀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놀이에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이사표현의 자유' 또한 사교육으로 인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위의 자료를 통해 사교육에 참여하는 의지는 본인의 의사보다 부모의 의지를 반영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p> <p>4. 대부분의 사교육이 이루어지는 학원의 심야영업에서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아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심야영업 시간은 지역 별로 22시부터 24시 까지 자율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p>
-----	---

경남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놀이 권리)

8월 활동보고서

지역	11시 이후 종료 비율(%)	심야영업제한 시간
서울	8.8	10시
부산	32	11시
대구	11.2	10시
인천	30.8	11시
광주	14.7	10시
대전	40.5	12시
울산	39.9	12시
경기	6.2	10시
강원	36.3	12시
충북	33.6	12시
충남	26.5	12시
전북	14.1	11시
전남	37.1	11시50분
경북	44.8	12시
경남	33.7	12시
제주	12.3	12시
세종	13.2	10시
평균	25.62	

대상	항목	비율
초등학생	밤 9시 (65.3%)	10.7%
	밤 10시 (11.6%)	
중학생	밤 9시 (23.5%)	11.2%
	밤 10시 (26.0%)	
고등학생	밤 9시 (11.8%)	22.8%
	밤 10시 (46.7%)	

■ 학원휴일유무제 찬반 여론조사 2017, 3 (비중조사 기준: KSO, 100명당 1명) 찬성 67%, 반대 33%
 ■ 심야영업 시간 규제 관련 여론조사 2017, 3 (비중조사 기준: 세시리서치) 밤 10시 미만 85.4% ▶ ▶ 31.6%

추가적으로 위 두 자료에서는 심야영업 시간 규제의 강화에 관하여 찬성여론이 훨씬 더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출처-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안 내용 위 자료는 현재 학원심야영업조례가 실제로 학생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학원심야영업을 제한하

면 개인과외로의 통선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조사 결과는 전체적인 심야 사교육의 감소 현상으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심야영업 규제에 관련하여 제한시간을 조금 더 앞당기자는 여론의 목소리가 더 크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전 지역의 심야영업제한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어떨까 제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제출일 2018년 8월 26일

권역	경남권	아동 성명	희〇〇
활동 주제	놀이 권리의 적폐, 사교육		
현황 및 실태	<p>여름 방학 기간 동안 사교육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인터넷의 도움을 빌려 조사를 해봤다.</p> <p>조사 결과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학생들의 공부 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긴 편이었다. 주당 60시간 이상 공부(학교 안외)한다고 답한 학생들이 23.2%로, OECD 평균(13.3%)의 두 배 가까이였다. 한국은 학교 정규수업 시간 외 수학·과학 추가 수업(사교육과 방과 후 수업)을 받기 시작한 시기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9세였다. OECD 평균은 11세, 가장 느린 아이슬란드는 13세였다. 추가 수업을 '좋아서 받는다'는 한국 학생은 9.7%에 불과했고, '성적 올리려고 받는다'는 경우는 52.2%였다.</p> <p>우리나라 학생들은 최고가 되고 싶다는 성취동기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나 '내 방에서 최고의 학생이 되고 싶다'는 학생이 80% 이상으로, OECD 평균(59%, 65%)보다 크게 높았다. 동시에 학교 공부를 하면서 건강하고 걱정하는 비율도 다른 국가보다 높았다. '학교에서 나온 성적을 받을 것이 걱정된다'는 학생이 75%(OECD 평균 66%)에 달했다.</p> <p>이처럼 부모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관심이 최고 오직 학생들의 성적표를 궁금해 한다. 학생들이 사교육을 포기 못하는 것 중 '한국 청소년들은 공부에 열심히 하고 갈수록 부모나 선생님에게 관심과 칭찬을 받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삶의 만족도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다' 이라는 말도 있다. 뒷사람으로부터 관심과 칭찬을 받기 위해 놀 시간을 쪼개거나 방과 후에도 사교육을 받는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p>		
	<p>OECD 국가별 학생들의 주당 평균 학습 시간 (시간)</p>		
	<p>학원 수업 시간대별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p>		
	<p>또한, 방과 후 평균 2시간도 놀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이 절반에 이른다. 놀이</p>		

시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수준이다.

이 그래프는 머니투데이가 초등학생 4~6학년 100명(4개 초등학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학교가 끝난 뒤 '2시간'은 '다'고 답한 학생들은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겨우 '1시간'(16%) 놀거나 1시간도 채 놀지 못한다(7%)고 답한 학생도 23명에 달했다. 2시간 넘게 놀지 못하는 학생이 거의 절반에 가깝다.

'3시간' 혹은 '4시간' 한다고 답한 학생은 각각 19명, 17명이었다. 5시간 이상 충분히 한다고 답한 아이들은 20명에 불과했다.

서울 은빛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은빛골목놀이터'를 만들어 매주 화요일 학생들이 방과 후 2시간 동안 놀도록 돕는다. 매해 1학기 초 1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놀이터에 가겠다고 신청하지만 2학기가 되면 절반으로 떨어진다. 실제 놀이터를 찾는 학생은 하루에 많으면 20~30명, 평균 10여명이다.

학생들의 방과 후 시간은 거의 학업 및 공부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학생 10명 중 7명은 노는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1~2시간만이라도 더 놀고 싶다고 답한 비율이 68%를 차지했다.

학교에 중간놀이시간이 생긴 뒤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답한 학생은 62%.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졌다'는 답변도 62%를 차지했다. 학생 10명 중 6명은 '중간놀이 시간 때문에 학교생활이 즐거워졌다'고 답했다.

이처럼 잠시라도 놀 시간이 학생들에게 주어진다면 학생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남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놀 권리)

8월 활동보고서

문제점	1. 많은 학생들이 부모와 선생님으로부터 관심과 칭찬을 받기 위해 여가 시간을 쪼개가며 사교육을 받는다. 2.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나쁜 성적을 받게 될까 봐 걱정을 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제안 내용	사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지역별로 더 늘추었으면 하고, 사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실태 및 현황을 전국적으로 알았으면 한다. 또한, 한 학생 당 사교육 수를 제한하였으면 하고 공교육에 더 비중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제출일	2018년 8월 26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권	아동 성명	류○○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놀 권리의 적폐, 사교육>		
현황 및 실태	<p>과도한 사교육으로 일어난 사례, 문제점을 조사했다. 과도한 사교육의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다는 알았다. 그리고 학원 스트레스 징후도 알아봤는데 갑자기 학원을 가지 않겠다고 한다. /학원에 가려면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라고 한다. / 잠을 못자고 피곤해한다. 등이 있었는데 이중 두 개 정도가 나에게 해당하는 것 같았다. 나도 학원만 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배가 아프기도 하고 머리가 아픈것 같이 느껴진다.</p> <p>또한 과도한 사교육은 성적이 높아지면 자존감을 낮추고,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다양한 사회적, 정서적 문제행동이 커질 수가 있다는 뉴스 기사를 봤다. 다음 카페글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6월에 제주도 놀러갔을때 호텔 초식을 먹고 있었는데 물 테이블이 가득 있었다. 아들이 초등학교1-3학년으로 보이는데 아빠가 아들에게 '영어대회에서 꼭 1등 해야해'라는 내용의 압박을 주기 시작하고 조금 지나자 아들이 신발을 신고 의자 위에 올라가고 냉장고 문을 딸로 차고, 핸드폰 영상을 주위에 둘러싸 크게 틀어놓는 등 난리도 아니어서 글쓴이는 '애들 영어교육은 신경 쓰면서 기본예절을 그따위인데 아무런 체제도 안하고 밥만 먹고 영어 조기교육 하는것은 상관 없는데 더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지 말자.'라고 적혀져 있었다. 글쓴이의 생각이 공감되었다.</p>		
문제점	학원 마감 시간이 22시인데 안키쳐지고있는 학원이 많아서 아쉽다.		
제안 내용	학원 운영 시간을 22시로 법을 강하게 바꾸면 좋겠다.		
제출일	2018년 8월 26일		

권역	경남	아동 성명	박○○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놀 권리의 적폐, 사교육>		
현황 및 실태	<p>2014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 수업 시간은 5시간 27분이다. 청소년 권장수면 시간인 8시간에 비해 약 2시간 30분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들 대부분은 '침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학업을 이유로 수면을 취하지 않았다.</p> <p>내 주위 친구들도 소위 말하는 주위과육이 아닌 시간에는 잠을 자기도 한다. 이는 '좋은 대학교를 가야지 좋은 직장을 얻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며 살아가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인서울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자료로는 2016년 10월 기준 '고위공무원단' 1411명 중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은 780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다.</p> <p>한국 학생의 행복도를 나타내는 살 만족도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 '골짜기'와 다름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 욕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측은 한국과 중국, 일본 학생들이 독해와 수학에서 높은 성적을 받았지만 삶에는 덜 만족하고 있다고 '뛰어난 학습결과'는 좋은 삶의 만족을 희생하면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17)</p> <p>'[김연주의 일상 특목] 曠 자살을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전반적으로 줄어든다고 있지만, 1020대 청소년의 자살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살 원인으로 10대는 학교 성적 및 진학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보다 3배 높고, 멕시코 국민 전체 자살률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자살이 10년째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개선이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이는 학생 학업 성취 욕구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생들 대부분은 공도 정하지 못하고 그냥 모두 허니깐 어쩔 수 없이 하다가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이 실망하는 경우도 대다수이다.</p> <p>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업시간은 OECD회원국 중 최상위권이다. (2017) OECD 국가의 만 15세(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 3년마다 학업성취도 측정을 하고 있는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조사를 보면, 한국 청소년의 주당 학습시간은 49.4시간으로 다른 국가 학생들에 비해 활동이 긴 '장시간 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교 밖에서 사교육을 받는데 사</p>		
문제점	유한 시간은 4.7시간으로, 이 역시 조사대상 국가들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학생들의 평균 주당 사교육시간은 1.1시간이었다.		
문제점	학생들 대부분이 학업에 시달려 '놀 권리'를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치열한 교육 제도, 경쟁 구도의 입시제도를 이유로 학생들의 삶 만족도가 매우 낮다와 자살까지 이어지며 큰 문제점으로 이어진다.		
제안 내용	사교육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 해야한다. 또한 학교는 입시제도를 위해서 공부하는 공부보다는 자기역량 중심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여가와 휴식시간을 주어야한다. 또한 심야 과외 및 학원 운영을 금지하여 학생들에게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한다. 또 정부는 출산을 감소에 대해서만 힘을 쓰고 있지만 학생들의 자살을 감소해도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제출일	2018년 8월 26일		

경남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놀 권리)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이○○
활동 주제	놀 권리의 침해, 사교육		
현황 및 실태	<p>1. 사교육의 정의 및 통계자료 알아보기</p> <p>먼저 사교육이란?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사교육이란 용어가 우리나라 현대 교육사에 최초로 나타난 것은 1962년이다. 그 후 과외, 학습지, 보습 및 예체능 관련 입시학원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사교육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공교육에 대비되는 개념이며, 공교육과 구별되는 사회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일컫는다. 통계자료에 나타나는 수치들은 사교육 문제를 직접 드러냈다. 무려 우리나라의 총 사교육비 비용은 18조 6,233억 원에 도달하였으며, 2009년 최고점에 도달하였고 그 뒤로 하락하다가 2016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인다. 학생 1인당 사교육 비용은 2017년 기준 27만 1천 원으로, 그래프를 통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여러 통계자료 중 초중고별 사교육 참여율을 나타낸 자료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다. 바로 82.3%로 초등학생의 사교육 비중이 가장 높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미 한국의 교육열은, 수많은 아동은 사교육에 지쳐 우리의 놀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며, 점점 사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p> <p>2. 사교육 관련 기사 찾아보기</p>		

문제점	<p>먼저 사교육에 관련한 기사를 찾아보았다. 사교육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점, 원인 또는 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었는데 그 외에도 수많은 기사에 사교육의 적폐에 관한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먼저 첫 기사는 사교육의 연간 비용과 정부 또는 교육청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방안을 제시한 기사였다. 두 번째 기사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만들기 위해 교육 시민단체의 시위 및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을 접했다.</p> <p>[실제 기사 내용 일부본 스크랩]</p> <p>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한국의 사교육 시장의 규모는 18조 6000억 원으로 집계 된다.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0%이상, 초중고 학생의 평균 사교육비는 연당 38만 원, 사교육을 듣는 고등학생의 평균 사교육비는 50만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 정부는 2017년 사교육을 줄이고자 성적 의존도가 높은 정시 전형 대신 개인의 인성과학교 교육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시 전형 확대 정책을 도입했지만, 오히려 사교육 업체들은 자기소개서, 면접, 적성 시험 등을 전문적으로 지도해주는 사교육을 강화하면서 자신들의 상권을 확장했다.</p> <p>사교육이 계속 성장함으로써, 현재 지역 내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인터넷 무료강좌를 개설해주는 공약을 내세우거나,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통제하는 제도를 발의하거나, 각 지자체와 교육청을 통해 자기 주도 학습 센터가 설립되는 등 사교육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p> <p>(출처:해모필리아 라이브 정수라 기자님 기사)</p> <p>연구자가 제시한 원인은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다.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전한 상황에서 공급을 규제하니 자연스럽게 사교육으로 수요가 옮겨간다는 뜻이다. 더구나 고소득층일수록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며, 공교육서비스가 감소한 만큼 사교육 투자를 늘릴 여유도 있다. 박윤수 연구위원은 '좋은 의도로 추진된 정책이라도 학부모의 수요와 불일치하면 그 피해는 사교육 접근성이 낮은 학생들에게 집중된다.'며 정책실수에 주의를 당부했다.</p> <p>(출처:시사위크 현우진 기자님 기사)</p>
제안 내용	<p>1) 사교육 증가로 인해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받고, 성적에 의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p> <p>2) 사교육으로 인하여 빈부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p>
제출일	2018년 8월 26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한○○
활동 주제	놀 권리의 침해, 사교육		
현황 및 실태	<p>사교육이란 국가가 관리하는 교육인 공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요즘 학생들의 70%는 사교육을 받으며 30%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공교육뿐만 아닌 사교육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p>		
문제점	<p>사교육은 자신이 공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공교육이 주가 아닌 사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주객전도인 셈이다.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과한 시간과 돈도 투자된다는 문제도 있다. 공교육은 중등교육까지는 무상으로 실시되는데 반해 사교육은 엄청난 돈을 필요로 한다. 이런 과한 사교육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교육인 것이다. 늦게까지 오랫동안 수업을 하면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 편의점에서 저녁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들의 건강문제도 염려가 된다.</p>		
제안 내용	<p>사교육의 적정시간 10시 이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교육을 과도하게 많이 하여 청소년들의 놀 권리를 침해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p>		
제출일	2018년 8 월 26 일		

경남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놀 권리)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번호
활동 주제	놀 권리의 적폐, 사교육		
현황 및 실태	<p>1. '평소에 사교육 (학원, 학습지 등) 때문에 친구들 또는 가족들과 놀지 못하였던 적이 얼마나 빈번히 있었나?'라는 질문에 40%의 학생들이 가끔 놀지 못한다며, 30%의 학생들은 자주 놀지 못한다며, 15%의 학생들은 항상 놀지 못한다고 응답을 해주었다. 그 외의 15%의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해주었다. 이 질문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 때문에 놀지 못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p> <p>2. '헌 법 제 16조 2항에 따르면 경기도의 학원 운영 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 되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라는 질문에 44%의 학생들은 '네'라고 응답했고, 또 44%의 학생들은 '아니오'라고 응답했다. 그 외 12%의 학생들은 '들어본 것 같지만 자세한 모른다.'라고 답해주었다. 이 질문의 응답에 나는 '이런 법을 정작 학생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이러한 헌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대부분의 학원 운영시간이 22시가 넘는다는 사실은 헌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만 티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p> <p>3. '부모님께서 사교육을 그만두어도 된다고 하시면 그만두실 겁니까?'라는 질문에 53%의 학생들은 '아니오'에 응답하였고, 45%의 학생들은 '네'에 응답해주었다. 그 외 2%는 잘모르겠다고 답하였다. 그런 후 '네'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왜 '네'를 선택했는지 이유를 물어보니 '네'를 선택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급증하고 있다.' 라던가 '너무 힘들다'라고 답해주었다. 또한 '아니오'를 선택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뒤쳐질까봐'와 '공부를 해야 미래가 보장되니까' 등등 사교육을 그만두면 '불안하다'는 마음을 밝혀주었다.</p>		
문제점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미래가 불확실해지는 현실. 사교육에 관해 확실히 실행되고 있는 법이 없다.		
제안 내용	사교육에 관하여 법을 어설피게 만들고 지켜지지 않을 바에는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은 범위 안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출일	2018년	8월	26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번호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놀 권리의 적폐, 사교육>		
현황 및 실태	<p>현재 초중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불만은 증가하지만 사교육 참여율은 감소하기는커녕 2.7%p 증가했다.(통계자료제공:통계청) 사교육과 아동의 놀권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7명의 아동 청소년들이 참가하였고, 13명의 성인(학부모,일반인,선생님포함)도 참가하였다.</p> <p>사교육을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70%였다. 사교육을 1주일에 이용하는 시간은 10시간이 5명으로 많은 수가 응답했고, 심한 경우 35~40시간씩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었다. 학생들이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는 학교성적이 낮게 나와서 이용한다는 것에 50%가 응답하였다.</p> <p>사교육의 문제점은 학생들의 스트레스라고 59.4%가 응답하였다. 사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은 많았다. 그래서 사교육을 학교공부 말고 다른 것을 더 배우고 싶어서 이용하는 사람은 15%로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의 2위를 차지하였다.</p> <p>학부모님들 중 나의 자식이 좋은 경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학교수업을 듣고 나머지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현실적으로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좋은 내신성적, 수능성적을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아이들 따라 사교육을 보낸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은 많았다. 그래서 사교육을 학교공부 말고 다른 것을 더 배우고 싶어서 이용하는 사람은 15%로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의 2위를 차지하였다</p>		
문제점	<p>학생들이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는 학교성적이 낮게 나와서 이용한다는 것에 50%가 응답하였다.</p> <p>사교육의 문제점은 학생들의 스트레스라고 59.4%가 응답하였다. 초등학교의 학부모님과의 인터뷰 중 사교육의 문제점은 사교육의 과열 양상이라고 하였고, 그 과열 양상의 원인은 학교와 학부라고 생각하였다.</p> <p>중학생의 학부모님과의 인터뷰 중 사교육의 장점은 집에서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조금 위안이 된다고 하겠지만, 단점은 경제적으로 밀이 든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바뀌는 입시 정보에 없는 사람은 아이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것 같다고 하였고, 그것에 대해 입시에 대한 자세한 자료도 만들어 달라는 부모님도 계셨다.</p>		
제안 내용	<p>인문계 고등학생 1학년이 '학생들이 사교육이 필수라는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다. 물론 대한민국 현실이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만한 성적이 안나온다고들 말하지만 스스로가 노력해서 자신만의 스타디움들을 꾸준히 세워 철저하게 지켜나간다면 충분히 밀더라도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다.</p> <p>또 다른 학생은 '사교육은 좋은 것이지만 현재의 공교육 때문에 사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다. 따라서 사교육으로 인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바로 잡히고 사교육은 학생들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p>		
제안 내용	<p>나의 아이들한테 맞춰 가야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따라 하지 말고, 아이들의 재능을 키워 주고 싶다.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p> <p>주변 의식 하지 말고 나의 자녀의 의사와 필요 수준 정도에 맞게 잘 설계해주는 부모가 되자.</p> <p>사교육보다는 학교에서의 보충 수업 위주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공교육부터 바로잡힌 후 사교육은 철저한 선택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학생들도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자기주도학습을 택하여 학원을 다니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 방법을 길러봅시다.</p> <p>지금 충분히 잘 하고 있으니까 차근차근 목표를 세우며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면서 세워서 조금씩게 남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자 라고 말하고 싶다.</p> <p>정부가까지 무리더라도 학교에선 학생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소재로 수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선생님들의 수업이 지루하다, 재미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도, 배우는 학생도 흥미를 느낄만한 소재가 있다면 더 좋은 학습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한다.</p>		
제출일	2018년	8월	26일

경남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놀 권리)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놀 권리의 침해, 사교육		
현황 및 실태	<p>1. '평소에 사교육 (학원, 학습지 등) 때문에 친구들 또는 가족들과 놀지 못하였던 적이 얼마나 빈번히 있나?'라는 질문에 40%의 학생들이 가끔 놀지 못한다며, 30%의 학생들은 자주 놀지 못한다며, 15%의 학생들은 항상 놀지 못한다고 응답 해주었습니다. 그 외의 15%의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해주었습니다. 이 질문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 때문에 놀지 못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p> <p>2. '헌 법 제 16조 2항에 따르면 경기도의 학원 운영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 되어있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라는 질문에 44%의 학생들은 '네'라고 응답했고, 또 44%의 학생들은 '아니요'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외 12%의 학생들은 '들어본 것 같지만 자세히는 모른다'라고 답해주었습니다. 이 질문의 응답에 나는 '이 현상을 정작 학생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대부분의 학원 운영시간이 22시가 넘는다는 사실은 현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걸으란 티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3. '부모님께서 사교육을 그만두어도 된다고 하시면 그만두실 건가요?'라는 질문에 53%의 학생들은 '아니오'에 응답하였고, 45%의 학생들은 '네'에 응답해주었다. 그 외 2%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런 후 '네'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왜 '네'를 선택했는지 이유를 물어보니 '네'를 선택한 대부분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급증하고 있다.' 라던가 '너무 힘들다'라고 답해주었습니다. 또한 '아니오'를 선택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뒤처질까봐'와 '공부를 해야 미래가 보장되니까' 등등 사교육을 그만두면 '불안하다.'는 마음을 밝혀주었습니다.</p>		
문제점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미래가 불확실해지는 현실. 사교육에 관해 확실히 실행되고 있는 법이 없습니다.		
제안 내용	사교육에 관하여 법을 엄격하게 만들고 지켜지지 않을 바에는, 지켜질 수 있을 것같은 범위 안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교육보다 공교육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출일	2018년	8월	26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심○○
활동 주제	사교육		
현황 및 실태	<p>국가통계포털 KOSIS 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청소년 사교육 참여율은 70.5%라고 발표했다. 이는 10명중 7명 꼴의 수치로 적지 않은 과반수의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7만1천원으로 적지 않은 돈으로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또, 가구 소득 수준별 학생 사교육을 조사해 보았을 때 높은 소득의 가구에서의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높은 소득일수록 성적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더욱더 사교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며 매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청소년들의 놀 권리는 더욱 더 지켜지지 못했다. OECD 국가중 청소년 자살률 1위 국가는 바로 한국이었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유와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성적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성적을 위해 많은 아이들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사교육을 받고 그로 인해 놀권리를 존중받지 못하여 학업 스트레스와 성적압박으로 최악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는 실태이다.</p>		
문제점	<p>1. 많은 아이들이 성적을 위해 큰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사교육을 받음 2. 사교육 학업 스트레스와 성적압박으로 학생들은 최악의 선택인 자살하는 경우도 대다수였기에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까지 이르게 함</p>		
제안 내용	사교육에 사용되는 비용을 적정선으로 제한하고 학원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것과 여러 사교육에 관련한 법률을 위반했을 시에 벌을 더 강화함 학생들에게 더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고 참여하기 좋 프로그램들로 자살 예방 교육을 재구성함		
제출일	2018년	09월	08일

경남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인권조례)

8월 활동보고서

구역	경남	아동 성명	최○○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현재 경기, 광주, 서울,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학생인권조례가 없다. 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도 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인권은 여전히 침해되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이후 학생제벌...매일 50대) 기사 참고) 그러나 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은 앞의 지역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침해가 되고 있다. 우선 경기지역 같은 경우는 9시 등교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그 외 지역의 학생들은 여전히 이른 시간에 일어나 등교를 해야 한다.</p> <p>인권조례 내용 중에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에서 제벌은 금지된다.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서 자기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자제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p>라고 되어있으나 이를 무시하는 학교는 많고 심지어 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은 여전히 보충수업 등이 강제로 시행된다.</p> <p>실존조사에 의하면 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의 학생들 중 인권조례를 아는 학생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이들에게 인권조례의 조항 제시 후 필요성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대부분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제시된 인권조례 내용 중 침해경험을 묻는 조사 결과에서는 모은 학생이 인권조례에 어긋난 대우를 받으며 침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 <p>모든 설문조사 결과</p> <p>인권조례를 아는가? 인다(38%) 모른다(62%)</p> <p>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93%) 아니다(7%)</p> <p>인권조례에 열거된 권리 중 침해당한 것이 있는가? 그렇다(100%) 아니다(0%)</p> <p>침해여부(복수응답): 체벌(72%) 강제 보충 혹은 지습(92%) 휴대전화금지(88%) 용모(두발, 복장 등 간섭)(76%) 차별(26%) 소지품검사(68%)</p>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조례 시행 지역 부족함. 2. 인권조례 홍보 부족함. 3. 시행중인 지역도 인권침해 발생함. 3. 시행하지 않는 지역은 더 심하게 발생함. 		
제안 내용	인권조례를 위반할 시 해당 학교 혹은 교사에 강한 처벌을 내리야 함. 인권조례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더 많은 지역에 인권조례가 생기도록 해야 함.		
제출일	2018년 08월	25일	

8월 활동보고서

구역	경남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구글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41명이 응답해주었다.</p> <p>먼저 인권조례에 대하여 들어본적이 있으니까? 라는 질문에서 네는 80% 아니오는 20%가 나왔고, 인권조례에 대한 정의와 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라는 질문에서 네는 92.7%가 나왔고 아니오는 7.3%가 나왔다. 또한 마지막 문제에서는 인권조례 제 12조, 13조에서 복장, 두발, 휴대전화 소지 허용에 대해 동의하니까? 라는 질문에 네가 85.4%가 나왔고 아니오는 14.6%가 나왔다. 인권조례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비교적 많았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p>		
문제점	2012년 4월 현재 전국 16개 시, 도 가운데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 전북 등 4개 지역에서만 공포되었다.		
제안 내용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찾아보면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시급하게 학생인권조례를 진성하는 것이 아닌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들을 파악하여 인권조례를 시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출일	2018년 08월	26일	

8월 활동보고서

구역	경남	아동 성명	박○○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학생인권조례> 왜 많이 없나?		
현황 및 실태	<p>먼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생이 하루에서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하는 조례이다. 제일 첫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경기도인데, 2009년 경기도 교육감으로 출마하고 당선된 김상곤은 공약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시했고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당시 위원장 박노현)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고 학생참여기회의단의 의견을 수렴 및 검토 한 후 경기도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2010년 9월 16일,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렇게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 광주광역시에서 2012년 1월 1일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이 되었다. 몇 달 후인 2012년 1월 26일에는 서울특별시에서 공포가 되었다. 그리고 현존하는 학생인권조례의 마지막 공포 지자체는 전라북도도 2013년 7월 12일 공포되었고 그 다음은 잠정이다.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자체는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는데 이 중 경상북도의 포항시의 경우 관련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학생들 또한 말만 계속하고 있고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이때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면 교칙이나 법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교육감이 학생의 권리를 명시한 교육 권리헌장을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헌정일뿐이 아니라 헌법 보장과 효력이 없다고 한다. 경기도는 제정돼 학생 참여 기약단이 참여하여 지원 및 검토를 같이 해왔지만, 대구시의 경우 3일 만에 공청회를 열고 급조했다. 여기에는 학생은 선생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당연히 학생들은 이 조항에 대해 극히 반발을 한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학생인권조례를 2016년 1월부터 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보수단체들의 방해급인 반발을 토해내 3월달로 발의를 연기하다가 2016년 4월 25일날에 공청회가 무려 파행되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계속 의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진보교육감인 이영선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고 난 후 관련된 움직임을 아자 자율화 등으로 볼 수 있다. 경상남도도 원래는 전일 교육감이 워낙 보수라 아예 의회에서 발의할 의도도 내지 못했는데, 2014년에 박종문 진보교육감 후보가 당선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석준 진보교육감 후보가 당선됐지만, 정말 최한후계 진보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포기급에 달한다. 그 이유는 2015년 5월 22일에 이미 김석준 교육감이 부산학생 인권교육 기본계획안을 선보였고 학생인권조례의 첫 실험을</p>		
문제점	<p>따. 하지만 부산의 여러 종교단체, 보수단체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삼으며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반대하고 2016년 6월 17일에 결국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시민연합"이라는 단체까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김석준 교육감이 재당선도 연임에 성공하며 확률은 조금 더 올라갔다. 전라남도의 경우, 2012년 제정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지금 2018년에 해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강원도와 제주특별자치지는 도의회에서 진보정당의 소속의원들이 과반수로 임지를 넓혔고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p>		
제안 내용	<p>정말 학생인권조례는 지금까지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겪어온 학생에 대한 무자비한 인권침해를 막아보겠다는 의지에서 실행을 하겠다는 건데 관련 사례와 경험을 겪어보지도 못한 종교단체도, 보수단체가 반대한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사실 국민의 기본권을 적시한 헌법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왜 헌법은 대한민국 전체 단위로 제정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지자체 단위로 제정되는 것일까? 이것이 참 문제이다.</p> <p>사실 지자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먼저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이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지금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포함하여 완성한 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곧 찾아온 회기 만료로 무의미 돼버렸고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 등이 또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2006년 제17대 국회의 법안을 수정한 청소년인권법률 제발의 했으나 논의의 심의 결과 일기만료로 폐기되는 일이 벌어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문화가 또다시 확산되는 요즘,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금의 지자체들이 제정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범위로 하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했으면 한다. 또한, 종교단체와 보수단체들이 방해급의 반발을 해도 학생의 인권을 헌법에 의거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이유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포기할 수 없게 했으면 좋겠다.</p>		
제출일	2018년 08월	26일	

경남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인권조례)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이다. 경기도에서 2010년 제정되어 경기도 교육청이 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2013년에는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전북 교육청이 공포하였다.</p> <p>[출처:위키백과]</p> <p>현재 경상남도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없으며, 박종훈 경남 교육감은 학생 성장의 출발은 학생인권조례라며, 며칠 전 8월 24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기도 했다. 이 '특강'은 지난해 11월 박 교육감이 인권 진화적 학교문화를 만들겠다고 추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강연이라고 한다.</p> <p>[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586&aid=000002867]</p> <p>지난해 11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내년(지나해 기준)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관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경남교총)가 반대를 한 바 있다. 경남교총에서 제시한 반대 이유는 이리하다. "인권은 최상위 법인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통해서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박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운운하는 것은 헌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이다. 학생인권 보장이 목적이 아닌 헌법 규정을 적용하면 실현되는데도 마치 조례가 없어서 학생인권 침해가 심각하거나,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인권이 보장된다는 식의 시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p> <p>[출처: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1114.22010005632]</p>		
문제점	<p>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인권조례의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측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였을 때, 모른다는 답변이 59.4%나 차지하였다. 서울특별시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아주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내 친구들에게 인권조례를 아는가 질문하였을 때 100%의 친구들이 모른다고 답했다. (나도 역시 이</p>		
활동 내용	<p>활동을 하기 전에는 인권조례가 무엇인지 몰랐다. 물어본 적도 없었다.) 아동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인권을 찾기 위해 노력하려면 학생인권조례의 존재와 그의 미를 먼저 알아야 한다.</p> <p>둘째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게 거세다는 점이다. 인터넷을 활용해 자료 조사를 하고 있던 중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접했다.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많은 자료를 찾아봤더니 교권이 침해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학생인권조례에 임신한 아동 청소년과 성소수자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는 이유로 "경남동성애반대연합" 따위의 단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것 같다. (참고: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73700) 자료 조사를 열심히 하던 중 학생인권조례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철저히 논리를 배제하고 그런 만화도 한 개 보았는데, 보고서에 첨부하기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만화인 것 같아 넘어가도록 하였다.</p>		
제안 내용	<p>가장 시급한 것은 학생인권조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경남권 렌즈 단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길거리캠페인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의 목소리에 귀기울여보고 그에 대한 반론과 함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p>		
제출일	2018년 8월 26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권	아동 성명	최○○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만 있다.</p> <p>또한, 학생들 중 인권조례가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대다수다. 인권이라는 것만 알고 현재 학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느 지역은 인권조례 시행으로 인해 그런 불만이 적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p> <p>"인권조례의 내용 중에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습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된다. •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서 자기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 하는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p>등이 있다.</p> <p>하지만 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곳이 더 많은 것이 문제이다. 다행히 얼마 전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인권 감수성을 높여 학생이 자발받지 않는 학교,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으로 결국 학교 부적을 학생도 많이 줄여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문제해결력, 창의성 등의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마 얼마 후엔 경상남도도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p> <p>이상재 대전충남인권재단 사무국장이 <인권조례 부활>이라는 주제를 꺼내어 지난 4월 20일 인권조례를 폐지한 충청권의회도 부활 조짐을 보인다. 장천배 충청권의회 의장은 "토론회·간담회 등을 통해 인권조례 제정 문제를 다뤄 볼 방침이다. 조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해서라도 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p> <p>이렇게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에 관심을 가져 실행을 하려는 조짐은 보이지만 나머지 다른 지역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약화되고, 교실의 질서가 무너져서 불량학생들이 늘 것이라는 생각으로 아직 실행을 하겠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p> <p>현재 학생들은 학교에 돈을 내며 다니더라도 자신들의 인권은 존중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날발하고 있다.</p>		
문제점	<p>1.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소수다.</p>		
제안 내용	<p>2. 학생들이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 하여 학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다.</p> <p>3. 인권조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이 다수이다.</p> <p>4. 인권조례가 잘 안 알려지고 있다.</p>		
제출일	2018년 8월 26일		

경남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인권조례)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인○○
활동 주제	학생 인권의 침해		
현황 및 실태	<p>1. 학생들의 통제가 어려워진다: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되면서, 교사들의 육체적인 처벌은 일괄 금지되었고, 대신 벌점제도와 성찰교실 등의 대책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다는 한 반에서 벌점이 상점을 넘은 학생들의 수는 4분의 3정도로 상당히 많다. 이는 학생들이 육체적 처벌을 피하다 보니 정점 교사의 학교를 무시하는 태도를 지니게 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핸드폰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등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진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렇기에 현재 처벌제도는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므로 육체적 처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p> <p>2. 교권이 추락한다: 최근 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건들 중 하나가 바로 '교사에게 대들기'이다. 심지어 초등학생이 담임에게 욕을 할 정도이니, 교사의 권위가 얼마나 추락했는지 말할 필요도 없다. 심지어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선생이 마음에 안든다고 욕행까지 벌한다고 한다. 교사들이 이렇게 당하기만 하는 이유는 바로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되면서 학생인권의 중요성만 부각되며 교권은 사람들에게 소외 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처벌하려고 해도 육체적인 처벌은 금지 되어있고, 심한 처벌을 할디면 학부모들의 비난 때문에 학교의 이미지에 심한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p>		
문제점	지나친 통제와 교권의 남용은 다시금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여서 위화감과 계층의 심화를 초래한다.		
제안 내용	학생인권을 위해 학생들은 스스로 조절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잘 이행하고, 학생들은 인권 남용으로 인한 선생님들 무시하지 않고 선생님들 잘 따랐음 좋겠다.		
제출일	2018년	8월	26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권	아동 성명	류○○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우리가 살고 있는 경남에는 아직 인권조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인권조례를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해서 인권조례를 하나도 모른다.</p> <p>인권조례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이다. 인터넷에 학생 인권조례라고 검색하니 되게 반대의견과 문제점이 많았다. 문제점 중에는 육체적인 처벌이 금지되면서 학생들의 통제가 어려워진다, 교권이 추락한다, 등이 있었다.</p> <p>그리고 인권조례중 몇가지를 조사해 보았는데 종교/임신/가족상환/반부/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차별 물리적 폭력, 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등등이 있다.</p>		
문제점	인권조례중 교권이 추락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선생님 입장으로도 생각하면서 정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제안 내용	인권조례를 실시 하더라도 선생님의 안전(?)을 꺾어먹는 그런 정책은 약간 바뀌었으면 좋겠다.		
제출일	2018년	8월	26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한○○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이다.</p> <p>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여서만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경남권에서는 학생 인권조례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요즘들어 경남권에서 학생 인권조례가 재추진 되고 있는 중이다.</p>		
문제점	조사 결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들어 보지만 헛지 정확한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제안 내용	학생 인권 조례를 무조건 밀어붙이만 말고 학생들에게 정확한 뜻을 알려준 후 다시 한번 조사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실시 하였으면 좋겠다.		
제출일	2018년	8월	26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박○○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현재 학생인권조례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지역에만 제정되어있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경남 교육감 박중훈은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2018년내 제정예정을 계획했으나 경남미래교육연대와 전국학부모연합강남지부 등 6개 단체는 16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폐지를 촉구해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지게 되었다.</p> <p>'경남미래교육연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폐지 촉구' 라는 기사를 보면 이를 단제는 "해방 이후 학생들의 인권이 늘려 있다는 박중훈 교육감의 인권 상황 파악은 매우 독단적이고 편향적인 것이며, 실제 상황은 상당한 수준의 인권이 실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상당한 수준의 인권이 현재는 실행되고 있으나 이를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해 더욱더 인권을 안전하게 지켜 낼 수 있는데 반대를 하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p> <p>이어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조례안을 주장하는 박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안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선택, 동성애 간 애정 행위, 임신과 출산까지도 허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보편적 가치와 도덕까지 무너뜨리는 비교육적인 내용의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현재 사회도 성별 정체성 선택이나 동성애의 인식이 나가고 있다. 그런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를 차별을 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것이다.</p> <p>또 "교사들의 생활지도는 권위주의, 강제교육이라는 구실로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기발전 인권 실행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우리 학교에서는 학 학생을 점심시간에 모두 집합시켜 생활지도도 하였다. 점심시간 70분중 약 30분 가량 진행되었다. 이는 학생들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또한 이는 선생님이라는 지배층이 학생이라는 피지배층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는 일이다.</p> <p>그러면서 "임신 및 출산의 경우, 보호와 포용이 우선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차별받지 않는다'는 권리 조항은 학생들의 탈선 호기심을 조장하고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차별받지 않는다'는 권리 조항이 어떻게 탈선 호기심을 조장하여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장원-뉴스스) 홍정영 기자</p>		

경남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인권조례)

8월 활동보고서

	=> 저 개인의 생각이며 기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점	경남 교육감 박중훈이 진행하고 있는 경남 학생인권조례가 연내로 제정 예정이 있지만 여러 단체들의 반대로 인해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졌다.
제안 내용	'경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연내 제정 불투명...' 계속 추진" 기사를 보면 박 교육감은 "연내 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빨리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모으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정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그러나 반대하는 단체들 대부분은 보수 단체로서 현대사대의 빠른 흐름의 발전에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단체에 설득을 해보려고 해도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때 보수 단체의 설득에 힘을 쓰는 것 보다는 경남에 있는 인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단 한명의 학생을 생각해 반대를 무하시더라도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하루 빨리 제정했으면 좋겠다.
제출일	2018년 8월 26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현○○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1. '평소에 아동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67%의 학생들은 '아니오' 에, 31%의 학생들은 '네' 에 응답하여주었고, 2%의 학생들은 '잘 모르겠다' 고 하였다. 이에 따라 '네'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신 까닭이 무엇이었나요? 라는 질문에 '네'를 선택한 학생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지켜지고 있는 것 같다' 또는 '하고싶은 것을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 이라고 대답해주었다. 또한 '아니오'를 선택한 학생들은 '확실히 아니다 보니 어른들의 역할을 받는게 있는 것 같다' 또는 '학생다운이라는 틀에서 자בל을 많이 받는 편이예요' 등 많은 의견을 받게되었다.</p> <p>2. '교원능력평가 때 역평가가 지켜지지 않을까 거것으로 제출한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53%의 학생들은 '아니오'를 택해주었고, 36%의 학생들은 '네' 에, 11%의 학생들은 '주변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을 들어볼'을 택해주었다. 이 질문에 결과에 대해 나는 '교원능력평가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 솔직하게 교사들을 평가하는 설문지인데, 가끔 교사들은 자신의 평가가 안 좋게 나올까봐 학생들에게 강조하는데 이런 식으로 교사들이 진행한다면 교원능력평가 필요 없을 것 같다' 고 생각한다.</p>		
문제점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이 4지역에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것.		
제안 내용	<p>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이라고 알고 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다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학생이 역할되지 않고, 자유롭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면 좋겠다.</p> <p>교원능력평가가 교사들이 강제로 좋게 평가하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그 교사를 학교에 신고하여 간단한 벌칙(?)을 수행하였으면 좋겠다.</p>		
제출일	2018년 8월 26일		

권역	경남	아동 성명	이○○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1. 아동 인권조례 인터뷰</p> <p>실제 아동을 통하여 아동의 인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인터뷰를 하였다. 현재 부산중앙여고의 제2 중 인 2학년 박오양과의 인터뷰를 진행 하였으며, 아동의 인권 침해에 관한 심각성과 우리가 보장 받아야 할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p> <p>[실제 인터뷰 내용] 본인-안녕하세요. 저는 아동 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단 LENS 단원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며, 현재 응하는 인터뷰는 실제 아동 인권조례에 관한 자료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산 중앙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이라고 합니다.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먼저 첫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동들의 인권이 얼마나 보장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상대방-아뇨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 아동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야간자율학습 또는 방과 후 보충학습 이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실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아동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느낀 사례나 본인이 직접 겪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말씀 해주세요. 상대방-아동 인권 침해사례를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사례는 학교의 교직원 문제 또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원 능력평가, 학교폭력설문 조사 등등 역평가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확실하게 그 역평가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그럼 마지막으로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세상이 변화하였으면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 해주세요. 상대방-가장 먼저 변화 해야 하는 것은 사회의 사선이나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이라고 무시해도 된다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여러 생각이 먼저 변화하여 사소한 작은 변화가 발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고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p>2. 아동 인권조례 관련 기사 찾아보기</p> <p>아동 인권조례와 관련하여 여러 기사를 찾아보았다. 바로 경남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았다. 실제 경남교육청 박중훈 교육감은 인권조례의 이해에 관한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이 기사를 보고 나는 우리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중요한 시작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p>		
문제점	<p>[실제기사 내용 일부 스크랩] 경남도교육청 박중훈 교육감은 24일 오전 분청 대강당에서 국과장 및 6급 장학사 이상 직할 260여명을 대상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박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뜻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특강은 분청 직원들의 이해와 공감, 소통을 위해 마련했다. 박 교육감은 특강에서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나와 타인의 권리가 함께 보장되는 학교,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학교일 때 학생은 자발적 참여와 의사 표현으로 마음껏 성장할 수 있다면서 그 출발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라고 설명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사회는 협업,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창의성 등 역량을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지식 위주의 가르침과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 및 통제 대상으로 여기는 학교문화에서 벗어나자 않으면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인권 감수성을 높여 학생이 차별받지 않는 학교,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으로, 결국 학교 부적을 학생도 많이 줄어 들 것이고, 아이들이 민주시인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뉴스스 종합영 기자님 기사)</p>		
제안 내용	<p>1) 아동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많은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2) 학생들의 인권조례가 이뤄지지 않아 학교 측과 의사 소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다.</p>		
제출일	2018년 8월 26일		

경남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인권조례)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이○○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예서만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권 학생들을 조사해본 결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아는 사람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하였다.</p> <p>현재 경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추진 되는 상태이다. 박중운 경남교육감은 8월24일 "학생들이 자발적 참여로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출발은 학생인권조례다"고 밝혔다.</p> <p>박 교육감은 이날 경남교육청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학교일 때 학생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박 교육감이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만들겠다고 추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강연이다.</p> <p>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인 미래사회는 협업과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창의성 등을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미성숙한 학생들을 통해 대상으로 삼는 학교 문화를 탈피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p> <p>이어 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인권 감수성을 높여 학생이 차별받지 않는 학교,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만들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 등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p> <p>앞서 박 교육감은 재선 직후 조례의 연내 제정을 추진했지만,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대응책 모색으로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다. 한편 경남미래교육연대와 전국학부모연합경남지부 등 6개 단체는 8월16일 '보편적 가치와 도덕까지 무너뜨리는 비교육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며 조례 제정 폐지를 촉구했다.</p>		



출처(시사 저널, 경남 박중운-서진석 기자)

현황 및 실태	<p>경남교육청은 지난 9월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은 최상위 법인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통해서도 보장돼 있는 권리"라며 "박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운운하는 것은 헌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p>		
문제점	<p>이어 "학생인권 보장이 목적이려면 헌법 규규를 적용하면 실현되는 데도 마저 조례가 없어서 학생인권 침해가 심각하거나,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인권이 보장된다는 식의 시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p> <p>이에 박 교육감은 지난 10월 페이스북을 통해 "교원단체가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것은 난센스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호 배제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그는 "제가 생각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고 관련한 조례"라며 "이 문제를 교원과 학생의 이해 관계로만 보지 마라. 이것은 기록권과 당파먹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출처(국제신문, 이종호 기자)</p> <p>위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 인권 조례에는 반대와 찬성측의 주장이 매우 위세지고 있어서 학생 인권조례 제정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아동의 인권이 헌법에 명시되어있기는 하지만 현재 보호받아야 된다는 말로 많은 것을 제한받은 경우, 많은 아동폭력 사건들도 있다.</p>		
제안 내용	<p>현재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경남권 거주자들을 위한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 설명회, 학생 인권조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등을 것 같다. 경남권은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더욱더 구체적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면 좋을 것 같다.</p>		
제출일	2018년	8월	26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안○○
활동 주제	학생 인권의 보호대		
현황 및 실태	<p>학생인권조례가 교육청 선거에서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경남, 광주, 서울 등의 지역이다. 경기도는 현재 김상곤 교육감에 의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현재 진행형이고,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어 있다. 특히 경기도 지역은 학생인권조례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중 일부를 학교현장에 반영하는 지점을 내리면서 학생인권보장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경남, 광주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해 온 지역으로 이러한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있는 교육감 후보 또한 이를 정책 중 하나로 수용하고 있다. 서울은 현재 민주진보교육감 추대위원회가 후보를 확정하기 이전에 정책 논의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공약에 학생인권조례가 들어갈 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에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 중 하나가 극노련 교수인데, 극노련 교수는 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이었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극노련교수가 후보가 될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핵심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p>		
문제점	경기도, 경남, 서울, 광주 이 4지역 예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제안 내용	모든 학생이 자유롭게 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한 인권을 가지고 생활했으면 좋겠다.		
제출일	2018년	8월	26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입니다. 저는 인권조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해보았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조례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는 80%의 학생이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18% 가량의 학생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는 94%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인권조례 12, 13조에서 복장, 두발 그리고 휴대전화 소지허용에 대한 권리가 나오는데요. 복장, 두발, 휴대전화 소지 허용에 대해 동의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다 87%의 학생은 네라고 대답하였고 12%의 학생은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문제점	<p>1.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이 4지역에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모든 학생이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역에 학생 인권조례가 시행되면 좋겠습니다.</p>		
제안 내용	<p>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에는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된다는건 모든 학생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학생이 자유롭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면 좋겠습니다.</p>		
제출일	2018년	8월	26일

경남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인권조례)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심○○
활동 주제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학생 인권 조례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로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 전북 이렇게 4곳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공포 하였다. 서울의 학생 인권 조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동성애 차별 금지 둘째, 차별 전면 금지 셋째, 두발 착용 자유화 넷째, 휴대전화 허용 다섯째, 종교의 자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회 허용 등이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러한 인권 조례라는것의 존재 여부와 어떠한것인지 잘 알고 있지 못한 채 인권을 침해 받고 있다. 4곳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살펴 보면 학교 제각각의 규정을 통해 우리의 여러 인권을 규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의 모든 학교의 규정에는 '교사 지시 불이행' 으로서 선생님들의 재량으로 벌점을 부여할 수있도록 하여 교권을 지켜주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학생 인권 조례가 실시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 이다.</p>		
문제점	<p>많은 아이들이 학생인권조례 라는 것에 잘 인식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무방비하게 침해 당하고 있음</p> <p>전국 중 4곳의 지역에만 학생 인권 조례가 실시 되고 있음</p>		
제안 내용	<p>학생들이 학생들 자신의 인권 하나하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교육,자살예방교육 등과 같이 학교에서 학생 인권조례란 무엇인지 학생은 학생의 인권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교육하여 학생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전국 중 4곳만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포 하여 전국 학생들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한다.</p>		
제출일	2018	09월	08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류○○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1.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재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4개(서울, 경기, 광주, 전북)에서 시행 중이다. 차별 금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 전국에서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 교육청별로 내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 하위 법률인 '조례'로서 학생의 인권이 단속되고 있어 기타 규정들에 의해 암묵적으로 무시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아직 남아 있다.</p>		
문제점	<p>1.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조례의 효력이 약함 : 기타 법률이나 규정을 악용할 경우 무시 가능 시행되고 있는 사-도가 적음 : 전국 16개 교육청 중 단 4곳만 시행 중</p>		
제안 내용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일정하게 통일 및 시행 범위 확장		
제출일	2018년	8월	26일

경북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북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연락 및 실태	<p>먼저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발생한다. 먼지의 입자는 크기에 따라 50µm 이하인 총 먼지(TSP, Total Suspend Particles)와 입자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로 구분한다. 미세먼지는 다시 지름이 10µm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µm보다 작은 초미세먼지 (PM2.5)로 나뉜다(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환경부, 2016). 이러한 미세먼지는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서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상 물질(PM)을 인체발암물질인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연구에서 최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사망발생위험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이고 있으며 전체연령 집단과 6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 미세먼지가 10µg/m³ 증가 시 사망발생 위험은 0.44% 증가하고 초미세먼지는 10µg/m³ 증가 시 전체적인 사망위험은 0.9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성용, 배현주, 윤대욱, 홍석표, 박해용, 2012). 하지만 미세먼지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오염농도와 발생 빈도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주요 선진국 도시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4년의 경우 황사를 포함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미국LA보다 1.5배 높고,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보다 각각 2.1배에서 2.3배 높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까닭은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 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되어 단위 면적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고 지리적 위치, 기상여건이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 : 미세먼지 위험지각과 마스크 착용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곡중신, 2017] 위의 연구내용으로 보아 현재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하지만 막상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외출을 자제한다 등의 예방책을 실행하지는 않아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휴교나 단속수업은 고사하고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진행해야하고 등학교시 걸어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p>		

문제점	<p>1. 정규교육과정에 미세먼지의 위험성이나 예방책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은 미세먼지가 위험하고 건강에 유해하다는 것쯤은 여러 SNS나 메시지를 통해 많이 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도 가정통신문을 이용하여 학생과 학생의 가정에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책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 중 가정통신문을 눈여겨보는 학생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래서 학생들이 막상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안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없다. <p>2. 미세먼지농도가 높은 날에도 학교에 등교해야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풍이 올 때, 지진이 일어날 때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휴교나 단속수업을 실시 할 수 있다. 학생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현재 그렇게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당장 학생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생의 건강에 위험이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등교하는 학생들은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놓여있다. <p>3. 미세먼지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매우 작은 입자의 미세먼지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p>4. 미세먼지농도가 높은 날에도 체육수업은 '자제'라는 점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세먼지농도가 높은 날에도 체육수업은 '자제'라는 점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체육수업을 하지 않는 것을 체육교사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SNS에서 공개된 사진에서는 몇몇학교가 부연 하늘에서 학생들이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체육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제안 내용	<p>2018.08.28부터 2018.08.31까지 실시한 다음 인터넷 서베이 (https://form.office.naver.com/form/summaryViewMobile.cmd?formkey=MzE4MGY1YWYtNWZjY500MDJhLWV3OGYtMmMwMTE4OTk0Y2Zl&sourceid=urishare)를 통하여 아동/청소년들의 미세먼지 인식을 조사한 결과 133명(2018.08.31.23:10) 중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 중 94명, 70%가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 뉴스를 통해 얻는다고 답했다. 그리고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는 답변에 93명, 69%가 네라고 답한 것으로 보아 아동/청소년들에게 미세먼지가 많은 피해를 주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별 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마스크 착용이 79명, 59%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현재 아동/청소년이 대부분 사용하는 부직포</p>
	<p>마스크로는 미세먼지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부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정규교육과정에 추가하여 학생들이 더 많이 미세먼지에 대해 접할 수 있게 하고 학교폭력예방교육과 비슷한 방식으로 미세먼지 관련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성,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p>
제출일	2018년 8월 31일

경북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북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현황 및 실태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친구들과 알아보고 아이들(아동)이 미세먼지들로부터 안전이 보호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미세한 입자들이 바람을 타고 들어와 우리나라에 오게 된다. 이러한 미세 먼지들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은 별로 없다. 또한 사람들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한다.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날씨 정보에서도 미세먼지가 많다 적다를 알려주는데도 사람들은 그냥 날씨가 뿌옇다고 생각이 들때만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한다. 그래서 아동들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고 있지 않다.		
문제점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처법이 별로 알려지지 않는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제안 내용	사람들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지, 그의 대한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귀하께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어디인가? *귀하께서 느끼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 *귀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는가? *귀하께서 미세먼지로 인해 경험하신 어려움에는 어떤 것 이 있나요? *귀하의 학교에서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등의 질문을 하여 사람들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심각한 지에 대해 알아 보았다. 이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도 잘 알지 못 하였다. 또한 학교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제출일	2018년 8월 31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대구 경북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현황 및 실태	미세먼지는 대부분 자동차의 배기가스, 도로 주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에서 발생한다.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PM10, PM2.5)에 대한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1987년부터 제시해 왔고, 2013년에는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Group 1)로 지정하였다. 이처럼 위험한 미세먼지를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미세먼지들은 크기가 매우 작아서 코와 기도를 거쳐 기도 깊숙한 폐포에 도달할 수 있으며, 크기가 작을수록 폐포를 직접 통과해서 혈액을 통해 전신적인 순환을 할 수 있다.		
문제점	1.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2.미세먼지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을 알지 못함		
제안 내용	미세먼지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응답한 학생들 중 70%가 포털 사이트/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 거의 확인 하지 않는 학생이 24%였다. 학교에서는 미세먼지문제에 대한 대응으로는 55%의 학생들이 야외 체육활동 자체 권고한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깨끗한 공기) 속에서 공부하고 생활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교실별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되어야 한다 또는 미세먼지 농도 측정에 따른 실외활동 규제되어야 한다.		
제출일	2018년 9월 8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대구 경북지역	아동 성명	류○○
활동 주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현황 및 실태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는데,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μm 이하인 총먼지와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로 구분한다. 미세먼지는 다시 지름이 10μm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μm보다 작은 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PM10이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50~70μm)보다 약 1/5~1/7 정도로 작은 크기라면, PM2.5는 머리카락의 약 1/20~1/3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들어감으로써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우리 대구 경북에서는 최근 급부상하는 사회문제인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보고, 학생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가 아직은 미세먼지 문제를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다. 따라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선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아보는 설문지를 만들기 위해 토의를 진행하였고, 그 토의 내용을 토대로 설문지를 만들어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조사를 인터넷 서베이 형식으로 조사를 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에 포털사이트/인터넷 뉴스 답변이 70%로 가장 높았고 TV/라디오 답변이 66%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위에서 답변한 경로로는 통해 얼마나 자주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거의 확인하지 않음이라는 답변이 24%로 가장 높았고 하루 1회 답변이 23%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를 통해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69%로 일순위를 차지했고 잘 모르겠음 답변이 21%였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기침/가래가 56%, 콧물/비염 증상 약화가 50%, 피부 발진/가려움이 16%였다. 이는 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나라는 질문에는 마스크 착용이 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외출 후 깨끗하게 씻기가 57%, 충분한 수분 섭취 24%, 외출 자체 18%라는 결과가 나왔다. 귀하의 학교에서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야외 체육활동 자체 권고가 55%로 가장 높았고, 별다른 대응 없음이 39%이었다.		

문제점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야외활동을 자제시키는 학교도 많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학교도 많아 보인다. 미세먼지 인식 조사 결과 http://naver.me/GlvrsUAK
제안 내용	1.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학교의 대응이 부족하다. - 태동동 자연재해에는 휴교를 하면서 미세먼지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음 - 미세먼지 대처에 관한 교육이 필요해 보임. 2. 사람들의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인터넷 서베이 조사에서 피설문자에게 의견을 묻은 결과, 1. 먼지가 많이 발생하지않는 비박적 사용 및 학교 학년별 또는 교실마다 공기청정기 설치 희망 2. 교육청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들을 꾸준히 학교에 제공하며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알게 해야 함. 미세먼지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미세먼지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해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끔 만들어야 함. 그리고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 곳을 어디인지, 이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수시로 알려주어야 함. 3. 미세먼지 농도 일정수치 이상 시 체육활동 제한 4. 올해부터 야구도 미세먼지가 매우 나쁠이면 경기를 취소한다. 이처럼 학교 생활도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면 외부 활동 자체/금지 또는 마스크 착용이라도 허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5. 미세먼지가 감소할 수 있게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 6. 미세먼지는 갈수록, 중국에서 공장 이전을 하며 공기의 흐름을 타고 한국으로 날라 왔습니다. 그런가 때문에 요즘 더 이슈화 되고 있는거 같고요. 공장 이전에 따른 중국과 우리나라는 아직 협상이 안되어있습니다. 지금 북한 핵 및 통일, 한미군, 일본 위안부 등등 무엇이 대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더 크니까요. 정부에서도 인연에 이것저것 처리할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만, 소수에게 관심이라도 기울여주셔서 환경부 장관님, 그렇게 카페 패스트푸드 등 정음 일반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매장에서 대화용품을 사용하려고 권고 하셨죠?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피해가 끼칠 우려에 대해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아닌, 다른 나라까지 함께 생각하는 나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설문 조사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스크를 쓴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끼고 다니는 마스크도 도움이 되지만 황사 마스크나 미세먼지 마스크의 성능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위의 기능성 마스크의 보급이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출일	2018년 09월 3일

경북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북권	아동 성명	심○○
활동 주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현황 및 실태	<p>요즘 미세먼지에 대한 기사와 뉴스가 많이 나오고 그 피해 또한 심각하다. 특히 아동들한테 미세먼지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 등을 조사하여 토의하였고 각자가 느끼는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들이 무엇이 있고 이 주제에 관한 학교 활동이 무엇이 있는지 이거기를 나누었다 또한, 설문지에 들어갈 질문들을 생각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주위 아동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 보고자 우리지역 아동/청소년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조사를 인터넷 서베이 형식으로 진행하였다.</p> <p>★귀하는 얼마나 자주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까? - 거의 확인하지 않음(24%)로 가장 높았다</p> <p>★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네(69%), 아니오(8%), 잘 모르겠음(21%)</p> <p>★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방법? - 마스크 착용 (59%)이 가장 높았고 외출 후 깨끗이 씻기(57%)가 두 번째로 높았다.</p> <p>★귀하의 학교에서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야외 체육활동 자체 취소(55%)가 가장 높았다</p> <p>★아동/청소년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차원에서 교실별 공기 청정기 설치 의무화(75%)가 가장 높았다. 기타내용으로 먼지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바닥 사용과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p> <p>미세먼지 인식 조사 결과 http://naver.me/GlvsrUAK</p>		
문제점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미세먼지 관련정보를 거의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함		
제안 내용	아동/청소년들이 쉽게 미세먼지 관련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학교에서나 SNS에 관련 정보 수시로 올리기.		
제출일	2018년	8월	31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북	아동 성명	원○○
활동 주제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공부할 권리		
현황 및 실태	<p>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미세먼지 직경의 크기인 물질을 일컫는데 이것이 인체에 주는 영향은 막대하다. 특히 아동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서울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노출된 어린이에게서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미세먼지가 42.9µg/m³ 증가하는 경우에 영아 사망률이 14.2% 증가한다. 또한 어린이는 폐 기능이 발달하는 단계로 이 시기에 호흡기가 위험을 질에 노출된다면, 성인기의 폐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미세먼지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속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위험성은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기대하는 것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p> <p>- 미세먼지외 관련 정보 확인하는 횟수 - 1) 하루 3회 이상 3% 2) 하루 1회 23% 3) 2-3일에 1회 22% 4) 일주일에 1회 15% 5) 10-15일에 1회 6% 6) 거의 확인 안함 24% 7) 전혀 확인 안함 3%</p>		
문제점	1.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의 부족 2. 적극적인 조치의 미흡		
제안 내용	아무래도 많은 아동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학교인 만큼 학교 차원, 교육부 차원에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하며 각 지역에 경고를 주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우리 권역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교실별로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에 101명예 해당하는 75%의 학생이 동의하고 미세먼지 농도 측정에 따라 실내활동을 규제하는 것에 84명예 해당하는 63%의 학생이 동의했다. 또한 설문 조사의 결과로 도출된 기타 의견들처럼 학교 내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여 홈페이지나 교내 게시판 등에 학생들의 눈에 자주 의도록 수시로 게시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차원에서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도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출일	2018년	9월	4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북권	아동 성명	장○○
활동 주제	미세 먼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현황 및 실태	<p>먼저 미세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미세 먼지는 호흡 곤란, 기관지염, 폐렴 등을 유발하는 위험한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미세 먼지 농도가 나쁠 때에는 자주 손 씻기, 외출 자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동은 이렇게 위험한 미세 먼지의 위험성은 물론, 대처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실정이다. 반면에 한동안 미세 먼지가 '매우 나쁨'이 지속되었을 때에도 주변을 살펴보면 마스크를 착용하였던 친구가 별로 없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귀찮아서'가 제일 많았고, '불편해서', '더워서'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어른들은 아동보다 미세 먼지의 위험성과 대처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실천율이 매우 높으나,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약하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이나 외부활동 자제라는 간단한 대처법도 실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미세 먼지의 농도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이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아동들의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p>		
문제점	-미세 먼지의 심각성 및 위험성에 대한 무지 -미세 먼지 나쁨 시 올바른 대처법에 대한 무지		
제안 내용	미세먼지의 정의에서부터 위험성, 결과, 대처법에 대해 각자 자료 조사를 한 후, 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 조사를 만든다. 설문 조사의 내용은 평소 미세 먼지를 어떻게 인식해 왔으며, 미세 먼지가 나쁠 때 어떻게 대처했는 지에 대한 것이다. 또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은 캠페인을 실시해, 주변 아동들이 미세 먼지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처법을 확실히 익혀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공부할 권리를 지켜줘야 할 것이다. 현재 120여명이 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2번째 회의 때 설문 조사 결과를 통계 및 정리하여 작은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출일	2018년	9월	1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북권	아동 성명	전○○
활동 주제	미세 먼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현황 및 실태	<p>미세먼지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오고 또 미세먼지 정도를 알기여보지런 확인하게 된 지금 아동들이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 지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주위 아동들에게 간단한 인터뷰와 조사를 해 본 결과, 대부분이 하늘이 푸랏게 흐릴 때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마스크를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야외 체육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 그리고 도시 같은 경우에는 먼지지붕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 때문에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아동이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p>		
문제점	-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 명확한 대처법이 없는 대신 차선책도 잘 알지 못한다.		
제안 내용	<p>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그 해결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p> <p>항목에는 -귀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얼마나 경계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귀하께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어디입니까? -귀하는 답변하신 결과를 통해 얼마나 자주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까? -귀하는 느끼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어느정도 인지하니까? -귀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귀하께서 미세먼지로 인해 경험하신 어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등이 문항이 들어가있다.</p> <p>이를 통해 지금까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동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마스크를 끼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그 외에 크게 도움이 되는 대응방법은 잘 실천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학교에서도 체육 야외활동 자제 외에는 별다른 대응이 없다는 아동이 많았다.</p>		
제출일	2018년	9월	1일

경북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북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p>현재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는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에 솔함중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제시되어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대학 입학시험제도는 한국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학의 이름만으로 개인의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들에게 대학입학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p> <p>[한국대학입시제도의 변천 과정과 원인에 관한 연구, 오영희, 1999]</p> <p>또한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고등학생 평균 학습시간은 10시간 47분이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강제적·회밀적 보충학습 금지, 정규수업 전(0교시)과 오후 7시 이후의 보충학습 금지, 오후 10시 이후 야간자율학습 실시 지양 등의 방침을 정하였다. 하지만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가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아침 8시에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으로 일과가 시작되어 정규교과수업을 한 후 또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저녁식사 후 오후 7시경부터 밤 10-11시까지 자율학습이 계속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밤 12시까지 교사의 지도 감독 하에 실시되고 있다.</p> <p>[중소도시 인문고등학교 학생의 자율학습에 대한 인식연구, 임현경, 2007]</p> <p>청소년들이 문화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는 전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가 42.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비용'과 '먼 거리'가 각각 13.8%로 나왔다. 기타이유들은 전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p> <p>[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의 문화복지 실태에 관한 연구, 이수미, 2009]</p> <p>이처럼 쉽게 말해 '학업'이 중시된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침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가 침해되는 이유로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이 많기 때문이다.</p> <p>현재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문화활동에 대한 부모(교사)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48.1%(51.9)가 '그저 그렇다'에 32.1%(30.3)가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에 9.5%(8.3)이고, '부정적이다'라는 답변은 7.6%(7.6)로 나타났으며, 2.7%(1.9)는 '매우 부정적이다'로 나타났다.</p> <p>문화활동에 대한 부모(교사)의 태도가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이 문화활동을 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하고 있을 때나 한 후에 자신에게 나타난 가장 뚜렷한 변화에 대해서 32.1%(85명) '공통체 의식 향상'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21.1%(56명)가 '성격의 변화', 16.6%(44명)가 '생활태도'가 변화했다고 답하였다.</p> <p>그 외 10.9%(29명)는 '학습능력 저하'를 5.3%(14명)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p>		
현황 및 실태	<p>에 대한 생각 정리'로 나타났으며 '기타'의견도 10.6%로 나타났다.</p> <p>문화활동에 대한 부모(교사)의 태도와는 달리 연구대상자 청소년들은 문화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활동을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33.0%(88명)가 '시간이 없어서'로, 25.1%(67명)는 '돈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 '관련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10.5%(28명), '실리적,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가 8.6%(23명), '문화활동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부족'이 5.6%로 나타났다. '시간이 없어서'와 '실리적,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는 같은 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대학입학 이위주의 교육 현실 때문으로 보인다.</p> <p>[청소년의 문화활동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김형심, 2007]</p> <p>위 연구결과로 보아 청소년에게 문화활동은 매우 중요하나 '학업'이나 '사회적 인식'을 이유로 청소년의 놀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p>		
문제점	<p>1. '학업'이 중시된 대한민국</p> <p>- 단지 대학에 입학하는 것만으로 자신이 입학한 그 대학교의 이름에 따라 개인이 평생동안 가져가야 할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들에게 대학입학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를 위하여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 24시간 중 학교에서만 14시간의 시간을 학업에 투자하고 있다. 중·고등학생뿐 아니라 요즘 들어 영어유치원과 같은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들 또한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학업에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문화활동에 시간을 투자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의 놀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p> <p>2. 청소년이 노는 것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식'</p> <p>- 청소년의 문화활동에 대한 부모(교사)의 태도에 대해 조사한 연구논문에서는 48.1%가 '그저 그렇다', 32.1%가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에 9.5%이고, '부정적이다'와 '매우 부정적이다'에 10.3%인 것(청소년의 문화활동경험이 자아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김형심, 2007)으로 보아 청소년이 문화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부모(교사)의 태도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p>		
제안 내용	<p>놀 권리에 대한 설문지는 우편으로 곧 받아 진행 예정이다. 여러 논문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들에게는 학업의 부담을 줄여주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교육부에서 실행 중인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금지 정책을 강화시켜 청소년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을 줄여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청소년들의 놀 권리가 더욱 지켜지지 않을까? 또한, 현재 사회 전역에 퍼져있는 아동/청소년들은 놀면 안된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하여 아동/청소년들이 노는 것이 얼마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것인지 캠페인이나 여러 교육을 통해 알려 현재 아동/청소년에게 학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회 인식이 조금이나마 바뀌었으면 한다.</p>		
제출일	2018년	8월	31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북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p>옛날에는 학교 끝나고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놀고 골목에서 아이들과 자전거를 타면서 놀았는데 지금의 아동들은 학교,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서 놀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놀 권리도 없어지고 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공부에 대한 압박감, 시교육 때문에 놀아야 할 나이인데 놀지도 못하고 공부에 지쳐있다. 많은 아동은 지금 놀면 다른 아이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 내가 뒤처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한 경향 때문에 아동들은 놀 수 없게 된다. 또한, 엄마의 부담, 압박감 때문에 아동의 놀 권리가 사라지게 된다.</p>		
문제점	<p>*학업, 많은 공부 때문에 놀 시간이 없다. *사회정체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서 나의 자녀들이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 놀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p>		
제안 내용	<p>놀 권리가 과연 아동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놀 권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청소년 20명에게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 사람들은 아동에게 놀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회분위(공부만 하자, 놀면 뒤처진다.)를 봐서는 놀 권리를 찾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사회의 분위기를 다르게 조성했으면 좋겠다.</p>		
제출일	2018년	8월	31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대구 경북권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p>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2016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관적 행복지수'에서 22개의 OECD 회원국 중 22등으로 꼴찌를 했다.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평균(100점)을 기준으로 해 점수화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82점을 기록해 도지사 최하위권에 머물러 왔다. 2015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행)에 따르면 전체 응답 학생 10,440명(초중학생 2,926명, 중학생 3,627명, 고등학생 3,888명)중 평일 여가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2.5%에 달했으며 1-2시간도 30.1%로 나타났다. 응답 학생 절반 이상이 평일 기준으로 2시간도 채 여가시간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어른들은 학생들의 여가시간을 무시한 채 그들의 생각으로 놀 권리를 점점 없애버린다.</p>		
문제점	<p>-점점 줄어드는 학생들의 놀 권리 -학업에 대한 부담과 여가 시간이 부족</p>		
제안 내용	<p>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 2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학업 때문에 불안해서 제대로 된 여가시간을 갖지 못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다. 입시를 위해 학교에서는 야자까지 권하는 여가시간 이라고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때 노래 듣기 정도가 전부야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p>		
제출일	2018년	9월	8 일

경북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8월 활동보고서

권역	대구 경북지역	아동 성명	류○○
활동 주제	놀이 권리		
현황 및 실태	<p>아동 권리 현장 여담 번째 조항에는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의 놀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열이 그 이유 중 하나이다.</p> <p>'2015년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행)'에 따르면 전체 응답 학생 10,440명(초등학교 2,926명, 중학생 3,627명, 고등학교 3,888명) 중 평일 여가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2.5%에 달했으며 1~2시간도 30.1%로 나타났다. 응답 학생 절반 이상이 평일 기준으로 2시간도 채 여가 시간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다.</p> <p>또 유니세프와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국가별 아동 학업 스트레스 지수가 대한민국이 50.5%로 1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자료들이 높은 교육열에 중요한 아동의 놀 권리가 목숨 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p> <p>또한 한국 어른들의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도 있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국제적 인권조약으로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을 규정해 놓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어른들은 아동의 다른 기본 권리는 알지만 놀 권리는 그것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p>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 않는 아동의 놀 권리. 2. 한국 어른들의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제안 내용	<p>곧 아동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아는지, 얼마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현재 자신의 놀이와 여가에 만족하는지 등의 내용을 설문 계획이다. 나는 랜즈 활동을 시작하고 아동의 놀 권리라는 주제를 처음 접해보고 이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보았었다. 그래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아동의 놀 권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우리가 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도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그리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그에 맞는 제도가 생기거나 조금이라도 어른들이나 우리의 인식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다.</p>		
제출일	2018년 9월 3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북권	아동 성명	심○○
활동 주제	놀이 권리		
현황 및 실태	<p>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놀이는 아동 스스로 시작하고, 통제하고, 구조화하는 모든 행동과 활동, 그 과정을 의미한다. 아동은 어디에서나 아무 때나 놀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보호자는 아동 스스로 놀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할. 놀이는 아동의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즐거움이며,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감정 발달의 중요한 요소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p> <p>현재 아동들의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 또한 학업에 지어 말 놀고 놀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앞에서 말했듯 놀이는 아이들에게 중요한 요소이고 이 권리는 꼭 지켜져야 한다.</p>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놀 공간이 마땅치 않다. 2. 놀 시간이 없다. 		
제안 내용	<p>아동의 놀 권리도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한 사람당 20명 정도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p> <p>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외의 아동들의 생각도 궁금하고 현재 얼마나 놀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결과에 따라 원인을 분석하여 아동의 놀 권리가 지켜질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한다. 또한 노는 것이 잘못했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캠페인과 같은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		
제출일	2018년 8월 31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북	아동 성명	원○○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p>자유롭게 휴식 및 노는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하는 아동은 24.2%(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18). 일주일에 30분도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 10대 여자 청소년의 비율은 47.2%(문화체육관광부, 2017)등 놀이의 필요성과 존재감이 미미한 상황이다. 이러한 비율에 따라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며 한국 아동은 특히 자신 마음대로 시간을 선택할 자유가 부족하고 삶의 질에 만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행복을 얻기 위하여 실을 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아동들에게서부터 놀이를 배척함으로써 놀 권리를 침해한다.</p>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놀 공간 및 시간의 결여 2. 놀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 <p>-> 공부에 대한 지나친 강조 때문에</p>		
제안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놀 공간 및 시간의 결여로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놀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묻고 정도에 따라 캠페인을 시행하거나 그에 맞는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2. 놀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정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차후에 모색할 계획이다. 		
제출일	2018년 9월 4일		

경북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북권	아동 성명	장○○
활동 주제	놀이 권리		
현황 및 실태	<p>유연아동권리협약 31조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아동이 놀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많은 아동들이 놀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교육 체계라고 생각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전 세계적으로 알아줄 정도로 대단하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많은 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였지만, 그만큼 아동들의 놀 권리 등을 침해하기도 하였다. 학생들 사이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모두를 지치게 하고 예민하게 하였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자신의 옆에 있는 친구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아 더 좋은 학교에 입학해, 더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는 의식이 당연시되었고, 따라서 기면 갈수록 교육열과 경쟁열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오전 7시 50분에 등교하여 오후 4시까지 정규수업을 받은 후, 6시까지 방과후 수업을 듣고, 7시부터 10시, 혹은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일한 과제 및 숙제, 혹은 시험준비를 한 후 새벽에 겨우 잠드는 일과를 소화해 내고 있다. 물론 지역마다,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틀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쉴 틈 없이 쫓겨다니다가 들어가는 일과는 많은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우울증을 동반한 자살로 이어진다. 학업에 중실해야 한다는 학생의 본분은 강요하면서 '놀이 권리'라는 권리는 빼앗아가는 모순적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고등학생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요즘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밤늦게까지 학원과 과외에 시달린다. 심지어 유치원생들도 조기교육으로 일찍이 놀 권리를 빼앗기는 처참한 현실을 쉽게 볼 수 있다.</p>		
문제점	<p>-치열한 학업열과 경쟁열 조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음. -대부분의 시간을 학업에 빼앗겨 문화 생활을 누릴 시간이 없음. -는다는 것이 점점 사치로 인식되고 있음.</p>		
제안 내용	<p>우선 놀 권리에 관한 설문 조사를 주변 아동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이가 얼마나 침해당하고 있으며,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또한, 설문 조사 대상자 중 몇 명을 추출하여 인터뷰와 같은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조사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내용을 탐구한다. 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놀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열었으면 좋겠다.</p>		
제출일	2018년	09월	01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북권	아동 성명	전○○
활동 주제	놀이 권리		
현황 및 실태	<p>유연아동권리협약 31조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아동들이 학업에 지쳐 놀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재, 우선 놀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가시간이 2시간도 채 되지 않는 아동들에게 쉬고 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놀 권리이다. 쉬지 못하고 일만 하면 오히려 일의 효율은 더욱 떨어지고 피곤하기만 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놀 권리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학교 숙제도 학원도 넘쳐나는 요즘 중요한 눈점이 될 것 같다. 심지어 기게도 계속 가동시키면 고장이 나는 데 하물며 사람이라고 안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경쟁 사회에서 지금 아동들의 부모님 세대도 놀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은 채로 자랐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다. 무조건 공부와 학업에 대한 집중을 강조하며 노는 것을 거의 죄마냥 취급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p>		
문제점	<p>- 놀 시간이 없다. -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학업이 우선시 되고 있기 때문에 노는 것은 거의 금기시 되고 있다. 노는 것은 나태함의 상징이 되었다.</p>		
제안 내용	<p>아동들의 놀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은 어떻게 대안 설문조사를 아동 정소년 20명에게 실시할 예정이다. 사실 요즘은 워낙 노는 것은 거의 죄와 마찬가지로 놀고 나면 자책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인식이 많이 낮을 것 같다고 예상된다. 다른 지역에서도 설문을 할 테니까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차이점도 궁금하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들이 놀 권리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하며 휴식시간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 시켜 조금이나마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다.</p>		
제출일	2018년	09월	01일

서울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서울 지역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1. 놀이 및 여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2. 아동에게 있어 대학의 의의, 아동의 진로와 대학		
현황 및 실태			

문제점	<p>통계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아동들이 좋은 교육 환경과 경제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행복지수는 매우 낮다. 그만큼 진정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사회구조와 주위 사람들의 시선 등으로 인해 자신의 놀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야기시키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와 대학 설정에서도 스스로 주체가 되기보다는 타인의 압박과 강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은 통계자료와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아동들은 사회적 구조 문제로 점점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나가고 능동적인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제도 설비의 더불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을 파악했다.</p>
제안 내용	<p>아직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재 인터넷상, 여러 통계 사이트들을 통해 또는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통해 확인한 실태현황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고, 우리 모두 이런 부분에서 단순히 하나의 문제가 아닌 총체적인 문제점이라는 걸 인식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 부분적으로 각각 제안 내용들을 고민하였고, 또한 이런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심층 조사,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더 깊고 정확하게 알아보기로 하였다.</p>
제출일	2018년 9월 2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서울 지역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에게 있어 대학의 의의		
현황 및 실태			
문제점	<p>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공부로 인해 자신의 놀 권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중 놀 권리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도 침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 인권에 문제가 된다. 대부분의 아동은 자신의 명확한 꿈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영향으로 인해 대학 그중에 명문대학에 우종진 거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현재 교육 방식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학생이 대부분이며 교육의 목적을 모르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주입식 교육만 받는 것은 교육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어른들은 아동들의 놀이 및 여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이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중 하나인 '발달의 권리' 중 놀이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놀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p>		
제안 내용	<p>·'아동에게 있어 대학의 의의' 설문지에 들어갈 질문 제시함 -대학을 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2. 주변(교사, 학부모)에서 가라고 해서 3. 기타 -전혀 유명하지 않은 대학이라도 나의 꿈과 관련된 학과가 그 학교밖에 없다면 그 학교라도 가실 건가요? (예, 아니오) -원활한 삶을 통계를 위한 성격 제시 (상,중,하) -자신이 그 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 (서술)</p>		
제출일	2018년 9월 1일		

서울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서울	아동 성명	빅○○
활동 주제	놀이 및 여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아동에게 있어 대학의 의의: 아동의 진로와 대학		
현황 및 실태	<p>1. 아이들에게 대학이란 무엇인가? '대학'이란 국내 초·중·고 교육 이후의 교육기관으로 고등교육법 제 28조에 따르면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의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 기관'을 일컫는다. 하지만 최근 과열된 대입 입시 경쟁으로 고등학교, 이르면 중학교 때부터 학생 및 학부모 사이에서 치열한 입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p> <p>2. 실태 최근 교육부에서 새로운 대입 정책을 발표하면서 결과적으로 2020, 2021, 2022학년도에 각각 대입을 치르는 학생들의 상황이 모두 다르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사회에 만연한 명문대 선호 현상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중·초·학원 하층교육의 학교알리미 분석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18개 일반계(일반고·특목고·자율고) 고등학교의 평균 대학진학률은 46.7%를 기록했다. 지난 해(48.8%)에 비해 2.1%포인트 떨어지면서 지난 2010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민립한 서초구도 51.3%로 뒤에서 두 번째를 차지했다. 대학진학을 전국 평균은 77.2%, 서울은 60.7%다. 강남구의 대학진학률이 낮은 것은 높은 재수 비율 탓이다. 상위권 명문대 선호도가 높은 강남구 학생들이 진학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재수하는 경향이 크다는 뜻이다. 진로 현황 항목 중 재수가 대부분으로 추정되는 '기타' 비율의 경우 강남구는 53.0%로 가장 높았다. 반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택한 경우는 0.3%에 그쳤다. 오종은 중·초·학원하층교육 평가 이사는 "강남구는 '수험생 절반이 재수한다'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재수생 비율이 높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의 목표는 대학, 그리고 교육의 중심지라 불리는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을 예시로 들며 국내 대입 실태를 비판했다.</p>		
문제점	1) 대학의 목적성 2) 학생의 인식 현황		
제안 내용	많은 사람들의 인식 개선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철저히 하고, 이후 SNS 홍보 및 피급력 있는 홍보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출일	2018년 9월 9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서울권	아동 성명	연○○
활동 주제	아동에게 있어서 대학의 의의		
현황 및 실태	<p>우리나라 학생들은 "대학은 필수이다."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대학을 가보지도 않은 우리는 왜 "대학은 무조건 필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나 또한 "대학은 일단 가고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고 누구에게서 얻은 정보인 건가? 그것은 바로 어른들과 사회의 문제점이다. 어른들은 "대학은 나와 성공할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지름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강요하며 우리에게 세뇌하게 시킨다. 물론 대학을 가면 취업률도 높고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의 꿈을 알지도 대학의 이름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부모님의 지명으로 대학을 가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이다. 어른들은 "대학 나와서 좋은 곳에 취직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라고 하지만 자신의 꿈을 저버리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 과연 돈이 우리 꿈보다 중요한가? 아직 "대학"이라는 틀에 갇혀나지 못하고 높은 수준의 인제와 공부 잘하는 인재들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직 대한민국만의 슬픈 현실이다.</p>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른들과 사회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동들에게 "대학은 필수"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경고하고 강요하는 게 문제점이다. 대학이 아니라도 자신의 꿈을 향해 자신만의 방식대로 가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다. 또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무작정 공부만 하다보니 자신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 무조건 대학이 인생의 주어진 길이 아닐 때도 불구하고 대학을 나오면 인정받아주는 사회 때문에 우리는 대학의 틀에 갇혀나지 못하는 것이다.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나 외부 축에서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하게 해주어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유적위로 공부만 하는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것을 찾아주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상당이나 진로적성 검사를 통해 자신이 몰랐던 자기 적성을 알게 해주어 공부뿐만이 아닌 적성에 맞는 것을 하게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절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내려놓고 마음 정화를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을 줘야 한다. 		
제출일	2018년 9월 1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서울	아동 성명	전○○
활동 주제	놀이 및 여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아동에게 있어 대학의 의의: 아동의 진로와 대학		
현황 및 실태	<p>대학은 말 그대로 학문적 호기심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이 희망하는 것에 대해 탐구하는 장소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대학의 본질은 잊혀진지 오래이다. 대학을 진학하는 이유에 대해 주변 친구들에게만 물어보아도, 대학에 가서 어떤 과목에 대해 배우고 싶다. 라는 학생보다는 부모님이 원하니까, 대학 못가면 취직 못 한다 등의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다.</p> <p>이런 변질된 모습의 대학은 아이들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들은 대학과 관련되어있고, 입시를 준비하는 중 꿈이 바뀌어도 대학진학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꿈조차 적어보지 못한다. 또, 상상평가가 제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쟁 속에서 같은 반 친구 역시 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 이런 문제는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알고 예뻐 모습으로 뛰쳐 나가야 할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등학생 스트레스를에 대한 조사결과 학생에 대한 스트레스와 성적 걱정이 다른 것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학벌주의와 수직적 속에서 강요되는 스펙은 어린아이들의 놀이권과 행복권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p>		
문제점	<p>초등학생 스트레스 요인</p> <p>■ 학원 다니기 ■ 성적 걱정 ■ 마음됨 ■ 건강 ■ 외로 ■ 친구관계 ■ 기타</p> <p>※자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폭력연구소</p>		
문제점	<p>대학진학의 목적 변질 과도한 사교육 높 권리와 행복권 침해</p>		
제안 내용	각종 예스엔에스를 통해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홍보하고 우리의 권리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		
제출일	2018년 9월 12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서울	아동 성명	최○○
활동 주제	놀이 및 여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아동에게 있어 대학의 의의: 아동의 진로와 대학		
현황 및 실태	<p>반 아이들 대상 아동들의 대학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 우리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당신은 대학에 갈 예정이십니까?"라고 물어 보았을 때 29명 중 3명을 제외한 아이들이 예라고 답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대학을 가는 게 좋은 것이란 생각이 팽배하여 있고, 대학진학이 나의 취업이나 미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어른들의 영향이 크다고 답했다.</p>		
문제점	<p>1) 아동들의 여가와 놀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만연 2)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정책들과 관심의 부족</p>		
제안 내용	크게 볼 때, 먼저 대한민국 아동들의 놀 권리보장을 위해 정부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들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문화와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그 밖에도 우리들끼리 캠페인 활동 등의 소소하지만 사람들에게 감각성을 심어주는 활동을 하거나 페이스북 등의 SNS를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아동인권에 대해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출일	2018년 9월 1일		

서울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서울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아동에게 있어 대학의 의의		
현황 및 실태	<p>아동의 놀 권리 한국 어린이의 평균 야외 놀이 시간 : 34분 미국 어린이의 평균 야외 놀이 시간 : 119분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꼴찌(숙제, 시험, 성적 등으로 인한 것) OECD 국가별 아동의 삶의 만족도 아동의 5대 스트레스 원인</p> <p>단위 : 점, 100점 만점 내용만도 94.2 숙제나 시험 때문에 2.47 아이들한테 90.2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2.30 인터넷 89.8 부모님과 의견충돌 2.25 한국 86.0 대학입시 때문 부담 2.18 프랑스 85.5 부모님에 대한 관심 2.17 미국 84.2 학교 2.15 할거리 82.5 한국 60.3 기타 2.00</p> <p>초중고생 10명 중 7명이 사교육, 초등학생은 10명 중 8명이 사교육에 시달림. => 사교육으로 인한 놀 권리 침해 <여성가족부 통계></p> <p>어른들 대부분은 학생들에게 공부만을 강요하고 놀러 나간다는 말 한마디 쉽게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오고 있음. 실제로 공부 상위권 친구들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단 1명도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이 없었고 놀러 나간다는 말 자체가 눈치가 보여 놓지 못한다는 학생이 대부분이었음. => 우리나라 어른들은 아동들의 놀이 및 여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 아동의 놀 권리 침해 <개인 설문조사 진행></p> <p>아동들의 놀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 중 공부가 아닌 또 다른 이유는 '놀이 시설의 부족'이다. 어린이들은 '집 가까이에 놀이터를 만들어 주세요.', '재미있고 다양한 놀이터를 만들어주세요.', '놀이터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등 여러 개의 놀이 장책을 제안했다. => 놀이 시설의 부족 => 아동의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181701001></p>		
문제점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공부로 인해 자신의 놀 권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중 놀 권리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도 침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 인권에 문제가 된다. 대부분의 아동은 자신의 명확한 꿈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영향으로 인해 대학, 그중에 명문대학에 무조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현재 교육 방식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학생이 대부분이며 교육의 목적을 모르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주입식 교육만 받는 것은 교육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어른들은 아동들의 놀이 및 여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이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중 하나인 '발달의 권리' 중 놀이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놀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제안 내용	'아동의 놀 권리', '아동에게 있어 대학의 의의' 설문지를 각각 약 30장씩 배포 후 설문조사 진행 예정		
제출일	2018년 9월 1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서울권	아동 성명	인○○
활동 주제	아동 여가활동 및 놀이의 부정적 인식		
현황 및 실태	<p>아이들이 여가활동과 놀이시간을 게임에 투자하는 것은 현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게임에 집착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대부분 부모님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보면 자녀가 게임 중독이라며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초등학생 중 게임중독 고위험군은 1.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95%가 중독과는 상관없는 사용자군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학부모님들이 인지하는 것과 실재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은 아이들에게 거위 유일하다시피 한 여가활동입니다. 하지만 사교육으로 인해 이 시간마저도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의 보고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하루 평균 게임 이용시간은 1시간 20분에 불과합니다. 또한, 중앙대서 연구한 '초등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관련 변인' 조사에 의하면 지속적인 정서적 애착, 전반적인 주의 감속, 학업 기대의 수월적 태도, 양육의 자율적 태도 등이 높을수록 자녀가 게임중독에 빠질 확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즉, 계속 신경 써주지 못하고 무조건 높은 성적만 강요하며 강압적인 태도로 키울수록 자녀는 현실에서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게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p> <p>출처: http://hopeplanner.tistory.com/283</p>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여가활동 중 하나인 게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두고 그것을 사교육으로 대체하려는 부모님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이 문제점이다. ● 게임에 빠진 그 원인을 스트레스 해소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절이 없고 공부에 관심이 없어 게임을 한다고 착각하는 것이 어른들의 문제점이다. ● 게임을 하지 말고 높은 성적을 요구하고 부모님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어른들은 너무 많은 것을 학생들에게 요구한다. 		
제안 내용	이제 관한 내용으로 사회를 더 낮게 발전하기 위해서, 상담을 거쳐 진심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또한, 자신의 자녀를 공부로 내리찍지 말고 오히려 칭찬하고 이해하여 스트레스 수치를 낮춘다. 또한, 사교육보다는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자율활동을 많이 가져 스스로 게임보다는 활동적인 활동을 많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서로서로에게 좋을 것이다.		
제출일	2018년 9월 1일		

서울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서울	아동 성명	전○○
활동 주제	놀이 권리		
현황 및 실태	<p>중 고생 81% "학업 스트레스받어" 그 이유 중 "성적" 이유가 1위 중고생 81%가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중학생의 경우 '성적'에 대한 압박감, 고등학생은 부모님이나 주의 시선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mall>국립중앙도서관, 2017년</small>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9년째 '자살' 2007년 이후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계속해서 자살(고의적 자해)이다. 통계청과 여가부가 집계한 2015년 청소년 10만 명당 사망 원인은 '자살'(7.2명) '운수 사고'(4명) '암'(2.9명) 순이었다.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청소년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있다. <small>통계청, OECD통계자료</small></p>		
문제점	<p>공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되지 정확히 모르는데 어영부영 대응 잡아서 최선을 다해 (좋은) 대학에 가길 직접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강요하는 어른들의 조언 아닌 조언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물론 당장에는 꿈이나 확실한 목표가 없더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최선의 노력을 해 최고의 결과를 내라는 사회의 전반적인 압박이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놀 권리를 침해하고, 되려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친다.</p>		
제안 내용	<p>학생의 본분은 공부인 것을 잊지 말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기쁨으로 공부를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의 광명을 바라며 아무런 목적의식 없는 학습을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학생 스스로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학업과 관련된 압박에 의한 스트레스도 줄고 그로 인해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자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학생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교내에서 혹은 교육청에서 진로에 관련된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다양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이나 시야를 확대해 그들이 뚜렷한 목표를 할양하는데 적극적인 일조를 해 그들의 보다 건전하고 행복한 공간 속에서 학습함으로써 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즉시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등과 같은 말들로 학생들을 불안에 떨게 조장하지 마시고 "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남은 시간엔 내가 하고 싶었던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 놀 권리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현실적인 것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p>		
제출일	2018년 08월 31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서울	아동 성명	최○○
활동 주제	놀이 및 여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현황 및 실태	<p>현황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공개한 '아동행복생활지수' 보고서를 따르면, 중학생의 연간 학습시간은 어른들의 노동시간보다 28시간이 높았고, 수면·공부·운동·미디어 4가지 영역에 대한 권장기준을 설정했을 때 4가지 권장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생활을 하는 아동은 100명 중 1명(0.9%)에 그쳤다. 반면 아동 4명 중 1명(24.7%)은 4가지 영역 중 하나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또, 아이들은 학습시간 증가에 따른 수면·운동 시간 감소가 행복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호자들은 반대로 자녀가 적게 공부할수록 더 큰 우울감을 느꼈다. 아동통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3)에 따르면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기를 원하는 아동은 48.7%나 되지만, 실제로 노는 아동은 5.7%에 지나지 않으며 초등학생의 80%는 사교육을 받고(통계청, 2016) 초·중·고등학생의 54.3%는 평일 여가 시간이 2시간 미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중앙일보 <성인 노동시간보다 긴 중고생 공부시간... 우리 아이는 어떻게>, 환경일보 <아동 48.7% '친구들과 놀고 싶어요'> 등)</p>		
문제점	<p>1) 아동들의 여가와 놀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만연 2)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정책들과 관심의 부족</p>		
제안 내용	<p>크게 볼 때, 먼저 대한민국 아동들의 놀 권리를 보장을 위해 정부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들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고,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그 밖에도 우리들끼리 캠페인 활동 등의 소소하지만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활동을 하거나 페이스북 등의 SNS를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아동인권에 대해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 이다.</p>		
제출일	2018년 9월 1일		

전남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남	아동 성명	구○○
활동 주제	중도별거자란		
현황 및 실태	<p>중도별거자란: 청소년에게 국가에서 의사결정이 제한되어 있다.</p> <p>현재 청소년들이 정당지지, 선거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 있다.</p>		
문제점	중도별거의 의사결정이 제한되고 있다.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 인하. 정치 전반에 대한 교육 정치 투표권리 교육 중도별거 전반에 대한 연령인하 		
제출일	2018년 8월 1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남 광주	아동 성명	박○○
활동 주제	청소년 참정권		
현황 및 실태	<p>어른은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권리를 보장받지만 그에 비해 청년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기회가 없다.</p>		
문제점	<p>의견제시나 의견수렴이 힘들.</p> <p>선거권 제한이 있음.</p>		
제안 내용	<p>청년권 행사에 대한 연령인하</p> <p>만 18세 (고졸 이상)로 인하 낮추기. → 투표권과 같은 것을 갖 선거연령 낮추기.</p> <p>정치 전반에 대한 이해와 교육 하.</p> <p>투표권 전향 교육 하.</p>		
제출일	2018년 8월 1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남권역	아동 성명	미○○
활동 주제	청소년 참정권		
현황 및 실태	<p>지금 현재 20살이 넘은 만취세이성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시장, 국회의원 등을 뽑을 수 있는 권리 투표권을 얻는다. 하지만 청년들은 자신의 의견을 도출할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p>		
문제점	인사권력의 자유가 제한적.		
제안 내용	<p>만 18세 이상부터는 투표권을 증진해서 청년들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비목적인데 좋겠다.</p> <p>정치 전반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하면 좋겠다.</p> <p>참정권 전반에 대한 연령인하</p>		
제출일	2018년 8월 1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광주 - 전남	아동 성명	오○○
활동 주제	(어른들 때문에 반정부론을 한다.)		
현황 및 실태	<p>정치 과반을 4개를 1개로 선택하여 토론할</p> <p>공천지역을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CCTV가 없어 표면의 유무 상태를 확인할 수도 없고 CCTV가 있더라도 잘 확인하지 않고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기도 함.</p> <p>(공천지역 (높이더, 아들이 떠는 등))</p>		
문제점	<p>높이더, 길거리, 경차 아들이 다니고 영계 정하는 곳에서 당배를 피우는 어른들 때문에 간접투표권을 만든다.</p> <p>간접투표권은 일반투표보다 더 위험하고 양심의 허위성은 물론까지 배반했다고 느껴졌는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간접투표권은 더 낫지</p>		
제안 내용	<p>공천지역을 늘리는 것 뿐만이 아닌 그 공천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표면의 유무를 파악하고 그 것들을 무시하고 투표하는 어른들도 많기 때문에 벌금이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제출일	2018년 8월 18일		

전북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 정읍시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아동의 보호권		
현황 및 실태	현재 대한민국의 0세부터 18세의 아동은 아동의 보호권(모든 형태의 방임, 학대, 차별, 폭력, 고문, 성폭력 등)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현재 아동(임소년)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조차도 가장 많은 폭력과 차별 등의 문제에 시달린다. 그리고 유치원 교사의 폭행사건, 가슴기 살균제 사건 등 영유아를 향한 사건사고는 현재에도 끊이지 않는다.		
문제점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유해환경 등을 적극 규제하고, 유익환경을 조성해야한다. 그러나 사실상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성범죄 사건, 아동 유괴사건,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된 정책을 다시 한 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안 내용	캠페인 진행 시내 중앙삼거리장과 한국마을의 경기관과 전통선당 2점으로 나눠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기로 함. 구성 o.x퀴즈(한 팀 당 스케치북 하나),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항 등을 설명(한 팀 당 우드락 하나) 후 간단한 퀴즈 진행. 포스트잇으로 주권식 달년 받기(1. 아동은 000이다 2.피해 아동은 보고 난 어떻게 할 것인가)(한 팀 당 우드락 하나, 포스트잇, 펜 필요) 시간 2시간 이내. 만약 활동이 한정량이 끝나거나 준비한 상품(하리보 젤리나 초콜릿 등)이 떨어질 경우 더 일찍 마감할 가능성 있음. 의의 및 목표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아동보호권에 관련된 시민의식 향상을 목표로 함.		
제출일	2018년	8월	25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권역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보호권		
현황 및 실태	아동의 보호권은 우리 사회에서 이전 까지 아동의 보호권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이다. 최근에서야 이슈화 되고 있지만 아직 사회 구성원 대부분 아동의 보호권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관심이 없다. 어린이집 교사와 통학 차량기사등의 철저한 준비 부족으로 목숨이 걸릴수있는 아동이 많이 늘어나 있음.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가슴기 살균제로 인해 독성에 아주 취약한 어린 아동들이 산소통에 의존하면서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 한 뉴스기사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이 밥을 먹는 것을 거부하자 목을 90도로 휘어 밥을 먹이고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 또 가정에서 아동에게 직접적인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을 가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있음		
문제점	사회에서 아동의 보호권에 대해 무관심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가슴기 살균제와 통학 차량에서 질식사로 인해 아동의 보호권에 관한 법과 제도가 없거나 허술해 아동의 생명의 위협이 되고 있다. 또 최근 맞벌이 세대가 점점 증가로 인해 혼자 집에서 나올 때 칼과 같은 흉기나 가스레인지 사용으로 인해 많이 다치는 문제가 생긴다. 학교에서 유괴와 같은 범죄 예방 교육을 미흡시키거나 조금 하여 범죄에 취약하다.		
제안 내용	1.유엔 권리협약을 소개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아동은 보호해야한다는 캠페인을 한다. 2.아동의 보호권에 관한 헌법 조문과 법 등을 소개하고 퀴즈를 통해 아동의 보호권을 자세히 생각할 수 있다 3.일반 시민(연령제한 없음)들이 자신의 아동이만? 그리고 그 이유에 물어보아 아동에 대한 의식을 강화 4.아동의 보호권에 대해 행정부나 입법부에게 하고싶은 말이 나 정책으로 포스트잇으로 작성하다. 5. 4번을 토대로 입법부나 행정부에게 건의한다.		
제출일	2018년	8월	18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지역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 보호권에 대한 현황 알기, 보호권이 안 지켜진 사례 조사 및 문제점 찾기.		
현황 및 실태	'보호권'이란 : 차별, 학대, 폭력, 노동 등과 같은 유해한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아동의 기본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을뿐더러, 보호권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 - 아동 학교 주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사고가 자주 일어남. - 최근,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방치되어 더운 여름 아기가 사망한 사건. - 아동이 안전하게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부족함. - 가슴기 살균제 사건. - 아동학대 사례 신고건수의 끊임없는 증가.		
문제점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할뿐더러,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음. 최근 아동의 보호권이 보장되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제안 내용	지역 내에서 아동의 보호권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과 설문조사 실시. 1. 캠페인 내용 1) 유엔에서 정한 아동의 연령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의 기본권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릴. 2) 아동의 보호권과 여러 사례들을 O, X퀴즈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시킴. 2. 설문조사 1) 내가 생각하는 아동이란 OOO이다. - 사람들의 생각 포스트잇 붙이기. 2) 아동받지 못한 아동들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말, 건의하고 싶은 내용 포스트잇 붙이기.		
제출일	2018년	8월	21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권리에 대해 알기, 기본권중 보호권 중점 캠페인 준비		
현황 및 실태	un 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에서 아동의 보호권을 보장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의 보호권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함(사례) 국내 - 가슴기 살균제 사건, 아동이 이용할수 있는 시설 부족, 최근 경기도 모 어린이집의 차량사고, 아동학대 사건의 증가 해외 - 범죄조직의 아동성폭력에서부터 보호받지 못함, 아동의 교육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 아동 노동취취		
문제점	최근 다수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권리 협약의 유무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수임. 아동의 권리를 침해 하였을 때의 처벌 수위가 낮음.		
제안 내용	+아동의 권리중 보호권에 중점을 둔 캠페인 활동 -일시 : 2018년 9월 15일 토요일 (예정) -장소 : 전북 전주 -목적 : 시민들의 아동의 권리인식 개선과 참여의식 고취 -내용 : -UN아동권리협약, 아동의 권리에 대한 설명 후 o.x 퀴즈 진행 -설문지 배부 -포스트잇에 시민의 생각 채우기		
출일	2018년	8월	24일

전북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보호권, 이대로 안전한가												
현황 및 실태	<p>현재 아동은 권리를 보장 받지 못 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가 특권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동은 존중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거나 방관하며 아동을 미성숙한 존재로만 바라 보는 경우가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 예로는 경기도 평택에서 계모가 7살 아동을 학대하고 길에 버린 일, 부친 20대 부부가 성우 두 달 된 아기를 학대하고 죽게 한 일 등 이외에도 많은 사건이 있었고 이런 학대들로 인해 정서가 불안정한 아동들에게는 심각한 후유증으로 남겨 놓는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신체학대 후유증</td> <td>의상으로 두겨울을 입을 목욕, 휴부, 고지마질, 열방, 화장, 시력상실, 자아-사지인식, 입혀보려 끼친 상처, 발가락이 깨문 상처 등이고 심리적으로는 집에 들어가 싫어하고 낯이 낫다고 하며, 혼자 나가서 놀거나 부수거나 누르거나 때리고 있다고 하며, 학교가부, 학부반 등의 행동장애를 보이기도 하며 두통, 시력부진, 호흡곤란, 날카로운 목소리, 무절음, 거실발달, 공포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td> </tr> <tr> <td>정서학대 후유증</td> <td>낮은 자존감, 발달지체, 자살행동 등을 보이고 고지마질, 열방을 보거나 수동적이면서도 공격적, 도벽, 폭력, 기이, 혼자 있고 놀기 싫어하고 같이 놀려주기도 합니다. 다른 성인들과 한계에서 경감을 보이고 있어 정상 발달이 더 필요하고 후속처리는 노심보장이 필요합니다.</td> </tr> <tr> <td>성 학대 후유증</td> <td>복부통증, 구토, 오도만 갈음, 자살행위, 열방 및 열방, 열방 등이 나타나고 갈음은 계속 질소나 기분을 보이고, 수면장애, 광적적인 자해행위, 조속한 심리치료가 필요하며, 자해, 자살, 자살행위, 열방, 폭력, 그리고 많은 불안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에 보고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기 파괴적 행동과 자살생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보고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처되는 것은 모든 학대 유형 중에서 가장 심한 손상을 입히고 장기적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td> </tr> <tr> <td>법정 후유증</td> <td>영양분으로 신체가 허약하며, 용이하게 다치고 다치고, 모양이 안전하지 않거나, 열방이 나타나서 잘지 않는 것을 보고 다치고, 복고되고 말하면서 간섭이나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하며, 신체적 치료까지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자살을 자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며, 손발톱을 자주 자르고 열방 후 입에 가지 않고 서있거나 열방이 있습니다.</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신체학대 후유증	의상으로 두겨울을 입을 목욕, 휴부, 고지마질, 열방, 화장, 시력상실, 자아-사지인식, 입혀보려 끼친 상처, 발가락이 깨문 상처 등이고 심리적으로는 집에 들어가 싫어하고 낯이 낫다고 하며, 혼자 나가서 놀거나 부수거나 누르거나 때리고 있다고 하며, 학교가부, 학부반 등의 행동장애를 보이기도 하며 두통, 시력부진, 호흡곤란, 날카로운 목소리, 무절음, 거실발달, 공포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정서학대 후유증	낮은 자존감, 발달지체, 자살행동 등을 보이고 고지마질, 열방을 보거나 수동적이면서도 공격적, 도벽, 폭력, 기이, 혼자 있고 놀기 싫어하고 같이 놀려주기도 합니다. 다른 성인들과 한계에서 경감을 보이고 있어 정상 발달이 더 필요하고 후속처리는 노심보장이 필요합니다.	성 학대 후유증	복부통증, 구토, 오도만 갈음, 자살행위, 열방 및 열방, 열방 등이 나타나고 갈음은 계속 질소나 기분을 보이고, 수면장애, 광적적인 자해행위, 조속한 심리치료가 필요하며, 자해, 자살, 자살행위, 열방, 폭력, 그리고 많은 불안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에 보고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기 파괴적 행동과 자살생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보고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처되는 것은 모든 학대 유형 중에서 가장 심한 손상을 입히고 장기적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법정 후유증	영양분으로 신체가 허약하며, 용이하게 다치고 다치고, 모양이 안전하지 않거나, 열방이 나타나서 잘지 않는 것을 보고 다치고, 복고되고 말하면서 간섭이나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하며, 신체적 치료까지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자살을 자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며, 손발톱을 자주 자르고 열방 후 입에 가지 않고 서있거나 열방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체학대 후유증	의상으로 두겨울을 입을 목욕, 휴부, 고지마질, 열방, 화장, 시력상실, 자아-사지인식, 입혀보려 끼친 상처, 발가락이 깨문 상처 등이고 심리적으로는 집에 들어가 싫어하고 낯이 낫다고 하며, 혼자 나가서 놀거나 부수거나 누르거나 때리고 있다고 하며, 학교가부, 학부반 등의 행동장애를 보이기도 하며 두통, 시력부진, 호흡곤란, 날카로운 목소리, 무절음, 거실발달, 공포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정서학대 후유증	낮은 자존감, 발달지체, 자살행동 등을 보이고 고지마질, 열방을 보거나 수동적이면서도 공격적, 도벽, 폭력, 기이, 혼자 있고 놀기 싫어하고 같이 놀려주기도 합니다. 다른 성인들과 한계에서 경감을 보이고 있어 정상 발달이 더 필요하고 후속처리는 노심보장이 필요합니다.												
성 학대 후유증	복부통증, 구토, 오도만 갈음, 자살행위, 열방 및 열방, 열방 등이 나타나고 갈음은 계속 질소나 기분을 보이고, 수면장애, 광적적인 자해행위, 조속한 심리치료가 필요하며, 자해, 자살, 자살행위, 열방, 폭력, 그리고 많은 불안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에 보고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기 파괴적 행동과 자살생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보고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처되는 것은 모든 학대 유형 중에서 가장 심한 손상을 입히고 장기적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법정 후유증	영양분으로 신체가 허약하며, 용이하게 다치고 다치고, 모양이 안전하지 않거나, 열방이 나타나서 잘지 않는 것을 보고 다치고, 복고되고 말하면서 간섭이나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하며, 신체적 치료까지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자살을 자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며, 손발톱을 자주 자르고 열방 후 입에 가지 않고 서있거나 열방이 있습니다.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에 관심이 증가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일어남. - 아동 자랑 방지 등으로 인하여 아동 사망 사고들이 급증함. - 아동학대등 아동의 보호권을 침해하였을 때의 형량이 매우적음. - 친족에 의한 아동 보호권 침해사례 증가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15일 전주 객사 근방에서 UN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의 4가지 권리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 기획 및 물품 제작 - 시민들의 아동 권리 인식 현황 조사를 위한 스티커판과 퀴즈 준비 - 시민들의 아동권리 침해의 해결방안 의견을 모으기 위한 게시판 준비 												
제출일	2018년	08월	24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전주)	아동 성명	김 ○○
활동 주제	아동의 권리-보호권		
현황 및 실태	<p>최근 어린이집 차량에서 아이가 목에 목숨을 잃고 어린이집 내부에서 상상하기조차 힘든 심한 학대를 당하며, 가슴이 살균제와 같은 많은 아동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제대로 된 관리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나는 아동의 권리 중에 하나인 보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p>		
문제점	<p>어린이집 차량의 경우, 현재는 기본적인 보조 고사조차 탑승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이가 혼자 차량에 남을 경우 탈출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방법은 없다. 학대의 경우, CCTV가 있는 것은 잘 하지만 제대로 된 처벌과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많은 이유가 되었지만 가슴이 살균제 사건의 경우 기업의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대로 된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성분 검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p>		
제안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팀으로 나눠서 캠페인 진행 2.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에 관한 내용 설명 후, OX 퀴즈를 할 것 이다. 3. 우리가 직접 퀴즈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물어보게 할 것 이다. 4. 게시판을 만들어 시민들의 생각을 들을 것 이다. 		
제출일	2018년	8월	26 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전주)	아동 성명	문○○
활동 주제	아동의 권리-보호권		
현황 및 실태	<p>힘없는 아동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아동의 권리 침해는 물론 아동들 대상으로 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지만, 아직 아동 권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의식이 낮다.</p>		
문제점	<p>아동 학대 등 아동 범죄가 회재가 되면 관심은 가지나 지속적인 관심보다는 반복 관심을 보이는 시민들이 많고, 아동의 권리 등에 대한 시민의식이 다소 부족한 것 같다.</p>		
제안 내용	<p>다음 달인 9월 15일에 전주 시내(중앙상업광장)과 한옥마을(경기전과 전통시장)으로 두 팀을 나누어 설문과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작했다.</p> <p>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OX 퀴즈 진행한 후 상품을 나눠주으로써 시민들의 흥미를 유발한다.</p>		
제출일	2018년	8월	25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	아동 성명	박○○
활동 주제	과연 아동의 보호권을 잘 지켜질까요?		
현황 및 실태	<p>미취학 아동의 경우에 전북에서의 어린이집을 조사했을 때 '최근 5년간 전라북도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운전자, 교원, 어린이 안전교육 및 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적극적으로 점검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통신학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전북연립신문. 이런 조사결과를 얻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작년 17년에 군산에서 초등학생과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있었고 초등학교에서는 사고 내역이 없었다. 중학생의 경우 물놀이와 목욕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중학교에서는 작년 전주에서 한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시달리다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군산에서 고등학교 통학버스와 화물차가 충돌해 10명이 부상당하였다. 내 역시 자전거를 타고 고속버스터미널에 가다가 승용차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그리고 전국적으로 조사했을 때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들,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많은 사건사고들이 나타났다.</p>		
문제점	<p>이런 현황 및 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아직도 아동들이 위험한 상황과 환경에 노출되어있고 아직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보니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p>		
제안 내용	<p>LENS 전북권역 아이들은 8월 15일에 모여서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전주시 일대에서 하는 걸로 계획하였다. 캠페인에서 알리고 하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기본 4대권리와 여기에 대한 핵심 세부내용을 홍보하기로 하여 우드락에 프린트한 내용들을 잘라 붙였고 포스트잇과 풀펜 그리고 포스트잇 부착판을 준비해서 전북지역 아동들에게 아동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의견을 묻기로 했고 OX퀴즈를 준비해서 전북지역 아동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스캐치북에 보호권에 관련된 질문들을 준비해서 캠페인 준비를 마쳤다.</p>		
제출일	2018년	8월	20일

전북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	아동 성명	왕○○
활동 주제	아동의 보호권(feat.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p>현황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UN아동권리협약 제 31조)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마련하라 (1923년 방정환 어린이 공약, 제 3장) 놀이는 아동의 보호권과도 연결되어 있음. 보호권은 UN아동권리협약에 아동의 4대 권리 중 하나 보호의 권리: 아동은 유해한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p> <p>실태 아동기에 사회구조와 생활환경 변화, 그리고 학업부담증가 등으로 자유롭게 놀 시간과 공간이 축소 됨. 2011년 한국에서 일어난 가슴기 살균제 사건이 대표적. 2016년 평택 아동 임대장 살인사건도 부모에게 갖은 학대를 받은 아동의 피해 사례로 보호권을 심하게 침해함. 아동학대 라는 문제는 보호권 그뿐만 아니라 4대 기본권을 모두 침해하는 사례에 해당.</p>		
문제점	아동의 보호권에 대한 시민의식 부족 아동이 자신에게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		
제안 내용	아동 보호권에 대한 의식 강화 캠페인 진행 아동 보호권 실태와 인식도 조사		
제출일	2018년	8월	26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	아동 성명	왕○○
활동 주제	아동의 권리(보호권)		
현황 및 실태	<p>현황 •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의 권리를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91년에 채택해 명시하고 있다. 유엔 아동 권리협약이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다.</p> <p>이러한 협약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명시되고 있는데도 아동의 권리는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11년 온 국민을 분노케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들 수 있다.</p>		
문제점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제안 내용	캠페인 활동을 벌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사람이 많은 곳에서 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내용 설명 후 OX퀴즈를 진행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기억할 수 있도록 활동한다.		
제출일	2018년	9월	5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	아동 성명	유○○
활동 주제	아동의 보호권		
현황 및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보호권에 대해서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등으로 보호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호권에 대해서 헌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7조, 제30조, 제32조, 34조 등으로 보호하고 있음. -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는 보호권에 대해서 제8조, 제9조, 제22조, 제26조 등으로 보호하고 있음. -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증가함. - 아동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제도적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방안을 마련함.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에 관심이 증가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일어남. - 아동 치방 방지 등으로 인하여 아동 사망 사고들이 급증함. - 아동학대등 아동의 보호권을 침해하였을 때의 형량이 매우적음. - 진척에 의한 아동 보호권 침해사례 증가. 		
제안 내용	<p>9월 15일 예정인 아동의 권리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 기획 및 물품 제작/ - UN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의 4가지 권리 등에 대해 알림. -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 조항들에 대해 알림. - 시민들의 아동 권리 인식 현황 조사를 위한 스티커판과 퀴즈 준비. - 시민들의 아동권리 침해의 해결방안 의견을 모으기 위한 게시판 준비.</p>		
제출일	2018년	8월	20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	아동 성명	이○○
활동 주제	보호권		
현황 및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노동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에서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제때 못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25%, 처음 약속한 것 이외의 일을 한 경험 약 20%, 초과수당을 못 받은 경험은 25% 이상, 심지어 고용주나 상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당해본 경험도 약 9%, 고용주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는 답변이 11%, 맞은 적이 있다 5%, 성희롱·성폭력 경험 있다 3.5% 등으로 조사되었던 기록이 있다. - 학교폭력 전북의 경우 해마다 도내에서 500여 건 이상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2015년 522건, 2016년 589건, 2017년에는 584건으로 3년 동안 1695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이 기간에 피해 학생 수는 2600여 명에 이르고, 가해 학생 수는 2900여 명에 달한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고 암묵적으로 처리되는 학교폭력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중1 여자자 상습 간음전 교사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A)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약 4년동안 중학교에 입학한 지 1년도 안 된 된(B)안 13세)양을 1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점	<p>아동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아동인권침해를 구분하게 받고 있다. 청소년 형법이 적게 받는다. (소년 법)</p>		
제안 내용	UN아동권리협약, 아동의 권리 4가지, 권리에 맞는 헌법 조항을 알리기 위해 전주에서 캠페인을 하기로 했다. 설명과 OX퀴즈를 한 후 포스트잇에 하고싶은 말, N행, 더 알고 싶은 점 등을 마음껏 적어 부착한다.		
제출일	2018년	8월	21일

전북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	아동 성명	임○○
활동 주제	아동의 보호권		
현황 및 실태	<p>아동은 아동 권리 선언, 아동 인권 조약, 유엔 아동 권리 협약 등으로 아동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p> <p>아동의 보호권이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해당하는 4가지 아동권리 중 하나로 아동이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다. 하지만 아동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도 많다. 대표적으로는 가슴기 살균제 사망사건,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통학 차량 유아 방치 사건이 있고 이 외에도 등굣길에 일어나는 안전사고, 가족에 의한 학대 사망 사건 등이 있다.</p> <p>아동 권리에 관련 된 사고가 여러 번 논란이 됐지만 그 후에도 꾸준히 사고가 일어난다.</p>		
문제점	아동에 대한 인식 아동 권리에 대한 경각심 부족		
제안 내용	중심지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설문조사 및 캠페인 등으로 사람들에게 아동권리에 대해 알림.		
제출일	2018년	8월	25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권	아동 성명	임○○
활동 주제	아동 보호권에 대해서		
현황 및 실태	<p>요즘 대한민국 뉴스를 담그는 것은 어린이집 아동 폭력과 차량방치이다. 한마디로 보육교사의 잘못이라고 표현한다.</p> <p>한 포털사이트에는 보육교사는 성장·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있다</p> <p>아동을 보호해야할 권리가 있는 보육교사는 정작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아동을 때리고 물건 다루듯이 아동을 학대하고 있다.</p>		
문제점	어린이집 교사 학대와 차량방치로 인해서 우리사회는 아동에 대해 관심은 조금씩 갖기 시작했지만 아동학대 처벌수위는 지극히 낮다.		
제안 내용	-UN 아동권리 협약에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권역이 맡고있는 보호권에 대해 퀴즈와 포스트잇 붙이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동에대해서 관심을 갖게한다. 포스트잇 붙이기로 나에게 아동은 ~이다와 피해보는 아동을 보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한테 하고싶은말을 적는다.		
제출일	2018년	8월	21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	아동 성명	최○○
활동 주제	아동의 보호권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아동권리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 준비		
현황 및 실태	<p>유엔 아동권리 협약이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협약으로써, 아동은 제 1조에 따라 성년에 달하지 않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정의한다. 아동의 권리는 크게 4가지 기본권으로 나뉘며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이에 해당한다. 생존권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말하며 아동권리 협약에서 제 6조, 제 7조, 제 8조, 제 11조, 제 24조, 제 26조, 제 27조가 해당하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제 10조, 제 14조, 제 16조, 제 35조가 있다. *** 보호권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자해, 폭력, 고문, 징벌, 부당한 형사 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하며 헌법에는 제 11조, 제 12조, 제 13조, 제 27조, 제 30조, 제 32조, 제 34조가 이에 해당한다.</p>		
문제점	<p>아동권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아동권리가 침해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음, 또한 아동권리의 실태에 대해서도 무지한 경우가 많음.</p> <p>- 캠페인을 실시하여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사람들의 인식 도모 및 개선을 목표로 한다.</p>		
제안 내용	<p>- 9월 15일에 전북 전주시에서 행인을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권을 주제로 하는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p> <p>- UN아동권리협약의 정의와 아동의 4가지 기본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우드락에 정리 및 소개</p> <p>- 아동의 4가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아동권리 협약들이 우리나라의 헌법 조항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소개</p> <p>- 아동권리 침해 사례들을 소개</p> <p>- 아동권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스티커 판으로 살펴볼 예정</p> <p>- '아동은 ~이다' 와 같이 아동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써보고 정책을 제안하는 포스트잇을 작성 하도록 함</p>		
제출일	2018년	8월	21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권	아동 성명	한○○
활동 주제	아동의 보호권		
현황 및 실태	<p>UN 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에서 아동의 보호권을 보장하고 있다.</p> <p>하지만 0세부터 18세 까지만 아동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그 사례로는 가슴기 살균제 사건,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지금도 끊임없이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반복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의 강도도 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p>		
문제점	<p>-아동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많다.</p> <p>-아동 권리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낮은 것 같다.</p>		
제안 내용	<p><9월 15일 토요일 아동의 권리 중 보호권을 주제로 한 캠페인 활동></p> <p>객사 중앙살림관장과 한옥마을 경기천과 전통성당을 두 팀 으로 나누어서 진행</p> <p>-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 기본 4대권리와 아동권리에 대해 설명 후 O.X 퀴즈 진행</p> <p>-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들을 모을 게시판 제작</p>		
제출일	2018년	9월	11일

전북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8월 활동보고서

구역	전북	아동 성명	원○○
활동 주제	아동의 보호권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 가		
현황 및 실태	<p>보호권이란 차별, 폭행, 학대, 고아, 난민 등 아동 누구든지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아동학대와 폭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p> <p>-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 폭행사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증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p> <p>이와 같이 아직 우리나라는 아동의 보호권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뿐더러 아동폭행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p>		
문제점	<p>-아동의 보호권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다. -아동폭행의 대부분의 가해자는 부모나 주변사람들이다.</p>		
제안 내용	<p>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캠페인 실시 (o/x Quiz, 포스트잇 붙이기, 설명 및 사진)</p>		
제출일	2018년	8월	22일

제주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놀 권리)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p>아동이 노는 시간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들며, 약 4명중 1명은 하루 중 휴식, 자유시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노는 방법에는 약 3-9세(소꿉놀이, 솔러잡기 등등), 약 10-19세(보드게임, 휴대문-모바일게임,SNS)가 이와 같이 높다.</p> <p>우리가 놀아야 하는 이유는 1시간 가량 즐기는 신체활동이 인식능력과 집중력을 2배 이상 높여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이재훈 재단 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하는 것처럼 아이들 역시 학업과 휴식시간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더욱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p>		
문제점	학기 중에도 꾸준한 학습과 공부를 하지만 방학에도 놀 틈도 없이 놀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의 과제와 숙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놀 시간은 더욱더 부족하다.		
제안 내용	아동들이 학업에 너무 몰두하기보다는 놀 권리, 휴식시간을 아동들 개인에게 맞게 주어졌으면 한다. 과제와 숙제 등을 줄이고, 아동들이 행복감을 느끼며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제출일	2018년	8월	13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p>요즘 아동들이 열심히 살아가느라 놀 시간이 많지 않다. 놀 권리가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기, TV 등을 하면서 놀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교육이 너무 심해 심한 학생들은 학원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밤 12시인 아동들도 있다. 놀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도 아동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공간과 놀이터는 턱없이 부족하다.</p>		
문제점	<p>아동들은 집→학교→학원→집 이렇게 사교육이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빡빡하게 하루 일정이 거의 매일 똑같은 시간에 돌아가고 있다.</p> <p>놀 시간이 있어도 놀 공간과 시설이 부족하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아동, 청소년들은 돈을 벌기 위해 놀권리를 포기한다.</p>		
제안 내용	<p>아동들의 건강과 놀 권리를 위해 밤 10시 이후 사교육 금지 제도 마련.</p> <p>아동, 청소년이 놀 공간을 마련해 무료로 시설 개방.</p> <p>여가 활동 지원비 지원, 청소년 문화축제, 행사 등을 늘리고 많은 활동들을 개최 놀이 시설 공원, 놀이터, 운동장 등 시설 확대</p>		
제출일	2018년	8월	13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고○○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p>제주지역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를 자취를 감추고 있다.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 증가로 입주민들이 심각한 주차난을 겪으면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놀이터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가 하면 놀이터에 대한 안전검사가 강화되면서 관리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철거 절차를 밟고 있다.</p> <p>3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파트 18곳이 어린이 놀이터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을 신청해 현재 다른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다.</p> <p>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르면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놀이터를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행위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p> <p>제주시 지역은 2013년 1곳, 2014년 10곳, 2015년 3곳이 놀이터를 철거하거나 계속시설과 주차장으로 용도를 바꿨다.</p> <p>서귀포시 지역은 2014년에만 4곳이 놀이터를 조정시설과 주차장으로 변경했다.</p>		
문제점	<p>놀 만한 공간이 많지가 않다. 놀 만한 놀이시설과 안전이 갖추어진 시설이 몇 곳 없다. 아동들이 안전하게 놀 만한 곳이 없다는데 애초에 부모님들이 놀러가는 것을 허락해주지 않으신다. 맘 놓고 편하게 놀 곳이 마땅치 않다.</p> <p>노는 시간에 있어서 부모님이 너무 간섭하신다.</p>		
제안 내용	<p>아동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고, 안전한 공간이 많아졌으면 한다. 지역에서 사라져가는 놀이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요청한다.</p> <p>당당하게 아동이 놀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 활동을 한다.</p>		
제출일	2018년	9월	1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p>아동들의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는 놀 시간적 여유가 없기 부족하기 때문이다. 몇몇 친구들은 학교와 학원 일과 때문에 새벽 2시 즈음 잠을 잘 수 없다고 한다. 또 다른 이유는 마땅히 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p>		
문제점	<p>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놀 공간 및 시설이 부족하다. 제대로 놀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p>		
제안 내용	<p>학교 여가시간을 더욱 늘리고 아동들의 복지에 힘쓴다.</p> <p>아동 청소년들에게 지나친 교육 및 다른 무엇을 강요하지 않고, 놀 시간을 보장한다. 아동들이 자유롭게 놀고 여가 및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p>		
제출일	2018년	8월	13일

제주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놀 권리)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 놀이 시설 및 공간은 거의 없으며, 학교 놀이터나 운동장에서 주로 놀이를 함. 2. 대부분 학교에서 놀 시간을 따로 주지 않아 쉬는 시간 빼고는 놀 시간이 없다. 아동들의 하루 일과를 보면 학교가 끝나면 바로 학원을 가고 학원이 끝나면 또 학원을 간다. 그렇게 밤 11시쯤에 집에 돌아오고, 심지어 주말에도 학원을 가서 놀 시간이 없다. 3. 신체적 건강 단련 운동이 필요하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동들은 지쳐있다. 4. 아동들이 놀아야 하는 이유는 감정과 생각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신체놀이가 공격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문제점	아동들이 자유롭게 놀 권리가 침해될 경우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며, 비만 아동으로 성장할 확률이 높아진다.		
제안 내용	아동들이 안전하게 놀 공간을 마련하고, 놀이 시간이 충족될 필요성과 아동이 놀아야 하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한다.		
제출일	2018년	8월	13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박○○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제주지역 놀이 공간(시설)은 놀이터, 학교운동장, 노래방, 트램폴린 등의 공간이 있다. 이와 같은 공간들이 있으나 아동들은 마음 놓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은 줄어들고 있다. 학교 방과 후에 가서 놀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여유조차 없다.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스마트폰 게임이나 SNS를 하는 게 놀이가 되는 현실이다.		
문제점	아동이 놀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방과 후에도 집에 가서도 공부를 하기 때문이다. 부모들의 교육 압박과 교육 수준 향상으로 아동들의 놀 권리는 침해받고 있다.		
제안 내용	공부에 대한 압박감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동들은 왜 놀아야 하는지, 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한다. 학교 수업 중 1-2시간은 꼭 의무적으로 계획을 세워 자유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출일	2018년	8월	13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오○○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아동이 놀아야 하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신체 놀이를 많이 해야 커서는 감정과 생각을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신체놀이가 공격성을 줄이는 역할을 해서 아동한테 좋다. 그리고 아동들이 놀지 못하는 이유는 놀 공간(장소)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놀 공간 주변에는 자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위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해 안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문제점	놀 공간이 적어 신체놀이 등 놀 거리의 부족으로 아동들의 발달과 건강에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제안 내용	안심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하고, 아동들의 행복감을 박탈하는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한다.		
제출일	2018년	8월	13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오○○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이것!		
현황 및 실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아동 청소년의 '놀 권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놀 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 따른 아동의 권리 중 하나로 "협약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34차 최종권해(2011년)에서 한국의 과도한 사교육이 여가와 문화 활동에 대한 아동권리 실현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여가문화 및 오락 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였다(62-63항).		
문제점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협약 당사국으로서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이 지난지만, 아동 청소년의 '놀 권리'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아동 청소년은 더욱 과중한 학업 부담을 안고 있다.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 사교육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놀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을 대책을 마련한다. ○ 가정 : 어떠한 사교육을 받고 언제 놀 것인지를 부모와 자녀가 충분히 대화하고 협상해 결정하는 등 부모와 자녀가 신뢰를 갖는다. ○ 공교육 : 학교 규모에 비해 놀 공간이 부족하고 놀이를 경험한 교사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인데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갖는다. ○ 사회 : 아이들은 어른들 보고 배우기 마련인데, 어른들 역시 안심하고 놀지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과언 얼마나 놀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느냐 규제나 제도를 고민하기 전에 이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 권리를 지킬 수 있을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며, 어른들이 나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한다. 		
제출일	2018년	8월	13일

제주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놀 권리)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윤○○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p>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사걱세) - '영유아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p> <p>사적세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슬기, 사격세 심원번호사 홍민정: 관련 통계와 국제조약 등을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 단계의 사교육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육아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5세 아동의 83.6%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이들의 주당 사교육 이용 횟수 및 회당 시간은 평균 주 5.2회에 달하는게 현실", "영유아 단계의 과잉학습은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UN (국제연합) 아동권리 협약이 명시하는 아동의 발달권, 참여권, 생존권, 놀 권리 등을 침해 할 가능성이 크다." 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4차 국가보고서를 보면 '교육과정의 추가적인 사교육은 아이들을 심하게 불균형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티브뉴스(2017.9.20), "도시아동, 사설 키즈카페 이용률 높아-공공 놀이공간 부족 심각" 조선예류(2018.7.24)</p> <p>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 부연구위원회는 "14개의 지역사회 놀이시설 중 대도시 아동의 사설 키즈카페 연간 이용률은 89.1%, 이용률이 높은 이유-도시 내 이용 가능한 공공놀이 공간이 부재하거나 부족하기 때문,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 71.3%-집에서 놀이, 18.5%-놀이터,공원에서 놀이</p>		
문제점	공공놀이 공간이 부족함. 이른 나이부터의 과도한 사교육. 부모의 맞벌이, 스마트폰 및 게임 중독. 교육부 장관이 교체 될 때마다 그에 따라 바뀌는 교육 정책으로 혼란스러운 부모들.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를 통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늘린다. · 학교 수업일외에도 충분히 좋은 대안에 입학할 수 있도록 교육 입시제도를 개선한다. · PC 아동 청소년 제한 시간제도 같이 스마트폰도 제한시간 제도를 실시한다. · 맞벌이 가정도 한달에 한번은 꼭 가족 간의 만남의 시간과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출일	2018년	8월	19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임○○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우리 주변에는 많은 아동 놀이장소가 있다. PC방, 노래방, 포켓볼장, 탁구장, 학 교 운동장,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공간에서 놀 수가 있다. 바깥 놀이, 실내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지만 시간의 제약과 안전의 문제로 놀거리가 사라지고 있다.		
문제점	아동이 놀 권리, 놀거리, 공간의 부족이 생긴다면, 건강과 발달 문제가 커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능력과 기능의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제안 내용	일상 생활 속에서 놀이시간을 적당히 분배한다. 아동들이 행복할 권리를 알리고 균형 잡힌 놀거리와 공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한다.		
제출일	2018년	8월	13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장○○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전 지역 아동, 청소년 여가 및 미디어 활동 시간이 공부(80%)에 비해 반면 여가(20%) 불과 만족도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판별, 상담 내용 중 장래에 대한 직업에 관하여 부모님의 압박 및 단속 교육 수준 향상으로 인한 학원 및 공부방 이용이 필수가 되었다. 방과 후 놀 시간이 많지 않다. 이로 인해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공감력이 떨어짐. 또 스트레스를 발생할 시간이 부족하기에 공격성이 나타남.(학교폭력, 아동범죄, 자살 등 악순환)		
문제점	부모의 욕심 때문에 아이들의 놀 권리, 시간을 빼앗고 압박한다. 이러한 문제는 아동들의 정서에 좋지 않다는 것을 교육으로 인식시켜야 한다.		
제안 내용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을 위한 놀 권리, 인권 등의 의무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새로운 법안 제시를 고려하고 아동들이 놀 수 있는 환경, 시간, 공간에 대한 현재의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		
제출일	2018년	8월	13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전○○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아동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놀이터, 방방, 학교 운동장 등이 있다. 평균 아동들이 노는 시간 중 초등학생은 약 2시간 21분에 불과하며, 중학생은 2시간으로 초등학생보다 21분 짧았다. 아동들이 노는 방법에는 보드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 아동들이 놀아야 하는 이유는, 맘껏 놀면 창의적인 발상을 하게 된다. 또한, 폭력이나 담배, 술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적으며, 사회성과 인간관계를 늘면서 배우고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 아동들이 웃지 못하는 이유는 공부할 할 분량이 많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차별과 따돌림, 폭력 등으로 인해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다.		
문제점	아동들의 놀이시간 부족과 해야 할 공부의 양이 많으며, 놀 수 있는 공간이 적다. 학교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제안 내용	학교에서 놀이 시간은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공부의 양을 줄이는 제도를 정부에 요청한다. 놀이 시간, 공간, 아동 누구나 놀 수 있는 놀이 시간, 공간, 놀 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아동들의 권리를 찾아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출일	2018년	8월	13일

제주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놀 권리)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조○○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아동들의 평소 놀이 시간은 가장 많았던 시간이 1~2시간, 그 다음은 3시간, 5시간, 6시간이었다. 거의 대부분 아동들은 아침 8시부터 학교에 있고, 가장 늦게 끝나는 고등학교생들은 밤 11시에 끝난다. 이외에도 학원이나 과외 때문에 공부할 하고 나오면 놀 시간은 없게 되고, 놀 시간은 공휴일이나 주말밖에 없다.		
문제점	아동의 권리로 만들어지는 사회가 아닌 어른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에서 아동들은 학업관련 소비하는 시간은 늘어가고 있고, 놀 시간은 감소하고 있다. 숙제와 자습 등은 강요 때문에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제안 내용	학교 수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놀이 시간을 늘린다. 사교육(학원)제한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캠페인 활동을 한다.		
제출일	2018년	8월	18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현○○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제주에 아동이 놀만한 시설이나 장소가 있기는 하나 제대로 된 시설은 몇군데 없다. 아동들은 대략 하루에 6시간 정도 노는데 그 중 2시간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SNS를 하는데 사용한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 공간에서 학업에 얽매어 놀 기회조차 줄어들고, 행복감이 박탈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점	요즘의 아동은 마음 편하게 신나게 놀 기회가 적다. 그 이유가 공부와 학업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학업 성적만이 중요시되어 학년이 높아질수록 내신과 수능을 위해 공부를 더욱 많이 해야만 하는 것이 목표가 되며, 문제점이 축소될지언정 개인의 문제에서 더욱 사회적인 문제로 커져 가고 있다.		
제안 내용	아동의 수업 시간 단축과 숙제나 학교 수업이 끝난 후의 나머지 공부를 옆에 아동에게 자유롭게 놀 시간을 주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또한 놀 권리를 담당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아동들의 권리를 찾아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제출일	2018년	8월	13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현○○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학생 10명 중 6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차 사교육을 받는 아동 수가 증가하고, 사교육을 받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아동이 놀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아동이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놀이터와 공원 등 야외 놀이 공간에서 노는 아동의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문제점	사교육의 증가로 놀 시간이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아동은 스트레스를 풀 수 없게 되고, 사회의 습관을 잘 배우지 못하게 되며, 신체와 정신적 발달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제안 내용	사교육을 할 경우 교육받는 권장 시간을 정하여 아동의 권리를 위한 홍보활동을 한다. 아동이 놀 때 생기는 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아동이 즐길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제출일	2018년	8월	13일

제주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보호권)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들이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현황 및 실태	홍몰러스 가는 길 중 입구가 동굴처럼 생긴 곳이 있다. 그 길은 주민들이 '성인 남성 여럿이 차를 타고 가도 위험한 길' 이라고 답함. 아동(청소년) 10명중 3명은 안전수칙,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모름		
문제점	안전하다고 해도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른다. 아동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제안 내용	위험한 지역에서 벗어나 모든 곳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경찰단속의 협조로 아동 보호권리 캠페인을 진행한다.		
제출일	2018년	8월	13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고○○
활동 주제	아동들이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현황 및 실태	<p>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 숫자가 지난해에 비해 1만3,000여명 늘었다.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399만여명 중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5만여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지난해 3만7,000여명(0.89%)에 비해 0.4%포인트(1만3,000여명) 늘어난 수치다. 학교폭력 응답 학생 수가 전년에 비해 늘어난 것은 2012년 첫 조사 이래 처음이다.</p> <p>올해 조사에서는 특히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높았다.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지난해 2.1%에서 2.8%로 0.7%포인트 늘어났다. 같은 기간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늘어난 데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가 4,092건에서 6,159건으로 50.5%(2,067건) 늘어나기도 했다. 교육부는 "실제 학교폭력 피해가 늘었다기보다 각종 학교폭력 이슈 노출로 인해 '민감성'이 커지면서 피해 응답률이 늘어난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p> <p>학교폭력 피해유형은 언어폭력이 3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단따돌림(17.2%), 스토킹(11.8%), 사이버 괴롭힘(10.8%), 신체 폭행(10.0%) 순이었다. 성추행·성폭행은 5.2%를 차지했다. 가해자는 주로 '같은 학교, 같은 반'(48.5%)이었다. 이어 '같은 학교, 같은 학년'(29.9%), '같은 학교, 다른 학년'(7.1%), '다른 학교'(3.5%) 순이었다. 피해 장소는 교실(29.4%), 복도(14.1%) 등 학교 내부가 66.8%로 다수였고 학교 바깥은 26.6%였다.</p>		
문제점	학교폭력의 경험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은 불안과 수치감, 그리고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인데,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에 시달릴 경우 불안은 공포감으로 발전하고 분노가 더욱 심화되어 표출되기에 이른다. 이에 피해 학생들은 학교 결석, 학교 내 특정 장소의 회피, 가출, 자살 등 회피·절화·탈출의 반응을 보인다.		
제안 내용	아동 체험 공간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과 연극과 뮤지컬등의 예방교육을 한다.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을 만들어가는 캠페인 활동을 한다. 교내와 교외에서 전문 상담프로그램과 교육에 참여 하도록 한다.		
제출일	2018년	9월	1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들이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현황 및 실태	요즘 학교에서 아동들이 공부만 하느라 건강을 챙기지 못해 비만율이 증가 비만으로 인해 성인병, 허리디스크 등의 질환을 가진 아동들이 부쩍 증가하였다. 학교 수업시간에 체육시간은 일주일에 1~2시간 뿐이며,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동들이 뛰놀 시간과 여유조차 없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뛰놀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현실이다.		
문제점	학교 일과 중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 한 번 체육시간 밖에 없음 공공 시설 등 놀 곳이 없어 대부분의 아동들이 주로 PC방에서 놀다.		
제안 내용	아동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학교 체육활동 확대(프로그램, 체육시간 등) 아동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안전하고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출일	2018년	8월	13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들이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현황 및 실태	내 주변 아동들에게 물어본 결과 아동들이 안전하려면 아동들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 권리 중의 하나인 안전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면 이는 곧 다른 권리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동들의 정당한 권리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또한 아동들에 대한 어른 및 기성세대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 시키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문제점	일상생활에서 아동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스쿨존, 가정 등의 환경에서도 별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호등의 수를 늘리자 · 스쿨존 내 안전점점을 더욱 강화 시킨다. · 아동의 놀 공간을 확보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한다. ·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 갖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적극적인 도움으로 기성세대의 인식변화 및 개선할 수 있는 캠페인 활동을 한다. 		
제출일	2018년	8월	26일

제주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보호권)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들이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현황 및 상태	1. 학교주변에서 선배들이 담배를 피고 있고, 문구점과 편의점에는 흡연 금지 않은 불량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을 파는 곳이 즐비하다. 2. 2층 건물 윗타리 같은 곳에 기댔다가 흔들려서 떨어질 위험이 컸던 지역이 있다. 3. 요즘들어 아동들에게는 위험한 장소와 물건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점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공간, 환경 등이 많아지고 있다.		
제안 내용	아동들이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는 방안이 만들어져야한다. 우리 지역 안전 알리미(경고관,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알려 사전에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수칙 등을 홍보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출일	2018년	8월	13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박○○
활동 주제	아동들이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현황 및 상태	제주에는 신호등이 없는 곳이 많다. 아동들이 도로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들이 즐겨 노는 키즈 카페, 놀이터 등은 청결하지 않고, 안전하지 못한 곳들도 많다.		
문제점	신호등이 없는 도로는 아동들이 다니기에 위험하다. 아동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시설 등에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며, 시설이 부실해질 염려가 크다. 아동들이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다.		
제안 내용	아동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며, 아동안전 교육 및 다니는 차량이 안전속도를 지키고 안전운전 준수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한다. 아동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깨끗하고 청결하게 눈에 띄고 안전한 곳에 설치한다.		
제출일	2018년	8월	13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오○○
활동 주제	아동들이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현황 및 상태	가끔 길을 가다 보이면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횡단보도만 있고, 신호등이 없는 곳이 많아 너무 위험하다. 어떤 아동들은 차가 오는데도 그냥 막 뛰어들어서 길을 건너려고 한다. 사고가 날 위험이 커진다.		
문제점	신호등이 없어서 아동들이 다칠 수가 있고, 차가 많이 다닐때는 위험하다.		
제안 내용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 하도록 하며,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 갈수 있도록 한다. 아동들이 보호받을 권리 캠페인을 한다.		
제출일	2018년	8월	13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오○○
활동 주제	아동들이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청소년 흡연)		
현황 및 상태	청소년들의 15.8%가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비율은 중학생 13.2%, 고등학생 18.4%로 고등학생의 흡연 비율이 중학생을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결과와는 흡연 경험을 떠나 지속적인 흡연을 하는 비율로, 현재는 흡연을 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 중 21.7%는 흡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아직까지도 청소년들의 흡연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을 하고 있는 일부 청소년은 하루에 한 갑 이상(10.6%)을 피는 헤비스모커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한 갑 미만(41.8%) ▲ 이틀에 한 갑 정도 (18.4%) ▲ 사나흘에 한 갑 (10.6%) ▲ 일주일에 한 갑 (9.9%) ▲ 하루에 한 갑 - 한 갑 반 정도 (8.5%) 순으로 집계되었다.		
문제점	흡연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34.8%의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응답하였으며, 친구의 권유 34% ▲ 학업적 스트레스 22% ▲ 일상생활에서의 일탈 (8.5%) 로 조사결과가 나왔으나,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 중 부모님이 흡연자인 경우가 76.1%로 나타나 학생들의 흡연 동기가 부모님의 흡연 습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생들이 담배를 구입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서의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대부분의 경우가 담배 판매처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방법으로는 친구를 이용하여 구입하는 경우(79.3%) ▲ 직접 구입(55.7%)으로 나왔고, 특히 담배 판매처 주변에서 대리 구매를 해줄 성인에게 부탁하여 구매한다는 응답자도 31.4%에 달했다.		
제안 내용	- 청소년 흡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처럼 청소년 시기에 접한 흡연은 성인이 돼서 꼭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흡연은 일반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물질 - 특히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에 의해 흡연자에게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는데 청소년들은 아직 신체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흡연에 의한 피해는 심하게 나타난다.		
제출일	2018년	8월	일

제주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보호권)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윤○○
활동 주제	아동들이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현황 및 실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가정지원사업-부모의 맞벌이와 자녀들의 학교-사교육 등으로 가족간의 합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고 가족간의 갈등도 증대됨에 따라 1박 2일 야영대회 운영 2. 아동급식지원-저소득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라날 수 있도록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함 3. 청소년수련관 운영-청의와 인성 함양을 위한 지역사회의 청소년 활동 증진 4. 청소년인문학운영-청소년에게 인문학 교육기회 제공으로 청소년기에 중요한 자아존중감 형성, 진로개척과 건강관 성장에 기여 5. 아동수당 신청-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이며, 지난 6월 20일부터 제주도에만 6세 미만 아동 3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43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있음 6. 제주항공-올해부터 제주도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수도권 수학여행 경비를 전액 지원함 7. 청소년자원봉사회-전국 아동복지시설 12곳에 웃 700벌 전달 		
문제점	유용업소(제주도에 1400여개 유용시설 중 500개 업소-학교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 문구사에서 불량식품을 팔, 정선철원 아동(청소년)환자가 많음.(2027명/서울2328명, 부산2095명 다음으로 3번째), 과장되거나 거짓된 정보가 많아짐(ex:페이스북)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들이 다니는 학원 및 과외의 수 및 시간조사& 문제점 알기 · 아동들이 좋아하는 문화공연/문화체험 개최 · 아동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 아동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침해 등 피해사례를 포스터에 실어 홍보 · 부당한 피해를 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봉사활동하기 		
제출일	2018년	8월	19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임○○
활동 주제	아동들이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현황 및 실태	<p>제주시에만 곳곳에는 공사를 하는 건물들과 도로 등이 많아 아동들이 다니기에 복잡하고 많은 위험요소들이 있는 곳이 많다.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공사 자재들과 그리고, 교통의 이동을과 주차공간부족으로 인해 학교 앞 등 좁은 골목길은 더 위험하여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p>		
문제점	안전불감증이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요소의 확대로 거리를 다닐 때 다칠 수가 있고 차 주차 등의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		
제안 내용	<p>학교 앞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을 철저히 한다. 공사시설주변에 안전판과,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알림 간판 등의 설치를 한다. 우리 지역 안전 캠페인 활동을 한다.</p>		
제출일	2018년	8월	13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장○○
활동 주제	아동들이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아동이 보호 받을 권리		
현황 및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안전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법과 관련된 문제가 너무 허술하거나 지은죄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고 한다. · 개인 슈퍼, 가게 등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 담배를 판매해 아동들이 접할 기회가 많다. · 학교(스쿨존)와 시내에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많지 않고, 도로에 차량이 증가해 교통 체증과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안전하지 못한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 주변 지인들 중 어렸을 적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안전하지 못한 생활을 해 온 사례가 있다.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죄의 무게를 몰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 주류와 담배를 접하게 되면 아동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및 발달에 안 좋은 영향이 크다. · 아동들의 부주의와 판단력으로 사고가 발생한다. · 아동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위험한 행동과 발달로 인해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이 되질 수 있다. 		
제안 내용	아동 복지법 및 청소년법 등을 알리고 범죄예방, 인성 교육을 한다. 아동들에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경찰들의 집중단속이 필요하고, 정부의 시급한 대처 마련 뿐만 아니라 아동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상담소 알림 홍보와 가정폭력 대처 대인법을 알리는 활동을 한다.		
제출일	2018년	8월	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전○○
활동 주제	아동들이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현황 및 실태	<p>서귀포 지역에서 아동에게 위험한 요소는 불량식품이다. 불량식품은 대부분 500원 미만의 가격으로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구입한다. 불량식품 제조성분을 들여다보면 식용 색소 등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이 있어서 무척 위험하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배회하는 사람들을 보면 위험하다고 느껴질 경우가 크다. 안전한 도시, 안전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p>		
문제점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곳은 줄어들지 않고, 아동들이 즐겨 찾고 있으며, 위험한 거리와 환경이 많아지고 있다.		
제안 내용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한다. 불량식품판매금지, 안전한 거리 확보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알리는 활동을 한다.		
제출일	2018년	8월	일

제주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보호권)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조○○
활동 주제	아동들이 안전하려면?		
현황 및 실태	전체 범죄 발생비 제주도 4773.8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작년도 학교 근처에 우연탈, 유해업소, 단란주점, 유해업소 등 불법 영업하는 업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시내에 걸터다니면서도 많은 업소 건물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올해 제주지역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 감소하였다. 하지만 차와 보행자간 사망사고는 지난해보다 25% 증가했다.		
문제점	아동들이 다니는 학교 근처 등에 불법 영업업소, 유해업소가 있으며, 학교근처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제안 내용	- 옐로 카펫 프로젝트!!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가 고안한 보행자 안전지대인 옐로카펫 설치 (여러 초등학교에 이미 설치되어 있지만, 더 많은 장소에 설치) - 가로등 설치(인적이 드문 곳 등), 유해업소 건물 절대보호 구역에 있을 시 처벌 강화, 예방 교육 실시		
제출일	2018년	8월	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현○○
활동 주제	아동들이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현황 및 실태	제주에는 신호등이 없는 곳도 있어 아동들이 길을 건너거나 도로에 차가 지나갈 때 굉장히 위험하다. 또한 가로등이 없는 곳도 있어 밤에 운전할 하면 사고율이 더욱 높아진다. 그리고 아동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도 빈약해서 사고도 종종난다.		
문제점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거나 차를 타고 다닐 때 사고율이 훨씬 높아진다. 또한 차를 타고 다닐 때 신호가 없어 커브를 돌 때에 차가 계속 오면 위험해진다.		
제안 내용	신호등과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설치를 하고, 안전하고 다양한 놀이시설이 생길 수 있도록 제안하고 싶다.		
제출일	2018년	8월	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현○○
활동 주제	아동들이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현황 및 실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2017년에 발표한 '제주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 발표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초기에 발견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아동 학대를 아동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60.6%)과 '아동학대를 가족문제라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57.6%)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아동학대를 보고 조위를 취하지 않는 이유로는 '왕육은 부모의 권한으로 간섭할 수 없어서'(68.2%),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거나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51.4%)라고 밝혔다. 또 초등학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40%가 학대를 받았을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관을 모른다고 했으며, 60%가 신고전화 조차 몰랐다고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당했을 시에 참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이기 때문에'(28.6%), '그 순간만 넘기면 되니까'(17.9%), '신고해도 해결이 안되기에'(7.1%)라고 응답하였다.		
문제점	아동학대의 큰 문제점을 모르는 것과, 어떤 것이 아동학대인지 부모들이 잘 모르는 것이 문제점이다. 사회적 무관심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위험한 요소이며, 아동들이 학대에 가지고 있는 둔감함,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부족한 정보 또한 문제점이다.		
제안 내용	판플렛이나 광고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설명과 신고 방법을 알리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또, 아동들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위치, 연락방법을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알려주며, 아동학대는 해서는 안될 행위이며, 아동학대가 일어날시 해야 하는 행동과 방법 등을 알려준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모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제출일	2018년	8월	13일

충남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유해환경)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충남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개별주제(유해물질) 토의 및 세부사항 조정		
현황 및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철역에서 흡연구역이 공간이 아닌 표지판으로 되어있어 냄새가 그대로 노출됨. -학교 뒤편에서 학생 혹은 교사가 흡연행위를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음 -아파트, 버스정류장과 같은 공공시설에서 흡연행위를 쉽게 목격할 수 있음 -흡연카폐가 편법으로 버젓이 운영되고 있음 -면의점과 같은 담배를 살 수 있는 곳에서 학생이 담배를 사면 징주가 피해받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함. -학교 주변 50m가 금연구역이지만 이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50m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음.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들이 학교 주변이 금연구역인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의 흡연행위를 학교에 알려도 교사들의 교내 흡연행위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거나 경미한 조치만 할 뿐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중,고등학교/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되 교사 혹은 학부모의 인터뷰가 가능하다면 이를 반영한다.(인터뷰는 필요한 것과 할 수 있는 인터뷰를 구분하여 진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의 문항은 8월 25일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설문조사의 내용에는 흡연의 실태, 개인적인 의견, 해결방안, 인식조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으며 초등학교/중,고등학교/교사, 학부모의 설문지 내용을 다르게 한다. - 초등학교의 경우 설문지 중이를 사용하여 통계를 내며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가급적 온라인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태를 파악한다 - 설문조사는 격관식으로 응답하되 정형화 된 예를 표시하여 이해를 돕는다. - 학생이 흡연을 하는 행위, 교사가 흡연을 하는 행위, 금연구역 설정으로 3분야를 나누어 조로 발동하고 9월 정기회의에서 중간점검으로 이를 추합한다. 		
제출일	2018년	8월	19 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충남	아동 성명	신○○
활동 주제	아동 유해환경 (흡연)		
현황 및 실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의 흡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또는 인근 주택가, 학원가에서 청소년의 흡연행위를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음 2) 아동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편의점 징주의 피해가 있고 이로 인한 국민 정심이 올라옴 2. 학교 내에서 교사의 흡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연구역인 학교 내에서 교사의 흡연행위를 쉽게 볼 수 있음. 2) 풀만 사탕이 있는 학생들도 후에 불이익을 받을까 묵인하는 경우가 많음. 3.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앞50m, 역 앞10m등 여러 금연구역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음 2) 금연구역인지 모르거나 정확한 범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자에게 근대한 문화 - 술, 담배 등을 산 청소년도 처벌 미미함. - 아동들이 금연구역 자체에 인지가 부족함.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대처 방안이 없음.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중, 고등학교와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3명씩 3개의 조로 나눠 각자 맡은 분야(학생이 흡연하는 경우, 교사가 흡연하는 경우, 금연구역설정)를 준비한다. (실태조사, 해결방안, 인식조사 등) -설문의 각 문항은 8월 25일까지 완성하여 모든 문항을 합쳐 설문자료를 완성하여 카페에 올린다. -8월 31일까지 수정하여 배포를 시작한다. 이때 세종시의 경우 교육감님의 도움을 받아 세종시 각 학교에 배포하여 교사와 학생의 설문을 받는다. -초등학교의 경우 오프라인을 통한 설문을 진행하고 중고등학교는 온라인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태를 파악한다. -9월 정기회의(16일 예정)에서 전 설문문 마감하고 중간점검을 통해 추합하고 보고서의 방향을 확정한다. 이후 필요한 경우 인터뷰를 준비한다. -10월 정기회의 까지 각자 맡은 부분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출일	2018년	8월	20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충남	아동 성명	정○○ 선○○
활동 주제	아동 유해 환경 (흡연)		
현황 및 실태	<p>현재 많은 아동들이 흡연을 하거나 간접흡연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어른들의 흡연으로 아동들이 간접흡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아동들의 흡연률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이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어른만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경험해보고 다른 아동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니 이 문제점에 대하여 심각성을 느끼게 되어 아동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아동이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인터넷 기사를 통해 좀 더 알아보게 되었다.</p> <p>제목 : 양주 고교생들 흡연... 인근 주민 피해 잇따라 내용 요약 : 양주시 지역 내 일부 학생들이 학교 인근에 위치한 상용빌라 2차 내 12동 사이 골목에서 삼삼오오 흡연을 하고 있다. http://www.joong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5818</p> <p>제목 : 대구경북지역 학생들 흡연-음주 실태 심각 내용 요약 : 대구경북 지역 학생들의 흡연과 음주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사교나 범죄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no=971183&095k</p> <p>제목 : 청소년 흡연을 낮아진다지만...학내-학교별 금연구역 각본이 필요한 이유 내용 요약 : 우리나라 고교생의 경우 평생 흡연 경험률이 남학생은 30.7%에 달한다. 흡연 시작나이가 어릴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올라가 금연이 어려워 짐에 따라 평생 흡연자나 중증흡연자가 되기 쉽다. 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896</p> <p>제목 : 어른들이 아무말도 못하니 '교복' 입고 당당히 '길행'하는 대구 고교생들 내용 요약 :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길 한복판에서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흡연을 하고 있다. http://www.insight.co.kr/news/142858</p>		
문제점	<p>막상 매체를 통하여 찾아보니 다른 기사들에게 묻혀서 아동의 흡연으로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없었고 어른의 흡연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간다는 기사가 많았다. 또한 기사가 있어도 기사의 댓글이 매우 적고 반응이 미미한 것을 보아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흡연과 그로 인해 다른 아동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몇 안 되는 실제 사례들을 기사를 통해 알아보다 보니 생각하던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었다.</p> <p>결거려나 학교 주변에서의 아동의 흡연과 그로 인해서 다른 아동의 놀 권리가 침해가 되는 것과 흡연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아동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흡연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간접흡연이나 단순한 피해뿐만 아니라 중대한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도 기사들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p>		
제안 내용	아동의 흡연률이 낮아지도록 교육 실시 및 학교 내 금연 교육 도입		
제출일	2018년	8월	19 일

충남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유해환경)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충남	아동 성명	음○○
활동 주제	보육권 - 아동 유해환경 (흡연)		
현황 및 실태	<p>유연 아동권리협약4가지원칙 중에 보호의 권리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학문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아동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요즘 사회의 문제이기에 크게 모니터링 주재로 정하였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하여 유해한 환경 중 흡연으로부터 모든 방면으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p> <p>1. 아동의 흡연 - 학교, 아파트 또는 주택가, 상가, 학원 근처 모든 곳에서 청소년의 흡연행위를 쉽게 볼 수 있다. - 아동이 담배를 구입했을 때의 처벌은 모두 편의점 점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2차 피해 발생) 2. 학교 내 교사의 흡연 - 전체가 금연구역인 학교 건물에서도 교사의 흡연행위를 쉽게 볼 수 있다. - 이에 따른 단속조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 3.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 현재 정해져 있는 금연구역들이 무의미할 만큼 흡연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 금연구역의 유무나 범위를 알지 못한다. - 아동에게 간접흡연(2차, 3차)의 위험성이 크다.</p>		
문제점	<p>- 3가지 모두 처벌, 단속,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아우러지더라도 매우 경미하다.) - 심각성과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관하거나 그냥 넘어가려는 경우가 많다. - 대처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p>		
제안 내용	<p>초, 중, 고등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3가지의 실태, 해결방안, 인식조사를 목표로 설문조사 실시 - 각자 맡은 분야 (3.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의 질문을 8월 25일까지 모으고 수정, 피드백하여 31일까지 설문지를 완성한다. - 9월 1일부터 초등학생의 경우 오프라인을 통해 배포하고 중, 고등학생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때 온라인 설문조사는 기프티콘 추첨 증정으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한다.) - 9월 정기회의 전날 설문을 마감하고 회의 때 설문 결과를 취합한다. 그에 따라 보고서의 방향을 중간 점검하도록 한다.</p>		

	<p>- 추가적으로 인터뷰나, 캠페인 등을 필요한 경우 진행할 수 있다.</p> <p>* 최종 보고서를 위한 개인적 추가 보고서 작성 내용 - 큰 주제인 아동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 현재 어디가 금연구역인지 - 금연구역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 범위가 아동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잘 적용되어 정하여진 것인지) - 아동에게 간접흡연(2차, 3차)이 미치는 위험성과 심각성 = 10월 정기회의 전까지 추가 보고서 작성을 목표로 한다.</p>		
제출일	2018년	8월	22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충남	아동 성명	이○○
활동 주제	권역별 활동 주제 정하기 (유해물질 / 유해환경)		
현황 및 실태	<p>유해물질/유해환경 1)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해물질/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여기서 유해물질/유해환경에는 불량식품, 흡연, 음주, 유해사이트, 유해/유중 업소 등이 존재 2) 아동 자체도 유해물질과 유해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음. 그 문제점에 대한 인식부족</p>		
문제점	<p>유해 물질과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사람들의 인식 부족 및 규제 사실인지 부족 -> 학생들에게 노출이 쉬운 범위 내에 존재 ->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물질이지만 이에 대해 관대한 우리 문화 (방문화, 설문화 등등)</p> <p>아동 자체도 유해물질과 유해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잘 느끼지 못함 -> 여럿을 적부터 가족, 친인척, 지인, 지나가는 행인 등등에 의해 쉽게 노출되고 접하기에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인지하지 못함 -> 특정 시간대에만 유해환경을 활동하는 업소들에 의해 유해환경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못하고 있음 (노래방, 24시 주점(선택적 술 판매) 등등)</p>		
제안 내용	<p>유해물질 / 유해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 후, 흡연에 대해 주제를 선정하여 앞으로의 권역활동을 진행하기로 이야기함. 다만, 흡연 중에서도 학교에서의 고내흡연을 중점적으로 주제를 잡아 학생, 교사, 학부모 3파트로 나누어 활동 및 설문, 보고서 작성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내가 맡은 파트는 교사흡연) 인식조사를 위한 고내 교사 흡연에 대한 설문지 작성 (문제점 인식 - 이에 대한 설문지 문항 작성 - 주합 및 정리 순서로 되도록 9월부터는 설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p>		
제출일	2018년	10월	27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충청남도	아동 성명	정○○
활동 주제	놀이 권리에 대해 논의 및 주제 논의		
현황 및 실태	<p>8월 19일 세종시에 있는 새물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고 아동의 유해환경에 대하여 활동하고 정하게 되었습니다.</p> <p>유해 환경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난 후 직접 겪은 사례들이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의견들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온 의견으로는</p> <p>1. 학교 주변에서 교사나 학생이 흡연을 하는 것을 많은 아동들이 목격할 수 있다. 2. 학교 주변 뿐만 아니라 학원이나 놀이시설 같은 공공시설에서 흡연행위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3. 카페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있는 흡연카페가 존재한다. 4. 금연구역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5. 담배를 파는 곳에서 아동이 담배를 사면 파는 곳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가 있었습니다.</p>		
문제점	<p>아동 및 많은 사람들이 금연구역에 대한 인지 부족 학교 주변에서 흡연 하는 경우 매우 많은 흡연으로 인해 아동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줄음 금연구역이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p>		
제안 내용	<p>학생(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3개의 조로 나누어 후 실태조사, 인식조사 등을 할 것이고 8월 31일 까지 설문조사를 마칠 것입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조사, 오프라인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태를 파악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며 9월 회의에서 중간점검을 통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논의를 할 것입니다.</p>		
제출일	2018년	9월	22일

충북 - 모니터링단 8월 활동보고서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충북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놀 권리에 관한 토론과 부 주제 탐색		
현황 및 실태	8월 26일 처음으로 모여서 각 팀원들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왜 이번 아동 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같은 계기들을 소개하면서 시작했다. 처음 만나서 우리는 이번 모니터링 활동의 메인 주제인 놀 권리의 신장에 대해 서로 토론했고 다음 활동을 위한 청주 시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 놀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설문조사와 느낀 점 조사들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서 나왔던 이야기를 대부분이 "나 스스로가 정말 노는 데 시간을 안 쓰고, 놀아도 육체적인 놀이를 안 한다."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며 그로 인해 놀 권리가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느꼈다. 부주제 탐색에서는 소년법의 수위, 선거권 연령 확대, 청소년 노동, 아동학대와 같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나왔다.		
문제점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동들이 자기 자신의 놀 권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경쟁과 학업이 중심인 사회 분위기상 놀 권리 신장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 또한 학생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노는 것이 아닌 SNS를 포함한 휴대폰, PC 게임들로 인해 건강하게 놀지 못함.		
제안 내용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학생들의 놀 권리 인식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여 학생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의 기반을 다질 것이며 설문조사에 응했던 학생들의 몇몇 선정해 자신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인터뷰한 후 학생들이 놀 권리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채우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출일	2018년 9월 21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충북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놀 권리에 관한 토론		
현황 및 실태	아동인권의 사건 사고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걸로 첫날엔 부원들끼리 여러 가지의 내용이 나왔다. 청소년 참정권, 아동 유치원 폭력사건, 소년법 강화, 학교 행사 주제적으로 이끌어가기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가 나왔다. 여러 주제 중 우린 청소년 참정권으로 얘기를 나누었다. 우리 청소년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선거권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배우는 교육과정이나 학교생활을 관리하게 해줄 교육감이 나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을 거 같다. 반대로 이에 반대하는 주장들은 아이들이 소중한 한 표를 잘못쓸까봐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난 이 의견에 대해 투표의 한 표도 나의 권리이고 나의 의견인데 그런 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점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영양으로 존 친구들도 있고 귀찮다고 답안을 하나의 번으로 해서 내는 친구들도 있음 설문조사는 힘들고 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		
제안 내용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이 널리 알려져서 아동들이 알지 못하는 권리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		
제출일	2018년 9월 21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충북	아동 성명	민○○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아동들은 학업으로 인해 놀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함.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들을 사용하며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보냄. 이는 건강하고 건전한 놀이라고 볼 수 없음. 이처럼 아동들은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제대로 된 놀이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없음.		
문제점	아동은 놀 권리가 있음. 하지만 학원, 학업을 문제로 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다수. 또한, 여가시간에도 시설 부족과 다양한 전자매체의 영향으로 건전한 놀이 생활을 하지 못함.		
제안 내용	아동들에게 건전하고 건강한 놀이에 대한 교육 실시와 놀 권리에 대한 교육 실시. 과도한 사고육업을 제한함으로써 아동들의 놀 시간 및 여가 시간을 보장.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충북	아동 성명	송○○
활동 주제	놀 권리에 관한 토론과 부 주제 탐색		
현황 및 실태	8월 26일, 충북 지역 모니터링 부원들과 첫 만남을 가졌고 자기소개를 통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 모니터링의 주 주제인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 간단한 토론을 하였고 그 실태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야기를 했다. 청주 시내 고등학생들의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부 주제에 대한 탐색도 함께 했다. 부원들과 함께 토의를 해본 결과 소년법, 선거권 연령 확대, 청소년 노동, 아동 학대 등과 같은 주제들이 나왔다. 하지만 확실한 부 주제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의견을 통해 부 주제를 정하기로 했다.		
문제점	현재 아동들은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고 나아가 주변, 사회 환경이 놀 권리를 지키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스마트폰의 이용이 너무나도 활성화 되어 있어 실사 논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건강한 육체적인 활동이 아니다.		
제안 내용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학생들의 놀 권리 인식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추후 부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도출된 해결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다.		
제출일	2018년 9월 22일		

8월 활동보고서


권역	충북권	아동 성명	이○○
활동 주제	놀 권리에 관한 토론과 부 주제 탐색		
현황 및 실태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의 놀 권리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설문 조사의 하기로 했다. 청주 지역의 아동들의 놀 권리는 잘 보장되어 있지 않다.		
문제점	뚜렷하고 체계적인 단체의 활동이 많이 없어 놀 권리가 잘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아동들은 공부로 인해 놀 권리를 잘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제안 내용	아동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주려던 좀 더 체계적이고 뚜렷한 단체의 활동이 있어야 한다.		
제출일	2018년 9월 22일		

9월 활동보고서

모니터링단 월별 활동보고서

강원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강원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학교 주변 유해환경		
현황 및 실태	<p>강릉 포남동 및 입암동 주변 학교 근처 유해환경 조사를 위해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어보았다.</p> 		
문제점	위에 나와 있는 사진들 외에도 직선거리 200m 안에 있는 유해환경이 매우 많았고, 특히 강릉명륜고등학교 주변에 여인숙거리가 있을 정도로 심각했다.		
제안 내용	직선거리 200m 안에 있는 유해환경을 다 없애긴 힘들 것이지만, 조금이나마 없애기 위해 민원을 넣거나 200m 안에 유해환경이 들어오면 안인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0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강원도	아동 성명	이○○
활동 주제	학교주변의 유해시설 9월		
현황 및 실태	학교 주변 200m안엔 아동들이 즐겨서는 안 되는 유해시설이 들어서면 안 된다. 하지만 현재 학교 주변엔 술집, 여인숙과 같은 유해시설들이 많다.		
문제점	학교 주변엔 만19세미만 청소년들이 즐기기에 다소 수위가 높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제안 내용	학교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유해시설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학교가 설립 된 후에 들어선 유해시설은 그 유해시설의 업주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려 최소한으로 줄여야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19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강원	아동 성명	임○○
활동 주제	학교 주변 유해 시설		
현황 및 실태	<p>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을 절대 보호 구역,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 보호 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구간들의 시설들을 제한한다는 법률이 있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불법인 시설들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 주변에서는 술집, 성인 나이트 등의 유해 시설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학생들은 유해 시설 사이에서 생활하며 학교 주변의 유해 시설에 대해서 불법이라는 인식을 못 하고 있다.</p>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주변 유해 시설에 관한 법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학교 주변에 유해 시설의 문제점을 인식 못 하고 있다. 		
제안 내용	학교 주변 유해 환경에 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에게 학교 주변 유해 환경에 대한 법률을 많이 알려야 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0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강원	아동 성명	지○○
활동 주제	학교 주변 유해 환경의 실태		
현황 및 실태	<p>학교 주변 유해 환경에는 직선거리 200m 안에 학생들이 접하면 안 되는 요소들이 많았고,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그 요소들을 검토 하였을 때 많은 수의 요소들이 학생들이 접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식에서는 학교 주변 유해 환경이 적다는 인식이 많았다.</p>		
문제점	<p>학교 주변에 유해환경이 많았음. 학생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p>		
제안 내용	<p>유해 환경에 관한 법안을 강화하였으면 함. 학생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였으면 함. 학생들에게 학년 도중 1회 정도 교육을 하였으면 함.</p>		
제출일	2018년 10월 19일		

강원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강원	아동 성명	최○○
활동 주제	학교 주변 유해환경		
현황 및 실태	 <p>이와 같은 시설이 학교주변에 많이 존재해서 아이들이 환경에 쉽게 노출이 되고 있다.</p>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당수의 유흥업소 2. 주변의 유해 분위기 형성(담배등) 		
제안 내용	<p>정부의 제재를 강화하고, 불법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에게는 처벌을 강화하고 그 외에도 시간대를 규정하는 등 타협방안을 빨리 만들었으면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연식을 하게하여 알게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다.</p>		
제출일	2018년 10 월 20 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강원도	아동 성명	허○○
활동 주제	학교 주변 유해환경		
현황 및 실태	<p>우선 영릉고등학교 주변의 여인숙이나 PC방, 담배파는 곳 등 / 술을중학교와 경포초등학교 주변의 술집, 당구장, 노래방 등 다양한 유해환경이 200m안에 접근해 있었다.</p>		
문제점	<p>학교 주변의 술집과 당구장, 노래방, 담배방 등의 유해환경이 다양하게 인접해있으며 법적으로 설정된 구역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만들어졌다.</p>		
제안 내용	<p>법적으로 설정된 구역 안에 있는 유해환경을 차츰 없애거나 설문조사나 캠페인 등을 이용하여 유해환경을 줄여나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었다.</p>		
제출일	2018년 10월 19 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강원	아동 성명	최○○
활동 주제	학교 주변 유해환경		
현황 및 실태	<p>경포초등학교와 택지 일대에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200m 밖 뿐만 아니라 200m 안쪽에도 술집 등 유해 시설이 존재하였습니다.</p>  <p><학교 근처 유해 환경의 모습></p>		
문제점	<p>술집 등 아동 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이 매우 많이 존재하였다. 또한 법적으로 금지된 학교 200m 내에도 술집이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등 밤에는 아동들이 다니지 못할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되어있었다.</p>		
제안 내용	<p>200m 안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곳은 민원을 넣고 그 외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인식 개선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p>		
제출일	2018년 10 월 19 일		

강원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강원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놀 권리 설문조사 (종이설문)을 통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놀 권리가 학업에 관한 문제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였다. 그리고 돈에 관한 문제도 조금 있어 보였다.		
문제점	요즘 놀이시설이 다양해지기도 했지만, 가격이 비싸서 놀이시설에서 놀기 힘든 아이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청소년이 노는 놀이시설에서 안전하지 못한 곳이 몇몇군데 있다.		
제안 내용	청소년 및 아이들이 즐기는 놀이시설은 가격을 낮추면 어렵다 해도, 할인을 자주 해서 아이들이 놀이시설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제출일	2018년	10월	20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강원도	아동 성명	이○○
활동 주제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대부분의 아동들은 놀 권리가 있다. 하지만 요즘 아동들은 학업에 지쳐 대부분 여가시간이 부족하여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점	과도한 학업경쟁과 성적의 중요성 때문에 하루 중일 학원과 과외에 있게 되는 점과 주변에 마땅한 놀이시설이 부족해,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제안 내용	학업경쟁과 성적의 중요성의 부분에서는 현재 대한민국 교육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주변에 마땅한 놀이시설이 없는 부분은 지역개발에서 신경 쓸 수 있다.		
제출일	2018년	10월	19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강원	아동 성명	임○○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아동의 놀 권리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아동들은 많은 학업량 때문에 놀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놀 시간이 생기더라도 놀이 공간이 제한적이다. 주로 피서방, 노래방 등을 이용한다. 이러한 놀이 시설 말고 활동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수가 적고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해 자주 이용하기 힘든 경향이 있다.		
문제점	1. 아동의 놀이 시간이 부족하다. 2. 아동의 놀이 공간이 부족하다.		
제안 내용	부모, 어른들에게 아동의 놀 권리의 중요성은 인식시킨다. 아동들의 놀이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놀이시설의 다양성과 접근성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 놀이시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19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강원	아동 성명	지○○
활동 주제	아동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아동 놀 권리에 관한 현황 및 실태로는 강릉권에서 청소년이 즐길만한 놀거리가 청소년 수련관 및 조금의 놀이터밖에 없고 연극이나 전시회 등 문화예술 관련한 놀거리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락 활동 또한 많은 편이 아니고 아동이 부담하기에는 버거운 비용인 이용시설도 적지 않은 편이었음.		
문제점	놀 거리에 관한 비용 부담이 큰 부분이 있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요소가 적었음. 놀거리가 널리 퍼져있는 것이 아니라 집약적임.		
제안 내용	아동을 위한 놀거리 복지시설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 (비용) 아동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접근이 어렵기에 연극이나 뮤지컬, 전시회 등 문화예술을 활성화하였으면 함. 놀 수 있는 환경을 더욱 널리 분포하였으면 함		
제출일	2018년	10월	19일

강원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강원	아동 성명	최○○
활동 주제	아이들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예전에는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요즘 놀이터 주변을 지나가다가 보면 아이들은 물론 놀이터도 몇 곳 없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아동들의 밝은 표정이 아닌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서 다니는 것을 종종 발견하였고, 주변에서 들어보면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문제점	1.마땅한 시설 부족 2.사고유으로 인한 시간부족 3.사회적 분위기		
제안 내용	아이들의 놀 권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설을 증진시키고,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학교병과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제출일	2018년 10월 20일		

9월 활동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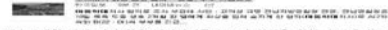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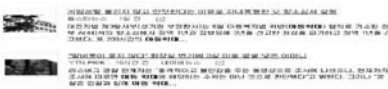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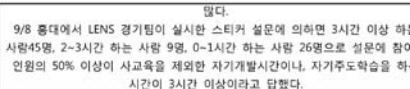

권역	강원도	아동 성명	허○○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및 실태조사		
현황 및 실태	놀 권리 조사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고 대답했다. 이 밖에도 자신들이 잘 놀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고 학원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잘 놀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개선 방안은 "학교나 학교 주위에 운동시설이나 놀 권리를 위한 여가 환경을 만들자"라고 대답하였다.		
문제점	학교 운동장의 발암 물질이나 미끄러움 등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제안 내용	미끄러움 방지 발판이나 발암 물질의 운동장이나 바닥시설을 바꾸자는 해결책이 나왔다.		
제출일	2018년 10월 19일		

9월 활동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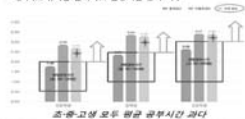

권역	강원	아동 성명	최○○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경포초등학교 근처 놀이 시설과 강릉시 1주공아파트 놀이터, 공원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잘 관리되고 있었지만 아동에게 위험할 수 있는 놀이시설(정글짐 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닥 재질이 딱딱하고 미끄러워 넘어지면 위험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문제점	정글짐 등 아동에게 위험할 수 있는 시설에 위험 표시판이 존재하지 않았고 1주공 놀이터에는 바닥 재질이 미끄러워 눈, 비가 올 시 미끄러져 다칠 확률이 높았습니다.		
제안 내용	위험한 놀이시설에는 안전한 사용법과 위험 문구가 적힌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고 바닥이 미끄럽다는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출일	2018년 10월 19일		

경기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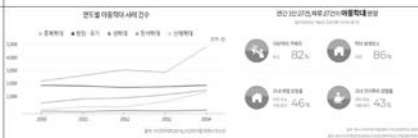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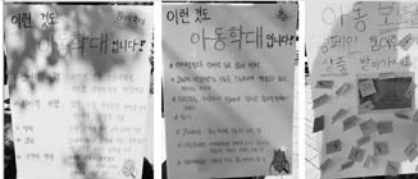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구역	경기	아동 성명	자○○
활동 주제	보로권, 놀권리		
현황 및 실태	<p>나날이 아동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동들의 권리는 점차 잘 보장되는 추세이다.</p> <p>하지만, 아직도 보장받지 못하여 고통받는 아동들이 많다.</p> <p>최근 광범한 아동학대 사례가 하나 보도되었다.</p>  <p>성우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기를 부모가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p> <p>부모들은 아동학대조사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목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화상으로 인해 아이가 숨졌다고 진술 하였다.</p> <p>그 외에도 아래와 같이 많은 아동학대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다.</p> 		
문제점	<p>(보호권)</p> <p>인지도가 낮고,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빨리 식는 경향이 있다.</p> <p>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아동의 보호권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나마 늘어나고 아동위원회 같은 아동들이 직접 배우어 나가기 노력도 한다.</p> <p>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한순간에 시그라들이 아이들 학대당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만 관심을 두고, 사람들은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고 학대를 한 가해자만 징벌하거나 가해자의 형량만 언급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예방을 못 하고 있다.</p> <p>9/8에 LENS 경기팀이 흥대입구에서 실시한 스티커 설문에 의하면, 아동학대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p> <p>(놀권리)</p> <p>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뒤늦게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한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자체의 인지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아 신청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p>		
제안 내용	<p>9/8 흥대에서 LENS 경기팀이 실시한 스티커 설문에 의하면 3시간 이상 하는 사람 45명, 2~3시간 하는 사람 9명, 0~1시간 하는 사람 26명으로 설문에 참여한 인원의 50% 이상이 사교육을 제외한 자기개발시간이나,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고 답했다.</p> <p>LENS 경기팀 페이스북 페이지(Corn CHIP)에 주기적으로 아동의 보호권과 놀권리에 대한 설명과, 침해당한 사례를 꾸준히 올려 사람들의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아동인권에 대한 지식과 필요성을 알릴 것이며,</p> <p>8월에 진행했던 SNS 손글씨 캠페인 "우리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뒤 찾은 해결방안으로 sns 손글씨 캠페인을 더욱 활성화되게 만들 것이다.</p> <p>9/8에 흥대에서 돌아다니며 한 설문의 총계를 정리한 사진을 만들어 학부모들이 볼 수 있게끔 Band나 Instagram에 업로드해서 아동의 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끔 유도하는 활동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p> <p>또한 크릭한 ucc나 4컷 만화와 카드뉴스 같은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에 아동인권에 대한 많은 것을 전하는 것이다.</p>  		
제출일	2018년 09월 11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구역	경기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p>아동청소년 4명 중 1명 매일 놀지 못하는 어린이 있다</p> <p>특히 전체 24.7%는 4시간 이하의 놀 시간은 평균보다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고, 34.7%는 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p>  <p>2018.07.24. 5월 11. 4월 11. 3월 11. 2월 11. 1월 11.</p> <p>"우리나라 아동청소년 4명 중 1명, 매일 놀지 못하는 어린이 있다"</p> <p>2018.07.24. 5월 11. 4월 11. 3월 11. 2월 11. 1월 11.</p> <p>"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4명, 매일 놀지 못하는 어린이 있다"</p> <p>2018.07.24. 5월 11. 4월 11. 3월 11. 2월 11. 1월 11.</p> <p>놀 권리는 아동의 권리이다.</p> <p>위의 자료는 조족우산 어린이 재단의 아동권리자료의 일부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아동들의 공부 시간이 과다함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현재 아동들은 공부시간은 권장공부시간을 넘기고 있지만 기사자료에 따르면 매일 중 1명은 매일 휴식 또는 자유시간이 전혀 없는 실태라고 한다.</p>		
문제점	<p>현재 국내 아동들은 긴 공부시간에 비해 휴식 또는 자유시간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은 놀 시간이 부족하여 놀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진다.</p>		
제안 내용	<p>경기권 모니터링단은 지난 9월 8일 아동의 평균 공부시간을 조사해보기 위해 흥대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3가지의 시간 범위 중 자신이 속하는 곳에 스티커를 붙이면 소량의 간식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총 80명이 참여해주었고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은 것은 45명이 스티커를 붙인 3시간 이상이었다. 그다음으로 26명을 기록한 0~1시간, 마지막으로 9명을 기록한 2~3시간이었다. 활동 후 경기권 모니터링단 페이스북 페이지에 활동 내용을 올렸다. 실태를 조사하면서 알게 된 권장 공부시간 중 초등학교생은 2시간, 고등학교생은 3시간이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3시간 이상에 스티커를 붙인 것을 보고 놀라며 실태를 염으로 직접 느끼게 되었다고 이 깨달음이 나게서 끝나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이번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와 이외에 다른 자료들을 함께 하여 경기권 모니터링단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올릴 계획이다.</p> 		
제출일	2018년 9월 11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구역	경기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보호권		
현황 및 실태	<p>만들어진 캠페인 사진</p>  <p>위의 자료를 보아도 알 수 있듯 시간이 지날수록 아동학대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보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이 많아지고 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가 82%를 달할 정도로 학대 발생장소는 가정이 86%에 달한다. 세상이 태어나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공동체는 아동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며 보호권을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이런 실태이다. 부모에게 아동학대를 당하는 경우, 주위의 큰 관심이 있어야 피해아동을 도울 수 있는데 지난 8월, SNS를 이용해 손글씨 캠페인을 진행해보니 관심과 참여율이 저조하였다.</p>		
문제점	<p>아동학대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크지 않고 보호권에 대한 인식이 적다.</p>		
제안 내용	<p>이번 9월에 경기권 모니터링단은 흥대에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회의를 통해 사람들이 생각해 인지도가 있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종류를 설명하는 글을 작성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세워 놓았고 캠페인에 참여하</p> 		

경기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구역	경기권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 보호권		
현황 및 실태	<p>아직도 아동의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교사체벌이 아동폭력이라는 것을 모르는 교사들이 있지만, 학생들은 학교에서 발생한 따돌림은 폭력이란 걸 알고 있다. 또한, 구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학교에서의 폭력에서는 교사는 학생들의 목을 조르고 사회복무원의 위협이 뒤따라 일어났다. 어린이들도 아는 것을 어른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매우 슬프고, 어른들이 지켜주어야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다.</p> <p>성인 45%, 교사 체벌을 아동폭력으로 인식 못해</p> <p>※교사간 2018/10/15 17:31</p> <p>f t v ... ♪ + -</p> <p>[단독] 특수학교서 또 폭력...“교사가 목 조르고 사회복무요원이 위협”</p> <p>입력 2018.10.15 (19:44) 수정 2018.10.15 (20:09)</p>		
문제점	<p>조사결과를 보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사의 체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질문에 '폭력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17.2%, '보통이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27.6%를 차지해 응답자의 44.5%가 체벌을 아동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같은 학교에서 발생한 '도레로부터의 따돌림'에 대해서는 '폭력이다'라는 응답이 87.6%로 조사대상 대다수가 친구들 간 따돌림을 폭력으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p> <p>서울시내 특수학교에서 잇따라 학생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또 다른 특수학교에서도 교직원인 자매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K8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p>		
제안 내용	<p>세종특별자치시 공립 특수학교인 누리학교에서 지난해 4월 교사 A씨가 자태장애 2급을 가진 9살 김 군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에는 사회복지요원 B씨가 무릎으로 김 군의 가슴을 압박하고, 손목을 거칠게 흔들며 상처를 입히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군의 부모는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다가 직접 목격했다"며, "담임 교사가 원장을 있었지만 전혀 막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학생을 복도에서 질질 끄는 등 아이들을 거칠게 다루는 교사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과 세종시교육청도 김 군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인지했지만, 징계나 법적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p> <p>누리학교 측은 "아이가 먼저 교사를 때리는 등 폭력적 상황을 보여 교육하려다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서를 받았고, 장애인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p> <p>사회복무요원의 폭력에 대해서는 "김 군이 다른 학생 등을 때려 사회복지요원이 순속을 잡고 제압한 것일 뿐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p> <p>세종시교육청은 "김 군에 대한 교사의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면서도 "발생 당시 학교와 학부모, 교사 등이 모여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교사를 무조건 징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p> <p>세종 누리학교는 지난 8월 교육부가 발인 특수학교 실태조사에서 '영호' 판단을 받았다.</p>		
제안 내용	 <p>처음에는 SNS상에서 "우리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 손글씨 캠페인을 하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리기 위해 직접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캠페인을 하였다. 문구를 쓰는 캠페인에서는 약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참여했고, 다른 캠페인으로는 평소 자신의 공부시간에 대한 스티커 붙이기, 아동폭력의 정의와 종류, 아동폭력 중 신체폭력, 언어폭력, 방임 중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악행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신체폭력을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방임 순으로 많은 점을 알게 되었다.</p>		
제출일	2018년 10월 1일		

9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구역	경기권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와 보호권		
현황 및 실태	<p>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이 아동학대이고 아동학대의 종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사례 중 하나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았을 때 아이를 때리거나 선생님의 부주의로 인해 4살 아이가 자방에 오한 시간동안 방치가 되어 숨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다.</p> <p>또한 아동학대는 4가지로 나뉘는데 신체적, 정서적 학대, 성 학대, 방임이 있다. 이 중에서 사람들이 방임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p>		
문제점	<p>8월에 회의를 거쳐 나온 방안은 sns 활동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다. 먼저 느낀 점은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하고 또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이다.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는 나중에 크고 나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폭력성을 나타낼 수 있고 우울증 또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증, 공포증, 난독증, 발표 공포증 이러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단체나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p>		
제안 내용	<p><아동의 놀 권리></p> <p>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과 관심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고 또한 캠페인을 통해 이러한 것도 있다는 것을 알리주기 위해서 흥대 3번출구에서 아동의 놀 권리라는 것을 주제로 하여 아동들이 하루에 얼마나 공부하는 지에 대해서 아동들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p> <p>그 결과 학교에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 평소 3시간 이상 공부를 한다고 답한 사람이 4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0-1시간 공부를 하는 이들이 26명이었고 2-3시간 공부를 하는 이가 9명 있었다.</p>		
제안 내용	<p>또한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하여 sns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더 다양한 설문들과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 존중해주는 날이 오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작은 캠페인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위해 서서히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p>		
제안 내용	<p><아동의 보호권></p> <p>아동의 보호권은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손글씨 캠페인으로 글을 쓰게 하도록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 sns에서도 활동중인 손글씨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 또한 흥대 3번 출구에서 "우리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간단한 문구와 함께 써보으로써 눈으로 읽고 손으로도 함으로써 자각할 수 있도록 하여 실시하였다. 총 50명의 사람들이 참여해주었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종류에 대해서도 피켓에 적어서도 활동을 하였습다.</p> <p>그결과 아동학대의 종류의 신체폭력에 대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는 방임 그리고 언어폭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아동학대를 현장 캠페인을 통해 느끼고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다.</p>		
제출일	2018년 10월 1일		

경기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기	아동 성명	별○○
활동 주제	아동 놀 권리 및 보호권		
현황 및 실태	<p>여전히 유치원 등의 여러 곳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폭력행위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동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성인에 비해 힘이 약하고, 본인의 의사표현이 무시 될 수 있는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성인이 아동을 다루는 행동에 강제성이 조금이라도 포함되게 되면 아동에게 폭력행위로 인지 될 수도 있다.</p>  <p>[연속] '윙크' 친구연말연세도 '윙크'로 윙크할 새옹진대 의뢰 SBS PICK 2월 26일 내미리뉴스 12 <영카> '윙크' 사담 윙크할 새옹진대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대구의 한 유치원에서는 '대통령'을 흉모를 소홀하여 건강과 복지, 발달을 저해하는 것도 방임에 해당한다고 한다. 또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물리적 위험에 방치하는 것, 유기행위 역시 방임으로 분류된다. 방임은 학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무단 결석을 모른 채하는 것 역시 방임이라고 한다.</p> <p>대구결핵TCD병실로 밀치고, 복 보고 앉혀 방치하고... TBC대구본부 2월 26일 12</p>		
문제점	아동의 보호권에 대해 고민하다가 아동폭력 중 하나인 '방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동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방임이란 신체 보호와 정서적 도움 없이 방치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고의적, 반복적으로 보호를 소홀하여 건강과 복지, 발달을 저해하는 것도 방임에 해당한다고 한다. 또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물리적 위험에 방치하는 것, 유기행위 역시 방임으로 분류된다. 방임은 학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무단 결석을 모른 채하는 것 역시 방임이라고 한다.		
제안 내용	<p>홍대 거리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아동 놀 권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길거리 스티커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아동 보호권의 실현을 위해 서명 운동을 실시했다. 그날 홍대 시민 중 45명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학교에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 평소 3시간 이상 공부를 한다고 답했고, 그 뒤로 0~1시간 공부를 하는 이들이 26명, 2~3시간 공부를 하는 이가 9명 있었다. 또한 51명의 사람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었다. 아동폭력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방임' 등을 보기 좋게 정리하여 사람들이 알</p>		
	이 알 수 있도록 했다. 이후 8월에 만든 SNS 페이지에 활동을 공유했다.		
제출일	2018년 10월 20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기(인천)	아동 성명	이○○
활동 주제	'보호권' (아동의 놀 권리와 보호권을 위한 캠페인 진행)		
현황 및 실태	<p>지난 2018년 9월 12일, 경상북도 구미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구미경찰에 따르면 학부모 2명이 '보육교사가 원생들에게 손가락 1개로 여러 명에게 밥을 먹이고, 손가락을 아이 입에 강제로 집어넣는 등 학대를 했다.'며 지난 10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구미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구미시 고아음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다는 고소가 접수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7명을 20여 차례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기도 했다." _인용 허영환포스트 '경북 구미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진우 기자</p> <p>또한, 어린이집/유치원 통학 버스 등에서 주의 부족으로 인해 아동이 높은 온도 속에서 사망하는 일도 매해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월 18일 어린이집 차량에서 7시간 방치된 아동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서울시를 시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p>		
문제점	<p>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비롯한 친/양부모의 아동 학대 등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체적 폭력, 성적 학대, 방임을 비롯한 각종 학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 조치는 불충분한 실정이다.</p> <p>더불어, 아동 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캠페인을 진행하며 느꼈던 것은 '방임'이 학대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어떤 성인도 '방임이래?'라고 하시며 웃고 지나가기도 했다. 해외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어른이 없는 곳에서 아이 혼자 노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는 국가가 상당하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않고, 그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부족하다.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행복하게 뛰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제, 개정과 더불어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p>		
제안 내용	<p>아동 보호권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홍대입구에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지난 8월 SNS (페이스북 LENS 경기권 모임 "Com CHIP" 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손글씨 릴레이 캠페인에서 더 확장시킨 오프라인 캠페인으로, 아래 사진과 같이 "우리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작성하거나, 동감의 의미로 서명을 요청하는 캠페인이다. 총 50명이 참여하였다. (용량 문제로 사진 첨부 불가)</p>		
제출일	2018년 9월 26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기권	아동 성명	이○○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와 보호권		
현황 및 실태	<p>요즘,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나 기사가 하루도 마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온다. 통학 중 버스에서 방치되어 죽은 아이에 대한 사건부터, 부모에게서 학대되고 폭력당하는 아이에 대한 사건까지 회향을 풍어아 하는 아이들에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p>		
문제점	<p>문제점은 이전 아동학대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동학대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아동학대의 종류에 방임이 있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잘 모른다.</p>		
제안 내용	<p>1. 아동의 놀 권리 - 아동의 평소 공부시간을 알기 위해 팜플렛을 제작해서 홍대에서 '평소 당신의 공부시간은?'이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 결과 응답자 80명 중 3시간 이상이 45명, 2시간~3시간이 9명, 0~1시간이 26명으로 3시간 이상 공부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 활동 때에는 ucc 나 카드 매체 등을 이용하여 놀 권리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보도하였으면 좋겠다.</p> <p>2. 아동의 보호권 - 이번 달에는 보호권 중에서도 '아동 학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캠페인도 실시했는데 다음 활동 때에는 다른 종류의 보호권에 대해 하면 좋겠다.</p>		
제출일	2018년 10월 12일		

경남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1. 10명의 학생들에게 "인권조례를 아느냐?"고 물어보았, 10명 중에 10명이 모른다고 답했다.</p> <p>2. 학생인권조례 반대 세력의 의견을 조사해보았다.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가 있다.</p> <p>① 학생들이 자유와 방종을 혼동할 수 있다. 적절한 규제와 규칙이 있어야 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p> <p>② 동성애 관련 조항이 문제가 된다. 그렇지 않아도 전체 중고생의 대다수에게 동성애는 올바르다고 학습하여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했는데, 동성애 행위를 아예 조례로서 허용하게 된다면 더욱 문제가 될 것이다.</p> <p>③ 임신, 미혼모 관련 조항이 문제가 된다. 인권조례가 통과된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임신을 허용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임신한 학생이 몇몇이 등록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문제가 있다.</p> <p>④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지역에서는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도, 화장을 해도 학생이 인권으로 보장해 선생님이 건드릴 수 없는 폐해가 있다.</p>		
문제점	<p>1. 학생들이 인권조례의 의미와 존재를 잘 모른다.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도 빠지도 무의미하다는 의견.</p> <p>2. 학생인권조례 반대세력의 주장에는 비단 아동인권만이 아니라 동성애, 미혼모, 청소년 임신 등의 다소 무거운 사회적 논쟁거리가 포함되어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에 대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p>		
제안 내용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 학생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학생들도 반대하는 인권조례라면 제정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인권조례의 존재조차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때 더욱 문제가 된다. 인권조례를 알리는 캠페인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 같고,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인권조례 조항들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다.		
제출일	2018년 9월 29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권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8월보고서처럼 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이다.</p> <p>9월 달에는 학교선생님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다. (선생님들의 스케줄상 2가지 질문밖에 하지 못하였다)</p> <p>첫 번째 인권조례에 대해 알고계시나요? 라고 물었을때 4명은 알고있다고 하였고 3명은 들어보지않았다고 했고 나머지 3명은 모른다고 답했다.</p> <p>두 번째 인권조례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인데요. 조례중에 휴대돈, 모발, 등의 자유가 나오는데 인권조례가 실행되는 것에 찬성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7명이 찬성 3명이 반대하였습니다. 찬성할 이유를 물어보니 학생들에게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분들이 많았습니다. 반대한 사람은 휴대돈이나, 모발을 자유롭게 한다면 수업에도 집중이 안 될뿐더러 더 성적이 낮아질 수 있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주셨다.</p>		
문제점	학생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인권조례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다.		
제안 내용	앞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더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인권조례에 대해 알고 학생들이 더 인권이 보장되면 좋겠다.		
제출일	2018년 9월 29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인권조례도 또한 가까이에서 우리 도래의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직접 교실에서 5명의 친구들에게 인권조례에 대하여 물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시험기간이라 조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인권조례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친구는 1명뿐이었습니다. 2명은 인권조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2명은 인권조례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권조례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인권조례에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4명은 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1명은 필요하지 않으니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p>		
문제점	인권조례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해본 결과 인권조례를 제대로 알고있는 학생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안 내용	인권조례의 방문조사에서도 보면 인권조례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인권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교육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출일	2018년 9월 29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권	아동 성명	류○○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인권조례는 8월 보고서에도 있듯이 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이다. 그리고 진정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진정서, 선생님 만족도 조사 등이 있는데 익명성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특히 선생님 만족도, 학교 만족도, 다 행복 만족도 조사 등은 익명성이 더욱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p> <p>1992년부터 1994년까지 서울의 ◆◆여자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지금온 ◆◆고등학교로, 남대공학교로 통합되었습니다). 명예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곳은 남고였습니다. 남고는 그냥 ◆◆고등학교인데 여고는 이름에 '여자가 들어가는 게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p> <p>대학에 가고, 졸업하고 중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성남의 ○○여중에서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그 학교가 옆의 학교와 통합되어서 창성중학교로 바뀌었습니다(남자 중학교가 당시에는 ○○중학교라는 남자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남학생들이 다니는 중학교는 '○○남중'이 아닌 '○○중학교'였는데, 여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여자중학교'라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p> <p>아직도 언론, 매체에서 여중, 여고에 대한 여러 이름이 나올 때마다 '남녀차별'에 대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학생만 다니는 학교는 'OO여자중학교', 'OO여자고등학교'라고 하면서 남학생만 다니는 학교는 그냥 'OO중학교', 'OO고등학교'라고 하는 건, 남자가 우선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남학생만 다니는 학교는 'OO남자 중학교, 고등학교'라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p> <p><i>[출처] 중등학교 명칭에 관한 권위권 진정서 제출(작성진 신타이) 이와 같이 당당하게 진정서를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학교폭력과 선생님 만족도 조사등 이런 사실을 진정서로 알릴 때는 자신이 적은 내용이 밝혀져 가해자에게 더 괴롭힘을 심하게 당하거나 선생님이 그 진정서를 쓴 학생을 싫어해서 안 좋은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는 진정서가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장점으로 안 좋은 우리 생활을 좋게 바꿀 수 있다.</i></p>		
문제점	진정서의 익명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삶이 고독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제안 내용	정부나 교육청에서 진정서의 익명성을 다른 것보다 더욱 강하게 바로잡으면 좋겠다.		
제출일	2018년 9월 일		

경남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류○○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학생인권조례 거리 캠페인을 위한 굿즈 제작 조안 수정</p>  <p>원래 금속벨지를 제작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문제로 스티커로 수정됨</p> <p>인권조례 관련 광고 포스터 ; 제작 중, 안에 수록될 내용 결정에 논의 필요</p> 		
문제점	-		
제안 내용	-		
제출일	2018년	9월	30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권	아동 성명	심○○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경남권에서 계획한 교육감님 인터뷰를 위해 질문을 만들어 여러 가지 조사를 하던 중에 학교 도서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인권 에세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책에서는 인권조례 같은 내용도 담고 있었는데 특별권력 관계론을 설명하며 19세기 독일의 입헌 군주제에서 현재의 사제 권력과 닮은 점을 찾아 질문으로 설명 할 수 있었다.</p> <p>* 전국의 여러 학교에서는 학교 제각각의 다양한 규정들이 존재 합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어길시 예는 학교 나름의 처벌을 내리기도 하지만, <세계인권선언> 26조 2항은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기의 인격을 발전시키고 사람의 권리와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인격과 권리가 존중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다양한 규정들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으며 인격 발전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제 간의 특별한 권력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관점인 특별권력 관계론은 19세기 독일의 입헌 군주제에서 군주와 시민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디. 군주라는 특별한 권력을 통해 시민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를 학교에서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교사에게는 일정한 권력이 부여되고, 학생의 기본권은 일부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교사와 학생은 서로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규정들로 인해 우리의 권리를 일부 제한 받습니다. 교육감님들은 우리의 이러한 학교의 규정들이 학생에게 꼭 필수적이어야 하는 것 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p> <p>내가 생각했던 이 질문을 통해서 경남지역에서 인권조례를 실시했을 때의 고려해야할 점 중 하나인 규정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권리를 억압받는 부분들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p>		
문제점	인권조례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의 학생들은 아직 많은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제안 내용	학생과 교사 간에 서로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해주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권조례를 실시하여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출일	2018년	09월	30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박○○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만약 모든 학교의 학칙이 학생의 권리를 잘 보장한다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 중 학생 인권을 제한한다고 생각되는 것과 학칙이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p> <p>학교 전교 회장과 전교 부회장 각부 부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학생회에서 이를 개정 중이라고 하였습니다.</p> <p>제38조(두발) ① 두발은 학교 구성원(학생, 교원, 학부모)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학교 구성원 중 학생이 명시되어있으며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의견을 물었으나 변함이 없는 것은 여전하므로 이는 학교 구성원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② 두발은 자연색을 유지해야 하며 기타 염색, 왁스 등의 사용 형위는 금지한다. =>두발의 자연색으로 학칙에 명시되어있으나 특별 죽 염색만을 자연색으로 보고 갈색 머리카락을 가진 학생에게 특별로 염색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두발의 색과 모양을 제한해 개인의 개성을 가꾸는 자유권이 침해된다. 또 학교는 민주적 사고력을 교육하는 곳이다. 민주적인 학생으로 교육하는데 두발 제한은 옳지 않다.</p> <p>제39조(용의복장) ② 체육복의 착용 여부 및 디자인 결정 등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 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체육복 및 교복의 디자인을 결정 할 기회가 있었으나 학생의 투표결과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 ③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교복 위에 기타 의류(외투, 목도리, 스카프 등)를 착용할 수 있다. =>겨울 체온유지를 목적으로 교복위에 입는 외투를 급식소 내에서 반입하다는 이유로 제한 받았다.</p> <p>제41조(신발 및 가방 등) ② 실내화(슬리퍼 등)는 학교에서 규정된 =>흰색 실내화 또는 삼색신 슬리퍼/짙은 남색 바탕에 흰색 선 혹은 흰색 바탕에 검은 선) 것을 착용해야 하며 고내 허용지역(운동장 및 진디관 제외)에서만 착용한다. =>신발의 디자인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면서 학생의 신발(실내화)에 대한 선택권과 개성권을 침해한다. 제43조(통신기거) 1. 등교 후 학교(급)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 하고 후에 개인이 소지한다. =>학생 개인의 통신권을 침해한다.</p> <p>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직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동일한 득표수에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것은 평등하지 못하다.</p> <p>제5장 운영위원회 제2절 운영위원회 제25조(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1명), 부회장(2명, 남녀 각각 1명), 각부 부장(7명)으로 구성한다. 제45조(입후보 자격)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회장 1명, 부회장 2명은 남 , 여학생 각각 1명씩으로 제한한다. =>부회장의 성별을 남녀로 나누어 선출하는 것은 양성평등에 어긋난다.</p>		
문제점	학칙 중 일부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받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된다. 또 학칙을 직접적으로 찾아보는 학생이 거의 없어 사고가 발생한다면 학생은 학칙을 어기게 된다. 이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제안 내용	학생 대다수가 인권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학칙, 학생인권조례를 찾아보지 않아 학생이 개정, 제정에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먼저 학교에서 학생이 인권에 관심을 가질만한 캠페인을 실시하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학생이 학칙, 학생인권조례 개정, 제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출일	2018년	9월	29일

경남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박○○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활동 계획서를 토대로 9월달 나(박태욱)이 제작중인 학교의 5분의 1이상(134명 이상)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생각보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것을 설명하러니 9월달이 2학기 시험기간 준비기간이라 대다수의 학생들이 거부 의사를 표현함. 유감스럽지만 이러한 이유로 9월달 이전의 소식은 8월 활동보고서에 다뤘으며 이번 9월달의 대한민국 곳곳의 학생인권조례 관련 소식을 다루고자함.</p> <p><9월달의 대한민국 곳곳의 학생인권조례 관련 소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 학생인권조례 TF, 9월 5일 오후 2시 제주시청 옛 버스정류장 일대에서 '학생인권침해 알리기 길거리 캠페인' 전개 2. 경기도의회, 학원 시간 '밤 12시' 연장 추진...교육계 반발 3. 박종훈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학교폭력 줄이는 데 기여할 것', '학생인권조례는 미래교육의 출발', '공론화 거쳐 다들겠다.' 4. 경기도의회, '학원 수업시간 연장' 조례 포기...이유는 거센 반발에 부딪혀 5. 장성욱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원할 때까지 않을 것' 6. 박종훈 교육감의 확정이 안된 학생인권조례 홍보...도민들 분노 7. 경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공개 브리핑 8. 경남교총 '학생인권조례 제정 즉시 중단할 것' 9. 경남도내 청년단체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경남교육 개혁 신호탄' 지지. 10. 조희연 교육감 '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열석, 파마도 허용' <p>위의 현황 및 실태를 통해 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다. 진보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의 '인권' 단어만 내놔도 보수단체, 일부 도·시민들이 분노를 표한다. 그리고 진보단체, 청년들은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 이러한 어느 교육감이 무서워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힘을 쏟겠는가 의문이다.</p>		
문제점	위의 현황 및 실태를 통해 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다. 진보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의 '인권' 단어만 내놔도 보수단체, 일부 도·시민들이 분노를 표한다. 그리고 진보단체, 청년들은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 이러한 어느 교육감이 무서워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힘을 쏟겠는가 의문이다.		
제안 내용	중앙정부와 인권위가 함께 힘을 합쳐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중재를 해주어야 한다고 느낀다. 즉 예를 들자면 새 집을 분양받아 들어왔는데 시공상태가 엉망이라 시공사의 분쟁을 벌일 때, 정부가 중재를 해주자는 것이다.		
제출일	2018년 09 월 29 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권	아동 성명	안○○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누구나 동등한 특권과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무시되어 왔으며 차별과 폭력, 인격적 무시를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러한 사회의 변화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학생인권을 법으로 제도화 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되었으나 대부분 법제화 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적 차별에 대한 논쟁으로 인하여 학생인권 문제가 새롭게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2010년 9월 17일 경기도 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10월 5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p>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들의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체벌제도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2. 교권이 추락합니다. 최근 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건들 중 하나가 바로 '고사에게 대들기'입니다. (체벌하려고 해도 육체적인 처벌은 금지 되어있고, 심한 처벌을 한다면 학부모들의 비난 때문에 학교의 이미지에 심한 피해가 갈 수 있다.) 		
제안 내용	학생들에게 필요한 인권교육을 시켜서 권리를 누리는데 것이 아니라 의무를 지키게 한다.		
제출일	2018년 09 월 30 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권	아동 성명	이○○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경남 도내 진보성향 시민과 교육단체 등이 모여 경남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 촛불시민연대를 출범했다. 경남 촛불시민연대는 19일 오후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체벌과 폭언, 두발 복장 규제, 소지품 검사와 입수, 성적 차별 등 인권침해는 학교 안에서 여전히 쉽게 마주할 수 있는 통찰'이라며 "이런 학교에서 학생들은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p> <p>그러면서 "학생 인권침해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경남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며 "조례 제정은 청소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했다.</p> <p>이 단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촛불 정신 아래 학교 안 폭력과 인권침해를 끝내고자 한다"며 "교육의 이름으로 학생을 존엄을 짓밟는 일이 사라질 때까지 함께하겠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있는 학교를 위해 지금 당장 조례 제정하자"고 덧붙였다.</p> <p>앞서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 학생위원회 등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p> <p>이들은 "일각에서 조례를 '생활 교육 포기 조례안'이라고 표현한 데 충격을 금치 못한다"며 "시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제한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행태는 권위주의 교육 부활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지적했다.</p> <p>출처:경남일보 사회 종합부 김민중 기자</p>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남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 2. 박종훈 경남 교육감은 지난 8월 24일에 경남교육청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통해 학생 인권 조례 제정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려 했지만 이 또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 정확한 의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제안 내용	3. 경남에서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이 자주 늦춰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인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다.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 자세히 알고 필요함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수가 아닌 소수에 불과하였다.		
제안 내용	인권 조례에 대해 아는 사람이 소수가 아닌 다수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소개와 필요성을 학교 측에서 성과교육과 자살 예방 교육 등과 같은 형태로 적극적으로 강연을 실시하면 좋을 것 같다.		
제출일	2018년 09 월 25 일		

경남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이○○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아동 인권조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는 다음처럼 나타났습니다.		
	아동 인권조례를 알고 있는가? 인다(57%) / 모른다(43%)		
	아동 인권조례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0%) / 아니다(100%)		
	아동 인권조례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서술) [가장 많은 답변이 나온 의견 TOP 3] - 학교 야간 자율학습 - 학교 규정 - 휴대전화 사용		
현황 및 실태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인다(68%) / 모른다(32%)		
	인권조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서술) [가장 많은 답변이 나온 의견 TOP 2] - 인권보장을 위해서 -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		
	= 설문 조사를 통해 현재 인권조례에 대해 모르는 친구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권조례가 올바르게 이뤄지지 않아 불만을 가진 친구들은 하루라도 빨리 아동 인권조례가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나 또한, 우리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 할 것 이다. 아동이 인권을 보장 받고 무시 당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하기]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는 국가 기관 으로 인간의 권리를 보장 해주는 인권 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일은 인권관련 정책연구와 개선권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조사 구제, 교육과 홍보, 국내외 교류협력 등 여러 업무를 하는 곳 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 민권시민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 2001년 11월 25일 설립되었다. 유엔은 1946년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권장하였으며, 1993년 유엔 총회에서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채택하면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본준칙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국내 인권시민단체가 인권기구 설립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고, 1998년 정부가 인권기구 설립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하면서 인권기구 설립 추진이 현실화되었다. 이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고,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위원회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참석하는 상임위원회,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로 나뉘어 운영한다. 위원회는 준국제조사법적인 인권전담기구로서 정책, 조사구제,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먼저, 정책업무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관련 법령·정책·관행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다. 또한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조약의 국내이행에 대한 연구, 권고 등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인권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법률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둘째, 조사구제업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이 당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인권침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서비스업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조사할 수 있다. 차별행위는 국가기관 등은 물론 법인·단체 또는 사인에 의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종교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 재와·용역의 공급이용,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차별을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장애인차별과 연령차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와 구제를 한다.	
셋째, 교육·홍보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 해당된다. 넷째, 국내외 협력은 인권단체와 기관,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 등과 교류협력을 통해 인권보호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설립되어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이중적이고도 특수한 성격을 지닌 독립 국가기관이다.	
[내이버 지식백과]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國家人權委員會] (두산백과)	
= 국가인권위원회를 직접 조사하고 알아보니 내가 생각 한 것보다 더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었다. 또한 이런 인권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 아동의 인권 또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시점 아동들의 인권조례의 심각성을 느끼고 우리가 보장받아야 할 인권을 지켜내야 한다.	
문제점	- 아동 인권조례로 침해당하는 사건이 많다. - 인권조례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도 다수 존재한다.
제안 내용	인권조례가 빠른 시일 내로 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한다.
제출일	2018년 9월 29일

경남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최○○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지난 8월 활동에 따르면 인권조례를 아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 인권조례를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인권조례에 대한 설명과 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의 사례를 알리준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학생들이 인권조례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인권조례에 바라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수응답)</p> <p>강제 보충 혹은 자습 금지(88%), 휴대전화 자유(78%), 용모자유(43%), 체벌금지(21%), 어떤 상태든 존중받을 권리(성지향성, 지퇴여부, 임신여부 등)(14%) 소지품 검사 금지(10%), 차별 금지(성별, 성적, 인종, 외모, 재능, 출신학교 등)(9%)</p> <p>퍼센테이지가 높은 것들은 주로 지금도 억압받는 인권인 경우가 많고, 인권침해 설문조사 결과 높은 퍼센테이지였지만 본 설문조사에서 낮게 나온 퍼센테이지는 보통 지금은 별로 억압받지 않는 인권이거나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인권인 경우이다.</p> <p>특히 인권침해 설문조사에서 나오지 않았던 결과이지만 본 설문조사에서 추가된 내용인 '어떤 상태든 존중받을 권리'는 원게 침해당하기 쉽고 심지어는 같은 아동끼리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 피해자는 소수이기에 설문조사 결과 낮게 나왔지만 어떤 아동도 자신이 성소수자, 학교 밖 청소년, 미혼모 등이라는 이유로 존중받지 않아서는 안 된다.</p> <p>현존하는 네 지역의 인권조례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인권조례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축약해 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알리는 글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업로드하고,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로 지인들에게 보낸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p>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조례 홍보 미미 2. 인권조례에 바라는 내용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면 인권조례가 없어 침해되는 인권이 존재한다는 결론 도출 가능 3. 성소수자, 학교 밖 청소년, 미혼모 등에 대한 무시는 많으나 그 피해자가 아니면 같은 아동끼리도 존중의 필요성을 모를 4. 많은 사람들이 인권조례를 필요로 하나 정작 경남교육청은 몇 년 전부터 제정한다는 말만 나오고 실행하지 않고 있음 		
제안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조례 홍보 증가 2. 인권조례 제정 3. 성소수자, 학교 밖 청소년, 미혼모 인식 개선 		
제출일	2018년 09월 28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한○○
활동 주제	학생 인권 조례		
현황 및 실태	<p>대한민국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각 교육청들의 조례이다.</p> <p>전국 16개 시, 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시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4곳만 조례를 공포하였다.</p> <p>지금 다른 도시는 학부모가 이 조례를 반대 하고 있다.</p>		
문제점	<p>각 지역 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장이 학생들의 두발, 복장 제한, 체벌 등을 통한 학생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학칙이 대입한다는 게 문제이다.</p>		
제안 내용	<p>학생 인권 또는 학생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당연히 가지는 권리나 자격을 말하고 있으나 아이들이 미숙하다고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 고 어른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강제적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뜻이다. 큰 의미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에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소모되는 에너지가 있어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다.</p> <p>저러리 인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서 누구라도 제한하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으로 학교에서 제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서 여전이 학생들과 실경이를 해야한다는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p>		
제출일	2018년 9월 30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한○○
활동 주제	학생 인권 조례		
현황 및 실태	<p>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과 관련된 선택의 자유, 직간접적 차별 금지, 복장 및 두발 규제 금지, 학생 소지품 검사의 최소화, 양심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인권 교육, 인권 실천 계획, 학생 인권 중요관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p>		
문제점	<p>전국 16개 시, 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시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4곳만 조례를 공포하였다.</p> <p>지금 다른 도시는 학부모가 이 조례를 반대하고 있다.</p> <p>학생 인권을 학생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당연히 가지는 권리나 자격이지만 여러 조항의 세부 내용들의 미비함으로 학부모가 반대하여 4개의 교육청만 조례가 공포되었고 다른 도시에 공포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여야 한다.</p>		
제안 내용	<p>저를 조사 시에는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인 나에게 좋은 것들만 있는 줄 알고 잘 모르는 시민들도 많았다. 조사를 하고 나니 학생들에게 좋은 건데 왜 학부모들이 나서서 반대하는 것일까 하고 기사를 찾아보고서는 알게 되었다.</p> <p>아이들이 판단능력이 떨어진다고 어른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강제적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뜻이며 인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서 누구라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던 단서 조항으로 학교에서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서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 간의 인권을 보호해야겠으며 비인권적인 학생인권 조례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p>		
제출일	2018년 9월 30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권	아동 성명	최○○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2학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p> <p>1) '인권조례'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 예 13% / 아니요 87%</p> <p>2) 수도권 지역의 학교들은 대개 두발 규정 또는 휴대폰을 금지하는 것을 아시나요? → 예 67% / 아니요 33%</p> <p>3)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학교 별 규정이 다르다' (많은 학생들의 의견)</p> <p>4)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 예 46% / 아니요 54%</p> <p>5)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예 22% / 아니요 78%</p> <p>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인권조례라는 단어를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인권조례에 해당하는 두 가지를 예시로 질문을 하였는데 예시만을 알 뿐이지 그것이 인권조례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p> <p>그래서 설문조사를 다 마치고 인권조례란 무엇인지, 각 지역별로 시행되고 있는 인권조례에 해당하는 내용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었다.</p>		
문제점	<p>많은 학생들이 인권조례라는 단어를 모르고, 인권을 지켜달라는 말만 하지 싶은 인권을 다루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p>		
제안 내용	<p>국가인권위원회를 알리는 데에 힘쓰고, 그 기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SNS를 통한 알림이 필요하다고 느낀다.</p>		
제출일	2018년 09월 29일		

경남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9월 활동보고서

관역	경남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놀 권리의 적폐, 사교육		
현황 및 실태	<p>1. 8월에 사교육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설문지 마지막 문항으로 참여자들의 사교육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을 물었고, 많은 답변이 도착하였다. (설문 참여자의 대부분이 중고등학생) 많은 답변들 중 몇 가지만 추려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해보았다.</p> <p>가 사교육 폐지 주장 -우리나라도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교육이 점점 지열해지는 걸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공부 할 하고 똑똑해 봤자 인성이나 도덕성 같은 더 기본적인 교육이 안 되어 있으면 이보다 더 심한 비대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치열하게 공부하는 학생들도 왜 공부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 하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싼 돈 들여서 학원 다니고 과외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교육이 폐지되었으면 좋겠다. -사교육을 없애서 다 똑같은 위치에서 공부를 했으면 한다. 돈이 없어서 사교육을 못 받는 친구도 많은 편만 아니라 벼룩의 기회를 받고 싶은데 자신의 조건과 재력이 못 받쳐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무료강의가 많긴 하지만 괴외나 전문 선생님의 도움을 받은 친구들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사교육을 없애면 상대적으로 자기 주도 학습 능력도 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적성자 지금 본인인 사교육을 가의 안 받는 편인데 사교육을 이렇게 하나 오히려 자기개발의 기회가 없어지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교육이 없었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거의 모든 예들이 다해서 하고 싶지 않아도 따라가려면 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싫다. -사교육이 없었으면 좋겠다. 부모님의 압박이나 학교의 성적 차별 때문에 더더욱 사교육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p> <p>나 비교적 긍정적 -자신에게 꼭 필요하고 자신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사교육은 꼭 필요하다. -사교육을 하면서 학교 수업에 집중하고 성적이 높아지는 것 까지는 좋은데 한국 부모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더 많은 것을 바라니까 힘들다. -자신이 사교육의 도움을 받았으면, 사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교육의 활성화 방안에도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과개 한다면 부정적이지만 적당히 한다면 사회성이 성장할 수 있으며 성적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p> <p>다 현재 교육 체제의 문제 -사교육 없이는 학교시험과 진도를 잘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 -저는 사교육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교육비용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보니, 학교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교육 과정을 수정해서 공교육만으로도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그 사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성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신이 스스로 노력을 기울인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냥 타인에게 이끌려 어쩔 수 없이 다닌다면 차라리 사교육을 받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교육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다는 우리나라 교육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적에만 너무 열애여있는 교육방식을 바꾸는 것이 사교육을 줄이는 방법일 것 같네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요과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사교육을 하지 않고는 보통사람 머리로 빠르게 실용성능 진행되는 >>사교육에 맞춰진 수업방식 <<을 따라가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p> <p>많은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사회와 주체적이지 못한 사교육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긍정적으로 답변에 응한 학생들은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 효과를 보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필요하기는 하나 그 정도가 과해서 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또한 몇몇 학생들은 사교육 그 자체보다는 사교육이 과해질 수밖에 없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체제와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p>		
	<p>2. 학부모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하여 학부모 대표로 작성자 본인의 부모님께 인터뷰를 요청해보았다.</p> <p><아빠> Q1. 평소 사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A1. 열심히 받으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억지로 받으면 돈만 버리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Q2. 과도한 사교육 일정으로 인해 아동의 놀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2. 그건 아마 부모가 돈이 많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Q3. 조금 더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A3. 아빠는 과도하게 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괴외로 민청이의 수학 점수가 조</p>		

	<p>금 올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p> <p>Q4. 아동의 "놀 권리"를 알고 계신가요? A4.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아이는 놀면서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Q5. 아동에게 놀이 시간을 빼앗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A5. 아마 그 시간에 공부를 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겠죠.</p> <p>Q6. 학원의 심야영업 시간 규제가 관하여는 아시는 바가 있나요? A6. 심야에 학원을 보내본 적이 없어 잘 모릅니다.</p> <p>Q7. 학원의 심야영업 시간은 지역 조례로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22시부터 24시까지 심야영업제한 시간이 있죠. 그러나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7. 그건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아마 부모가 더 늦게까지 학원을 운영하기를 원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른 예들 놀 때 자기 자식이 공부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일까요.</p> <p>Q8. 아빠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A8. 당연히 사람일 이상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지켜야 합니다.</p> <p>Q9. 갈수록 영유아 조기 영어 교육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생 부모는 자녀가 초등 3학년일 때 처음 영어교육을 시작했다고 한 답변이 가장 많았던 반면에 현재 유치원생 부모는 만 3세에 영어교육을 시작하였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로 인해 아동의 자유놀이 시간이 지나치게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A9. 영어 공부도 놀면서 하면 됩니다. 놀이공부.</p> <p>Q10. 아동이 꿈지 않는다면요? A10. 아이는 부모가 하기 나름입니다. 특히 어린아이요.</p> <p>Q11. 어린 아동의 의사표현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부모가 침해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A11. 아이는 항상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고 편하게 사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p> <p>Q12. 조금 성장한 초등학생 고학년-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같은 생각인가요? A12. 커서 일어서 하는 학생은 우등생이 됩니다.</p> <p><엄마> Q1. 평소 사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A1. 학교 공교육을 더욱 알차게 하셔서 사교육을 없애야 합니다. 학부모 부담이 큼니다. Q2. 과도한 사교육 일정으로 인해 아동의 놀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2. 맞습니다. 아동 학부모 모두에게 사교육은 동전 열면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학부모에겐 경제적 부담 아동에겐 휴식과 여가 시간 부족입니다. Q3.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동의 "놀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A3. 말 그대로 아동은 그 나이에 맞는 놀이를 통해 사회성과 자기가 발달합니다. 학습의 권리, 놀 권리가 똑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Q4. 네. 제가 인터넷으로 자료 조사를 한 결과 큰 문제점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지나친 교육열이 아동 청소년의 행복을 빼앗아 감 2. 영유아 조기 영어 교육 3. 사교육의 결정 주체는 아이가 아닌 부모 4. 학원의 심야 영업 제한 규제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학원이 아닌 다른 시설로 둔갑하고 밤-새벽까지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하려면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A4. 우선 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사회와 지역들의 노력(질 좋은 일자리), 아동들의 의사 변화(사교육에 대한 자기 결정 주장)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p>
문제점	<p>많은 학생들이 과도한 사교육 또는 문제의 근본이 되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 체제,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심한 경쟁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p>
제안 내용	<p>학생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동의 놀 권리 침해에 대한 철폐인 명상을 제각각을 때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지만, 몇몇 학부모의 입장에서서는 못다말하게 보일 수도 있는 문제이다. 학부모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해 학부모의 전반적인 의견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p>
제출일	2018년 9월 29일

경남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권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놀 권리의 침해, 사교육		
현황 및 실태	<p>9월달에는 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선생님들의 스케줄상 2가지 질문밖에 하지 못하였다)</p> <p>먼저 다음 2가지의 질문을 10명의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였다.</p> <p>첫 번째 학생들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물었을때 6명의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4명의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필요하다고 한 이유를 물어 보았을때 요즘 점점 학부모들의 교육열이나 경쟁이 심해지면서 문제의 난이도나 수준 같은 것도 향상되고 있어 학생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라고 대답해주었다.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선생님께 이유를 물었을때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다니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고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줄수없다, 아이들이 사교육에서 다 배워서 수업들 듣지 않는다는 등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p> <p>두 번째 사교육 영업시간이 10시까지라고 하는데 알고계셨나요? 라고 물어보았을때는 2명이 알고있다고 하였고 8명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p>		
문제점	사교육 영업시간이 10시까지 라는것을 대부분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제안 내용	앞으로 많은 사람이 학원이 10시까지 한다는것을 알고 학생들의 자유를 위해 사교육은 10시까지만 영업을 하면 좋겠다.		
제출일	2018년 9월 29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권	아동 성명	류○○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놀 권리의 침해, 사교육>		
현황 및 실태	<p>9월에 나는 원하는 사교육으로 부모님과 마찰이 생겼던 사례를 조사해보았다. 나는 학원을 내가 원하는 곳에 다니고 있고 내 주변 친구들도 역시로 학원을 가거나 자신은 그 학원을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그 학원을 가는 친구들은 본격적이다.</p> <p>'선행학습과 관련된 극장에서 영화 보기 비유를 잘 알 것이다. 극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보면 상영 시간 내내 편히 앉아서 영화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웬일인지 맨 앞줄 사람들이 서서 영화를 본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뒤에 앉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 앉아서 보라고 그 사람들을 제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 귀찮고 편히 말했다가 싸움이라도 나면 격정이 되니 그냥 불편하지만 일어어서 보기로 하는 것이다. 재수 없지만 그래도 영화를 안 볼 수 없으니 딱 2시간만 서서 보면 되니 참고 영화를 보는 것이다. 물론, 두 번째 줄이 서면 연쇄적으로 그다음 줄도 서서 봐야 한다. 이렇게 전 관객이 서서 영화를 봐야 한다. 만족감은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다.</p> <p>위의 예를 사교육 문제로 한정해서 보자. 모든 사람이 서서 봐야 하는 상황은 다수의 제도적, 거시적, 시스템적인 문제다. 그러나 그 문제를 나라는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르니 자리리 서서 보되 '어떻게 하면 서서 효율적으로 볼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서서 영화를 보기 위해 하체의 힘을 기르기 위해 하체 기르기 학원(헬스클럽)에 아이를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영화 한 편 2시간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제 우리가 고민하는 교육은 영유아 3-4년, 초등6년 중등 6년, 총15년 이상 버텨야 하는 문제다. 따라서 단순히 하체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오랜 시간 듣기 위해 듣기 학원도 다녀야 한다. 이렇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학원에 다녀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반드시 과열된다.' 다음카툰에 올라온 글 중 일부뿐이다.</p>		
문제점	내 주변에는 아직 사교육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모님과 갈등이 일어나거나 하는 일은 없었지만, 나중에 내가 조금 커서 중, 고등학교 때는 거의 사춘기? 시절이라 부모님의 갈등이 일어나서 가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부모님들도 자신의 자식들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고 존중해주었으면 좋겠다.		
제안 내용	교육청에서는 '자유로운 사교육을' 주제로 한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많이 만들어서 학생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출일	2018년 9월 30 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놀 권리의 침해, 사교육		
현황 및 실태	<p>사교육에 대한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우리반 친구들 5명을 상대로 사교육에 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의 의견도 듣고 싶었지만 시험기간이라서 조사가 어려웠습니다. 학원 다니지 않는 친구 2명과 학원을 다니는 친구 3명을 조사해본 결과 학원을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사교육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놀 시간이 없다, 학원에 जाए 사는데 싫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는 두명은 사교육을 찬성하고 한명은 사교육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사교육을 찬성하는 이유는 학원에서 배우기 때문에 편하다는 의견과 성적이 잘나온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사교육을 반대하는 이유는 학원 숙제에 잡혀있고, 쉴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p> <p>학원을 다니는 3명의 친구에게 학원시간이 평소 몇시에 마치는지 물어본 결과 2명은 10시 30분정도 마치고 1명은 8시 45분정도 마친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조차도 사교육을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p>		
문제점	사교육으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놀 시간이 없다, 충분한 휴식을 가지지 못한다는 문제점과 학원 숙제에 잡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안 내용	사교육에 대한 방문조사를 해본 결과 사교육의 문제점은 보통 학원은 늦은 시간에 마지기 때문에 쉴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보아 학원시간에 대한 정확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학년별로 학원시간을 법으로 지정하고, 어릴 시에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출일	2018년 09월 29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권	아동 성명	박○○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놀 권리의 침해, 사교육>		
현황 및 실태	<p>두뇌에서 어떻게 웃음을 생성하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tzhak'과 그의 동료들(1998)이 'Nature'지에 간헐 발작을 일으키는 16세 소녀의 문제 부위를 찾기 위해 두개골의 대뇌피질에 미세한 전기 자극을 가하는 과정 좌측 대뇌의 사지통제 신경조직 바로 앞, 표면적 4cm²에 위치한 전극을 흐르자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이 부분은 이성적 판단을 주관하는 이마의 열과 감정을 맡는 변연계가 만나는 'A10 area'이며 그것이 웃음을 유발하는 신경회로라고 한다. 웃음이 발생하는 위치를 고려하면 웃음은 학습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p> <p>Anderson(1989)은 유머가 학습활동에 미치는 효과로, 학습 이해와 기억을 돕고 학습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학습참여도가 높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며, 또한 인지적 이해 발달에 도움을 주고 학생과 교사의 삶의 질을 높여 준다고 밝히고 있다.</p> <p>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마틴 셸리즈먼 교수는 특히 웃음이 많은 낙천가는 학생들의 경우 학업성적이 더 높았고 스포츠 분야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며 생명보험회사 생활실계사의 경우에도 낙천가가 훨씬 더 높은 성적을 올린다고 지적했다.</p> <p>미국 캘리포니아주 로마리다의 데리 보크 교수와 스탠퍼드 교수는 웃음과 면역체계에 대한 연구로 전세계 의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결과 예상한 대로 웃을 때 체내에서 병균을 막는 항체인 인터페론 감마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는 것을 발견했다.</p>		
문제점	우리는 웃으려고하며 감정을 느끼려고 한다. 9월 2일 일요일을 기준으로 KBS2 드라마 '같이 살려요'는 34%를 기록했고 SBS 예능 '미운오리새끼 2부'는 21.7%를 기록하였다. 또한 웃음을 주는 예능은 다수 있으며 최근 인기 있는 영상 플랫폼 Youtube에 '웃음 영상'으로 검색 결과 상위 50개의 영상 조회수는 1,952,800 (조회수는 1만 이하는 버림 했으며 50개중 2개는 1만 이하의 조회수로 0으로 계산)		
제안 내용	웃음의 효과는 1900년대 연구가 진행되었을 정도로 연구자들의 주제가 되었고 웃음은 건강뿐만 아니라 학업 등 다양한 방면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여러 연구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차지한다.		
제안 내용	아직 우리는 쉴 시간 없는 사교육이 낮은 학생 행복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경남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9월 활동보고서

	<p>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을 정확히 통계를 내보면 좋을 것 같다. 학생들이 사교육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친구들이 다 해서이며 학원을 안 다니는 게 이제는 더이상 해인 것이다. 또 학원을 학교에서 하는 공부를 대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학생 또한 많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육 수준을 더욱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학원 운영시간 제한을 통해 학생 휴식권을 보장해 학생의 행복도를 증진시키려 노력해야 한다.</p>
제출일	2018년 9월 30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박○○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놀 권리의 적폐, 사교육>		
현황 및 실태	<p><방과 후 책가방 또는 교복 착용 도보자수 조사> 조사 대상: 책가방 또는 교복을 착용한 상태로 도보를 하는 학생 추종자 조사 구역: 부산광역시에서 뛰어난 교육열을 자랑하는 해운대 신시가지(내일신문 2009. 06. 24) 좌동순환로 일부(해운대 상록아파트~양운고등학교) 조사 방법: 일주일 중 학교를 등교하지 않는 토, 일요일을 제외한 월(9월 17일), 화(9월 18일) 수(9월 19일), 목(9월 20일), 금(9월 21일) 방과 후(18:00~18:30, 20:00~20:20, 21:00~21:20, 22:00~22:30, 23:00~23:30) 도보 조사 동기 및 목적: 방과 후 여가 또는 놀이를 즐기는 학생들이 책가방이나 교복을 착용할 경향이 없다는 판단하에 책가방이나 교복을 착용한 도보자는 사교육 등을 하러 간다고 추측이 들어 조사함 결과: 일요일(9월 17일) 18:00~18:30, 20:00~20:20, 21:00~21:20, 22:00~22:30, 23:00~23:30 시간대에는 총 856명의 도보자 중 499명 책가방 또는 교복 착용 화요일(9월 19일) 18:00~18:30, 20:00~20:20, 21:00~21:20, 22:00~22:30, 23:00~23:30 시간대에는 총 825명의 도보자 중 422명 책가방 또는 교복 착용 수요일(9월 20일) 18:00~18:30, 20:00~20:20, 21:00~21:20, 22:00~22:30, 23:00~23:30 시간대에는 총 844명의 도보자 중 432명 책가방 또는 교복 착용 목요일(9월 21일) 18:00~18:30, 20:00~20:20, 21:00~21:20, 22:00~22:30, 23:00~23:30 시간대에는 총 861명의 도보자 중 501명 책가방 또는 교복 착용 금요일(9월 22일) 18:00~18:30, 20:00~20:20, 21:00~21:20, 22:00~22:30, 23:00~23:30 시간대에는 총 855명의 도보자 중 486명 책가방 또는 교복 착용 ===== 이번엔 경남지역 박진경 코디네이터님께서 부탁드린 아동 놀 권리 설문지를 제가 재학중인 학교의 학생들에게 배부한 결과 이러한 발언들을 정취할 수 있었음 학생1. "아니 당연한걸 왜 할..? 다 못 놀지 지금.." 학생2. "오오응 이거 100% 놀 수 없다 결과 나온데 한표 건다ㅋㅋㅋㅋ" 학생3. "난 뭐 학원 같은거 안다니긴 하는데 다른애들 다 학원다녀서 놀라[말이]의 비속어) 심심" 학생4. "오키오키. 근데 이거한다고 뭐 달라지나" 등의 한탄이 들려옴 나(박태숙) 포함 20명이 해당 설문조사 참가하였으나 한 명의 참가자도 핵심없이 한탄을 쏟아냄.</p>		
문제점	너무 많은 학생들이 여가와 활동을 즐기지 못함.		
제안 내용	<p>헌법 제10조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아동의 놀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하는데 뒷받침이 없다. 국가는 하루빨리 위의 헌법 제10조를 토대로 아동 놀 권리 보장 방침을 발표하여야 한다.</p>		
제출일	2018년 09월 29일		


권역	경남권	아동 성명	심○○
활동 주제	놀 권리의 적폐, 사교육		
현황 및 실태	<p>경남권에서 계획한 교육감님 인터뷰를 위해 질문을 만들어 여러 가지 조사를 하던 중에 학교 도서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인권 에세이' 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책에서는 1991년 11월 20일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것을 설명 해줄뿐더러 협약의 내용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해주고 있었다.</p> <p>"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협약 제 31조에 따르면, 아동은 충분한 놀고 쉼 권리를 갖고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KOSIS 에 따르면 2017 기준 전국 사교육 참여율이 70.5% 즉, 10명중 7명꼴의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며 놀 권리를 존중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렇게 협약을 비준 하고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 하였음에도 지켜지지 못하여 우리의 놀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우리의 놀 권리가 사교육으로 부터 존중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p> <p>그 질문을 만들었는데, UN아동권리협약이라는 것이 존재 하는걸 알았고, 많은 것이 우리의 놀 권리를 소중히 여겨주는 것을 알았는데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 자살까지 이르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p>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의 권리를 알 수 있을만한 법적 조항과 협약을 많은 아이들이 모른다. 2. 놀 권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지켜져야 할 것인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제안 내용	학교폭력 예방, 흡연 등과 같이 학교에 찾아가는 연극이 많은 하는데 우리의 권리와 놀 권리가 무엇인지에 관해 설명해주는 연극과 교육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제출일	2018년 09월 30일		

경남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권	아동 성명	연○○
활동 주제	놀이 권리, 사교육		
현황 및 실태	<p>'어린이의 놀 권리',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는 UN아동권리협약 31조에 나오는 말입니다. 학업에 과외에, 어른 만듦이나 바쁜 아이들, 이런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어린이를 위한 국가적인 놀이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우리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놀이권' 이런 권리를 알긴 하지 보육학과 교수님의 말씀상, 연구를 했는데 절반 가량의 아이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합니다.</p>		
문제점	<p>자녀의 복지권과 관련된 중요한 권리 중 하나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놀이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놀권리라는 개념정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중요성에 비해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 실정입니다.</p>		
제안 내용	아동의 놀권리를 더 중요성있게 생각해주고 실천해주면 좋겠습니다.		
제출일	2018년	09 월	30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권	아동 성명	이○○																																																												
활동 주제	나의 놀권리, 우리의 놀권리 : 놀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놀 권리의 적폐, 사교육																																																														
현황 및 실태	<p>시도별로 학업이 가능한 최대 교육 시간 시도 시군구 단위 교육 시간</p> <table border="1"> <thead> <tr> <th>시도</th> <th>초등학교</th> <th>중학교</th> <th>고등학교</th> </tr> </thead> <tbody> <tr> <td>서울</td> <td>오전 10시</td> <td></td> <td></td> </tr> <tr> <td>부산</td> <td>오전 10시</td> <td>오전 11시</td> <td></td> </tr> <tr> <td>대구</td> <td>오전 10시</td> <td>오전 10시</td> <td></td> </tr> <tr> <td>인천</td> <td>오전 9시</td> <td>오전 10시</td> <td>오전 11시</td> </tr> <tr> <td>광주</td> <td>오전 10시</td> <td></td> <td></td> </tr> <tr> <td>대전</td> <td>오전 10시</td> <td>오전 11시</td> <td>말 12시</td> </tr> <tr> <td>경기</td> <td>오전 9시</td> <td>오전 10시</td> <td></td> </tr> <tr> <td>충청</td> <td>오전 10시</td> <td>오전 11시</td> <td>말 12시</td> </tr> <tr> <td>충남</td> <td>오전 9시</td> <td>오전 11시</td> <td>말 12시</td> </tr> <tr> <td>전라</td> <td>오전 9시</td> <td>오전 10시</td> <td>오전 11시</td> </tr> <tr> <td>전남</td> <td>오전 10시</td> <td>오전 11시</td> <td>오전 11시 30분</td> </tr> <tr> <td>경북</td> <td>오전 9시</td> <td>오전 11시</td> <td>말 12시</td> </tr> <tr> <td>경남</td> <td>오전 9시</td> <td>오전 11시</td> <td>말 12시</td> </tr> <tr> <td>제주</td> <td>오전 9시</td> <td>오전 11시</td> <td>말 12시</td> </tr> </tbody> </table> <p>자료: 한국교육개발원</p>  <p>이 자료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은 평균적으로 11시 30분에 귀가를 한다. 그렇게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면 부모님들은 주무시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도 내일 학교를 가기 위해 준비를 하거나 집에 와서도 공부하는 경우도 많다. 학생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의무인 것 같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 의무를 지키기 위해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잃어가고 있다.</p> <p>한국교육개발원은 작년엔 2014년에 초등학교부터 고교생이 쓴 학원비는 총 13조 6485억원으로 그 해 GDP의 55%나 됐다고 보도했다. 이 통계 자료는 한국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쓰는 돈이 매우 많다는 것을 보여주며 한국 사교육 열풍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p>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오전 10시			부산	오전 10시	오전 11시		대구	오전 10시	오전 10시		인천	오전 9시	오전 10시	오전 11시	광주	오전 10시			대전	오전 10시	오전 11시	말 12시	경기	오전 9시	오전 10시		충청	오전 10시	오전 11시	말 12시	충남	오전 9시	오전 11시	말 12시	전라	오전 9시	오전 10시	오전 11시	전남	오전 10시	오전 11시	오전 11시 30분	경북	오전 9시	오전 11시	말 12시	경남	오전 9시	오전 11시	말 12시	제주	오전 9시	오전 11시	말 12시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오전 10시																																																														
부산	오전 10시	오전 11시																																																													
대구	오전 10시	오전 10시																																																													
인천	오전 9시	오전 10시	오전 11시																																																												
광주	오전 10시																																																														
대전	오전 10시	오전 11시	말 12시																																																												
경기	오전 9시	오전 10시																																																													
충청	오전 10시	오전 11시	말 12시																																																												
충남	오전 9시	오전 11시	말 12시																																																												
전라	오전 9시	오전 10시	오전 11시																																																												
전남	오전 10시	오전 11시	오전 11시 30분																																																												
경북	오전 9시	오전 11시	말 12시																																																												
경남	오전 9시	오전 11시	말 12시																																																												
제주	오전 9시	오전 11시	말 12시																																																												

문제점	<p>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한국은 가장 사교육이 활발한 나라로 손꼽히며, 사교육이 활발해짐에 따라 공교육이 점점 약화 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교육이 강해지면서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나친 사교육으로 인해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 진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거의 알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않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앞서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 가정 경제 형편이 점점 힘들어진다. 다른 지역 중에서도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 한 달 과외비가 50만 원은 훌쩍 넘는 경우가 대다수라 집안 형편이 점점 힘들어진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유치원 자녀들 등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74.3%가 자녀 교육에 금전적인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한국은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등 사교육 열풍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3. 사교육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학원이나 과외 같은 사교육 기관에서 이미 모두 배운 내용이나 학교 교사들을 무시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교육 과외 같은 경우 반부적자를 초래시킨다. <p>출처:수원뉴스 교육팀 임주연 인턴기자(ju3452@naver.com)</p>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교육을 하는 많은 학생 들은 수면 부족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리고 수면 부족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대화 부족으로 인해 가정 의지해야 할 가족들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2. 사교육으로 인해 교육의 참된 의미가 변질된다. 3. 가정 경제 형편이 힘들어진다. 4. 지나친 사교육으로 인해 학교의 수업을 집중하지 않는다.
제안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많은 고등학교에서 한 달에 한번 학교에서 야자를 하지 않고, 7교시까지 하고 일찍 마쳐주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처럼 매주 3번 정도로 사교육을 실행 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면 좋겠다. 2. 학생들은 학원에 의지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았으면 좋겠다. 3.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사교육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제출일	2018년 09 월 29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이○○
활동 주제	놀이 권리의 적폐, 사교육		
현황 및 실태	<p>실제 놀 권리의 적폐, 사교육을 겪고 있는 아동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p> <p>부산 학산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은양의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본문입니다.</p> <p>[실제 인터뷰 내용] Q:본인 / A:상담방 Q:안녕하세요. 아동 인권 모니터링단 LENS 단원 이주연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안녕하세요 저는 학산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은이라고 합니다. Q:오늘 주제는 아동의 놀 권리를 적폐 하는 문제로 꼽히고 있는 사교육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어떤 학원에 다니고 있으신가요? A:저는 현재 국어, 수학, 영어 총 3개 단과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Q:3개의 학원 수업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A:영어와 수학은 주 3회이고, 국어는 주 1회입니다. Q:학원 수업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우리 학원은 한 과목당 약 1-2시간 정도를 합니다. 보통말 내용이 있는 경우나 시험 기간은 3시간씩 할 때도 있어요. Q:혹시 학원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경험이냐 불편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A:크게 피해를 보거나 불편을 겪기보다는 학원 수업으로 인해 학교 후 친구들과 놀지 못하거나, 학원 숙제가 많을 때면 쉬지 못하고 숙제를 해야 합니다. 또 학원 쉬는 시간이 많이 없는 편이라 그 점이 아쉽습니다. Q:본인이 생각하는 사교육의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A:먼저 장점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수업을 듣고 몰랐던 걸 더 배울 수 있어서 학교 성적 유지에 도움을 주는 점과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알려주지만 학교에서 물어보지 못한 내용을 학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역시 제 일과를 학원에 많은 시간을 뺏긴다는 점, 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도래 친구 중 간혹 한두 명 정도?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런 친구를 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 되게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Q:현재 우리나라는 사교육의 문제가 심각한데 사교육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솔직하게 학원이 없다면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학원을 가지 않고 공부를 해야 하며, 약간 불안하기도 할 거 같아요. 그만큼 학원</p>		

경남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p>에 의견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Q:마지막으로 사교육 문제 변화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A:아마 앞으로 몇 년간은 큰 변화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교육의 변화도 생기고 사교육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개선된다면 지금 사교육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원을 벗어난 자신만의 삶을 응원합니다. Q: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감사합니다.</p> <p>- 실제 아동과 인터뷰를 하고 난 후, 많은 생각이 들었다. 실제 수많은 사교육 기관들이 시행하는 이 교육이 문제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학원에서 따로 보강되지 않는 자유시간과 학생들이 학원에 많은 의지를 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자유롭게 자신을 꿈꿔 볼 수 없고 사교육에 힘메어 살아가는 우리나라 아동들의 현실이 빨리 개선되어, 하루라도 빨리 변화하길 바란다.</p> <p>[실제 사교육 교육기관 탐방] 우리 지역에 위치 하는 한 수학 학원에 직접 방문하여, 사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p> <p>학원에서 현재 진행되는 수업은 초, 중, 고등학생 반을 나눠 각 시간별로 진행되었다. 이 학원은 수업마다 약 10분씩 쉬는 시간이 주어졌으며 학생들에게 쉬는 권리를 보장 해주었다. 오후 11시에 문을 닫고, 고등학생 학생들은 주말반이 가장 많으며,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저녁 타임에 수업을 진행하고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을 학원에 잡아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체로 학원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었으며,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p> <p>- 실제 학원을 탐방한 후 이 학원은 실제로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대부분의 학원은 늦은 시간까지 수업을 진행하며,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를 막고 있다. 앞으로 사교육이 이뤄지더라도 저렇게 올바른 법을 정규한 후 운영되면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p>
<p>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사교육으로 인해 본인의 놀 권리를 침해받고, 쉬는 권리 또한 침해 받고 있다. -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맘껏 하지 못하고 학원에 다니지 않을 경우 성적 하락이 걱정되어 학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p>제안 내용</p> <p>학생들이 학원에 다니지 않더라도 불안하지 않고 또 학원에 의존 하지 않도록 공교육의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고, 학원 관련 법을 강력하게 규정하여 올바른 학원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출일</p> <p>2018년 9월 29일</p>

<p>55.0%로 가장 적었다.</p> <p>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p> <p>초등학생을 제외하고는 원안하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학생이 가장 비싸고 2009년~2011년까지는 초등학생이 더 비쌌으나, 2012년에는 고등학생이 더 비쌌고, 다시 초등학생이 더 비싸졌다가 2015년부터 고등학생이 더 비싸지고 2016년부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초등학생 사교육비를 따라잡을 듯하다.</p> <p>중학교>초등학교>고등학교 순서였으나 중학교>고등학교>초등학교 순서로 바뀌었고, 고등학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p> <p>시간적 여유가 많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사교육 시간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초등학교는 2016년을 기점으로, 중학교는 2017년을 기점으로, 고등학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p> <p>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p> <p>전체적으로 사교육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하여 학교를 마치고 남은 시간</p>
<p>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교육의 참여율이 점점 높아지며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암묵적으로 이상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됨 2. 특히 더 많이 알아야 할 초등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원에서 보냄 3. 사교육에 드는 비용이 점점 비싸지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계층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킴 4. 고등학생들은 단원 시간당 사교육비용이 초, 중, 고 세 그룹 중 가장 높으며 그것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경제적 부담을 가함
<p>제안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교육을 참여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2. 맞벌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학원에 가는 학생들의 경우, 학원이 아닌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시설에 맡겨지도록 해야 함 3.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이 필수수 안 되도록 해야 함 4. 사교육비용을 낮춰 양극화를 완화시켜야 함
<p>제출일</p> <p>2018년 09월 28일</p>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최○○
활동 주제	놀 권리의 적폐, 사교육		
현황 및 실태	<p><사교육 실태></p> <p>평균 70.5%</p> <p>17, KODS (통계청, 초·중·고사교육실태조사)</p> <p>1. 사교육 참여율 (연도별)</p> <p>사교육은 2008년에 75.1%로 큰 10년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후, 점점 감소하다가 2017년부터 다시 급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p> <p>사교육 참여율 (초·중·고 별)</p> <p>시간적 여유가 가장 많은 초등학생이 8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학생이 66.4%로 뒤를 이었으며 여자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가장 적은 고등학생이</p>		

<p>대부분을 학원에서 보내게 된다. 초등학생이 사교육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이유이다. 고등학생은 여자 등의 이유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사교육에 드는 시간이 가장 적다. 하지만 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용을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그들이 사교육에 쓰는 시간에 비해 비용은 가장 많이 든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사회계층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도 있어 빈곤계층의 학생들은 사교육을 하지 못해 성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p>
<p>문제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교육의 참여율이 점점 높아지며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암묵적으로 이상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됨 2. 특히 더 많이 알아야 할 초등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원에서 보냄 3. 사교육에 드는 비용이 점점 비싸지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계층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킴 4. 고등학생들은 단원 시간당 사교육비용이 초, 중, 고 세 그룹 중 가장 높으며 그것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경제적 부담을 가함
<p>제안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교육을 참여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2. 맞벌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학원에 가는 학생들의 경우, 학원이 아닌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시설에 맡겨지도록 해야 함 3.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이 필수수 안 되도록 해야 함 4. 사교육비용을 낮춰 양극화를 완화시켜야 함
<p>제출일</p> <p>2018년 09월 28일</p>

경남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권	아동 성명	최○○
활동 주제	놀이 권리의 적폐, 사교육		
현황 및 실태	<p>9월의 한 달 동안 사교육으로 인해 아동들의 놀 권리 침해된 사례 및 기사들을 찾아보았다.</p> <p>"의사 선생님, 학원 끊으면 정말로 제 인생도 끝나는 건가요?" 라고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말을 하였다. 정동선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는 "사교육 부작용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정신과를 찾는 아이들"이라면서 "아이가 이상하다고 찾아왔는데, 상담해보면 학부모가 학원 중독 등 (정신 질환이) 심각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p> <p>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2014)를 살펴보면 학교의 학습시간은 아동의 놀이시간 중에서도 황금시간을 침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의 학습시간이 중학교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고등학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말 평균, 초등학생은 약 1시간 11분, 중학생은 약 3시간 14분, 고등학생은 약 3시간 52분씩 학교 활동 외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주말에도 여전히 학업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학교의 급이 올라갈수록 학습시간은 길어지는 반면, 놀이시간은 줄어들고 있으며, 평일을 기준으로 초등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은 학습시간이 약 3시간 이상 많고 놀이시간은 약 40분 정도 더 적게 나타났다.</p>		
문제점	놀이에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의사표현의 자유' 또한 사교육으로 인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사교육은 아동의 의지보다는 부모님들의 의지가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안 내용	학생들이 사교육을 하지 않을 시 겪는 불안함을 줄일 수 있게 교육제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출일	2018년	09월	29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한○○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문화 환경 개선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다. 각 교육청마다 정책적으로 아이들의 행복권 추구를 위해 프로젝트를 추진은 하고 있으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문화 환경개선"은 미비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점	아동, 청소년에게 필요한 놀 권리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어른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잃어버린 권리인 놀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관심을 기울이기 위한 홍보가 많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제안 내용	아동, 청소년 놀 권리 관련 사업 및 행사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놀 권리 특별시전, 영상전, 등의 지방자치의 홍보 노력으로 "아동, 청소년들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면 쉬고 놀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아동, 청소년의 놀 권리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알아도 아동, 청소년의 잊혀진 권리인 놀 권리를 보장하고 그 가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에서 홍보에 노력을 제안한다		
제출일	2018년	9월	30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남	아동 성명	한○○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교육청마다 정책적으로 아이들의 행복권 추구를 위해 놀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유엔 아동, 청소년 권리 협약(안건 선언문)에 제 6조 모든 사람은 우리들 청소년 모두가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 16조 우리는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 31조 우리에게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등등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 가운데 주요 조항만을 뽑아 쉬운 말로 옮긴 국가인권위 자료를 게재하고 있다. 각 학교, 유치원, 가정에서 이 아이들 놀 권리를 존중하는지는 더 조사해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점	지금껏 '놀이'를 보장해야 한다 '정도의 선언적 조항을 담은 조례는 다수 있었지만, 놀 권리 자체를 자치조례로 만든 사례가 없고 교육청과 학교장이 해야 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환경이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		
제안 내용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협동하는 방법도 배운다" "사교육과 입시 위주의 교육에 찌든 어린이들의 마음을 놀이를 통해 다독일 필요가 있다" 이렇듯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문화 환경개선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성장 할수 있도록 아동이 활동 주체자로서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할 것이다		
제출일	2018년	9월	30일

경북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북권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현황 및 실태	<p>*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뉴스를 보거나 들었을 때 처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 →미세먼지가 정확히 어떤 질병들을 유발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도 떠오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어려움(질병)등을 겪는다는 답변이 93%로 나왔는데 이렇게 피해를 겪고 있으면서도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빈도수가 적고 이런 피해에 대해 인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까?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안전 불감증을 가져다 붙여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 전체적으로 안전 불감증이 있어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미세먼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체육수업을 운동장 대신에 강당이나 교실에서 하는 등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는 정말 좋은 학교의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보다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스크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마스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는가? →일회용 마스크는 전체 공기 중 미세먼지의 15%정도를 막아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마스크로 불리기는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회용 마스크가 아닌 미세먼지 마스크 또는 면 마스크(1회 세탁)를 사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했으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학교폭력 예방 교육처럼 미세먼지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해주었으면 합니다.</p>		
문제점	<p>청소년들을 비롯하여 성인들까지 모두 미세먼지의 피해를 대부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절대 가볍지 않다. 또 학교와 국가, 공공기관에서 내세운 대책이 약하다. 일단 마스크를 두고 보았을 때 학교에선 일회용 마스크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는 미세먼지를 3-5자로 걸러주는 미세먼지 마스크와는 성능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p>		
제안 내용	<p>학교와 직장에서 안전교육과 같이 미세먼지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해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대처법 중 하나인 마스크 제공 역시 일반 일회용 마스크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로 교체해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언론에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조금 더 자주 많이 볼 수 있게 홍보를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제출일	2018년 10월 22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북권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현황 및 실태	<p>미세먼지와 늘 권리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결과를 친구들끼리 얘기에 보았고 좀 더 자세히 알기위해 심층인터뷰 질문을 했다. 늘 권리는 공통 질문 2개, 개별 질문 3개로 총 다섯 개의 질문을 심층 인터뷰 때 하였고 미세먼지 관련 인터뷰는 공통질문 5개로 인터뷰했다. *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뉴스를 보거나 들었을 때 처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 →중국이 너무 많은 공장을 만들어 우리에게 피해가 오니 짜증난다. -미세먼지로 인해 어려움(질병)등을 겪는다는 답변이 93%로 나왔는데 이렇게 피해를 겪고 있으면서도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빈도수가 적고 이런 피해에 대해 인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까? →많은 것 같다. -학교에서 미세먼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체육수업을 운동장 대신에 강당이나 교실에서 하는 등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세 먼지가 요새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스크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마스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는가? →일반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헝사마스크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학교에서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했으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예방법에 대해 알려주며 계속 안 좋다는 것을 인식시켜 준다.</p>		
문제점	<p>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지만 정확한 사용법을 모른다. 학교에서 예방법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함에도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빈도수가 적다.</p>		
제안 내용	<p>학생들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미세먼지 관련 예방법을 알기위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그것이 호흡기에 들어가면 안 좋은 점을 자세히 알려주어 심각성을 깨달도록 한다.</p>		
제출일	2018년 10월 22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대구 경북권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현황 및 실태	<p>지난 인터넷 설문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심층 설문 조사를 해보았다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뉴스를 보거나 들었을 때 처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중국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됨으로써 국제사회의 규제가 필요하다 미세먼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답변이 93%로 나왔는데 이렇게 피해를 겪고 있으면서도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빈도수가 적고 이런 피해에 대해 인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실감이 덜 나는 거 같다고 느꼈다. 학교에서 미세먼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체육 수업을 운동장 대신에 강당이나 교실에서 하는 등 야외활동을 자제해야한다고 했다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산업용마스크를 외부공기가 새어들지 않게 꼭 맞게 착용한다 학교에서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기정정기 의무화 실시하였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p>		
문제점	<p>-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 실감이 덜 남</p>		
제안 내용	<p>학교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 야외활동 규제를 꼭 할 필요가 있고 조금 큰 사거리의 횡단보도나 신호등에 태양열을 받아 전기를 만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 줄 수 있는 계기판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학교 교실에서도 공기정정기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p>		
제출일	2018년 10월 18일		

경북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북	아동 성명	휴○○
활동 주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현황 및 실태	<p>앞서 진행한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주제로 팀원들과 토론을 한 후 문제 현상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p> <p>1.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뉴스를 보거나 들었을 때 처음으로 오르는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처음에 뉴스를 보았을 때는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기 시작하고 선생님께서 수업 전 항상 미세먼지에 대해 언급하시는 것을 듣고 미세먼지에 대해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부터는 나도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아침에 미세먼지 농도도 확인하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다니기 시작했다.</p> <p>2. 미세먼지로 인해 어려움(질병 등)을 겪는다는 답변이 93%로 높게 나왔는데 이렇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알아보든 빈도수가 적고 이런 피해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까? 사람들은 미세먼지가 어디까지나 먼지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어렵지 않으니 피해에 대해 있는 것 같다는 사실을 인지할 뿐 그 피해 사실이 이후에 자기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해 사실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생각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해 찾아보는 횟수가 적은 것 같다. 특히나 사람들은 자신이 아침마다 하루 한 번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p> <p>3. 학교에서 미세먼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체육 수업을 운동장 대신에 강당이나 교실에서 하는 등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 우리 학교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더라도 체육 수업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몸을 풀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장을 돌았고 학교 내에서도 이에 대해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학교에서 미세먼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체육 수업을 실내에서 진행하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의 건강을 생각한 올바른 대처라고 생각한다.</p> <p>4.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떤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오른다는 답변이 나오면 관련 내용 가라쳐주기)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미세먼지 마스크가 따로 있다는 것과 의료용 마스크를 끼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스크를 사기전에 미세먼지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p> <p>5. 학교에서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했으면 하는 일은 무엇인가? (ex. 학교 리모빙팅 할 때 배려재 바꾸기, 공기청정기 의무화, 야외 활동 자제, 교육청에서 학교에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고 학교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으로 경각심 일깨우고 예방법 알려주기 등) 우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미세먼지 교육을 진행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어떻게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야외 활동을 자제시켰으면 좋겠다.</p>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야외 활동을 자제하지 않는 학교가 있음. -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지만 정확한 방법을 모름. - 미세먼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자주 찾아보지 않는 등 안일한 행동이 보임. 		
제안 내용	교육청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의무적으로 야외 활동을 금지하고, 학교에서 마스크의 종류나 기능, 방법까지 교육을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야구도 경기 취소가 되는데 학교도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지역이나 심한 날에는 유교하는 등 더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 같다.		
제출일	2018년	10월	14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북권	아동 성명	심○○
활동 주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현황 및 실태	<p>미세먼지와 늘 권리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결과를 팀원끼리 예기해 보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위해 심층인터뷰 질문을 썼다. 늘 권리는 공통 질문 2개, 개별 질문 3개로 총 다섯 개의 질문을 심층인터뷰했 하고 미세먼지 관련 인터뷰는 공통질문 5개로 인터뷰하였다 (한사람에게 늘권리,미세먼지 둘 다 인터뷰함. *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뉴스를 보거나 들었을 때 처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 →마스크,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등이 생각난다. -미세먼지로 인해 어려움(질병)등을 겪는다는 답변이 93%로 나왔는데 이렇게 피해를 겪고 있으면서도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알아보든 빈도수가 적고 이런 피해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까? →많을 것 같다. →학교에서 미세먼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체육수업을 운동장 대신에 강당이나 교실에서 하는 등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운동장과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건 좋지 못할 것 같고 강당에서 체육수업을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스크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마스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는가? →자세한건 모르지만 항상 마스크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줌)http://blog.naver.com/heimcare/220980425505 -학교에서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했으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학교에서 예방법을 알려줘도 학생들이 잘 실천을 안하기 때문에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p>		
문제점	<p>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지만 정확한 사용법을 모른다. 학교에서 예방법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함에도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알아보든 빈도수가 적다.</p>		
제안 내용	학생들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미세먼지 관련 예방법을 알기위해 학교에서 학생참여 형식의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6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북	아동 성명	윙○○
활동 주제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공부할 권리		
현황 및 실태	<p>쾌적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p> <p>1.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처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일까? → 아 그렇구나. 2.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안일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p> <p>3. 학교에서 미세먼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체육수업을 운동장 대신에 강당이나 교실에서 하는 등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미 시행중인 방안이기도 하지만 적절한 조치인 것 같다.</p> <p>4.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스크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마스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는가? → 잘 모른다. 5. 학교에서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했으면 하는 일은 무엇인가? →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좋겠다.</p>		
문제점	<p>1.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 파악은 하지만 대처가 안일하다. 2. 농동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부분이 미흡하다.</p>		
제안 내용	아동들은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학교 자체에서는 실외활동보다는 실내활동을 중심으로만 조정을 두고 나머지 대안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면 꽤 유익한 공기를 정화시켜 줄 물질은 구비 해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이 능동적으로 피해로부터 대처하고 사태를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3일		

경북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북권	아동 성명	장○○
활동 주제	미세 먼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현황 및 실태	<p>주변 아동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기 위해 두 명의 고등학생에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먼저, 미세먼지가 많다는 뉴스를 보았을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겠다거나 바깥외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마스크의 착용 여부를 물어보니 자주 착용 한다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나뉘었는데, 둘 다 마스크의 바른 착용법 과 어떠한 마스크가 좋은지, 혹은 마스크의 바른 기능 등을 잘 알고 있지 않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위험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으나,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를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필요성을 알지 못 한다고 답변해 주었다. 미세먼지 주의 보기가 있었던 날에 학교에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학교에서는 단 지 야외 체육을 자제하기만 하였고 특별한 대처가 없었다고 하였다. 이렇듯 학 교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먼저 깨닫지 못하고 소극적인 대처만을 취한다는 결 론을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교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 질 문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마스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더 나아가 무상 으로 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이를 사용해 더 쾌적한 교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p>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의 심각성 및 대처 방안에 대한 무지 - 학교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한 소극적 대처 		
제안 내용	<p>먼저, 미세먼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개인적 차원이든 학교 차원이든 이러한 노력의 자세가 잘 보이지 않았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마스크 착용, 바깥외출 자제, 자주 손씻기 등의 실천방안이 있으며 학교 차원에서는 공기청정기 설치, 학생의 마스크 착용 권장, 교실 안 공기 수치 체크 등을 통해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하고 건강에 해로운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잡혀있어야 할 것이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 및 대처 방안 등을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유도할 수 있다.</p>		
제출일	2018년	10월	20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북권	아동 성명	전○○
활동 주제	미세 먼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현황 및 실태	<p>미세먼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를 위해 두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정리해보자면 미세먼지가 많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마스크를 꺼야겠다던가 문을 닫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의견과 되도록 나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스크를 자주 끼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학생과 그렇지 않다는 학생으로 나뉘었는데 둘 다 마스크를 어떻게 착용해야하는지,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지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답을 하였다. 이 이유는는 마스크를 착용법대로 착용하면 숨 쉬기가 불편하고 안경에 김이 서린다는 의견이 있었다.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체감이 되지는 않는지 둘 다 정보를 자주 찾아보지 않는다고 하였고 주위에서 가끔 들리기 때문에 딱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다. 학교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야외 체육을 자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더니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답이 나왔다. 야외에서 해야 하는 활동이 많고 수행평가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아주 많지 않으면 야외에서 체육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적정 미세먼지 수치를 지정해야 학교에서 제대로 지킬 것 같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질문으로 학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제대로 해결이 될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마스크를 의무화하고 무상 공급해주었으면 한다는 것과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답이 있었다.</p>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에 대해 심각성을 알고는 있지만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다. - 미세먼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 학교에서 실행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이 없다. 		
제안 내용	<p>인터뷰에 참여한 한 학생이 의견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제대로된 수치를 정해두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 같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정도면 높다 보다는 1시간 이상 야외에서 활동하였을 때 인체에 최대한 효율적인 수치를 실험해보고 계산하여 지정한다면 신뢰감이 있고 학교에서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 같다. 학교 차원에서 실시하기에는 비용적인 면에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실현할 수 있을 것 같다.</p>		
제출일	2018년	10월	20일

경북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북권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p>9월은 놀 권리에 대하여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간단한 문항들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와 다르게 더 심층적으로 현재 놀 권리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심층인터뷰는 공통질문 2개와 개별질문 3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p> <p>* 놀 권리 (공통질문) Q. 자신의 놀이 방법 중 바꿔야 하는 점을 묻는 문항에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을 줄인다가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스마트폰을 줄여야 건강한 놀이가 될 수 있을까? A. 초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는 몰랐는데 요즘 점점 친구와의 대화보다 SNS를 이용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밖에서 뛰노는 시간보다 정해진 놀이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활동적이지 못하게 되어가는 것 같아 요즘 반성하고 있지만 이미 습관이 되어버려 스마트폰을 단번에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자습 줄여가는 방법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건강한 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p> <p>Q. 현재 이용하는 놀이 및 여가를 위한 공간과 시설의 불편한 점을 묻는 문항에서 이용료가 비싸다고 다양한 놀이 및 여가 시설이 없다는 답변이 많았는데 자신이 활동하는 환경 근처에 어떤 여가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는가? A. 가까운 곳에 놀만한 시설이 없으니 학교 또는 집 주변에 학생들이 놀만한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 또한 '어른들이 생략한 학생이 필요로 하는 여가시설'이 아닌 '진정으로 학생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여가시설'이 생기길 바란다. 또 청소년 우대 조례라는 청소년 우대법이 존재하는데도 지역에 따라 여가시설의 사법화에 따라 실시정도가 다르게 파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청소년 우대 조례가 여가시설에만 이라도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p> <p>(개별질문) Q. 거의 모든 설문에 만족도를 표시 하셨는데 그 이유는? A. 가족들이 놀 권리에 허락 해 주시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들이 놀 권리 즉 여가시간을 보장해주시기를 바란다.</p> <p>Q. 놀이교육에서 바뀌어야한다는 점이 있다면? A. 청소년 시기에 공부 중요하긴 하지만 여가시간을 침해할 만큼은 교육이 중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육으로 쌓이는 스트레스 지수가 전 국가를 비교하였을 때 높은 편에 속함으로 청소년이 벗어나는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해결 방안으로 교육 중 어떠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 같다.</p>		
문제점	<p>Q. 놀 권리는 것이 학생의 제 1적목인 학습 즉 공부의 영역을 침해한다고 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나는 놀 권리가 공부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것에 일부 인정한다. 하지만 어른들에게 학생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놀 권리 즉 자유권이 공부하는 시간들 중 1시간 정도가 더 가지가 낮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물어보고싶다. 대부분의 자녀를 지닌 부모님들이라하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사가 돌아다니는 것은 일부 부모를 혹은 부모가 아닌 성인들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p>		
제안 내용	<p>학업에 밀려난 학생들의 놀 권리를 지켜줄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여가 시설들이 접근성이 높고 학생 유용연구가 많은 곳에 위치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이다. 또한 지역의 학생 수에 비해 청소년 여가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이다.</p> <p>연론에서 학생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으면 한다. 또 어른들의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p> <p>그리고 제일 중요한 성인들이 생각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여가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청소년 여가시설이 개설될 것을 제안한다.</p>		
제출일	2018년 10월 22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북권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p>미세먼지와 놀 권리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결과를 친구들과 얘기하고 좀 더 자세히 알기위해 심층인터뷰 질문을 생각했다. 놀 권리는 공통 질문 2개와 개별 질문 3개로 총 다섯 개의 질문을 심층 인터뷰 때 하였고 미세먼지 관련 인터뷰는 공통질문 5개로 인터뷰하였다.</p> <p>* 놀 권리 (공통질문) - 자신의 놀이 방법 중 바꿔야 하는 점을 묻는 문항에서 신체활동 놀리기를 선택하셨는데 구체적 어떻게 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학교 밖 외부에서 활동을 늘렸으면 한다. - 현재 이용하는 놀이 및 여가를 위한 공간과 시설의 불편한 점을 묻는 문항에서 이용료가 비싸다고 다양한 놀이 및 여가 시설이 없다는 답변이 많았는데 자신이 활동하는 환경 근처에 어떤 여가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는가? → 가까운 곳에 놀만한 시설이 없으니 학교 또는 집 주변에 학생들이 놀만한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p> <p>(개별질문) - 거의 모든 설문에 만족도를 표해 주셨는데 이렇게 만족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 가족들이 놀 권리에 허락 해 주시기 때문이다. - 놀이에 대한 우리나라 교육방식 중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 → 잘 모르겠다.</p> <p>(공통질문1과 같음)</p>		
문제점	<p>공부와 학원 때문에 놀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점도 있지만 마땅히 우리 주변에 놀만한 곳이 없어 놀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p>		
제안 내용	<p>학교주변에 학생들이 여가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고 부모님이 아이들의 놀 권리를 억압하는 것보다 공부와 노는 것을 잘 병행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p>		
제출일	2018년 10월 22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대구 경북권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p>지난 설문지 이후 조금 더 심층 설문 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지의 질문중에서 자신의 놀이 방법 중 바꿔야 하는 점을 묻는 문항에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을 줄인다고 신체활동 놀리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으로 스마트폰을 줄이고 신체활동을 늘리는 거 보다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신체활동을 하면 건강한 놀이가 될 것 같다 라고 말하였다.</p> <p>현재 이용하는 놀이 및 여가를 위한 공간과 시설의 불편한 점을 묻는 문항에서 이용료가 비싸다고 다양한 놀이 및 여가 시설이 없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때 자신이 활동하는 환경 근처에 어떤 여가 공간이 어떻게 생겼으면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이용료도 필요 없는 여러 운동시설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p> <p>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느라 여가 활동을 할 시간이 없어서 힘든 점도 있다고 했다.</p>		
문제점	<p>-학교에서 야간자유학습을 자율 학습이 아닌 강제로 권유 하는 경향으로 여가활동을 할 시간이 없다. -여가활동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용요금에 든다.</p>		
제안 내용	<p>설문대상자가 말한 것과 같이 스마트폰과 신체활동을 따로 보지 말고 같이 융합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앱이 개발되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소년이 이용할 필요 없는 여러 운동 시설들이 생겼으면 좋겠다.</p>		
제출일	2018년 10월 18일		

경북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북	아동 성명	류○○
활동 주제	놀이 권리		
현황 및 실태	<p>앞서 진행한 놀이 권리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주제로 팀원들과 토론을 한 후 문제 현황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p> <p>1. 자신의 놀이 방법 중 바뀌어 하는 점을 묻는 문항에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을 줄인다고 신체 활동 늘리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서 SNS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것 같다. SNS를 하면 더 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결국 내 자존감을 깎아 먹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친구들과 실제로 만나 어울리거나 운동을 취미로 가지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신체 활동을 늘리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신체 활동을 늘림으로써 건강한 놀이를 하게 되는 것 같다.</p> <p>2. 현재 이용하는 놀이 및 여가를 위한 공간과 시설의 불편한 점을 묻는 문항에서 이용료가 비싸다고 다양한 놀이 및 여가 시설이 없다는 답변이 많았는데 자신이 활동하는 환경에 어떤 여가 공간이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는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집과 가까운 곳에 카페 같은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 특히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가격도 저렴하고 흡연이 금지된 곳이었으면 좋겠다.</p> <p>3. 아동의 권리 중 놀 권리 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가? 다른 모르는 아동들에게 어떻게 알렸으면 좋겠는가? 놀이 권리가 유엔 아동 권리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이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신기했고 이 사실을 주변 친구들도 말해 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알려면서 설문조사에 쓰여 있는 '건강한 놀이 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와 같이 놀 권리에 대해 몰랐던 친구들을 위해서 놀 권리에 대한 정보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p> <p>4. 아동들의 놀 권리를 위해서 교육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p>		
문제점	<p>청소년들에게 주어진 놀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야간자율학습제도를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금지했으면 좋겠다. 야간자율학습은 '자율'이라는 이름 하에 학생들의 놀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생활 기록부에 작성해야 하는 구체적 세부 특기 사항은 담당 선생님이 꼭 작성하도록 법적으로 제재를 가했으면 좋겠다.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나의 세부 특기 사항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난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를 작성하면서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p>		
현황 및 실태	<p>- 아동들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아동들의 놀이 방식이 스마트폰등의 전자 기기를 줄이고 신체 활동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함. - 아동들의 놀이 공간이 충분하지 않음. - 아동들의 놀 권리를 위해 교육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함.</p>		
제안 내용	<p>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줄이는 것은 개인의 의지이기 때문에 관련 교육을 하거나 아동들의 활동 반경 안에서 신체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스포츠클럽경기장 등)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또 학교에서 아동들에게 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교육하고, 야자를 반강제기 아닌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또한 학교 근처나 아동들의 주요 놀이 활동 장소에는 국가적으로 청소년 전용으로 흡연이 금지되어 있고, 가격대가 아동들이 사용하기 적당하게 책정된 놀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p>		
제출일	2018년	10월	14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북권	아동 성명	심○○
활동 주제	놀이 권리		
현황 및 실태	<p>미세먼지와 놀 권리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결과를 팀원끼리 예기해 보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위해 심층인터뷰 질문을 짰다. 놀 권리는 공통 질문 2개, 개별 질문 3개로 총 다섯 개의 질문을 심층 인터뷰 때 하였고 미세먼지 관련 인터뷰는 공통질문 5개로 인터뷰하였다 (한사람에게 놀 권리,미세먼지 둘 다 인터뷰함).</p> <p>* 놀 권리 (공통질문) - 자신의 놀이 방법 중 바뀌어 하는 점을 묻는 문항에서 신체활동 늘리기를 선택하셨는데 구체적 어떻게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 외부에서 활동 하는 걸 늘렸으면 한다. - 현재 이용하는 놀이 및 여가를 위한 공간과 시설의 불편한 점을 묻는 문항에서 이용료가 비싸다고 다양한 놀이 및 여가 시설이 없다는 답변이 많았는데 자신이 활동하는 환경근처에 어떤 여가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는가? →가까운 곳에 놀만한 시설이 없어 학교나 집 주변에 학생들이 놀만한 공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개별질문) - 거의 모든 설문에 만족도를 표해 주셨는데 이렇게 만족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머니께서 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시기 때문이다. - 놀이에 대한 우리나라 교육방식중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 →(설문조사 포함) (공통질문2과 같음)</p>		
문제점	<p>공부와 학원 때문에 놀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점도 있지만 마땅히 우리 주변에 놀만한 곳이 없어 놀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p>		
제안 내용	<p>학교주변에 학생들이 여가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고 부모님이 아이들의 놀 권리를 억압하는 것보다 공부와 노는 것을 잘 병행할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p>		
제출일	2018년 10월 6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북	아동 성명	원○○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p>놀이 권리에 대한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p> <p>1. 컴퓨터와 핸드폰을 통해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 친구들과 함께 노는 시간을 늘린다. 2. 놀이 시설의 비용이 비싸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했었는데 어떤 시설이 어떠한 방법으로 생겼으면 좋겠나요? → 집이나 학교 근처에 음식점, 노래방 등 저렴한 가격에도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을 구축해 주었으면 좋겠다. 3. 거의 모든 설문에 만족도를 표해 주셨는데 이렇게 만족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 → 놀이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없기 때문이다. 4. 우리가 놀이를 접할 때에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었을까? →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했다. 또한 너무 부정적으로만 다가가지 말아야겠다. 5. 사회적으로 놀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었을까? → 고정적인 인식 제도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자신의 효율을 최대한 낼 수 있도록 놀이를 권장해주진 못하더라도 보장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		
문제점	<p>1. 놀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2. 놀이시설이 결여되어 있어 불편함을 겪는다 3. 올바른 여가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p>		
제안 내용	<p>놀이시설이 결여되어 있는 곳에는 건전한 놀이 시설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주고 책임이 따를 때, 언론을 통하여 잘 쉬고 노는 법에 대한 자신의 주관을 뚜렷히 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져 왔던 놀이에 대한 인식을 차근차근 바꾸어 나가며 아동들이 놀이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		
제출일	2018년 10월 23일		

경북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북권	아동 성명	장○○
활동 주제	놀이 권리		
현황 및 실태	<p>아동의 놀 권리 설문 조사 결과 놀이를 즐기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동의 권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비율은 11.9%이며 이러한 권리를 보호자가 인정해주는 비율에 3명을 제외한 17명이 '약간 인정해준다'와 '적극 인정해준다'에 체크하였다. 그리고 놀이 및 여가 활동을 할 때 보호자의 갈등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서 갈등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 중 1명을 제외한 모두가 '오랜 시간 놀아서'를 택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놀이 및 여가 활동을 하려면 '학습 부담의 감소' 또는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 개선'과 같은 학업과 관련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대다수가 답해주었다. 또한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놀이와 여가 생활에 만족하는지에 대해 20명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더욱 심층적으로 알고자 고등학생 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다. 이 2명 중 한 명은 아동의 놀 권리를 안다고 답변한 학생이었고 한 명은 모르는 상태였다. 또한 2명 모두 자신의 놀이 및 여가 생활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말해주었다. 이들에게 자신의 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두 명 모두 학업적인 압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사회적인 분위기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하였다.</p>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이 노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 -'아동의 놀 권리'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학생들의 무지 -현 놀이 및 여가 생활에 대한 낮은 만족도 		
제안 내용	<p>먼저 아동들이 자신에게 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이를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입시 위주의 사회 및 학업 부담감을 주는 학교 분위기를 개선해, 아동들이 자신의 놀 권리를 영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학생은 놀지 말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 대신 안심하고 놀게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놀이 문화나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		
제출일	2018년	10월	20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경북권	아동 성명	원○○
활동 주제	놀이 권리		
현황 및 실태	<p>설문조사 결과 놀 권리를 안다와 알지 못한다가 거의 1:1의 비율이었다. 또한 자신의 놀이 생활에 만족하는 아동도 예상보다 많았지만 여전히 권리라는 타이틀에 비해 인식이 저조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고등학생 한 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놀 권리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였고 본인의 놀이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주위 놀이 시설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처럼 카페나 노래방이 있다는 대답이 나왔다. 놀이 방법 개선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질문했는데 부족한 놀이 시설과 놀이 시간에 대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시간에 대해서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 문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기와 학교에서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놀 권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p>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분위기가 노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현재 놀이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제안 내용	<p>아동의 놀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학교나 주위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보고 이를 학교 선생님께 건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p>		
제출일	2018년	10월	20일

서울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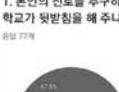
권역	서울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서울 권역 주제 : 1. 놀이 및 여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2. 아동에게 있어 대학의 의의 : 아동의 진로와 대학		
현황 및 실태	이번 활동은 그 전에는 실태와 현황을 중심으로 '조사 활동'과 '통계 자료 파악'을 통해서 서로 각자의 의견을 말하며 소통하고 상황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배운 점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 활동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설문자료를 직접 제작하고 논의하면서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더 좋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지 지향점도 함께 고민해보았다 그 전에 설문지 조항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보면서 논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활동을 하는 동시에 한층 더 나아가서 세분화시키고 서로의 질문에 피드백하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문제점	현재 많은 교육 체계에서는 성적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애초에 진로라는 것을 자신의 생각 범주에 둘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친구들도 지적했듯이 자신의 공을 자사고와 특목고, 대학교로 담으면서 자신이 자립심을 키워 나가면서 진정한 배움이 아니라 맹목적인 학습을 실천하면서 진로에 생각할 거들도 기회도 없다고 현실을 비판했다. 물론 우리의 교육이 수준이 높고 오히려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애초에 그것이 자극재와 보조의 역할이 아닌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웠다.		
제안 내용	설문조사 내용을 아동들의 진로 인식 부족, 진로에 대한 정책 부족, 대학을 맹목적으로 원하는 것 등으로 초점을 두었다. 활동에서는 서로 토의하고 설문조사 질문을 직접 제작하면서 전반적이면서 구체적인 접근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설문지를 직접 학교 학급 친구들에게 배포하면서 그에 따른 통계 자료를 만들고 서로 논의하였다. 또한 그중에서 2명의 친구와 심층 인터뷰와 비슷하게 심화 있는 talk를 진행하였다. 심층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진로와 현재 아이들의 실태와 우리들과 비교를 하면서 현재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과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더 나아가 교육이라는 측면으로 들어가 다른 나라들의 정책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를 한 층 더 발전시키거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아보았다.		
제출일	2018년 10월 20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서울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1. 놀이 및 여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2. 아동에게 있어 대학의 의의 : 아동의 진로와 대학		
현황 및 실태	9월 활동에는 아동에게 놀이에 대한 인식과 생각에 대한 배포한 설문조사를 함하여 아동들의 놀 권리에 대해 구체적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 권역 주제인 아동에게 있어 대학의 의의라는 주제 아래에 대학을 맹목적으로 보는 현 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설문지 문항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각자의 대학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상황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떤 질문들을 만들어서 아동들의 현 상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보았다. 대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면서 진로에 대한 의식 그리고 이들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들까지 잘 적용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가 완성되는 대로 이를 배포하여 현 실태를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문제점	현재 아동들이 받고 있는 교육은 단순히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진로라는 것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볼 시간이 없다는 것이 씁쓸한 현실이다. 대학은 자신의 진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단계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아동들의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학은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든 사회의 분위기가 이에 큰 역할을 했다고 느꼈다. 진로의식을 가지지 않고 이에 대한 지향이 없는 것도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제안 내용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설문지에 놀 권리에 대해 알고 있다는 문항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아동들의 권리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아동들에게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대학이라는 단일화된 목표에서 마친 가지지이다. 아동들에게 있어 대학의 의의가 조금씩 변화하고 더 다양한 진로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더 다양한 교육과 인식을 바꾸기 위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0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서울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에게 있어 대학의 의의		
현황 및 실태	7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8.8%가 자신이 뚜렷한 진로가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본 사람은 96.1%였고 일주일에서 4-6회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청소년은 28%, 하루에 한 번 이상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청소년이 24%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탐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꿈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뒤 결과에도 보듯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라듯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진로를 추구하는 데 있어 학교가 뒷받침을 해주는 질문에는 67.7%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학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신경을 써주고 힘든 학업으로 인해 다른 것을 해볼 기회도 없다는 등의 대답을 하였다. 직업 체험의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보아 자유학기제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제점	1. 본인의 대학교하지 하는 직업 등의 뚜렷한 진로가 있으십니까? 일당 77명		
제안 내용	4.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있는가? 일당 77명		



문제점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탐색하고 있지만, 정착 학생들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하고 도움을 주라고 만들어진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뒷받침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 진로 탐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17세 청소년 10명에게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느꼈는지 질문하였는데 10명 모두가 그저 학교에서 영회 보고 놀고 어릴 때는 자습까지 했다고 하면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중 하나인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만 상담을 해주고 나머지 학생들은 봐주지도 않는다는 것에서 불만을 느꼈다. 실제로 위에서 말한 설문조사 중 학력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느꼈다고 답한 청소년이 94.7%나 있었다. 이것은 학교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중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과 같다. 이처럼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올바른 지도를 하지 않으며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된다.
제안 내용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활동하고 있는지가 중점이었다. 설문지에 붙을 질문 중, 학생들의 진로 흥미도를 조사하기 위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와 진로 탐색 필수, 진로 탐색 방법을 물어보는 제안을 하였다. 9월 10일 때 설문 문항을 만들고 완성하였고 10월 12일부터 약 일주일간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학교 친구들과 진로 선생님께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와 진로 정보의 다양성을 요구하였고 그로 인해 현재 학교에서는 2019 입시와 지원 가능 대학을 알아보기 위해 입시 방법과 모고고사 접수 분석에 대해 배우고 있다. 이번 모임에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각각 진행한 인터뷰 결과로 아동에게 있어 진로와 대학의 의의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제출일	2018년 10월 20일

서울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서울권	아동 성명	안○○
활동 주제	대학에 대한 아동의 의견 설문지		
현황 및 실태	아동들은 현재 너무 압박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진로에 대해 뚜렷한 친구들도 꽤 있지만 없는 친구들 중에서도 진로에 확신은 없지만 "대학"은 필수라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 모니터링단과 설문지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아동의 문제점만은 아니라는걸 알았다. 우리는 학교, 부모님 그리고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다. 그것을 토대로 우리는 생각과 개념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게 된다. 하지만 이 어른들과 사회 때문에 아동들은 대학은 필수, 직업은 나의 행복이 아닌 돈이 우선이라는 가치관을 많이 가지게 된다.		
문제점	어른들은 왜 우리에게 대학을 강요하고 억압하는 것인가?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공부만이 자신의 종이 아닌 사람이 있다. 하지만 학교, 어른 또는 사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 부정적 시선을 주는 게 아직까지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문제이다.		
제안 내용	나는 이 설문지에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지 무엇인지 또 그 선택은 강요당하였는지 묻고 싶다. 아동에게도 인권이라는 것이 있다. 자신이 진짜 하고 싶고 행복할 수 있는 진로를 이 설문지를 통해서 많은 아동들이 느끼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제출일	2018년 10월 1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서울	아동 성명	전○○
활동 주제	아동에게 있어 대학의 의미		
현황 및 실태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교 이전의 학생들 중, 고등학생들이 명목적으로 대학교 진학을 위해 공부를 하거나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다. 공부를 하는 목적이 있어서 대학교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대학에 가고 싶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교의 어느 학과가 아닌 단순히 '어느' 학교인지에만 관심이 있다.		
문제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정할 기회가 없음. 자신이 가고 싶은 학과에 대한 형식적인 정보는 알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정보들은 실질적으로 알기 어렵다.		
제안 내용	고등학교 내에서 훨씬 풍부하고 다양한 진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은 학생의 진로나 진학의 결과에 초점 보다 그 목적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조금 더 확실한 활동력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에 진학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회 통념을 바꾸려는 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출일	2018년 10월 20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서울	아동 성명	전○○
활동 주제	1. 놀이 및 여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2. 아동에게 있어 대학의 의미		
현황 및 실태	<p>총 4명에게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두 명의 인터뷰 내용을 일부 적었으니 참고 바랍니다.</p> <p>인터뷰 1) 대상자 김용빈</p> <p>Q1. 진로를 정하셨나요? -> 네 정했습니다. 저는 요리 관련을 전공하고 싶습니다.</p> <p>Q2. 진로를 정했다면 누구의 비중이 큰가요? -> 어머니의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p> <p>Q3. 대학을 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가야 하는 이유를 굳이 고르자면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을 나온 학생과 나오지 않은 학생 사이의 갭이 커서 대학 졸업의 유무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대학을 진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Q4. 전혀 유명하지 않은 대학이라도 나의 꿈과 관련된 학과가 그 학교밖에 없다면 그 학교라도 가실 건가요? -> 이걸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다고 생각되는데요. 우선 저는 그 분야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라면 유명하지 않은 대학을 선택하겠지만, 만약 성적을 맞춰서 가는 대학이라면 꿈보다는 현실적으로 대학 이름을 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p> <p>인터뷰 2) 박세연</p> <p>Q1. 진로를 정하셨나요? ->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p> <p>Q2. 진로를 정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학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제가 만약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그 분야가 대학이 필요하다면 가겠지만 대학을 간만 따려고 가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고졸과 대졸</p>		
문제점	<p>의 자이가 있지만, 본인이 원하고 하고 싶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p> <p>아동과 청소년에게 있어서 놀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필수적인 권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런 놀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과 입시에 대한 문제였다. 대학의 원래 존재이유는 학문을 깊이 탐구하기 위함이지만 현재의 대학의 의미는 그저 취직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사회 속에 우리는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잃고 중세유기만 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한국교육이 대학에 진학한 후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p>		
제안 내용	<p>아동과 청소년에게 있어서 자유로운 여가활동보다는 공부 집중되고 있었다. 어느 정도의 학문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체계는 너무나도 잘못되어있었다. 교육의 방향성은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하고 숙고하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인간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유립국가들은 학생 하나하나의 가치를 존중하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개성은 존중하지 않은 채 사회가 정해 놓은 틀에 아이들을 오리고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방식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지만, 우리와 같이 문제점을 제시하고 고치려하는 노력들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방식의 변화 2. 대학의 평준화 3.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고려한 진로활동 4. 사회인식의 개선 		
제출일	2018년 10월 20일		

서울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서울	아동 성명	최○○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아동에게 있어 대학의 의미: 아동의 진로와 대학		
현황 및 실태	<p>우리 권역에서 이번 2차에서 한 달을 맡은 밑에 내용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이다.</p> <p>1) 아동의 놀 권리 설문지 돌리기 먼저 저번 시간부터 아동들의 놀 권리 설문지를 돌렸을 때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놀 권리가 자신의 권리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인식과는 무관하게 놀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제대로 보장되는 학생은 몇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학생들로부터 검은 설문지의 답은 다양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학생들 대부분이 현재 상황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다.</p> <p>2) 아동들의 대학에 대한 인식 설문지 제작 요즘 아이들은 사회가 제시하는 성공 기준을 따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그 성공 기준들 중 하나가 바로 대학인데, 우리나라 사회에는 대학을 가는 것을 너무 당연하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풍토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풍토가 취업 등의 무언가를 할 때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 활동으로 대학이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들과 현행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제작했다. 내용은 주로 '대학을 가고 싶든지, 대학을 가는 이유는 무엇이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뚜렷한 의식이 있는지, 그리고 국가에서 관련 정책을 잘 시행하고 있는지' 등의 내용이었다. 당사자들인 우리가 직접 설문지를 만들어보고 서로의 의견에 대해 피드백을 하며 앞으로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실히 인식할 수 있었다.</p>		
문제점	<p>대학에 관한 설문지의 질문을 그런 내용으로 만든 것은 어쩌면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은 좋지 않으며, 바뀔 필요가 있다.</p> <p>(1) 우리 주변을 둘러싼 어른들과 사회가 아이들에게 자신의 선택사항인 대학에 대해 필수사항인 것처럼 큰 부담을 주고 있다.</p> <p>(2) 아동들의 놀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p>		
제안 내용	<p>위에서 제시한 문제점 (1), (2)에 대한 해결방안과 제안</p> <p>(1)-1 시대가 급격하게 바뀔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 개편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p> <p>(1)-2 아동들의 대학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하여 의회(또는 청소년의회)에 제출한다.</p> <p>(2)-1 아동들이 놀 시설(공간)을 확충한다.</p> <p>(2)-2 아동들이 놀 시간을 확보한다. (학원에서의 학습시간 감소 등)</p> <p>(2)-3 아동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늘린다. (입시 위주의 정책들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p>		
제출일	2018년 10월 19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서울	아동 성명	전○○
활동 주제	<p>1. 놀이 및 여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p> <p>2. 아동에게 있어 대학의 의미</p>		
현황 및 실태	<p>친구들 인터뷰 결과 평소 여가를 잘 즐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놀이시설의 부족이 컸다.</p> <p>(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가 혁신학교로 다른 학교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대학보다는 다른 분야로 진로를 결정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학원 때문이라는 이유보다는 여가와 관련된 답변이 많았습니다.)</p> <p>놀이시설의 부족으로 노래방과 피시방을 제외하고 놀 공간이 많이 부족했고, 여가활동을 즐기고 싶어도 즐길 수 있는 여가에 한계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놀이시설에 대해 앞으로 많이 생겼으면 했던 놀이시설은 감성 예체이 책이 구비되어있는 카페, 혹은 보드게임 카페 등이 가장 많이 나왔다.</p>		
문제점	<p>아동과 청소년에게 있어서 놀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필수적인 권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런 놀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과 입시에 대한 문제였다. 대학의 원래 존재 이유는 학문을 깊이 탐구하기 위함이지만 현재의 대학의 의미는 그저 취직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사회 속에 우리는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잃고 쓸 세우기만 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한국교육이 대학에 진학한 후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p>		
제안 내용	<p>아동과 청소년에게 있어서 자유로운 여가활동보다는 공부나 집중되고 있었다. 어느 정도의 학문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는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었다. 교육의 방향성은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하고 속고하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인간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북유럽국가들은 학생 하나하나의 가치를 존중하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개성은 존중하지 않은 채 사회가 정해 놓은 틀에 아이들을 오리고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방식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지만, 우리와 같이 문제점을 제시하고 고쳐나가는 노력들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p> <p>1. 교육방식의 변화</p> <p>2. 대학의 평준화</p> <p>3.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고려한 진로 활동</p> <p>4. 사회인식의 개선</p>		
제출일	2018년 10월 20일		

전남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광주 전남	아동 성명	오○○
활동 주제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 때문에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공간적으 넓고 감사초청을 변경하여야함		
현황 및 실태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모든 상권을 쓰지 않고 담배를 피운다. 공위, 놀이터 주변에서 많이 보았다.		
문제점	아동청소년들의 간접흡연을 하게 되고 놀이터나 주변에 담배 냄새가 난다.		
제안 내용	아동청소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서 담배피우는 것을 자제(인외면)종종고 금연구역을 넓혀야 할것입니다.		
제출일	2018년 9월 15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광주전남	아동 성명	채○○
활동 주제	담배금지		
현황 및 실태	담배를 많이 피운다.		
문제점	담배 때문에 알릴 것		
제안 내용	담배를 금지 할 것		
제출일	년 월 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광주전남	아동 성명	류○○
활동 주제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방지		
현황 및 실태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등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흡연을 함 아이들과 학생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상가 및 학원가에서 권거리에서 흡연을 함		
문제점	상대적으로 흡이 약한 아동들에게 흡연자와 같이 피해를 거머 받은 담배연기를 마시는 것 은 흡연자보다 더한 증상 발생		
제안 내용	실문조사를 통한 예방 방법 연구/담배갑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아동들의 피해 흡연실의 흡연 및 감시감파 (비흡연구역에 대한) 비흡연구역의 지정 간접흡연 및 흡연의 위험에 대한 교육 국가적으로 실시		
제출일	2018년 9월 15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광주전남	아동 성명	노○○
활동 주제	금연 구역, 금연터에 대한 논의!		
현황 및 실태	어른들이 흡연하고 놀이터에서 도 흡연한다.		
문제점	아이들이 간접 흡연을 하게 되고, 병이 걸린다.		
제안 내용	금연구역을 늘리거나 담배를 금연구역에 서 피우면 벌금 999900원을 내야 한다.		
제출일	2018년 9월 15일		

전남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광주.전남	아동 성명	200
활동 주제	이동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 때문에 건강을 해칩니다. 그러므로 권역구역도 넓히고, 공개화장 시설을 마련해주어야		
현황 및 실태	술집이나 횡포, 고깃집 주변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어린이들이나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옆집에서 피거나 꼬부리라고 기능기 중독성이나 과학성분이 있으면 신장까지 안고 피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주택 단지에서도 밖으로 나오면 때문에 지내는 화상등이 건강을 해쳐준다. 그리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데 흡연과 뒤에서 걸어가면 심각한 건강문제를 하게 된다.		
문제점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이 안좋아질뿐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습기 사자가 많아 물이 넘어서 있고, 화장실이 담배를 피는 모습도 보고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피우시기를.		
제안 내용	주변인기, 이따로 인기, 놀이터 주변에서 피우기 못하도록 제한함 흡연구역 설정. / 다른 나라에서 편하게 피는 것을 막아주는 흡연 인 경우 개인이 피는 공간이 없을지라 때문에 생긴 것. 새로운 흡연장 만들기(길 옆) / 담배꽂이 막기		
제출일	년 월 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광주.전남	아동 성명	200
활동 주제	놀이터 안전 흡연에 관해서 관련 생각.		
현황 및 실태	현재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놀이터에서 흡연을 하는 어른들이 때문에 많이 있다.		
문제점	아동청소년들이 놀 공간에서 건강문제를 하게 되고, 담배 냄새로 인한 불쾌감이 생긴다.		
제안 내용	아동청소년들이 아닌 성인들의 경우, 흡연을 하게 된다면 놀이터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흡연을 하도록 지정하고, 놀이터에서 흡연을 하면 더 강한 냄새 내린다. 아동청소년들의 보호자가 흡연자인 경우, 놀이터에 흡연 부를 설치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들이 흡연하는 모습을 볼 수 없게끔 지정한다. + 영·유아의 보호자만 흡연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 흡연자(영·유아 보호자)의 흡연에만 집중해서 지정하거나 흡연자인 다른 보호자가 어른을 사른다.		
제출일	2018년 9월 15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광주.전남	아동 성명	200
활동 주제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 때문에 건강을 해칩니다. 그러므로 권역구역도 넓히고, 공개화장 시설을 마련해 줘주세요.		
현황 및 실태	현재 어른들과 청소년이 흡연하지 않는 아동청소년들은 배려하지 않고 아동청소년들이 놀이 도어있는 곳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권역에서 미래까지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ยาก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흡연 경고 표지판이 붙어있는 곳 CCTV가 있는 곳에서도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이따로 가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점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도록 해서 아동청소년들이 그런 흡연 장면을 목격하고 생각해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생각하냐 담배를 피우면 안되고 흡연 도를 막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흡연은 피하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문제를 겪어줘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더 안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안 내용	주변 CCTV 설치 및 금연표지판만 만드는 것이 아닌 금연 부를 설치하고 더 넓히고 금연표지판과 CCTV에 적혀있는 흡연장 사에 방생하는 현상은 같아라하여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흡연하여 아동청소년들이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어른들에게만 제한하는 것이 아닌 우리도 어른과 청소년들에게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금연 표지판 설치 및 금연할 시 방생하는 안좋은 것들 모아 명함으로 만들고 처벌을 도와주세요 합니다.		
제출일	2018년 9월 15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광주.전남	아동 성명	200
활동 주제	아동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 때문에 건강을 해칩니다. 그러므로 권역구역도 넓히고, 공개화장 시설을 마련해 줘주세요.		
현황 및 실태	- 놀이터에서 피우는 어른들 많음 - 기분이 나쁨.		
문제점	▶ 과음새를 맡으면 건강이 나빠짐. ▶ 건강을 해칩니다.		
제안 내용	흡연실을 만든다. ▶ 건강을 해칩니다		
제출일	2018년 9월 15일		

전남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놀 권리)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광주전남	아동 성명	900
활동 주제	아동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 워크숍		
현황 및 실태	현재 아동청소년들의 놀이활동은 친구들이러 PC방가기, 노래방가기, 오락실, 유희장 등입니다. 제가 이 글에 올렸던 놀거리란 노래방가기 및 유희장가기입니다.		
문제점	PC방 같은 놀거리는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이 오고 하는데 그 글에는 도둑질도 있습니다. 중학생이 PC방을 가는것을 알게가 되거나 그런 그 과정은 중-고생까지의 욕설을 들어 어딘지 모르디 나발영을 비웃는것은 불편한 모습으로 담배냄새가 어린나이부터 느껴집니다.		
제언 내용	아이들이 쉽게 만물을 구하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중학생 환경을 불쌍하게 만들고 담배냄새가 나지않게 문보실 칸에 방화제를 매지하여 불편한 곳 그 방화제를 뿌려 담배 냄새를 제거해야한다고 중학생이 경고 표시를 붙입니다. 그리고 중학생같은 나이가 어린 학생들은 한시 모시 않기 때문에 따로 방화제를 만들어 전체 학생의 7~10% 정도를 어린이용으로 따로 만들어서 목숨을 쉽게 걸치지 않도록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출일	2018년 9월 15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광주전남	아동 성명	900
활동 주제	아동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 워크숍		
현황 및 실태	취미 관련 놀이 활동은, 새끼치, 스키야기, 유희장 또는 PC방가기 등의 다양한 놀이 있다. 내가 경험한 놀이로서 취미 관련 놀이 활동은 새끼치, 스키야기, 유희장 등이다. 또, 불안전한 놀이로서는 스키야기, 유희장, 노래방에 들어가 놀기, 유희장에 놀기, 노래방가기, 유희장에 놀기, 노래방가기, 유희장에 놀기, 노래방가기 등이다. 취미 관련 놀이로서는 새끼치, 스키야기, 유희장, 노래방, PC방 등이다. 취미 관련 놀이로서는 새끼치, 스키야기, 유희장, 노래방, PC방 등이다. 취미 관련 놀이로서는 새끼치, 스키야기, 유희장, 노래방, PC방 등이다.		
문제점	취미 관련 놀이 활동은, 새끼치, 스키야기, 유희장 또는 PC방가기 등의 다양한 놀이 있다. 내가 경험한 놀이로서 취미 관련 놀이 활동은 새끼치, 스키야기, 유희장 등이다. 또, 불안전한 놀이로서는 스키야기, 유희장, 노래방에 들어가 놀기, 유희장에 놀기, 노래방가기, 유희장에 놀기, 노래방가기 등이다. 취미 관련 놀이로서는 새끼치, 스키야기, 유희장, 노래방, PC방 등이다. 취미 관련 놀이로서는 새끼치, 스키야기, 유희장, 노래방, PC방 등이다.		
제언 내용	안전, 건강한 놀이 활동은 안전한 놀이 활동은 안전한 놀이 활동으로 바뀌어 뛰어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으로 대체된다. (노래방, 스키야기 등). 놀이 관련 놀이 활동은 안전한 놀이 활동으로 대체된다. (노래방, 스키야기 등). 놀이 관련 놀이 활동은 안전한 놀이 활동으로 대체된다. (노래방, 스키야기 등).		
제출일	2018년 9월 15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광주전남	아동 성명	박00
활동 주제	아동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 워크숍		
현황 및 실태	1. 내가 하고 싶은 놀이 활동: 놀이 야기 2.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재미있고 미친 것이 좋다. 그냥 혼자 놀지는 않는다. 3. 유희장에 놀다 PC방가기 4. 유희장에 놀다 유희장에 놀다 유희장에 놀다 유희장에 놀다.		
문제점	PC방을 가면 스트레스가 쌓인다. 욕을 많이 한다.		
제언 내용	아동 활동을 많이 한다. 인공 활동 건강이		
제출일	2018년 9월 15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광주전남	아동 성명	조00
활동 주제	아동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 워크숍		
현황 및 실태	① 노래방, 게임방, 유희장, 노래방, PC방 등 구분 있다 ② 유희장, 노래방, 게임방이 즐겼는데 내가 좋아하는 유희장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아니라만 놀거리는 스키야기 및 노래방에 놀다.		
문제점 + 제언	PC방 - 유희장이 심해 놀지 못한다		
제언 내용	PC방의 흡연구역을 강화한다		
제출일	년 월 일		

전남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놀 권리)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합남 광주 전남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청소년들의 놀이 문화 워크숍		
현황 및 실태	-원래 내가 경험하는 놀이 활동에는 노래방(코인노래방), PC방, 도핑, 메이킹, 오락실 등이 있다. 특별활동 내가 경험했던 놀이 중 좋았던 것 거의 전부 활동이 줄었다. 왜냐하면 친구들과 함께 놀며 소파감을 느끼고, 이야기들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 좋았다. 노래방		
문제점	-PC방 노래방에서 성인들이 담배를 피우자 담배 냄새를 풍기며 등대바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특별활동이 아이들을 즐기는 채로 청소년들은 건전하지 못하다고 일반화 시키고 좋은 시선일 바라지지 않아 불만이다.		
제안 내용	PC방과 노래방을 클럽 구역으로 지정해 > 이용제한을 해담배를 피우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주면 벌을 받으면 좋겠다. 예 활동을 통한 아동청소년들 내리는 예들의 사인 리서클 개선사업이 가능할 것 같다.		
제출일	2018년 9월 15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남지역	아동 성명	이○○
활동 주제	아동청소년들의 놀이 문화 워크숍		
현황 및 실태	당구장, 볼링장, PC방, 코인 노래방, 축구, 배드민턴, 자전거타기, 스마트폰 게임.		
문제점	어른이 많이 다니는 볼링장 청소년들이 불만여 잘 놀지 못한다. PC방의 담배냄새, 자전거도로 부족. 스마트폰으로 인한 시력저하.		
제안 내용	청소년, 아동들만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시설을 늘려주고 스마트폰을 즐겨하는 청소년, 아동들을 위해 스포츠시설 증가.		
제출일	2018년 9월 14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광주전남	아동 성명	여○○
활동 주제	아동들의 놀이 문화 워크숍		
현황 및 실태	놀이활동 : PC방, 코인 노래방, 볼링, 볼링장, 스포츠, 캠프, 영화 만족스러운 놀이 : 축구, 농구, 농구장 가서 놀기, PC방에서 게임하기		
문제점	노래방에서 PC방에서 담배 냄새가 문제		
제안 내용	중요한 시설이 시설이 필요하다 놀 수 있는 공간을 넓게 놀이 할 수 있는 비움줄은것		
제출일	2018년 9월 15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광주 전남	아동 성명	노○○
활동 주제	아동청소년들의 놀이 문화 워크숍		
현황 및 실태	하는 것 : 핸드폰 게임, 축구, 야구, 배드민턴, 컴퓨터 게임, 피구 좋아하는 것 : 피구, 축구, 야구, 배드민턴		
문제점	3권목게임, 핸드폰 게임을 많이 하면 눈과 몸이 나빠진다. 걱정이 된다.		
제안 내용	나 놀이시설을 늘려주기 축구 골대, 배드민턴 코트를 만들어 줘줬으면 좋겠다.		
제출일	2018년 9월 15일		

전남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놀 권리)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광주전남	아동 성명	누○○
활동 주제	아동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		
현황 및 상태	+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약성 있는 게임 (비윤리적인 및 성인용)의 존재 · 교육과 관련된 놀이시설 · 활용성 있는 스포츠를 찾기가 적당하지 않은 장소 (유가가 부담감) 		
제안 내용	<p>특약성 있는 게임 혹은 선정성을 띠는 게임이나 여자의 게임 교육한 놀이시설 및 기타의 안전점검용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소 개발 구비나 공터나 숲 관교 운영장을 이용; 여가 및 놀이 프로그램 개발</p>		
제출일	2018년 9월 15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광주 전남	아동 성명	차○○
활동 주제	아동 청소년의 놀이 문화		
현황 및 상태	<p>1. 라노켓 ① 농구 ④ 양화 ⑤ 피아노 2. 풍요원기 ① 농구 ④ 양화 ⑤ 피아노</p>		
문제점	<p>3. A이슈시간 부족 ④ 화원 스포츠</p>		
제안 내용	<p>4. ④ 화원 부속 넓기 ⑤ 피아 체육 시설 확충하기</p>		
제출일	2018년 9월 15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아동 성명	채○○
활동 주제	아동 청소년의 놀이 문화		
현황 및 상태	<p>야구합 피구합 배구합 족구합</p>		
문제점	<p>배구 경기장이좁음 족구 경기장 11</p>		
제안 내용	<p>배구 경기장 넓히기 족구</p>		
제출일	2018년 9월 15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광주 전남	아동 성명	오○○
활동 주제	아동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		
현황 및 상태	<p>헤어기는 포함됨. 핸드폰, 컴퓨터 게임, 신체활동, TV시청, 노래방 등. 민속놀이 관련 포함됨. 피구, 컴퓨터 게임, TV시청, 발야구, 티볼, 농구, 노래방 등</p>		
문제점			
제안 내용	<p>놀이터나 놀이공간의 시설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p>		
제출일	2018년 9월 15일		

전북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 정읍시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권역별 주제) 아동의 보호권		
현황 및 실태	8월 회의에서 결정된 캠페인이 지난 9월 15일 전주 객사에서 진행됨. 실제 아동들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설명과 퀴즈를 진행했을 때 정확히 알고 있던 아동이 많지 않았음. 그러나 캠페인을 참여한 아동들이 아동 보호권에 관련한 지식을 받고 '아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함. 또한 일부 시민과 현 사회에서 존중받지 않는 아동의 보호권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는 등 시민의식 향상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임.		
문제점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뿐만 아니라 아동인 본인들조차도 아동의 보호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현 사회(아동의 보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함.		
제안 내용	공통설문지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전북권의 아동의 보호권에 관련된 동영상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질문1) 아동의 범위를 알고 있는가? + 보호권에 관한 정의 질문2) 유지원의 아동 폭력 사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3) (2번의 질문을 바탕으로) 현재 아동의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면, 어떤 정책과 환경조성이 필요한지) 질문4) 아동의 보호권을 침해하는 자(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가?		
제출일	2018년	9월	30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권역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보호 지금 이대로 괜찮은 가		
현황 및 실태	학교 안전 공제회와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유지원 교직원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신제 24, 정서폭행 41 등이 나왔고 15년도 신제 26, 정서 38 등 16년도 신제 28 정서 46 등 17년도 (잠정지) 신제 28 정서 125 등으로 5년간 818건의 아동학대 사고 가 일어났다. 정서적 폭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아동의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지울 수 없는 상처까지 주었다. 아동의 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범범으로 인해 아동들은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되지 않고 있다.		
문제점	1. 사람들이 아동의 보호권에 대해 인식을 못하고 있음 2. 아동 학대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해결하려는 마음은 소극적이다		
제안 내용	·정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실시 ·아동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터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에 관한 현 제도 및 법 강화 · 2018년 9월 15일 전주의 중앙살림광장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설명과 아동의 보호권 퀴즈, 아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수렴과 정부에게 아동의 보호권에 대해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출일	2018년	9 월	16 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권역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보호권에 대한 인식 개선하기		
현황 및 실태	1. 보호권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는 계속 증가 -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팔을 깨우는 고사 - 아이 등하원 자랑에 받치 - 아이를 때려 죽게 만드는 부모 - 어린이집 CCTV를 피해 화장실에서 고의적 폭행 2. '아동의 보호권'을 주제로 의견수렴 및 캠페인 진행 - UN아동권리협약 안내, 설문조사, OX퀴즈 실시 - 설문조사 : 내가 생각하는 아동은 ()이다, 피해 아동을 보면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문제점	- 아동의 범위, 권리에 대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음. - 보호권 및 아동의 권리가 법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모름. - 시민들의 참여 부족.		
제안 내용	1. 피해보고 있는 아동을 위해 정부가 해줬으면 하는 일 조사 결과 아동을 표적으로 한 범죄의 처벌 강화, 아동보호교육 실시, 아동보호 정책 만들기 등이 제안됨. 2. 아동의 보호권을 잊지 않고, 실생활에서 지켜줄 수 있도록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함. 3. 아동의 권리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		
제출일	2018년	9월	18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권역별 주제) 아동의 보호권		
현황 및 실태	전주 객사에서 아동의 보호권 관련 캠페인 활동을 하였음. 두 조로 나뉘어서 활동하였으며 객사 내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조는 내가 생각하는 아동은? 이라는 질문에 포스트잇에 답변을 받는 활동을 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소개하였음. 다른 조는 피해 보고 있는 아동을 보면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라는 질문에 포스트잇으로 답변을 받았고 보호권에 관한 퀴즈를 하였다. 대다수의 아동들이 보호권, 아동권리협약 등에 대해 잘 몰랐음. 하지만 이와 별개로 캠페인에 참여한 대부분은 아동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 하였음		
문제점	아동의 보호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함		
제안 내용	주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권을 주제로 한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함		
제출일	2018년	10월	22일

전북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보호권		
현황 및 실태	아동 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계속 된 아동 학대가 일어나고 있으며 CCTV를 피한 사각지대에서의 폭행도 일어난다고 교사들의 폭행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이유로도 타당하지 않지만 교사들의 쉴 권리와 여러 가지 재약을 본다면 이게 단순 교사들의 인성 문제만이 아니라 교사 인권에 관한 제도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점	1. 아동의 보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2. 아동의 보호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다. 3. 교사들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		
제안 내용	1. 아동을 폭행한 보육교사 처벌은 강화되어야 한다. 2. 아동의 권리에 대한 홍보 3. 교사 인권에 관한 조례안 제정		
제출일	2018년	09월	23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보호권		
현황 및 실태	사람들은 최근 뉴스를 통해 아동이 보호를 받아야 할 보호자로부터 심한 학대부터 어린이집 자장에 방치되어 사망하는 소식을 많이 접해서 그에 대해 화와 슬픔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아동의 보호권을 지켜주기 위한 실천 방법을 잘 몰라서 행동에 옮기지 못 하고 있다.		
문제점	아동의 보호권을 지켜주기 위한 마음은 있지만, 실천 방법을 잘 몰라서 생각이 그치는 경우가 많다.		
제안 내용	사람이 많은 거리로 나가 미리 준비한 퀴즈와 의견 받는 종이와 판, 그리고 설명이 적힌 종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퀴즈와 의견 제시를 받기로 했다.		
제출일	2018년	10월	8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전주)	아동 성명	문○○
활동 주제	아동의 권리-보호권		
현황 및 실태	아동의 보호권이 지켜지지 못하는 사례(학대 등)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아동들이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은 아동의 보호권이 침해되는 사례에 대해 분노하긴 하나 지속적으로기보다는 관심을 잠깐 보이고 마는 태도를 보이는 게 대다수이다.		
문제점	아동이 본인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아동의 보호권이 침해되었을 때의 처벌 경우에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만다.		
제안 내용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아동의 권리 중 보호권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출일	2018년	9월	29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전주)	아동 성명	박○○
활동 주제	대한민국 속 전북의 보호권		
현황 및 실태	9월 15일에 전주 한옥마을과 객사에서 8월에 계획했던 보호권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한옥마을 인근 카페에서 회의를 진행하였다. 비가 그치면 나가서 캠페인을 하자고 하였다. 회의에서 요즘 한국에서의 보호권 침해 문제와 전북지역에서의 보호권 침해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보호권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하였다.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팔을 깨우는 교사, 아이 등하원 차량에 방치, 아이를 때려 죽게 만드는 부모, 어린이집 CCTV를 피해 화장실에서 고의적 폭행 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내가 직접 찾아본 결과 전북에서는 아직 이런 사건은 없었다. 캠페인 활동에서 전주시민(학생들)상대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소개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아동이란? 이런 주제로 포스트잇을 시민들에게 부착을 드려 의견을 들었다.		
문제점	전북지역에서의 보호권은 지켜지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보호권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제안 내용	전북권역 예술과의 회의에서 10월 달에 무엇을 할지 회의를 진행하였다. 내가 LENS에 지원할 때 'LENS활동을 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질문에 아동권리에 관련해 인터뷰를 동영상으로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회의를 하다가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술이 인터뷰를 동영상으로 찍자고 해서 고맙다. 인터뷰 내용은 보호권에서는 1. 아동의 범위를 알고 있는가? 대해서 보호권에 관한 정의를 알고 있는가? 안다면 알게 된 계기까지 2. 알고 있는 아동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가? 3. 2번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그렇다면 아동의 인권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어떤 정책과 환경조성이 필요한지 4. 아동의 보호권을 침해하는 지(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등을 물어 예정이다. 최소 3명에서 5명까지 하기로 하였다.		
제출일	2018년	9월	23일

전북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	아동 성명	왕○○
활동 주제	아동의 보호권		
현황 및 실태	<p>아동의 보호권이란? 아동의 보호권이란 UN아동권리협약이 지정한 아동 4대 권리중 하나로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p> <p>지금은 아동의 보호권이 매우 자주 침해당하고 있다. 그 예로는 유치원교사의 아동 폭행, 가정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 신체적 폭행, 보호권 외의 다른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 모든 행위도 보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하며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진 가슴기 살균제 사건, 아동을 무더위 자랑에 방치하는 것도 보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물리적 폭력뿐만이 아닌 간접적인 폭력과 방관 또한 보호권 침해가 될 수 있다.</p> <p>또한 전북권역 단원들이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기 위해 다 같이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UN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관심 또한 없었다.</p>		
문제점	<p>캠페인을 진심으로 진지하게 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시민들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부족)</p>		
제안 내용	<p>사람들이 아동의 권리에 갖는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기 위한 공익광고 또는 홍보 방안 모색.</p>		
제출일	2018년	9월	20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	아동 성명	유○○
활동 주제	권역주제: 보호권		
현황 및 실태	<p>전주 객사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보호권)' 캠페인을 진행함. 대다수의 아동들이 '보호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음. '보호권'은 잘 모르나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던 '아동 차량 내 방치사건'으로 인해 아동들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보호권'을 알고 있다고 물리적으로 가한 폭행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만이 '보호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음.</p>		
문제점	<p>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보호권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지식이 미흡함.</p>		
제안 내용	<p>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보육시설 아동폭행'에 대해서 교사의 문제도 있지만 교사들의 근로 환경 또한 문제점으로 제시됨. 근로 환경에 대한 정책제안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함.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동영상, or 음성녹음)를 실시하기로 함.</p>		
제출일	2018년	9월	24일

9월 활동보고서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	아동 성명	왕○○
활동 주제	보호권		
현황 및 실태	<p>아동의 보호권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동을 지키고 보호에 취약 할 교육기관에서의 학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p>		
문제점	<p>아동을 보호해 줘야한다는 점은 다 알고 있지만 이를 알고도 아동의 보호권을 침해하는 것이 문제다.</p>		
제안 내용	<p>전주 객사 살림광장에서 아동의 보호권을 알리고 보장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p>		
제출일	2018년	10월	25일

권역	전북	아동 성명	왕○○
활동 주제	아동의 보호권		
현황 및 실태	<p>아동의 보호권이란 아동의 권리 중 하나로 아동이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차량 방치사건, 어린이집 폭행 사건 등 아동이 보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보호권을 주제로 변화가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유연 아동 권리 협약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보호권에 관한 문제를 맞춰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p>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의 보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2. 아동의 보호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다. 		
제안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과 가깝게 지내는 직업군에게 보호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 2.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여 시민들이 보호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해야 한다. 		
제출일	2018년	9월	22일

전북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권역	아동 성명	임 ○○
활동 주제	아동보호권에 대해서		
현황 및 실태	<p>9월 현재까지도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력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울에 한 어린이집에서는 CCTV를 피해 화장실에서 아동을 때리는 일이 발생하였다.</p> <p>교실에는 CCTV가 있고 화장실에는 CCTV가 없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이견 정말 억의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없다.</p> <p>보육교사는 아동을 보호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물건 다루듯이 학대하고 있다. 그런 보육교사 더 이상 이대로 놔둘수는 없다.</p> <p>이번 9.15일 전주 중앙삼림광장 앞에서 캠페인활동을 진행 하였는데 일부 시민들은 모른 채 지나가고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태인지 인식을 못하는 시민들도 있었다.</p>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집도 더 이상 아동안전지대가 아니다! 2. 사람들의 아동 보호권에 대해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다. 		
제안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을 폭행한 보육교사 처벌은 강화되어야 한다. 2.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홍보와 교육필요! 3. 아동 보호권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 길거리 집중홍보 		
제출일	2018년	9 월	22 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	아동 성명	한○○
활동 주제	아동의 보호권		
현황 및 실태	<p>아동의 권리로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네 가지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학대받는 아이는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아동이 학대로 숨졌다. 201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사망한 아동 39명 가운데 21명이 폭행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었다. 9명은 전부모·개부 등 이 고의로 살해했고 부모가 아동을 데리고 목숨을 끊으려다 아동만 죽은 경우도 5명이나 됐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낸 '2016년 아동학대현황속보지' 자료를 보면 지난 한 해 경찰에서 아동학대 1134건이 발생했다.</p>		
문제점	<p>아동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로 '아동 권리'에 대한 낮은 인식이 제일 크다고 생각한다</p>		
제안 내용	<p>여승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은 "우리 사회는 아동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 인식이 강하다"며 "아동 권리에 대한 사회 전반 인식을 강화하려면 아이, 어른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의 권리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도록 홍보를 해야 하고 아동 권리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한다</p>		
제출일	2018년	9 월	23 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	아동 성명	최○○
활동 주제	보호권		
현황 및 실태	<p>-저번 8월 1차 회의를 통해 결정한 캠페인을 전주 객사에서 실시함.</p> <p>- 아동들이 '보호권'을 비롯한 여러 권리들에 대해 잘 모름</p>		
문제점	<p>아동의 권리에 대해 아동들 스스로가 알지 못함.</p>		
제안 내용	<p>아동들에게 '보호권'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기로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의 범위를 알고있는가? + 보호권에 관한 정의를 알고 있는가? 2. 최근 대두되고 있는 유치원 아동 폭력 사례들에 대해 어스(체) 생각하는가? 3. 아동의 인권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4. 아동의 보호권을 침해하는 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제출일	2018년	9 월	26 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	아동 성명	황○○
활동 주제	아동의 보호권		
현황 및 실태	<p>현재 많은 사람들이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아직도 크게 변화 없이 아동의 폭행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p> <p>-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아동의 얼굴까지 이물을 넣는 등의 학대.</p> <p>-유치원 스쿨버스에서 아동 방치.</p> <p>-CCTV가 없는 화장실에서 아동의 똥을 때리는 등의 폭행.</p> <p>-지하 강당에 아동 혼자 방치해 심장마비로 사망.</p> <p>-가정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p> <p>이처럼 아직도 상습적으로 죄책감 느끼고 폭행을 하는 사람들이 넘치고도 넘친다.</p>		
문제점	<p>이를 위해 길거리 캠페인 실행</p> <p>-아동권리 협약의 대한 길거리 OX 퀴즈</p> <p>-'내가 생각하는 아동의 ()이다', '피해를 보고있는 아동을 보면 정부에게 하고 싶은말 등을 큰 팜플렛으로 만들어 설문조사</p>		
제안 내용	<p>-유엔아동권리협약의 범위 종류등을 모르고 있는사람들이 많음(인식의 어려움)</p> <p>-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사람이 없음</p>		
제안 내용	<p>-사람들에게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 실시 (권리 교육)</p> <p>-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p>		
제출일	2018년	9월	19일

전북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 정읍시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p>'기상-등교-수업-점심-수업-저녁-야간자율(또는 학원)' 대한민국 아동(고등학생)의 평범한 하루일과이다. 평일 중 아동은 마음 편하게 쉴 시간도 여유도 없다. 주말에도 쉴 틈이 없는 건 마찬가지이다. 시간이 나면 밀린 잠을 자기 일수이고, 대부분은 학원이나 정대 안에서만 시간을 보낸다.</p> <p>아동이 밖에서 뛰놀기 위해서는 그럴만한 장소가 필요한데, 실제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즐길만한 시설이 그다지 많지 않다. 지역마다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문화체육관'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내부에서 진행되는 활동이나 별칭은 다소 한정되어 있는 편이다.</p>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소화하기에 벅찬 하루 스케줄(놀 시간의 제약이 큼) - 아동이 제대로 즐기면서 놀만한 시설(놀 장소의 제약이 큼) 		
제안 내용	<p>아동의 놀 권리를 존중하고 제대로 놀만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확히 어떤 정책과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동영상 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다.</p> <p>질문1) 하루 몇 시간 정도 노는가? 질문2) 놀 때 뭐하고 노는가? 질문3) 몇 시간 정도 노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질문4) 놀지 못하는 이유와 어떤 시설·환경이 필요하다고 보는가?</p> <p>이러한 인터뷰와 캠페인,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다 많은 아동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p>		
제출일	2018년 9월 30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p>시민(어른)은 특히 학부모들은 아동의 놀 권리를 학업이라는 틀 안에서 압박하고 아동들조차 자신들의 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p> <p>놀 권리를 침해할 만큼 지나친 학업 부담으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아동의 자살률 또한 매년 증가하지만 국가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건지 틀에 박힌 제도를 바꾸기 싫은 건지 학생의 학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p>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들의 반복적인 규칙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2. 반복적인 규칙으로 인한 노는 시간(휴식 시간) 부족 3.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발병과 자살의 위험성 증가 		
제안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놀 권리 관련 설문지 20명 조사 2. 아동(청소년) 최소 3명을 인터뷰하여 놀 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일주일에 얼마나 노는지 등 질문할 예정이다 		
제출일	2018년 09월 23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권역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놀 권리 (우리도 쉬어야한다)		
현황 및 실태	<p>많은 청소년(아동)들이 상급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많은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일명 SKY를 가기 위해 지역의 사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시간 도 없이 공부의 외버우스 띠를 겪어야만 한다. 또 강산 상층 계층 부모들이 영 유아들이 커서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영어 일명 영어 유치원을 입학 시켜 아동들의 뇌 발달을 저하 시킨다. 한 지역의 고등학생이 전교에서 1등이고 2년 내내 다독상을 받은 효자이자 모범생이었다. '어머니는 3일 동안 잠을 안 재우고 밥도 안 먹이며 공부를 시켰고, 잠만 줄었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200대를 때린 다. 이에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소년은 패륜범죄의 가해자가 되었다.(출처 뉴스핌)'학업스트레스로 인해 OECD국가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얻었다. 많은 학생들은 평일은 집 - 학교 - 학원 - 집, 주말과 주말에는 집 - 학교 - 집 이라는 반복적인 규칙을 가진다. 평일 같은 경우에는 야간 자율 학습이 끝나면 10시 그 상태로 가면 학원은 12시 새벽 1시 다음 날이 되어야 하루가 끝난다.</p>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들의 반복적인 규칙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2. 반복적인 규칙으로 인한 노는 시간(휴식 시간) 부족 3.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발병과 자살의 위험성 증가 		
제안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놀 권리 관련 설문지 20명 조사 2. 아동(청소년) 최소 3명을 인터뷰하여 놀 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일주일에 얼마나 노는지 등 질문할 예정이다 		
제출일	2018년 9월 16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권역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p>'놀 권리': 자유롭게 활동하고 놀 수 있는 권리. 모든 아동들에게는 청소년에 맞는 안전한 시설에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하며 놀 권리가 있음.</p> <p>아동에게 보장되는 놀 권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며, 심지어 놀 권리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음.</p> <p>놀 '권리'는 있지만 '보장'은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학생들이 학업 때문에 놀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할뿐더러 시설 부족이나 비용의 부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 등을 이유로 권리에 제약을 받고 있음. 		
문제점	<p>학업, 환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이며, 놀이 문화에 대해서도 어른들의 편견이 아직 존재함.</p>		
제안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의 주변 아동들에게 놀 권리에 대해 설문조사 진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 권리가 지켜지고 있지 않은 원인을 해결해야 함. 2. 인터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 권리에 대한 인식 확인 - 아동들이 방해받는 요인 조사 및 개선 노력 3.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 		
제출일	2018년 9월 18일		

전북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놀 권리'에 대해 아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관심이라도 가질 수 있게 설문지를 들고 친구들에게 참여를 부탁했다. '놀 권리'에 대해 아는 친구도 있었고 모르는 친구도 있었지만, 대부분 학업과 시달,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놀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했다.		
문제점	지나친 학업과 경쟁으로 인해 놀고 싶은 노는 것은 사치이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안 내용	1. 놀 권리 설문조사를 아동을 대상으로 20명에게 한다. 2. 동영상 인터뷰를 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8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전주)	아동 성명	문○○
활동 주제	아동의 권리-놀 권리		
현황 및 실태	우리 나라에서 아동이 놀 수 있는 환경은 잘 조성되어 있지 않다. 과도한 경쟁구조로 어린 나이부터 학업 등에 열중하게 되는 이유로 아동의 놀 권리는 자연스럽게 침해되고 있는 등 아동이 놀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조성되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들이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나 공간도 여유롭지 못하다.		
문제점	아동을 비롯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아동이 놀 권리에 대한 인지와 정보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아동의 놀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제안 내용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아동의 권리 중 놀 권리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출일	2018년 9월 29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전주)	아동 성명	백○○
활동 주제	대한민국 속 전북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전북 전주에 사는 나는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찾았다. 사실 내가 전주고 재학생이다. 친구들의 도움을 얻기로 하였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에서 준비해준 '2018 아동의 놀 권리 설문조사지'를 들고 우리 반 친구들, 1학년 때 친구들 등 20명의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설문지 작성을 부탁했다. 애들이 "근데 왜 설문지에 이름이 들어가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답해주지 못하였다. 나도 잘 몰랐기 때문이다. 아무튼 애들이 한 설문지를 훑어보니 놀 권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가 많이 없을 것 같았는데 꽤나 많았다. 이 자료를 통해서 일반화 되기 어렵지만 전북(전주)에도 놀 권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제점	문제점은 전주고에서 놀 권리에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다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다.		
제안 내용	전북권역 아동과의 회의에서 10월 달에 무엇을 할지 회의를 진행하였다. 내가 LENS에 지원할 때 'LENS활동을 하면 무엇을 할 것 인가?' 질문은 아동권리에 관해서 인터뷰를 동영상으로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회의를 하다가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인터뷰를 동영상으로 찍자고 해서 고맙다. 인터뷰 내용은 놀 권리에서는 인터뷰 당사자의 평일과 주말로 나눠서 1. 하루에 몇 시간 노는가? 2. 보통 뭐하고 노는가? 3. 몇 시간 노는 게 적당할까? 3. 놀지 못하는 이유와 어떤 시설과 환경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등 질문을 하자고 하였다.		
제출일	2018년 9월 22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	아동 성명	양○○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p>놀 권리란?</p> <p>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p> <p>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미술/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UN아동권리협약 제 31조)</p> <p>실태: 놀 권리를 충분히 누리야 할 시기인 아동기에 사회구조의 변화, 학업의 부담 증가,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시간적 여유 부족, 시설부분과 금전적인 부분에서 제한된 것이 많아 자연스럽게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p>		
문제점	아동이 자신의 놀 권리 침해에 익숙해짐.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시민의식 부족.		
제안 내용	더욱 현실적인 놀 권리 인식의 실태조사를 위해 주변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진행. 시설적,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고려 해야아함.		
제출일	2018년 9월 20일		

전북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	아동 성명	왕○○
활동 주제	놀이 권리		
현황 및 상태	아동의 놀 권리 는 유연아동권리협약 31조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로 보장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어린이들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놀이와 여가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한국의 교육제도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극심한 경쟁		
제안 내용	1. 설문조사 20명 진행. 2. 동영상 인터뷰		
제출일	2018년	10 월	25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	아동 성명	유○○
활동 주제	공동주제: 놀 권리		
현황 및 상태	한국아동단체협의회에서 준비해주신 '2018 아동의 놀 권리 설문지'를 바탕으로 학급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를 실시한 학생들 모두 '놀이 권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음. 우리가 '놀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의 많은 관심과 흥미를 보임.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놀이 권리'에 대해 점차 알아가며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냄.		
문제점	설문조사를 실시한 대상이 한 학급의 학생들이므로 모든 아동을 대표하기에는 대표성이 떨어짐.		
제안 내용	보다 많은 아동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터뷰(동영상 or 음성녹음)을 실시하기로 함. 회의를 통해서 인터뷰 질문 작성. 1. 하루에 몇 시간 노는 가? 2. 주로 뭐하고 노는 가? 3. 몇 시간 노는 것이 적절한 가? 4. 놀지 못하는 이유		
제출일	2018년	9월	24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	아동 성명	임○○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상태	아동의 놀 권리란 1항: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나이에 맞는 휴식과 오락 활동,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항: 각 나라 정부는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모든 아동에게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유연 아동 권리 협약 31조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놀 권리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문제점	1. 시민들이 아동의 놀 권리를 모르고 있다. 2. 아동 또한 놀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3. 아동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4. 학업에 집중하느라 아동이 놀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제안 내용	1. 놀 권리에 대해 알리며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인터뷰를 진행한다. 2. 청소년 시설을 놀리고 그 시설에서 놀 권리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제출일	2018년	9월	22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권역	아동 성명	임○○
활동 주제	놀이 권리		
현황 및 상태	50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은 놀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대답을 한다! 그 이유를 물어봤을 때 거주 지역 놀 시설 부족과 학업 부모님의 반대라고 이야기를 한다. 요즘은 아동들은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충분히 아동시기에는 공부 적당히 하면서 놀 권리를 보장되어야 하는데 부모님께서 공부만하면 나중에 좋은 직장 못 잡는다. 훌륭한 사람 못 된다 라는 식으로 아동들을 압박하고 있다. 그로 인해 아동들은 학업으로 인해 충분한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뿐더러 놀 권리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다. 특히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률은 OECD국가중 한국이 1위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		
문제점	1.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자살률 급증 2. 거주 지역 놀 시설 부족 3. 비용에 따른 문제		
제안 내용	1. 학교 학업일수 및 고사제 폐지 2. 우리 주변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설문조사 진행 3.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인터뷰 실시		
제출일	2018년	9 월	22 일

전북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공통주제)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p>공통적으로 배부된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설문지를 약 20부씩 주위의 아동들에게 답변받음.</p> <p>아동의 놀 권리 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많았으며 설문조사가 끝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아동의 놀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동들이 다수임을 알게 되었음</p>		
문제점	주위 아동에 한정된 설문조사 이므로 이 설문조사의 결과가 모든 아동들의 생각과 동일시 될수 없음.		
제안 내용	주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놀 권리에 관한 인터뷰를 하고 영상을 제작하기로 함.		
제출일	2018년	10월	22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	아동 성명	최○○
활동 주제	놀 권리 (공통)		
현황 및 실태	<p>-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18 아동의 놀 권리 설문지'를 이용하여 우리지역의 놀 권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고등학생 17명과 중학생 2명에게 실시함.</p> <p>- 설문지를 한 학생들 중 대부분이 이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학생들 사이의 비속어인 '헛타왔다'는 말을 많이 함. >> 자신들의 놀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고등학생들의 경우엔 아저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을 뿐, 이것을 학교에 건의를 한다던지, 개선시키려는 생각을 가져본 적 없다고 구두로 얘기함.</p>		
문제점	놀 권리를 비롯하여 여러 권리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모름.		
제안 내용	<p>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근거하여, 아동 (특히, 청소년 학생들)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수도권 학생들만이 아닌 중소도시 학생들에게도 널리 퍼뜨려야할 필요성이 있음.</p> <p>- 회의를 통해 동영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루 몇 시간 노는가? 2. 보통 무엇을 하고 노는가? 3. 몇 시간 노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4. 놀지 못하는 이유는? 5. 놀 권리가 지켜지기 위해 어떤 시설과 환경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제출일	2018년	9월	26 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	아동 성명	한○○
활동 주제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p>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재훈)의 「아동권리차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아동 중 수면, 공부, 운동, 미디어 4개의 시간 영역에서 3개 이상 권장기준을 충족한 아동은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아동이 생활시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모든 아동은 휴식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1989년 11월 20일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 권리', '놀 권리'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명문화된 상태는 아니다. 윤씨는 "(아이들이 쉬지 못하는 큰 원인은) 하루 여러 차례 학원 다니는 것이 크다. 학원 실야교습 금지조례의 강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학원과 학부모의 반발이 심하다. 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하여 국회에서 법안을 제정해주지 않으면 조례로서는 한계가 있다'며 어려움을 말했다.</p>		
문제점	놀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제안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놀 권리에 관해 아동들에게 설문조사 실시 2. 놀 권리에 대해 아동들과 어른들에게 캠페인 및 홍보하기 		
제출일	2018년	9 월	23 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전북	아동 성명	황○○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p>'아동의 놀 권리란' 모든 아동들에게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p> <p>많은 학업으로 많은 아동들이 놀 권리를 제대로된 여가와 휴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p> <p>놀이를 하기위한 시설부족,비용부담 - 놀이와 여가를 즐길만한 장소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파괴</p>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많은 사람들이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2. 아동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3. 대부분의 아동들이 많은 학업으로 인해 놀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제안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놀 권리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2. 놀 수 있는 시설 점검 및 수리 (개선) 3. 놀 권리에 대한 인터뷰 실시 		
제출일	2018년	9월	21일

제주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학교폭력 피해 그란)		
현황 및 실태	학교폭력의 종류에는 언어폭력, 신체폭력, 집단 따돌림,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공동갈취, 성폭행, 성추행, 차별 등이 있다. 학교폭력의 개인적 원인(가해자)에는 공격성, 타인에 대한 지배욕, 낮은 공감능력 등이 있다. 학교폭력 목격 학생의 알람 도율 비율은 68.2%이고, '모른척 다'의 방관 응답은 30.5%로 10.2%p로 증가하여, 가피해학생 교육 외에도 학생 전반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문제점	사회적 분위기가 학교폭력을 적당히 눈감아주거나 회피하고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문제이다. 또한 학생들 간의 크고 작은 갈등과 목격 상황을 칠없는 아동청소년의 장난으로 가볍게 넘겨 버리는 것도 문제를 볼 수 있다.		
제안 내용	학교폭력을 그냥 넘기는 경우가 회피하는 방관자들은 방관죄로 처벌을 더 엄하게 바꾼다. 또한 학교폭력실태 조사의 범위를 넓혀, 적어도 1년에 3번씩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받는 자리를 마련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1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학교폭력 피해 그란)		
현황 및 실태	교육부에서 전국 초·중·고(초등학생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 및 인식 등을 17개 시도 교육감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1.3%(5만)명으로 지난해보다 0.4%로 증가하였다. 그 중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은 0.7% 중·고등학생 (0.2%·0.1%)보다 더 높은 것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점	학교의 대응이 너무 둔하고 처벌이 약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고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해야 하고 보복과 재발을 막아야 하는 방법이 없는 게 문제다.		
제안 내용	초등학교 학교폭력이 중·고등학교보다 심각하니 어렵고 무작정 봐주지 말고 어릴 때부터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가해자가 2차 보복, 재발 우려성을 막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접촉을 못하게 막아야 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		
제출일	2018년	9월	22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고○○
활동 주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학교폭력 피해 그란)		
현황 및 실태	교육부가 8월 27일 발표한 '2018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2학기부터 올해 5월까지 학교폭력을 당한적 있다고 응답한 초등학교 4학년(11살)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은 전체 학생의 1.3%인 5만여명이었다. 지난해보다 0.4포인트(1만 3000명)이 늘어났다. 중·고등학생의 비율은 각각 중-0.2%, 고-0.1% 포인트로 증가했고, 초등학생은 0.7% 증가했다.		
문제점	학교폭력이 계속 꾸준히 늘어날수록 학교폭력의 수법도 다양하게 늘어난다. 이와중에 대응매체의 발달로 이제는 사이버상에서도 학교폭력이 일어난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스트레스와 공포로 인해 정서적으로 좌절을 경험하거나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		
제안 내용	가해자에게 더 엄격한 처벌을 한다. CCTV를 설치하거나 아동보호지대를 만든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방관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한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설문조사와 캠페인 활동을 한다.		
제출일	2018년	9월	22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학교폭력 피해 그란)		
현황 및 실태	학교폭력의 종류는 다양하다. 2018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사립의 신체를 때리는 행위인 신체적 폭력(10%), 말로써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며 상처를 주는 행위 언어 폭력(34.7%), 온라인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욕설 등으로 상처를 주는 행위 사이버 폭력(10.8%), 여러명이 무리 지어 한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 집단따돌림(17.2%), 기타로 스토킹(11.8%)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준다.		
문제점	학교폭력은 가해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방관자도 잘못된 행위라는 점을 잘 모른다. 학교폭력은 특정인물만 가해자, 피해자 또는 방관자가 나오는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제안 내용	학교폭력인식개선을 위한 스티커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설문 문항을 만들고 직접 아동들에게 설문을 받아 현재 학교폭력의 실태와 당사자인 아동들의 의견을 파악한다.		
제출일	2018년	9월	22일

제주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학교폭력 이제 그만)		
현황 및 실태	학교폭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대체로 학생들간의 폭력인데 선후배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등 심각한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심할 경우 죽거나 병원에 입원 또는 자살을 할 정도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 한 사람의 실수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피해를 보게 된다.		
문제점	학교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폭력이 급증하거나 폭력조직과의 세력 다름 등으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주로 일회적이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비해, 학교 내 폭력은 안면이 있는 선배나 친구들이 포함된 그룹으로 개인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가함으로써 더 심각해져 가는 학교폭력의 피해를 알리는 법을 잘 알지 못한다.		
제안 내용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별 대책 마련,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 학교폭력 피해 인식 조사와 캠페인 등을 한다.		
제출일	2018년	9월	30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오○○
활동 주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학교폭력 이제 그만)		
현황 및 실태	조사결과 4명 중 1명이 폭력 피해 경험이 있지만, 더 폭력을 당하게 될까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비율이 90%이고, 그 중 90%의 아동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지만, 그 효율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아동들이 폭력을 당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안심하고 연락할 방법들에 대한 세심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왕따나 폭행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 아픔을 아이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점	학교폭력을 한 주제 문제는 피해 학생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가 있고 심해지면 자살까지 할 수도 있다.		
제안 내용	학교폭력을 한 가해자한테 더 처벌을 강화해서 학교폭력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피해자들도 학교폭력을 당하면 즉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한다. 학교폭력 피해 아동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체계를 마련한다.		
제출일	2018년	9월	30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백○○
활동 주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학교폭력 이제 그만)		
현황 및 실태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번질 수 있는 피해유형도 날로 다양해진다. 학생 1000명 당 피해응답 건수를 보면, 언어폭력(12.3건), 집단따돌림(6.1건), 스토킹(4.3건) 등 학폭의 종류가 다양했다. 비율별로는 언어폭력(35.1%), 집단따돌림(17.6%), 스토킹(12.2%), 신체폭행(10.3%) 순이었다. 특히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 괴롭힘도 10.2%나 됐다.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31.8%)이 가장 많았다. '점심시간'(15.7%), '수업시간'(8.8%) 등 답변도 있었다. '학교 이후'가 16.3%로 2위였는데, 이를 통해 학폭이 교실은 물론 학교 밖에서도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제점	학교폭력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우울증이 생길 수 있으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보복 폭력을 가하게 될 수도 있다.		
제안 내용	학교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 캠페인을 한다. 학교폭력을 가했을 때, 처벌 강도를 지금보다 더 늘린다. 아동권리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이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한다.		
제출일	2018년	9월	22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오○○
활동 주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학교폭력 이제 그만)		
현황 및 실태	최근의 학교폭력은 저연령층화 되고 있으며, 신체폭력보다는 인터넷상 사이버와 SNS로 인한 언어폭력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많 아지고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오늘(18일) 발표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전체 1.3%였다. 지난해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5월 한 달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전체 93%가 넘는 399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임을 고려하면 피해 학생은 5만명이다. 학폭 피해 비율은 계속 줄어 지난해 0.9%까지 떨어졌는데, 2014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1%를 넘었다.		
문제점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권리는 무시된 채 괴롭힘을 당하고 심리상태 등이 불안정해진다. 학교폭력으로 친구간의 관계가 소홀해진다.		
제안 내용	학교폭력피해 학생을 적극적으로 돕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일차적으로 부모님의 적극적인 도움과 학교, 사회, 제도도 학교폭력을 예방하도록 한다.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활동을 한다.		
제출일	2018년	9월	30일

제주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윤○○
활동 주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학교폭력 피해 그란)		
현황 및 실태	<p>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 폭력으로 정의한다.</p> <p>학교폭력의 발생이유 → 개인적 원안: 타인에 대한 지배욕, 낮은 공감능력, 가정 환경적 원인: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 부족, 가정폭력경험, 학교환경적 요인: 교사의 무관심과 부적절한 언어 방호, 사회 환경적 요인: 물질만능주의, 매스미디어의 범람</p> <p>*방관자의 분류</p> <p>1)가해조력자-누군가 활약을 시작하면, 그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가해자를 도와줌</p> <p>2)가해 강화자-주변에서 서서 지켜본다거나 웃어주는 등의 행위→가해자에게 긍정적 피드백 제공</p> <p>3)순수한 방관자 집단-상황에서 떨어져 거리를 유지하고 어느편에도 가담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침묵은 행위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한다. 사피해 방어자-피해자 편에서 서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드러내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집단</p>		
문제점	가해의 원인 중, 초등학생은 먼저 괴롭혀서, 장난으로 라고 답했고, 중고등학생은 마음에 안 들어서라고 답했다. 또한, 진보다 학교폭력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처벌 규제가 엄격하지 않아 아무렇게 없게 폭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초등학생이 가장 피해 경험에 많다고 응답하였다.		
제안 내용	<p>-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 권리</p> <p>-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p> <p>생명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의식주를 제공하고 생존에 있어 서의 위험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보호를 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들의 의견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대부분 자신과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한다. 그리고 학교 및 중 지속적인 상담프로그램 활성화 및 애플데이를 통하여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다 새로운 학교폭력교육을 실현하였으면 좋겠다. 각 폭력의 예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이를 목격하거나 이러한 행동을 엿볼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 하나하나 물어보며 아이들과 소통하는 교육을 하였으면 한다.</p>		
제출일	2018년	9월	30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장○○
활동 주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학교폭력 피해 그란)		
현황 및 실태	<p>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공동으로 온라인 실시한 학교폭력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3부터 고3까지 학생 3만 785명 대상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응답한 학생은 454명 2017년 1차 대비로 0.6%포인트 증가했다.</p> <p>지속적 감소추세였던 피해 응답을 증가하는 작년 말 학교폭력에 대한 사인의 연속 보도, 예방 교육 강화 등에 따른 학교폭력에 초등학생들의 민감성 상승이 주원인으로 보인다.</p>		
문제점	<p>우리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는 도덕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이윤을 더욱 추구하는 사회가 되었고, 그로 인해 청소년들이 윤리의식을 기르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학교는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임시교육 위주로의 기능만을 담당하게 되었다.</p> <p>이러한 문제로 인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학교폭력이라는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p>		
제안 내용	학교폭력예방 교육, 상담 프로그램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 아동이 지켜낼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제출일	2018년	9월	30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임○○
활동 주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학교폭력 피해 그란)		
현황 및 실태	<p>최근 학교폭력이 교실 안은 물론 담장 밖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교폭력이 전혀 근절되지 않는 데다, 그 유형도 다양해져 사회 전반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교폭력이 날로 교묘하고 다양해진다는 사실은 최근 벌어진 여고생 투신 사건에서 잘 드러난다. 개학을 하루 앞둔 지난 9월 2일 오후, 제천시 모 건물에서 여고생 A양(16)이 투신해 숨졌다. A양은 학교 선배에게 "친구들과 사이가 들어졌다"라며 상담을 하다 뒤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친구들 사이의 갈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나, 학교폭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p> <p>학교폭력의 심각성, 특히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강조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의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은 꾸준히 늘면서 집요하게 피해자를 노리고 있다.</p>		
문제점	학교 폭력을 당한 아동은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거나 가지 않으려 하며, 친구를 대하기 어려워하고, 가출, 정신적 증세도 병행이나 상담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한다.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 경찰은 범죄 청소년을 알고 학교 생활지도에 전념해야 한다. - 교사들의 철저한 자기방호도 출발해서 교사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 학교폭력 문화를 끊어내고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캠페인을 한다. - 학생과 학교,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인식전환을 하는 캠페인을 한다. 		
제출일	2018년	9월	30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전○○
활동 주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학교폭력 피해 그란)		
현황 및 실태	<p>-학교폭력의 실태(조사)</p> <p>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1.3%(5만명)로 지난해 1차 대비 0.4%p 증가하였는데, 초등학생의 피해담을 증가(0.7%)가 중고등학생(각 0.2%p, 0.1%p증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 담을 증가는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p> <p>-피해응답 현황</p> <p>피해응답률은 1.3%(5만명)로 지난해 1차 대비 0.4% 증가했고,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2.8%, 중학교 0.7%, 고등학교 0.4%로 지난해 1차 대비 각 0.7%p, 0.2%p, 0.1%p 증가했다.</p> <p>피해유형별로 학생 전 명단 피해응답 건수는 언어폭력(8.7건), 집단따돌림(4.3건), 스토킹(3.0건)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 비율은 언어폭력(34.7%), 집단따돌림(17.2%), 스토킹(11.8%)등의 순이며, 특히 사이버 괴롭힘(10.8%) 비율이 신체폭행(10.0%)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공동으로 언어폭력, 집단따돌림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고등학교의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약 15%)이 초등학교(9.2%)에 비해 약 6%p 높았다.</p>		
문제점	학교폭력은 여전히 심각하다. 그중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제안 내용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지속적인 상담 프로그램과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을 진행한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과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제출일	2018년	9월	22일

제주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조○○
활동 주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학교폭력 피해 그만)		
현황 및 실태	언어폭력(34.7%), 집단따돌림(17.2%), 스토킹(11.8%),사이버 괴롭힘(10.8)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지난해보다 피해응답률 0.4%) 증가 이처럼 학교폭력은 단순히 폭력이 아닌 글꼴갈퀴, 명예훼손 등 다양한 종류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준다. 학교폭력은 가해자만이 아니라 방관자도 연관되어 있다. 방관자는 어떤 일에 직 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겉에서 보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된다. 그렇지만 방관자의 경우에도 가해 행위에 어느만큼 가담하였는지의 여부가 중요 하다고 한다. 교육부 조사로는 학교폭력은 목격할 때 모르는 척하는 방관자의 비율이 20%나 차지한다고 한다.		
문제점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너무 커서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할 경우가 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피해는 날이 증가하고 있다.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피해를 입거나 목격했을 경우 반드시 주변에 알리고 신고를 한다. - 학교나 주변에 보호 CCTV설치 -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꾸준히 하게 진행한다. - 가해자를 위한 강한 처벌을 요구 -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도록 상담 		
제출일	2018년	10월	12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현○○
활동 주제	학교폭력 피해 그만		
현황 및 실태	교육청에서 실시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피해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은 1.3%로 지난해 1차 설문조사 대비 0.4%p 증가했고,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2.8%, 중학교 0.7%, 고등학교 0.4%로, 지난해 1차 대비 각 0.7%p, 0.2%p, 0.1%p 증가하였다. 피해유형별 비율은 언어폭력(34.7%), 집단 따돌림(17.2%), 스토킹(11.8%) 등의 순이며, 특히 사이버 괴롭힘(10.8%) 비율이 신체 폭행(10.0%)보다 높아졌다.		
문제점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 목격 학생의 방관 응답은 30.5%로 10.2%p 증가하여, 여전히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방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제안 내용	학교폭력 가해자 교육 외에도 학생 전반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대구의 경우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불침침)의 하나인 '친한 친구 고실(운동, 체험 활동, 취미활동 등을 함께하며 정서적인 안정과 유대관계를 개선하는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피해 응답률(1차)이 전국에 비해 매우 낮게 유지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 이처럼 학생들이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해서 참여하도록 격려하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09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한○○
활동 주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학교폭력 피해 그만)		
현황 및 실태	요즘 학교폭력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이제는 선생님들에게도 학교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 당하는 학생들이 직접 다른 이(선 생님, 부모님 등)에게 말하지 않는 이상 잘 알려지지 않는다. 게다가 학교폭력의 종류도 다양해 피해자는 더욱 많은 아픔을 견뎌야만 한다. 2016년 초·중·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다고 했다. 또한 사람이 많이 있는 학교 안에서 피해를 본다는 학생이 72%나 되었다.		
문제점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학교폭력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방관자 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어른에게 알리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가해 자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기에 방관자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 다고 보인다.		
제안 내용	학교폭력은 타인의 관심과 순결 한 번으로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되 며, 방관자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학교폭력을 고발하고 학교에서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캠페인 활동 등을 실시한다.		
제출일	2018년	9월	22일

제주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강○○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p>놀 권리 설문조사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놀이시간이 줄어들었다. 10명 중 2~3명은 하루에 놀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도 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놀지 못하는 이유 중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학원, 과외 등에 숙제가 많다', '주변에 놀이시설이 부족하다'이다.</p> <p>또한, 많은 아동들이 '놀이시설의 이용료가 비싸다'고 답하였다.</p>		
문제점	<p>하루에 놀이시간이 1시간도 안되는 아동들이 많다.</p> <p>학원, 과외, 숙제 등으로 인해 놀지 못하는 아동들이 과반수 이상이다.</p>		
제안 내용	<p>학원, 과외, 교습학원 등에서는 무리한 과제와 숙제를 내지 않도록 하여 아동들의 놀 권리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p> <p>정부의 지원으로 학교도 아동의 놀 시간과 놀 권리 갖도록 의무화 한다. 주변에 안전한 놀이시설을 더 확충하고, 아동의 권리를 알릴 수 있는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한다.</p>		
제출일	2018년	9월	30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p>아동의 놀 권리 설문은 20명에게 한 결과 놀이가 부족이유와 아동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한다. 보호자들이 아동들의 놀이 및 여가의 권리를 인정해주는지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많이 나왔다. 요즘 아동들은 부모님과 여가 생활(시간)을 거의 잘 보내지 못하고 있다.</p>		
문제점	<p>아동들이 아동의 권리를 알지 못하는것도 문제이고, 학교 입학 전에도 학교 진학 후에도 부모님과 함께 여가생활을 못하는 것도 힘들다.</p> <p>우리의 놀이 및 여가를 위한 장소와 시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p>		
제안 내용	<p>설문 내용 중 충분히 즐기니, 여가 생활을 못한다는 이유가 대부분 놀이시설공간이 부족해서였다. 많은 아동들이 놀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p> <p>정부의 지원으로 부모님과 아동이 함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놀 시간과 공간이 함께 주어지는 체계를 만들어 간다.</p>		
제출일	2018년	9월	30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고○○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p>아동들의 놀 권리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방과후에 학원을 다녀 친구들과 놀지 못한다는 것과 거의 도래 아동들이 학원을 다녀서, 그 친구들과 놀지 못하는 이유와 부모님의 강요로 놀지 못한다는 답변이 많았다.</p>		
문제점	<p>학원을 가는 아동들이 있어 또래 친구들과 같이 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와 학원에서 학업 시간이 너무 길다. 놀이시간이 줄고 공간이 없고 이런 권리 주어지지 않아 아동들의 갈등과 따돌림 발생은 커진다.</p>		
제안 내용	<p>학원을 저녁 늦게까지 다니는 것은 아동에게 너무 잔인하고 힘든일이다. 아동에게 노는일도 중요하다. 학교와 학원수업의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요청한다. 아동의 인권중 놀 권리를 알리는 활동 캠페인 활동을 한다.</p>		
제출일	2018년	10월	6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p>지역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들에게 놀 권리에 대해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5%의 학생만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95%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실로 심각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p> <p>학교에 재학중인 아동들의 일과를 물어보니 주로 학업 및 공부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가 및 휴식시간은 공부시간의 1/3에도 못 미친 것이 대부분이다. 평일이 아닌 주말에도 학원, 과외 등으로 요즘 아동들은 제대로 쉬고 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문제점	<p>아동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인 '놀 권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놀 권리를 잘 누리지 못한다. 여가 시간이 너무 너무 부족하다.</p>		
제안 내용	<p>아동들이 자신들의 놀 권리를 알고, 그 권리를 활용할 수 있게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나 아동 청소년 시설을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체험과 놀거리를 제공한다. 놀 권리의 주제인 아동들 조사 놀 권리를 모르는데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인식을 개선하고 학교주변의 여가시설을 충분히 마련한다. 놀 권리를 실현하도록 한다.</p>		
제출일	2018년	10월	8일

제주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아동의 놀 권리 설문조사 결과 아동의 놀 권리를 안다는 아동들이 2/3이고, 모르는 아동들이 1/3로 확인되었다.		
문제점	아동들조차도 자신들이 얼마나 놀고 얼마나 휴식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제안 내용	아동들이 놀 권리를 갖고, 휴식을 즐기면서 보낼 수 있는 활동들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놀권리 교육을 진행한다. 놀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 활동을 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3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오○○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놀 권리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아동들은 놀 권리에 대해서 모른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놀권리를 갖는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제점	아동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다. 아동들의 놀권리와 아동권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많다.		
제안 내용	아동권리와 놀권리 모두 다 아동들이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교육체제와 정부 사회에서 지원을 해준다. 놀권리를 알리는 캠페인 활동을 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3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박○○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유아기 때는 놀 시간이 충분했지만, 청소년기가 되면서 놀 시간이 없다. 학교와 학원, 숙제가 많아 놀 시간이 없어서 놀 수가 없다. 놀시간이 없다는 65%가 응답했고, 약간 논다는 15%가 응답했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들은 학업 때문에 놀지 못한다.		
문제점	놀이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이 될 수도 있다. 놀이할 수 있는 시간적여유가 없다. 놀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 아동들이 놀 권리가 점점 사라져간다.		
제안 내용	학교 수업시간을 줄이고, 놀 시간을 늘린다.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문화의집에서 더 놀이시간을 보내고, 활동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다. 아동의 놀 권리 캠페인 활동을 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1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오○○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놀권리 설문조사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대부분의 아동들은 자신의 의사로 놀거나 활동을 한다기 보다는 부모들의 강요로 학업에 몰종하기만 한다. 아동이 행복할 때는 좋아하는 일을 할 것 할 수 있고, 친구들과 놀 때이며, 행복하지 않을 때는 성적압박이 심하고, 학습부담이 클 때이다.		
문제점	아동의 놀권리는 보장되어 있지만 과도한 교육으로 침해당하고 있고, 놀이에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의사표현의 자유' 또한 사교육으로 인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제안 내용	아동들이 놀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행복하게 놀 수 있는 놀권리를 알리는 활동 및 교육을 실시한다. 사외기관과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준다.		
제출일	2018년	10월	22일

제주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윤○○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p>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서, 놀 권리 설문조사 결과 안다: 11명/ 모른다: 9명 나의 주변 지인 20명에게 아동의 놀 권리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서 받은 알고 받은 모르고 있었다. 같은 또래인 고등학생들의 경우, 학교 수업 및 학원 및 과외로 여가 생활을 충분히 즐기지 못한다. 중학생들의 경우 매일 갠던 코미라 별 흥미가 없다고 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적합한 놀이 시설과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서귀포의 경우 놀이장소는 영화관, 노래방, 피서방, 음식점 등으로 매우 한정적이다. 그리고 길거리마다 유흥업소 간판들이 보이고 아동들에게는 아직까지 안전하게 놀지 못하는 장소이다. 또한, 서귀포 시내에 집중적으로 놀 장소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들은 긴 시간에 걸쳐 나와서 놀 수는 있지만, 다른 지역 대중교통 시간보다 이른시간 즉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충분히 놀지 못한다는 의견도 반영되었다.</p>		
문제점	충분히 놀거나 여가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 학업, 놀이시설·공간부족 놀이 방법 중 바꿔야 하는 점: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앞으로 더 많은 놀이 및 여가 활동을 하려면 필요한 것에 답변들 중, 보호자의 이해 및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귀포 시청 사이트에 '아동소통방'을 만들어 아동들의 의견 조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동의 놀 권리 교육 및 설문조사, 아동 연권 캠페인 -학생들의 인권도 소중하고, 강요받아서 안된다. 야간자율학습을 일주일 중 하루 이상은 작은 과제를 주든지 해서 집에서 조금은 쉬면서 휴식하고 공부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생들이 주로 즐기는 K-pop, 게임, 영화 등 분야를 파악하여 적절한 가격에 건전하고 안전한 문화생활을 하도록 한다. -초중고 학교별로 1학기에 한번, 2학기에 한번씩 축제를 열어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부스 체험도 하고, 다른 학교가 준비한 공연들을 보며 친목도모를 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1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임○○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p>설문조사를 하면서 파악해보니 아동들의 학교와 학원의 학습시간은 줄지 않고, 점점 증가하고 있다. 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여전히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해 평균적으로 놀이시간 부족을 겪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꾸준히 학원을 다닌 아동들도 많았다. 놀이, 휴식, 여가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p>		
문제점	필요한 학원 수업과 시간때문에 아동들은 끊임없이 놀권리 빼앗기고 있다. 놀이시간의 부족으로 아동들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		
제안 내용	학교 수업과 학원시간 수업을 축소한다. 과도한 경쟁을 하는 사회속에서 아동의 놀권리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정부는 해결하고 조치할 수 있는 제도 및 방안을 마련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2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장○○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p>국가별 아동 학습스트레스 1위부터 7위까지 1위 한국 50.5%, 스페인 49.5% 3위 슬로베니아 48.9%, 4위 포르투갈 47.2%, 5위 핀란드 44.6% 6위 리투아니아 44.4%, 7위 아이슬란드 43.5%이다. 놀이환경 조성에 방해 되는 지나친 교육 열의로 인해 아동들은 어린나이부터 학업에만 쫓겨가고 그들이 누리야 할 여가시간을 빼앗기고 있다.</p>		
문제점	놀이와 여가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특히 교육열이 높은 환경일수록 어른들은 놀이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아동이 자유롭게 다니려면 주변 환경이 위험한 것도 문제이다.		
제안 내용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캠페인을 하며, 놀권리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을 함으로써 아동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제출일	2018년	9월	30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전○○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p>아동들에게 아동인권 놀권리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알고 있는 사람 50%, 모르는 사람 50% 답변이 나왔다. 놀권리에 대한 생각은 다들 좋은 반응과 생각을 갖고 있지만, 너무 많은 학교 숙제와 학원 수업, 학부모들의 반대와 용돈 비용의 부족으로 여가활동 등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아동들의 놀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p>		
문제점	아동들의 학업으로 인한 놀 시간 부족 때문에 대부분 여가활동 및 놀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인식 못하는 것도 문제이고,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이 시급하다.		
제안 내용	정부에서 학교 및 학원 수업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을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학교 위는 시간과 여가시간을 늘려 아동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 및 캠페인활동을 진행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5일

제주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조○○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p>현재 주위 아동들에게 설문한 결과 놀 권리에 대해 알고 있는 아동들이 8~9% 정도 밖에 안 된다. 이처럼 놀권리에 대해 모르는 아동들이 많고 알고는 있어도 자세히 모르고 그게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아동들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놀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어도 넘어가는게 대부분이다. 놀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놀 권리가 있는데도 아동들은 자유롭게 아동답게 누리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이다. 대부분 학업 공부로 인해 시간이 없어 놀 시간과 놀권리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도 없다고 답변하였다.</p>		
문제점	<p>놀 권리에 대해 모르다는게 문제이고, 놀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권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p>		
제안 내용	<p>아동들이 놀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모든 아동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등에게 놀 권리를 알리고, 인식을 심어주도록 캠페인 활동을 한다. 놀권리에 관한 프로그램(칭해된 나의 권리찾기 프로젝트) 활동을 한다. 놀권리 포스터를 제작하여 붙인다.</p>		
제출일	2018년	10월	12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한○○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p>초·중고 20명 중 1명은 아동인권을 잘 모른다고 하였다. 아동인권은 접하기 쉬우면서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동들의 놀 시간은 대부분 3~4시간 이하 정도로 그리 부족하지는 않지만 학교에 있는 시간을 생각하면 적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다. 또, 아동들은 대부분의 놀 시간을 휴대폰 사용에 쓰고 있으며, 안타깝지만 그런 자신의 생활에 만족한다.</p>		
문제점	<p>아동이 자신의 인권을 모르는 것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 할 줄 알아야하고, 권리 의식을 갖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p>		
제안 내용	<p>학교에서 아동인권을 더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저학년 일수록 인권교육을 진행한다. 놀 시간에는 충분히 놀 수 있는 시간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인권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한다.</p>		
제출일	2018년	10월	3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아동 성명	한○○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p>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라 여가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다. 또한, 야간 자율학습이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 늦은 밤까지 학교에 남아있어야 하므로 청소년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p>		
문제점	<p>지나친 학업 강요로 아동이 놀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p>		
제안 내용	<p>공부를 할 때 강압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국가나 지역에서 아동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고, 아동들이 안전하게 놀고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준다.</p>		
제출일	2018년	10월	09일

충남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충남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 유해환경 - 흡연		
현황 및 실태	아동인권과 관련하여 1차회의 때 들은 설문조사를 9월 중순까지 시행하여 200명의 아동청소년과 20여명의 교사의 의견을 받아 추방하던 중 권역의 주제로 정한 아동청소년 유해환경이 아닌 단순 흡연구역 관련 조사로 나아가고 있음을 인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함. 유해환경 중 가장 해결이 필요한 것, 아동인권의 부재, 유해환경의 정확한 정의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최종보고서 작성을 소논문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함		
문제점	유해환경 중 흡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아동청소년의 유해환경에 관한 조사인지 단순 흡연관련 조사인지 틀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해환경 등에 문헌조사, 사례, 뉴스등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 및 탐구를 진행하도록 함.		
제안 내용	9/22 개요작성, 간단한 문헌조사, 월간 활동 보고서 작성 및 충남권 개별 보고서 기초작성 9/29 구성관련 피드백 충남권 자체 개별보고서 구체적인 작성 및 설문조사 서술형 부분 통계 완료 10/13 최종보고서에 자신이 맡은 부분에 관하여 정확한 조사, 사례 10/28 아동참여위원회 3차 회의, 최종보고서 완성 서론: 아동권리 연관지어서 유해시설-문헌조사/유해시설 정의, 아동권리,사례, 문헌조사 기사, 논문) -음수빈,이조은 본론:금연구역(신세백,음수빈,국세현) 교사흡연(이혜원,김윤정,박서연) 학생흡연(정승환, 선종욱) 10월 3차회의는 지필고사 종료 후 3-4번째 주 예정 유성 청소년수련관 예정		
제출일	2018년 9월 22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충남	아동 성명	음○○
활동 주제	아동 유해환경 (흡연)		
현황 및 실태	생각했던 것 보다 설문조사에서 큰 결과물 (많은 의견들과 생각지 못 했던 부분들 산출) 개요 서론 : 유해환경 중 가장 해결이 가장 필요한 것 아동인권, 유해환경 정의 제시 본론 : 금연구역 설문 해석 결론 : 해결책 제시, 아동권리 관점 해석 필요, 집중하여 다룬 문제 *추가 충남추가보고서에 유해환경 등에 대한 문헌 조사, 사례, 뉴스 조사 *꼭 넣어야할 내용 : 통계 낸 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시 - 본론, 법적조치 현황, 유해환경 종류와 정의		
문제점	- 3가지 모두 처벌, 단속,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루어지더라도 매우 경미하다) - 심각성과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관하거나 그냥 넘어가려는 경우가 많다. - 대처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다.		
제안 내용	서론 : 아동권리 연관지어서 유해환경- 문헌조사 (유해환경 정의, 아동권리 침해 사례, 기사, 논문) - 음수빈, 이조은 본론 : 금연구역 - 문헌조사 (금연구역 범위, 2차3차 흡연 조사 / 관련 사례, 기사, 논문) 교사흡연 -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현재 학교의 실태 조사, / 관련 사례, 기사, 논문) 학생흡연 - (학교, 아파트 또는 주택가, 상가, 학원 근처 청소년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서 청소년의 흡연행위를 쉽게 접함) 9/22 개요작성, 월간 활동 보고서와 추가보고서 제출 9/29 개요작성 구성관련 피드백 (각자 파트 별로) 10/13 합치고 최종보고서 윤곽 10/28 3차회의 - 최종보고서 완성		
제출일	2018년 9월 22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충남	아동 성명	이○○
활동 주제	흡연과 아동		
현황 및 실태	교내에서 학생을 흡연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은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교사 흡연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눈의 되어지지 않고 있음. 학생들 앞에서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들이 자신들의 흡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법적 조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해야 합니다.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위의 법적조항을 따르면, 직업이나 직위가 아무 상관 없이 학교와 그 근처를 포함한 일대에서는 그 누구도 흡연을 할 수 없다. 학생을 포함해서 선생님 외부인 교내 직원들은 법적조항에 의해 처벌을 받고 규제를 받는다.		
문제점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교사 흡연에 대해 징목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다. 학생들도 교사의 흡연에 의해 피해를 받더라도 제대로 학교나 주변에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또한, 교사가 학교 밖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학교 근처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금연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잘 인지하는 교사들이 많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더 구체적인 사례 및 실태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제안 내용	설문지 작성 (교내 교사 흡연 담당) 주제 : 교사흡연 [학생 대상] 1) 본인은 흡연을 하시니까? 예 / 아니요		

2) 교내에서 흡연을 하는 교사들을 목격한 경험이 있으니까? 예/ 아니요 2)-1 (예 선택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해주세요	
3) 교내에서 선생님들이 흡연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항에 의해 흡연실을 설치하고, 흡연실 내에서 흡연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아니요	
4) 교내에서 교사들이 흡연을 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교사 대상] 1) 본인은 흡연을 하시니까? 예/아니요 1)-1 (예 선택시) 교내에서 흡연을 한 경험이 있으니까? 예/아니요 2) 교내에서 흡연을 한 다른 교사들을 목격한 적이 있으니까? 예/ 아니요	
3) 본인의 학교에서 (교내에서 흡연) 흡연을 하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도 없음 / 조금 있음 / 많이 있음 - (구체적으로 정하기)	
3) 교내에서 선생님들이 흡연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항에 의해 흡연실을 설치하고, 흡연실 내에서 흡연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아니요 위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학생과 함께 보완하여 교사흡연 부분 설문지 완성 다른 파트 설문문항과 합쳐서 최종 설문지 작성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설문조사 약 2주간 진행 약 1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에서 보완해야 할 점 확인	
제출일	2018년 10월 27일

충남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충남	아동 성명	정○○
활동 주제	유해환경(흡연)		
현황 및 실태	<p>충남 지역권에서는 아동의 놀권리로 활동주제를 유해환경으로 정하였고 논의 끝에 흡연이라는 소주제를 잡았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아동들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성이 높은 학교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p> <p>설문 문항은 총 24개로 학교 및 금연구역에 대해 알고 있는지, 금연구역이 잘 지켜지는지, 처벌 및 규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교내에서 흡연하는 교사를 목격했는지 등등 다양하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설문조사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유해환경(흡연)에 대해서 대부분의 아동들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자세한 모르는 아동들이 많았고 처벌 및 규제들은 매우 안 지켜지고 있다고 설문에 응답하였습니다.</p>		
문제점	<p>설문조사 결과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한 4가지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연구역에 대한 인지 부족 ex) 학교 및 금연 구역 범위 인지 부족 2. 학교 주변에서 흡연하는 경우 매우 많음 ex) 선생님, 학생들이 학교주변 흡연 3. 흡연으로 인해 아동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줄음 ex) 놀이터 등 놀이시설 주변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놀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 4. 흡연으로 인한 처벌 매우 낮음 <p>이렇게 4가지가 다른 문제점들에 비해 더욱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되었습니다.</p>		
제안 내용	<p>9월 22일까지 개요작성, 간단한 문헌조사(인터넷 기사, 신문 등 다양한 매체) 9월 29일까지 충남 개별보고서 작성 및 피드백 10월 13일까지 자신이 담당할 부분에 대하여 조사 금연구역(신세백,음수빈,국세현) 교사흡연(이혜원,김윤정,박서연) 학생흡연(정승환,선종욱) 10월 21일에는 10월 오프라인 회의 10월 28일까지 최종보고서 완성 서론: 아동권리 연관지어서 유해시설-문헌조사(유해시설 정의, 아동권리,사례, 문헌조사 기사,논문) -음수빈,이조은 본문:금연구역(신세백,음수빈,국세현) 교사흡연(이혜원,김윤정,박서연) 학생흡연(정승환, 선종욱)</p>		
제출일	2018 년 10 월 21 일		

충북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충북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노동권		
현황 및 실태	아동의 노동권에 대해 조사하였다. 노동권은 노동의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 중 하나이다.		
문제점	아동들이 노동권을 보장 받지 못해 조금만 실수해도 자른다고 협박하거나 최저시급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사정에도 우리 아동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 말바의 월급까지 받지 못하는 생계를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안 내용	노동권이 아닌 청소년(아동)의 노동권을 법, 제도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이나 계약서도 꼭 작성하라는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출일	2018년 10월 27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충북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들의 노동권 문제		
현황 및 실태	 <p>10월 초 보은에서 진행된 아동인권 행사에서 우리 충북지역 LENS팀원들은 이번 행사에서 청소년의 노동권 관련 캠페인과 함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아동들이 흔히 학업과 병행하면서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아진 요즘 왜 우리는 아동들이 성장하는 시기에 노동을 하는지와 아동들이 알바와 같은 일자리를 어떻게 잡는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침해된 인권들과 근로계약서, 부모동의서를 작성하고 노동을 하는지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사해보았다. 또한 캠페인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설문조사의 질문 높이도록 노력했다.</p>		
문제점	캠페인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참여해준 몇몇의 아동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장 불편하고 자신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느꼈다고 대답한 부분이 주어진 시간보다 일을 더 하고 초과수당을 못받고 욕설을 받으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경우와 대부분의 아동들이 근로계약서와 부모동의서를 안 작성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밖에 있어 문제가 발생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제안 내용	위의 문제점을 인터뷰를 통해 깨닫고 생각한 바로는 고용주의 투명한 채용방식과 함께 고용주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충북	아동 성명	민○○
활동 주제	청소년의 노동 권리		
현황 및 실태	청소년들은 노동권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며, 다양한 부당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며 부당 대우에 대한 처벌 또한 미미한 수준임.		
문제점	청소년의 노동권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실시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신고를 하거나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없음.		
제안 내용	공교육에서 청소년들의 노동권을 교육하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점주들에게도 이를 교육하여 점주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도록 함. 또한, 처벌을 강화하여 점주들이 청소년의 노동권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함.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충북	아동 성명	송○○
활동 주제	아동의 노동권		
현황 및 실태	아동 노동권 중 청소년 노동권에 대해 조사함.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경우 등 청소년 노동권을 침해 받는 경우가 허다함. 나아가 배달 대형 같은 경우 노동권뿐만 아니라 안전권까지도 침해받음. 청소년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인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관련 법과 정책도 많이 시행되고 있음.		
문제점	다양한 법과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청소년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음		
제안 내용	청소년 노동권의 개념을 알리고 관련 법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제출일	2018년 10월 10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충북권	아동 성명	이○○
활동 주제	아동의 노동권		
현황 및 실태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만둔다는 비율은 40% 침는다는 비율은 26%이다.		
문제점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청소년이 많으며,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청소년이 많다.		
제안 내용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1일		

충북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충북	아동 성명	강○○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1959년 11월 유엔 제14회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에 관한 특별한 권리를 정한 선언, 1924년의 제네바선언(국제연맹·아동선언)을 개정하고 더 나아가 유엔헌장 및 세계인권 선언에 있는 기본적 인권과 인간 존엄 확인에 바탕을 두고 아동의 구체적 권리를 10개로 정리한 것이다.		
문제점	아동의 놀 권리는 유엔에서도 채택이 되었고 우리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데 정작 우리 그 권리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설문조사 해 본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이 '저를 들어봤다.', '있어도 학원가느라 바쁘다.' 등등 무슨 권리인지도 모르고 있어서 우리가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안 내용	아동들이 아동의 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안이나 학교의 규칙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7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충북	아동 성명	류○○
활동 주제	놀 권리에 관한 토론과 부 주제 탐색		
현황 및 실태	아동인권의 놀 권리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받고 많은 친구들이 놀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도 같이 설문조사를 하고 싶어 보니 나 자신도 놀 권리가 많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특히 어렸을 때부터 어린 아이들의 놀 권리를 부모들이 빼앗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막상 시간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지게 됨		
문제점	아이들의 의지가 아닌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의 강요로 많은 아이들이 놀 권리를 빼앗기게 되었다. 놀 권리를 빼앗긴 아이들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인식 하는 것과 더 문제점은 아이들이 놀면 공부할 하지 않는다고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회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안 내용	아이들에게도 놀 권리를 누리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받게 해 주어야하고 부모들도 아이들의 놀 권리를 빼앗지 않도록 교육시켜야 하고 무엇보다 공부를 다 하고 놀아도 다 하지 않고 놀아도 좋지 않은 시선만 보내는 사회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 한다.		
제출일	2018년	9월	27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충북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들의 놀권리 문제		
현황 및 실태	학생들이 가장 놀고 싶어 하는 시험기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학생에게 질문한 내용은 대한민국 아동들의 놀 권리가 가장 잘 지켜지는가, 만약 잘 안 지켜진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 두가지 질문들로 만 짧은 인터뷰를 3명의 학생들의 대상으로 진행했다. 3명의 학생들의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을 모두 다 "아니다"였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각기 다르지만 비슷한 대답들이 나왔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쟁위주의 치열한 교육환경이 문제라는 의견, 공부가 끝나면 너무 힘들니까 놀 힘이 없다는 의견 등 비슷한 의견들이 나왔다.		
문제점	요즘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만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얘기를 "그러면 평소에는 어떻게 여가생활을 보내나?"는 질문에 아이들은 핸드폰만 허거나 게임만 한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노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 놀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안 내용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의 치열한 입시만을 바라보는 교육환경에서의 아이들이 지쳐나가는 것과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노는 법을 잊어버리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장하여 학생들에게 휴식과 현재 너무나도 틀에 갇혀있는 자유학기제 교육제도를 현재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제도로 개편하여 아이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체험을 하면서 진로를 개척해나가면서 지쳐 버린 아이들에게 휴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충북	아동 성명	민○○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아동들은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제대로 된 놀이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물론, 놀이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		
문제점	아동들의 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자신들에게 놀 권리라는 것이 주어지는지 알지 못한다. 또, 무엇이 놀이인지 교육받지 못하고 진정한 놀이를 경험하기 힘들다.		
제안 내용	놀 권리에 대한 교육과 다른 이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놀이에 대해 교육청, 도, 시교육을 제정하고 공공육아에서 실시 할 수 있는 놀이를 고안함.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충북 - 모니터링단 9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충북	아동 성명	송○○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p>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 아동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함.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성인과 초·중·고교생 2099명을 설문 조사한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중학생 10명 중 9명은 놀고 싶어 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아이들이 보는 권리 침해 1위는 '어른들의 공부 강요'라고 함. 또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어린이헌장, 아동권리헌장, UN아동권리협약 등이 있음.</p>		
문제점	<p>현재 아동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주로 아동단체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p>		
제안 내용	<p>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해보고 이런 정책을 정부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p>		
제출일	2018년	10월	10일

9월 활동보고서

권역	충북	아동 성명	이○○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p>아이들의 놀이는 단순히 아동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아이들의 발달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다. 하지만 현재에는 교육만 중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p>		
문제점	<p>교육과 학습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발달에 꼭 필요한 놀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아야 한다.</p>		
제안 내용	<p>'교육'을 강조할 정도로 학습을 중요시하는 분위기와 세상이 혐약해진 데 비해 안전한 외부 놀이 공간이 부족한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p>		
제출일	2018년	10월	12일

10월 활동보고서

모니터링단 월별 활동보고서

강원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강원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학교 주변 유해환경		
현황 및 상태	학교 주변 유해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를 하기 위해 10월 중에 캠페인 피켓을 만들고,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우선 학교 주변 유해환경에 대한 법률을 알려주고, 학교 근처 유해환경의 실태를 사진을 붙여 보여준 다음, 학교 주변에 대한 유해환경이 학생의 비행에 영향을 끼치는가? 라는 질문과 현재 이에 관한 법률이 잘 지켜지는가? 라는 두 개의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 주변 유해환경이 학생의 비행에 영향을 끼친다.' 라는 질문에서 영향을 끼친다가 약 70% 정도였고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가 약 65% 정도 되었다. 그리고 '현재 이에 관한 법률이 잘 지켜지는가?'라는 질문에서 '잘 지켜진다'가 약 15%, '잘 지켜지지 않는다'가 약 120표 가량 나왔다.		
문제점	학생들이 법률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매우 많았다.		
제안 내용	법률이 잘 지켜지도록 법률이 관하여 많이 알리고, 시민들이 이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해야 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31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강원도	아동 성명	이○○
활동 주제	학교 근처 유해환경		
현황 및 상태	학교 근처 유해환경- 학교 근처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많은 유해환경이 생기고 있다.		
문제점	학교 근처 유해환경- 시간이 지날수록 모델 등과 같은 시설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안 내용	학교 근처 유해환경- 초등학교 근처 안전속도 유지하라는 지시처럼 학교 200m 앞에서부터 유해시설 건립 금지라는 지시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30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강원	아동 성명	임○○
활동 주제	학교 주변의 유해 시설.		
현황 및 상태	학교 주변의 유해 시설을 주제로 캠페인 활동을 하며 설문조사를 받아 보았고 설문조사를 하는 친구들에게 상대 보호 구역, 절대 보호 구역을 알고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설문조사 질문은 1. 학교 주변 유해환경이 비행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 2. 현재 유해환경에 대한 법률이 잘 지켜진다고 생각한다. 였고 1번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80명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은 55명이 있었다. 또한 2번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15명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은 120명이 있었다. 또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법률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문제점	1. 법률을 거의 모르고 있다. 2. 법률이 잘 안 지켜진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제안 내용	법률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법률이 잘 안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법률을 안 지킨 불법 시설들을 단속하여야 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31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강원	아동 성명	지○○
활동 주제	학교 주변의 유해 시설		
현황 및 상태	모임에서 만들었던 설문등을 바탕으로 캠페인을 하였는데 '학교주변 유해환경이 학생의 비행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질문에서 영향을 끼친다가 약 70% 정도였고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가 약 65% 정도 되었다. 그리고 '현재 이에 관한 법률이 잘 지켜지는가?'라는 질문에서 잘 지켜진다가 약 15%, 잘 지켜지지 않는다가 약 120표 가량 나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에 관하여 잘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생들의 생각에서는 법률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제점	1. 유해환경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함. 2. 법률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음.		
제안 내용	1. 캠페인 결과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유해환경 법 홍보 혹은 교육, 강의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식을 확실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 법률을 더 뚜렷이 하여 학생들이 유해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3. 현재 만들어져 있는 가계들에 대해서 폐정이 아닌 학생들에게 유해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함.		
제출일	2018년 10월 12일		

강원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강원	아동 성명	최○○
활동 주제	학교 주변 유해환경		
현황 및 실태	<p>지난회의를 통해 의견을 주고 받았던 내용들을 토대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상대 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에 대해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쪽의 표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유해환경이 학생들의 비행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각각 절반가량의 표가 나왔다.</p> <p>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유해환경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들어보게 되었고, 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수 있었다.</p>		
문제점	투표에서도 나왔듯이 법률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표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나쁜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뭇머뭇 못하고 있는 실태이다. 또한 사람들의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제안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람들의 인식 증진을 위한 캠페인의 지속성과 사람들의 관심 2. 이러한 환경을 줄이기 위한 단속강화 3. 업소 등에 대한 국가적 움직임인 처벌강화 		
제출일	2018년 10월 31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강원	아동 성명	허○○
활동 주제	학교 주변 유해 환경의 실태		
현황 및 실태	<p>9월달에 활동한 캠페인을 바탕으로 개인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놀 권리에 대한 것을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아르바이트 활동을 할 때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하는 법을 모르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자신의 할당량을 재웠는데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p> <p>유해환경 또한 9월달에 모여서 회의한 결과들 토대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대부분은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이 접근하면 안된다는 절대, 상대 보호 구역으로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유해환경이 학생들의 비행에 영향을 끼친다는 게 약 76%,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약 67% 정도였다. 또한 현재 유해환경에 대한 법률이 잘 지켜진다고 43표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약 120표 정도였다.</p>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자신의 할당량을 다하였는데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 2. 유해환경의 심각성을 대부분 알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현재의 법률 또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제안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2. 절대, 상대 보호 구역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포스터나 SNS를 통해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여 차차 유해환경이 학교의 보호구역으로부터 사라지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2-1. 유해환경에 대한 법률을 강화하여 좀 더 엄격하게 단속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출일	2018년 10월 31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강원	아동 성명	최○○
활동 주제	학교 주변 유해환경		
현황 및 실태	<p>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통해 설문조사와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 '학교 주변 유해환경이 학생의 비행에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질문에서 영향을 끼친다고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비슷했지만 영향을 끼친다고가 군소하게 앞섰고 '현재 이에 관한 법률이 잘 지켜지는가?'라는 질문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대답이 잘 지켜진다는 대답보다 우세했다.</p> <p>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에 관하여 영향을 끼친다고와 끼치지 않는다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학생들의 생각에서는 법률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p>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환경이 정말로 청소년에게 좋지 않은가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 2. 현재의 법률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제안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캠페인 결과물 통해 유해환경 법 홍보 혹은 교육, 강의 등을 통하여 유해 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 교육을 강화한다. 2. 법률을 개정하여 현실 상황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현재 만들어져 있는 가게들과 협의하여 간판을 작게 만들고 운영시간을 바꾸는 등 해결책을 마련한다. 		
제출일	2018년 11월 01일		

강원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강원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지난 9월에 했던 종이 설문들을 바탕으로 동아리원들이 각자 학생들을 인터뷰 해본 결과 대부분 학생들이 학원이나 각자의 상황으로 인한 자유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였지만 직접 인터뷰를 해보니, 자유시간이 부족하지 않다는 학생도 있었고, 여러가지 사유를 가진 학생들도 많았다. 우선 학습에 관한 시간 부족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시설부족 및 시설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문제점	학습에 관한 시간부족과 시설부족 그리고 다양하지 못한 시설로 인한 보장 되지 않는 놀 권리		
제안 내용	학교 근처와 사람이 많이 주거하는 곳 근처에 다양하게 학생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유해하지 않은 스포츠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변 좋을 것 같다.		
제출일	2018년 10월 20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강원도	아동 성명	이○○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아동의 놀 권리- 여전히 아동들의 놀 권리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학교 학원 집 순으로 매일 정해져 있는 루트로만 생활하는 한국 학생의 삶은 놀 권리가 많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		
문제점	아동의 놀 권리- 주변에 여가시설이 부족하고, 부모님의 압박과 기대감과 같은 성격문제 등		
제안 내용	아동의 놀 권리- 유해시설보다는 아동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더욱 증가하도록 노력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30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강원	아동 성명	임○○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아동의 놀 권리를 주제로 학생 4명을 인터뷰를 해보았다. 질문은 1. 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나요? 2. 놀이 시간이 생기면 주로 무엇을 하나요? 3. 놀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3-1. 잘 안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이유나 경험을 말해주세요. 이 질문들로 설문을 해 보았는데 인터뷰한 4명 모두 1번의 대답을 몰랐다고 대답했고, 2번 질문에는 노래방, 피시방을 가거나 영화를 본다고 답하였다. 3, 3-1 질문에는 시설이 부족하다(강릉이 발달된 도시들에 비해 vr, 방 탈출 카페 등의 놀이 시설이 안 생긴다.), 놀이 시간이 적다(학교에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거기에 학원에서 12시 30분까지 있다.),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하였다(웃살을 하고 싶었지만 웃살장 대관비를 내야 되어 포기한 적이 있다.)		
문제점	1. 아동들이 놀 권리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2. 놀이가 한정되어 있다. 3. 지역 간의 놀이 시설의 격차가 크다. 4. 놀이 시간이 부족하다 5. 놀이를 하기 위한 비용이 부담된다.		
제안 내용	놀 권리를 많이 알린다. 놀이 시설을 많이 만들고 알린다. 놀이 시설 격차를 없애기 위해 지역 차원에서 지원한다. 놀이 시간을 법적으로 책임져 준다.		
제출일	2018년 10월 31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강원	아동 성명	지○○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지난 9월에 했던 설문들을 바탕으로 동아리원들이 각자 학생들을 인터뷰해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이나 각자의 상황으로 인한 자유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였지만 의외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학생들 또한 적은 수가 아니었다. 동아리원 각자 개인이 대부분의 학생들을 보자하면 학업으로 인한 자유시간의 부족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님의 제한(엄격함), 그리고 기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 그 기타 속에서 놀거리 들의 결핍도 나타났다.		
문제점	1.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자유시간 결핍 2. 헬리콥터 부모님들의 제한 3.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놀거리가 한정되어 있다.		
제안 내용	인터뷰를 바탕으로 학업은 자신이 원해서 혹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학업으로 인한 놀권리 외에 헬리콥터 부모님들의 문제, 그리고 놀거리의 결핍이 떠나 문제가 되어 학생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치를 낮춰야 헬리콥터 부모님이 고쳐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새롭거나 덜 발달되어 있는 분야들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놀거리에 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놀 권리에 관한 인식 혹은 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학생들에게서 나왔다.		
제출일	2018년 10월 31일		

강원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강원	아동 성명	최○○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p>지난 회의들의 내용등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결과로는 주변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부족을 놀시간의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하였다.</p> <p>이에는 대부분이 학업으로 시간이 빼앗겨 하는 이야기가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었다.</p> <p>한편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은 친구들뿐 아니라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람들의 또 다른 이유로는 주변의 여가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가 미흡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p>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학업적인 이유로 시간부족 2.시설부족 		
제안 내용	<p>학업적인 이유로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존재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의 교육방침에 개혁이 필요할 뿐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시기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p> <p>이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청소년 여가 시설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면서 천천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p> <p>또한 놀이 시설에 대하여 외국에는 다양한 스포츠 등이 개발되면서 즐길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p>		
제출일	2018년 10월 31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강원	아동 성명	허○○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p>청소년들은 대부분 강제적으로 학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학업을 제외하고 자신을 개발하거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턱없이 주고하고 쉬는 시간이나 수면시간 또한 부족하다고 한다.</p>		
문제점	<p>아직까지도 강제적인 학습활동이 많아 수면시간과 자기 개발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p>		
제안 내용	<p>학교에서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 활동하면 좋겠다는 의견과 강제적인 학습을 자제하자는 의견이 있다.</p>		
제출일	2018년 10월 31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강원	아동 성명	최○○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p>지난 9월에 했던 설문들을 바탕으로 동아리 부원들이 각자 학생들을 인터뷰 해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이나 각자의 상황으로 인한 자유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였지만 현재 자유시간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는 의견도 소수가 존재했다. 원인을 인터뷰 해본 결과는 학업에 관련된 이유가 가장 많았고 부모님의 압력, 교통수단의 부족 등이 뒤를 이었다.</p>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유시간의 부족 2. 부모님들의 성적 등에 관한 압력 3. 시내와 멀어서 학차가 8시 30분이면 끝나게 된다. 		
제안 내용	<p>인터뷰를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학업에 관한 부분은 고등학생이나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하지만 성적 등으로 부모님이 압박할 때가 가장 힘들다고 한다. 따라서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기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놀 권리에 관한 인식 혹은 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학생들에게서 나왔다.</p>		
제출일	2018년 10월 31일		

경기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기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와 보호권		
현황 및 실태	<p>우리나라에서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야간근무등 다양한 면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p> <p>또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막대하거나 '혹형, 성추행' 등 행위를 한다고 보도되었던 적도 있다.</p> <p>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근로조건 기준 엄격 시행'을 함으로써 노동 환경도 개선하고 관련 법 조항 제정을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빠른 시일에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p>		
문제점	<p>-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한 경우, 노동 환경과 대우 등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p> <p>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노동 권익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p> <p>- 또한 놀 권리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청소년들은 '공부'라는 단어를 듣게 된다면 생각나는 단어들은 모두 부정적인 단어들이었다. '힘들, 대학, 지옥, 귀찮, 숙학업, 주입식 교육, 억지 등' 아이들은 공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러한 생각이 떠오름으로써 인식이 좋지 않음과 이로 인해 자신의 여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p>		
제안 내용	<p>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을거 같아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알아보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p> <p>19살 여학생(친구1)</p> <p>1. 아르바이트의 활용자는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친구1- 알바비를 받으면 주로 옷을 사거나 친구들과 여과시간을 보내는 곳에 씁니다.</p> <p>2. 주로 어떤 알바를 선호하고 하고 있나요? 친구1- 아직 청소년이라 마방한 알바 자리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쉬운알바자리도 없어서 프래매들이 많이 하는 알바는 고깃집 서빙이나 음식정리알바를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p> <p>3. 알바는 주 몇일 몇시간을 하고 있나요? 친구1- 일주일에 3번 4-5시간정도 보통입니다.</p> <p>4. 주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친구1- 처음에 친구들 소개로 하게 되었고, 그냥 단순히 돈을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p> <p>5. 성인이 아니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안 좋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p>		

친구1- 안 좋은 경험까지는 아닌데 알바를 하고 있으면 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나 걸음수이나 얼굴물을 보면 대부분 어서기 때문에 워킹의 무사나 불쌍하게 보는 면이 있어서 그러한 점에서는 기분이나 안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6. 알바를 하는 것이 공부에 영향이 미치나요? 친구1- 네, 그래서 시험기간이거나 중요한 시기라면 피하거나 다 끝나고 하거나 시간을 조정해서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업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7. 알바를 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나요? 친구1- 간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시간조정을 하게 됩니다.	
8. 휴식시간이 주어지나요? 친구1- 저는 없었습니다. 하루에 6시간 일을 했었는데 따로 휴식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9. 최저임금을 보장이 되나요? 친구1- 저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넘는 금액인 8000원을 받았습니니다. 또 다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저임금을 정겨주긴하지만 받는 기한이 늦어졌을 때가 있어서 그점에 대해서는 불만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아르바이트에 실태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우리는 한가지 더 설문조사를 하였다. 놀 권리에 대한 공부가 대한 생각에 대해 물어 보았다. 일부 그결과, - 스스로 생각하기에, 본인의 하루 '공부' 시간은 평균적으로 어느정도인가요? 라는 질문에서 1시간 미만은 22.2%, 1시간-3시간은 19.4%, 3시간-5시간은 30.6%, 5시간-7시간은 8.3%, 7시간-9시간 11.1%, 9시간-11시간은 8.3%로가 나왔다. - '주어진' 공부시간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1시간 미만은 11.1%, 1시간-3시간은 13.9%, 3시간-5시간은 19.4%, 5시간-7시간은 22.2%, 7시간-9시간 11.1%, 9시간-11시간은 11.1%로가 나왔다. - '학업을 위한 공부'가 본인의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가 55.6% '아니오'는 41.7%로 답하였다. - '원하는 공부' 또는 '하고 싶은 공부'가 있나요? '예'는 88.9%, '아니오'는 11.1%로가 나왔다.	
아동인권모니터링단의 경기권_CON_chipd은 아동의 인권과 보호권을 해결하기 위해 매일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와 통계를 내고 sns를 통해서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주어 한바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기권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와 보호권		
현황 및 실태	<p>[담쟁이교육칼럼]10명중 1명은 아르바이트 청소년</p> <p>요즘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비율은 10명중 1명이라고 한다. 그 비율은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다.</p> <p>아르바이트가 사회생활을 접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아르바이트는 몸에 해로울 수 있다.</p> <p>[이슈&포커스-전주 아호학교] 과연 공부만 하는 아이의 삶은 행복할까? 공부를 병행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엄청난 힘들 것이다.</p>		
문제점	<p>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생 근로 현황'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70%가 넘는 교육청에서 관련 실태조사가 전무하며,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합동으로 발표하는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중·고등학교생인 13~18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12.8%로 2016년(11.3%)보다 1.5% 상승했고, 10명 중 1명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다.</p>		
제안 내용	<p>지금 시회를 보면 공부를 자기주도로 하는 것이 아닌 사회에 필요반는 것 같아 같은 학생으로 또, 아동으로써 너무 비칭한 것 같다.</p> <p>공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하는 것인데, 부모의 기대, 사회의 강요, 성공의 열망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잊는 것 같아 너무 슬프다</p>		
제출일	2018년 10월 30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기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와 보호권		
현황 및 실태	<p>교육부의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결과(2017)에 따르면 중학생의 약 12%가, 고등학교생의 약 44%가 하루 6시간 이내 수면을 취한다고 한다. 이세운 NLP 심리연구소 소장은 "6시간 이내 수면을 취하는 비율이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비해 약 4배가 차이가 나는 것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여간자세학습을 이행해야 하는 것과 학습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고 분석했다.</p> <p>신 시간 공부해야할 환경이 있는 우리 아동들은 수면 시간도 적는데 놀 시간은 생각조차 할 수없이 부족한 실태라 생각된다.</p>		
문제점	<p><알바비도 인권도 보장 못 받는 '위험한 노동', 노동인권 사각지대 내몰린 청소년 배달알바 실태></p> <p>꽃다 너나의 청소년이 오로바이배달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생각이곳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부모동의서 또한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생각) 위해를 통해 만난 윤군의 친구들은 모두 배달알바를 하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겪었으며 윤군 또한 작년에도 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알바다가 발생한 사고였지만 사고비용은 오로지 이들 청소년들의 책임이었다. 배달대행은 산재보험법상 특수고용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생각)-출처 : 고영신은</p> <p>좋은 성적과 좋은 학교 인학을 중요시 하는 사회에 속한 우리 아동들은 수면 시간도 부족한 하루를 살며 긴 시간 공부한다. 잘 시간도 부족하데 놀 시간이 부족한 것도 당연하게 생각되는 바이다. 간혹 어른들 중에서는 "놀 시간이 공부니 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학업을 중시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놀 권리를 알리고 관심을 이끄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p>		
제안 내용	<p>다양한 이유로 노동을 하게 되는 아동들의 보호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고용주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동의서 없이, 또는 근로계약서 없이 아동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꽤 있다. 아동들은 나이 제약 또는 나이 자발 등으로 좋지 못한 노동환경에 일하기도 하고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을 받기도 하는데, 일을 하다 사고 나는 경우 청소년들이 하는 일들의 특성상 산재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돈을 벌러다 오이러 더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한다.</p> <p>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36명이 참여한 이 설문조사는 아동들의 공부시간, 공부에 대한 생각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여러 질문 중 '나에게 공부란 무엇이다'라는 질문에 스트레스, 마음의 짐 등 부정</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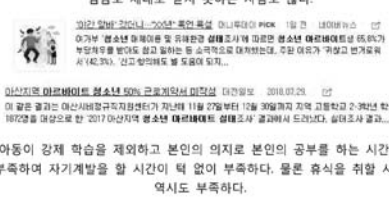
경기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10월 활동보고서

<p>적으로 답한 경우가 꽤 있었고 공부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생각에 대한 질문에서는 숨막힘, 압박, 지옥 등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답하는 결과를 얻었다.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오랜 시간 공부하는 아동들의 실태를 볼 수 있었다. 신조어 중에 '워라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아동들도 공부하는 시간과 놀 시간을 적절하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놀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아직 자신의 놀 권리를 알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어 놀 권리에 대해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이유로 우리 경기지역 모니터링단은 위의 설문조사를 활용해 현재 한국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공부에 대한 생각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지난 8월 만들었던 페이스북 페이지 <Com CHIP>에 올렸다. 카드뉴스를 통해 부족한 인식과 관심이 늘어나길 바라는 바이다.</p> <p>아동의 실제 노동환경 등을 알아보기 위해 주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동을 인터뷰해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거나 근로계약서, 부모동의서 없이 일하고 나이로 인한 차별을 겪은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노동환경의 단속을 강화하고 아동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p> <p>이외에 지난 9월 총대에서 진행되었던 캠페인을 통해 방범에 대한 인식부족을 느끼고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페이스북 페이지 <Com CHIP>에 올려 아동학대의 유형과 방범의 정의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아동학대가 사라지는 날이 언젠가 왔으면 하는 바램이다.</p>	<p>2018년 10월 29일</p>
--	----------------------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구역	경기	아동 성명	순○○
활동 주제	아동의 노동 환경과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p>천안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 '역전'</p> <p>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 청소년이 절반에 가까운 46.6%에 달했다. 근로계약서 사본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도 66.3%를 차지했다. 근로기준법 6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 미작성 및 미교부 시 각각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위반한 사업주가 많아 사업주 대상 교육 및 단속이 요구됐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66.2%는 근로계약 체결 관련 친권자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p> <p>아르바이트 청소년들 노동여건은 열악했다. 조사결과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은 경우는 24%,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31%,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22%로 집계됐다. 손님이 없어 1-2시간 나갔다가 오거나, 조기 퇴근을 요구받는 일명 '알바취기'도 32.6%로 조사됐다.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도 16%에 이르렀다. 64%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 84%는 성희롱예방 교육을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p> <p>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성희롱-인권 피해는 폭행-욕언 15.4%, 인격적 모욕 13.5%, 성적수치심 굴욕감 14.8%, 꾸미기 노동 강요 9.7% 순을 보였다. 조사에 참여한 한 아르바이트 청소년은 심층인터뷰에서 사업주가 말 끝마다 욕을 했다고 털어놨다.</p>		
문제점	<p>아동 노동 환경에 대해 LENS 경기권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 환경이 좋지 않았다. 임금 문제나 아동이 아르바이트생으로써 손님과 고용주 간의 문제 등이 심각한 상태였다.</p> <p>놀 권리에 대해 LENS 경기권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부'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자신의 놀 권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학업으로 인한 시간 부족임을 알 수 있었다.</p>		
제안 내용	<p>우리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LENS 경기권 페이스북 페이지에 아동의 놀 권리를 알려려는 카드 뉴스 올리는 등의 활동을 기획하였다. 이 카드 뉴스로 인해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중요하게 여겼으면 한다.</p>		
제출일	2018년 10월 25일		

구역	경기	아동 성명	명○○
활동 주제	아동 놀 권리 및 보호권		
현황 및 실태	<p>요즘 18세 미만의 아동이 아르바이트 활동을 할 때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고용되거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심지어는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p>  <p>아르바이트 청소년 100명 설문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47.0%, 최저임금 미지급 38.0%, 근로시간 초과 35.0%, 아동노동 15.0% 등 심각한 실태가 드러났다. 또한, 아동노동 15.0%에 달하는 아동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부모님 권유'가 40.0%로 가장 높았으며, '친구 권유'가 20.0%로 나타났다.</p> <p>아동이 강제 학습을 제외하고 본인의 의지로 본인의 공부를 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자기개발을 할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하다. 물론 휴식을 취할 시간 역시도 부족하다.</p>		
문제점	<p>아동을 대상으로 육설을 퍼붓거나 임금을 제대로 주지도 않아 아동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다.</p> <p>아동이 지금 사회의 입시 시스템에 의해 강제 교육을 하게 되는 시간이 많아져 아동이 휴식을 취할 시간이 침해당한다.</p>		
제안 내용	<p>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동 7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간단한 근로계약서를 쓰고 아르바이트 일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로계약서가 필요도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도 있었다. 또한 대부분 식당이나 편의점,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대답해 주셨는데,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이 육설을 하거나 무시하고, 불평한 시선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다고 대답하셨다. 임금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일을 한 경우도 있었다.</p> <p>인터뷰를 통해 아동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충분한 임금을 보장받고, 육설 등을 듣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p> <p>아동의 강제교육시간이 아동의 놀 권리를 침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여 공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6명이 참여하였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본인의 하루 '공부' 시간은 평균적으로 어느정도인가?" 라는 질문에서 1시간 미만은 22.2%, 1시간~3시간은 19.4%, 3시간~5시간은 30.6%,</p>		
제출일	2018년 10월 30일		

경기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p>실문 문항 중 공부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단어로 적은 것들이다. 대부분 '자옥', '불행', '습막힐'과 같이 부정적인 단어와 '건강악화'라는 단어까지 나온다. 현재 아동들은 놀 권리를 잘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p> <p>성북구, 재래로 노는 날 할것주는 '놀이활동가'와 놀 권리를 보장 한국강사신문 2018.08.30 [2] 성북구, 재래로 노는 날 할것주는 '놀이활동가 양성' 사업-성동구등이 [한국강사신문 01대 4호] 서울 성북구·구로구 등 5개구의 놀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놀이활동가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p> <p>성북구와 성동구가 놀 권리를 위해 노력하지만, 아직까지 그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았다.</p>
문제점	<p>(보호권) 조금씩 인지도가 높아지지만, 아직까지도 모르는 아동이 있다는 것과 어려움을 때부터 보고 자라는 환경 때문에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방에 대한 교육이나, 만약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이라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같은 대처법에 대한 확실한 교육이 없었기 때문이다.</p> <p>(놀이권) 주변인의 시선을 과하게 생각하고, 타인을 이겨야 한다는 경쟁심리가 있어, 남이 공부한다면 자신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도 관심 갖지 않고, 대학에 대한 필요성을 과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p>
제안 내용	<p>카드뉴스를 정기적으로 만들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사이트에 올려 계속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p> <p>사람들의 관심은 장기간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p> <p>10월에 진행된 놀권리에 관한 설문결과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이벤트를 만든다.</p>
제출일	2018년 10월 30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기권	아동 성명	최○○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와 보호권		
현황 및 실태	<p>◆유엔아동권리위 권고에도 '청소년 노동 인권'은 6년째 밀바닥</p> <p>앞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한국의 18세 미만 근로 아동·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지만, 야간근로나 최저임금 미준수 등을 지키지 않는 변칙적 노동 관행이 빈번히 일어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노동 야기하는 근본 요인 해결' '청소년 근로조건 기준 엄격 시행' '근로환경 노동 감독 개선' 관련 법 조항 제정 '폭행·성추행 방지와 사후 제도 마련' 등을 권고했다.</p> <p>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서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서면 근로계약,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 고용절서 준수를 위한 일제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권고 이행 상황을 설명했다.</p> <p>그러나 정부 보고와는 달리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은 6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여전히 밀바닥에 머물고 있다. 이런 실태는 통계로도 나타난다.</p>		

	<p>3일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59.3%가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했으며, 15.8%는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근무 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p> <p>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도 25.8%에 달한다. 임금을 억속한 날짜보다 늦게 지급하거나 적게 주고, 혹은 아예 주지 않는 경우도 28.8%에 이르는 등 상당수 청소년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근무 중 폭언과 폭행, 성희롱에 노출된 청소년(9.4%)도 적지 않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이모(19)장은 "손님들이 '예쁜이'라고 부르는 등 성희롱을 당해도 사장님은 제가 잘 웃고 뽀아서 뽀은 건데 왜 웃질 않냐며 오히려 뭐라고 했다"고 말했다.</p> <p>출처)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81003001908</p>
문제점	<p>아동이 저해 있는 노동 환경은 확실히 개선되어야 한다. 여전히 청소년 노동자는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고 때로는 희롱 당하기도 한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을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p>
제안 내용	<p>아동이 겪는 노동 환경을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아동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하여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17살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17살 △△양 Q. 아르바이트를 언제 처음 하셨나요? A. 중학생 3학년 때 처음 한 거 같아요.</p> <p>Q.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친한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같이 하면서 경험을 쌓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하게 되었어요.</p> <p>Q.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작성하셨나요? A. 아니요. 근로계약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리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부모님께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은밀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p> <p>Q.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나요? A. 네. 손님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태도와 때로는 욕도 막 하셨어요. 또 아르바이트를 개인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어야 했는데 이 사실을 사장님께 말 했더니 갑자기 욕을 하시고 화를 내셨어요. 저는 잘못된 게 아무 것도 없었는데도 말이죠. 이 뿐만 아니라 시급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아서 따지지 못하고 그냥 면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p> <p>Q. 청소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A. 대부분 음식점 가게나 전단지를 돌리는 곳에서 많이 하죠. 그냥 가서 설거지 하고 볼 줄 옮겨 나르고 계속 그러는 거죠. 위험한 일일랑 단순 노동을 많이 시키니까 법이랑 제도를 잘 모르는 청소년들을 많이 채용시키는 것 같아요.</p> <p>Q. 다시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A. 환경만 조금 개선되고 우리들을 바라보는 시선만 바뀐다면 또 해보고 싶어요. 돈이 들어올 때마다 행복하더라고요. (웃음)</p> <p>17살 AA양 Q. 아르바이트를 언제 처음 하셨나요? A. 16살 때 처음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p> <p>Q. 아르바이트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그냥 재미있어 보였고 돈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p> <p>Q. 근로계약을 작성하셨나요? A. 장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은 작성하였지만 단기간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안 쓰고 있을 했어요.</p> <p>Q.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에 부당한 대우 또는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었나요? A. 다형히 심한 차별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시급을 원래 받아야 할 수당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를 포함한 많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굳이 안 때도 되는 세금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주는 가게들도 많았구요.</p>
제출일	2018년 10월 26일

경남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남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1. 10월 중 LENS 경남 권역에서 같이 준비한 아동인권조례와 관련한 캠페인에 참여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아동인권조례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고, 생각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아동인권조례 설명내용, 반대하는 이유 등을 관심 있게 읽어보고 있다. 간혹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몇 분 동안이나 자리를 떠나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다.</p> <p>2. 아동인권조례에 관심이 많은 친구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친구는 학교의 엄격한 복장규정에 (갈옷을 입으면 안 된다, 체육시간을 제외한 학교 일과 시간에는 체육복 착용이 불가능하다, 등교 시 반드시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 등)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교복 자체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아동인권조례가 제정규정은 물론 두발규정까지 자율화된 학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에도 더 많은 지역에 하루 빨리 아동인권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p>		
문제점	캠페인을 실시했을 때 스티커를 붙여주고 가신 고마운 분들의 대다수가 아동인권조례에 찬성했으나 아직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반대세력의 입김이 세기 때문일 것이다.		
제안 내용	우리가 캠페인한 내용 중 아동인권조례 반대 이유의 영역을 생각해보았을 때 나는 아동인권조례가 비단 아동인권뿐만이 아닌 전반적인 인권과 모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을 인식하고 우리는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출일	2018년 10월 27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남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입니다.</p> <p>최근 경상남도에도 학생인권 조례안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의 지역에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다고 합니다.</p> <p>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지역의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어야 합니다.</p> <p>학생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복장규제가 있습니다. 중 고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교복을 입는 것도 인권침해 사례라고 볼 수 있지만, 심한곳은 양말, 스타킹, 신발, 가방액까지 규제한다고 합니다.</p> <p>또한 중, 고등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 시간입니다. 고등학생 60%가 강제이거나, 반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고등학생 53.1%는 방학중 학원보충시간이 강제, 반강제적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p> <p>중학생들은 35.2%가 방과후 학교를 강제, 반강제적으로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학교에서는 평균 시간은 중학생 : 8시간 4분 고등학생 : 12시간 35분 이라고 합니다.</p> <p>그 다음으로는 체벌실태입니다. 1주일에 1회이상은 체벌경험을 하거나 본학생이 중학생 : 52.1% 고등학생 : 49.9% 라고 합니다. 체벌의 주된 사유는 두발복장위반, 지각이나 결석, 과제나수업태도 이라고 합니다. 또한 체벌은 교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학원에서의 체벌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p>		
문제점	학생이 인권침해를 많이 받고 있다는 점 예를 들어 두발복장규제, 강제학습실태, 체벌실태 등이 있습니다.		
제안 내용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경남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의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역의 인권조례가 시행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출일	2018년 10월 29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남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입니다.</p> <p>현재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의 지역에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인권조례를 모르는 학생들도 평소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권조례를 아는 반보다 모르는 반이 더 많았습니다.</p> <p>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에서 실현되고 보장되기 위해서 제정되었지만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데 찬성을 하는 학생이 대다수였지만 찬성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p>		
문제점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		
제안 내용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경남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의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제출일	2018년 10월 29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남권	아동 성명	류○○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21일 경남 양산 지역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 18~19일 사이 양산 지역 3개 초등학교 앞에서 '우리 아이 명치는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이라는 제목의 전단이 살포됐다.</p> <p>초등학생들이 아침 등교 때 교문 앞에서 전단을 받았고, 학교 후 학부모에게 보여줬다고 한다. 이에 학부모들이 전단 내용을 보고 놀라 '학부모 밴드'와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전단의 존재가 알려졌다.</p> <p>전단 내용 살펴보니... "자극적" "사실 관계 어긋나"</p> <p>전단에는 "초등학교 성인권교육=음란 세뇌교육" "성인권 교육, 성적 지향 차별금지? 남녀간, 출산 섹스=학생인권"이라 적혀 있다. "초등학생이 성인권, 임신 해도 인권이니 내버려둬!"(윤리, 책임의식 빠진 음란 세뇌교육 시행)이라는 설명도 달려있다.</p> <p>또 전단에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인 '제16조와 제17조'라 해놓고 "성적 지향, 임신, 출산 차별금지(동성애 가능, 음란 조장) - 남녀간, 동성간 스킨십 성행위 - 임신, 출산 관련 지도 불가능" "성인권교육 실시-음란 세뇌교육 : 성적권리(동성애/양성애/성전환)나태를 자식이 결정할 성적 권리로 가르침"이라고 해보았다.</p> <p>한 학부모는 "집에 온 아이가 등굣길에 받았으면서 전단을 보여줬다.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면서 "신정적인 문구에다" "마음대로 섹스해줘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랑 아이들이 이 전단을 보고 마음대로 섹스해도 된다고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p> <p>다른 학부모는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관계자가 교문 앞에 나와 전단을 나눠주지 못하도록 하자 상황이 별이건 것으로 안다"라면서 "전단 배포자들은 2인 1조로 움직여 등교시간에 몇 군데 초등학교 앞에서 전단을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p> <p>그는 "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하기 위해 어린 아이들의 정서를 저해하는 선정적인 문구를 넣은 전단을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라며 "교육청과 경찰이 나</p>		

경남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p>서서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김민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은 "전단지 내용을 보니 아주 자극적이다. 마치 교사들이 학생들을 체포시키려 하는 것으로 표현해 놨다"라면서 "교사 입장에서 대단히 오욕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했다.</p> <p>그는 "학생을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 같다. 학생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하지만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인권감수성이 완벽히 결여된 대단히 비교육적인 행위"라고 평가했다. 이어 "어른이 학생들에게 행한 또 다른 폭력으로 개탄스럽다"라고 덧붙였다.</p> <p>김 지부장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소수라도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지, 전단에 표현해 놓은 것처럼 학생들한테 성관계나 동성애를 하라고 조장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p>
문제점	인권조례의 중요성을 아이들의 정서를 저해하는 선정적인 문구를 넣어 표기하였다.
제안 내용	인권조례를 찬성하고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잡는 직업이나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7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남	아동 성명	류○○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2018년 10월 20일 서면 일대에서 학생인권조례 관련 캠페인을 진행함. -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약 2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함. 학생인권조례 소개,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 수렴, 학생인권조례 관련 굿즈 배부가 이루어짐.</p> <p>굿즈 디자인은 과거 만들어 9월 보고서에 수록했던 것을 이용함.</p> <p>생각보다 캠페인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많았고, 가서 권했을 때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음. 학생인권이라는 주제 자체에 어색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음.</p> <p>학생인권조례 홍보 포스터 제작 - 교내에서 함께 제작할 인권동아리 친구를 섭외해 제작 마무리 작업에 들어감. 11월에 학교 교무부장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 부산국제중학교와 부산국제고등학교, 인지중학교 등에 부착할 예정임.</p>		
문제점	<p>캠페인을 진행해 보니 생각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설명 안다 해도 자세한 내용이나 어떤 권리를 보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학생인권조례와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서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다.</p>		
제안 내용	<p>-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 전국에 학생인권조례 보편화</p>		
제출일	2018년 10월 30일		

권역	경남	아동 성명	박○○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더욱더 느껴보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102명) 와 인터뷰를 진행했다.</p> <p>평소 인권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52명으로 집계되었고 '학생은 권리에 따른 책임을 질 능력이 부족하므로 어느 정도의 제약이 필요하다'가 63명, '학생은 학생 이전에 인간이므로 모든 권리를 제약 없이 행사할 수 있다'가 43명으로 나타났다.</p> <p>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가 72%이나 두발 교정과 교복의 필수성에 '출시 않다'가 97명을 기록했다.</p> <p>또 '본인 학교의 교칙을 알고 있나요?'에서 질문에 알지 못한다가 70명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단체는 '동성애',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런 집'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옳다고 생각하나요?'는 질문에 89명이 '출시 않다'라고 응답했다.</p> <p>'거주하고 있는 행정구역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좋겠나요?' 라는 질문에는 96명이 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p> <p>또 개인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다.</p> <p>학교생활 중 학생이라는 겪은 사례를 물어보았다. 어느 한 체육 선생님의 체육 시간 때 베드민턴을 했는데 수업 시간이 끝나고 축을 깜빡하고 잠시 없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원머리 뺏을래 아님 이마에 딱밤 맞을래?"라고 말하였다. 축을 잡는걸 깜빡했으면 축을 주우면 되는데 왜 이걸 선택해야 되는가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p> <p>또 학생의 지위에 대한 질문에서는 학교의 주체는 학생이나 학교 운영에 도움을 주는 선생님의 지위가 불필요하게 높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은 학생을 교육할 의무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지위는 있어야하나 학생이 의견을 내지 못하고 일에 있어 일을 반대하지 못할 정도의 지위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p>		
문제점	<p>학생은 경남학생조례에 긍정적 의견을 보였으나 여러 단체는 반대하고 있다.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교칙을 모르는 학생이 대다수다.</p>		
제안 내용	<p>학생은 학생 권리를 보장받으려 한다.</p> <p>학생들은 경남학생조례 제정에 긍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남학생조례의 직접적 관계자인 학생의 의견에 따라 제정을 해야만 한다.</p> <p>또 경남학생조례 제정 이전에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학교 교칙이다.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해 본교 교칙에 대해 설명과 인지를 해야 할 것이다.</p>		
제출일	2018년 10월 27일		

경남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남	아동 성명	박○○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사실 8월 27일부터 부산광역시 교육감님과의 이메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하여 수차례 이메일 인터뷰를 정하고자 하는 통화를 하여 약속을 못 번 잡았지만 제출일 10월 27일까지 약 2개월이 지나버렸지만 답변은 받지 못했다. 질문은 이러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감님께서 현재 존재하는 소지품 검사, 복장 및 두발 규제 등의 학교의 규정들이 학생에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두발규제, 휴대전화 압수, 제벌, 가향과 사물함 수색 등을 인권 침해로 권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최근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추세이고, 이를 통해 학생인권을 더 보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4.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UN 아동권리 협약에 따르면, 아동 권리는 누구의 권리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현 교육계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5.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하며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을 경우 위 두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생의 인권위, 권익위로의 진정 행동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나요? 6. 교육감님께서 현재까지 인권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하셨던 노력들을 말씀해주시 수 있으신가요? 7. 교육감님께서는 아동의 놀이가 학업 성취도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8. UN 아동권리선언 제 31조 아동은 놀 권리를 보장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동들이 놀 권리를 보장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9. 아동의 놀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0.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청소년 지능을 1위를 십년 간 기록하고 있으며, 많은 청소년들은 학업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이런 현상이 개선되기 위해 교육계에서는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11. 현재 대부분의 고등학교에는 '정독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독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성적이 좋은 일부 학생들에게만 부여됩니다. 교육감님은 이러한 성적 차별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부산광역시교육감님뿐만 아니라 사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님, 부산광역시의회 교육부위원장님,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소장님에도 이메일 인터뷰를 정하였지만 역시나 답변은 받지 못했다.
이러한 관계로 경남CBS 시사포커스팀과 진영육 정원자유학교 선생님과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의 요약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진효영 기자님 (경남CBS 보도국장): 경남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두발 단정지율화, 복장완전지율화, 이렇게 되는 건니까? 진영육 정원자유학교 선생님: 그렇게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라고 명령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쪽을 지양하면서 그 구성원들 간의 협의나 합의의 과정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거쳐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그쪽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쪽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학생들이 원하는 바가 학생인권조례에 의해서 보장이 되니까, 학생들이 이것은 우리에게 보장된 권리가 아닌니까? 라고 말할 할 수 있고, 학생들이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효영 기자님 (경남CBS 보도국장):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시는 분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반대하는 곳이 이른바 보수기독교계에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반대이유로 내세우는 것을 보면 동성애를 조장한다거나 나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식의 주장, 그것을 가장 큰 반대의 이유로 삼아요. 이 분들의 주장에 근거가 있습니까? 진영육 정원자유학교 선생님: 조례에 그런 내용은 안 나오고요. 어떤 내용이라면 '성소수자로서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성적 경향이 있든지 그런 이유로 해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그리고 나태 이야 할 했는데, 학생 중에서 믿음을 잃어버려서 출산을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 학생에게 차별의 시선을 보내면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것이죠. 누가 일부러 성소수자가 되려고 하고, 일부러 믿음을 허려고, 출산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권장한다고 될 일이면 허용될 일입니까? 저자가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말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 문제를 별도로 다루면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차별적인 시선을 두는 것은 옳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지 그것을 권장한다고 보는 것은, 일단은 문구도 그렇게 없습니다. 진효영 기자님 (경남CBS 보도국장): 좋습니다. 또 반대하는 단체는 한국교육입니다. 거기서는 왜 반대합니까? 진영육 정원자유학교 선생님: (그들은 교권침해를 이유로 그렇습니다)두발을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두발단속을 교권이라고 보시는 분에게는 교권침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교사의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가르칠 권리와 관계 없잖아요. 교권이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 교육자의 권리 또는 권위라고 나오거든요. 교육자의 권리는 학생한테 얻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청이나 정부나 한테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칠 권리를 달라. 사실은 지금 임시 풍도 속에서 교사가 교육과정 따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고 3이 되면 문제지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고 교권침해입니다. 진짜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 교사의 권위라는 것도 학생들의 인식이지, 내가 학생들을 무시하면서 너희는 나를 대접해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사의 욕심이지. 저는 학생들을 인권적으로 대접하게 되면 저는 교권을 오히려 교육자의 권리로서 알고 교사 교육자의 권위로서의 교권도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문제점	일단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조례에서 인권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기본권 범위에 해당이 된다면 인권의 침해는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국가로서 기본권의 제한은 불가피한 경우 헌법의 가치 질서의 실현을 위해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경우 기본권의 일반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절대적 기본권(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의 내면적 자유)은 제한할 수 없으나, 상대적 기본권(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은 법률유보로써 제한이 가능하다.
제안 내용	헌법은 '공공대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사회의 문화적 통합을 실현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정치구분'으로써,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지역사회의 충분한 논의의 통한 제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7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남	아동 성명	심○○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이다.</p> <p>현재는 경기, 광주, 서울, 전역의 지역에만 학생인권조례가 실행되고 있는 중이다.</p> <p>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인권조례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에서 실현되고 보장되기 위해서 제정되었지만, 학생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고, 그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어떻게 자신의 인권을 지켜야 할지 막연히 모르고만 있는 학생들이 많다.</p>		
문제점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고, 그로인해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제안 내용	학생 인권 조례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해야 하며 추진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학생 인권조례가 무엇인지 충분히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출일	2018년 11월 8일		

경남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남	아동 성명	이○○
활동 주제	학생 인권 조례		
현황 및 실태	학생인권조례는 말 그대로 조례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이 중 조례는 상위 법규에 해당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이행 강제성이 생겨 해당 자치 지역에 속한 모든 학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징계를 당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 고통을 줄 수 없다(31조 7항)"고 되어있으므로 처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법적 효력을 차단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학생인권조례에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반박이 나오자, 이 조항을 직접처벌을 금지한다는 조항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31조 8항)"로 변경하여 현재 상위법과의 충돌 논란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중이다.		
문제점	1. 학생들의 통제가 어려워진다. 2. 교권이 추락한다. 3. 별로 효과가 없는 학교도 많다.		
제안 내용			
제출일	2018년 11월 5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남	아동 성명	이○○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현재 경남권은 아동인권조례 제정이 늦춰지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1월 경남도의회에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했다. '4장 5절 51조'로 구성된 조례안에는 "학생은 두발 등 용도·복장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학생은 교복 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교직원은 학생 등의 없이 학생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례안은 앞으로 경남도의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친다. 현재 경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 찬성과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다. 이 기사에서 나타나는 것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점	아동인권조례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않으면서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높고 있다. 많은 사람에게 아동인권조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안 내용	많은 곳에서 아동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남권은 조례안 까지 만들어 놓고 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생각해 보니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임으로 아동인권조례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주는 특강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		
제출일	2018년 10월 27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남	아동 성명	이○○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1)아동인권 관련 서적 조사하기 1.아동 청소년과 인권 교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인권교육자 등이 인권교육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획득하고 사안에 따라 인권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갖출 수 있도록 각각의 이슈에 대한 협학의 관점과 유연아동권리위원회 권고, 국제규정 내용,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 및 관련 사례를 제시하고, 각 주제에 대하여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기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p> <p>2)아동인권 관련 기사 스크랩 최근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한 사건이 발생 하였다. 바로 가수 더 이스트라이트 이석철 케이팝스타 아동학대와 인권유린 사건 이다. 어린 아동의 대상으로 소속사는 폭행과 협박을 하였으며, 이에 이 사건은 아동을 학대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처럼 아동의 인권을 침해 당하는 일을 아직도 일어나고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p> <p>[기사내용] [마이데일리 = 맹희숙 기자]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리더 이석철이 소속사 미디어리온 엔터테인먼트의 학대를 증언했다. 이석철은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습에서 틀릴 때마다 프로듀서가 기타 줄로 목을 졸랐다. 제 영에 피멍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김창환 회장은 "나는 프로듀서만 날리고 더 이스트라이트 해체하면 된다"고 협박했다"며 "저는 더 이스트라이트 리더이자 멤버로서 케이팝 천의 아동학대와 인권유린이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에 두렵지만 기자회견에 나섰다"라고 참석 이유를 밝혔다.</p>		
문제점	아동인권을 침해 하는 일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인권조례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제안 내용	아동의 인권조례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남	아동 성명	최○○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8-9월의 활동 내용을 정리해보면 1. 인권조례 시행 지역이 매우 적다. 2. 인권조례 홍보가 미미하다. 3. 인권조례 시행 지역도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인권조례가 없는 곳은 더 심하게 발생한다. 4. 대부분의 학생은 인권조례에 열거된 권리를 침해당한다. 5. 많은 학생이 인권조례의 제정을 원한다. 6. 성소수자, 학교 밖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안 좋은 시선으로 인해 인권조례의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같은 아동끼리도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 등의 문제가 있다.</p> <p>길거리 캠페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학생인권조례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p>		
문제점	많은 사람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모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생인권조례에 찬성하나 제정되지 않음		
제안 내용	인권조례 시행 지역을 늘려야 하며 지역마다 내용을 다르게 하지 않고 비슷하게 해야 한다. 어느 지역에서는 권리가 보존되고 어느 지역에서는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성소수자, 학교 밖 청소년, 미혼모 등에 대한 인식개선도 시급하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경남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남권	아동 성명	최○○
활동 주제	아동의 인권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1. 10월 20일 우리 경남권역 모니터링단은 인권조례에 관한 캠페인을 하였다. 인권조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극소수일 줄 알았지만 오히려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는 인권조례를 아는 사람이 더 많았다. 미래의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인권조례는 시행되어야 한다는 사람이 많았다. 인권조례 캠페인에서 "정부에 건의하는 말"이라는 장육을 만들었다. 그 결과는 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고 인권조례에 관련한 내용들을 한 번이라도 더 읽고 가려는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다.</p> <p>2. 현재 경남 교육청에서는 인권조례의 찬/반 의견을 수집하고 있는 중인데 그 의견들은 평행하다고 한다. 확실히 어느 의견을 따르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더 그럴 것이다. "미래교육의 출발이다." "상식이다." "결사반대한다." "죽자 중단하라."</p> <p>'경남 학생 인권 조례 안'을 놓고 입장이 극명하게 나뉜다. 학생 인권 조례 안을 발의한 경남도교육청은 '미래교육의 출발'이라 했고, 전교조 경남 지부는 이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나 보수단체들은 '결사반대'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1일 경남도의회에 '경남 학생 인권 조례 안'을 발의했다. '4장 5절 51조'로 구성된 조례 안에는 "학생은 두발 등 용모·복장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학생은 교복 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교직원은 학생 동의 없이 학생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p> <p>전교조 경남 지부는 9월 19일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상식이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미래교육의 출발이라는 경남교육청의 입장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p> <p>어들은 "미래의 출발은 바로 지금이다. 미래를 가꾸어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다짐을 담은 약속이 필요하다"며 "그 약속은 경남학생인권조례이다"라고 강조했다.</p> <p>어들은 "조례는 지난간 시절의 잘못된 교육에 대한 반성뿐만 아니라 여전히 비교육적이고 반교육적인 일들이 교육의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한</p>		
문제점	<p>어들은 "학생인권의 본질은 교육이다. 정치적 이유, 경제적 이유, 사회적 이유, 문화적 이유, 종교적 이유가 학생인권의 본질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입장과 관련해 전교조 경남 지부는 "학생의 인권만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다"고 강조했다.</p>		
제안 내용	<p>아직 국가나 정부가 인권조례에 대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아 사람들은 인권조례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학생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인권조례에 대한 의견을 통한 학생들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p>		
제출일	2018년 10월 27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남	아동 성명	한○○
활동 주제	학생 인권 조례		
현황 및 실태	<p>대한민국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이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시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4곳만 조례를 공포하였다. 지금 다른 도시는 학부모가 이 조례를 반대 하고 있다.</p>		
문제점	<p>각 지역 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장이 학생들의 두발, 복장 제한, 체벌 등을 통한 학생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학칙이 대립한다는게 문제이다.</p>		
제안 내용	<p>학생 인권 또는 학생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당연히 가지는 권리나 자격을 말하고 있으나 아이들이 미숙하다고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어른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강제적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뜻이다. 큰 의미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에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소모되는 에너지가 있어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해 졌으면 좋겠다.</p> <p>차라리 인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서 누구라도 제한하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으로 학교에서 제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서 여전히 학생들과 실경이름 해야한다는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p> <p>이반활동 UCC촬영을 해보고 회의도 하고 의견을 발표도 해보고 다양한활동 기역에 남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는 빨리 인드렸지만 학생인권 기역에 확실히 남을 것 같습니다.</p>		
제출일	2018년 10월 30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남	아동 성명	한○○
활동 주제	학생 인권 조례		
현황 및 실태	<p>차별 받지 않을 권리,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과 관련한 선택의 자유, 각급별 차별 금지, 복장 및 두발 규제 금지, 학생 소지품 검사 최소화, 양상,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기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인권 교육, 인권 실천 계획, 학생 인권 옹호권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p>		
문제점	<p>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시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4곳만 조례를 공포하였다. 지금 다른 도시는 학부모가 이 조례를 반대하고 있다.</p> <p>학생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당연히 가지는 권리나 자격이지만 여러 조항의 세부 내용들의 미비함으로 학부모가 반대하여 4개의 교육청만 조례가 공포되었고 다른 도시에 공포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여야 한다.</p>		
제안 내용	<p>처음 조사 시에는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인 나에게 좋은 것들만 있는 줄 알고 잘 모르는 시민들도 많았다. 조사를 하고 나니 학생들에게 좋은 건데 왜 학부모들이 나서서 반대하는 것일까 하고 기사를 찾아보고는 알게 되었다. 아이들이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어른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강제적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뜻이며 인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서 누구라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던지 단서 조항으로 학교에서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서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 간의 인권을 보호해야겠으며 비인권적인 학생인권 조례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p> <p>서면 거리에서 다함께 인권조례에 대한 거리 홍보를 하면서 부끄럽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나마 나서야 이루어지겠다 싶어 더욱더 열심히 했습니다.</p>		
제출일	2018년 10월 30일		

경남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남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놀이 권리의 적폐, 사교육		
현황 및 실태	10월에는 온/오프라인에서의 캠페인 위주 활동을 했다. 사교육 관련한 UCC 제작은 진행 중에 있다. 최근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예능 '나혼자 산다'를 패러디하여 사교육의 문제점을 비판함과 동시에 사교육 관련 정책이 필요함을 어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영상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동의 놀 권리도 생각해볼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점	사교육 문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UCC로 캠페인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		
제안 내용	문제를 알리려는 용도보다는 아동인권과 교육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따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UCC이면 더 좋을 것 같음.		
제출일	2018년 10월 27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남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놀이 권리의 적폐, 사교육		
현황 및 실태	'놀이 권리'란 유연아동권리협약 31조에 따른 아동의 권리 중 하나로 "협약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유연아동권리위원회는 제 3~4차 최종간담회에서 한국의 과도한 사교육이 여가와 문화 활동에 대한 아동권리 실현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여가문화 및 오락 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여러 단체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해주고자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지만 아직도 놀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틀에 갇혀 사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문제점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		
제안 내용	정부에서 학생들이 더 놀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제출일	2018년 10월 29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남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놀이 권리의 적폐, 사교육		
현황 및 실태	<p>최근 우리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놀이 권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놀이 권리'란 유연아동권리협약 31조에 따른 아동의 권리 중 하나로 "협약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유연아동권리위원회는 제 3~4차 최종간담회에서 한국의 과도한 사교육이 여가와 문화 활동에 대한 아동권리 실현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여가,문화 및 오락 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연아동권리협약의 협약 당사국으로서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놀이 권리'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아동, 청소년은 더욱 과도한 학업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p> <p>이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토론회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현황 및 주요한 장애요인인 과도한 학업 및 사교육 실태, 대안을 발표하고 바로잡는 일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강순원 한신대 심리야동학부 교수와 본 단체 노용은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조재익 교육부 공공교육진흥과장, 전미경 강원도 교육청 학교혁신과장, 탁경국 변호사, 현소혜 성공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영희 학부모가 참여했습니다. 또 놀 권리의 당사자인 류주영 고등학생의 의견경청 시간을 마련했습니다.</p>		
문제점	많은 노력에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들이 더 많은 사교육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		
제안 내용	정부에서 꾸준한 토론회로 학생들이 사교육에 너무 고통받지 않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제출일	2018년 10월 29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남권	아동 성명	류○○
활동 주제	놀이 권리의 적폐, 사교육		
현황 및 실태	<p>사교육이란,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하지만 요즘은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해서 자신의 의사나 문화버리고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다. 옛날에는 자신의 꿈은 자신이 정하는 사람이 대다수였는데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옆에서 이 직업이 좋아, 이 직업이 돈 잘 벌어 등등 자신이 아닌 부모가 원하는 진로를 찾아가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이렇듯 사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은 학원을 가기 싫어하는데 이 학원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고 조금만 참으라며 부모님들은 학원에 자녀를 학원에 보내신다. 그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공부도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나지만, 그 학생에게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나는 사교육을 다니는 것보다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사교육을 해왔습니다. 경로는 낯선 환경에 대해 거부감이 많아 아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교육만을 했고, 정모는 지적인 욕심이 많아 그룹과외를 시킨 적도 있고, 학원에 보낸 적도 있습니다. 두 아이의 성격과 기질이 달랐기 때문에 사교육을 시키는 데도 다른 기준을 적용했던 것입니다.</p> <p>[사교육을 선택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교육이 지금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공부 환경과 선생님은 괜찮은지, 지금 시작하면 언제까지 해야 할지 등등 따져보아야 할 것이 한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고민 속에서 사교육을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고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딱 두 가지 기준을 놓고 사교육 기관을 선택했습니다. 속제가 많은 사교육과 피드백이 없는 사교육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제가 없다는 것은 선생님은 진도만 나가고 나머지는 아이들에게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어떤 문제에서 실수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진도만 나간다는 것은 학교 교육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학교 진도보다 조금 앞서 나간다는 것 뿐이지요. 그리고 이런 사교육은 학교에서 처벌 무조건 외우는 공부를 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피드백 없는 사교육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네, 잘하고 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하는 편한 대답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으로서서는 어떻게든 한 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 교육 효과를 강조하는 것이지요. 이때 부모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약한 부분이 어디고, 강한 부분은 어딘가요?"</p>		

경남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이 질문에 명쾌한 대답을 해주는 사교육이라면 백번 해도 좋습니다. 사교육 선생님이 아이의 특성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아이에게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사교육은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내 아이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어떤 사교육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만 합니다.]
	이글은 다음 백과사전에 실린 글이다. 이글 위에는 사교육의 좋은 점이 있었고 위의 글이 있었는데 위의 글이 더 설득력이 강하고 읽어볼수록 공감되는 것 같았다.
문제점	자신이 원하는 학원을 다니지 못하고, 적성에 맞는 학원을 다니지 못한다. 무조건 부모님이 원하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다. 학원은 자신이 학교에서 못 배운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곳인데 학교를 앞서 선행학습을 한다.
제안 내용	지금 선행학습을 하면 안 되는 법이 있지만 이 법이 지켜지지 않는 학원이 대다수이다. 나는 어학당을 다니는데 그 학원에서 나는 영어만 하고 내 친구는 수학도 한다. 하지만 친구네 받은 중학교2학년을 들어간다고 한다. 부산지역이 아닌 서울 지역 쪽에서는 5학년에 고등학교2학년 수학을 배우다고 한다. 아이가 수학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아닌 이상 이런 선행학습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출일	2018년 10월 27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남	아동 성명	류○○
활동 주제	아동의 안전벨트, 인권조례		
현황 및 실태	<p>2018년 10월 20일 서면 일대에서 학생인권조례 관련 캠페인을 진행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약 2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함. 학생인권조례 소개,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 수렴, 학생인권조례 관련 굿즈 배부가 이루어짐. <p>굿즈 디자인은 과거 만들어 9월 보고서에 수록했던 것을 이용함.</p> <p>생각보다 캠페인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많았고, 가서 권했을 때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음. 학생인권이라는 주제 자체에 어색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음.</p> <p>학생인권조례 홍보 포스터 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에서 함께 제작할 인권동아리 친구를 섭외해 제작 마무리 작업에 들어감. 11월에 학교 교무부장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 부산국제중학교와 부산국제고등학교, 인지중학교 등에 부착할 예정임. 		
문제점	<p>캠페인을 진행해 보니 생각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실정 안다 해도 자세한 내용이나 어떤 권리를 보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학생인권조례와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낮아서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다.</p>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 전국에 학생인권조례 보편화 		
제출일	2018년 10월 30일		

권역	경남	아동 성명	박○○
활동 주제	<p>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놀 권리의 적폐, 사교육></p>		
현황 및 실태	<p>놀 권리에 대해 개인 인터뷰를 실시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책상에 앉아 교과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게임을 하는 "놀이"는 어떤 의미인가요? 책상에 앉아 교과를 공부하는 것은 친구들과 모두 하니까 하고는 있는데 하지만 흥미를 전혀 느끼지는 못한다. 그러나 밖에서 게임을 하는 "놀이"는 나에게 교과를 공부하는 데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이라고 했다. 따라서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려면 "놀이"를 해야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 "학교"와 "학원"은 공부에 대해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원래는 "학교"는 배우는 곳이고 "학원"은 학교에서 배운 걸 복습하는 곳이다. 그러나 나는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놀고 "학원"에서 실질적인 공부를 하는 곳이라 말했다. 그래서 학교를 가는 것보다 학원을 가는 게 더 실었던 기억이 난다. 성적이 학교에서 나타나므로 학교가 주체인 공부가 하고 싶다고 했다. 3. 선행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아직 선행의 필요성을 느끼진 못했다. 그러나 학원에서 선행을 강제적으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선행을 하긴 하는데 머릿속에 잠깐 거쳤다가 사라지는 느낌이 다. 만약 학원을 다니지 않았다면 선행을 할 시간에 친구들과 놀고 배울 때가 되면 놀았던 시간만큼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문제점	<p>학업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밖에서 "놀이"로 해소한다. 학교보다 학원이 더 공부를 하는 곳으로 느낀다. 학원에서는 강제적인 선행학습이 이루어진다.</p>		
제안 내용	<p>학업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해준다. 학원보다 학교에서 더 공부를 하는 곳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노력한다. 학원에서는 강제적인 선행학습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p>		
제출일	2018년 10월 27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남	아동 성명	박○○
활동 주제	<p>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놀 권리의 적폐, 사교육></p>		
현황 및 실태	<p>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건강생활과에서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포함)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포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학원장(강사)면허 실시 및 학원연합회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p>위의 업무를 수행하시는 신동주 주무관님과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원의 현황과 여러 가지 실태와 사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보기 위한 인터뷰를 하기 위해 통화로 요청드렸지만 신동주 주무관님께서 개인적인 견해를 따로 말씀드릴 수 없으시고, 학원에 관한 자료들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되어있으니 그 자료를 봐 달라 말씀해주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자료실의 "학원 및 교습소 현황(2018.9.1.기준)"을 보았습니다.</p> <p>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p> <p>서부의 경우, 입시·검정 및 교습, 예능,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 기타의 학원의 경우 933개의 학원이 있습니다.</p> <p>남부의 경우, 입시·검정 및 교습, 예능,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 기타의 학원의 경우 723개의 학원이 있습니다.</p> <p>북부의 경우, 입시·검정 및 교습, 예능,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 기타의 학원의 경우 592개의 학원이 있습니다.</p> <p>동래의 경우, 입시·검정 및 교습, 예능,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 기타의 학원의 경우 854개의 학원이 있습니다.</p> <p>해운대의 경우, 입시·검정 및 교습, 예능,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 기타의 학원의 경우 988개의 학원이 있습니다.</p> <p>즉, 부산광역시에 위치하는 입시, 검정 및 교습, 예능,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 기타학원의 개수는 4090개입니다.</p> <p>또한 학원의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2017년)"을 확인하였습니다. 서부의 경우 921번 점검 결과 교습시간 위반으로 0개의 학원이 적발되었습니다. 남부의 경우 1005번 점검 결과 교습시간 위반으로 5개의 학원이 적발되었습니다. 북부의 경우 1020번 점검 결과 교습시간 위반으로 3개의 학원이 적발되었습니다.</p>		

경남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p>동래의 경우 552번 점검 결과 교수시간 위반으로 4개의 학원이 적발되었습니다. 해운대의 경우 1169번 점검 결과 교수시간 위반으로 11개의 학원이 적발되었습니다.</p> <p>총 4667번의 점검 결과 12개의 학원이 교수시간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p> <p>또한, KDI 국제연구원의 2017년 8월 20일 보도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본 자료에서 우천식, 조병구 선임연구원분들께서 전국 인문계 고교 1, 2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성적 및 대학학칙 성과에 대한 과외의 효과, 그리고 대학서열화, 학력과 학벌위주의 채용관행 등이 과외에 영향을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사교육과 놀 권리의 연결고리에 대해 더욱 알 수 있습니다.</p> <p>조사 학생의 70퍼센트 정도가 조사당시 과외를 받고 있으며, 학부모 60퍼센트 이상이 성적향상을 위해 과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p> <p>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90퍼센트 정도는 과외 투자비용 대비 학업성적 및 대학입시에 대한 기대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학부모의 80퍼센트 이상은 과외학습 결정이 학생의 미래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p> <p>이번에는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께서 작성하신 외국의 경우 과외 실태 사례입니다.</p> <p>일본과 대만, 중국, 싱가포르, 미국 등 5개국을 중심으로 과외 실태 및 정부의 과외 정책을 분석한 결과 일본이나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연문승상주의와 교육을 통한 입신이라는 사고가 병행하여 국민들의 교육열이 높고 입시경쟁이 치열하며, 과외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p> <p>하지만 미국의 경우, 사교육이 존재하나 그 규모나 공교육에 대한 왜곡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p> <p>그럼 왜 이렇게 사교육의 열풍이 심하게 될까요?</p> <p>경쟁 고리대학교 교수님께서는 한국사회의 교육열은 연연한 역사성과 견고한 사회문화적 존립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제한된 기회구조 아래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우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발하고 있으며, 취약한 공교육의 경쟁력이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p> <p>게다가 최근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는 어떤 형태로든 교육열의 사회문화적 토대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사교육 수요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p>
문제점	<p>부산광역시에는 무려 4090개라는 학원이 있다. 이러한 4090개의 학원을 사교육이라고 불러는데 이러한 4090개의 사교육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문제다.</p>
현황 및 실태	<p>공교육이 뒷받쳐주지 못해서 아동들이 방과후에도 4090개의 학원 중 1개 이상의 학원의 수업을 듣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정말로 말도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의 최상위의 법,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적혀있다. 이 말은 즉 공교육에서도 자기의 적성, 하고 싶은 것, 능력에 따라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교육이 이렇게나 심각해진 것이다.</p>
문제점	<p>사실 사교육에 대해 조사를 많이 해봤더니 놀 권리를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매우 심각한 문제들을 여러 개 봤었다.</p> <p>사교육의 과열 현상이 과도한 경쟁의식과 경쟁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심리적 상처를 주게 되어 전인적 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한다. 만약에 정말로 전인적 성장에 장애가 되어 어른이 된 사람은 놀 권리를 더더욱 잘 쓸 수 있을까? 정말 의문이다.</p> <p>또한 사교육의 과열이 사회와 경제 측면에서,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계 부담을 가중하고, 국가 경제를 왜곡하며, 사교육비 부담의 형평성 결여로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며,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한다. 놀 권리의 행사가 되는 공간인 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하니 더더욱 할말을 정말로 잊게 된다.</p>
제안 내용	<p>학교 교육력을 강화하고, 학생 선발구조를 합리화하며, 사교육 유인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필요를 공교육 체제에 수용하는 방향에서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고,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학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교육은 위의 문제점 항목에서 언급을 했는데 학교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필요에 적극 부응하지 못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확장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 권리를 조금 빼앗아가기는 하지만 사교육보다 알뜰하게 학생들의 현저한 능력 지와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도록 정규 교과 수업 이후에도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교과목의 보충과 심화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학생인 상당중학교에 개설된 신성남께서 부산의 일부 지역에서는 학원이 턱이소 개념으로 운영이 된다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방과후 교실 운영을 확대 하도록 교육방송을 통한 수능 방송과 인터넷 강의에 단력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능 방송 및 인터넷 강의는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학교교육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학교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제출일	2018년 10월 27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남	아동 성명	심○○
활동 주제	1. 놀 권리의 적폐, 사교육		
현황 및 실태	<p>2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아동인권 관련 책에 관해 독서도 하고, 유엔 아동 협약에 대해 알기도 했으며, OECD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이 1위라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직 우리나라에는 사교육으로 인한 아이들의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실태인 것을 깨달았다.</p> <p>인문계인 나와 나의 친구들은 일주일 중 5일 중 9시 까지 학교에 남아 어간자율학습을 했으며, 그 후에도 학원을 여러 곳 가야했다. 그로인해 우리는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했다. 놀 권리 뿐 아니라 실 권리, 행복권 등을 존중 받지 못한 채 살아가야 했다.</p>		
문제점	<p>늦은 시간 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를 하는 것과, 그 이후에도 학원을 다니며 한참 놀고 싶은 나이에 놀 권리를 존중 받지 못한 채 공부하고 있다.</p>		
제안 내용	<p>1. 학원의 늦은 시간 교육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 2. 아이들의 놀 권리를 위해 학원의 운영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주는 등 아이들의 놀 권리를 존중 해줄만한 제도를 만든다.</p>		
제출일	2018년 11월 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남	아동 성명	안○○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p>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31조)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기며 능기에 속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상황을 마천하(1923년 방정환,어린이공약 제3조) 놀 권리는 아동이 누려야 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권리이다. 아동기는 놀이가 주는 즐거움과 자유를 누리려는 고유한 시기이지만 생활환경과 사회구조의 변화, 학업부담으로 인해 놀 시간과 공간이 축소됐다.</p>		
문제점	<p>점점 놀이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학생들은 과도한 학업부담으로 인해 놀이시간 확보가 어렵다.</p>		
제안 내용	<p>자신의 행복을 위한 권리로 표현,휴식문화 등 놀 권리와 관련된 가치를 중요시 한다.</p>		
제출일	2018년 11월 05일		

경남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남	아동 성명	이○○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놀 권리의 적폐, 사교육>		
현황 및 실태	<p>많은 사람이 사교육 이용으로 인해 잠정 단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중 사교육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p> <p>사교육을 하면 학교 공부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존재. 사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 사교육을 함으로써 적당한 휴식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동을 위한 마땅한 놀거리가 없음.</p>		
문제점	사교육으로 아동이든 학부모든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		
제안 내용	사교육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대처 방안을 교육부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 아동들도 사교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좋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했으면 좋겠다.		
제출일	2018년 11월 5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남	아동 성명	최○○
활동 주제	놀 권리의 적폐, 사교육		
현황 및 실태	<p>8-9월의 활동 내용을 정리해보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교육으로 인해 평일과 주말에 놀 시간이 없다. 2. 학원 운영 시간에 대해 잘 모르고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3. 한국은 OECD에서 학업량이 가장 많고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으며 자살률이 가장 높고, 자살의 주요 원인은 학업부담이다. 4. 사교육 참여율이 점점 높아진다. 5. 많은 초등학교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원에서 보낸다. 6. 사교육의 비용이 점점 높아진다. <p>등의 문제가 있다.</p> <p>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기간이 아니더라도 사교육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p>		
문제점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교육으로 많은 피해를 받는다.		
제안 내용	사교육이 중시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사교육의 양을 줄여야 한다. 또한 학벌 위주 사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놀 권리가 실현되도록 많은 주체들이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야만 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남	아동 성명	이○○
활동 주제	놀 권리의 적폐, 사교육		
현황 및 실태	<p>1)사교육 서적 조사하기</p> <p>사교육과 관련한 책을 직접 도서관에 방문하여 조사해보았다. 그 중 가장 타당성 있는 내용의 위주로 선정하여서 두 책을 정리 한 결과 이다.</p> <p>1.사교육없이 국제중 보낸 하루 나이 독서 = 이 책은 아이를 사교육 없이 국제중을 보낸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하루 나이 독서란 한 살이면 하루에 책 한 권, 두 살이면 하루에 책 두 권, 세 살이면 하루에 책 세 권을 읽어야 할 때 한 살이 될 때 한 하루에 책을 읽을 권리가 있는 독서법을 제시하여,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자녀 교육서로 베스트로 뽑히는 책이다.</p> <p>2.엄마의 공부가 사교육을 이긴다 = 이 책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매일 공부하며 아이를 전교 1등으로 이끄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교육이 아닌 아이의 엄마가 선생님이 되어 직접 가르치는데 이 책을 통하여 사교육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아이가 성장 할 수 있음을 가르쳐준다.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신뢰 받는 작품 중 하나이다.</p>		
문제점	사교육으로 인한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늘어나고 점차 심화 되고 있다. 성적 하나에 인생이 달려지는 사실이 너무 불공평하고 사교육으로 인해 고통 받는 청소년들이 대다수이다.		
제안 내용	사교육보다 더 나은 학습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남권	아동 성명	최○○
활동 주제	놀 권리의 적폐, 사교육		
현황 및 실태	<p>내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나의 반 또는 지인들을 통해 사교육에 관한 설문지를 돌린 후 현재 고등학생들의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까지에 대해 알려주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p> <p>1. 응답자는 현재 사교육을 받고 있는가요? 예 (84%) / 아니오 (16%)</p> <p>1-1. (중복 선택 가능) ①교과목 학원 ②교과목 과외 ③예제는 ④인터넷 강의 ⑤기타 ①60% ②11% ③4% ④23% ⑤2%</p> <p>2. 학원 및 과외의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예 (60%) / 아니오 (40%)</p> <p>3. (전국의 시/도 별로 운영 시간이 다르며 보기는 경남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①밤 10시까지 ②밤 11시까지 ③밤 11시 30분까지 ④밤 12시까지 ⑤기타 ①3% ②14% ③46% ④30% ⑤7%</p> <p>4. 운영 시간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학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①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5. 휴일(빨간 날)에 학원을 가나요? (시험 보증을 제외) 예 (37%) / 아니오 (63%)</p> <p>이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사교육 운영 시간이 오히려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생각하여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p>		

경남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전국 시도 교육청별 학원 운영시간 조례	
서울특별시	월 15시 ~ 17시
부산광역시	월 15시 ~ 17시
대구광역시	월 15시 ~ 17시
인천광역시	월 15시 ~ 17시
광주광역시	월 15시 ~ 17시
대전광역시	월 15시 ~ 17시
충청남도	월 15시 ~ 17시
충청북도	월 15시 ~ 17시
경기도	월 15시 ~ 17시
강원도	월 15시 ~ 17시
충청북도	월 15시 ~ 17시
경상남도	월 15시 ~ 17시
경상북도	월 15시 ~ 17시
전라남도	월 15시 ~ 17시
전라북도	월 15시 ~ 17시
제주특별자치도	월 15시 ~ 17시

문제점 -사교육을 받게까지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
 -조례가 있어도 지켜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것

제안 내용 - 사실상 우리 힘으로 다루기는 약간 어려움이 없지 않나 싶지만 그래도 "전국 시도 교육청별 학원 운영시간 조례"에 대해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언급해주었으면 하는 <경상남도교육청-민원신청>에 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7일

권역	경남	아동 성명	한○○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문화 환경 개선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다. 각 교육청마다 정책적으로 아이들의 행복권 추구를 위해 프로젝트를 추진은 하고 있으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문화 환경개선"은 미비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점	아동, 청소년에게 필요한 놀 권리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어른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올바른 권리인 놀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관심을 기울기 위한 홍보가 많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제안 내용	아동, 청소년 놀 권리 관련 사업 및 행사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놀 권리 특별사진 열상전 등 지방자치의 홍보 노력으로 "아동, 청소년들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면 쉬고 놀아야 할 권리로 있음을 인식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아동, 청소년의 놀 권리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앞으로도 아동, 청소년의 잊혀진 권리인 놀 권리를 보장하고 그 가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에서 홍보에 노력을 재인한다 아동의 놀권리에 대해 생각해보고 거리 활동도 해보면서 생각해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놀권리가 우리에게 있지만 부모님이 허락해줘야 가능한 것 너무 힘들네요. 부모님께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출일	2018년 10월 30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남	아동 성명	한○○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교육청마다 정책적으로 아이들의 행복권 추구를 위해 놀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유엔 아동, 청소년 권리 협약(민권 선언문)에 제 6조 모든 사람은 우리를 청소년 모두가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 16조 우리는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 31조 우리에게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동등 '유엔이 아동, 청소년 권리조약' 가운데 주요 조항만을 뽑아 쉬운 말로 옮긴 국가인권위 자료를 게재하고 있다. 각 학교, 유치원, 가정에서 이 아이들 놀 권리를 존중하는지는 더 조사해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점	지금껏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도의 선언적 조항을 담은 조례는 다수 있었지만, 놀 권리 자체를 자치조례로 만든 사례가 없고 교육감과 학교장이 해야 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환경이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		
제안 내용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협동하는 방법도 배운다" "사교육과 입시 위주의 교육에 찌든 어린이들의 마음을 놀이를 통해 다독일 필요가 있다" 이렇듯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문화 환경개선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성장 할수 있도록 아동이 활동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할 것이다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였다 비록 시험기간, 여러 가지 토요일 수업때까지 가야해서 시간 때문에 복잡했지만 이런 활동 스스로를 돌아보기에 좋은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출일	2018년 10월 30일		

경북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북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현황 및 상태	<p>이번 보고서에서도 언급했지만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발생한다.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μm 이하인 총 먼지(TSP, Total Suspend Particles)와 입자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로 구분한다. 미세먼지는 다시 지름이 10μm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μm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로 나뉜다(미세먼지, 도대체 뭐라 할까요, 2016). 이러한 미세먼지는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서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상 물질(PM)을 인체발암물질인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연구에서 최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사망발생위험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이고 있으며 전체연령 집단과 6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 미세먼지가 10$\mu\text{g}/\text{m}^3$ 증가 시 사망발생 위험은 0.44% 증가하고 초미세먼지는 10$\mu\text{g}/\text{m}^3$ 증가 시 전체적인 사망위험은 0.9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성용, 백현주, 유대우, 홍서표, 박해용, 2012). 하지만 미세먼지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오염농도와 발생 원인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주요 선진국 도시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4년의 경우 황사를 포함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미국LA보다 1.5배 높고,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보다 각각 2.1배에서 2.3배 높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까닭은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 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되어 단위 면적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고 지리적 위치, 기상여건이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 미세먼지 위험지각과 마스크 착용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박중신, 2017] 미세먼지가 왜 우리 건강에 매우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까지 미세먼지에 대해 무지하다. 아무리 많은 캠페인, 홍보물을 진행하고 제작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인식이 그리 쉽게 바뀌지 않았다. 저번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의 질문에서 69%의 사람들이 네라고 답변한 것에 비해 얼마나 자주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확인하니까?라는 질문에서 거의 확인하지 않는다가 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사람들은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억이 들어 알고 있지만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자주 확인하지 않아 미세먼지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을 수 밖에 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LENS활동에서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캠페인을 통해 소수의 사람들에게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p>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잘 찾아보지 않음. 2. 학교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 별다른 대응이 없는 것을 확인함. 		
제안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더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담긴 자료를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교육장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들을 꾸준히 학교에 제공하여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알게 해야하며, 미세먼지 관련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먼지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바퀴자나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31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북권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해 알리는 캠페인 진행		
현황 및 상태	<p>지난 활동 때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 조사를 통해 깊게 파고들어 자세히 알아보았다. 미세먼지의 대처법에 대해 알리는 캠페인을 열었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지 투표(조사)도 하며 심각한 미세먼지 지단을 위해 마스크도 증정했다.</p> 		
문제점	<p>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하지만 어린 친구들(초등학생)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p>		
제안 내용	<p>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캠페인을 열었다. 우리는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보드에 적어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리고 같이 투표도 하며 더 많은 연령층의 사람들의 투표를 받았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마스크도 나누어 주며 캠페인을 열었다.</p>		
제출일	2018년 10월 29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대구 경북권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미세먼지		
현황 및 상태	 <p>지난 설문지를 바탕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캠페인 당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리고 미세먼지 대처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후 알려드렸다 그리고 평소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처하는지에 대해 스티커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결과 네 -37명 아니요-26명 로 나타났다. 이후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들께는 황사전문 마스크도 나눠 드렸다.</p>		
문제점	-미세먼지에 대한 자발적 대처가 필요하다.		
제안 내용	<p>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EX벤어내거리)와 같은 곳에 하루의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태양열 기계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미세먼지는 우리가 인식하고 대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p>		
제출일	2018년 11월 1일		

경북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북	아동 성명	류○○
활동 주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현황 및 실태	  <p>LENS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했던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설문 조사(설문조사, 심층 인터뷰)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의를 한 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3번째 모임이 있었던 날에 홍보물을 이용해 캠페인 피켓을 만들고, 그 안의 피켓을 이용하여 모임 장소 근처 어동들을 포함한 주민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했다. 피켓에는 캠페인을 한 날짜의 미세먼지 농도를 적어 가을, 거울에 들어서 미세먼지 농도를 잘 찾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겨냥해 그 날의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 주었고, 미세먼지 대처법을 간단하게 적어서 어동들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알려 주었다. 피켓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다.</p> <p>오늘의 미세먼지 농도 : 34µg/m³ : 보통 미세먼지 대처법 알아보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출시 대기 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2. 환기, 실내 물 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3.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p>또한 이미 앞선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에서 조사한 내용이지만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평상시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처하나요?' 라는 주제로 길거리 스티커 조사를 한 번 더 진행하였다. 그리고 설문에 응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더불어 미세먼지 대처법(3번)과 관련지어 그 대처법의 실천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KF94+4 중차단 마스크)를 선물로 나눠 드렸다. 이 스티커 조사에서는 위의 질문에 대해서 YES가 39표, NO가 28표</p>		
문제점	<p>를 받았다. 이 결과는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대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음. -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안다고 해도 그에 대한 대처가 부족함. - 보건용/황사용 마스크가 아닌 일반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제안 내용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을 간단히 적은 홍보물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학교 계사관 등에 붙이는 방법도 관심을 것 같다. 또한 일반 마스크와 보건용/황사용 마스크의 기능성 차이 등을 알려주는 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다.		
제출일	2018년 11월 1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북권	아동 성명	심○○
활동 주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현황 및 실태	8.9월 달에 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캠페인을 하였다. 시민들이 평상시에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처하는지 투표를 하였고 미세먼지 대처법을 직접 알려주었다. 또한 투표를 참여한 사람에게 KF94+4중차단 마스크를 선물로 주었다.		
문제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처하지 못함을 알게 되었다.		
제안 내용	이번 활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인 마스크를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으니 주변 친구들에게 알려주어 많은 어동들이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도록 노력해야겠다.		
제출일	2018년 10월 31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북	아동 성명	원○○				
활동 주제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공부할 권리						
현황 및 실태	<p>미세먼지의 위험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 등에는 머물지 않고 활동량을 줄여야 한다. 또한 환기, 실내 물청소 등의 방법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주어야 하며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자료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물을 충분히 마셔 기관지의 건조함을 막아주고 음속의 노폐물을 배출함과 동시에 다시마, 미역 등의 해조류와 섬유질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자주 먹으면 장운동이 촉진되어 음속의 증감속을 흡착해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다니 알아두면 좋을 듯하다.</p> <p>이 역시도 미세먼지에 대비해야 하는 중요성과 대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고 설문조사도 동시에 진행했다. 또한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함께 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는 마스크를 나눠줬다.</p> <table border="1" data-bbox="821 1225 1256 1293"> <tr> <td>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처O</td> <td>38</td> </tr> <tr> <td>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처X</td> <td>32</td> </tr> </table>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처O	38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처X	32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처O	38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처X	32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 파악은 하지만 대처가 안일하다 2. 능동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부분이 미흡하다 						
제안 내용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법을 숙지하고 매일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해 적절한 대안을 세우는 것이 좋다. 정부 차원에서 시민들이 최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언론 보도 등에 힘을 가하고 학생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은 자신이 능동적으로 피해에 대해 찾아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9일						

경북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북권	아동 성명	장○○
활동 주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현황 및 실태	<p>이번에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폼보드 2개를 이용하여 한 곳에는 미세먼지의 위험성 및 대처방안 등에 대해 알리기 위해 썼고, 다른 한 곳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났을 때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처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스티커 투표를 진행하였다. 특히 미세먼지의 대처방안으로 비말 외출 자제하기, 손 자주 씻기,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등을 썼으며, 보건용 마스크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었다. 또한 스티커 투표를 할 때 단순히 스티커만 붙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충분히 폼보드에 적힌 내용을 설명해 주고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알려주려고 노력하였다. 스티커 투표 결과, 거의 1:1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대다수가 인식은 하지만 대처는 미미하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스티커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제공하여 미세먼지의 대처를 촉구하였다.</p>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무지 -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일반용 마스크의 문제 - 미세먼지의 대처방안 실천 미비 		
제안 내용	<p>스티커 투표 결과 사람들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이나 활동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충분히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대처법 등을 알리고 난 뒤, 사람들이 실제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경보를 더욱 노출시키거나 보건용 마스크를 나눠주는 등의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사람들이 자각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공간에 이를 알리는 방법을 구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p>		
제출일	2018년 10월 30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북권	아동 성명	진○○
활동 주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현황 및 실태	<p>이번 활동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문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아동들이 미세먼지와 심각성, 그리고 그 해결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마스크를 끼지 않거나, 혹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도 체육 야외 활동을 진행하는 학교 때문에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러한 실태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였다.</p>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에 대한 자신의 해결방안을 못 찾고 있다. - 어쩔 수 없이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제안 내용	<p>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관하여 미세먼지 대처방안을 폼보드에 적어 간단히 소개하고 다른 폼보드로 미세먼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총 약 70명의 아동, 청소년, 성인에게 이 내용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권리를 소개하고, 또 간단한 조사를 하는 캠페인을 경북 단원들이 실시하였다.</p>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경북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북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놀이 권리		
현황 및 실태	<p>현재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는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제시되어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대학 입학시험제도는 한국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학의 이름만으로 개인의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들에게 대학입학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대학입시제도의 변천과정과 원인]에 관한 연구, 오영희, 1999] 또한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고등학생 평균 학습시간은 10시간 47분이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강제적·획일적 보충학습 금지, 정규수업 전(0교시)과 오후 7시 이후의 보충학습 금지, 오후 10시 이후 야간자율학습 실시 지양 등의 방침을 정하였다. 하지만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들이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아침 8시에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으로 일과가 시작되어 정규교과수업을 한 후 또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저녁식사 후 오후 7시경부터 밤 10-11시까지 자율학습이 계속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밤 12시까지 교사의 지도 감독 하에 실시되고 있다.[중소도시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의 자율학습에 대한 인식연구, 임현경, 2007]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가 42.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비용'과 '먼 거리'가 각각 13.8%로 나타났다. 기타이유들은 전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의 문화복지 실태에 관한 연구, 이우호, 2009] 이처럼 쉽게 말해 '학업'이 중시된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침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가 침해되는 이유로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문화활동에 대한 부모(교사)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48.1%(51.9%)가 '그저 그렇다'에, 32.1%(30.3%)가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에 9.5%(8.3%)이고, '부정적이다'라는 답변은 7.6%(7.6)로 나타났으며, 2.7%(1.9)는 '매우 부정적이다'로 나타났다. 문화활동에 대한 부모(교사)의 태도가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이 문화활동을 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하고 있을 때나 한 후에 자신에게 나타난 가장 뚜렷한 변화에 대해서 32.1%(85명) '공동체 의식 향상'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21.1%(56명)가 '생각의 변화', 16.6%(44명)가 '생활태도'가 변화했다고 답하였다. 그 외 10.9%(29명)는 '학습능력 저하'를 5.3%(14명)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아'에 대한 '생각 정리'로 나타났으며 '기타'의건도 10.6%로 나타났다.</p>		

제출일	2018년 10월 31일
제안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적이 곧 미래엔 현재의 입시제도도 조금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청소년이 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이나 강연을 실시해서 사회의 인식을 조금씩 변화시켜야 한다. 3. 청소년들이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북권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 알리는 캠페인 진행		
현황 및 실태	<p>지난 활동 때부터 놀 권리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 조사를 통해 깊게 파고들어 자세히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더 많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설문 조사를 하며 캠페인을 알렸다. 우리는 놀 권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리는 캠페인을 알렸다. 또한 어디서 잘 노는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지 투표(조사)도 하였고 지역주민,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p> 		
문제점	아동들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공감하였지만 발달, 참여의 권리에 대해서는 생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활동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		
제안 내용	놀이 권리가 왜 지켜져야 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캠페인을 알렸다. 우리는 그에 대한 설명을 풍 보드에 적어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리고 같이 투표도 하며 더 많은 연령층의 사람들의 투표를 받았다.		
제출일	2018년 10월 29일		

문화활동에 대한 부모님과 선생님의 태도와는 달리 연구대상자 청소년들은 문화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활동을 하고 싶은 것을 묻힌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데에 대해서 33.0%(88명)가 '시간이 없어서'로 25.1%(67명)는 '돈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 '관심사항이나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10.5%(28명), '실리적,정신적 여유가 없어서'가 8.6%(23명), '문화활동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부족'이 5.6%로 나타났다. '시간이 없어서'와 '실리적,정신적 여유가 없어서'는 같은 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 때문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문화활동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김형실, 2007] 위 연구결과로 보아 청소년에게 문화활동은 매우 중요하나 '학업'이나 '사회적인식'을 이유로 청소년의 놀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청소년이 문화활동을 못하는 이유 중에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함'이라는 이유로 휴대전화(SMS, 웹툰, 게임)를 과도하게 사용한다. 라는 것도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의 조사결과처럼 사회가 청소년의 놀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지만 청소년 개인 역시 놀 권리를 침해한다.

- 1. '학업'이 중시된 대한민국**
- 단지 대학에 입학하는 것만으로 자신이 입학한 그 대학교의 이름에 따라 개인이 평생동안 가져가야 할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들에게 대학입학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를 위하여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 24시간 중 학교에서만 14시간의 시간을 학업에 투자하고 있다.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요즘들어 영어유치원과 같은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들 또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업에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문화활동에 시간을 투자할 수 없게되고 그러면 아동/청소년들의 놀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 2. 청소년이 노는 것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식'**
- 청소년의 문화활동에 대한 부모(교사)의 태도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문에서는 48.1%가 '그저 그렇다', 32.1%가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에 9.5%이고, '부정적이다'와 '매우 부정적이다'에 10.3%인 것(청소년의 문화활동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김형실, 2007)로 보아 청소년이 문화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부모(교사)의 태도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3. 청소년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40%가 인터넷이나 사이버 게임에 대한 중독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부 청소년들은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학업에 대한 의욕을 상실할 뿐 아니라 사람이 만나기 싫다며 등교를 거부하기도 한다라는 조사결과를 보면

경북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대구 경북권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놀이 권리		
현황 및 실태	 <p>지난 3개월동안 놀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캠페인을 해 보았다 먼저 아동의 권리가 무엇인지 아동의 권리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준 다음 아동들이 주로 어디서 잘 노는지를 스티커 설문조사를 해보았다. 조사 결과 집 5명, pc나 카페 29명, 노래방 4명, 학교 7명, 공원 3명, 기타 1명으로 나타났다.</p>		
문제점	-대부분 아동들은 아동의 권리가 왜 중요하지, 아동의 권리가 무엇인지 몰랐다. -아동들의 놀 곳이 한정적이다		
제안 내용	아동의 권리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모르는 대부분의 아동들을 위해 아동의 권리가 왜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많은 홍보나 캠페인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놀 곳이 한정적인 아동들을 위해 놀 곳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민약 종류는 다양해져 있더라도 조금 더 보편화 되어있어야 한다.		
제출일	2018년 11월 1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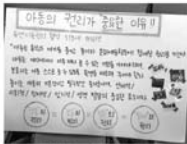


권역	경북	아동 성명	류○○
활동 주제	놀이 권리		
현황 및 실태	<p>LENS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했던 '아동들의 놀 권리'에 대한 설문조사(설문조사, 심층 인터뷰)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의를 했다. 앞선 조사 결과 아동들의 놀 권리를 모르는 아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등재 되어 있는 아동의 놀 권리 조약을 알리고, 아동들의 놀 권리가 중요한 이유를 중심으로 3번 째 모음이 있었던 날에 폼보드를 이용해 캠페인 피켓을 만들고, 그 만든 피켓을 이용하여 모일 장소 근처 아동들을 포함한 주민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했다. 피켓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31조와 아동들의 놀 권리가 중요한 이유를 적어 아동들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알리 주었다. 피켓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다.</p> <p>'유엔 아동권리협약 31조 :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아동은 어디에서나 아무 때나 놀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보호자는 아동 스스로 놀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p> <p>중요한 이유 : 놀이는 아동의 기본적인, 필수적인 즐거움이며, 신체적/사회적/정서적/인지적/영적 발달의 중요한 요소이다.</p> <p>또한 이미 앞선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에서 조사한 내용이지만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디서 가장 잘 노나요?' 라는 주제로 길거리 스티커 조사를 한 번 더 진행하였다. 이 스티커 조사에서는 위의 질문에 대해서 집이 5표, PC방/카페가 29표, 노래방이 4표, 학교가 7표, 공원이 3표, 기타가 1표(도서관)라는 결과가 나왔다.</p>		
문제점	- 아동들의 놀 권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함. - 아동들이 건강한 놀이를 하지 못함.		
제안 내용	여전히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아동들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교육 해 주었으면 좋겠고, 교육 제도적으로도 아동들에게 놀 수 있는 상황이 제공 되었으면 한다. 또한 조사 결과들을 보면 아동들의 놀이 방법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들의 활동 변경 인에 아동들을 위한 놀이 시설이 생겼으면 좋겠다.		
제출일	2018년 11월 1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북권	아동 성명	심○○
활동 주제	놀이 권리		
현황 및 실태	 <p>이번활동을 하기전 8-9월달에 설문조사한 내용과 유엔아동권리 협약을 바탕으로 캠페인을 기획하였다. 학생들이 놀이시간에 자주 걸것같은 장소를 투표하여 가장 많이 나온 장소를 학교나 집 주위에 세워 학생들의 놀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고 또한 유엔아동권리 협약 제 31조에 따라서 아동들의 놀권리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였고 아동의 4대 놀권리를 설명하였다.</p>		
문제점	아이들이 놀 장소가 마땅치 않다. 놀이 권리의 정의를 잘 알고 있지 않다.		
제안 내용	49명의 사람들 중 29명이 학생들이 놀 때 pc방과 카페를 자주 간다고 답해왔다 사전조사를 했을때 학생들이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가 놀 곳이 마땅치 않어서 라는 응답이 많았다 따라서 학교나 집등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공간에 PC방이나 카페를 설치해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31일		

경북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북	아동 성명	월○○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p>유엔아동권리 협약 31조에 따르면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 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아동은 어디에서나 아무 때나 놀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보호자는 아동 스스로 놀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놀이는 아동의 기본적인 즐거움이며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영적 발달의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아동의 4대 권리에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있으며 이 네 가지 권리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위와 같은 아동의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어디에서 노는지에 대한 설문도 동시에 진행해 보았다.</p> <table border="1"> <tr> <td>집</td> <td>5</td> <td>학교</td> <td>7</td> </tr> <tr> <td>PC방, 카페</td> <td>29</td> <td>공원</td> <td>3</td> </tr> <tr> <td>노래방</td> <td>4</td> <td>기타</td> <td>1, 도서관</td> </tr> </table> <p>현황 및 실태</p>   <p>↳ 캠페인에 사용된 자료</p>  <p>↳ 캠페인 및 설문조사 진행 중인 사진</p>			집	5	학교	7	PC방, 카페	29	공원	3	노래방	4	기타	1, 도서관
집	5	학교	7												
PC방, 카페	29	공원	3												
노래방	4	기타	1, 도서관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놀이 시 전자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2. 건강한 놀이를 하지 못한다. 3. 아동의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제안 내용	지속적으로 아동들의 놀 권리가 지켜져야 하는 이유를 알릴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노는 시간,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늘려 최대한 전자기기를 활용한 놀이를 멀리한다. 또한 아동들은 건강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맞는 놀이 및 휴식 방법을 능동적으로 탐구해나가는 태도를 지니고 실천해야 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9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북권	아동 성명	장○○
활동 주제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p>이번 활동이었던 놀 권리에 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폼보드 2개를 이용하여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한 개에는 놀 권리가 어떠한 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지, 놀 권리가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리기 위해 썼으며, 다른 한 개에는 아동들이 어디에서 많이 노는지에 관해 묻는 스티커 투표를 하였다. 항목은 집, 피시방, 카페, 노래방, 학교, 공원, 기타로 이루어져 있다. 캠페인을 하면서 그저 스티커만 붙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아동의 놀 권리가 유엔아동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다른 모든 아동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놀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준 다음, 스티커 투표를 진행하였다. 스티커 투표 결과, '집에서 놀다'가 5명, '카페나 피시방에서 놀다'가 29명, '노래방에서 놀다'가 4명, '학교에서 놀다'가 7명, '공원에서 놀다'가 3명, '기타'가 1명으로 나타났다.</p>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이 안전하게 놀 장소가 적음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개념 미적립 		
제안 내용	우선 아동에게 '놀 권리'라는 아주 중요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캠페인이나 활동 등을 통해 이 권리가 매우 중요하며 아동 스스로가 이를 알고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 임시 위주의 경쟁 사회 속에서 아동은 자연스럽게 마음껏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이 권리를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의 인식 변화가 시급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이 건강하고 안심하고 놀 수 있는 장소를 더욱 확충시켜야 할 것이다.		
제출일	2018년 10월 30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경북권	아동 성명	전○○
활동 주제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p>이때까지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놀 권리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생각보다 놀 권리에 대해 알고 있는 아동들이 많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숫자였다. 모두 스스로의 권리를 알아야 하고, 또 지켜야 한다. 놀 장소가 부족하거나 부모님의 압박 때문에 놀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아동들은 그 권리를 위하여 자신이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p>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 권리에 대한 활동이 필요하다. -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어야 한다. 		
제안 내용	아동의 놀 권리를 지키기 위해 경북 단원들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폼보드에 놀 권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70명의 아동, 청소년, 성인에게 놀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으로, 이로써 놀 권리에 대해 알리고,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출일	2018년 10월 13일		

서울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서울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놀 권리 및 권역주제 (대학에 관한 아동들의 의견)		
현황 및 상태	<p>심층 인터뷰 (이때 시험기간이랑 SAT기간 겹쳐서 1명만 진행하는 대신 길이 있고 신도있게 했습니다. 더 많이 하고싶었는데 친구들의 일정과 스케줄 상 영해 부탁드렸습니다)</p> <p>심층 인터뷰 대상 : 용인한국외대부설고등학교 1학년 이XX - A라고 가명 Q6) 마지막으로 진로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이나 가치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해주실 수 있나요? A6) 음... 저는 일단 저의 친구 '은재'가 말해주려 하면 아이가 꿈은 국제중-특목고 -서울대와 같은 이런 학교들로 지정해놓고서 그것을 담연시 여기고 담당하게 말 하는 부모님들의 현실이 마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꿈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이자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꿈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꿈 같은 경우는 의과외도 관련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글쓰기 영문학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정확하고 구체적인 방향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항상 고민하는 것이 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자신이 주제적으로 설정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사회에서도 단순히 진로를 처음부터 못정했다고 비난하기 보다는 진정하고 공격적인 진로와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고민하게 해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문제점	아동의 권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대체적으로 권리에 대해서는 인식 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았으나, 대부분의 친구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은 비슷했고 또한 현재 교육이나 사회에서의 정책과 제도 시스템에서 놀이와 여가에 대한 아동의 권리와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으며 분명히 개선과 향상이 필요함을 서로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나의 가장 진한 친구의 좀 더 심화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과 구체적인 한 아동과 한 학생으로서의 입장에서 자세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던 활동이 있었다. 또한 이런 권리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과 토의 또는 토론을 하기도 하였고 학교에서 최근 인권주제에 이룬 권리에 대해서 토론의 기회를 가지게 되어 반 친구들의 여러 의견을 들었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권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하게 되고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던 기회와 경험이 되었다. 또한 아동에 관련된 뉴스나 신문기사들을 접해보면서 놀 권리와 여가의 권리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로와 꿈과 연계되어서 큰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지며 연계되어 있기에 더욱더 우리들의 노력과 포용해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던 모니터링이었다.		
제출일	2018년 11월 3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서울권	아동 성명	안○○
활동 주제	대학실문지 배포 최종결과 & 구체적 사례 인터뷰		
현황 및 상태	<p>왜 아동들은 어른과 사회에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 나는 우리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요청했고, 친구 두 명을 설외하여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그들은 답을 예상하지 했지만, 사실이 아니길 바랬다. 친구 두명 모두 부모님과 사회의 억압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였다. 사회와 어른들은 자신의 뚜렷한 진로가 없으면 공부하라는 식으로 말하곤 한다. 하지만 만약 사회와 어른들이 많은 활동과 경험을 열어주었으면 아동들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냥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벌어야 하지 행복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아동들을 공부만 하게 내버려 두고 놀 권리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p>		
문제점	어른들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이뤄주길 바라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람은 각기 다른 흥미와 취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자신이 진짜로 하고 싶고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진짜 꿈이다. 사회와 어른들은 아직 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봐야 하고, 미래를 봐야 한다. 지금 이 세상은 공부 말고도 다른 분야 쪽으로도 많이 넓어졌다. 공부를 안 한다고 아동들을 다 그걸 게 아니라 그들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제안 내용	나는 이 설문지에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 무엇인지 또 그 선택은 강요당했는지 묻고 싶다. 아동에게도 인연이라는 것이 있다. 자신이 진짜 하고 싶고 행복할 수 있는 진로를 이 설문지를 통해서 많은 아동들이 느끼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제출일	2018년 11월 3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서울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아동에게 있어 대학의 의미		
현황 및 상태	<p>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 고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인 '학교'에서는 적절한 진로 정보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 상위권 학생들만 관리를 해주고 하위권 학생들은 차별받고 있다.</p> <p>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지원이 부족하여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학생이 대부분이다.</p> <p>자유학기제가 만들어진 의도에 맞지 않게 자유시간, 자습시간처럼 흘러가고 있다.</p> <p>늘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주말에도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몰래 놀러가고, 놀러가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만 허용된다.</p> <p>자신의 꿈이 꿈이 대학과 관련이 없더라도 주변에서는 대학을 요구하고 사회에서도 대학을 나온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된다.</p>		
문제점	<p>학생들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학교에서 적절한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것은 학생들의 자신의 권리 중 하나인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p> <p>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목적이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p> <p>노는 시간에 큰 제약이 있고 눈치를 보며 몰래몰래 놀게 되는 것은 아동들의 놀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p> <p>대학을 가는 것은 본인의 자유인데, 꿈이 무엇인데 대학을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회의 시선이 아동들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p>		
제안 내용	10월 중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자 추가 조사를 원하는 부분을 뽑아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눴다. 다함께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분석하며, 아동에게 있어 대학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였고 그것을 보고 각자 느낀 생각을 공유하였다.		
제출일	2018년 11월 4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서울	아동 성명	전○○
활동 주제	놀 권리 및 권역주제 (대학에 관한 아동들의 의견)		
현황 및 상태	<p>현재 대한민국의 대학교 이전의 학생들 중, 고등학생들이 맹목적으로 대학교 진학을 위해 공부를 하거나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다. 공부를 하는 목적에 있어서 대학교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대학에 가고 싶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교의 어느 학과가 아닌 단순히 '어느' 학교 인지에만 관심이 있다. 대학을 가라는 목적이 있어서 중심이 되는 건 자신이 아니라 타의적인 요인이 너무 크다는 점,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점이다.</p>		
문제점	<p>자신이 진정으로 대학에 가고 싶은 건지,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당면해 '가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지 잘 수 없다.</p> <p>자신의 학구적인 능력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 진학을 희망한다.</p> <p>대학교 진학 의외에 자신의 꿈을 찾을, 이를 방법을 잘 알지 못하며 의지가 부족하다.</p>		
제안 내용	<p>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학력 중심이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모두를 수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도 대학을 꼭 가야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아도 될 만큼, 굳이 쉬고 노는 휴식시간으로 남겨두지 않더라도 자신의 꿈을 좇아 달릴 수 있는 시간이 쓰여도 뒤처지거나 밀리는 것이 아닌 배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역량의 꿈을 가진 여러 사람이 있다면 능력은 얼마나 더 신도있게 공부를 했냐에 따라 차등을 두기보단 개인이 얼마나 더 노력했냐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p> <p>꼭 대학에 나와야만 내가 원하는 꿈과 직업에 더 열정적이었으며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것이 일반화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학력은 그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무수한 개인의 지표중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놀 말하면서 '대학이 전부'는 아니냐'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p>		
제출일	2018년 11월 3일		

서울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서울	아동 성명	직○○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아동에게 있어 대학의 의미, 아동의 진로와 대학		
현황 및 실태	<p>설문조사는 주로 대학과 진로에 관한 조사였다. 결과들은 이렇다. 설문에 답한 아동들의 대부분이 진로에 대해 깊게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런 답변과는 반대로 뚜렷한 로드맵이 있는 아동들은 소수였다. 그리고 많은 아동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인터넷이 많이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역시 다수의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싶다고 답했다.</p>		
문제점	<p>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며 느낀 건 아무리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있고 인터넷에 치면 모르는 것들이 바로 바로 나오지만, 자신이 스스로 인터넷으로 찾기 전에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진로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느끼는 것이겠지만 아직 우리나라 학교들의 진로 교육(진로 수업, 진로 체험 등)이 부족하다. 말만 진로 교육이고 속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학생들 개개인의 진로를 찾아주기 힘든 것은 기본이고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학교들의 부족한 진로 교육이 문제라고 생각한다.</p>		
제안 내용	<p>문제점에서 말했듯이 진로 교육이 조금 더 실행될 필요가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학생들의 진로를 담당하는 교사들(진로 상담, 조언 해주는 선생님들)은 다른 교사들에 비해 확실하고 전문적인 연수를 받고 학교에서도 더 좋고 효과적인 진로 체험과 교육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p>		
제출일	2018년 11월 3일		

서울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지역	서울	아동 성명	갑○○
활동 주제	놀 권리 및 권역주제 (대학에 관한 아동들의 의견)		
현황 및 실태	<p>심층 인터뷰 (이때 시험기간이랑 SAT기간 겹쳐서 1명만 진행하는 대신 길이 있고 심도있게 했습니다.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친구들의 일정과 스케줄 상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p> <p>심층 인터뷰 대상 : 용인한국외대부설고등학교 1학년 이XX - A라고 가명</p> <p>Q1) A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놀이를 즐기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권리라고 알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나 전반적인 인식의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p> <p>A1) 사실 아무래도 고등학생이 되어 학업에 열중하다보니 이런 여가와 놀이에 대한 인식이나 선호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무언가 '권리'라는 단어가 보통 많은 아동, 여성, 소수자들 등에게 쓰이는 언어로 부각되고 있다보니 이런 여가나 놀이는 당연한 것들이고 하나의 권리에 속하기에는 익숙한 것이라 인식하기가 오히려 더더욱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권리들이며 비해서 이런 권리들을 증진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학원과 학교에만 집중하여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식으로 사회에서 여겨지고 있으며 우선순위 또한 낮다 보니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학생들의 입장에서 전반적인 인식이 굳이 저런 것들에 대해서 권리라 칭할 수 있지는, 또한 저런 것들을 즐기기에 이미 바쁘고 나이가 많다는 식으로 합리화시키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p> <p>Q2) 보호자는 여러분의 놀 권리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예를 들어드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어떠한 측면에서 놀 권리를 보호해준다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p> <p>A2) 사실 그 여부는 사람마다 개인적인,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친구들이 시험 전부터 시험이 끝난 날까지도 항상 학원을 가있거나 매일 새벽 공부와 학업을 위주로 목표를 삼고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시험이 끝났을 때나 적어도 제가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시고, 또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놀거나 여가활동을 하는 데는 최대한 간섭과 제재를 덜 해주시고 이해해주는 모습이 보이기에 그 부분에서는 저를 최대한 공감해주시고 놀 권리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호해준다고 일부분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p> <p>Q3) 하루 평균 놀이 또는 여가 시간이 1시간 이하라고 답해주셨는데 혹시 이에 대한 이유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p>		

A3) 사실 저도 여가시간이 편하고 행복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하다보면, 그런 것들을 자절로 신경 쓰지 않게 되거나 또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같은 때 자투리 시간에 종종 간단한 영상을 본다던가, 게임을 플레이한다던가 그러곤 하죠. 물론 시험이 끝나고 난 직후나 공부가 잘 안될 때 도서관을 가서 책 읽는 것 또한 하나의 저의 여가생활이라 할 수 있죠. 사실 저희 학교가 자사고이기는 해도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한 그것이 취미가 될 수도 있고 할정도 되니까 많은 친구들이 접하는 하는 것 같아요. 게임이 아니라도 친구들과끼리 얘기하거나 책을 읽거나 토론하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여가 생활과 놀이를 즐기는 걸 보면, 그래도 나름 우리에게 적당한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가 싶어요. 물론 제 친구 중에는 가끔 부족하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웃음)
Q4) 여가가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부적절한 점은 없나요? 또한 방법 중에 신체활동을 늘려야 한다고 답해주셨는데 이유가 뭐라 생각하시나요?
A4)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힘도 되고 흥미도 있으니까 오히려 간단한 자극제라, 힐링제로 사용되어 바람직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친구는(웃음) 프렌즈 레이싱이라는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 업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면서 끊지는 못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단순히 어느 정도의 여가와 놀이는 괜찮지만, 자꾸 그것이 반복되고 일어난다 보면 부정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시험기간이나 시험기간일 때 책을 읽거나 영상 같은 것을 찾아볼 때 너무 집중하면서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죠. 그리고 신체활동은, 제가 라크로스 스포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 투지나 또한 제 신체적으로 맞지 않을 때가 있어서 오히려 배드민턴이나 농구와 같이 좀 다른 운동 들을 통해서 신체활동을 늘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학생이니까 맞이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체력과 건강도 학업만큼 중요한 것이기에 저는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여가활동으로 더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Q5) 보호자와의 여가생활을 별로 중분하지 않다고 쓰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또한, 어렸을 때와의 차이점이 있었나요? 또한, 학교에서 여가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 이유나 시스템 또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5)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다보니 또 독목 자사고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더욱 더 공갈할 거예요. 일단 기숙사이다보니 부모님과 만나는 것은 주말이고, 주말이더라도 학원 같은 곳들을 다니거나 또는 자습하려고 독서실 혹은 도서관을 가다 보면 같이 있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극소하더라고요. 또한 같이 있더라도 여행과 서로 여가를 누리기도는 이야기를 하거나 논의를 하는 등의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물론 같이 밖에서 하는 것이 하나의 여가라고 여길 수도 있었지만 그런 일상에 가까운 것이라 생각하고요. 어렸을 때는 영국으로도 가기도 했고 여러모로 지금 보다 여유도 여가도 훨씬 함께 많이 누렸는데 이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네요. 특히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고 공감하는 점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조금은 다른 생각들이 존재하겠지만 결국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와 교육 시스템 자체가 모순적인 점이 존재하기에 이런 일

이 말שה하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즐기보다는 영육적인 학습을 위주로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이고 학원을 다니더라도 주체가 되어 배움을 할 수 있을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속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이 정착한 기준점을 찾지 못하는 현실이 저희를 더욱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저희들끼리의 노력도 중요하고 인식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좀더 궁극적이고 높고 심화된 이런 제도적 정책적 정비 변화와 계속 급변하는 교육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한 가지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	아동의 권리에 대한 설문조사들을 실시하였고 대체적으로 권리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았으나, 대부분의 친구들이 권리에 대한 고민은 바속했고 또한 현재 교육이나 사회에서의 정책과 제도 시스템에서 놀이와 여가에 대한 아동의 권리와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으며 분명히 개선과 향상이 필요함을 서로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의 좀 더 심화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과 구체적인 아동과 한 학생으로서의 입장에서 자세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던 활동이었다. 또한 이런 권리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과 토의 또는 토론을 하기도 하였고 학교에서 최근 인권주간에 이런 권리에 대해서 토론의 기회를 가지게 되어 반 친구들의 여러 의견을 들었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권리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되고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었던 기회와 경험 이 되었다. 또한 아동에 관련된 뉴스나 신문기사들을 접해보면서 놀 권리와 여가의 권리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로와 꿈과 연계되어서 큰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지며 연계되어 있기에 더욱더 우리들의 노력과 포항해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모니터링이었다.
제안 내용	
제출일	2018년 11월 3일

서울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서울	아동 성명	전○○
활동 주제	1. 놀이 및 여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2. 아동에게 있어 대학의 의미 : 아동의 진로와 대학		
현황 및 상태	<p>이번 달에는 아동에게 있어서 놀이의 필요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후 과거 본인이 작성했던 논문과 비교해 보기로 했다. 현재 본인이 재학 중인 선사고등학교 학생 10명에게 조사를 진행했다. (시험기간과 교내행사가 겹쳤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h3>취미가 있나요?</h3> <p>■ 예 ■ 아니오</p> </div> <p><표1 취미의 여부> 총 10명의 학생 중 취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수는 9명이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응답으로는 취미를 즐길 시간이 없다는 학생이 대부분이었고 취미가 있다고 응답한 1명의 학생은 미대입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거나 구도를 잡는 일을 쉬는 시간이 하며 이것이 자신의 여가이자 취미라고 답했다. 10명의 학생의 답변은 모두 대학입시와 관련되어있었고, 궁극적인 목표는 수시를 위한 비교과와 관련되어있었다.</p>		

문제점	<h3>여가시간에 하는 행위</h3> <p><표2 여가시간에 하는 행위에 대해> 여가시간에 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번 달에 인터뷰에서 언급해준 내용을 토대로 후보군을 뽑아 진행했다. 여가시간에 제대로 된 놀이를 하는 학생은 없었다. 학원이나 야자가 끝나고 집에 오는 경우 누군가를 만날 수 없고, 밤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sns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남학생의 경우 게임을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같은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여학생이 더 많았기 때문에 PC관련 응답의 비율이 저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위권 학생들은 잠을 잔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학원시간과 숙제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 쉬는 시간, 혹은 점심시간에 의자를 여러 개 두고 누워서 쪽잠을 잔다는 학생의 수도 적지 않았다.</p> <p>놀 권리와 대학의 의미와 관련해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올해 작성한 논문도 같이 자료로 첨부했습니다.</p>
제안 내용	하지만 사람, 1020 세대에겐 놀이란 시치로 여겨진다는 점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 아동들은 놀이를 제대로 할 줄 모른다. 어떻게 노나는 질문에 응답한 아동들 대부분은 핸드폰을 하거나 게임을 한다고 한다. 이것 역시 놀이의 일종이거나 하나 10명이면 10명 이러한 대답을 한다는 것은 아주 심한 문제점이 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동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노는 방법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과 함께 하는 놀이가 아닌 각자만의 취미 생활과 그것을 즐길 공간 정도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하나의 권리라는 생각이 든다. 선사고등학교 재학생을 인터뷰한 결과 취미 활동이 있는 학생은 아주 적었으며, 취미를 즐기는 것은 여유 있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 상위권 학생의 경우 놀이보다는 공부가 우선되어야 하고 취미를 즐길 시간에 잠을 보충해야 하는 자신의 스케줄의 문제점을 호소했다. 이렇게 아동들은 괴로워하고 있다. 공부도 때가 있다는 말로 아동들 어른들의 틀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 공부도 때가 있듯이 놀이도 그에 맞는 때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제출일	2018년 11월 3일

서울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구역	서울	아동 설명	김○○
활동 주제	놀이 권리와 권역주제 (대학에 관한 아동들의 의견)		
인합 및 실태	<p>심층 인터뷰 대상 : 용인한곡외대부설고등학교 1학년 이XX - A라고 가정 심층 인터뷰 대상 : 용인한곡외대부설고등학교 1학년 이XX - A라고 가정 Q1) A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놀이를 즐기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권리라고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전반적인 인식의 실태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A1) 사실 아무래도 고등학교가 되어 학업이 밀중하되나 이런 여가와 놀이에 대한 인식이나 선호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무언가 '권리'라는 단어가 보통 많은 아동, 여성, 소수자들 등에게 쓰이는 언어로 부각되고 있단 보니 이런 여가나 놀이는 당연한 것들이고 하나의 권리에 속하기에는 익숙한 것이라 인식하기가 오히려 더더욱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권리와 비교해서 이런 권리를 중시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학원과 학교에만 집중하여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식으로 사회에서 여겨지고 있으며 우선순위가 낮은 것들이라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가 학생들의 입장에서 전반적인 인식이 굳이 지한 것들에 대해서 권리와 칭할 수 있는지, 또한 지한 것들을 즐기기에 이미 바쁘고 나이가 많더라는 식으로 합리화하면서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Q2) 보오자는 여러분의 놀 권리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하나요? 예를 답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어떠한 측면에서 놀 권리를 보호해준다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A2) 사실 그 여부는 사람마다 개인적인,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친구들이 시험 전부터 시험이 끝난 날까지도 항상 학원을 가거나 매일 새벽 공부와 학업을 위주로 목표를 삼고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시험이 끝났을 때나 공짜도 제가 풀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시고, 또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놀거나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관심과 재정을 할 해주시고 이해해주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를 최대한 공감해주시고 놀 권리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호해준다고 일부분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Q3) 하루 평균 놀이 또는 여가 시간이 1시간 이하라고 답해주셨는데 혹시 이에 대한 이유를 부추리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A3) 사실 저도 여가시간이 편하고 행복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신경쓰지 않게 되거나 또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때 자투리 시간에 종종 간단한 영상을 본다거나, 게임을 플레이한다거나 그러곤 하죠. 물론 시험이 끝나고 난 직후나 공부할 잠깐 때 도서관을 가서 책 읽는 것 또한 하나의 여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저희 학교가 자사고이기는 해도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한 그것이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유행도 되니까 많은 친구들이 접하는 하는 것 같아요. 게임이 아니더라도 친구들과 얘기하거나 책을 읽거나 토론하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여가 생활과 놀이를 즐기는 걸 보면, 그래도 나를 우리에게 적당한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가 싶어요. 물론 제 친구 중에는 가끔 부추리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긴 있었어요. (웃음) Q4) 여가가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부정적인 점은 없나요? 또한 방법 중에 신체활동을 늘려야 한다고 답해주셨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A4)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트레스 해소되고 되고 있고 흥미도 있으니까 오히려 간단한 자극제로, 힐링제로 사용되어 바람직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친구는(웃음) 프렌즈 레이스이라는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 앞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면서 끊지는 못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단 순히 어느 정도의 여가와 놀이는 괜찮지만, 자주 그것이 반복되고 걸어다다 보면 부정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건 아닐까 싶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수행기구나 시험기간일 때 책을 읽거나 영상 같은 것을 찾아 볼 때 너무 집중하면서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죠. 그리고 신체활동은, 제가 리크로스룸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 투지나 또한 제 신체적으로 맞지 않을 때가 있어서 오히려 배드민턴이나 농구와 같이 좀 다른 운동 등을 통해서 신체활동을 늘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학생이나가 있어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없을 수밖에 없는 데 결국 체육과 건강도 학업만큼 중요한 것기에 저는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여가활동으로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Q5) 보오자와의 여가생활을 별로 중본하지 않다고 쓰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또한 여가를 때와의 차이점이 있나요? 또한 학교에서 여가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 이유나 시스템 또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A5) 아무래도 고등학교이다보니 또 폭력 자사고라 다니는 학생들이라 그런 데다 더 공부할 거예요. 일단 기숙사이다보니 부모님과 만나는 것은 주말이고, 주말이더라도 학원 같은 곳들을 다니거나 또는 자습하려고 독서실 혹은 도서관을 가다 보면 같이 있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극소하다고요. 또한 같이 있다면도 여행과 서로 여가를 누리기보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논의를 하는 등의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물론 같이 밖에서 하는 것이 하나의 여가라고 여길 수도 있었지만 그런 일상에 가까운 것이라 생각하고요. 여가를 때는 영구적으로 가기도 했고 여러모로 지금 보다 여유도 여가도 훨씬 함께 많이 누웠는데 이것은 필연적이고 생각되네요. 특히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고 공감하는 점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조금은 다른 생각들이 존재하겠지만 결국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와 교육 시스템 자체가 모순적인 점이 존재하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즐기기보다는 영구적인 학습을 위주로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이고 학원을 다니더라도 주제가 되어 배움을 할 수 있음</p>		

문제점	<p>에도 공교육과 사교육 속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이 정착한 기준점을 갖지 못하는 현실이 저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저희끼리의 노력도 중요하고 인식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좀 더 공극적으로 놓고 심화한 이런 제도적 정책적 정비 변화와 계속 급변하는 교육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한 가지의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Q6) 마지막으로 진로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이냐 가지중,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해주실 수 있으냐? A6) 음.. 저는 일단 저의 친구 '온재'가 말해준 여인이야가 꿈은 국제중-특목고-서울대와 같은 이런 학교들로 지향해놓고서 그것을 당면시 여기고 당당하게 말하는 부모님들의 현실이 마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꿈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이자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꿈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꿈 같은 경우에는 외고와도 관련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글쓰기 영문학에도 관심이 많았으나, 물론 정확하고 구체적인 방향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항상 고민하는 것이 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자신이 주제적으로 설정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사회에서도 단순히 진로를 처음부터 설정했다고 비난하기보다는 진정하고 공극적인 진로와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고민하게 해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제안 내용	<p>아동의 권리에 대한 설문조사들을 실시하였고 대체적으로 권리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았으나, 대부분의 친구들이 권리에 대한 고민은 비소했었고 또한 현재 교육이나 사회에서의 정책과 제도 시스템에서 놀이와 여가에 대한 아동의 권리와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으며 분명히 개선과 향상이 필요함을 서로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의 좀 더 심화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과 구체적인 한 아동과 한 학생으로서의 입장에서 자제된 부분들을 파악하고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던 활동이었다. 또한 이런 권리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과 또는 토론회를 하는 토론회도 있었고 학교에서 최근 인권주제에 이한 권리에 대해서 토론회의 기회를 가지게 되어 반 친구들의 여러 의견을 들었고 우리가 있고 있었던 권리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되고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던 기회와 경험이 되었다. 또한 이들에 관련된 뉴스나 신문기사들을 접해보면서 놀 권리와 여가의 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로와 꿈과 연계되어서 큰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지며 연계되어 있기에 더욱더 우리들의 노력과 포함해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모니터링이었다.</p>
제출일	2018년 11월 3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구역	서울	아동 설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아동에게 있어 대학의 의미		
인합 및 실태	<p>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 고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인 '학교'에서는 적절한 진로 정보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 상위권 학생들만 관리를 해주고 하위권 학생들은 차별받고 있다.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지원이 부족하여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자유학기제가 만들어진 의도에 맞지 않게 자유시간, 자습시간처럼 흘러가고 있다. 놀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인 주말에도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놀러 놀러가고, 놀러가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만 허용된다. 자신의 꿈이 굳이 대학과 관련이 없더라도 주변에서는 대학을 요구하고 사회에서도 대학을 나온 사람들에겐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된다.</p>		
문제점	<p>학생들의 미래를 이끌어줄 학교에서 적절한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것은 학생들의 자신의 권리 중 하나인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목적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노는 시간이 큰 제약이 없고 눈치를 보며 놀러올래 놀게 되는 것은 아동들의 놀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을 가는 것은 본인의 자유인데, 꿈이 무엇이든 대학을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회의 시선이 아동들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p>		
제안 내용	<p>10월 중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자 주가 조사를 원하는 부분들을 뽑아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눴다. 다음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분석하여, 아동에게 있어 대학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였고 그것을 보고 각자 느낀 생각을 공유하였다.</p>		
제출일	2018년 11월 04일		

서울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서울권	아동 성명	연OO
활동 주제	대학실문지 배포 최종결과 & 구체적 사례 인터뷰		
현황 및 실태	<p>왜 아동들은 어른과 사회에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 나는 우리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요청했고, 친구 두 명을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들은 답을 예상하긴 했지만, 사실이 아니길 바랐다. 친구 두명 모두 부모님과 사회의 억압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였다. 사회와 어른들은 자신의 뚜렷한 진로가 없으면 공부하라는 식으로 말하곤 한다. 하지만 만약 사회와 어른들이 많은 활동을 경험을 열어주었으면 아동들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냥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벌어야 하지 행복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아동들을 공부만 하게 내버려 두고 놀 권리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p>		
문제점	<p>어른들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신이 이뤄주길 바라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람은 각기 다른 흥미와 취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자신이 진짜로 하고 싶고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진짜 꿈이다. 사회와 어른들은 아직 그 시대에 어울리 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봐야 하고, 미래를 봐야 한다. 지금 이 세상은 공부 말고도 다른 분야 쪽으로도 많이 넓어졌다. 공부를 안 한다고 아동들을 다 그걸 게 아니라 그들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p>		
제안 내용	<p>나는 이 설문지에 자신이 진짜 하고싶은지 무엇인지 또 그 선택은 강요당하였는지 묻고싶다. 아동에게도 인권이라는 것이 있다. 자신이 진짜 하고싶고 행복할 수 있는 진로를 이 설문지를 통해서 많은 아동들이 느끼고 깨달았으면 좋겠다.</p>		
제출일	2018년 11월 3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서울	아동 성명	전OO
활동 주제	<p>1. 놀이 및 여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2. 아동에게 있어 대학의 의의 : 아동의 진로와 대학</p>		
현황 및 실태	<p>이번 달에는 아동에게 있어서 놀이의 필요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후 과거 본인이 작성했던 논문과 비교해 보기로 했다. 현재 본인이 재학 중인 선사고등학교 학생 10명에게 조사를 진행했다. (시험기간과 교내행사가 겹쳤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취미가 있나요?</p> <p>■ 예 ■ 아니요</p> </div> <p><표1 취미의 여부> 총 10명의 학생 중 취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수는 9명이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응답으로는 취미를 즐길 시간이 없다는 학생이 대부분이었고 취미가 있다고 응답한 1명의 학생은 미대입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거나 구도를 잡는 일을 쉬는 시간에 하며 이것이 자신의 여가이자 취미라고 답했다. 10명의 학생의 답변은 모두 대학입시와 관련되어있었고, 궁극적인 목표는 수시를 위한 비교과와 관련되어있었다.</p>		

문제점	<p>여가시간에 하는 행위</p> <p>■ 여가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나요?</p> <p><표2 여가시간에 하는 행위> 여가시간에 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번 달에 인터뷰에서 언급해준 내용을 토대로 후보군을 뽑아 진행했다. 여가시간에 제대로 된 놀이를 하는 학생은 없었다. 학원이나 아자가 끝나고 집에 오는 경우 누군가를 만날 수 없고, 밤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sns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남학생의 경우 게임을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질문에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여학생이 더 많았기 때문에 PC관련 응답의 비율이 저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위권 학생들은 잠을 잔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학원시간과 숙제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할 쉬는 시간, 혹은 점심시간에 의자를 여러 개 두고 누워서 쪽잠을 잔다는 학생의 수도 적지 않았다.</p> <p>놀 권리와 대학의 의의와 관련해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올해 작성한 논문도 같이 자료로 첨부했습니다.</p>		
제안 내용	<p>아동들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다. 흔히 주요과목이라고 불리는 국영수를 포함해 학교생활규정과 규칙을 따르는 법, 협력하는 법 등 아주 다양한 교육을 현재 대한민국에선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학교에서도 제대로 노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는 것 역시 그 중요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른들이 저주하는 말 중에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해라 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공부하는 것만큼 쉬어주고 노는 것이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현 교육 체제 속 에서 놀이의 중요성은 잊혀져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기계처럼 일만할 수 없다. 심지어 기계조차 휴식이라는 개념이 있다. 하지만 사람, 1020 세대에게 놀이란 사치로 여겨진다는 점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 아동들은 놀이를 제대로 할 줄 모른다. 어떻게 노냐는 질문에 응답한 아동들 대부분은 핸드폰을 하거나 게임을 한다고 한다. 이것 역시 놀이의 일종이거나 하나 10명이면 10명 이러한 대답을 한다는 것은 아주 심한 문제점이 분명하다.</p> <p>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동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노는 방법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과 함께 하는 놀이가 아닌 각자만의 취미생활과 그것을 즐길 공간정도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하나의 권리라는 생각이 든다. 선사고등학교 재학생을 인터뷰한 결과 취미활동이 있는 학생은 아주 적었으며, 취미를 즐기는 것은 여유 있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 상위권학생의 경우 놀이보다는 공부가 우선되어야 하고 취미를 즐길 시간에 잠을 보충해야하는 자신의 스케줄의 문제점을 호소했다. 이렇게 아동들은 괴로워하고 있다. 공부도 때가 있다는 말로 아동들 어른들의 틀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 공부도 때가 있듯이 놀이도 그에 맞는 때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p>		
제안 내용	<p>1. 아동에게 제대로된 놀이를 가르치는 것 2. 밤에도 안전하게 사용가능한 아동만의 시설이 확보될 것 3. 놀이를 하는 학생에 대한 시선의 변화</p>		
제출일	2018년 11월 3일		

서울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서울	아동 성명	최○○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아동에게 있어 대학의 의미: 아동의 진로와 대학		
현황 및 실태	<p>이번 달에는 친구들 3명을 대상으로 FGI를 하고 9월에 만들었던 설문지를 친구들한테 돌려 설문조사를 하는 활동을 했다.</p> <p>먼저 FGI 결과에 대해 말하자면 세 명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했고 아동의 놀 권리에 초점을 두어 질문을 했다.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사실은 아이들의 권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지켜져 있었다는 것이다. 먼저 모두 놀 권리가 자신들의 권리라는 걸 알고 있었고 놀면서 행복감을 느끼지만 대부분은 놀지 못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답했다. 또한 놀이는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고 믿었다. 이렇게 답한 친구들 모두가 보호자(부모님)가 자신을 잘 존중해준다고 느끼고 있었고 보호자와의 갈등도 크게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놀 권리를 잘 보장받지 못하는 친구들은 위해서는 놀 공간과 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학교 2학년 기준으로 이 나이 대에 어울리는 여유 시간은 평균적으로 2시간 정도였다. 그러나 더 어린 친구들은 적어도 4시간은 놀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므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유 시간은 좀 더 적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p> <p>설문조사는 주로 대학과 진로에 관한 조사였다. 결과들은 이렇다. 설문에 답한 아동들의 대부분이 진로에 대해 깊게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런 답변과는 반대로 뚜렷한 로드맵이 있는 아동들은 소수였다. 그리고 많은 아동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인터넷이 많이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역시 다수의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싶다고 답했다.</p>		
문제점	<p>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느낀 건 아무리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있고 인터넷에 지면 모르는 것들이 바로 바로 나오지만, 자신이 스스로 인터넷으로 찾기 전에 선생님이거나 학교에서 진로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느끼는 것이겠지만 아직 우리나라 학교들의 진로 교육(진로 수업, 진로 체험 등)이 부족하다. 말만 진로 교육이고 속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학생들 개인의 진로를 찾아주기 힘든 것은 기본이고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학교들의 부족한 진로 교육이 문제라고 생각한다.</p>		
제안 내용	<p>문제점에서 말 했듯이 진로 교육이 조금 더 심해질 필요가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학생들의 진로를 담당하는 교사들(진로 상담, 조언 해주시는 선생님들)은 다른 교사들에 비해 확실하고 전문적인 연수를 받고 학교에서도 더 좋고 효과적인 진로 체험과 교육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p>		
제출일	2018년 11월 03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서울	아동 성명	전○○
활동 주제	놀 권리 및 권역주제 (대학에 관한 아동들의 의견)		
현황 및 실태	<p>현재 대한민국의 대학교 이전의 학생들 중, 고등학생들이 명목적으로 대학교 진학을 위해 공부를 하거나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다. 공부를 하는 목적에 있어서 대학교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대학에 가고 싶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교의 어느 학과가 아닌 단순히 '어느' 학교 인지에만 관심이 있다. 대학을 가려는 목적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건 자신이 아니라 타의적인 요인이 너무 크다는 점,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점이다.</p>		
문제점	<p>자신이 진정으로 대학에 가고 싶은 건지,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당연히 '가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지 알 수 없다.</p> <p>자신의 학구적인 능력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 진학을 희망한다.</p> <p>대학교 진학 이외에 자신의 꿈을 찾을, 이를 방법을 잘 알지 못하며 의지가 부족하다.</p>		
제안 내용	<p>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학력중심이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모두를 수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데도 대학은 꼭 가야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아도 될 만큼, 굳이 쉬고 노는 휴식시간으로 남겨두지 않더라도 자신의 꿈을 좇아 달릴 수 있는 시간이 쓰여도 뒤져지거나 밀리는 것이 아닌 배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꿈을 가진 여러 사람이 있다면 능력은 얼마나 더 심도있게 공부를 했냐에만 차등을 두기보단 개인이 얼마나 더 노력했냐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p> <p>꼭 대학에 나와야만 내가 원하는 꿈과 직업에 더 열정적이었으며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것이 일반화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학력은 그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무수한 개인의 지표 중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놀림삼아서 '대학이 전부'는 '아니아'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p>		
제출일	2018년 11월 3일		

전남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남권	아동 성명	구 ○○
활동 주제	놀이터 안락 간접흡연 개선활동		
활동 내용	<p>-10월 13일, 놀이터 간접흡연 아동권리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둠을 나누어 설문지 문항을 만들고, 점검하는 작업을 진행한 후, 놀이터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서를 중심으로 캠페인에 사용될 피켓을 만들었다.</p> <p>-10월 20일 운전 저수지에서 놀 권리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놀이터 간접흡연 실태조사를 진행해 약 100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p>		
결과물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얻었다.		
활동 평가	놀이시설 안락의 간접흡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유도해 놀이시설 주변에서의 흡연을 자제하게 해야 할 것이다.		
제출일	2018년 11월 5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남권	아동 성명	박○○
활동 주제	놀이터 안락 간접흡연 개선활동		
활동 내용	<p>10월 13일은 놀이터 안락 간접흡연에 대해 이야기하고 개선활동을 찾기 위해 모둠활동을 했다. 그리고 활동 피켓도 만들었다.</p> <p>11월 3일은 영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흡연에 관련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p>		
결과물	피켓을 완성하고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활동 평가	재미있었고, 간접흡연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		
제출일	2018년 11월 5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남권	아동 성명	김 ○○
활동 주제	놀이터 안락 간접흡연 개선활동		
활동 내용	<p>2018년 10월 13일, 놀이터 간접흡연에 관한 설문지 문항을 만들고 점검한 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피켓을 만들었다.</p> <p>2018년 11월 3일, 영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 권리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놀이터 간접흡연 실태조사를 함께 진행했다.</p>		
결과물	놀이터 간접흡연에 관한 설문지 문항들과 캠페인 진행에 사용될 피켓 등을 만들고, 놀이터 간접흡연 실태조사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놀이터 간접흡연에 관한 생각들을 알 수 있었다.		
활동 평가	캠페인을 진행할 피켓을 만들 때는 조금 힘들었지만, 다 만들고 결과물을 확인하니 뿌듯하고, 내가 만든 피켓이 실제 캠페인에 사용되어 기분이 좋았다. 영광초등학교에서 진행한 놀이터 간접흡연 실태조사는 체험활동 참여로 인해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웠다.		
제출일	2018년 11월 5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남권	아동 성명	여○○
활동 주제	놀이터 안락 간접흡연 개선활동		
활동 내용	<p>- 2018. 10.13 놀이터 안락 간접흡연 아동권리 침해 개선을 위해 모둠원들과 설문지 문항을 만들고 다시 점검한 후에 놀이터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서 내용을 캠페인에 사용하기 위해 피켓으로 만들었다.</p> <p>- 2018. 11. 3 광주요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 권리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에게 놀이터 간접흡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p>		
결과물	놀이터 간접흡연 실태조사를 통해 놀이터 안락 흡연 제한 구역 설정하고, 담배 판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음		
활동 평가	간접흡연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많은 아동들과 시민들에게 간접흡연의 문제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제출일	2018년 11월 5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남권	아동 성명	노○○
활동 주제	놀이터 안락 간접흡연 개선활동		
활동 내용	<p>월드비전에서 설문지로 당신은 흡연 표지판을 놀이터에서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캠페인을 했다.</p>		
결과물	어른들이 놀이터 근처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지 않는다.		
활동 평가	캠페인 활동을 통하여 흡연 유해성을 알렸다.		
제출일	2018년 11월 11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남권	아동 성명	윤○○
활동 주제	놀이터 안락 간접흡연 개선활동		
활동 내용	<p>10월 모임에서 놀이터 흡연 실태조사 설문지 문항을 만들고 점검하였다.</p> <p>11월 3일 영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놀데이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체험 활동을 하고, 설문지를 작성하였다.</p>		
결과물	놀이터 간접흡연 설문지를 만들어 놀데이 페스티벌에서 설문조사를 하였다. 놀데이 페스티벌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알릴 수 있었다.		
활동 평가	놀이터 흡연 설문조사를 한 것은 우리가 직접 만든 것이므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놀데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놀 권리에 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았다.		
제출일	2018년 11월 9일		

전남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남권	아동 성명	이○○
활동 주제	놀이터 안락 간접흡연 개선활동		
활동 내용	놀이터 안락 간접흡연 개선하기 위해 해결방법을 조원들과 토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터 작성 직접 만든 포스터 가지고 캠페인 활동		
결과물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활동 평가	놀이터 안락 간접흡연 문제 상황을 우리가 직접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내고 캠페인 활동을 한다는 것이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같다. 우리가 이렇게 해결방법을 얘기하고 캠페인 활동을 함으로써 아동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뿌듯했다.		
제출일	2018년 11월 5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남권	아동 성명	차○○
활동 주제	놀이터 안락 간접흡연 개선활동		
활동 내용	나는 놀이터 간접흡연 개선 활동을 하였다. 10월 13일, 놀이터 간접흡연 아동권리 침해사례 개선을 위해 모둠을 나누어 설문지 문항을 만들고, 점검하는 작업을 진행한 후, 놀이터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서를 중심으로 캠페인에 사용될 피켓을 만들었다.		
결과물	10월 20일 운전 저수지에서 놀 권리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놀이터 간접흡연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또는 11월 3일 영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 권리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놀이터 간접흡연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활동 평가			
제출일	2018년 11월 5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남권	아동 성명	조○○
활동 주제	놀이터 안락 간접흡연 개선활동		
활동 내용	10월 13일, 놀이터 간접흡연 아동권리 침해사례 개선을 위해 두 모둠으로 나누어 설문지를 작성한 후 개선되어야 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할만한 문항을 고친 후, 놀이터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서를 중심으로 아동권리위원회와 함께 캠페인에 사용될 피켓을 만들었다. 10월 20일 운전저수지에서 놀권리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한쪽에서는 놀이터 간접흡연 설문지를 작성한 후 핑거밴드 팔찌를 나누어 주고 다른쪽에서는 놀이터 열쇠고리를 만드는 것을 했다. 11월 3일 영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0월 20일의 활동과 유사하게 놀권리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놀이터 간접흡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열쇠고리를 만드는 활동을 했다.		
결과물	10월 20일에 비해 11월 3일에 진행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수는 현저히 떨어졌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주었다.		
활동 평가	11월 3일에 했던 활동은 10월 20일에 비해 참여율이 떨어져 아쉬웠지만 10월 20일에 비해 아동의 설문 참여율이 높아져 색달랐던 것 같다. 그냥 설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핑거밴드 팔찌를 주거나 열쇠고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들로 인해서 설문지 참여율이 높아지기도 한 것 같다		
제출일	2018년 11월 10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남권	아동 성명	채○○
활동 주제	놀이터 안락 간접흡연 개선활동		
활동 내용	10월 13일 -모듬끼리 설문지를 만들고 피켓을 만들었다. 11월 3일 -효광초 놀이터 간접흡연 실태조사		
결과물	설문지 피켓		
활동 평가	놀이터 주변에서 금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더 널리 알리고 싶어졌다. 그리고 놀이시설 주변에서 흡연을 하면 안된다는 포스터를 흡연자들이 보고 놀이시설 주변에서는 금연을 하면 좋겠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알고 금연했으면 좋겠다.		
제출일	2018년 11월 5일		

전남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남권	아동 성명	구○○
활동 주제	놀 권리 설문조사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		
활동 내용	<p>-2018년 9월24일부터 약 2주간 같은학년 친구 19명과 중학생인 시촌동생 한명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놀 권리와 설문지의 목적에 대해 설명해준 뒤 설문지 작성을 부탁했다.</p> <p>-2018년 10월 20일 광주광역시 운전 저수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놀 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해 설문지 작성과 서명운동을 담당했다.</p>		
결과물	운전 저수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또한 시민들에게 놀 권리에 대해 알렸다.		
활동 평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아동들의 놀 권리를 설명하는데 있어 장소의 특성과 연령대를 고려하지 않아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적어 아쉬웠다.		
제출일	2018년 11월 5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남권	아동 성명	노○○
활동 주제	놀 권리 설문조사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		
활동 내용	설문조사서사를 먼저 한 다음 아동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적게 놓고 있는지 많이 놓고 있는지 알아본 다음 요광 초등학교에서 아동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캠페인을 했다. 캠페인에서 제기자기, 비행기 날리기, 농구, 명이 겨루기, 알궁, 발 불링 등을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주었다.		
결과물	캠페인을 해서 아이들의 노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질 것이다.		
활동 평가	나는 이런 활동들이 정말 좋았다. 다음에도 또 했으면 좋겠다.		
제출일	2018년 11월 11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남권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놀 권리 설문조사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		
활동 내용	2018년 10월 중반, 같은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놀 권리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놀 권리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 이후, 11월 3일 광주 요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아동권리 축제에서 놀 권리 캠페인에 참여했고, 나는 참여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체험활동을 담당했다.		
결과물	친구들이 놀 권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요광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놀 권리를 알릴 수 있게 됐다.		
활동 평가	설문지 총 20부를 모두 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것 같다. 하지만 설문에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확실하게 놀 권리와 아동 권리에 대해서 알릴 수 있어 좋았던 것 같다. 요광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친구들에게도 좋은 패스티벌이었던 것 같다.		
제출일	2018년 11월 11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남권	아동 성명	박○○
활동 주제	놀 권리 설문조사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		
활동 내용	<p>10월에 놀권리 설문조사 활동을 위해 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설문지를 완성 하였다. 작성 전에 친구들에게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 설명해주었고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고맙웠다.</p> <p>11월 3일에 요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 권리 캠페인에 참여하였고 벼룩시장에 참여하여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팔았다.</p>		
결과물	10월에 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설문지를 완성, 제출하였다. 11월3일에는 벼룩시장에 참여하여 기부하였다.		
활동 평가	재미있었고, 놀 권리에 대하여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제출일	2018년 11월 5일		

전남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남권	아동 성명	여○○
활동 주제	농 권리 설문조사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		
활동 내용	- 2018. 10. 1 ~ 2018. 10. 20 학교 친구들과 동네 친구들에게 농 권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친구들에게 농권리 설문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고 한문항 한문항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 2018. 11. 3 영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월드컵전에서 진행하는 아동권리축제에서 농 권리 캠페인에 참여했고 나는 참여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체험활동과 서명운동을 담당하면서 부스에서 농권리에 대한 설명도 해주었다.		
결과물	아동 청소년을 농권리 설문조사 실시		
활동 평가	농권리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친구들이 농권리에 대해 많이 모르고 있고 또 관심 없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농권리 캠페인에서는 내가 아동들을 위한 권리를 찾기 위해 앞장선다고 생각하니 뿌듯했다.		
제출일	2018년 11월 5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남권	아동 성명	이○○
활동 주제	농 권리 설문조사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		
활동 내용	우리에게 필요한 농 장소와 농 거리 등을 생각하면서 농기에 적합한 장소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했으면 하는 점을 직접 얘기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지 생각하고 회의 농 권리 설문조사를 직접 해봄 주변사람들에 설문조사를 부탁하여 의견을 모음		
결과물	우리가 농 권리에 대해 바라는 의견을 전달		
활동 평가	아동들이 원하는 농 권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뜻깊었다. 아동들이 원하는 농 장소 농 거리 등을 직접 알아보고 아동들을 위해 농 권리를 좀 더 개선한다는 것이 정말 좋았다.		
제출일	2018년 11월 5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남권	아동 성명	윤○○
활동 주제	농 권리 설문조사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		
활동 내용	총 20개의 농 권리 설문지를 통해 9월 17~18일까지 반 친구들에게 설문활동을 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하기 전 친구들에게 설문지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한 문항도 빠뜨리지 않고 설문지를 작성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11월 3일에 월드컵전에서 주최하는 농데이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체험활동을 하였다.		
결과물	아동 20명이 모두 농 권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농데이 페스티벌에 온 학생들에게 아동에게는 농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었다. 또한 농데이 페스티벌에 온 학생들에게는 하루동안 놀 수 있는 날이 주어졌다.		
활동 평가	농 권리 설문조사를 통해서 반 친구들이 아동의 농 권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에 아동의 농 권리를 홍보하는데 매우 좋은 활동이었다. 그리고 11월 3일에 진행된 아동청소년을 위한 체험활동에 대해서 많은 아동들이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농데이 페스티벌 또한 성공적이었고 홍보에 좋은 활동이었다.		
제출일	2018년 11월 9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남권	아동 성명	조○○
활동 주제	농 권리 설문조사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		
활동 내용	10월 13일 저녁에 학원과 집에서 친구와 동생에게 설문지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광주가 태도시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라 설명을 해주었고 이 설문지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으로 인해 청소년의 농권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다른 설문지들은 한 초등학교에 친척이 있어 어떤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지 간단히 설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부탁했다. 그리고 10월 20일 광주광역시 운전저수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농 권리 가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고 나는 체험부스를 담당했다. 그리고 11월 3일 영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월드컵전에서 진행하는 아동권리축제에서 농 권리 캠페인에 참여했고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위원회 친구들과 설문지와 서명지를 들고 홍보를 하며 참여를 유도했다.		
결과물	부스 안이나 주변에서 홍보 했을 경우보다 돌아다니면서 참여를 유도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주었다. 사람들에게 설문을 하는 목적을 설명해주지 않고 설문지나 서명지를 하도록 유도할때보다 짧게라도 설명을 해주니 더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었다.		
활동 평가	설문지를 안에서만 할 때보다 돌아다니면서 참여를 유도하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주변 사람들도 모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활동을 할때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출일	2018년 11월 10일		

전남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남권	아동 성명	차○○
활동 주제	놀 권리		
활동 내용	2018년 10월 1일~ 12일에 같은 반 친구 또는 친인척을 대상으로 놀권리 설문지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활동하기 전에 친구들에게 설문지 목적에 대해 알려주고, 한 문항도 빠트리지 신중하게 작성하도록 알려주었다.		
결과물	10월 20일, 11월 3일 놀권리 가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다. 10월 20일 광주광역시 운전저수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놀 권리 가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고 나는 체험부스(또는 서명운동)를 담당했다. 11월 3일 영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월드컵전에서 진행되는 아동권리축제에서 놀 권리 캠페인에 참여했고 나는 참여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체험활동 또는 서명운동을 담당했다.		
활동 평가			
제출일	2018년 11월 9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남권	아동 성명	한○○
활동 주제	놀 권리 설문조사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		
활동 내용	11월 3일 영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월드컵에서 진행되는 아동권리 축제에서 놀권리 캠페인에 참여했고, 나는 베품시장에서 아동들에게 필요한 물건 등을 팔아 기부함에 판 돈을 넣었다.		
결과물	물건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싸게 물건을 팔아, 물건을 팔아가서 기부한 나와 물건을 싸게 산 아동들 둘 다 만족했다.		
활동 평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필요한 아동에게 팔아서 둘 다 만족을 해서 좋았고, 많은 아동들이 참여해 많은 아동들이 만족하고, 즐거워해 아동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다음번에 축제를 또 할 때는 많은 아동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제출일	2018년 11월 5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남권	아동 성명	채○○
활동 주제	놀 권리 설문조사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		
활동 내용	2018년 10월 -놀권리 설문지조사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아침독서시간에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줘 조사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놀권리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니 장난으로 하지말고 신중하게 해주길 부탁했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여 협조해줘서 기뻐했습니다. 2018년 11월 -효관초 베품시장 작아져 입지 못하는 옷과 장난감을 가져다 500원에 팔았습니다 다 팔고 9000원 벌여 저의 용돈을 조금 더 넣어 지진피해아동을 위해 성공했습니다.		
결과물	설문지 조사 효관초 베품시장 참여(지진피해 성금모금)		
활동 평가	알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 내 힘으로 물건을 팔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출일	2018년 11월 5일		

전북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북 정읍시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개별주제) 아동의 보호권		
현황 및 실태	<p>주변 아동들에게 아동의 보호에 관한 동영상인터뷰를 진행한 결과</p> <p>(1) 아동의 정확한 범위와 보호권에 관한 정의를 알지 못하고 있다</p> <p>(2,3) 유지원의 아동 폭력과 같은 아동 인권 침해 사례를 비롯해서 아동의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후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선생님이어야한다." "심리적으로 고통 받는 교사를 위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p> <p>(4) 아동의 보호권을 침해하는 자(가해자)중 심한 수준의 행위에는 지금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문제점	현재 아동의 보호권에 대한 정의를 아는 아동이 매우 적고 아동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질문했을 때, 자주 생각해보기 않은 질문이라 답한 아동이 몇몇 있었다.		
제안 내용	<p>아동들에게 아동의 보호권에 대한 설명을 조금이라도 해줬을 때 아동은 자신의 인권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직접적인 폭행, 정신적 피해, 유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을 내는 모습을 보인다.</p> <p>즉, 아동들에게 아동 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환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캠페인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어른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동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p>		
제출일	2018년 11월 11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북권역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보호권		
현황 및 실태	<p>여러 학생들이 아동의 범위와 아동의 보호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구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아동이자 청소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아동(청소년)이 어른 세대와 달리 외모가 빨리 성숙해져서 담배와 술을 쉽게 접근 가능해졌다. 학교 등교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학교 밖으로 담배를 많이 피운다.</p>		
문제점	점주가 중 고등학생들의 외모로 인해 20대로 오해받아 술이나 담배를 팔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학생들이 아동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어 아동의 정당한 권리를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피해받을 상황만 초래함		
제안 내용	<p>1.유연 권리연락을 소개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아동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한다.</p> <p>2.아동의 보호권에 관한 헌법 조문과 법 등을 소개하고 퀴즈를 통해 아동의 보호권을 자세히 생각할 수 있다</p> <p>3.자신의 지역에서 학생들에게 아동의 보호권과 유지원 아동폭력 사태에 대한 인터뷰 실시</p> <p>4. 신분증 검사 강화</p>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북권역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우리를 지켜주는 아동 보호권		
현황 및 실태	<p>1.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및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 -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CCTV 설치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실시의 확대 <p>2. 아동 보호권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꽃"이 될 아동에게 그들이 뜻을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 - 아동학대 등 아동 표적 범죄들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문제점	아동의 보호권을 지키기 위한 많은 제도적 노력에 비해 보호권은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음.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의 한계로, 위험한 곳일에도 CCTV 등의 안전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음.		
제안 내용	<p>1. 아동의 보호권에 대해 아동들에게 알리는 교육의 기회 만들기.</p> <p>1. 아동 표적 범죄의 처벌 수위 강화, 범죄의 재발 막기.</p> <p>1. 어린이 보호구역의 전체적인 확대.</p> <p>1. 아동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돕기.</p> <p>1. 아동 보호권에 대해 잊지 않도록 꾸준히 알리기.</p>		
제출일	2018년 10월 29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북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권역별 주제) 아동의 보호권		
현황 및 실태	<p>아동의 보호권에 관련된 인터뷰 진행</p> <p>대부분의 친구들이 보호권을 잘 몰랐고 아동의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동의 보호권을 침해한 가해자의 처벌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하였다.</p>		
문제점	아동의 보호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함		
제안 내용	보호권에 관한 캠페인, 교육 등을 강화한다.		
제출일	2018년 11월 3일		

전북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북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보호권		
현황 및 상태	아동의 보호권 인식에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상당수의 아이가 보호권 개념 자체를 몰랐고, 아동의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동의 보호권을 침해한 가해자의 처벌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대답했다.		
문제점	아동의 보호권에 대한 무지 정부, 사회를 향해 적극적인 요구 부족		
제안 내용	보호권에 관한 캠페인, 교육 등을 강화한다. 아동들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시 정부에 직접 상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제출일	2018년 11월 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북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보호권		
현황 및 상태	아이들이 보호권에 대해 들어본 경우는 많았으며, 자세히 아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보호권에 대해 자세히 모르다 보니 지키기가 힘든 것 같았다.		
문제점	보호권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배울 기회가 없어서 보호권이 무엇인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제안 내용	부스를 운영하여 보호권에 대해 의견도 자유롭게 받아보고, 읽어볼 수 있게 설명이 적힌 보드판도 준비했다. 또한, 간단한 퀴즈를 통하여 보호권이란 것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제출일	2018년 10월 31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북(전주)	아동 성명	박○○
활동 주제	우리는 보호받고 있을까?		
현황 및 상태	나는 나에게 물었다. "우리는 보호받으며 살아가나?"라고 그 대답은 "어느 정도?"라는 대답이었다.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호에 대한 것에 무관심할 때가 많다.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보호라는 의미가 방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은 즉 사람들은 보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여 익산 청소년 문화의 집에 모여 10월 27일에 캠페인을 하였다.		
문제점	1. 사람들이 보호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함. 2. 보호에 대해서 자세히 알 기회가 많지 않음. 3. 우리가 보호(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함.		
제안 내용	앞으로 사람들에게 보호(권)을 알릴 수 있도록 캠페인이나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출일	2018년 10월 30일		

월간 활동보고서 (권역별)

권역	전북	아동 성명	양○○
활동 주제	아동의 보호권		
현황 및 상태	최근 전주시에 옐로카펫이라는 어린이의 통학 길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하지만, 가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설이나 정책은 늘어날 기미가 없음. 아동의 학업 부담증진으로 인해 귀가 시간이 늦어짐.		
문제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아동의 범위가 매우 좁음. 가을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좋지 않음.		
제안 내용	10월 27일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부스운영을 통해 아동의 범위를 이해하기 쉽게 OX 퀴즈로 아동의 범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 가을 청소년의 이야기를 더욱 퍼뜨릴 수 있는 공익광고 또는 영화, 드라마가 제작되었으면 함.		
제출일	2018년 10월 30일		

전북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북	아동 성명	홍○○
활동 주제	보호권		
현황 및 상태	아동의 보호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교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의 한 장애 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도 있다.		
문제점	아동의 보호권에 대한 인식 부족		
제안 내용	1. 보호권을 사람들에게 캠페인을 통해 알린다.		
제출일	2018년 11월 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북	아동 성명	유○○
활동 주제	아동의 보호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황 및 상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호권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보호권, 아동의 범위에 대해서 모르고 있음 아동 폭력 등 아동과 관련된 범죄들을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문제라고 인지하고 있음 아동 범죄의 처벌 형량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해결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음 피해자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더욱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법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문제점	1. 보호권, 아동의 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2. 아동대상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가 약함 3. 낮은 처벌 수위로 아동대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4. 정부의 해결능력에 불만족(ex.유지위 비리) 5. 피해자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더욱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법		
제안 내용	1. 보호권, 아동의 범위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및 홍보 2. 처벌 수위 강화 3.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 조항의 개정 및 철폐가 절실함		
제출일	2018년 10월 30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북권역	아동 성명	임 ○○
활동 주제	아동의 보호권		
현황 및 상태	아동의 보호권이란 아동의 권리 중 하나로 아동이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아동의 보호권을 주제로 아동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아동들이 보호권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였다.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다.		
문제점	아동들이 보호권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어른들도 보호권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		
제안 내용	1. 보호권에 대해 진중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야 한다. 2. 보호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30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북권역	아동 성명	임○○
활동 주제	보호권에 대하여		
현황 및 상태	최근에 인터넷과 뉴스에는 한 폭력에 관한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 제목은 "담양교사가 장애학생 상습폭행...특수학교 또 학대 논란"이라는 기사이다. 장애 2명을 5~7일사이에 12차례 폭행을 했다고 기사에는 나와 있다. 아무리 장애인이 잘못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폭행하는 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교사는 아동을 가리키면서 아동을 보호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교사가..... 잘못하는 장애인을 질타하다.		
문제점	8월 활동보고서에 쓴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동에 대해 관심은 높으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는 지극히 낮다.		
제안 내용	10월 27일에 익산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되는 축제에 우리 전북권역 단원들이 부스활동을 통해 익산 청소년들이 아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UN아동협약권리와 나옴엔 아동은-이다와 피해 아동을 보고 정부에게 하고 싶은말 같은 것을 포스트잇 붙이기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제출일	2018년 10월 24일		

전북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북	아동 성명	최○○
활동 주제	보호권		
현황 및 실태	최근에 뉴스화된 이후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 있어서 아동의 보호권 침해사례에 대해 많이 알려져 있음. 하지만 지속적으로 보호권 침해사례가 발생함.		
문제점	정부적 자원에서 CCTV설치 의무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호권 침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 동영상 제작- 인터뷰참고- - 제안: 보호권 침해사례에 대한 처벌법 강화 필요 		
제출일	2018년 11월 0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북	아동 성명	황○○
활동 주제	아동의 보호권		
현황 및 실태	<p>아동의 보호권 : 차별, 학대, 폭력,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p> <p>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으로 인한 불안한 가정환경, 힘든 학교생활, 불안하지 않은 교우관계로 인해 아동은 신고로 인해 벗어날 수 있었지만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폭염이 극심했던 날 인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냉방기구를 틀어주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고 폭염, 아동의 팔을 잡아끄는 등의 아동학대가 CCTV에 목격되었다. - 23개월 아동에게 폭행을 가해 소장파일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 <p>현재 훈육을 한답시고 보호권을 지키지 않은 채 아동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하고 있다.</p>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행을 한 어린이집이나 당사자는 훈육의 일부였으며 자신의 폭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동에게 폭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아동의 보호권에 대한 정확한 뜻은 잘 모르고 있다. 		
제안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학대의 처벌 수위 강화 2. 아동의 보호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꾸준한 교육과 홍보 3. 아동이 자주 다니는 학교, 어린이집 등 이외에 아동들이 잘 다니는 놀이터 등 많은 곳에 CCTV 설치 확대 		
제출일	2018년 11월 3일		

전북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북 정읍시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공통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주변 아동들에게 평소 노는 환경에 관한 동영상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1,2)평균적으로 하루에 2~3시간 정도 휴대폰을 하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는 식으로 노는다고 답했다. (3)3~5시간 정도 노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고 답했다. (4)평소 학교 갔다가 학원에 가고 주말에도 학원이나 숙제 등을 하느라 바빠서 노는다고 하는 것이 참한 휴대폰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아동(특히, 초등학생)이 안심하고 즐겁게 놀만한 한 장소가 마땅히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문제점	평소 학업량이 많다 보니 밖에서 오랫동안 놀지 못하고 누워서 휴대폰만 보거나 가만히 앉아서 노는 게 전부이다. 즉, 일부 아동(고등학생)은 시간이 부족하고 다른 일부 아동(초등학생 이하 등)은 활동적으로 놀만한 공간이 부족하다.		
제안 내용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을 기준으로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놀 수 있는 체육관이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프로그램과 캠프활동 등을 주최할 안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집 밖에서 뛰놀 수 있을 만한 건전한 행사 등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출일	2018년 11월 14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북권역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놀 권리 (우리도 쉬어야 한다.)		
현황 및 실태	대부분 아동들의 평일에는 학교수업과 학원수업으로 인해 노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 평일에 놀 수 있는 아동들은 대부분을 PC방이나 노래방에서 즐기면 여가공간이 부족하여 제대로 놀 수 없다. 주말에도 아동들은 학원수업을 들으며 놀 시간이 부족하다. 아무리 노는다고 해도 주말에는 PC방과 노래방은 가득 차 제대로 여가 생활을 즐길 수가 없다. 여가 공간이 있다고 해도 공간이 사람이 잘 다니지 않고 교통도 그렇게 잘 되어있는 편이 아니다		
문제점	1. 규칙적인 생활로 인한 놀 시간 부족 2. 획일적인 여가 공간 3. 도심과의 여가 공간의 큰 거리 차와 교통 취약		
제안 내용	1.학생들에게 노는 시간과 무엇을 하고 노는지에 대한 인터뷰 2.익산 지역 학생들에게 노는 시간과 시청 도는 도정에 필요한 것을 글을 작성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북권역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아동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권리)		
현황 및 실태	모든 아동들에게 지켜져야 하는 보편적 권리인 '놀 권리' - 요즘 학업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학생들에게는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시간 조차 부족함. - 아동 설문조사 결과, 본인들은 현재 충분한 시간 동안 놀고 있지 않으며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답변함. 대부분 자신이 놀지 못하는 이유는 학업 때문이라고 생각함. - 다양한 문화 시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만화카페, 영화관, 도서관 등) - 놀이 문화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비판의 시선을 변화시키기에 역부족.		
문제점	놀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		
제안 내용	1.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 어른들에게도 올바른 정보 제공. - 아동의 놀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도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함. 2. 아동, 혹은 청소년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 술, 담배 등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적으며 편히 이용할 수 있음. 3. 놀 권리에 대한 홍보와 꾸준한 캠페인 실시.		
제출일	2018년 10월 29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북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놀권리		
현황 및 실태	아동들은 놀 시간이 부족하고 뭘 하고 놀아야 할지도 모름. 적정 놀이시간 시간은 대부분 세시간 정도였음. 필요한 놀이시설은 만화방 등이 있었음.		
문제점	학업으로 인한 놀 시간, 놀이시간 부족		
제안 내용	아동이 놀기 좋은 안전한 환경 조성 놀이시간 부족과 과도하게 경쟁적인 교육 현실 개선		
제출일	2018년 11월 3일		

전북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북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아동들은 무엇을 하고 놀아야 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을 놀지 못함 여가 시간에 이용하고 싶어하는 장소가 부족함		
문제점	학업으로 인한 놀 시간 부족 아동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적어, 놀 장소 배치 부족		
제안 내용	아동이 놀기 좋은 안전한 환경 조성 놀이 시간 부족과 과도하게 경쟁적인 교육 현실 개선		
제출일	2018년 11월 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북(전주)	아동 성명	박○○
활동 주제	우리의 놀 권리는 어디에?		
현황 및 실태	10월에는 중간고사가 있다. 그래서 나는 맘 놓고 편히 놀지 못했다. 지금도 그런 것 같다. 중학생 때는 놀아도 시간 가는 줄만 알았지 압박감이나 불안함이 없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나에게는 놀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이 항상 있다. 전체지역 교육감이신 김승환 교육감님은 자유를 강조하신다. 그래서 전북교육에 자율학습을 고집하신다. 그러나 요즘은 자율학습이 더 힘들고 우체감하다는 것을 느꼈다.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맞고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맞지만 한국교육의 문제점인 임시문제에 고등학생인 나는 매일 힘들게 살아간다. 학원도 다니지 않는 나에게. 다른 친구들 역시 그렇다.		
문제점	1. 놀 권리를 정취하려 하면서도 한국교육시스템 앞에 무릎 꿇는 나의 잘못 2. 짧은 시간 안에 큰 변화를 바란 나의 잘못 3. 사교육으로 인한 놀 권리 박탈		
제안 내용	빠른 시일 내에 저그마한 변화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우리 학생들에게 놀 권리를 실현할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제출일	2018년 10월 30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북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아이들이 충분히 쉬고 놀 시간이 많지 않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아이들은 원하는 놀이시설과 놀이가 많았지만, 학원이나 학업, 부모님의 잔소리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점	아이들은 현재 자신들이 놀고 싶 여유가 없는 것에 대해 별 느낌 없이 당연하게 느끼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놀 권리에 대하여 큰소리를 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놀 권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제안 내용	부스를 운영하여 놀 권리에 대해 의견과 원하는 시설들을 자유롭게 받아보고, 놀 권리에 관한 설명을 읽어볼 수 있게 설명이 적힌 보드판도 준비했다. 또한, 간단한 퀴즈를 통하여 놀 권리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제출일	2018년 10월 31일		

월간 활동보고서 (공통주제)

권역	전북	아동 성명	양○○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아동들이 자신들의 놀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인터뷰 진행 → 모르는 아동, 원하는 시간만큼 놀지 못하는 아동이 대다수임.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기회가 부족함. 학업.		
문제점	아동이 자신의 놀 권리를 담면서 여기지 못함.		
제안 내용	아동이 더욱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놀 권리에 접근할 수 있는 시설 또는 환경 필요. 완주군 고산의 경우 아동들이 주로 다니는 학원가 앞에 청소년 센터를 설립. 학업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노래방, 영화, 보드게임 등을 비치해 놀 권리를 조금이나마 보장해주고 있음.		
제출일	2018년 10월 30일		

전북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북	아동 성명	왕○○
활동 주제	놀이 권리		
현황 및 실태	교육제도 내외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입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제대로 놀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음. 또 설명 시간이 있다고 해도 아동들이 놀 공간이 많지 않음.		
문제점	한국의 교육제도 내외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극심한 경쟁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제안 내용	1. 동영상 인터뷰 1. 아이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시설 마련		
제출일	2018년 11월 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북권역	아동 성명	임 ○○
활동 주제	놀이 권리에 대하여		
현황 및 실태	아동의 놀 권리는 아동은 여가생활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누릴 수 있으며 모든 아동에게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지켜주는 권리이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 31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놀 권리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놀 권리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역시나 놀 권리에 대해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점	저번 캠페인 때와 마찬가지로 아동들이 놀 권리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고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들에게 충분한 안내가 안되고 있다.		
제안 내용	1. 공공기관 등에서 놀 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2. 아동이 놀 공간을 마련해준다.		
제출일	2018년 10월 30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북	아동 성명	유○○
활동 주제	놀이권리를 찾자		
현황 및 실태	친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 평일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업에 의하여 집에 오는 시간이 10시 이후여서 개인시간을 가질 수 없다고 응답했다. 주말에 개인시간을 가질 수 있더라도 마땅히 놀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PC방 or 유튜브 영상 시청으로 나타났다. 놀이 위해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청소년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제점	1.학업에 얽매인 청소년들 2.놀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3.놀이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이 되는 청소년들이 있음		
제안 내용	1.법 or 조례로 정규교과 이외의 학습활동의 자율성을 보장(ex.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2.놀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기획		
제출일	2018년 10월 30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북권역	아동 성명	임 ○○
활동 주제	놀이 권리에 대하여		
현황 및 실태	10월 중에 친구 한명한테 인터뷰를 통해서 놀 권리에 대해 물어왔다. 1.하루에 몇 시간 노는가? 2.보통 뭐하고 노는가? 3.몇시간 노는게 적당한가? 4. 놀지 못하는 이유와 어떤시설&환경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친구의 말을 요약해서 말하지만 주말에는 적당하게 노는데 평일에는 학업으로 인해서 놀 상황이 안된다고 답을 했다. 아직까지도 이 사회에는 공부 아니면 공부 없더라는 이야기를 하신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공부없인 안되는 것처럼 공부에 욕심을 겹쳐야 되나 싶기도 하다.		
문제점	학업으로 인해서 놀 권리 자체가 사라지게 된 아동! 그로 인해서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얻게 된 대한민국!		
제안 내용	1. 학교고사제 폐지 또는 변경 2. 아이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시설 마련 3. 아동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마련		
제출일	2018년 10월 24일		

전북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북	아동 성명	최○○
활동 주제	놀 권리		
현황 및 상태	고등학생들의 경우 학교의 반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과 학원으로 인해 놀 권리가 많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본인들이 자각은 하고 있으나 당연하게 보고 해오던 거라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의지가 생기지 않았음		
문제점	'야간자율'학습이 선생님들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행해지고 있음. 수험생이라는 주변의 압박 때문에 아동들이 자신의 놀 권리를 지켜달라는 목소리를 내지 못함		
제안 내용	학생들과 선생님이 서로 의견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전반적인 부분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		
제출일	2018년 11월 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전북	아동 성명	황○○
활동 주제	놀 권리		
현황 및 상태	아동에게 꼭 지켜져야 하는 놀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현재 우리 아동은 많은 학업량(학원,공부) 등으로 놀 권리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지난 2016년도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 중 22등으로 골등을 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많은 학업량으로 인해 놀지 못하는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있다는 말이다. -또한 평일 주 5일에 5시간도 못노는 아동들도 많다.		
문제점	OECD회원국에서 행복지수 꼴등 할 만큼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은 현재 지나친 학업량으로 자살률도 1위를 하고 있다.		
제안 내용	1. 어른들은 아동들의 놀 권리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2. 숙,담배 등 미성년자는 해서는 안되는 것을 배우지 않도록 아동들이 올바르게 놀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준다.		
제출일	2018년 11월 3일		

제주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제주	아동 성명	강○○
활동 주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학교폭력 이제 그만)		
현황 및 실태	서귀포 지역 아동들에게 스티커로 부착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및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라는 질문에서는 아무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들을 본다면 방관자가 아닌 대부분이 고발자로 신고를 한다고 하였음, 본인이 학교폭력을 당하게 된다면 신고를 하거나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린다고 답변하였다. 아동들이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거의 알고 있다는고는 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 폭력의 사례와 더불어 우리가 침해를 당했을 땐 두렵거나, 잘 모르겠다는 반응의 답변이 있었다.		
문제점	실태조사 및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아동들의 솔직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게 아쉬웠다.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땐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하며, 아동들의 보호과 인권의 피해를 없애야 한다.		
제안 내용	아동인권을 알리고 아동의 보호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를 정부에서 마련한다. 캠페인과 교육을 계속 진행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제주	아동 성명	고○○
활동 주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학교폭력 이제 그만)		
현황 및 실태	지역 아동들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전부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그리고 만약 학교폭력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20.5명이 고발자, 2.5명이 방관자를 택하였다. 만약 자신이 당한다면? 의 질문에는 과반수 이상이 신고한다고 했다. 아동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인권침해 대한 인터뷰 질문은 잘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문제점	더 이상 아동의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다. 어떤 이유든지 모르는 척하고 방관해서는 안된다.		
제안 내용	아동권리를 알리는 캠페인 활동, 학교와 가정 등에서 아동권리 교육을 진행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제주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학교폭력 이제 그만)		
현황 및 실태	서귀포 시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스티커 조사로 진행했다. 1.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라는 질문에 23명이 아니요 라고만 답을 하였다. 그렇다는 한명도 없었다. 2. 만약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들을 본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라는 질문에는 고발자 20.5명, 방관자 2.5명으로 답하였다. 3. 만약 본인이 학교폭력을 당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신고가 16명,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린다가 9명이라고 답하였다. 4. 아동이 보호 받을 권리에 대해 알고 있는가? 언다가 21명, 모른다가 1명이라고 답하였다. 인터뷰 형식의 질문으로 프스트잇에 적어보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라는 물음에 방관자가 되지 않고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경찰서 등에 신고하거나 주변인에게 알린다, 평소애 아동인권에 관심을 기울이며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답하였다.		
문제점	학교폭력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주변에 알려거나 요청을 해야한다. 피해당한 사실을 숨기지 않아야 한다.		
제안 내용	아동의 폭력 실태 조사등을 더욱 역명 보장과 신뢰를 할 수 있는 캠페인 및 조사활동을 하고, 학교폭력의 피해로 보면 방관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한다. 법과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제주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학교폭력 이제 그만)		
현황 및 실태	아동들의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Q.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1.학교폭력을 목격하면 경찰서 등에 신고하거나 주변인에게 알린다. 2.평소에 아동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며,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한다. Q. 만약 본인이 학교폭력을 당한다면 어떻게 행동 할 것인가? A: 신고(16),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림(9), 알리지 않음(0)		
문제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제대로 된 피해조사나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또한 아직까지도 학교폭력을 모르는 척하는 방관자들이 많은 것 같다.		
제안 내용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더욱 꾸준히 진행한다. 만약 학교폭력이 발생 했을 시를 대비하여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기관 및 학교의 적극 도움, 학교 친구들이 방관을 막고 신고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제주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제주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학교폭력 피해 그만)		
현황 및 실태	학교폭력 실태조사(스티커) 캠페인을 한 결과,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당한 경험이 없다는 답이 많았고, 만약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들을 본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고발자가 20.5명, 방관자는 2.5명이 나왔다. 만약 학교폭력을 당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16명이 신고한다고 답변하였고, 9명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린다고 하였다.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를 알고 있는지? 에 대한 질문에 21명이 알고 있다고 하였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인터뷰 질문에 일단 먼저 신고를 해야 하고, 평소에도 아동인권에 관심을 기울이며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문제점	사회에서 인권중중, 학교폭력 없는 학교, 인권의 필요성을 더 알리는 데 힘쓰지 않는 것 같다. 방관자가 없도록 모두가 힘써야 한다.		
제안 내용	아동인권전문가를 통한 아동인권 보호 교육 등을 진행한다. 'LENS'와 같은 활동을 꾸준히 하고 아동인권 보호 캠페인 활동을 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오○○
활동 주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학교폭력 피해 그만)		
현황 및 실태	학교폭력 실태조사(스티커) 캠페인을 했다.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라는 질문에는 모두가 '아니요'라고 답변을 했고, 만약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20.5명이 고발할 것이라고 하였고, 2.5명은 방관한다고 답을 하였다. 만약 학교폭력을 당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16명이 신고, 9명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린다고 하였다.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를 알고 있는지? 에 대한 질문에 21명이 알고 있었으며,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에는 일단 먼저 신고를 해야 하고, 평소에도 아동인권에 관심을 기울이며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문제점	아동들이 학교폭력을 가까이에서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없지 않아 발생할 경우가 크고, 일이 발생 되기 전에 스스로의 권리를 누리고 찾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이 현실에서는 많이 부족하다.		
제안 내용	아동들에게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캠페인 등을 해서 아동의 권리, 보호 활동과 교육을 꾸준히 해야 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제주	아동 성명	박○○
활동 주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학교폭력 피해 그만)		
현황 및 실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태조사 결과 아동들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 많았고, 만약 학교폭력을 목격한다면? 이 질문에 고발자, 대체로 신고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아동이 대부분은 보호받을 권리를 알고 있었으며, 학교폭력으로 자유로워지고 아동이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힘쓰겠다고 하였다.		
문제점	평소에 알게 모르게 아동 학교폭력 피해는 많다. 인권을 존중하는 아동들이 적다.		
제안 내용	아동인권 보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를 정부에서 마련하고, 학교폭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예방 교육과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문화를 활성화 시킨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윤○○
활동 주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학교폭력 피해 그만)		
현황 및 실태	서귀포 시내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캠페인을 실시했다.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는 질문에 응답자 모두가 NO라고 답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경우 고발자or방관자?'라는 질문에서는 20.5명이 고발하겠다고, 2.5명이 모른척하겠다고 답했다. '만약 본인이 학교폭력을 당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질문에는 16명이 신고, 9명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린다고 답했는데, 중복응답을 한 친구들도 더러 있었다.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21명, 모르는 사람은 1명이 답하였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라는 질문은 인터뷰 형식으로 해서 포스트잇에 적어서 답변을 받았는데, 정리한 결과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린다, 학교폭력 교육을 구체적으로 강회시키고 평소에도 주변 환경과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고 조심해야 하는 당부가 필요한 것처럼 보였다.		
문제점	학교폭력을 당했는데도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쉽게 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도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교육을 할 때도 몇몇 아이들은 너무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자거나 대응 중는다. 학교폭력의 경우, 그 범위가 더욱 커지면서 방관자들이 있는것도 문제이다.		
제안 내용	1. 아동의 보호와 인권, 학교폭력 교육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출지 않고 집중할 수 있게 교육방식을 바꾸고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을 운영한다. 2. 가정에서 아동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인권과 학교폭력의 종류 등을 알려주고, 폭력을 가해서는 절대 안되고 만약 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잘 알려준다. 3. 한적한 곳에, 학교폭력이 있었던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한다. 4. 학교폭력 가해의 경우, 받는 처벌을 감형시키지 않고, 제대로 받게 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제주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임○○
활동 주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학교폭력 이체 그만)		
현황 및 실태	아동인권 학교폭력 인권 보호 스티커 설문 캠페인 결과 Q.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라는 질문에 100%가 NO라 대답하였고,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본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3명 빼고 모두 고발한다고 답변하였다. Q. 본인이 폭력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 할 거냐는 질문에 신고/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린다는 답변이 많았다.		
문제점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들을 본다면 어떻게 대처 할까? 라는 질문에 3명이 방관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제안 내용	학교폭력을 당하기 전에 인권문제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친구 관계나 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조율하도록 한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정○○
활동 주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학교폭력 이체 그만)		
현황 및 실태	10월 28일 서귀포 시내에서 학교폭력 실태 스티커 조사와 캠페인을 했다. 아동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응답자 모두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의 질문에서는 20.5명이 고발하겠다고. 2.5명이 모른척하겠다고 라고 답했다. 만약 본인이 학교폭력을 당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질문에는 16명이 신고한다, 9명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림이라고 답했는데, 중복응답한 아동도 있었다.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서 알고있는 사람은 21명, 모르는 사람은 1명이라고 답하였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 라는 질문은 인터뷰 형식으로 포스트잇에 적도록 해서 답변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린다고 하였으며, 학교폭력 교육을 구체적으로 강화시키고 아동의 인권은 보장받아야하며, 평소에도 주변 환경과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문제점	아동들의 학업 스트레스 정서적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서 학교폭력, 아동의 인권 침해와 같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다.		
제안 내용	학교폭력예방 교육과 아동 개인 상담 프로그램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 아동이 지켜낼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전○○
활동 주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학교폭력 이체 그만)		
현황 및 실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했다. Q.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YES :0. NO: 23 Q.만약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들을 본다면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방관자: 2.5 고발자:20.5 Q.만약 본인이 학교폭력을 당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신고:16.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림:9 Q.아동이 보호 받을 권리에 대해 알고 있는가? YES:21. NO:1 Q.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학교폭력을 목격하면 경찰서 등에 신고하거나 주변인에게 알린다. 2. 평소에도 아동인권에 관심을 기울이며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한다.		
문제점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들을 보면 방관을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를 모르는 사람이 행여하지만 실태로는 보호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제안 내용	정부나 교육부에서 아동인권교육을 전국 학교에서 실시한다. UCC제작 활동과 학교폭력과 인권침해와 관련한 조사와 아동인권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 활동을 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조○○
활동 주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학교폭력 이체 그만)		
현황 및 실태	학교폭력 실태 스티커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은 없었으며, 만약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들을 본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고발자 20.5명, 방관자 2.5명으로 고발자가 방관자보다 많은 수치가 나타났다. 또한 만약 본인이 학교폭력을 당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신고가 14명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린다가 7명 중복선택이 2명으로 결과 나왔다.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 알고있는가? 질문에 YES가 21명, NO 1명, 무응답 1명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질문에 평소에도 아동인권에 관심을 기울이며 권리를 알리는 활동을 해야한다는 등의 답변이 나왔다.		
문제점	학교폭력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아동의 피해, 아동의 인권 침해 등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다. 방관자가 많아져서는 안된다.		
제안 내용	학교에서 아동인권 학교폭력 사례를 바탕으로 가해자, 방관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행한다. 학교폭력예방 활동으로 글짓기 관련 행사, 프로그램 개최한다. 아동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활동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제주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제주	아동 성명	한○○
활동 주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학교폭력 이체 그만)		
현황 및 상태	학교 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학교 폭력을 당한 아동은 딱히 없었다. 그런데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에 대부분이 고발자였지만 2명은 방관자 1명은 둘중 두 개 다를 선택했다. 학교 폭력을 발견했을 때, 신고나 부모님 또는 선생님께 알린다고 모두가 답변했고, 아동이 보호 받을 권리에 대해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알고 있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을 보면 신고하고 가까운 사람의 권리를 지켜준다는 답변이 나왔다.		
문제점	학교폭력을 목격하였을 때, 2명은 방관자가 된다고 하였고, 1명은 방관자와 고발자를 둘다 선택했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었다. 아동을 보호받을 권리를 모른다는 답변이 나왔다.		
제안 내용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며,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아동이 많아져야 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제주	아동 성명	한○○
활동 주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학교폭력 이체 그만)		
현황 및 상태	학교폭력 실태조사(스티커) 캠페인을 한 결과,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을 때, 모두가 당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또한 만약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들을 본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20.5명이 고발할 것이라고 하였고, 2.5명은 방관한다고 하였다. 만약 학교폭력을 당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16명이 신고한다고 답변하였고, 9명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린다고 하였다.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를 알고 있는지? 에 대한 질문에 21명이 알고 있다고 하였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해결방안은 일단 먼저 신고를 해야 하고, 평소 애 아동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며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문제점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잘 알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아직까지도 방관하려는 사람들은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제안 내용	1.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자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방법을 잘 알려줄 수 있도록 교육한다. 2. 방관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학교폭력 신고자를 잘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실천한다. 3. 학교에서 가정에서 아동의 보호 권리 홍보 교육을 실시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제주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제주	아동 성명	강○○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서귀포 일호광장일대와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놀 권리에 대한 캠페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아동)이 답변) 캠페인 인터뷰 1Q. 놀 권리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A. 아니요(아니요가 대부분임) 2Q. (놀 권리 설명) 놀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A. 필요하다(대부분).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 당연한 것이다. 놀 권리가 있어야 한다. 보장받아야 한다. 인권중 하나이다.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간, 시간이 필요하다. 당연히 누리야 하는데 누리지 못한다.		
문제점	아동들이 대부분 놀 권리에 대해 모르고 있다.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보였었으나 자신이 집에서 노는 것도 무엇을 해야 노는건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제안 내용	학교에서 일년에 한번이라도 놀 권리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방안을 마련한다.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LENS'와 같은 모니터링단이나 동아리가 더욱 많아져서 아동인권에 대한 활동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도록 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제주	아동 성명	고○○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아동에게는 다양한 권리가 주어진다. 그 중 하나는 '놀 권리'인데 놀 권리는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즐기며 놀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오늘 캠페인 설문조사(실태조사들) 하며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시간 정도 놀 수 있나" 고 질문을 하였는데 "많이 본다"는 아동의 답변을 듣는 순간, 사실 나는 마음속으로 비꼬기는커녕 "많이 놀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놀 권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질문을 하였을 때는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문제점	놀 권리를 잘 알고 누리야 하는데 놀 권리를 대부분 알지 못한다. 권리를 누리는 기회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제안 내용	학교 교과 교육이나 프로그램 활동 안에 아동인권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교육이 되어야 한다. 아동인권 놀 권리를 알리는 홍보 활동이 꾸준하게 필요하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제주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제주지역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단이 마지막 모임으로 놀 권리 캠페인 활동을 했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아동들이 놀 권리는 꼭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에겐 놀 권리가 당연히 있어야 하고 인권이 있으니 침해하면 안된다 등의 답변이 많았고, 아직도 놀 권리를 모르는 아동들이 있어서 놀 권리를 자세히 알려주는 활동을 하였다.		
문제점	한국사회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나아가 아동의 행복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아동들이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노는지 어른들은 알지 못한다.		
제안 내용	아동들이 살아가면서 인권인데 놀 권리가 있는지 모른다. 학교에서 놀 권리에 대한 교육을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의 놀 권리가 침해되면 안된다. 아동인권 인식 교육을 아동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제주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아동들의 놀 권리를 판넬에 적어 알리는 활동 캠페인을 하였다. 놀 권리는 왜 보장받아야 할까? 한국 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나아가 아동의 행복은 충분히 보장되어지지 않고 있다.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의무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 아동의 놀 권리를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문제점	아동의 놀 권리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다.		
제안 내용	학교에서는 교육을 통해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어른들도 '아동들은 우리들의 미래'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아동권리 보호, 관련 정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들이 직접 서명운동이나 청와대 청원등을 하는 것도 좋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제주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제주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아동을 대상으로 놀권리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놀권리를 안다는 답변이 나오기는 했지만, 모든 아동들은 놀권리를 다 안다고 할 수는 없다. 놀 수 있는 공간,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놀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아동이 많다.		
문제점	아동들이 놀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게임으로만 빠지는 아동들이 많아서 문제이다. 아동들이 행복하게 놀 수 있도록 공간과 시설 시간이 부족하다.		
제안 내용	아동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학교에서는 놀권리에 대해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 인권을 잘 보장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오○○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현재 많은 아동들은 아동의 놀권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아동들은 지금 충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당연히 누리야 할 권리, 스스로가 누리야 할 권리를 찾지 못한다.		
문제점	아동들이 아동의 놀권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른들에게 주장을 내세우지도 못하고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 없다.		
제안 내용	학교에서 찾아가는 인권교육 등을 진행,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이 청소년 기관에서도 다양하고 알찬 아동인권교육 및 인권 프로그램 활동을 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제주	아동 성명	박○○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10월 28일 3차 모임 아동의 놀권리 캠페인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다. 놀권리는 아동에게 꼭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이 나왔고, 아동의 놀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했을 때, '덜연하다. 필요하다. 보장되어야 한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아동들이 놀권리에 대해 알지만 누리지 못한다고 하였다.		
문제점	놀권리는 알지만 많은 아동들은 누리지 못하고 인식을 잘 하지 못한다.		
제안 내용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놀 시간을 정해준다. 아동들이 행복하게 노는 공간, 장소를 정부에서 마련한다. 놀권리 교육 및 캠페인을 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윤○○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아동 6명에게 놀권리에 대한 5가지 설문을 진행한 후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하였다. 1. 아동의 놀권리에 대해 알고 있나요? 예 : 2명, 아니요 : 4명 2. 하루에 내가 쓸 수 있는 여가 시간은? 1-2시간: 1명, 3-4시간: 2명, 4-5시간: 3명 3. 여가 시간이 남으면 주로 어디서 누구랑 보내나요? PC방: 3명, 운동장 : 3명 / 친구: 5명, 혼자: 1명 4. 일주일에 몇 번을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나요? 2번:1명, 5번:1명, 매일:4명 5. 나에게 고민이 있을 때 주로 누구와 고민을 나누나요? 안말함: 2명, 가족: 2명, 친구: 4명		
문제점	아동들이 놀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방해하는 요소가 많다. 게임 중독, 스마트폰 사용과 의존, 가족과의 대화단절(자존감이 낮아지고 외박, 가솔이 심해짐)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폭력적 성향이 짙어짐		
제안 내용	아동들이 놀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정부에서 투자하여 마련해준다. 임시 위주의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 건전한 놀이 운동, 스포츠활동을 통해 체력을 기르고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들의 놀이 오락, 문화 예술 활동 지원과 수업 없는 날로 지정하여 놀 수 있도록 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제주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임○○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아동의 놀권리를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놀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 인터뷰와 포스트잇에 의견을 작성을 해서 우드락에 부착하고 답변을 받았다. 아동들이 놀권리에 대해 매우 필요성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놀권리도 인권만큼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동에게 놀권리가 꼭 필요한 권리이다.		
문제점	캠페인 결과 놀권리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놀권리에 중요성은 잘 모른다고 하였다.		
제안 내용	놀권리가 인권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인식하도록 한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놀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장○○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서귀포 시내에서 아동의 놀권리에 대한 캠페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놀권리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을 했을 때 잘 모르겠다고 하며 어려움 겪는 반응을 보였다. 놀권리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놀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대부분은 아동에게 꼭 필요하며, 당연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야 한다고 하였다. 놀 시간, 쉼 시간이 없다고 답하였다.		
문제점	아동들이 대부분 놀권리를 자체로 인식하지 못한다. 인권교육을 받지도 인권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아동이 많다.		
제안 내용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LENS'처럼 아동이 직접 인권 활동과 모니터링, 캠페인을 하고, 인권 동아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아동의 인권, 놀권리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수업 과목으로 지정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전○○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아동들에게 놀권리에 대한 인터뷰 설문은 진행하였다. 첫 번째, 아동의 놀권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아동들에게 놀권리가 적용되는 걸 알고있나?)에 대한 질문에는 '알고 있다', '어느정도는 알고 있다.', '모른다'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두 번째, 아동의 놀권리를 위해 학교나 우리지역이 하는 노력이 '없다', '모르겠다'(어떤 학교에서는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거나 한 학시에 한 번 축제를 한다고 한다)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세 번째, 부모님께서 노는 걸 존중해 주시는가? '그냥 그렇다', '존중해 주신다', '아니다' 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네 번째 질문, 평균적으로 하루에 얼마나 노는가? '약4시간', '약3시간', '약30분'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다섯 번째, 놀지 못할 때 무엇을 하는지 '학원속제', '공부'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문제점	아동의 노는 시간이 너무너무 없다. 놀 시간도 없고, 친구들과의 관계형성도 힘들고, 쉬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쉬지 못한다.		
제안 내용	학부모들의 협조로 아동들의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놀권리 교육을 진행한다. 아동이 놀 수 있는 시간을 개인당 정해줘 지정해주는 법도 마련해야 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제주	아동 성명	조○○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아동 놀권리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놀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 대한 질문에 놀권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놀권리는 당연한 것이고, 아동들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 보장을 받아야한다. 없어서는 안될 권리, 아동인권은 침해되면 안된다는 답변이 나왔다.		
문제점	놀 권리에 대하여 모르는 아동들이 있다. 놀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심각한 스트레스와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제안 내용	아동권리와 관련한 설문조사와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은 실시한다. 학교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놀권리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포스터, SNS)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제주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제주	아동 성명	한○○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아동들의 놀 권리에 대해 캠페인을 하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거의 아동들이 없다고는 하지만 놀 권리에 대한 것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몇 명의 사람들은 놀 권리에 대해 모른다고 하였다.		
문제점	안다고 하면서도 분명히 놀 권리를 모르는 아동이 있다는 것이다. 누리지 못하는 권리를 잘 알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제안 내용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정부에서 지원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먼저 계기가 되어 놀 권리를 알리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제주	아동 성명	한○○
활동 주제	나의 놀 권리, 우리의 놀 권리: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		
현황 및 실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생각을 인터뷰한 결과, 크게 8가지 의견이 있었다. '놀 권리 또한 인권이니 보장받아야 한다', '아동에게 꼭 없어서는 안될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놀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놀 권리가 당연히 있어야 하고, 인권이 있으니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 등등 이렇듯 대부분이 아동들에게 놀 권리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문제점	캠페인 설문 결과 놀 권리에 대해 대부분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도 문제이다.		
제안 내용	놀 권리의 개념과 정의를 설명해주고, 아동에게 놀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에서 놀 권리 인식을 교육을 진행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충남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충남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인권 3차회의 (충남권) -10월 21일 대전 유성구에서 진행.		
현황 및 실태	유해환경 중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해 본문을 정리함. 필자는 교사흡연을 맡아 소논문 형식으로 요약한 뒤 탐구성원과 함께 사례를 정리하고 통계자료에서 서술형을 파트 별로 구분함. 교사의 흡연은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암묵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이를 막을 방안 혹은 법률이 아주 적어 속수무책이었음.		
문제점	유해환경에서 흡연구역을 조사하는 학생들과 학생흡연을 조사하는 학생, 교사흡연을 조사하는 학생들이 각각 있었음. 근데 교사흡연을 조사하는 학생들의 자료에서는 학생흡연보다 교사흡연이 더 심각하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었고 학생흡연을 조사하는 학생들의 자료에는 학생흡연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자료가 있어서 약간의 혼란이 있었음. 이에 대해 편향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동등한 관점으로 바라보아 해결		
제안 내용	서론, 본문이 일추 정리가 되어 10월 26일까지 단독방에 올라온 뒤 피드백을 받기로 함(실제 10월 26일 9쪽의 서론+결론의 소논문이 완성) 10월 28일, 시간이 될 때 카톡으로 모여 채팅방에서 회의가 있을 예정. 금요일에 언젠가 좋은 확답일 예정/ -회의한 뒤에 캠페인 날짜를 정할 예정. 정소는 대전 은행동일 확률이 높으며 스티커와 서명운동을 할 가능성이 크니 캠페인하여 조율할 예정이며 11월 초에 시행이 예정 결론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논문을 다음카톡에 올리기로 함.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충남	아동 성명	선○○
활동 주제	마지막 보고서인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해 의견 모으기		
현황 및 실태	최종보고서 본문에 들어가는 문헌 자료(인터넷 기사, 신문 기사)들을 조사했습니다. 내용 : 1. 학생흡연 조사 2. 교사흡연 조사		
문제점	자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자료조사에 애를 먹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없기에 그 기사들의 신뢰성을 잘 따지면서 선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안 내용	본문 및 서문에 들어갈 내용 정리 후 취합하고 10월 27일~28일 온라인 회의를 통하여 본문 및 서문에 들어갈 내용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후 수정을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출일	2018년 11월 10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충남	아동 성명	신○○
활동 주제	금연구역		
현황 및 실태	대상: 세종,대전, 공주 지역 등의 중고등학생 122명 1) 금연구역 인식 61.5%의 학생은 학교 인근이 금연구역인줄 알고 있으나 정확한 범위를 모르고 있으며 21.3%의 학생은 학교 인근이 금연구역인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17.2%의 학생에게 정확한 금연구역 범위를 물었더니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37.1%밖에 되지 않았다. 2) 학교 앞에서 금연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질문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수는 12.3% 잘 모르겠다 23%,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63.3%였다. 학교 인근에서 주로 흡연하는 대상을 물어 질문(복수응답 가능)에서는 각각 학생 52%, 교사 56%, 인근주민 48%로 나왔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가 이루어지는 일인을 직접적인 규제가 어려워져서, 금연구역인지 몰라서, 금연구역인지는 알지만 정확한 범위를 몰라서, 흡연구역이 부족해서 등의 답변이 나왔다. 3)고내에서 흡연하는 교사를 목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는 45.9%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54.1%였다. 주로 학교나 체육관 뒤, 분리수거장 등에서 목격하였으며 수업 중 냄새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교실이나 교실부에서 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고내에서 흡연하는 교사가 몇 명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도 없다 8.2%, 1-2명 18.9%, 3-4명 30.3%, 5명 이상 42.6%로 나왔다. 고내가 금연구역인 것을 알고있는 응답자는 84.4%로 많았으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아니므로 응답한 학생이 63.9%로 절반이 넘었다. 그 이유는 (주관식) 강력한 제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27명) 준법정신 부족(16명), 흡연구역 없음(8명)이 그 뒤를 따랐다. 또한 신고할 수 없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신고해서 불편한 상황을 만들기가 싫다는 응답이 있었다. 교사의 고내흡연이 학생에게 학업적, 생활적으로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학생이 74.6%였으며 그 이유(주관식)를 간접흡연으로 받은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83명) 그 외 교사를 모방하여 학생의 흡연이 일어날 수 있음, 교사의 흡연물품을 학생이 절도할 가능성이 있음, 교사에게서 나는 담배 냄새로 학생의 흡연을 규제하기 힘들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피해를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냄새가 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신다, 안 보이는 장소에서 피기 때문, 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문제점	학교 근방이 흡연 위험에 노출돼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조사 결과 전국 통학로 200곳 중 4곳을 제외한 196곳(98%)에서 지속해서 흡연이 발생했다.		

제안 내용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아닌 흡연구역을 설정하여 관리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아닌 아동들 기준으로 근처에 아동이 있을 경우 흡연행위 금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강력규제 또한 고내 흡연하는 교사의 경우 흡연시설을 제공하고 그 외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강력한 처벌 필요, 캠페인		
제출일	2018년 11월 10일		

충남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충남	아동 성명	음○○
활동 주제	아동 유해환경 (흡연)		
현황 및 실태	<p>서론 : 연구의 필요성(유해환경 중 가장 해결이 가장 필요한 것 아동인권), 연구문제(금연구역, 교사흡연, 학생흡연에 대해 아동이 피해 받고 있는 부분들), 연구가설, 용어의 정리(추가보고서 참고)</p> <p>본론 : 문헌 조사, 사례, 뉴스기사, 논문 조사 (공통) 금연구역 - 금연구역 범위, 2차 3차 흡연 조사, 실태 교사흡연 -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현재 학교의 실태 조사, / 관련 사례, 기사, 논문 학생흡연 - 학교, 아파트 또는 주택가, 상가, 학원 근처 청소년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서 청소년의 흡연행위를 쉽게 접함</p> <p>결론 : 해결책 제시, 아동권리 관점 해석 필요, 집중하여 다룰 문제, 바뀌어야 할 점, 추후 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점</p> <p>*문헌 조사, 사례, 뉴스기사, 논문 조사 = 꼭 출처와 근거 밝히기</p>		
문제점	들었던 기사 내용을 찾기 힘들 역할 분배에 어려움 겪음		
제안 내용	10/21 본론팀 각자 파트 정리해서 위함 10/24 서론 정리해서 검토 10/27, 10/28 온라인(카톡)회의 진행 - 서론&본론 피드백, 결론 다 같이 쓰기. 10월 말&11월 초 대전 은행동에서 캠페인 진행 예정- 의견조사(스티커 이용)와 서명운동		
제출일	2018년 10월 23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충남권	아동 성명	정○○
활동 주제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해 서론, 본론에 들어갈 내용 의견취합		
현황 및 실태	<p>본론에는 대부분 문헌조사를 했던 내용을 넣었습니다. (인터넷 기사, 신문 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연구역은 현황 조사 및 2차 피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 교사흡연은 교사흡연에 대하여 문헌(현황)조사를 하였습니다. <p>ex)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흡연은 학교 주변, 학원가 주변, 길거리에서 학생의 흡연으로 아동이 피해를 입는 상황들을 위주로 문헌조사를 하였습니다. ex)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학원가나 놀이시설 같은 공공시설에서 흡연행위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문제점	본론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하다 보니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간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다양하지 못한 문헌 자료들로 인해 금연구역, 교사흡연, 학생흡연이라고 구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문헌 자료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안 내용	본론 및 서론에 들어갈 내용 정리 후 취합하고 10월 27~28일 온라인 회의를 통하여 본론 및 서론에 들어갈 내용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후 수정을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출일	2018년 11월 10일		

충북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권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충북권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노동권		
현황 및 실태	청소년들 38명 중 17명은 아르바이트 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교육 받지 못했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알바를 해본 청소년들 중 아르바이트를 할 때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였습니까? 라는 답변의 응답 없음이 32명이다. 이걸 봐서 청소년들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한 대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고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현실에도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어쩔 수 없이 억울하고 힘든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문제점	부당한 대우 속에도 경찰에 신고하면 자른다든 사장님들과 최저임금이라도 달라고 말하면 사장님들은 비아냥거리며 그만두라는 등의 화만 낸다. 이러한 사장님들은 알바생들을 인간의 대우조차도 해주지 않는다. 이러한 대우도 못 받는 알바생들은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이다.		
제안 내용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이 있지만, 현실에선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동들은 보장받기가 더 어렵다. 그러므로 아동들을 위한 노동권을 법으로 보장해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아동들을 위해 알바법을 만든다. 이 알바법은 국가에서 아동들이 할 만한 일이나 최저 시급이랑 안전한지 판단해 아동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충북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들의 노동권 문제		
현황 및 실태	 <p>10월 초 보은에서 진행된 아동인권 행사에서 우리 충북지역 LENS팀원들은 이번 행사에서 청소년의 노동권 관련 캠페인과 함께 진행된 설문조사와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들을 취합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아동들이 30%가 아동들의 노동권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걱정을 느꼈다. 그 결과 저번 활동에서의 인터뷰에서 나왔던 내용처럼 설문조사에서 아동들이 노동하면서 부모동의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한다는 것이 무용담 44명이란 것에서 증명된다.</p>		
문제점	내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년들이 법적 태두리 밖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의 부족한 노동 관련 교육과 고용주의 법을 무시한 채용이 빚어준 많은 사고들이 평상시에 무수히 많이 일어나는데도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아동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시고의 책임을 다 덮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동들이 법적 태두리 밖에서 노동을 할 때 4대 권리가 침해당하여도 손을 쓸 수가 없다.		
제안 내용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동들의 부족한 노동관련 교육을 증진하기 위해 1년마다 학교에서 정해진 수 만큼 학교폭력 교육을 진행하는 것처럼 정부도 아동들의 노동권 관련 문제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아동들의 노동권 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고용주들에게도 투명한 채용을 하기 위해서도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고용주, 아동들에게 정기적이고 투명한 교육 실시를 제안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충북	아동 성명	민○○
활동 주제	청소년의 노동권		
현황 및 실태	청소년은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듣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종종 겪음. 그렇지만 노동권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제대로 된 대처를 취하지 못함.		
문제점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교육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함. 또, 점주들은 이러한 점과 처벌이 미미한 점을 악용하여 더욱 부당한 대우를 취함.		
제안 내용	점주와 노동 청소년에게 노동권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행하며, 부당한 대우를 신고하는 청소년을 보호해주고 처벌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해줘야 함.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충북	아동 성명	송○○
활동 주제	청소년 노동권		
현황 및 실태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3%의 아동들이 미래에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30%의 아동들이 노동권에 배우지 못하고 있었고 44명의 아동들이 노동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나, 부모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동을 한다는 것에 '응답없음'을 답하였다. 설문조사를 봤을 때 많은 아동들이 노동 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그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문제점	아동들은 노동권이라는 권리가 지켜져야 하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고 그 교육조차 무의미하다.		
제안 내용	아동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과 정책은 이미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특히 최저임금 보장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정책을 더욱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노동 관련 교육을 의미있게 실시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의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 같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충북권	아동 성명	이○○
활동 주제	아동의 노동권		
현황 및 실태	노동권에 대한 설문은 조사했다. 정주의 아동을 대상38명을 조사한 결과 100%의 청소년이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권리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예 18% 아니요가 81%가 나왔다. 또한,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전혀없다 10%,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다 73%, 응답없음 15%가 나왔다.		
문제점	청소년들이 노동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노동을 하고 있다.		
제안 내용	학교에서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충북 - 모니터링단 10월 활동보고서 (전국별)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충북권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국가별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의 1위는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유니세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참고) 이것을 보면 학교, 학원, 공부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뜻이다. 이것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가 된다. 이처럼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나라를 이끌어 갈 청소년(아동)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내리게 된다.		
문제점	어린 아동들도 벌써 수학, 영어를 배우는 등 조기교육을 해서 아동들이 노는 시간보다 학원이나 유치원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조기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누리야 할 권리인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여러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제안 내용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려면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공부해야 할 시간을 정해 학원이나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을 넘기거나 여기저기 벌칙 처벌을 받게 해서 아동들이 쉬거나 놀 수 있는 시간을 국가에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LENS'로 활동하며 기간을 짧았지만 훌륭한 권리인 아동의 놀 권리를 알게 됨으로써 대다수 모르는 아동들을 위해 학교에서 의무 교육으로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누리야 할 권리를 교육해줌으로써 그들이 누리야 할 권리를 누리며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충북	아동 성명	민○○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공교육의 틀에서 보장해주지 못하는 놀 권리와 건전하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한 현재 아동들의 놀이 실태.		
문제점	과도한 학업과 사교육 때문에 밤낮으로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공교육에서조차 대학 입시만을 중시하여 놀 권리와 놀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교육조차 하지 못함.		
제안 내용	놀 권리에 대한 교육과 건전하고 건강한 놀이에 대해 교육을 보장해야 함. 과도한 사교육을 제한하여 아동들의 놀 권리를 직접적으로 보장해야 함. 또한, 공교육 속에 놀이에 대한 교육과 놀이를 포함함으로써 공교육의 틀 속에서 아동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놀이를 보장해야 함.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충북	아동 성명	김○○
활동 주제	아동들의 놀 권리 문제		
현황 및 실태	3달동안 진행된 활동을 통해서 왜 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가?에서 우리는 몇가지 이유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1.아동들이 여가를 즐기거나 놀 수 있는 장소가 한정적(PC방,코인노래방등) 그렇기 때문에 아동들이 건강하게 놀지 못함으로 거북목 증후군등 다수발생 2.너무나도 입시만을 바라보는 치열한 경쟁교육체제 -이로인해 아동들은 공부에 치여 진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나가지 못함, 또한 1에서 말했던 것처럼 학생들이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스마트폰, 게임등을 푼다보니 건강하게 놀 환경이 조성되지 못함. 극단적으로는 청소년의 자살로도 이어질 수도 있음 (OECD 청소년 자살율 1위)		
문제점	위의 현황 및 실태에서 밝혔던 것처럼 문제점으로는 1.아동들이 여가를 즐기거나 놀 수 있는 장소가 한정적 2.너무나도 입시만을 바라보는 치열한 경쟁교육체제		
제안 내용	아동들이 여가를 즐기거나 놀 수 있는 장소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정부나 학교에서는 육체적이며 활동적인 프로그램 또는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장소들을 조성해야 한다. 또 대한민국의 치열한 입시만을 바라보는 교육환경에서의 아이들이 지쳐나가는 것과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노는 법을 잊어버리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장하여 학생들에게 휴식과 현재 너무나도 틀에 갇혀있는 자유학기제 교육제도를 현재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제도로 개편하여 아이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체험을 하면서 진로를 개척해나가면서 지쳐버린 아이들에게 휴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아동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같은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확장 2. 자유학기제 제도를 개편하여 아동들에게 휴식과 틀에 갇혀있는 한정적인 교육제도를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개편해주세요.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월간 활동보고서(아동용)

권역	충북권	아동 성명	이○○
활동 주제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는 이상적인 놀이 환경의 필수 요소로 총 13가지를 뽑았다. 스트레스가 없으며, 소외와 편견, 위험, 어른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하고, 자연환경과 동물의 경험할 수 있어야 하며, 상상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문제점	이러한 놀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여러 가지의 장애물이 있다. 놀이와 여가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환경일수록 어른들은 놀이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제안 내용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한 충분한 배경을 명시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 어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제출일	2018년 10월 28일		

모니터링단 소감문

아동 인권 모니터링단 LENS 활동 소감문

참여자 1 강원지역

LENS에 가입하여 전국주제/지역주제인 아동의 놀 권리와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전에 알지 못했던 놀 권리와 유해환경에 대한 법률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유해환경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돌아다니며 학교 주변에 얼마나 유해환경이 많은지 알아볼 수 있었다. 전에는 유해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학교 근처에도 많았고 심지어 초등학교 주변에도 유해환경이 많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놀 권리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를 위해 종이설문지를 돌려서 학생들이 학업에 관한 문제로 가장 많이 놀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나도 학업에 관한 문제로 가끔 잘 놀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 아쉬운점이 있었다. 그리고 놀 권리 인터뷰를 통해서 단순히 학업에 관한 문제말고도 몇 명의 개인적인 놀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들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돈 부족 및 부모님과의 문제에 대해 놀 권리가 침해 된다는 경우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 유해환경에 관한 캠페인 활동으로 나는 전에 조사하였던 것보다 더 자세한 법률을 알 수 있게 되었고, LENS에 같이 가입된 친구들과 해결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도 해보면서 학교주변 유해환경에 대한 문제를 전보다 더 깊게 생각하게 된 것 같다.

마지막으로 참여한 캠페인은 직접 피켓을 제작하면서 피켓에 무슨 내용을 넣을지 고민을 해보며 만들었고, 캠페인을 직접 참여하면서 학생들의 인식을 알게 되었다. 내가 LENS에 가입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학생들이 법률에 관해 모르는 것이 많았다. LENS 활동이 끝나더라도 유해환경 및 놀 권리에 관해 앞으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깊게 생각해야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참여자 2 강원지역

원래부터 인권과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모니터링단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 서울에서 발대식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니터링단원들이 모였다. 생각보다 이 활동에 참

여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많아서 깜짝 놀랐다. 나와 같이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청소년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것을 보고 정말 기뻐다. 발대식을 진행하면서 아동인권모니터링단이 하는 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 보고서 작성법도 알게 되었다. 사실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신청하기는 했지만 정확히 아동인권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하였다. 또한 ‘놀 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 날 발대식의 특강을 다 듣고 나니 어느 정도 활동 내용과 계획을 이해하게 되었고 보고서도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조금은 감이 잡혔다. 이날 발대식 때 우리 권역은 ‘학교 폭력’이라는 주제를 정했다. 발대식 이후 월 마다 정기적으로 우리 권역(제주) 모니터링단과 만나며 어떤 활동을 해서 아동 인권을 모니터링할지 대화를 나눴다. 사실 우리는 친구들을 제외하고 발대식에서 처음 만난 사이여서 처음 정기 모임 때는 정말 어색했다. (사실 발대식 때도 굉장히 어색했다.) 그러나 여러 번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조금씩 서로 친근해졌던 것 같다. ‘아동 인권을 향상시키자’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서로 더 잘 통했던 것 같기도 하다. 오랜 시간을 회의 하고, 보고서를 쓰고 나면 허기가 지기 마련이다. 우리 권역 모니터링단은 매일 저녁을 같이 먹었다.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으니 정말 좋았다. 학교 폭력을 주제로 캠페인을 하기로 정한 이후 설문 문항을 정하고 실제로 거리에 나가서 설문 조사 활동을 하였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학교 폭력 실태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다.

그동안의 LENS활동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경험과 지식을 얻었다. 인권에 관심이 있었지만 잘 알지 못했던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들의 인권 문제, 학업에 치여 제대로 놀지 못하는 아동들의 문제를 더 잘 알고 공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 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활동을 하며 좋은 인연, 배움을 얻어가는 것 같아 뿌듯하다. 다음에도 이런 인권 관련 활동이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고 주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아동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청소년)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참여자 3 강원지역

이 LENS 라는 동아리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는데 그중 첫 번째는 아동의 놀 권리였다. 당시에

나는 놀 권리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았다. 나중에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고나서 여러 사람들과 토의를 하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놀 권리의 내용과 법률을 처음 알게 된 후에 나와 주변친구들 또한 연관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여 조항을 더 찾아본거 같다. 우선처음 회의 때는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설문조사 (인식조사)를 진행 하였는데 주변친구들 또한 모른다고 설문한사람들이 많았다. 이후에는 설문한 것을 토대로 인터뷰와 캠페인을 진행하셨는데 조사를 하고 캠페인을 할수록 나의 지식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학교의 강제 야간 자율 학습이나 보충등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놀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그 밖에 시설이나 자신만의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 또한 대부분 아르바이트나 집에서의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등 여가 활동을 위한 시설이 마땅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두 번째로는 지역 주제는 학교 주변의 유해 환경이었다. 평소에 유해환경을 신경을 안쓰고 다녔는데 이 활동이후로 유해환경이 눈에 많이 들어왔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법률도 있었는데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이 접근하면 안된다는 절대,상대 보호 구역을 알게되었으며 이 또한 회의를 통한 내용을 바탕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여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과 절대,상대 보호구역 등을 알고 인식조사 또한 진행하게 되었다. 이것또한 모르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었고 비행에 영향을 끼치며 법률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가 절반 이상이였다. 이 활동을 통하여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캠페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많이 알게되면 좋겠고 아동의 놀 권리는 계속해서 퍼져나가 개선되고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동아리 활동으로 처음에는 이걸로 뭐가 바뀔까 생각했지만 캠페인을 하다보면 시간가는줄 모르고 캠페인을 하고있고 자신감도 생겼으며 충분히 보람찬 일을 하여 즐거웠다. 또한 코디님과 동아리원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과 해결책을 내고 이로 인해 나의 인식이 넓혀지는 과정이 좋았던거 같다. 전국의 LENS 원들로 인해 더욱더 개선되고 앞으로 활동한다고 하면 계속 할거 같다. 지식과 인식등 얻어가는게 많은 활동이었으며 의미있었던 거 같다.

참여자 4 경기도역

짧지만 길었던 3개월의 활동이 벌써 마무리되어가 소감문을 쓰고 있으니 기분이 참 묘하다. 소감문을 쓰고 있는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내가 썼던 자기소개와 지원동기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다시 찾아서 읽어보았다. 그것에는 내 십여 년의 인생에서 겪은 다양한 좌절들이 만들어낸 내 꿈이 담겨있었다. 3개월 전 나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꿈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짧다고 생각했던 3개월이 나에게 큰 변화를 줘 이제는 3개월이란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짧지만 길었던 3개월의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페이스북에서 본 2018년 아동권리 당사자 모니터링단 ; LENS 모집글을 보고 지원하고, 결국 붙어버려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었다. 긴 이름만큼 목적이 깊고 활동이 무거울 것 같아 내가 그런 대단한 곳에 소속되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고 지원한 것만으로 경험이라며 만족했기 때문이다. 붙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기쁜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아동들과 벽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같이 지원했던 친구와 같이 붙어 마음이 좀 놓였던 것 같다. 내가 걱정을 할 때 기운을 북돋아 줬던 그 친구에게 너무 고맙다. 설렘과 긴장을 한 마음에 가득 담고 갔던 발대식에서 내 이름이 적힌 것을 목에 걸고 들어갈 때 그제서야 확실히 실감이 나면서 활동을 진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양호승 회장님의 인사말과 국가인권위원회 윤채완 아동청소년인권과장님의 축사를 들으면서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평소 행사의 인사말과 축사를 대충 들었던 내가 과거를 반성하면서 가장 집중해서 들은 인사말과 축사였기에 기억에 남는다.

내가 자퇴를 선택하게 되었던 수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였던 놀 권리가 모니터링의 주제였기에, 나는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발대식에서 해주셨던 아동 놀 권리 교육을 들으면서 다양한 감정이 들었었다. 안 그래 보이지만 눈물이 많은 성격을 가진 나라서, 사실 눈물을 참느라 힘들 때도 있었다. 나는 나의 놀 권리를 위해 자퇴를 했지만 그것은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고 했던 행동이었기에 교육을 들으면서 예전보다 여유로워진 지금부터는 다른 아동들의 놀 권리를 위해서도 행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나의 아픔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헤쳐 나가는 사람보다는 내 아픔, 다른 사람들의 아픔, 모든 것을 보고 함께 헤쳐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발대식 때부터 생각해오고 있는 이것은 아직까지도 나의 목표 중 하나이다.

생각이 많았던 발대식 이후, 첫 모임에는 여전히 발대식 때의 어색함이 있었지만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찌면 만날 접점이 없었을지도 몰랐을 사람들을 알게 되는 것이 정말 재밌었다. 아직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었지만 학교 밖 청소년 커뮤니티에서는 차별을 당했다는 많은 사연들을 보았기 때문에 자퇴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내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 때문에 모니터링단 활동 전에 걱정을 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활동을 하면서 그런 걱

정들이 깔끔하게 지워졌다.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언급할 때 조심스러워하는 단원들의 모습이 느껴져서 티는 안냈지만 많이 고맙았다. 그리고 단원들뿐만 아니라 코디네이터님도 참 고맙았다. 우리 경기권역 오○○ 코디네이터님은 발대식 때부터 어색한 분위기를 뽐어내는 우리 모니터링단 단원들의 분위기를 풀고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많이 노력하셨다. 이런 활동이 처음이라 막막하게 느끼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도와주셨다. 번거로우셨을 텐데 매달 모임 전,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게 하셔서 모니터링단원들끼리 의견을 주고받고 정리하고 모으기 더욱 쉬웠던 것 같다. 그에 대한 피드백도 따로 해주시고 경기권역 모니터링단이 제일 잘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웃으시던 걸 보고, 이 활동에 정말 적합한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활동을 하는 내내 코디네이터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보니 첫 모임에서 결정된 페이스북 페이지 <Corn CHIP>을 만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페이스북 페이지의 이름을 짓느라 진땀을 뺐었는데 “CH’ildren are ‘I’m’P’ortant.” 라는 뜻으로 만들었던 초기의 마음가짐 그대로 우리 경기권역 모니터링단은 정말 중요한 아동들의 권리를 위해 열심히 활동했다고 생각한다. 참여하기만 해본 손글씨 캠페인을 진행하고, 카페에서 캠페인 준비를 해 캠페인을 하면서 돌아다녔던 흥대, 모든 것이 함께가 아니었다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추억이자 값진 경험이었다. 아동이 중요하다라는 이념으로 시작하여 아동권리 당사자 모니터링단 ; LENS, 그리고 경기권역 모니터링단원들, 코디네이터님과의 만남이 중요하고 소중한다는 생각이 더해졌다. 내년엔 수험생이 되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런 활동을 하지 않고 학업에 열중할 계획이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니 내가 기회를 만들어 이런 활동을 계속 할 것이다. 활동을 하면서 모자란 부분도 많았지만 다음에 하게 될 활동은 이번 경험을 토대로 더욱 능력 있게 잘 해내고 싶다. 아동권리 당사자 모니터링단 ; LENS 활동을 하게 해주신, 도와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는 바이다.

내 소감문의 마지막 줄은 행복한 활동이었다는 말로 마무리 짓고 싶다.

참여자 5 경기지역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LENS를 하면서, 아동인권에 대해 평소에 관심이 많았지만, 비난을 했었고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였기에 비판을 하지 못했었다.

LENS를 통해 아동인권에 대해 더 관심을 갖을 수 있게 되었고, 직접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아

동인권에 묻고, 함께 체험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아동인권에 대해 한걸음 다가간 것 같아 뿌듯했으며, 평소에도 아동인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보니, 내가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했으며, 인권을 보호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었으며, 친구들의 인권과 나의 인권을 좀 더 소중히 생각하게 되어 행동도 조심스러워 지고 말투도 많이 바뀌었다.

LENS 활동을 하며 주변인들에게 설문을 돌렸기 때문에 친구들이 아동인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느꼈고, 계속 하여 설문과, 카드뉴스, 활동한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 했더니 아동인권에 관한 관심을 갖는 친구가 많이 늘어났으며,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활동을 부러워 하며 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아동인권을 위해 활동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도 듣고, 멋있다는 말도 들었기 때문에 뿌듯하면서 책임감이 생겨 활동에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다.

아동인권 모니터링을 하며, 그동안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들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부당한 일은 항의 할 수 있었다.

LENS에 아동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수의 사람이 함께 하였기에 인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 된 것 같다.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칭찬하며 의견을 실행 해 보았기 때문에, 실행 하는 과정에서 더 용기를 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 내가 알지 못한 아동인권의 내용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비록 지금은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이 1기지만, 이를 계기로 2기, 3기를 모집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동인권에 대해 생각해보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2기 3기가 만들어진다면, 1기 멤버들의 구성원은 달라지겠지만, 아동인권에 대해 계속하여 생각하며 보호 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갖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참여자 6 경남지역

안녕하세요, 저는 LENS 모니터링단 경남권의 전포초등학교 6학년 류○○이라고 합니다. 아는 언니와 학원선생님의 추천으로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발대식에 참석할 때는 ‘우와 서울 간다!’ 이런 기분으로 서울에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강연장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기분이 사라졌습니다. 저희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언니 오빠들이 앉아있었습니다. 강사 선생님의

강의와 오빠들의 발표를 듣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동의 권리 같은 것은 유니세프 활동을 하면서 많이 듣고 배우고 접해봤지만, 제가 아는 내용이 많이 없어서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될 쯤 지역별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다룰 주제를 정하는 것이었는데, 제 앞에서는 제가 모르는 어려운 낱말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서로 의견을 잘 주고받고 있었는데, 저희가 기초적인 단어를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게 겁이 났었지만 저는 저를 위해, 저의 친구들을 위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언니 오빠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보고서 계획안을 써서 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고 계획안 같은 것도 써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게 보고서 쓰는 것을 도와줄 언니나 오빠도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고서와 보고서 계획안을 썼습니다.

저희 경남권의 주제는 학생인권조례와 아동의 놀 권리입니다. 처음에 보고서를 내야하는 날이 왔을 때 저는 보고서 제출을 깜빡 잊고 있다가 그날 밤에 늦게까지 써서 냈습니다. 선생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9월 보고서도 열심히 자료를 찾아 8월보다는 조금 더 적어서 냈었습니다. 제가 조금씩 늦을 때마다 기다려주시고 괜찮다고 해주시는 저희 경남권 코디선생님 박○○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10월에 서면에서 캠페인 활동을 했는데 저는 학교행사로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캠페인이 가장 기다렸던 활동이었는데 못 가서 너무 아쉬웠었습니다. 또 저희 팀은 UCC를 제작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저희 UCC에서 한 역할을 도와주셨습니다. UCC는 '나혼자 산다' 컨셉입니다. A는 사교육에 얽혀 살고 B는 사교육을 하나도 받지 않아 놀 친구가 없어 슬퍼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A만큼은 아니지만 학원을 많이 다니긴 하는데, LENS모임을 통해 사교육의 문제점들을 알게 되고 쉬고 싶어서 잠시 학원을 쉬고 있습니다.

요즘 학원의 운영 마감시간은 10시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학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LENS활동으로 인해 제가 몰랐던 것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고 다음 cafe에 들어가서 언니 오빠들의 보고서를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런 활동을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저희 학원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저희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박진경 멘토선생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때까지 같이해온 LENS 경남권 팀원들에게도 고맙습니다.

참여자 7 경남지역

나는 본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거의 매일 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반성문을 친구한테 쓰라고 강요하거나 많은 숙제를 내주는 것부터 심지어 체벌을 대체하기 위한 상벌점 시스템마저 엄연한 인권침해라고 항의를 했었다. 학교의 두발규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가 교무실에 불러갔던 적도 있었다. 상벌점 시스템은 학생이 교칙을 어기는 행동을 하였을 때 벌점을 부과하면 그 즉각 학부모에게 문자가 전송되고 상점 또한 학생의 모범행동에 대한 포상으로 학부모에게 전송이 되는 시스템이다. 난 솔직히 왜 학부모님께까지 문자가 전송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선생님은 엄연히 국가의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께 문자를 전송하는 것은 아동의 정보를 누설하는 권리 침해 행위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본 모니터링단을 수행하면서 오히려 상벌점 시스템이 교칙을 위반했을 때 그 학생의 행동의 잘못됨을 밝히고 고치기 위함이라는 교육기관의 설명보다 더욱 학교의 분위기를 보호하여, 타 학생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게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내가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면서 평소보다 유심히 관찰한 결과 반 전원이 30명이라고 가정할 때, 분명히 6명 이상의 그룹이 수업 중에 혼란을 야기하여 수업을 방해하였다. 불과 며칠 전에도 이러한 심각한 사건을 겪었었다. 수업을 방해하는 그룹은 나머지의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탈취한다. 이 때문에 공부하고 싶은 맘이 없어지기도 한다. 수업을 방해하는 그룹은 항상 방해하고 선생님께 벌점은 제발 면해달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알겠다, 다음엔 조용히 해라“라고 하시면서 넘어가는데 이렇게 벌점을 부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 수업시간에도 방해가 계속되는 모습을 난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벌점을 부과 받았을 때는 조용해지며 타 학생들과 동일한 모습을 취했다. 난 이러한 사례들로 비추어보아, 아동의 인권을 무작정 존중해주면 타 학생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내가 관찰한 반은 한 반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의 학급 현황을 보여준다고는 장담하지 못 한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보편적인 사례라고 믿는다. 모든 아동의 인권이 균등하게 보장되는 날을 기원하며 본 소감문의 끝을 밝힌다.

참여자 8 경북지역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아동 인권 지킴이 활동을 했었다. 1기 활동 때는 참여권이 주제였고, 2기 활동 때는 노동권이 주제였다. 아동 인권 지킴이 활동 전에는 아동 인권에 관심이 아예 없었지만 이 활동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고, 활동 전보다는 아동 인권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다. 자연스럽게 LENS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위에도 적었듯이 나름 관심이 많고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가입 신청서부터 나를 당황하게 했다. 첫 번째 LENS 활동의 전국 주제가 아동의 놀 권리라고 했다. 부끄럽지만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다. 나중에 LENS 활동을 시작하고 난 후 알게 된 내용이지만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명시되어있는 조항이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31조 ;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처음 알게 된 이야기였고, 알고 난 후에는 교육열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 나 뿐만 아니라 친구들, 동생, 모든 아동들에게 너무 직접적 연관이 있는 내용이라 더욱 관심 있게 알아보았던 것 같다. 8월달에는 전체적인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다. 아니나 다를까 아동에게 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아동들이 결과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그래도 적어도 내가, 또 다른 팀원들이 설문 조사한 대상들은 아동들의 놀 권리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9월달에는 심층 인터뷰를, 10월달에는 관련 내용으로 캠페인을 했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생각을 할수록 이 주제에 대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나왔다. 일단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했고, 그밖에도 우리나라 교육 제도상 특히 고등학생들은 보충이니 야간자율학습이니 여러 가지 요인들로 놀 권리가 거의 지켜지지 못한다. 또 아동들의 놀 장소가 마땅치 않았고, 놀고 여유시간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대부분 노는 시간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하는 등 놀이 문화가 건강하지 못했다. 외국의 경우에는 아동들의 놀 권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지켜진다. 내가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LENS처럼 아동 인권 단체의 꾸준한 활동으로 조금씩 바뀌길 기대해봐야겠다.

경북 지역 권역 주제로는 첫날 팀원들과 토의 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로 정했다. 평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미세먼지로 인해 야구 경기가 취소되고, 학교에서 야외활동 금지 방송이 나와 운동장 사용이 금지되면서 그 심각성을 조금씩 실감하고 있었다. 타이밍 좋게 우리 권역 주제가 미세먼지로 채택되면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봄마다 전 국민적으로 화두가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역시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은 아

동들의 놀 권리보다 확실히 높은게 눈에 보였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처 부분에서는 부족한 점이 하나씩 눈에 보였다. 학교 교육이나 사회적으로 계속 경각심을 일깨워주면 충분히 점점 심각해져가는 미세먼지 문제를 대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학교 3학년때도 고등학교 1학년때도 지금도 아동 인권과 나의 희망진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에게 생기부에 쓸 것도 아닌데 왜 하나냐 소리도 들어왔다. 하지만 내가 아동이고, 나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전국에 많은 아동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특히 아동들의 놀 권리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활동으로 물론 힘든 점도 있었지만 충분히 보람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인권 활동 뿐만 아니라 좋은 코디 선생님과 팀원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더욱 즐거웠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야기 하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좋았다. 전국의 LENS 단원들의 결과물들이 아동의 인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활동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다. 얻어가는 게 많은 활동이어서 행복했고, 의미있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생활해야겠다.

참여자 9 경북지역

아동인권 모니터링단을 지금 하지 않았다면, 언제 아동의 놀권리, 인권 등을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잘 알지 못했던게 사실이다. 처음에는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하는게 힘들었다. 근데 벌써 마지막이라는데 믿기지 않았고, 생각해보니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을 해서 좋았었고, 나름 괜찮았던 것 같다.

활동을 하면서 아동의 인권에 대해 배우고 놀권리에 대해 알았고 마지막 활동 때는 밖에 나와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는 캠페인과 조사활동을 하니까 재미있었다. 느낀점은 나도 놀권리가 있고 인권이 있다. 그 어누 누구도 나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에도 이런 활동이 있다면 하고싶다 라고 생각이 들었다. 처음 발대식을 서울에서 진행했을 때, 교육도 받고 점심에 맛있는 비빔밥을 먹어서 기분이 좋았고, 처음에는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아동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또 한달에 한번 만나 인권, 놀권리에 대해 설명해주고 보고서를 적성하는데 귀찮았지만 이제는 쓸 수 없다는게 뭔가 텅빈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또 활동하고 마친 후에 저녁도 먹으러 가니 좋았고, 너무 행복했고 좋았다. 그리고 이 활동을 하기전에 엄마랑 노는것에 대해 의견이 많았는데, 처음 발대식을 다녀온후 그 설명을

엄마에게 말하고 보여주니 예전보다는 노는걸 허락해 준 것 같아서 좋았고, 나도 이제 아동권리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려 줄 수 있게 되서 활동하길 잘했다고 느꼈다. 또, 캠페인을 할 때 츄파춥스 사탕을 주고 홍보를 잘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니 보람도 있었다. 내가 이런 인권 활동을 하다니 자부심을 느꼈다. 내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졌다.

참여자 10 서울지역

나는 아동 모니터링단 서울권에서 활동한 안○○이다.

아동 모니터링단은 나에게 아주 큰 깨달음과 좋은 경험을 주었다. 나는 이런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처음보는 사람들 이랑 같이 조사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무섭고 긴장되었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서울권 단원들은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고 코디네이터 쌤도 어색하지 않게 많은 도움을 주셨다. 내가 이 활동을 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점은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아동들을 만나 나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설문지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나의 주장을 통계자료와 사례로 단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모니터링단의 주제는 아동들의 놀권리와 대학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였다. 아동들의 놀이와 대학은 아주 큰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반 친구들 30명 대상으로 설문지를 나눠주었는데 자기 꿈을 위해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회와 부모님들의 이루지 못한 꿈 또는 그들의 억압 때문에 놀이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아예 없어져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엔 대학을 가기 위해 지금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대학과 놀권리에 대해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 또한 아동의 놀이시간, 또는 나의 놀이시간에 대해서 생각 해보고 고려해 본 적이 있다. 나 또한 부모님의 억압과 대한민국의 냉정한 현실 때문에 오로지 나의 꿈을 위해서가 아니니, 남이 시키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모니터링단을 하면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뜻 깊었던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다. 또한 사회의 문제점과 그 시대의 흐름에 멈춰버린 부모님들의 가치관이 틀렸다는 것을 조사하고 모니터링을 해 우리는 놀권리가 보장되고 있지않자는 것을 깨달았고, 이 문제점을 위해 아동들이 아주 큰 도전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동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꼭 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크게 알아차렸다. 아동들은 자산만의 뚜렷한 진로가 있을 수도 있고, 없다면 다 많은 경험을 통해 꿈을 만들어가면 되

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학원과 학교를 오가며 중학생임에도 힘든 하루를 보내며 살아왔다. 하지만 나는 꿈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내 삶의 아주 큰 변화가 생겼다. 필요 없는 학원은 끊고, 그 시간에 나의 진로에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것도 어쩌면 모니터링단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아마 이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지금도 뻥 센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에서 거의 붙어살고 있을 것이다. 나는 학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학생들의 의무는 공부인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자기의 진로를 아예 무시한 채 무리하게 부모님과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다 해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아동의 권리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자주 찾아서 할 것이다.

참여자 11 서울지역

유스서포터즈와 한국아동단체 협의회에서 진행되는 렌즈프로그램에 참여 했습니다. 렌즈라는 이 프로젝트는 전국의 아동들이 아동인권을 아동들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로 3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의주제인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프로젝트와 서울권역의 주제인 청소년에게 있어서 대학의 의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활동은 선사고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사연구과제와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한 달에 한 번 종료에서 회의를 가지고 매 달 마다 활동보고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10명의 서울 권역 친구들과 대학생 멘토님과 함께 직접 설문지를 만들고 홍보하였고, 아동인권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년 전부터 유엔에서 아동인권 선언을 시작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동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제가 진행했던 선사연구과제의 청소년 참정권 연령하향과 연관시켜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과거 신분이 높은 남성에게만 허락되었던 형태의 참정권이 시간이 지남으로서 모든 남성으로, 또 모든 여성으로 그리고 현재는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참정권 관련 논문에서 학생들이 참정권을 원하는 이유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이안에 아동의 놀 권리 역시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은 많지만 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고, 저와 같은 학생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isn't very good at jobs that require creativity empathy, critical thinking,

leader ship, artistic expression, and whole host of other qualities we traditionally think of as huma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석하자면 AI는 창의성과 공감, 비판적사고, 리더십, 예술적 표현과 같은 것들이 요구되는 일을 잘하지 못한다. 특히 우리가 인간적이다 라고 불리는 일들이 거의 그렇다. 라는 내용입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 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다운일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 인간성을 만드는 일은 놀이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생에게 제대로 노는 법 역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원 전 부터 발달된 수학과 예술들은 모두 놀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발달 한 나라들은 나라자체가 부강했기 때문에 자국민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문화를 발달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 사회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놀 권리를 발달시켜 창의적인인간, 인간다운 인간을 배출 하는 것이 사회의 목표가 되어야하고 이것이 사차산업 혁명이라는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지나기 위해 인간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저 역시 입시를 준비해야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런 활동을 알았다면 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참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자 12 전남지역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해 활동을 하면서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초등학생의 경우도 최근에 들어서 놀 권리의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나 같은 경우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노는 시간이 사라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설문지와 피켓을 직접 만들고 10월 20일과 11월 3일에 했던 놀 권리 가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캠페인을 통해 놀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당연시 여기기엔 놀 권리가 너무 침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동에게 논다는 것은 휴식과 비슷한 의미이다. 그렇게 따지면 아동의 휴식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과 같게 된다. 그리고 놀 권리가 어느 정도 보상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노는 곳의 환경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개선시키기 위해 하는 이러한 활동들에 내가 참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면

서도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 조차도 점점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다. 처음에는 이러한 활동들을 한다고 해서 크게 변할 수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캠페인을 직접 하면서 서명을 받고 설문지를 진행 할 때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설문을 할 때 부모님들이 와서 설문지를 작성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 우리가 설문을 하는 목적이나 이유를 설명해드리면 더 기쁜 마음으로 응해 주시는게 보면서도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엔 이러한 봉사 활동들을 해 본 적이 없어서 낯설고 적응 하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동권리위원회 친구들 하고도 친해지고 활동들에 점점 관심도 생겨서 어느 순간 부터 봉사를 하러 오는게 설레고 재밌었다. 그래서 이번 해가 지나고도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참여하고 싶다.

- 10월 20일 운천저수지에서 놀권리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놀이터 간접흡연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 또는 11월 3일 효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권리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놀이터 간접흡연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참여자 13 전북지역

이번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LENS’ 활동이 본인 스스로부터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평소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아동의 권리 및 정말로 아동들이 원하는 것을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아동의 권리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를 알게 되었고 현재 아동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헌법으로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처벌이 죄질에 맞지 않는 처벌 수위에 이제는 어른들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우리 아동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현상들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직접 거리로 나가 몸으로 부딪히며 아동의 권리를 알리며 시민들이 생각하는 해결방안 등을 들으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아직 더 나은 우리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가짐들을 행동으로 옮기며 충분히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위한 이러한 활동들이 장기적으로 운영되고 지속적인 관심이 더 나은 우리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바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14 충북지역

평소 인권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배우고 싶었었는데, 이번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LENS 활동을 하면서 아동의 권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몰랐었던 아동에 대한 인권, 놀 권리, 학교폭력과 인권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를 하면서부터 배우고 알게 되어서 활동한 시간들이 너무 유익했다. 모니터링단 친구들과, 많은 아동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을 공유하게 되었고, 나와는 또 다른 친구들을 이해하고 아동인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아동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함께 나누고, 어떻게 제안하고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도 우리의 생각이 모여져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 아동의 놀권리, 학교폭력과 인권 실태 등등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왜 지금껏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 온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품게 되었다.

거리로 나가 직접 캠페인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캠페인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도 묻고 답변도 받으면서 우리가 함께 지켜내자고, 같이 해나가자고 말을 전하기도 하였다. 이런 활동을 해서 경험도 쌓고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뿌듯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모니터링단을 해 보고싶다.

2018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인 쇄 : 2018년 11월

발 행 : 2018년 11월

발행인 :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국 아동청소년인권과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2층

전 화 : 02) 2125-9647 F A X : 02) 2125-0929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인쇄처 : 한학문화

ISBN 978-89-6114-652-4 93330

비매품

2018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침해조사국 아동청소년인권과
TEL.02-2125-9647 FAX.02-2125-0929 www.humanrights.go.kr

ISBN 978-89-6114-652-4 93330 비매품